

2024
KICE x EBS



By Kim Seung-ri

이 책의 구성과 특징

KICE × EBS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대비하여 ‘EBS 수능특강 문학’을 분석한 교재입니다. ‘KBS 현대 문학’ 편에서는 수능특강에 수록된 현대 시, 현대 소설, 극 시나리오, 현대 수필 전 작품을 다루고 있습니다.

백석, 「여승」

「합장」: 두 손바닥을 합하여 머릿이 한결같음을 나타냄. 또는 그런 예언.
「여승(女僧)은 합장(合掌)하고 절을 했다」
「가치취의 내용새가 낡다」: 「여승」의 모습 → 속세의 단절되어 있음.
「가치취」: 신자의 발은 속세에서 지나는 참회 내용.
「쓸쓸한 낮이 옛날같이 늙었다」: 「옛날같이 늙었다」: ① 오랜 세월의 통과가 느껴짐. ② 속세의 고통스럽고 지친 삶의 흔적이 여전히 느껴짐.
→ 화자가 전에 「여승」을 만난 지 얼마나 지났는지 짐작할 수 있음.
나는 불경(佛經)처럼 서러워졌다」: 「여승」을 보며 서러움을 느끼는 화자의 모습.
「불경」: 불교의 교리를 밝힌 경전. 불교 경전들 소리 내어 읽히는 것.
「평안도의 어느 산 깊은 금절관」
「금절(金切)관」: 해안에서, 주로 수행암적 방식으로 작업하던 금광의 일터.
나는 파리한 여인에게서 옥수수를 샀다
「파리한」: 몹시 아프고 낯설거나 싫어하는 의미가 있거나 전혀 없음.
여인은 나처럼 딸아이를 때리며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다」
「」: 「파리한 여인」, 즉 「여승」과 만난 「나」의 과거 회상.
→ 현재 「여승」이 된 「여인」의 과거 모습 → 가난하고 고통스러웠던 처지를 부각하여 「여승」의 현생을 강조함.
「설별같이 나카간 지아비 기다려 십 년이 갔다」
「십년」: 너무 오래 걸리고 형편이 나빠서 지나는 것.
지아비는 돌아오지 않고
「도라지꽃」 → 속세의 아이처럼 장난감.
여인 딸은 도라지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다」
「」: 「여승」이 된 「여인」의 과거 모습 → 「여인」의 가난하고 고통스러웠던 처지를 부각하여 「여승」의 현생을 강조함.
→ 「여인」의 가난하고 고통스러웠던 처지를 부각하여 「여승」의 현생을 강조함.
「산(山)평도 설게 읊은 슬픈 날이 있었다」: 「」: 감정 이입 → 「여인」(여승)의 서러움과 슬픔을 부각함

[참상식 해설]

전문 참상식 해설을 통해 작품 이해에 핵심적인 내재적 감상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p>여인에게 “옥수수를 샀던 과거를 떠올리는데, 1연의 내용을 고려할 때 이는 “여승”이 되기 전 “여인”과의 첫 만남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때 “여인”은 “어린 딸아이를 때리며 가을밤같이 차게 울고 있었는데, 이는 “여인”이 처한 현실적인 고난을 드러내는 것으로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여인”의 처지를 부각함으로써 그녀의 한(恨)의 정서를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p> <p>3연에서는 2연에 이어지는 “여인”의 과거 사연이 제시된다. 화자는 “여인”의 “지아비”는 집을 나간 지 십 년이 다 되어 가도록 돌아오지 않고, “어린 딸은 도라지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다”고 말한다. “도라지꽃”과 “돌무덤”이라는 표현을 참고할 때, 이는 어린 딸아이가 죽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p> <p>4연에서는 3연에 이어지는 과거로, “여인”이 “여승”이 되는 장면이 그려진다. “산평도 설게 읊은 슬픈 날”은 “산절의 마당귀”에 “여인의 머리오리가 눈물방울과 같이 떨어질 날”로, 이는 “여인”이 “여승”이 되며 삭방하는 장면을 묘사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앞서 3연의 내용을 고려할 때, 기구하고 비극적인 삶으로 인한 한(恨)을 이기지 못하고 “여인”은 “여승”이 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p> <p>[표현상의 특징]</p> <p>① 직유법을 사용함. ② 「옛날같이」, 「불경(佛經)처럼」, 「가을밤같이」, 「설별같이」 → 대상의 모습 및 화자의 태도를 효과적으로 드러냄.</p> <p>② 대상에 감정을 이입함. ③ 「산(山)평도 설게 읊은 슬픈 날이 있었다」 ④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함. ⑤ 「가치취의 내용새」, 「차게 울었다」, 「산(山)평도 설게 읊은」 → 시작 대상의 비극적 상황을 부각함.</p>	<p>물락과 가족이 해체될 수밖에 없었던 민족 작품이다. 일제의 침략전쟁이 확대됨에 따라 가장 큰 피해를 본 곳은 광업 분야였는데, 어느 산 깊은 금절관을 뚫으며 옥수수 행상인의 운명을 그려낸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일제의 침략전쟁이 확대됨에 따라 가장 큰 피해를 본 곳은 광업 분야였는데, 어느 산 깊은 금절관을 뚫으며 옥수수 행상인의 운명을 그려낸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일제의 침략전쟁이 확대됨에 따라 가장 큰 피해를 본 곳은 광업 분야였는데, 어느 산 깊은 금절관을 뚫으며 옥수수 행상인의 운명을 그려낸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p>
---	--

[표현상의 특징]

표현상의 특징을 제시하고, 해당 표현상의 특징이 나타나는 작품 구절의 예시를 든 후, 그 표현 효과까지 설명하였습니다.

12024 KBS 수능 특강

[이해와 감상]

이 시는 여승이 된 한 여인의 비극적인 삶의 모습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기구한 현실로 인해 여승이 된 여인의 일생을 서사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1연에는 “여승”이 된 여인의 현재 모습이 제시된다. 화자는 “합장”하고 절을 하는 “여승”에게서 “가치취의 내용새”가 나며, 그녀의 “쓸쓸한 낮이 옛날같이 늙었다”고 말하며 “불경처럼 서러워”한다. “가치취의 내용새”와 “쓸쓸한 낮”이라는 표현을 통해 “여승”은 한 많은 사연을 가졌으며, 그로 인해 속세를 떠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한 “여승”의 모습을 보며 화자가 “불경처럼 서러워졌다”라고 말하는 것에서 화자는 “여승”이 된 여인의 기구한 운명에 대해 연민을 느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연에는 과거 “파리한 여인” 즉 “여승”과 만났던 화자의 회상이 제시된다. 화자는 “평안도의 어느 산 깊은 금절관”에서 “파리한 여인”에게 “옥수수를 샀던 과거를 떠올리는데, 1연의 내용을 고려할 때 이는 “여승”이 되기 전 “여인”과의 첫 만남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때 “여인”은 “어린 딸아이를 때리며 가을밤같이 차게 울고 있었는데, 이는 “여인”이 처한 현실적인 고난을 드러내는 것으로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여인”의 처지를 부각함으로써 그녀의 한(恨)의 정서를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3연에서는 2연에 이어지는 “여인”의 과거 사연이 제시된다. 화자는 “여인”의 “지아비”는 집을 나간 지 십 년이 다 되어 가도록 돌아오지 않고, “어린 딸은 도라지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다”고 말한다. “도라지꽃”과 “돌무덤”이라는 표현을 참고할 때, 이는 어린 딸아이가 죽게

[시간의 인과적 구성]

「여승」의 이야기 구조는 「시간」과 「여인」이 여승이 되기까지의 이야기를 시간 순서로 배열해 본다면 2연 → 3연 → 4연 → 1연의 순서가 된다. 여승을 만난 현재의 장면을 1연에, 현재 모습이 2, 3, 4연에 제시하여, 시작 → 현재 모습이 2, 3, 4연에 제시된 과거의 상황으로 인해 여승이 될 수밖에 없었

[1930년대 농촌의 시대상]

「여승」에 나타난 여인의 비극적 삶 시대상과 무관하지 않다. 「여승」은 일제의 침략전쟁이 확대됨에 따라 가장 큰 피해를 본 곳은 광업 분야였는데, 어느 산 깊은 금절관을 뚫으며 옥수수 행상인의 운명을 그려낸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일제의 침략전쟁이 확대됨에 따라 가장 큰 피해를 본 곳은 광업 분야였는데, 어느 산 깊은 금절관을 뚫으며 옥수수 행상인의 운명을 그려낸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작품 해제]

작품의 구성, 진행 단계를 언급하며 작품의 내용을 상세하게 부연하였습니다.

<p>을 형상화한 작품 생을 서사적으로 다. 화자는 “합장”가 나며, 그녀의 “불경처럼 서러워”한다. 통해 “여승”은 한 것임을 짐작할 수 처럼 서러워졌다”다 구한 운명에 대해</p> <p>단 화자의 회상이 “관”에서 “파리한 여인”의 내용을 고려을 말하는 것으로 가을밤같이 차게 울고 있었는데, 이는 “여인”이 처한 현실적인 고난을 드러내는 것으로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여인”의 처지를 부각함으로써 그녀의 한(恨)의 정서를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p>	<p>[시간의 인과적 구성]</p> <p>「여승」의 이야기 구조는 「시간」과 인과적 구성을 이루고 있다. 한 여인이 여승이 되기까지의 이야기를 압축적으로 제시한 이 시는 시간의 흐름을 따르지 않는 역순행적 구조로 구성되어, 이야기를 시간 순서로 배열해 본다면 2연 → 3연 → 4연 → 1연의 순서가 된다. 여승을 만난 현재의 장면을 1연에, 현재 모습이 2, 3, 4연에 제시하여, 시작 화자가 1연에서 만난 여승의 현재 모습이 2, 3, 4연에 제시된 과거의 결과임을 보여주고, 과거의 상황으로 인해 여승이 될 수밖에 없었던 여승의 비극적 삶을 강조하고 있다.</p> <p>[1930년대 농촌의 시대상]</p> <p>「여승」에 나타난 여인의 비극적 삶은 1930년대 일제강점기의 시대상과 무관하지 않다. 「여승」은 일제의 침략전쟁이 확대됨에 따라 가장 큰 피해를 본 곳은 광업 분야였는데, 어느 산 깊은 금절관을 뚫으며 옥수수 행상인의 운명을 그려낸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p>
---	--

[외적 증거]

교과서, 기출 문제, 논문, 학술지 등을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평가원에서 <보기>로 출제할 만한 내용을 제시하여 작품에 대한 심화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Contents

현대시

1. 백석, 「여승」	6P
2. 한하운, 「보리피리」	8P
3. 한용운, 「거짓 이별」	10P
4. 조지훈, 「맹세」	12P
5. 김소월, 「접동새」	14P
6. 김광균, 「수철리」	16P
7. 박용철, 「싸늘한 이마」	18P
8. 박용래, 「월훈」	20P
9. 정지용, 「그의 반」	22P
10. 강은교, 「사랑법」	24P
11. 유치환, 「학」	26P
12. 김용택, 「저 새」	28P
13. 윤동주, 「참회록」	30P
14. 신동엽,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32P
15. 박목월, 「충충계」	36P
16. 이대흠, 「동그라미」	40P
17. 구상, 「초토의 시1」	42P
18. 곽재구, 「새벽 편지」	44P
19. 신경림, 「폐촌행(廢村行)」	46P
20. 고재중, 「세한도」	48P
21. 장석남, 「궁금한 일-박수근의 그림에서」	50P
22. 김명인, 「김정호의 대동여지도」	52P
23. 송수권, 「나팔꽃」	54P
24. 정끝별, 「가지가 담을 넘을 때」	56P
25. 정호승, 「나는 희망을 거절한다」	58P
26. 이한직, 「낙타」	60P
27. 이수익, 「방울 소리」	62P
28. 김춘수, 「능금」	64P
29. 이가림, 「석류」	68P
30. 박재삼, 「흥부 부부상」	70P
31. 김사인, 「지상의 방 한 칸-박영한 님의 제를 빌려」	72P
32. 김광규, 「상행」	74P
33. 김남조, 「생명」	78P
34. 문정희, 「성에 꽃」	80P
35. 함민복, 「오래된 잠버릇」	82P
36. 김기택, 「어둠도 자세히 보면 환하다」	84P

현대소설

1. 양귀자, 「원미동 시인」	88P
2. 전상국, 「우상의 눈물」	94P
3. 김정한, 「사하촌」	100P
4. 이태준, 「복덕방」	106P
5. 김동리, 「역마」	112P
6. 염상섭, 「두 파산」	118P
7. 오상원, 「유예」	124P
8. 황석영, 「탑」	128P
9. 이호철, 「큰 산」	134P
10. 이문구, 「우리 동네 김씨」	140P
11. 이청준, 「소리의 빛」	148P
12. 박완서,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154P
13. 김연수, 「달로 간 코미디언」	164P
14. 전광용, 「꺼삐딴 리」	170P
15. 이순원, 「말을 찾아서」	178P
16. 이범선, 「오발탄」	184P
17. 문순태, 「말하는 돌」	188P
18. 임철우, 「곡두 운동회」	194P

극 시나리오

1. 윤대성, 「출세기」	202P
2. 채만식, 「영웅모집」	208P
3. 유치진, 「소」	214P
4. 선우휘 원작, 이은성 윤삼육 각색, 「불꽃」	220P
5. 박경리 원작, 이형우 각색, 「토지」	228P
6. 함세덕, 「동승」	236P
7. 이강백, 「결혼」	242P
8. 이근삼, 「원고지」	248P

수필

1. 신영복, 「관용은 자기와 다른 것, 자기에게 없는 것에 대한 애정입니다」	256P
2. 이병기, 「경주의 달밤」	259P
3. 윤오영, 「봄」	262P
4. 나희덕, 「내가 잃어버린 나무들」	264P
5. 유종호, 「고향」	267P
6. 김훈, 「꽃 피는 해안선」	270P
7. 법정, 「거꾸로 보기」	273P

KICE x EBS

현대 시

“합장” : 두 손바닥을 합하여 마음이 한결같음을 나타냄. 또는 그런 예법.

「여승(女僧)은 합장(合掌)하고 절을 했다

가지취의 내음새가 났다」 「」 : “여승”의 모습 → 속세와 단절되어 있음.

“가지취” : 산지의 맑은 숲속에서 자라는 참취나물.

「쓸쓸한 낮이 옛날같이 늙었다 “옛날같이 늙었다” : ① 오랜 세월의 풍파가 느껴짐.

② 속세의 고통스럽고 지친 삶의 흔적이 여전히 느껴짐.

→ 화자가 전에 “여승”을 만난 적 있음을 암시함.

나는 불경(佛經)처럼 서러워졌다」 「」 : “여승”을 보며 서러움을 느끼는 화자의 모습

“불경” : 불교의 교리를 밝혀 놓은 전적, 불교 경전을 소리 내어 읽는 일.

「평안도의 어느 산 깊은 금점판

“금점(金店)판” : 예전에, 주로 수공업적 방식으로 작업하던 금광의 일터.

나는 파리한 여인에게서 옥수수를 샀다

“파리한” : 몸이 마르고 낡았거나 색깔이 찌가 전혀 없는.

여인은 나 어린 딸아이를 때리며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다」

「」 : “파리한 여인”, 즉 “여승”과 만났던 “나”의 과거 회상

→ 현재 “여승”이 된 “여인”의 과거 모습 ① ⇒ 가난하고 고통스러웠던 처지를 부각하여 “여승”의 한(恨)을 강조함.

「썰벌같이 나아간 지아비 기다려 십 년이 갔다

“썰벌” : 나무 쏘에 집을 틀고 항상 나가서 다니는 벌.

지아비는 돌아오지 않고

“도라지꽃” → 죽음의 이미지를 상징함.

어린 딸은 도라지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다」

「」 : “여승”이 된 “여인”의 과거 모습 ②

→ “여인”의 가구한 신세를 부각함. ⇒ 속세를 떠나 “여승”이 된 이유를 짐작할 수 있음.

「산(山)땡도 썰게 올은 슬픈 날이 있었다」 「」 : 감정 이입 → “여인”(여승)의 서러움과 슬픔을 부각함

“머리오리” : 날날의 머리털.

산(山)절의 마당귀에 여인의 머리오리가 눈물방울과 같이 떨어진 날이 있었다」

「」 : “여승”이 된 “여인”의 과거 모습 ③ → “산절”에서 머리를 깎고 “여승”이 되는 “여인”의 모습

이해와 감상

이 시는 여승이 된 한 여인의 비극적인 삶의 모습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기구한 현실로 인해 여승이 된 여인의 일생을 서사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1연에는 “여승”이 된 여인의 현재 모습이 제시된다. 화자는 “합장”하고 절을 하는 “여승”에게서 “가지취의 내음새”가 나며, 그녀의 “쓸쓸한 낮이 옛날같이 늙”었다고 말하며 “불경처럼 서러워”한다. “가지취의 내음새”와 “쓸쓸한 낮”이라는 표현을 통해 “여승”은 한 많은 사연을 가졌으며, 그로 인해 속세를 떠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한 “여승”의 모습을 보며 화자가 “불경처럼 서러워졌”다 라고 말하는 것에서 화자는 “여승”이 된 여인의 기구한 운명에 대해 연민을 느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연에는 과거 “파리한 여인” 즉 “여승”과 만났던 화자의 회상이 제시된다. 화자는 “평안도의 어느 산 깊은 금점판”에서 “파리한 여인”에게 “옥수수를 샀”던 과거를 떠올리는데, 1연의 내용을 고려할 때 이는 “여승”이 되기 전 “여인”과의 첫 만남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때 “여인”은 “어린 딸아이를 때리며 가을밤같이 차게 울”고 있었는데, 이는 “여인”이 처한 현실적인 고난을 드러내는 것으로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여인”의 처지를 부각함으로써 그녀의 한(恨)의 정서를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3연에서는 2연에 이어지는 “여인”의 과거 사연이 제시된다. 화자는 “여인”의 “지아비”는 집을 나간 지 십 년이 다 되어 가도록 돌아오지 않고, “어린 딸은 도라지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다”고 말한다. “도라지꽃”과 “돌무덤”이라는 표현을 참고할 때, 이는 어린 딸아이가 죽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4연에서는 3연에 이어지는 과거로, “여인”이 “여승”이 되는 장면이 그려진다. “산땡도 쉼게 올은 슬픈 날”은 “산절의 마당귀”에 “여인의 머리오리가 눈물방울과 같이 떨어진 날”로, 이는 “여인”이 “여승”이 되며 삭발하는 장면을 묘사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앞서 3연의 내용을 고려할 때, 기구하고 비극적인 삶으로 인한 한(恨)을 이기지 못하고 “여인”은 “여승”이 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표현상의 특징

① 직유법을 사용함.

예 “옛날같이”, “불경(佛經)처럼”, “가을밤같이”, “섣달같이”
→ 대상의 모습 및 화자의 태도를 효과적으로 드러냄.

② 대상에 감정을 이입함.

예 “산(山)땡도 쉼게 올은 슬픈 날이 있었다”

③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함.

예 “가지취의 내음새”, “차게 울었다”, “산(山)땡도 쉼게 올은”
→ 시적 대상의 비극적 상황을 부각함.

주제

여승이 된 여인의 비극적 삶과 그녀의 한(恨)

시간의 인과적 구성

「여승」의 이야기 구조는 ‘시간’과 인과적 구성을 이루고 있다. 한 여인이 여승이 되기까지의 이야기를 압축적으로 제시한 이 시는 시간의 흐름을 따르지 않는 역순행적 구조로 구성되어, 이야기를 시간 순서로 배열해 본다면 ‘2연 → 3연 → 4연 → 1연’의 순서가 된다. 여승을 만난 현재의 장면을 1연에, 현재 여승이 된 여인의 과거의 모습을 2, 3, 4연에 제시하여, 시적 화자가 1연에서 만난 여승의 현재 모습이 2, 3, 4연에 제시된 과거의 결과임을 보여주고, 과거의 상황으로 인해 여승이 될 수밖에 없었던 여승의 비극적 삶을 강조하고 있다.

1930년대 농촌의 시대상

「여승」에 나타난 여인의 비극적 삶은 1930년대 일제강점기의 시대상과 무관하지 않다. 「여승」은 일제의 수탈로 말미암은 농촌의 몰락과 가족이 해체될 수밖에 없었던 민족의 현실을 보여 주는 작품이다. 일제의 침략전쟁이 확대됨에 따라 경제적 수탈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본 곳은 광업 분야였는데, 어린 딸과 함께 ‘평안도의 어느 산 깊은 금점판’을 맴돌며 옥수수 행상으로 삶을 연명해야 했던 여인의 운명은 그러한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가족의 붕괴는 여인의 ‘지아비’라는 한 가족의 가장의 부재로부터 시작되었고, 당시 일제 치하의 우리 민족 전체가 겪어야 했던 비극적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작가는 당시의 우리 민족의 비극적 삶을 현실적으로 그려냄으로써 일제강점기 속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 민족의 현실과 더불어 가족의 이산과 해체라는 비극은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점을 말하며 가족 공동체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고 있다.

보리피리 불며

"보리피리" : 보리 줄기를 잘라서 만든 피리.

☐ : 화자가 그리워하는 대상.

☐ : 화자의 정서를 촉발하는 행위

봄 언덕

☐ 그리워

피-르 날리리.

"피-르 날리리" : 보리피리 소리.

보리피리 불며

꽃 청산(靑山)

☐ 어린 때 그리워

피-르 날리리.

보리피리 불며

인환(人寰)의 거리

"인환" : 인간의 세계.

☐ 인간사(人間事) 그리워

피-르 날리리.

보리피리 불며

"방랑" : 정한 곳 없이 이리저리 떠돌아다님.

방랑의 기산하(幾山河)

"기산하" → '방랑하며 돌아다닌 산과 강이 얼마이던가?' → 산과 강이 많다는 의미 ⇒ 많은 곳을 떠돌며 사는 방랑의 삶

눈물의 언덕을

"눈물의 언덕" → 방랑하는 삶에 대한 화자의 서러움과 슬픔이 드러남.

피-르 날리리.

이해와 감상

이 시의 화자는 “보리피리”를 매개로 고향과 어린 시절, 인간사에 대한 그리움과 방랑하는 삶에 대한 슬픔을 노래하고 있다.

1연~4연은 1행과 4행은 동일하게, 2행과 3행을 번주하는 구조가 반복되는데, 이러한 구조를 활용하여 시적 대상에 대한 그리움과 슬픔을 부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연~2연에서 화자는 “고향”과 “어린 때”가 그림다고 말한다. ‘마음 속에 깊이 간직한 그림과 정든 곳’이라는 뜻의 “고향”과 과거인 “어린 때”를 화자가 그리워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 화자의 상황의 과거와 달리 변화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어 화자는 3연에서 “인간사”가 그림다고 말한다. ‘인간 생활에서 일어나는 이러저러한 일’이라는 뜻의 “인간사”라는 표현을 고려할 때, 이를 그리워하는 화자의 모습을 통해 현재 화자는 보통 사람들의 일상적이고 평범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4연에서 화자는 “방랑의 기산하”/ “눈물의 언덕”에 대해 이야기한다. “방랑의 기산하”는 ‘방랑하며 돌아다닌 산과 강이 얼마이던가?’라는 의미로 해석해볼 수 있으며, 이를 고려한다면 화자는 많은 곳을 떠돌며 사는 방랑의 삶을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어 제시되는 “눈물의 언덕”이라는 표현에서 화자의 슬픔을 엿볼 수 있는데 앞선 문맥을 고려할 때, 이는 방랑하는 삶에 대한 화자의 서러움의 슬픔이 담긴 표현으로 이해해볼 수 있다.

표현상의 특징

① 동일한 시구를 반복함.

②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함.

예 “보리피리 불며 ~ 그리워 / 피-르 날리리.”

→ 구조적 안정감을 부여함. 운율감을 형성함.

③ 음성 상징어를 사용함.

예 “피-르 날리리.”

→ 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냄.

주제

고향, 어린 시절, 인간사에 그리움과 방랑의 서러움

시인 한하운의 삶 ①

「보리피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인 한하운의 삶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한하운은 흔히 말하는 나병, ‘한센병’을 앓았던 환자로, 그의 작품은 나병(한센병) 환자라는 독특한 체험(투병 생활)을 바탕으로 하면서, 나병 환자로서는 도저히 닿을 수 없는 자연과 인간 삶의 모습들에 대하여 애절한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본다면, ‘고향’과 ‘어린 때’에 대한 그리움은 병에 걸리기 전 고향에서의 삶에 대한 그리움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인간사’를 그리워하면서도 사람을 피해 방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그의 서러움을 이해해 볼 수 있다.

시인 한하운의 삶 ②

한하운은 1948년 월남한 시인으로, 1953년 한 언론에 의해 그의 시는 ‘붉은 시집’으로 규정당하고, 한하운은 실존 인물이 아닌 소위 ‘문화 빨치산’이라고 매도당하면서 유명 시인으로 낙인찍혔다. 이후 그는 수없이 ‘시인 한하운’으로서의 자기 증명에 대한 압박에 시달렸으며, 그러한 과정에서 나온 시가 「보리피리」이다. 이러한 사실과 연관 지어 본다면, 시에서 그리움의 대상으로 나타나는 ‘고향’, ‘어린 때’ 등의 요소는 월남 이후 그가 더 이상 호명할 수 없는 것들로 그가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이라 볼 수 있으며, 그는 ‘보리피리’ 소리로 대체된 울음소리와 함께 과거에 대한 그리움과 현재 삶에 대한 서러움을 이야기하고 있다.

「보리피리」에서 ‘고향’의 상징성

「보리피리」에서는 세상이 희노애락과 돌아갈 수 없는 유년의 고향을 그리워하는 심경이 담겨있다. ‘고향’은 화자가 절망과 죽음의 문턱을 드나들고 있을 때도 변함없이 중심에 자리 잡고 있던 정체성 확인의 장소이며, 삶의 굴곡과 바닥을 경험한 시인에게 주체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이자, 격변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온전하게 보존된 질서와 조화의 상징적인 공간이다. 즉, 한하운에게 고향을 상징하는 “봄 언덕”, “꽃 청산”의 시각적 이미지와 “보리피리”로 촉발된 아련함은 암담한 현실을 견디고 이겨나가는 원동력이자 인간 회복의 영구적인 시공간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당신과 나와 이별한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당신과 나와 이별한 때" : 시적 상황

「가령 우리가 좋을 대로 말하는 것과 같이, 거짓 이별이라 할지라도 나의 입술이 당신의
"거짓 이별" → 이별을 부정하고 싶은 화자의 마음이 드러남.

입술에 닿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 이별을 부정하고자 하는 화자의 마음과 더불어 이별한 현실을 인식하는 화자의 모습이 나타남.

「이 거짓 이별은 언제나 우리에게서 떠날 것인가요.」

「」: 재회에 대한 화자의 기대가 드러남.

「한 해 두 해 가는 것이 얼마 아니 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 당신과 이별한 후 보내는 시간이 길다고 느끼는 화자의 모습

「시들어 가는 두 볼의 도화(桃花)가 무정한 봄바람에 몇 번이나 스쳐서 낙화가 될까요.

"두 볼의 도화" → 화자의 용모 또는 얼굴빛을 상징적으로 드러냄.

회색이 되어 가는 두 귀 밑의 푸른 구름이, 쪼이는 가을별에 얼마나 바래서 백설(白雪)이

"두 귀 밑의 푸른 구름" → 화자의 머리카락을 상징적으로 드러냄.

될까요.」 「」: 시간의 흐름(도화 → 낙화, 푸른 구름 → 백설)

⇒ 당신과 이별한 후 긴 시간이 지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강조함.

「머리는 희어 가도 마음은 붉어 갑니다.

피는 식어 가도 눈물은 더워 갑니다.

"사랑의 언덕엔 사태가 나도" → 임과 이별한 상황.

사랑의 언덕엔 사태가 나도 희망의 바다엔 물결이 뛰놀아요.」

「」: 이별 후 부정적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는 화자의 모습 → 임에 대한 간절한 사랑과 임과의 재회에 대한 희망을 강조함.

「이른바 거짓 이별이 언제든지 우리에게서 떠날 줄만은 알아요.

「」: 임과 이별한 상황에 대한 화자의 인식(변함없이 기다리고 있으나, 기다림이 지속 되지 않기를 바램.)

「그러나 한 손으로 이별을 가지고 가는 날은 또 한 손으로 죽음을 가지고 와요.」

「」: 임에 대한 화자의 절대적 사랑, 임과의 재회에 대한 확신

이해와 감상

이 시는 이별한 임에 대한 그리움과 임과의 재회에 대한 확신과 희망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1연에는 임과의 이별을 “거짓 이별”로 인식하는 화자의 모습과 이별 후 긴 시간이 흘러도 임을 기다리는 화자의 모습이 제시된다. 화자는 우리의 “이별한 때”가 언제인지 아시냐고 물으며, 이 이별이 “거짓 이별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입술이 임의 입술에 닿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한다. 이는 이별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과 더불어 임과 이별한 현실을 다시 한번 더 인식하는 화자의 모습으로, 이별에 대한 화자의 역설적 인식에서 임에 대한 그리움과 간절한 사랑을 엿볼 수 있다. 이어 화자는 “거짓 이별”이 “언제나 우리에게서 떠날 것”인지 묻고, “한 해 두 해 가는 것이 얼마 아니 된다고 할 수가 없”다고 말한다. “이별”이라는 시적 상황을 고려할 때, 이는 “당신”과의 재회에 대한 소망과 이별 후 기다림의 시간이 길다는 것에 대한 탄식을 드러낸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후 화자는 “두 볼의 도화”가 “무정한 봄바람에 몇 번이나 스쳐”서 “낙화”가 될지, “두 귀 밑의 푸른 구름”이 “쪼이는 가을별에 얼마나 바래”서 “백설”이 될지에 대해 묻는다. “두 볼의 도화”와 “두 귀 밑의 푸른 구름”은 화자의 용모나 얼굴빛, 화자의 머리카락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으로 볼 수 있으며, 이때 화자는 이것들이 “낙화”가 되고 “백설”이 되기까지의 시간을 부각함으로써 임과 이별한 후 긴 시간이 지나는 것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을 강조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2연에는 이별 후 기다림의 상황 속에서도 변함이 없는 화자의 모습이 제시된다. 화자는 “머리는 희어 가도 마음은 붉어” 가고, “피는 식어 가도 눈물은 더워” 가며, “사랑의 언덕엔 사태가 나도 희망의 바다엔 물결이 뛰”는다고 말한다. 1연에 드러난 화자의 정서를 고려할 때, 이는 기다림의 상황이 계속되더라도 임과의 재회에 대한 희망으로 변함없이 당신을 기다리는 화자의 모습을 그려낸 표현으로 볼 수 있다.

3연에는 임과의 재회에 대한 확신과 이별의 괴로움에 대해 말하는 화자의 모습이 제시된다. 화자는 “거짓 이별”이 언제든지 떠날 줄로 알지만, “이별을 가지고 가는 날”은 “또 한 손으로 죽음을 가지고” 온다고 말한다. 앞서 1~2연의 내용을 참고할 때, 이는 임과의 재회를 확신하고 있으나 기다림의 시간이 길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긴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현상의 특징

① 다양한 감각적 심상을 사용함.

예 “시들어 가는 두 볼의 도화(桃花)가 무정한 봄바람에 몇 번이나 스쳐서 낙화가 될까요. / 희색이 되어 가는 두 귀 밑의 푸른 구름이, 쪼이는 가을별에 얼마나 바래서 백설(白雪)이 될까요.” 등

→ 시적 상황과 화자의 정서·태도를 부각함.

② 대구적 표현을 활용함.

③ 대비되는 대상을 제시함.

예 “머리는 희어 가도 마음은 붉어 갑니다. / 피는 식어 가도 눈물은 더워 갑니다. / 사랑의 언덕엔 사태가 나도 희망의 바다엔 물결이 뛰놀아요.”

→ 화자의 정서·태도를 강조함.

주제

이별한 임과의 재회 소망

「거짓 이별」에 드러난 한용운의 역설적 발상

화자는 ‘당신’과 이별한 상황을 ‘거짓 이별’이라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이별이라는 객관적 사실을 화자의 주관적 의지로 부정하는 발상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현재 화자는 대상의 부재로 인한 이별을 겪고 있으나, 항상 자신의 마음속에 대상이 존재함으로 자신이 직면한 이별 상황을 부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역설적 발상의 경향은 한용운의 다른 작품에서도 자주 볼 수 있다.

아아, 님은 갔지마는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 한용운, 「님의 침묵」

한용운의 삶이 담긴 「거짓 이별」

일제강점기를 살아가는 독립 운동가이자 승려였던 작가 한용운의 삶의 내력을 고려하면 「거짓 이별」은 그의 삶과 사상, 종교적 인식 등을 문학적으로 표출한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이 작품에서 ‘당신’과 이별한 화자는 대상의 부재 이후 직면한 기다림의 상황을 그려내며, 대상과의 재회에 대한 확신과 기다림의 자세를 형상화하고 있다.

이를 ‘독립 운동가’로서의 한용운의 삶을 고려하여 이해한다면, ‘당신’은 작가가 갈망하던 조국의 독립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당신’과의 이별은 아직 조국 광복이 오지 않은 부정적 상황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승려’로서의 한용운의 삶을 고려하여 이해한다면, ‘당신’은 불교적 경지 또는 부처로 이해할 여지도 있다.

“만년을 싸늘한 바위를 안고도” → 부정적 상황 ⇒ 임과 화자의 이별 상황 □ : 불가능한 상황 설정
 『만년(萬年)을 싸늘한 바위를 안고』도 → 임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과 영원한 사랑 형상화

“어찌하리야” → 설의적 표현(=‘어찌할 수 없다’, ‘임에 대한 사랑과 열정은 변치 않는다’)
 뜨거운 가슴을 어찌하리야, 『』 : 부정적 상황(이별)에도 변치 않는 임에 대한 화자의 사랑
 “뜨거운 가슴” → 임에 대한 화자의 변치 않는 사랑, 열정

“어둠” → 임과 화자의 이별
 『어둠에 창백한 꽃송이마다
 “창백한 꽃송이” → ① 변한 임의 마음 ② 이별한 후 화자의 마음 ⇒ 이별 후 부정적 상황으로 촉발된 정서나 태도
 깨물어 피 터진 입을 맞추어

마지막 한 방울 피마저 불어 넣고

해 뜨는 아침에 죽어 가리야, 『』 : 화자의 헌신적인 모습 ⇒ 임을 향한 절실한 사랑을 부각함.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모든 것 다 잃고라도』
 『』 : 반복적 표현 → 화자의 회생적 태도 강조

흰 뼈가 되는 먼 훗날까지

그 뼈가 부활하여 다시 죽을 날까지

거룩한 일월(日月)의 눈부신 모습
 “거룩한 일월의 눈부신 모습” → 임의 모습 ⇒ 화자에게 임은 절대적인 사랑의 대상으로 인식됨.

임의 손길 앞에 나는 울어라, 『』 : 임에 대한 화자의 영원한 사랑, 임과의 재회를 소망하는 화자의 모습
 “임의 손길 앞” → 임과의 재회

『마음 가난하거니 『임을 위해서
 “마음 가난하거니” → 임에 대한 화자의 절실한 사랑을 표현함

내 무슨 자랑과 선물을 지니라, 『』 : 설의적 표현(= ‘자랑이나 선물도 지닐 수 없다’, ‘지닐 수 있는 건 임에 대한 절실한 사랑뿐이다.’)

의(義)로운 사람들이 피흘린 곳에
 “의로운” : 정의를 위한 의기가 있는.

숫아오른 대나무로 만든 피리뿐
 “대나무로 만든 피리” → 변치 않는 화자의 마음(지조, 절개)

『흐느끼는 이 피리의 아픈 가락이
 “흐느끼는 이 피리의 아픈 가락” → 화자의 마음(지조, 절개 or 이별로 인한 슬픔)

구천(九天)에 사무침을 임은 듣는가, 『』 : 자신의 마음을 임이 듣기를 바라는 화자의 모습

『미워하는 것 미워하는 모든 것 다 잊고라도』
 『』 : 반복적 표현 → 임에 대한 화자의 절실함, 그리움 강조

붉은 마음이 숫이 되는 날까지

그 숫이 되살아 다시 재 될 때까지

못 잊힐 모습을 어이하리야
 “어이하리야” → 설의적 표현(= ‘잊을 수 없다’, ‘잊지 못한다.’)

거룩한 이름 부르며 나는 울어라, 『』 : 임에 대한 화자의 간절한 그리움
 “거룩한 이름” → 임의 이름

이해와 감상

이 시는 입에 대한 화자의 절대적인 사랑과 그에 대한 맹세를 형상화한 작품이다.

1~3연에는 입에 대한 열정적이고 절실한 사랑에 대한 화자의 맹세가 제시된다. 1연에서 화자는 “만년을 싸늘한 바위를 안고”도 “뜨거운 가슴을 어찌”할 수 없다고 한다. 이는 작품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할 때 “뜨거운 가슴”은 입에 대한 화자의 열정적인 사랑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만년을 싸늘한 바위를 안”는다는 불가능한 상황은 화자가 처한 부정적인 상황 즉 입과의 이별 상황을 형상화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어 2~3연에서 화자는 “어둠에 창백한 꽃송이마다” “깨물어 피 터진 입”을 맞추고 그 마지막 피 한 방울마저 붙여 넣고 “죽어 가”겠다고 말한다. 1연의 내용을 고려할 때, 화자가 마지막 피까지 붙여 넣고자 하는 “어둠에 창백한 꽃송이”는 이별로 인해 촉발된 부정적 상황 또는 그로 인한 정서나 태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때 화자는 마지막 피까지 붙여 넣고 “해 돋는 아침에 죽어 가”겠다고 하는데, 이는 화자의 헌신적인 모습을 드러낸 표현으로 이를 통해 입을 향한 화자의 절실한 사랑을 강조하고 있다.

4~5연에는 화자의 희생적 태도와 입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을 노래하는 화자의 모습이 제시된다. 4연에서 화자는 “사랑하는 모든 것을 다 잃고라”도 “흰 뼈”가 되고 “그 뼈가 부활하여 다시 죽을 때”라는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하여 입에 대한 희생적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이어 5연에서 화자는 “거룩한 일월의 눈부신 모습”/ “입의 손길 앞”에 운다고 말한다. “거룩한 일월의 눈부신 모습”이라는 표현에서 화자가 입을 절대적인 사랑의 존재로 인식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으며, 그러한 “입의 손길 앞”은 입과 재회하는 순간을 형상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4~5연에서 화자는 입에 대한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며 입과의 재회를 소망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6~8연에는 입에 대한 절실한 사랑으로 지조와 절개를 강조하는 화자의 모습이 제시된다. 6연에서 화자는 “마음이 가난하”여 입을 위해 “무슨 자랑과 선물을 지니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설의적 표현으로 ‘자랑이나 선물은 지니고 있지 않다’라는 의미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화자는 자신이 지니고 있는 것은 절실한 사랑뿐임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어 7~8연에서는 화자는 “의로운 사람들이 피흘린 곳”에 “대나무로 만든 피리뿐”이며, 그 피리의 “아픈 가락”이 “구천에 사무침을 입은 듣는가”라고 말한다. 대개 “대나무”가 지조와 절개를 상징한다는 점과 “의로운”이라는 표현을 고려할 때, “대나무로 만든 피리”는 변치 않는 화자의 마음으로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는 대상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그 피리의 “아픈 가락”은 화자의 지조나 절개 또는 이별로 인한 슬픔, 입에 대한 간절한 마음 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며, 화자는 이를 입이 듣기를 바라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9~10연에는 입을 간절히 그리워하는 화자의 모습이 제시된다. 9연에서 화자는 “미워하는 모든 것 다 잊고라”도 “붉은 마음이 솟아 되”고 “그 솟아 되살아 다시 재 될 때”라는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하여 입에 대한 자신의 절실한 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어 10연에서는 “못 잊힐 모습을 어이하리야”라고 하는데, 이는 설의적 표현으로 ‘잊지 못한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또한 화자는 “거룩한 이름” 즉 입의 이름을 부르며 운다고 하는데, 이는 입을 잊지 못하고 입을 간절히 그리워하는 화자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현상의 특징

① 설의적 표현을 사용함.

예 “어찌하리야”, “죽어 가리야”, “지니라”, “듣는가”, “어이하리야”

②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함.

③ 색채의 대비를 활용함.

예 “싸늘한 바위” ↔ “뜨거운 가슴”, “창백한 꽃송이” ↔ “피 터진 입” 등

④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함.

예 “만년(萬年)을 싸늘한 바위를 안고도”, “그 뼈가 부활하여 다시 죽을 날까지”, “그 솟아 되살아 다시 재 될 때까지”
→ 입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과 영원한 사랑을 형상화함

주제

입에 대한 영원한 사랑의 맹세

「맹세」에 드러난 윤희 사상

윤희 사상은 불교의 중심 사상 중 하나로서, 모든 생명은 죽은 후에 완전히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생명을 가지고 태어남으로써 생사가 끊임없이 반복된다는 것을 말한다. 「맹세」의 “흰 뼈가 되는 먼 훗날까지 / 그 뼈가 부활하여 다시 죽을 날까지”, “붉은 마음이 솟아 되는 날까지 / 그 솟아 되살아 다시 재 될 때까지”라는 표현에 윤희 사상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고려할 때, 영원한 사랑에 대한 화자의 맹세는 종교적 또는 본질적 가치에 대한 추구를 그려낸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의(義)」의 가치와 「임」의 상징성

조지훈은 윤리적 가치들 중에서도 “의(義)”의 가치에 주목한다. “의(義)”란 ‘사람 사이에 마땅히 지켜야 할 바른 도리’를 뜻하는 것으로, 조지훈은 비겁함과 졸렬함이 난무하는 암담한 역사적 현실 속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요청되는 덕목으로써 “의(義)”를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맹세」에서도 “의(義)”를 추구하는 것에 대한 작가의 긍정적 인식이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다. “의로운 사람들이 피흘린 곳”에 “흐느끼는 이 피리의 아픈 가락”은 “의(義)”에 대한 작가의 지향이 드러난 표현으로, 작가는 피리 소리를 절대적인 사랑의 대상인 “임”에 가 닿기 위한 화자의 처절한 맹세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려냄으로써 이러한 지향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고려할 때, “임”은 정의롭고 의로운 세상의 도래를 가능케 하는 대상 혹은 그 세계 자체를 형상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접동

접동

“아우래비” : ① ‘아홉 + 오라비’의 율음조 표현 ② ‘아우 오라비’(남동생)의 줄임말

아우래비 접동』 『 』 : “접동새”의 율음소리.

“진두강” : 평안도 박천명 부근에 흐르는 강으로 추정.

『진두강 가람 가에 살던 누나는

“가람” : ‘강’의 옛말.

진두강 앞마을에

와서 읊니다』 『 』 : “진두강 앞마을”에 와서 읊는 “누나”의 모습.

『옛날, 우리나라

먼 뒤쪽의

진두강 가람 가에 살던 누나는

“의붓어미” : 계모.

『의붓어미 시샘에 죽었습니다』 『 』 : “의붓어미”의 시샘으로 죽은 “누나”의 사연 → ‘접동새 설화’의 내용 요약적 제시

『 』 : 누나가 죽은 이유 → “누나”의 삶의 비극성 부각 → 한(恨)의 정서

『누나라고 불러 보라

“불설워” : 몹시 서러워(평안도 방언).

오오 불설워

『 』 : 죽은 “누나”에 대한 화자의 서러움이 직접적으로 표출됨.

시새움에 몸이 죽은 우리 누나는

죽어서 접동새가 되었습니다』 『 』 : 죽은 “누나”에 대한 화자의 서러움, 죽어서 “접동새”가 된 “누나”의 사연

『아홉이나 남아 되던 오랩동생을

“오랩동생” : 남동생.

죽어서도 못 잊어 차마 못 잊어』 『 』 : “누나”가 죽어서도 “접동새”가 된 이유

야삼경 남 다 자는 밤이 깊으면

“야삼경” : 하룻밤을 오경으로 나눈 셋째 부분. 밤 열한 시에서 새벽 한 시 사이이다. (= 삼경)

이 산 저 산 읊아가며 슬피 읊니다』 『 』 : “접동새”가 되어 동생들을 그리워하는 “누나”의 모습 → 한(恨)의 정서

이해와 감상

이 시는 고전 설화인 ‘접동새 설화’를 모티프로 하여, 누나의 비극적 삶과 그녀의 한(恨), 누나에 대한 화자의 서러움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1연의 시상은 ‘접동새’의 울음소리로 시작된다. 모티프로 차용된 ‘접동새 설화’에서 죽은 누이가 ‘접동새’로 환생하여 운다는 내용을 참고할 때, 이는 죽은 누나의 슬픈 울음소리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어 2연에는 “진두강 앞마을”을 떠나지 못하고 우는 “누나”의 모습이 제시된다. 이는 설화의 내용을 고려할 때, 죽어서도 동생들을 잊지 못해 주위를 맴돌며 슬피 우는 ‘접동새’로 환생한 누나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3연에는 “누나”가 죽은 이유가 제시된다. 화자는 “누나”가 “의붓어미”의 “시샘”으로 인해 죽었다고 하는데, 이를 통해 누나의 삶이 비극적임을, 그러한 삶으로 인해 그녀가 한(恨)을 가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4연에는 화자는 “누나라고 불러 보라” “오오 불설워”라고 하는데, 이는 죽은 “누나”에 대해 서러움을 드러내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 이어 화자는 죽은 뒤 환생하여 ‘접동새’가 된 “누나”의 사연을 이야기 하는데, 이는 1~3연의 문맥을 고려할 때 “누나”의 비극적인 죽음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

5연에는 동생들을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며 “접동새”가 되어 슬피 우는 “누나”의 모습이 제시된다. 화자는 “아홉이나 남아 되던” 남동생들을 죽어서도 “차마 못 잊”은 누나가 “접동새”가 되어 “야삼경 남 다 자는 밤이 깊으면” “이 산 저 산”으로 옮겨 다니며 운다고 한다. 이러한 누나의 모습에서 그녀의 한(恨)을, 그 모습과 더불어 그 모습에 대해 말하는 화자의 모습에서 애절한 남매의 정을 엿볼 수 있다.

표현상의 특징

① 음성 상징어를 사용함.

예 “접동 / 접동 / 아우래비 접동”
→ 비극적인 시적 상황을 부각함

② 영탄적 표현을 사용함.

예 “오오”
→ 화자의 서러움을 강조함

주제

죽은 누나의 서러움, 죽어서도 잊지 못하는 혈육의 정한

「접동새」의 창작 배경이 된 접동새 설화

평안북도 박천의 진두강가에 한 소녀가 부모와 아홉 동생들과 함께 살았다. 어느 날 소녀의 어머니가 죽자 아버지는 곧 재혼을 하였다. 계모는 심성이 매우 악하여 아이들을 학대하고 구박하였다. 시간이 흘러 혼인할 때가 된 소녀는 부잣집 도령과 혼약을 맺게 된다. 도령으로부터 많은 예물을 받은 소녀를 시샘한 계모는 소녀를 장롱에 가두고 불을 질러 죽인다. 소녀가 죽은 뒤 동생들은 누이의 죽음을 슬퍼하고, 소녀의 죽은 혼은 잣터미에서 접동새가 되어 환생한다. 계모의 악행을 알게된 관가에서 계모를 잡아 불태워 죽이고, 계모의 죽은 혼은 까마귀가 되어 환생한다. 이후 접동새는 까마귀가 두려워 남들 다 자는 밤에만 나타나 아홉 동생들을 걱정하며 슬피 운다.

「접동새」에 반영된 시대 현실

김소월은 1920년대 일제강점기를 살았던 시인으로, 이 작품이 당시 일제강점기에 창작되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접동새」는 나라를 잃고 슬픔에 빠진 우리 민족의 ‘한(恨)’을 그려낸 시로 볼 수 있다. 이때 누나를 시샘하여 죽게 한 ‘의붓어미’는 ‘일제’를, ‘누나’와 ‘오래동생’은 식민지 백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일제 강점기 우리 민족의 비극적 상황과 그로 인한 비애를 접동새 설화로 상징화하여 그려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접동새」의 시적 화자

‘누나’라는 호칭을 참고할 때, 시적 화자는 “오래동생” 중 하나로 2, 3연에서 접동새에 얹힌 이야기를 객관적으로 제시하다가 4연에 이르러 주관적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때 ‘누나’를 ‘우리 누나’로 확장하여 표현하는데, 이는 독자를 작품 속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시적 화자와 동일시함으로써 작중 상황에 몰입하게 만들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작품에 제시된 한(恨)이 누이와 동생들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 전체의 보편적 한(恨)임을 드러내고자 한 작가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누이동생의 무덤” → 시적 배경 ⇒ “누이동생”의 죽음

『산비탈엔 들국화가 환—하고 누이동생의 무덤 옆엔 밤나무 하나가 오뚝 서서 바람이
“산비탈” → “무덤”과 대비되는 자연 풍경

올 때마다 아득—한 공중을 향하여 여원 가지를 내어저었다. 갈길을 못 찾는 영혼 같애 절로

「」: “누이동생”의 무덤에서 “밤나무”를 보고 “누이동생”을 떠올리며 슬픔을 느끼는 화자의 모습

눈이 감긴다.』 무덤 옆엔 작은 시내가 은실을 굶고 등 뒤에 서거이는 떡갈나무 수풀 앞에

“흰나비처럼” → 직유법, “누이동생”의 모습을 빗댄.

차단—한 비석이 하나 노을에 젖어 있었다.』 흰나비처럼 여원 모습 아울러 어느 무형(無形)한

「」: “누이동생”의 무덤 주변 정경 → 애상적인 분위기를 부각함.

“어느 무형한 공중에 그 체온이 꺼져 버린 후”

→ “누이동생”의 죽음을 감각적으로 표현함.

공중에 그 체온이 꺼져 버린 후 밤낮으로 찾아 주는 건 「비인 묘지(墓地)의 물소리와 바람

「」: “누이동생”의 무덤의 황량한 분위기

소리뿐. 동생의 가슴 우엔 비가 내리고 눈이 쌓이고 적막한 황혼이면 별들은 이마 우에서

“동생의 가슴” → “누이동생”의 무덤 or 비석

무엇을 속삭였는지. 『한줌 흙을 헤치고 나즉—이 부르면』 함박꽃처럼 눈 뜰 것만 같아 서러운

「」: 화자의 행동 → 죽은 “누이동생”과의 교감

“함박꽃처럼 눈 뜰 것만 같아”

→ 직유법(= “누이동생이 다시 살아날 것만 같아”)

생각이 옷소매에 스몄다.』 「」: 죽은 “누이동생”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과 서러움이 드러남.

1) 공동묘지가 있던 마을.

이해와 감상

이 시는 죽은 누이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과 슬픔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화자는 “산비탈엔 들국화”가 환히 피어 있는데, “누이동생의 무덤 옆엔 밤나무 하나”만 우뚝 서서 바람이 불 때마다 아득한 공중을 향해 “여윈 가지를 내어저었”다고 말한다. 이어 화자는 “갈길을 못 찾는 영혼 같애 절로 눈”이 감긴다고 한다. 이를 통해 화자가 “누이동생의 무덤”을 찾아 동생을 떠올리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으며, 이때 화자는 “밤나무”가 우뚝 서서 바람에 “여윈 가지”가 흔들리는 풍경을 그려내고 그 모습에 “절로 눈이 감긴다”라고 표현함으로써 “누이동생”의 죽음으로 촉발된 쓸쓸함과 슬픔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어 화자는 “무덤 옆엔 작은 시내가” 흐르고 “등 뒤에 서걱이는 딱딱나무 수풀 잎”과 “차단—한 비석” 하나가 “노을에 젖어 있었다”고 말한다. 이는 “누이동생”의 무덤 주변 풍경을 묘사한 것으로, 이를 통해 애상적 분위기를 부각한다고 볼 수 있다.

이어 화자는 “흰나비처럼 여윈 모습”의 “체온이 꺼져 버린 후”에 “비인 묘지”를 찾아 주는 건 “물소리와 바람 소리뿐”이며, “동생의 가슴” 위에는 비와 눈이 내려 쌓이고 “적막한 황혼”이면 “별들”이 “이마” 위에 “무엇을 속삭였”냐고 말한다. 이는 누이동생이 죽은 뒤 무덤의 쓸쓸하고 적막한 모습을 형상화한 것으로, 이를 통해 황량한 분위기를 부각한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화자는 자신이 “한줌 흙을 헤치고” 나직하게 부르며 “함박꽃처럼” 누이가 “눈 뜰 것만 같아 서러운 생각이 옷소매에 스몄다”라고 말한다. “한줌 흙을 헤치”는 화자의 행동은 죽은 누이동생과 교감하는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러한 교감으로 동생이 다시 살아날 것만 같다고 표현함으로써 누이동생에 대한 그리움과 서러움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현상의 특징

① 불입표를 활용함.

예 “환—하고”, “아득—한”, “차단—한”, “나직—이”
→ 시적 상황을 부각함.

② 직유법을 사용함.

예 “흰나비처럼”, “함박꽃처럼”
→ 시적 상황·정서를 부각함.

주제

죽은 누이동생에 대한 그리움

김광균의 생애

김광균의 시에서는 가족과 친지, 친구 등이 슬픔을 환기시키는 대상으로 자주 등장한다. 김광균은 어린 시절부터 가족을 비롯한 주변 인물들의 죽음을 자주 겪었으며, 이로 인해 그의 작품 세계에는 ‘죽음’이라는 소재가 자주 등장하며 작품 전반적으로 ‘상실감’이라는 이미지를 담아 내고 있다. 「수철리」를 비롯한 그의 작품에 나타나는 ‘슬픔, 그리움, 서러움’ 등의 비애의 정서는 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김광균의 내면의 무의식이 표출되어 나타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수철리」에 등장하는 시어들의 함축적 의미

「수철리」에 나타나는 ‘무덤’, ‘비석’, ‘묘지’ 등의 시어는 누이동생의 ‘죽음’을 상징하는 이미지들로, 환한 ‘들국화’와 ‘작은 시내’의 이미지와 대비되어 누이를 향한 화자의 애뜻함과 그리움의 정서를 부각한다. 또한 ‘밤나무’, ‘나비’, ‘함박꽃’과 같은 시어는 모두 죽은 누이동생의 모습을 그려낸 것으로 여윈 ‘밤나무’와 ‘나비’의 모습은 죽음의 이미지와 결합하여 화자의 그리움을 극대화한다.

한편, ‘함박꽃’은 새하얀 꽃잎이 특징적인 꽃으로 보통 활짝 웃는 모습과 연결되어 시에 빈번히 등장하는 소재로, ‘함박꽃 같은 웃음’이라는 표현은 일상에서도 자주 사용된다. 그러나 「수철리」에서 시인은 ‘함박꽃처럼 웃을 것 같아’가 아닌, ‘함박꽃처럼 눈 뜰 것만 같아’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누이가 ‘망자’라는 사실을 다시금 상기시킨다. ‘눈 뜰 것만 같아’라는 표현은 일찍이 눈을 감은 누이가 살아서 돌아올 것 같다는 희망을 내포하지만 죽은 자가 다시 살아서 돌아오는 일은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에 시적 화자는 서러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 : 외로운 상황에서 화자에게 위로를 주는 대상.
□ : 반복적 표현 → 화자의 상실감, 외로움의 심화를 부각함.

“큰 어둠 가운데 홀로 밝은 불 켜고 앉아 있으면” → 화자의 상황.

『큰 어둠 가운데 홀로 밝은 불 켜고 앉아 있으면 모두 빼앗기는 듯』한 외로움

『한 포기 산꽃』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한 위로이라』

『』 : 설의적 표현(‘산꽃이라도 있으면 위로가 된다.’ or ‘(지금엔) 산꽃도 없고 위로받을 게 없다.’)

『』 : 어둠 속에 홀로 앉아 외로움을 느끼며 위로를 바라는 화자의 모습

“눈덮개 고이 나리면” : 눈을 지그시 감으면.

“인광” : 빛의 자극을 받아 빛을 내던 물질이,
그 자극이 멎은 뒤에도 계속하여 내는 빛.

『모두 빼앗기는 듯』 눈덮개 고이 나리면 환한 온몸은 새 『파란 불』 붙어 있는 인광(燐光)

“귀뚜라미” : 귀뚜라미.

『까만 귀뚜라미 하나』라도 있으면 얼마나 한 기쁨이라』 『』 : 눈을 감고 외로움을 느끼며 위로를 바라는 화자의 모습

『』 : 설의적 표현(‘까만 귀뚜라미 하나라도 있으면 기쁨이 된다.’ or ‘(지금엔) 까만 귀뚜라미 하나도 없고 기쁨이 될 게 없다.’)

『파란 불』에 몸을 사르면 싸늘한 이마 맑게 트이어 기어가는 신경의 간지러움

“사르면” : 불에 태워 없애면.

『기리는 별』이라도 맘에 있다면 얼마나 한 즐거움이라』

『』 : 설의적 표현(‘기리는 별이라도 맘에 있으면 즐겁다.’ or ‘(지금엔) 기리는 별이 맘에 없고 즐거울 게 없다.’)

『』 : “신경의 간지러움”을 느낄 정도로 외로워하며 위로를 바라는 화자의 모습

이해와 감상

이 시는 고독한 상황에서의 외로움을 위로받고자 하는 바람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1연에는 어둠 속에 홀로 앉아 외로움을 느끼며 “산꽃”에게 위로를 바라는 화자의 모습이 제시된다. 화자는 “큰 어둠 가운데 홀로” 앉아 있으면 “모두 빼앗기는 듯한 외로움”이 느껴지며, 이때 “한 포기 산꽃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한 위로이냐”라고 말한다. “어둠” 가운데 홀로 앉아 있는 화자의 모습과, “한 포기 산꽃이라도 있으면” 위로됐다고 말하는 화자의 모습에서 화자는 현재 어떠한 위로도 받을 게 없을 정도로 고독한 처지에 있으며, 극한의 외로움에서 벗어나고자 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2연에는 눈을 감고 온몸으로 외로움을 느끼며 “까만 귀뚜리”에게 위로를 바라는 화자의 모습이 제시된다. 화자는 “눈덮개 고이 나리”면 “온몸은 새파란 불 붙어 있는 인광”이며, 이때 “까만 귀뚜리 하나라도 있으면 얼마나 한 기쁨이냐”라고 말한다. “새파란 불 붙어 있는 인광”은 극한의 외로움을 느끼는 화자의 상황을 빗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화자가 “눈덮개 고이 나리”는 것은 눈을 감고 자신의 내면을 응시하여 외로움의 감정을 온전히 느끼는 행위로 이해할 수 있다. 외로움을 느끼며 화자는 “까만 귀뚜리 하나”라도 있으면 기쁨이라고 한다. 이는 1연과 마찬가지로 위로를 바라는 화자의 모습으로, 외로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화자의 간절한 바람을 부각한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 3연에는 “신경의 간지러움”을 느낄 정도로 외로워하며 “별”에게 위로를 바라는 화자의 모습이 제시된다. 화자는 “파란 불에 몸을 사르”면 “싸늘한 이마”가 “맑게 트이어 기어가는 신경의 간지러움”을 느낀다. “신경의 간지러움”은 극한의 외로움으로 인해 신경이 매우 예민해진 상태를 그려낸 표현으로 볼 수 있으며, 이때 화자는 “기리는 별”이라도 “맘에 있다면” “즐거움”이라고 말한다. 이는 1, 2연과 마찬가지로 위로를 바라는 화자의 모습으로, 이 역시 극한의 외로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화자의 바람이 형상화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현상의 특징

①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함.

예 “~면 ~라도 있으면 ~이라”

② 동일한 어미를 반복함.

예 “-라”

→ 운율감을 형성함. 시적 정서를 부각함.

③ 가정법을 사용함.

예 “한 포기 산꽃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한 위로이라”, “까만 귀뚜리 하나라도 있으면 얼마나 한 기쁨이라”, “기리는 별이라도 맘에 있다면 얼마나 한 즐거움이라”

④ 시어의 대비를 사용함.

예 “큰 어둠 가운데 홀로 밝은 불 켜고 앉아 있으면”

→ 화자의 외로움을 강조함.

주제

고독과 외로움을 위로받고 싶은 마음

「싸늘한 이마」에 반영된 시대 현실

「싸늘한 이마」에서 ‘큰 어둠’으로 표상되는 화자의 부정적 상황은 시인 박용철이 활동하였던 시대상과 연관 지어 해석해 볼 수 있다. 「싸늘한 이마」가 1930년, 일제강점기 시기에 발표되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큰 어둠’은 나라를 빼앗긴 상황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며, 화자가 느끼는 ‘모두 빼앗기는 듯한 외로움’은 나라를, 고향을 잃은 것에 대한 상실감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화자가 바라는 ‘한 포기 산꽃’, ‘까만 귀뚜리’를 거쳐 나타나는 초월적 존재인 ‘기리는 별’은 화자의 외로움과 상실감을 치유해줄 수 있는 초월적 이상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

현실 극복 의지와 외로움의 연관성

「싸늘한 이마」에서 화자는 어둠 속에 홀로 쫓쫓이 앉아 어둠을 견뎌내려는 강한 의지를 보인다. 1연에서 화자가 바라던 ‘위로’는 2연에서는 ‘기쁨’으로, 3연에서는 ‘즐거움’으로 바뀌어 나타나는데, 이는 화자의 의지에 대한 점층적인 표현으로 점차 고조되어 가는 화자의 강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싸늘한 이마」는 어둠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주체의 감정과 외로움을 견뎌내려는 의지 사이의 갈등과 해결을 보여주는 시로, 곳곳한 의지와 정신적인 고고함에 대한 동경과 지향을 그려낸 작품으로 볼 수 있다.

「점점 산중에도 없는 **마을**이 여긴 있습니다. 앞 진 사잇길 저 모랫둑, 그 너머 강기슭에
 “점점 산중에도 없는 마을” → 공간적 배경 → 현대 문명과 동떨어진 공간

서도 보이진 않습니다. 허방다리 들어내면 보이는 마을.」 「」: 점점 산중의 외진 마을
 “허방다리”: ‘함정’의 순우리말. “봉당”: 안방과 건넌방 사이의 마루를 놓을 자리에
 마루를 놓지 아니하고 흙바닥 그대로 둔 곳.

「갱(坑) 속 같은 마을, 꼴깍, 해가, 노루꼬리 해가 지면 집집마다 봉당에 불을 켜지요. 꼴깍지,
 “갱”: 광물을 파내기 위하여 땅속을 파 들어간 굴. “노루꼬리 해”: 짧은 겨울 해 「」: 갱 속 같은 마을과 외딴집의 풍경
 꼴깍지처럼 후미진 **외딴집**, 외딴집에도 불빛은 앓아 이숙토록 창문은 모과(木瓜)빛입니다.」
 “외딴집” → 공간적 배경 “이숙토록” → 이숙도록. 밤이 깊을 때까지.

「기인 밤입니다. **외딴집 노인**은 홀로 잠이 깨어 출출한 나머지 무우를 깎기도 하고 고구
 □: 시선의 이동

마를 깎다, 문득 바람도 없는데 시나브로 풀려 풀려 내리는 짚단, **짚오라기의 설레임**을 듣습
 “시나브로”: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조금씩

니다. 귀를 모으고 듣지요. 후루룩 후루룩 처마깃에 나래 묻는 이름 모를 새, **새들의 온기**를
 □: “노인”이 듣고, 생각하는 대상
 → “노인”의 기다림과 그리움을 강조함

생각합니다. 숨을 죽이고 생각하지요.」
 「」: 잠 못 이루며 “설레임”을 듣거나 “온기”를 생각하는 “외딴집 노인” → “노인”의 고독함을 부각함.

「참 오래오래, 노인의 자리말에 밝은 기침소리도 없을 양」이면 벽 속에서 겨울 귀뚜라미는
 「」: 오랫동안 기침을 하다 잠든 “노인”의 모습

울지요. 때를 지어 읊니다, 벽이 무너지라고 읊니다.」
 「」: 겨우 잠든 “노인”과 “노인”이 잠든 후 때를 지어 읊는 “겨울 귀뚜라미”의 모습

「어느덧 밖에는 눈발이라도 치는지, 펄펄 함박눈이라도 흩날리는지, 창호지 문살에 돋는
 「」: 달무리 진 마을의 겨울밤 풍경 → 공간의 적막하고 쓸쓸한 분위기를 부각함.

월훈(月暈).」
 “월훈”: 달무리. 달 언저리에 둥그렇게 생기는 구름 같은 허연 테.

이해와 감상

이 시는 산촌 외판집의 적막한 모습과 그곳에 사는 노인의 외로움과 그리움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화자는 “모랫둑” 너머 “강기슭에서도 보이지 않고, “허방다리를 들어내면 보이”는 “첩첩 산중에도 없는 마을”에 대해 이야기하며 시상을 시작한다. 이곳은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외부와 단절된 공간으로 볼 수 있다. 이어 화자는 “갯 속 같은 마을”과 그곳에 있는 “외판집”의 밤 풍경을 그려낸다. 그리고 이어 화자의 시선은 그곳에 살고 있는 “노인”에게로 이동한다. “외판집”에 사는 “노인”은 “홀로 잠이 깨어” 무와 고구마를 깎기도 하고 “귀를 모으”고 풀려 내리는 “짚오라기의 설레임”을 듣는다. 이는 “노인”이 외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으로, 그의 고독한 처지를 고려할 때 짚단이 풀리는 소리를 누군가 찾아오는 소리로 생각하며 설렘을 느끼는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노인”은 “이름 모를 새”들의 “운기”를 “숨을 죽이고 생각”하고 있다. 이 역시 “노인”의 외로운 처지를 고려할 때 그가 느끼는 무료함과 누군가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어 화자는 “노인”이 잠든 후 떼를 지어 우는 “겨울 귀뚜라미”의 모습을 그려낸다. “노인의 자리맡에 밝은 기침소리도 없을” 때쯤, 즉 겨우 노인이 잠든 후 “겨울 귀뚜라미”는 “벽 속에서” 떼를 지어 “벽이 무너지라고” 운다. “겨울 귀뚜라미”의 울음을 “노인”이 느끼는 무료함이나 누군가에 대한 노인의 그리움과 연결해 본다면, 이는 고독과 슬픔의 심화를 감각적으로 형상화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화자는 달무리 진 마을의 풍경을 제시하며 시상을 마무리한다. “창호지 문살”에 비친 “월흔”(달무리)은 시의 제목이자, 시상을 집약하여 표현한 시어로, 화자는 이를 통해 마을과 외판집의 적막하고 쓸쓸한 분위기를 강조하고 있다.

표현상의 특징

① 반복법, 연쇄법을 사용함.

예 “콩깍지, 콩깍지처럼 후미진 외판집, 외판집에도 불빛은 앓아”
→ 시적 의미를 강조함. 운율감을 부여함.

② 음성 상징어를 활용함.

예 “짹짹”, “후루룩 후루룩”
→ 시적 상황을 부각함.

③ 대상에 감정을 이입함.

예 “겨울 귀뚜라미는 울지요. 떼를 지어 읊니다. 벽이 무너지라고 읊니다.”
→ 대상의 고독감을 부각함.

주제

산촌 외판집의 적막함과 그곳에 사는 노인의 고독함

「월흔」에 제시된 단절된 공간의 상징적 의미

「월흔」의 공간은 모랫둑, 강기슭에서도 보이지 않고 허방다리를 들어내야 보이는 마을, 그리고 갯 속같이 외부와 단절된 공간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공간을 통해 제시한 단절은 근대 이후의 무분별한 산업화, 도시화와 도구화로 인한 이성 중심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해 박용래 시인의 저항을 형상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월흔」의 배경이 되는 마을은 상실되어가는 시골 마을에 대한 슬픔과 옛것을 지키지 못하는 비극적 현실을 나타내는 공간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외판집」의 상징성

「월흔」의 공간적 배경인 「외판집」은 첩첩산중에도 없고 외진 사잇길로, 모랫둑이나 그 너머 강기슭으로도 갈 수 없으며 오로지 ‘허방다리를 들어내야만 갈 수 있다. ‘허방다리’는 땅을 깊게 파고 은폐하여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한번 빠지면 스스로 나올 수 없는 텃을 말한다. 즉, 도시의 소음과 분리된 곳도 아닌, 낙엽이 지는 낭만적인 길도 아닌, 모랫둑 길이나 강기슭의 정서적인 공간도 아닌 사람이나 짐승을 잡는 텃(허방다리)을 들어낸 공간이야말로 시인이 생각하는 순수하고 평화로운 공간인 것이다. 즉, 사람들이 인생에서 ‘허방다리’를 만나고 그곳을 빠져나오기 위해 애쓰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고 있는 시인은 순수하고 평화로운 공간을 시적 배경으로 설정하여, 인간에 대한 애정을 신선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 “그”를 빗대어 표현한 대상.

『내 무엇이랴 이름하리 그를?』

→ “그”가 소중하고 고귀한 존재라 여기는 화자의 인식이 드러남.

『』 : (= ‘그에게 어떤 이름을 붙일 수 있을까?’) → “그”에 대한 화자의 경외감이 드러남

나의 영혼 안의 □고운 불,

“고운 불” → “그”의 속성 ① ⇒ 영혼(내면)을 밝혀 주는 존재

공손한 이마에 □비추는 달,

“비추는 달” → “그”의 속성 ② ⇒ 광명의 존재

□나의 눈보다 값진 이,

“나의 눈보다 값진 이” → “그”의 속성 ③ ⇒ 소중한 존재

바다에서 솟아올라 나래 떠는 □금성(金星),

“금성” : 태양에서 둘째로 가까운 행성 → “그”의 속성 ④ ⇒ 신비로운 존재

쪽빛 하늘에 흰 꽃을 달은 □고산 식물,』 『』 : “그”의 의미를 탐색하는 “나”의 모습과 “그”의 속성

“고산 식물” : 높은 산에서 저절로 나는 식물. → “그”의 속성 ⑤ ⇒ 고결한 존재

『나의 가지에 머물지 않고,

나의 나라에서도 멀다.

홀로 어여삐 스스로 한가로워— 항상 머언 이,』 『』 : “그”가 달기 어려운 존재임을 나타냄.

나는 사랑을 모르노라 오로지 수그릴 뿐.』

『』 : “그”를 숭배하는 화자의 모습 → 화자에게 “그”는 절대적 존재임을 짐작할 수 있음.

『때 없이 가슴에 두 손이 여미어지며

굽이굽이 돌아 나간 시름의 황혼 길 위—

나— 바다 이편에 남긴

“바다 이편” → 화자가 있는 곳 (↔ 바다 저편 : “그”가 있는 곳)

그의 반임을 고이 지니고 견노라.』 『』 : 자신이 “바다 이편”에 남은 “그의 반”임을 마음에 새기는 “나”.

→ “그”에게 의탁한 “나”의 모습.

⇒ “그”에 대한 존경심과 “그”를 숭배하며 살아가겠다는 의지를 강조함.

이해와 감상

이 시는 절대적 존재인 “그”에 대한 화자의 경외감을 그려낸 작품이다.

화자는 “내 무엇이랴 이름하리 그를?”이라고 말하며 시상을 시작한다. 이는 “그에게 어떤 이름을 붙일 수 있을까?”라는 의미의 질문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화자가 “그”에 대해 경외감을 가지고 있으며 “그”의 의미를 탐색하고자 함을 짐작할 수 있다.

2~6행에는 “그”의 의미를 탐색하는 화자의 모습이 제시된다. 화자는 “그”를 자신의 “영혼 안의 고운 불”, “공손한 이마에 비추는 달”, “금성”, “고산 식물”로 빗댄다. 즉 화자는 “그”를 광명의 존재, 신비롭고 고결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볼 수 있다.

7~10행에는 닿기 어려운 존재인 “그”를 숭배하는 화자의 모습이 제시된다. 화자는 “그”를 자신의 “가치에 머물지 않”으며, 자신의 “나라에서도 멀”고 “홀로 어여뻐 스스로 한가로”워 “항상 머언 이”라고 말한다. 이는 “그”가 화자에게 닿기 어려운 존재임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이러한 상황에서도 화자는 “오로지 수그릴 뿐”이라며 숭배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그”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과 경외감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1~14행에 자신을 절대적인 대상인 “그”에게 속한 것으로 인식하는 화자의 모습이 제시된다. 화자는 “때 없이 가슴에 두손이 여미 어지”며 “시름의 황혼 길 위”에서 자신이 “그의 반”임을 고이 지니고 걷는다고 한다. 이는 자신을 “그”에게 속한 것으로 인식하는 화자의 모습으로, 앞선 문맥을 고려할 때 절대적인 “그”가 없으면 또는 “그”와 분리하여 “나”가 존재할 수 없음을 드러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그”에 대한 화자의 절대적인 경외감을 부각하고, “그”를 숭배하며 살아가겠다는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현상의 특징

① 도치법, 설의법이 사용됨.

예 “내 무엇이랴 이름하리 그를?”

② 은유법, 열거법이 활용됨.

예 “나의 영혼 안의 고운 불, / 공손한 이마에 비추는 달, / 나의 눈보다 값진 이, / 바다에서 솟아올라 나래 떠는 금성(金星), / 쪽빛 하늘에 흰 꽃을 달은 고산 식물”

→ “그”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부각함.

주제

절대적 존재에 대한 숭배

정지용의 종교시 경향

「그의 반」에서 ‘절대자’는 서정적 자아에 의해 절대적으로 숭상되는 존재로 그려지는데, ‘바다에서 솟아올라 나래 떠는 금성’이기도 하고, ‘쪽빛 하늘에 흰 꽃을 달은 고산 식물’이기도 한 ‘절대자’는 모두 시적 자아가 발을 딛고 있는 지금 이곳의 현실이나 공간으로부터 절대적으로 멀리 있는 대상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이는 절대적 거리를 통해 절대자에 대한 찬양을 드러낸 것으로, 종교를 ‘반이성’적인 것이 아닌, ‘초이성’적인 것으로 여기는 정지용의 종교시의 경향이 드러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바다 이편’의 상징성

「그의 반」에 나타난 “바다 이편”은 종교적 차원에서 ‘그’가 존재하는 내세와 대응되는 ‘나’가 존재하는 ‘현세’를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정지용이 활동했던 당시의 시대 상황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차원에서는 대한해협을 기준으로 식민지 조선을 가리키는 시어로 볼 수도 있다. 정지용이 당시의 일제강점기를 ‘역사적 재난’의 시대로 인식했음을 고려한다면, 화자가 경외하는 ‘그’라는 절대자의 존재는 조국의 독립으로 해석할 여지 또한 있다.

「떠나고 싶은 자

떠나게 하고

잠들고 싶은 자

잠들게 하고

그리고도 남은 시간은

침묵할 것.」 「」: 화자가 제시하는 “사랑법” ① → 상대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존중하고 침묵하는 것

「또는 꽃에 대하여

또는 하늘에 대하여

또는 무덤에 대하여

“꽃”, “하늘”, “무덤” → 아름다움, 이상, 죽음 등과 같은 ‘사랑’을 정의하는 방식의 일종

서둘지 말 것

침묵할 것.」 「」: 화자가 제시하는 “사랑법” ② → : 서두르지 말고 침묵하는 것

「그대 살 속의

오래 전에 굳은 날개와 “굳은 날개”, “흐르지 않는 강물”, “누워 있는 구름”, “잠깨지 않는 별”
→ ‘사랑’을 할 때 내면에 드는 정서의 일종

흐르지 않는 강물과

누워 있는 누워 있는 구름,

결코 잠깨지 않는 별을

쉽게 꿈꾸지 말고

쉽게 흐르지 말고

쉽게 꽃피지 말고.」 「」: 화자가 제시하는 “사랑법” ③ → 쉽게 행동하지 말 것

그러므로

「『실눈으로 볼 것

떠나고 싶은 자

홀로 떠나는 모습을

잠들고 싶은 자

홀로 잠드는 모습을.」 「」: 화자가 제시하는 “사랑법” ④ → 실눈으로 볼 것 ⇒ 집착을 버리고 관조적 태도로 바라볼 것

가장 큰 하늘은 언제나

“가장 큰 하늘” → 진정한 사랑, 사랑의 절대적 경지

그대 등 뒤에 있다.』 『』: 화자의 “사랑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깨달음 → 침묵과 관조로 참된 사랑에 이를 수 있음을 강조함.
“등 뒤” → 가깝지만 보기 힘든 곳.

이해와 감상

이 시는 사랑하는 방식 즉, “사랑법”을 제시하여, 진정한 사랑에 이르게 하는 침묵과 관조의 가치를 강조한 작품이다.

1~2연에서 화자는 “떠나고 싶은 자”는 떠나게 하고, “잠들고 싶은 자”는 잠들게 하고 “남은 시간은 침묵”하는 사랑법을 제시한다. 이는 상대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존중하며 침묵해야 한다는 뜻으로, 이러한 사랑법을 제시함으로써 진정한 사랑에 이르게 하는 침묵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연에서 화자는 “꽃”, “하늘”, “무덤”에 대하여 “서둘지 말”고 침묵하는 사랑법을 제시한다. “꽃”, “하늘”, “무덤”은 각각의 단어의 뜻을 고려할 때, ‘아름다움’, ‘이상 또는 꿈’, ‘죽음’과 같은 의미를 상징하는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사랑법”을 제시하는 화자의 모습을 고려할 때 사랑을 하는 과정에서 ‘사랑’에 대해 정의하는 방식의 일종을 의미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즉, 3연은 사랑을 할 때 또는 사랑을 정의할 때 서두르지 말고 침묵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5연에서 화자는 쉽게 행동하지 않는 사랑법을 제시한다. 화자는 “오래 전에 굳은 날개”, “흐르지 않는 강물”, “누워 있는 구름”, “잠깨지 않는 별”을 쉽게 하지 말라고 당부한다. (이때 ‘쉽게’의 의미를 명확하게 해석하기 어렵기에 해당 부분은 다양 해석이 가능할 수 있겠다. 여러 해석 중 하나를 꼽아보자면 아래와 같다.)

“오래 전에 굳은”, “흐르지 않는”, “누워 있는”, “잠깨지 않는”이라는 표현을 고려할 때, “날개”, “강물”, “구름”은 사랑을 할 때 맘 속 깊은 곳에서 드는 내면의 정서 그 중에서도 부정적 상황으로 인해 촉발된 무력감을 의미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즉, 이러한 것들을 “쉽게” 하지 말라는 화자의 모습은 감정에 따라 쉽게 행동하는 것을 지양하라는 당부로 볼 수 있다.

이어 6연에서 화자는 “떠나고 싶은 자”와 “잠들고 싶은 자”의 모습을 실눈으로 보라고 말한다. ‘가늘고 작은 눈, 실처럼 가늘게 뜬 눈’이라는 “실눈”의 뜻을 고려할 때, 이는 집착을 버리고 관조적 자세로 대상을 바라보는 사랑법을 형상화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7연에서 화자는 “가장 큰 하늘”은 언제나 “그대 등 뒤에 있다”라고 말하며 시상을 마무리한다. 앞선 문맥을 고려할 때 “가장 큰 하늘”은 화자가 제시한 사랑법으로 이를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의 경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화자는 이러한 경지가 “등 뒤” 즉 가깝지만 보기 힘든 곳에 있다고 표현함으로써 침묵과 관조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표현상의 특징

① 유사한 통사 구조가 반복됨.

예 “떠나고 싶은 자 / 떠나게 하고 / 잠들고 싶은 자 / 잠들게 하고”,
“또는 ~에 대하여”, “쉽게 ~지 말고” 등

② 잠언적인 어조를 사용함.

예 “-르 것”
→ 화자의 인식을 강조함.

주제

침묵과 관조의 자세로 발견하는 진정한 사랑의 경지

강은교 시에 나타난 ‘물’의 이미지

강은교의 시 속에는 ‘물’의 이미지가 자주 등장한다. 강은교의 작품에서 시간을 따라 떠나가는 것은 ‘물’이며, 또 ‘물’은 흘러가며 모든 자연을 흘러가게 한다. 「사랑법」에서도 ‘강물’과 ‘흐르는 것’의 이미지가 등장하는데, 화자는 떠나고 싶은 자나 잠들고 싶은 자를 떠나고 잠들게 하라고, 즉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게’ 하라고 말한다. 작가에게 있어 집착하고 간섭하는 행동들은 물질의 성질을 흐리고 변질 시킬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시인은 사랑하는 법으로 흘러가는 대로 침묵하며 관조하는 것, 실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나는 학이로다」 「」: 은유법 ("나" ≡ "학")

"수묵색": 얇은 먹물의 색.

「박모(薄暮)의 수묵색 거리를 가랑이면

"박모": 해가 진 뒤 어스레한 동안. 땅거미.

슬픔은 명인 양 목줄기에 맺히어

소리도 소리도 낼 수 없누나」 「」: 슬픔에 잠겨 소리조차 낼 수 없는 "나"의 모습

「저마다 저마다 마음속 적은 고향을 안고

"담채화": 물감을 얇게 써서 그린 그림.

창창한 담채화 속으로 흘러가건만

"가나안": 팔레스타인 요르단강 서쪽 지역의 옛 이름. → 이스라엘 민족의 고향

나는 향수할 가나안의 복된 길도 모르고」 「」: 다른 이들(다른 학들)과 달리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나"의 처지

「꿈 푸르른 솔바람 소리만

아득한 풍랑인 양 머리에 설레노니」 「」: 아득한 꿈을 꾸며 설레하는 "나"의 모습

"넘루하다": 옷 따위가 남아 해지고 차림새가 너저분하다.

「깃은 남루하여 올빼미처럼 춤고

"깃": 깃털.

자랑은 호을로 높이고 슬프기만 하여

내 타고남이 차라리 욕되도다」 「」: 춤고, 슬프고, 욕됨을 느끼는 화자의 모습 → 화자의 부정적 자기 인식이 드러남.

「어둑한 저잣가에 지향없이 서량이면

"저잣가": 시장가.

우러러 밤서리와 별빛을 이고

나는 한 오래기 갈대인 양

"오래기": 오라기. 길고 가느다란 조각을 세는 단위.

— 마르는 학이로다」 「」: 지향없이 연약하게 말라가는 "나"의 처지

→ 비참하고 처량한 자신의 처지에 대한 "나"의 부정적 인식을 부각함.

이해와 감상

이 시의 화자는 자신을 “학”에 빗대어 남루하고 처량한 자신의 처지와 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낸다.

1연에서 화자는 “나는 학이로다”라고 말하며, 자신을 “학”에 빗대며 시상을 시작한다.

2연에는 소리조차 낼 수 없을 정도로 슬픔에 잠긴 “나”의 모습이 제시된다. 화자는 “박모의 수목색 거리”를 가면 “슬픔”이 “목줄기에 땀이어” 소리도 낼 수 없다고 말한다. 이는 극도의 슬픔의 빠진 모습을 형상화한 것으로, 화자는 해가 진 뒤 어스레한 시간을 설정하여 자신의 부정적 처지를 부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연에는 다른 이들과 달리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나”의 처지가 제시된다. “저마다 마음속 적은 고향을” 안고 “담채화 속으로 흘러”간다고 하는데, 이는 다른 이들 즉 다른 학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그려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나”는 “향수할 가나안의 복된 길도 모르”는 상황인데, 이는 다른 학들과 달리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모습으로 화자는 대조적 상황을 설정함으로써 자신의 처량한 처지를 부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연에서 화자는 “꿈 푸르른 솔바람 소리”가 “아득한 풍랑”처럼 “머리에 설”렌다고 한다. 이는 아득한 꿈을 꾸며 설레하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3연의 내용을 고려할 때 화자의 아득한 꿈은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소망과 관련한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5연~6연에는 고독하고 남루한 처지인 자신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인식이 제시된다. 화자는 자신의 “깃은 남루하”여 춥고 “자랑은 호을로 높고 슬프기”만 하며, “타고남”이 욕되다고 이야기한다. 이는 현재 자신의 처지에 대한 부정적 자기 인식을 드러낸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이때 화자는 자신은 “어둑한 저갯가에 지향없이” 서서 “밤서리와 별빛을 이”고 “갈대”처럼 “마르는 학”이라고 이야기하며 시상을 마무리한다. 이는 부정적 상황에서 지향 없이 살아가는 연약하고 처량한 모습을 형상화한 것으로, 이를 통해 화자의 부정적 자기 인식을 부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현상의 특징

① 비유적 표현을 사용함.

예 “나는 학이로다”

→ 주제 의식을 강조함.

②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함.

예 “수목색 거리”, “창창한 담채화”, “푸르른 솔바람 소리”

→ 시적 상황과 정서를 강조함.

③ 영탄적 어조를 사용함.

예 “나는 학이로다”, “소리도 소리도 낼 수 없누나”, “아득한 풍랑인 양 머리에 설레노니”, “내 타고남이 차라리 욕되도다”

→ 화자의 정서를 강조함.

주제

고향을 떠나 방황하는 슬픔

「학」에 반영된 시인 유치환의 삶

시인 유치환은 일제강점기 일본의 감시에서 벗어나 북만주로 탈주하기 위해 조국을 떠났다. 조국을 떠나 목숨을 부지하는 대신 유치환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도덕적 갈등과 죄책감을 감수해야만 했다. 이러한 유치환의 삶을 고려할 때, 「학」에서 화자가 돌아가지 못하는 ‘고향’은 일제강점기 식민지 조선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이때 방황하며 자기 존재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학’은 조국을 떠나 죄책감으로 내적 갈등을 겪었던 작가 유치환의 모습을 투영하여 그려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학」의 모순성과 자기 부정

「학」에서 화자와 동일시되고 있는 ‘학’은 모순적인 존재로, 이는 학이 함의하는 “높”은 가치의 “자랑”과 “울썩미”와 같은 “남루”함의 대비를 통해 드러난다. 화자는 이처럼 양가적 가치를 동시에 내포하는 ‘학’을 통해 기쁨이 있지만 남루한 “울썩미”와 같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고자 한다. 자신을 ‘학’과 동일시함으로써 자기 부정의 모습을 보이는 화자를 설정함으로써, 작가는 고고한 정신을 추구하면서도 세속적 가치에 지배된 인간의 모순성을 보여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저 산 저 새 돌아와 우네

어둡고 캄캄한 저 빈 산에

저 새 돌아와 우네」 「」: 어둡고 캄캄하고 비어 있는 "산"과 그곳에 돌아와 울고 있는 "새"
→ 부정적 시적 상황(부정적 현실)을 암시함.

「가세

우리 그리움

저 산에 갇혔네

저 어두운 들을 지나

"어두운 들", "어두운 강" (지나고 건너야 하는) ↔ "남산 꽃산" (꽃 피러 가는)

저 어두운 강 건너

저 남산 꽃산에

우우우 꽃 피러 가세」 「」: 부정적 상황(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화자의 모습 → 현실 극복 의지를 드러냄.

「산아 산아 산아

저 어둠 태우며

타오를 산아

저 꽃산에 눈부시게 깃쳐 오를 새하얀 새여」 「」: "산아", "새여" → 대상을 호명함 / "어둠", "눈부시게" → 명암 대비
⇒ 긍정적인 미래에 대한 화자의 소망을 부각함.

「아아, 지금은 저 어두운 빈 산에 갇혀

저 새 밤새워 울고

우리 어둠 속에

꽃같이 아픈 눈 뜨고 있네.」 「」: 암울한 현실과 그로 인한 화자의 슬픔과 아픔

이해와 감상

이 시는 화자가 처한 부정적 현실과 그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와 바람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1~3행에는 어두운 산에 돌아와 울고 있는 “새”의 모습이 그려진다. “새”가 돌아와 우는 공간인 “산”을 어둡고 캄캄하고 빈 공간으로 그려낸 것을 참고할 때, “새”의 상황이 부정적임을 짐작할 수 있다. 즉 “새”의 울음은 부정적 상황으로부터 촉발된 슬픔이 담긴 울음으로 볼 수 있다.

4~10행에는 부정적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화자의 모습이 제시된다. 화자는 “그리움”이 “산에 갇혔”다고 하며, “어두운 들”과 “어두운 강”을 지나 “남산 꽃산”에 “꽃 피러 가”자고 한다. 1~3행에서의 ‘어둠’의 이미지를 고려할 때 “어두운 들”과 “어두운 강”은 화자가 지나고 건너야 하는 부정적 상황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지나고 건너서 “꽃”을 피러 가는 “남산 꽃산”은 부정적 상황이 해소된 공간 또는 동경하는 세계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가세”라는 말을 반복하며 함께 하자고 요청하는 모습에서, 화자의 현실 극복 의지를 엿볼 수 있다.

11~14행에는 긍정적 미래에 대한 화자의 소망이 제시된다. 화자는 “어둠을 태우며” 타오를 “산”과 “눈부시게 깃쳐 오를 새하얀 새”를 호명한다. 앞선 10행까지의 ‘어둠’의 이미지를 고려할 때, 이와 대조되는 눈부시고 새하얀 “새”의 모습은 긍정적 미래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이때 “어둠을 태우며” 타오르는 “산”의 모습은 현실 극복 의지와 긍정적 미래에 대한 화자의 소망을 드러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15~18행에는 여전히 암울한 현재의 부정적 현실과 그로 인해 촉발된 화자의 슬픔과 아픔이 제시된다. 화자는 지금 “어두운 빈 산”에 갇혀 “새”가 “밤새워 울”고, 우리는 “어둠 속”에서 “아픈 눈”을 뜨고 있다고 한다. 이를 통해 화자가 처한 부정적 현실이 아직은 해소되지 않았으며, 화자는 그 암울한 현실 상황을 인식함으로써 그로 인해 촉발된 슬픔과 아픔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현상의 특징

① 영탄적 어조를 사용함.

예 “우우우 꽃 피러 가세”, “아아”

② 대상을 반복적으로 호명함.

예 “산아 산아 산아”, “저 어둠 태우며 / 타오를 산아”, “저 꽃산에 눈부시게 깃쳐 오를 새하얀 새여”

→ 화자의 정서를 강조함.

③ 대립적 심상을 활용함

예 “어둡고 캄캄한 저 빈 산”, “어두운 들”, “어두운 강” “어둠 ↔ “꽃산”, “타오를 산”, “눈부시게 깃쳐 오를 새하얀 새”

→ 명암의 대비를 통해 시적 상황과 화자의 의지를 부각함.

주제

부정적인 현실에 대한 극복 의지

「저 새」에 반영된 시대적 현실

김용택의 「저 새」는 1980년대 민중 문학의 흐름 안에서 통일 운동의 측면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당시의 통일 운동은 문학을 통해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지향하는 길을 찾고자 하였다. 김용택은 통일에 대한 관념적 인식을 시를 통해 풀어냈는데, 이를 바탕으로 본다면 「저 새」에 나타난 ‘어둠’과 같은 부정적 상황은 우리 민족의 분단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우리 그리움’은 분단으로 인해 서로 만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리움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저 새」는 어두운 현실로 인해 우는 새를 통해 분단의 아픔을 노래하고 있는 시로 볼 수 있다.

“거울” → 참회(성찰)의 도구.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파란 녹이 낀” → 부정적 이미지.

내 얼굴이 남아 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내 얼굴”이 남아 있는 것을 “어느 왕조의 유물”로 표현함

→ 화자의 참회가 자신의 역사적 자아를 인식하는 행위임 ⇒ 망국민으로서의 자아 성찰

이다지도 욱될까.』

『』 : 참회(성찰)를 통해 부정적인 자기 인식을 드러내는 화자의 모습

『나는 나의 참회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

— 만 이십사 년 일 개월을

“만 이십사 년 일 개월” → 화자가 살아온 세월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던가.』

『』 : 살아온 과거에 대한 화자의 참회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 → 도래할 긍정적 미래 ⇒ 조국의 부정적 현실 회색(광복)

나는 또 한 줄의 참회록을 써야 한다.

—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가.』

『』 : 화자가 미래에 할 참회가 드러남. → 현재의 참회 또한 미래의 참회 대상이 될 것임을 드러냄.

⇒ 조국이 몰락하는 가운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현재 자신의 모습에 대해 참회하게 될 것임.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거울을 닦는 행위” → 참회, 성찰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 보자.』

『』 : 암울한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참회하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가 드러남.

『그러면 어느 운석(隕石)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운석” : 지구상에 떨어진 별뿔.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슬픈 사람의 뒷모양” → 미래의 화자 자신. 끊임없이 참회하는 자기회생적인 모습.

거울 속에 나타나 온다.』

『』 : 계속해서 참회하는 화자의 미래를 암시함.

1) 지나간 잘못을 참회하는 내용을 적은 기록.

이해와 감상

이 시의 화자는 현재의 삶을 반성하면서 느낀 부끄러움과 고뇌를 고백하며 미래의 삶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1연에는 과거 역사에 대해 참회하는 화자의 모습이 제시된다. 화자는 “녹이 낀 구리 거울”에 자신의 “얼굴이 남아 있는 것”이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렇게도 욕된 것인지 묻는다. “어느 왕조의 유물”이라는 표현을 고려할 때, 화자의 참회가 역사나 민족과 관련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즉, “거울”은 화자 자신의 모습을 비추주는 사물로, 화자가 거울을 보는 행위는 역사적 자아로서의 자신을 성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때 자신을 욕되다고 반문하는 화자의 모습에서, 화자가 자신의 역사적 자아에 대해 부끄러움과 반감을 느끼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2연에서 화자는 자신의 지난 삶에 대해 참회하는 모습을 보인다. 화자는 “참회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라고 하며, “만 이십사 년 일개월”을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는지 묻는다. “만 이십사 년 일개월”은 화자가 현재까지 살아온 일생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며, 화자는 스스로에게 반문함으로써 기쁨 없이 무기력하게 살아온 자신의 과거의 삶에 대한 반성을 드러내고 있다.

3연에는 화자가 미래에 할 참회가 제시된다. 화자는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또 한 줄의 참회록을 써야 한”다고 말한다. “즐거운 날”이라는 표현을 참고할 때, 이는 긍정적 상황이 도래할 미래에 하는 참회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화자는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었는지 묻는다. 이는 2연에 제시된 현재의 시점에서 한 화자의 참회를 미래의 시점에서 다시 돌아보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 “부끄러운 고백”이라는 표현을 고려할 때 화자는 현재의 참회 또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4연에는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하는 화자의 모습이 제시된다. 화자는 “밤이면 밤마다” 자신의 “거울”을 손바닥과 발바닥으로 닦아 보자고 한다. 이는 끊임없이 적극적으로 성찰하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할 때 화자가 현재의 참회를 부끄럽다고 한 것은 소극적인 참회에 그쳤던 자신에 대한 반성이며, 그 참회 과정을 통해 얻은 깨달음으로 화자는 자기 성찰의 의지를 다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5연에는 미래의 삶에 대한 화자의 전망이 제시된다. 화자는 “그러면 어느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거울 속에” 나타날 것이라 말한다. “슬픈 사람의 뒷모양”은 4연에서 반복적으로 거울을 닦는 화자의 행위를 고려할 때, 끊임없이 자아를 성찰해 나가는 자기희생적 화자의 모습을 미래의 시점에서 바라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화자는 미래의 “나”의 모습에 대한 전망을 그려냄으로써 희생을 감내하면서 치열하게 긍정적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현상의 특징

① 감각적 표현을 활용함.

예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② 대비되는 시어를 제시함.

예 “그 어느 즐거운 날” ↔ “밤”

→ 시적 상황의 비극성을 부각함.

주제

자아 성찰을 통한 참회와 현실 극복 의지

일제강점기 지식인의 고뇌가 반영된 「참회록」

「참회록」이 쓰인 시기는 윤동주가 연희전문대학을 졸업하고 부친의 권유로 일본 유학을 결정하고 일본으로 건너갈 준비를 할 때로 추정된다. 작가는 절박한 조국의 현실 앞에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일본 유학을 위해 창씨개명까지 해야 했던 자신의 모습을 참회를 통해 욕되고 부끄러운 삶이라고 고백하는 화자의 모습으로 그려내고 있다. 즉, 이 작품은 식민지를 살아가는 지식인의 고뇌와 성찰의 자세를 형상화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참회록」에서 ‘밤’이 지니는 의미

거울을 닦는 시간적 배경인 ‘밤’은 화자가 부끄러운 자아를 인식하고 반성하는 시간인 동시에 부정적 현실, 암담한 시대 상황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즉, ‘밤’은 화자의 참모습이 나타나는 때로 자기 성찰의 시간인 동시에 우리 민족이 처한 암울한 시기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온몸을 다해 ‘밤’에 거울을 닦는 모습에서 ‘밤’은 암울한 현실을 극복하고 맞이하게 될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으로도 볼 수 있다.

「참회록」에서 ‘거울’이 지니는 의미

「참회록」의 거울은 ‘파란 녹이 낀 구리거울’로, 이러한 거울은 자신에게 반영되는 사물을 그대로 보여줄 수 없으며 욕된 얼굴만을 보여줄 뿐이다. 작품 속 화자는 자의식에 대한 극복 의지를 거울의 ‘녹’을 닦는 행위를 통해 드러내고 있는데, 거울을 닦아 녹을 제거하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깨끗한 상을 비취볼 수 있음과 함께 ‘욕됨’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 : ① 설의적 표현
② 동일한 구절의 반복
③ 수미상관
④ 점층적 표현

누가 구름 한 송이 없이 맑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 아무도 "맑은 하늘"을 보지 못했음을 나타냄.

『네가 본 건, 먹구름 □: "하늘"로 착각한 대상. → 부정적 대상.

그걸 하늘로 알고

일생을 살아갔다.

네가 본 건, 지붕 덮은

쇠 항아리,

그걸 하늘로 알고

일생을 살아갔다.』

『』: "네"가 진실을 보지 못한 채 살아왔다는 것을 드러냄.

뒹아라, 사람들아 □: "맑은 하늘"을 보기 위해 행동할 것을 명령적 어조로 드러냄.

네 마음속 구름

찢어라, 사람들아,

네 머리 덮은 쇠 항아리.

『아침 저녁

네 마음속 구름을 닦고

『터 없이 맑은 영원(永遠)의 하늘

"영원": 어떤 상태가 끝없이 이어짐. 또는 시간을 초월하여 변하지 아니함.

볼 수 있는 사람은

외경(畏敬)을

"외경": 공경하면서 두려워함.

알리라.』 『』: "영원의 하늘"을 보면 "외경"을 알 수 있음. → "맑은 하늘"을 보면 "하늘"의 위엄을 알아 "외경"하게 될 것임을 의미함.

『』: "구름을 닦고" "맑은 하늘"을 봐야 하는 이유와 "하늘"을 보지 못하여 "외경"을 알지 못하는 이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이 드러남.

『아침 저녁

네 머리 위 **쇠 항아릴** 찢고

『티 없이 맑은 구원(久遠)의 하늘

“구원” : ① 아득하게 멀고 오래됨. ② 영원하고 무궁함.

마실 수 있는 사람은

연민(憐憫)을 『』: “구원의 하늘”을 보면 “연민”을 알 수 있음.

→ “맑은 하늘”을 보면 “하늘”을 보지 못한 이들을 “연민”하게 될 것임을 의미함.

알리라』

『』: “쇠 항아릴 찢고” “맑은 하늘”을 봐야 하는 이유와 “하늘”을 보지 못하여 “연민”을 알지 못하는 이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이 드러남.

『차마 삼가서

발걸음도 조심

마음 아모리며.』 『』: “외경”, “연민”을 알게 하는 하늘을 대하는 공손하고 조심스러운 자세.

『서럽게

아 엄숙한 세상을

“엄숙한 세상” → 위엄있고 정숙한 세상(부정적 현실)

서럽게

눈물 흘려』

『』: “하늘”이 보이지 않는 “엄숙한 세상”에 대한 서러움을 드러냄.

살아가리라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누가 구름 한 자락 없이 맑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이해와 감상

이 시는 진실을 보지 못한 채 살아가는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비판과 긍정적 미래에 대한 염원을 그려낸 작품이다.

1연에서 화자는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시상을 시작한다. 이어 2~3연에서 화자는 “하늘을 보았다 하”는 사람들에게 “네가 본 건” 하늘이 아니라 “먹구름”이거나 “지붕 덮은 쇠 항아리”이며 “그걸 하늘로 알고 일생을 살아갔다”라고 말한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하늘”이 아닌 것을 “하늘”로 알고 살아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때 일반적으로 ‘하늘’이 이상향 또는 자유, 평화 등을 의미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누구도 하늘을 보지 못하는 현실’ 즉 진실을 보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자유와 평화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현실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4~7연에서 화자는 “사람들”이 “하늘”을 보아야 하는 이유를 이야기하며 “사람들”에게 구체적인 행동을 명령한다. “영원의 하늘을 볼 수 있”고 “구원의 하늘을 마실 수 있”는 사람은 “외경”과 “연민을 알” 수 있다며 “사람들”에게 “하늘”을 보려면, 즉 “외경”과 “연민”을 아는 삶을 살려면 “구름”을 닦고 “쇠 항아리”를 찢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모습에서 “외경”과 “연민”을 모르는 “사람들”이 처한 상황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며, 화자는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8연에는 “눈물”을 흘리며 “하늘”이 보이지 않는 “엄숙한 세상”에 대한 서러움을 드러내는 화자의 모습이 제시된다. 8연에서 서러움을 드러내는 화자의 모습은 9연의 “살아가리라”라는 표현과 연결하여 이해해볼 수 있다. 이러한 모습은 7연에서 제시된 사람들에게 대한 화자의 연민 또는 안타까움의 구체적인 모습, 혹은 서러움을 감내하고 인고의 삶으로 나아가겠다는 현실 극복 의지를 보이는 모습의 두 가지로 해석해볼 수 있다. 둘 중 어느 것으로 해석하더라도 올바른 현실 인식의 필요성과 밝은 미래에 대한 염원이라는 주제 의식을 드러낸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표현상의 특징

① 대립적 시어를 사용함.

예 “하늘” ↔ “먹구름”, “쇠 항아리”

② 설의적 표현, 동일한 구절의 반복, 수미상관, 점층적 표현이 활용됨

예 1연, 9연

→ 주제 의식을 효과적으로 드러냄.

주제

부정적 현실에 대한 비판과 현실 극복 의지

‘하늘’, ‘먹구름’, ‘쇠 항아리’의 상징적 의미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는 신동엽의 역사의식을 담고 있는 시로, 이 땅에 사는 민중의 역사적·사회적 삶에 대한 신동엽의 생각이 담겨 있다. 즉, 이 시에 나타나는 ‘하늘’을 이러한 역사적 인식과 관련시켜 보면, ‘하늘’은 ‘동학 농민 운동’, ‘3·1 운동’, ‘4·19 혁명’ 등의 때에 빛났던 평화와 자유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먹구름’과 ‘쇠 항아리’는 진짜 하늘을 볼 수 없게 하는 방해물로, 평화와 자유를 억압하여 민중에게 시련을 주는 부정적인 존재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Memo

“적산 가옥(敝産家屋)” : 적국이 물러가면서 남겨 놓은 가옥. → 시대적 배경이 해방 직후임

「적산을 짐작할 수 있음. 가옥 구석에 짙막한 층층계……

“층층계” : 돌이나 나무 따위로 여러 층이 지게 단을 만들어서 높은 곳을 오르내릴 수 있게 만든 설비.

그 이 층에서

나는 밤이 깊도록 글을 쓴다.

씨도 씨도 가랑잎처럼 쌓이는

공허감.」 「」 : 글을 쓰며 공허감을 느끼는 화자의 모습

「이것은 내일이면

“이것” → 화자가 쓴 글.

지폐가 된다.

어느 것은 어린것의 공납금.

“공납금” : 학생이 학교에 정기적으로 내는 돈.

어느 것은 가난한 사랑대.

“사랑대(柴糧代)” : 쌀감과 식량을 마련할 비용.

어느 것은 늘 가벼운 나의 용전.」 「」 : 화자가 글쓰기에 공허감을 느끼는 이유 →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글을 쓰고 있음.

“용전” : 용돈. ⇒ 작가로서의 정체성과 가정으로서의 정체성 사이의 갈등으로 인한 공허함

밤 한 시, 혹은

두 시. 용변을 하려고.

“용변” : 대변이나 소변을 봄.

아래층으로 내려가면

「아래층은 단칸방.

“단칸방” : 한 칸으로 된 방.

온 가족은 잠이 깊다.」 「」 : “단칸방”에 “온 가족”이 자고 있는 모습 → 화자의 가난한 삶을 짐작할 수 있음.

「서글픈 것의

“서글픈 것” → 화자가 서글픔을 느끼는 대상 → 가족

저 무심한 평안함.」 「」 : 화자와 달리 걱정 없이 자는 가족들의 모습.

→ 생계를 걱정하며 글을 쓰는 화자의 처지와 대비됨 → 가정으로서의 외로움을 부각함.

「아아 나는 다시

층층계를 밟고

이 층으로 올라간다.

“사닥다리” : 사다리.

(사닥다리를 밟고 원고지 위에서

“곡예사” : 줄타기, 재주넘기, 공 타기 따위의 곡예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

곡예사들은 지쳐 내려오는데……)」 「」 : 다시 글을 쓰러 올라가지만, 글이 잘 써지지 않는 상황

→ 가정으로서의 화자의 책임감과 가정으로 살아가는 삶의 고단함을 부감함.

「나는 날마다

생활의 막다른 골목 끝에 놓인

“생활의 막다른 골목 끝” → 화자의 어려운 가계 상황(가난한 현실)

이 짙막한 층층계를 올라와서

셋까만 유리창에

수척한 얼굴을 만난다.

"수척한 얼굴" → 가계를 책임지고 있는 고달픈 화자의 모습을 형상화함.

그것은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아버지〉라는 것이다.』

「」: 가장인 "아버지"로서 "수척한" 모습을 한 자신의 모습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화자

→ ① 작가로서의 정체성과 가장으로서의 정체성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

②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 자책하는 모습

*

「나의 어린것들은

"나의 어린것들" → 자식들.

왜놈들이 남기고 간 다다미방에서

"날무": '말리거나 익히거나 가공하지 않은 무'를 말하는 것으로 보임.

날무처럼 포름쫘쫘 얼어 있구나.』

「」: 추위에 떨며 자고 있는 자식들을 바라보는 화자

→ 가난한 현실과 그 현실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인식을 부각함, 자식들에 대한 화자의 애정을 강조함.

이해와 감상

이 시는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으로 가족의 생계를 걱정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1연에는 가족의 생계를 걱정하며 글을 쓰는 화자의 모습이 제시된다. 화자는 “적산 가옥”의 “이 층”에서 “밤이 깊도록” 글을 쓰면서도 “공허감”을 느낀다. 화자가 쓴 글은 “지폐” 즉, “어린 것의 공납금”, “가난한 시랑대”, “용전”이 된다. 이를 고려할 때 글을 쓰면서 느끼는 화자의 공허함은 생계를 위해 글을 쓰며 작가로서의 정체성과 가장으로서의 정체성 사이에서의 갈등으로 인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화자는 용변을 보려고 아래층에 내려갔다가 “단칸방”에서 “온 가족”이 깊이 잠든 모습을 보며, “서글픈 것의 / 저 무심한 평안함”이라 말하며 다시 “이 층”으로 올라간다. “단칸방”에서 “온 가족”이 자는 모습에서 화자의 가난한 삶을, “서글픈 것”이라는 표현에서 화자가 이러한 삶에 대해 서글픔을 느끼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때 “무심한 평안함”은 생계를 걱정하며 밤늦게까지 글을 쓰는 화자와 달리 깊이 잠든 가족의 모습을 그려낸 것으로, 이를 통해 가장으로서 외로움을 부각한다고 볼 수 있다. 화자는 가족의 모습을 본 뒤 다시 “이 층”에 올라가고, “원고지 위에서” “곡예사들은 지쳐 내려온다”고 말한다. 이는 글이 잘 써지지 않는 상황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가장으로서의 책임감과 고단함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연에서 화자는 자신을 초라한 “〈아버지〉”로 인식하는 모습을 보인다. “생활의 막다른 골목 끝”에 놓인 “층층계를 올라”와서 화자는 “수척한 얼굴을 만”난다. “수척한 얼굴”은 가계를 책임지고 있는 화자의 고달픈 모습을 그려낸 것으로, 이때 화자는 그 얼굴을 “어처구니없는” “〈아버지〉”라고 인식한다. “어처구니없는”이라는 표현을 고려할 때 화자는 “〈아버지〉”인 자신의 모습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해볼 수 있다. 첫째로, 글을 창작하는 작가로서의 정체성과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으로서의 정체성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을 그려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로는,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해 가족들을 가난하게 살게 한 것에 대한 자책의 모습을 그려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둘 중 어느 것으로 해석하더라도, 고단한 화자의 삶을 부각하기 위한 표현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3연에서는 추위에 떨며 자는 자식들의 모습과 그에 대한 화자의 애정이 제시된다. 화자는 “나의 어린 것들” 즉 자식들이 “다다미방”에서 “날무처럼 포름쪽쪽 얼어 있”다고 말하는데, 이는 극도로 가난한 현실과 그 현실에서도 자식들에 대해 애정을 보이는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현상의 특징

① 비유적 표현을 사용함.

예 “가랑잎처럼”, “곡예사들”

→ 시적 상황을 감각적으로 표현함.

②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함.

예 “짤막한 층층계”, “셋까만 유리창”

→ 시적 상황을 강조함.

주제

가장으로서의 책임감과 고단함

이분적 공간의 설정

「층층계」에서는 대조적인 의미의 이질적인 두 공간이 설정되어 있는데, ‘이 층’과 ‘아래층’이 그것이다. ‘이 층’과 ‘아래층’은 ‘상하’의 공간 분리적 대비와 함께, ‘이 층’은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글을 쓰고 있는 공간으로, 화자는 ‘밤이 깊도록’ 깨어, ‘공허감’을 느끼고 있다. 한편 ‘아래층’은 온 가족이 ‘잠’ 들어 있는 공간이며, ‘무심한 평안함’이 존재하는 공간이다. 작가는 ‘창작의 공간’과 ‘생활의 공간’을 이분하여 글을 쓰는 작가로서의 정체성과 가장인 아버지로서의 정체성 사이에서 갈등하는 화자의 모습을 그려내고자 했다고 볼 수 있다.

제목 ‘층층계’의 의미

이 시의 제목인 「층층계」는 시적 화자가 생계를 위한 글을 쓰기 위해 오르내리는 ‘계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화자가 글을 쓰는 ‘원고지’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그려낸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작가는 작품 속 ‘사닥다리를 밟고 원고지 위에서 / 곡예사들은 지쳐 내려오는데……’라는 구절을 통해 원고지와 사닥다리의 형태적 유사성과, 사닥다리와 층층계의 기능적 유사성에서 착안하여 ‘층층계 → 사닥다리 → 원고지’로의 인식을 유도하고 있다.

위 구절에서 사닥다리를 밟고 내려오는 곡예사들이란 바로 화자가 밤늦게 쓰고 있는 ‘원고’의 내용으로 볼 수 있는데, 화자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층층계를 ‘올라’가 글을 쓸수록 그 글은 원고지 칸을 메우며 아래로 ‘내려’오지만 그 글의 내용은 곡예사처럼 위태로워진다. 작가는 이러한 비유와 대비를 통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의 모습을 효과적으로 그려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Memo

「어머니는 말을 둥글게 하는 버릇이 있다

오느냐 가느냐라는 말이 어머니의 입을 거치면 **옹가 강가**가 되고 자느냐 사느냐라는 말은 **장가 상가**가 된다 나무의 잎도 그저 푸른 것만은 아니어서 밤낭구 잎은 **푸르당딩** 해지고 밭에서 일 하는 사람을 보면 **일 항가 땡가** 하기에 장가 가는가라는 말은 **장가 강가**가 되고 애기 낳는가라는 말은 아 낳가가 된다」 「」: “말을 둥글게 하는 버릇”이 있는 “어머니”의 말투

「**장가 낭가 당가 랑가 망가**」가 수시로 사용되는 어머니의 말에는

□: “어머니”의 말투 → ‘ㅇ’ 소리가 많이 들어감 ⇒ 제목인 ‘동그라미’와 연결해볼 수 있음.

한사코 ㅇ이 다른 것들을 떠받들고 있다」 「」: “어머니의 말”에 대한 화자의 인식과 발견

「남한테 해꼬지 한 번 안 하고 살았다는 어머니

「」: 남에게 해를 끼친 적 없이 선량하고 근면하게 살아오신 “어머니”

일생을 흙 속에서 산,」

“허리가 굽어져 한쪽만 뚫린 동그라미 꼴이 된 몸” → “어머니”의 고단했던 삶을 나타냄.

「무장 허리가 굽어져 한쪽만 뚫린 동그라미 꼴이 된 몸으로

“무장”: 갈수록 더.

어머니는 아직도 당신이 가진 것을 퍼 주신다

머리가 발에 닿아 둥글어질 때까지

C자의 열린 구멍에서는 살리는 것들이 쏟아질 것이다」

「」: 고단한 삶을 살고도 “당신이 가진 것”을 퍼주시는 “어머니” → “어머니”의 희생과 헌신

「」: 선량하고 근면하게, 희생과 헌신으로 살아온 “어머니”의 삶을 ‘동그라미’와 연결함.

「우리들의 받침인 어머니」

「」: “어머니의 말”의 ‘ㅇ’ 받침과 “우리들”을 받쳐주는 “어머니” 삶의 유사성을 제시함.

「어머니는 한사코

「」: 자식들에게 전하는 “어머니”의 당부 → ‘동그라미’처럼 둥글게 살라는 “어머니”의 삶의 태도가 드러남.

오손도순 살어라이 당부를 한다」

「어머니는 모든 것을 둥글게 하는 버릇이 있다」

「」: 1연 1행과 유사함. “어머니”는 “말”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둥글게 하는 버릇”이 있음. → “어머니”의 둥근 성품

이해와 감상

이 시는 어머니의 말투에 들어 있는 ‘ㅇ’을 통해 가족을 위해 헌신적인 삶을 살아온 어머니의 모습을 노래한 작품이다.

1연에는 “말을 둥글게 하는 버릇”이 있는 “어머니”의 말투가 제시된다. 화자는 “옹가 강가”, “장가 상가”, “일 항가 땡가”, “장가 강가”, “아 낭가”와 같은 “어머니”의 발화를 활용하여, 둥글게 말하는 어머니의 말투의 ‘ㅇ’ 소리에 주목한다.

이어 2연에서 화자는 “어머니”의 말에는 “ㅇ이 다른 것들을 떠받들고 있다”라고 말한다. “어머니”의 말투에 들어가는 ‘ㅇ’은 작품의 제목인 ‘동그라미’와 더불어 3~5연에 제시된 “어머니”의 삶의 모습과 태도와 연결하여 이해할 수 있다.

3연에서 화자는 “어머니”가 “남한테 해꼬지 한 번 안 하”고, “일생을 흙 속에서” 사셨다고 하는데, “해꼬지”와 “흙”이라는 단어의 이미지를 고려할 때 이는 근면하고 선량하게 살아온 “어머니”의 삶의 태도를 그려낸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

4연에는 희생과 헌신으로 살아온 “어머니”의 삶의 모습이 제시된다. 화자는 “무장 허리가 굽어져 한쪽만 뚫린 동그라미 꼴이 된 몸”으로 “어머니”는 “당신이 가진 것을 퍼 주”시고, “C자 열린 구멍에서는 살리는 것들이 쏟아질 것”이라고 말한다. 이는 고단한 삶으로 허리가 굽은 모습과 그러한 삶 속에서도 가진 것들을 퍼주는 어머니의 희생적인 태도를 나타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5연에는 “우리들”에게 전하는 “어머니”의 당부가 제시된다. “우리들의 받침인 어머니”는 “오손도순 살어라이”라고 당부를 한다. “우리들의 받침”이라는 표현은 어머니의 말투에 들어가는 받침 ‘ㅇ’과 가족들을 위해 헌신하는 어머니의 삶의 유사성을 형상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때 화자는 “어머니”의 말인 “오손도순 살어라이”를 인용하여 ‘동그라미’처럼 둥글게 살 것을 중시하는 어머니의 삶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6연에서 화자는 1연의 1행을 변주하여 어머니의 “둥글게 하는 버릇”을 집약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어머니”의 둥근 성품과 그 삶에 태도에서 자신이 발견한 진정한 사랑의 가치를 강조하며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표현상의 특징

① 유추의 방식을 사용함.

예 “어머니의 말에는 / 한사코 ㅇ이 다른 것들을 떠받들고 있다”,

“우리들의 받침인 어머니”

→ 주제 의식을 효과적으로 드러냄.

주제

동그라미처럼 둥근 성격을 가진 어머니, 어머니의 한없는 희생과 사랑

이대훈의 작품 속 ‘어머니’의 이미지

이대훈의 작품에는 ‘어머니’가 소재로 자주 등장한다. 시인은 자신이 생각한 어머니의 모성애를 ‘땅’의 이미지와 연관 지어 나타내곤 한다. 「동그라미」에서도 ‘한사코’ ‘다른 것들을 떠받’들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 ‘일생을 흙 속에서 산’ 어머니의 모습과 같이 어머니의 모성애를 자연 만물을 키워내는 힘을 지니고 있으며, 자기 희생적인 면모를 지닌 ‘땅’과 연관 지어 표현하고 있다.

안간힘으로 어머니를 쥐었다 눈 흔적이다

생일을 맞을 때마다 손금을 본다 늦그릇 냄새가 난다 가뭄 든 저수지 바닥같다

어머니의 손이 유독 갈라졌던 때가 있었다 검은 금이 가고

더 많은 상처가 생겼다 잔금이 많아졌다 모를 찢 때였다

밤새워 아버지의 옷을 다렸던 어머니는 보리쌀 삶아두고

무논에 갔다 고춧잎 무쳐 아침을 차렸다 무릎박자를 맞추며 아버지는 사장으로 가고 젓먹이 동생 업고 어머니는 밭 매러 갔다

벼랑에서 떨어지다가 나뭇가지를 움켜쥐었다면 이런 자국이 생길 것이다

— 이대훈, 「손금」

이대훈의 또 다른 작품인 「손금」에서는 어머니의 모습이 ‘육체’의 테두리를 넘어 ‘대지의 신’과 같이 땅의 형상을 하고 있다. 화자는 이러한 어머니의 ‘땅’ 위에 서서 상처와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는데, 이를 통해 작가는 수많은 상처를 감내하면서도 자식들을 길러내는 어머니의 모성애를 그려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판잣집 유리딱지』에

“판잣집 유리딱지” → 조각조각 깨어진 유리가 딱지처럼 붙어 있는 판잣집의 모습 ⇒ 6·25 전쟁 직후 황폐해진 민족의 삶을 형상화

『아이들 얼굴이』

불타는 해바라기마냥 걸려 있다.』 『』 : 황폐한 판잣집과 대비되는 아이들의 천진함

“불타는 해바라기마냥” → 비유적 표현,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모습

『내려쫓이던 햇발이 눈부시어 돌아선다.』

『』 : ① 아이들이 햇발이 눈부시어 돌아선다. ② 아이들을 비추는 햇발이 돌아선다.

『나도 돌아선다.』

『』 : “아이들”이 안쓰러워 돌아서는 화자의 모습

『울상이 된 그림자 나의 뒤를 따른다.』 『』 : 황폐한 현실 속에서도 천진난만한 아이들이 안쓰러워하는 화자
⇒ 전쟁의 비극과 그로 인해 고통받는 민족의 아픔을 인식하는 화자

『어느 접어든 골목에서 걸음을 멈춘다.』

『젓더미가 소복한 울타리』에

“젓더미가 소복한 울타리” → 불에 타 폐허가 된 모습 ⇒ 6.25 전쟁 이후의 비극적인 상황

『개나리가 망울졌다.』 『』 : 젓더미 속에서 발견한 개나리 → 비극적 현실 속에서도 피어나는 희망 ⇒ 조국의 미래에 대한 희망

“개나리” → 부정적 현실 속에서도 피어난 희망

『저기 언덕을 내려 달리는』

“언덕을 내려 달리는” → 역동적인 모습

『소녀의 미소엔 앞나가 빠져』

“소녀의 미소” → 맑고 순수한 웃음

죄 하나도 없다.』 『』 : 언덕을 내려 달리는 소녀의 순수한 미소를 발견함

→ 긍정적 미래에 대한 기대감 ⇒ 조국의 긍정적 미래에 대한 기대

『나는 술 취한 듯 흥그러워진다.』

“흥그럽다” : 흥이 나서 마음이 들뜬 상태에 있다.

『그림자 웃으며 앞장을 선다.』 『』 : 흥이 나서 들뜬 “나”와 웃으며 앞장서는 “그림자” → 미래에 대한 낙관적 인식을 드러냄.

1) 불에 타서 검게 그을린 땅. 불에 탄 것처럼 황폐해지고 못 쓰게 된 상태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여기서는 6.25 전쟁 이후의 폐허가 된 상황을 표현한 말.

이해와 감상

이 시는 전쟁 후 폐허가 된 조국의 모습과 그 속에서 갖는 조국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그려낸 작품이다.

1연에서 화자는 “판잣집 유리딱지”에 “아이들 얼굴”이 “불타는 해바라기마냥 걸려 있”다고 말한다. “판잣집 유리딱지”는 깨어진 유리 조각이 딱지처럼 붙어 있는 판잣집의 모습을 그려낸 표현으로 제목의 ‘초토’라는 표현을 참고할 때, 6·25 전쟁 이후 황폐해진 일상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황폐해진 일상과 달리 “아이들”은 천진난만한 모습을 보이는데, 이를 화자는 “불타는 해바라기”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황폐함과 천진난만함을 대비함으로써 전후 민족이 처한 비극적 현실을 부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연에는 천진난만한 “아이들”을 안쓰러워하는 화자의 모습이 제시된다. 화자는 “내리쬘이던 햇발이 눈부시어 돌아”서고 자신도 돌아서는데 “울상이 된 그림자”가 뒤따른다고 말한다. “울상이 된 그림자”는 화자의 그림자로 “울상이 된”이라는 표현을 참고할 때, 이는 천진난만한 아이들이 처한 황폐한 현실로부터 촉발된 화자의 슬픔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민족의 현실로 연결해본다면, 전쟁 직후 고통받는 민족의 아픔을 인식하는 화자의 역사 의식이 드러난 부분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3연에서 화자는 “골목에서 걸음을 멈”추고, “젓더미가 소복한 울타리”에 망울져 핀 “개나리”를 발견한다. “젓더미가 소복한 울타리”는 불에 타 폐허가 된 모습을 그려낸 것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피어난 “개나리”는 부정적 현실 속에서 피어난 희망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즉 화자는 전후 폐허가 된 조국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노래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4연에서 화자는 “언덕을 내려 달리”는 “소녀의 미소”를 보며 “죄 하나도 없다”라고 말한다. “앞니가 빠”진 채 웃으며 “언덕을 내려 달리”는 “소녀”는 낙천적이고 순수한 존재로 볼 수 있으며, 화자는 이러한 속성을 가진 대상을 그려냄으로써 긍정적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5연에서 화자는 “술 취한 듯 흥그러워”지며, 자신의 “그림자”가 “웃으며 앞장을 선다”라고 말한다. 2연의 “울상이 된 그림자”와 대조하여 해석해볼 때, 이는 현실에 대한 화자의 비극적 인식이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인식으로 변화했음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조국의 낙관적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현상의 특징

① 대비되는 대상을 제시함

예 “판잣집 유리딱지”, “젓더미가 소복한 울타리” ↔ “아이들 얼굴”, “개나리”, “소녀의 미소”
→ 시적 상황을 부각함.

② 화자의 정서 변화가 드러남.

예 “울상이 된 그림자 나의 뒤를 따른다.” → “그림자 웃으며 앞장을 선다.”
→ 주제 의식을 부각함.

주제

폐허가 된 비극적 현실과 미래에 대한 낙관적 희망

연작시 ‘초토의 시’

연작시인 구상의 「초토의 시」는 6·25 전쟁 이후 폐허가 된 우리 국토의 비극적인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연작된 15편은 각각 독립된 내용과 형식을 갖추고 있으며 전후 폐허가 된 풍경, 폐허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 분단과 휴전에 대한 단상 등을 주제로 한다. 구상은 연작시 「초토의 시」를 통해 전후 시대 현실로 인한 참담함에 대한 증언이나 이러한 현실을 복구하기 위해 의지와 희망을 가질 것을 독려하고 있다.

『새벽에 깨어나

반짝이는 별을 보고 있으면

이 세상 깊은 어디에 마르지 않는

사랑의 샘 하나 출렁이고 있을 것만 같다.』

『』: "새벽"에 "별"을 보며 "사랑의 샘"이 존재할 것이라 기대하는 화자의 모습 → "새벽": 화자에게 사랑에 대한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시간

『고통과 쓰라림과 목마름의 정령들은 잠들고

"고통과 쓰라림과 목마름의 정령" → 정령들이 처한 부정적 상황을 암시함.

눈시울이 붉어진 인간의 혼들만 깜박이는

"눈시울이 붉어진 인간의 혼들" → 고달프고 슬픈 인간의 처지를 암시함.

아무도 모르는 고요한 그 시각에

"그 시각": 새벽

아름다움은 새벽의 창을 열고

우리들 가슴의 깊숙한 뜨거움과 만난다.』 『』: "새벽"의 속성 → 부정적 현실 속에서 절실한 소망을 갖게 되는 시간

"우리들 가슴의 깊숙한 뜨거움" → 인간의 절실한 소망, 가슴 속 진실된 희망

『다시 고통하는 법을 익히기 시작해야겠다.

□: 다시 고통하는 법을 익히기 시작하면 할 수 있는 일

이제 밝아 올 아침의 [자유로운 새소리를 듣기] 위하여

"밝아 올 아침" → 화자가 기대하는 시간 ⇒ 사랑에 대한 기대와 절실한 소망이 실현되는 때

[따스한 햇살과 바람과 라일락 꽃 향기를 맡기] 위하여

"자유로운 새소리", "따스한 햇살과 바람", "라일락 꽃 향기" → "아침"이 오면 맞이할 아름다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를 사랑한다는 한마디]

"너를 사랑한다는 한마디 / 새벽 편지" → 부정적 상황에 처한 이에게 전하는 위로

새벽 편지를 쓰기 위하여』 『』: "다시 고통하는 법"을 익히기 시작해 "아침"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모습

→ 고통을 이겨내고 극복하려는 의지 (부정적 현실에 대한 대응 의지)

『새벽에 깨어나

반짝이는 별을 보고 있으면

이 세상 깊은 어디에 마르지 않는

희망의 샘 하나 출렁이고 있을 것만 같다.』

"희망의 샘" → "사랑"을 "희망"으로 변주 → 사랑과 희망이 실현되는 세계에 대한 소망을 강조함.

이해와 감상

이 시는 “새벽”이라는 시간적 배경에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여 부정적 상황에서 사랑과 희망이 실현되기를 바라는 소망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1~4행에서 화자는 “새벽”에 “반짝이는 별”을 보며 “사랑의 샘”이 존재할 것만 같다고 한다. 이는 “새벽”에 “사랑”을 기대하는 화자의 모습으로 이해해볼 수 있으며, 따라서 “새벽”은 화자에게 “사랑”에 대한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시간으로 볼 수 있다.

5~9행에서 화자는 “가슴의 깊은 뜨거움”과 만나는 “새벽”에 대해 이야기한다. “아무도 모르는 고요한 그 시각” 즉 “새벽”에는 “고통과 쓰라림과 목마름의 정령들”이 잠들고, “눈시울이 붉어진 인간의 혼들”만 깎박이는 시간이다. 화자는 이러한 시간인 “새벽”에 “아름다움은 새벽의 창을 열”고 “가슴의 깊은 뜨거움과 만난”다고 한다. “고통과 쓰라림과 목마름”, “눈시울이 붉어진”이라는 표현에서 “정령”과 “인간”이 처한 상황이 부정적임을 짐작할 수 있으며, 이때 화자가 만나는 “가슴의 깊은 뜨거움”은 문맥을 고려할 때 가슴 속에 품고 있는 진실된 희망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고려할 때, “새벽”은 부정적 현실 속에서 절실하고 진실된 소망을 갖게 되는 시간으로 이해할 수 있다.

10~14행에서 화자는 “다시 고통하는 법”을 익히기 시작해 “아침”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인다. 화자는 “밤아 올 아침의 자유로운 새소리를 듣”고, “따스한 햇살과 바람과 라일락 꽃 향기를 맡”기 위해 “다시 고통하는 법”을 익히기 시작하겠다고 한다. 앞선 8~9행의 내용을 고려할 때, “자유로운 새소리”와 “따스한 햇살과 바람”, “라일락 꽃 향기”는 “밤아 올 아침”이 오면 맞이할 “아름다움”과 조용하다고 볼 수 있다. 이어 화자는 “진정으로 너를 사랑한다는 한마디 / 새벽 편지를 쓰기 위”해 “다시 고통하는 법”을 익히기 시작하겠다고 한다. 이는 앞서 5~6행을 고려할 때, 부정적 상황에 처한 이에게 전하는 위로로 이해해볼 수 있으며, 따라서 “다시 고통하는 법”을 익히려는 화자의 모습은 고통을 직면하고 대응하여 이겨내려는 행위로 이러한 화자의 모습에서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15~18행에서 화자는 1~4행의 “사랑의 샘”을 “희망의 샘”으로 변주하여 “사랑”과 “희망”이 실현되는 세계에 대한 소망을 강조하며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표현상의 특징

① 수미상관의 구조를 활용함.

- 예 “새벽에 깨어나 ~ 출렁이고 있을 것만 같다.”
→ 화자의 인식을 강조함. 구조적 안정감을 부여함.

② 다양한 감각적 심상이 활용됨.

- 예 “반짝이는 별”, “눈시울이 붉어진”, “고요한 그 시각에”, “깊숙한 뜨거움”, “자유로운 새소리”, “따스한 햇살과 바람과 라일락 꽃 향기”
→ 화자의 인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함.

주제

새벽에 깨달은 사랑과 희망의 가치

시인 박재구가 강조하는 사랑과 공생의 가치

「새벽 편지」가 발표된 1985년은 군사정권 아래 급속하게 산업화가 진행되어 사회에 여러 문제들이 대두되던 시기로, 이러한 시대 현실에도 불구하고 박재구는 미래를 부정적으로 전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민중들을 위로하는 시들을 썼다. 그는 고단하고 힘든 현실 속에서 우리 이웃과 자신을 품고 이겨내는 힘은 ‘사랑’에 있다고 믿었다. 「새벽 편지」의 화자는 ‘너를 사랑한다는 한마디 새벽 편지’를 쓰겠다고 다짐하며, 화자의 다짐을 통해 ‘사랑의 샘’은 ‘희망의 샘’이 된다. 이는 독자에게 이웃을 위하는 일이 결국 나를 위하는 일임을 상기시키고 공생의 가치를 깨닫게 하기 위한 작가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떨어져 나간 대문짝

안마당에 복사꽃이 빨갳다

『가마솥이 그냥 걸려 있다

벌겍게 녹이 슬었다』 『』: 폐가가 된 빈집의 풍경

『』: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녹이 쓴 가마솥 → 폐가가 된지 오래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음.

『잡초가 우거진 부엌 바닥

“잡초가 우거진” → 폐가가 된지 오래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음.

아무렇게나 버려진 가계부엔

콩나물값과 친정어머니한테 쓰다 만

“친정어머니한테 쓰다 만” / “편지” → 쓰다가 보내지 못한 채 버려진 편지 ⇒ 빈집 주인의 고달픈 삶을 짐작할 수 있음.

편지』 『』: 빈집 내부 “부엌 바닥”에서 발견한 방치된 물건들 → 폐가가 된 빈집의 황량함을 부각함.

『“빈집 서넛 더 더듬다가”

『』: 폐가가 된 집이 한집만이 아니라 여럿임을 드러냄.

폐광 올라가는 길에서 한 늙은이 만나

“폐광”: 광산에서 광물을 캐내는 일을 중지함. 또는 그 광산. → 빈집들이 여럿 생기게 된 이유

동무들 소식 물으니

서울 내 사는 데서 멀지 않은

산동네 이름 두어 곳을 댄다』 『』: “폐촌”을 떠나 “서울”로 이주하였으나 “산동네”에서 살아가는 “동무들”의 소식을 들음.
→ 황폐화된 광산 마을을 떠났으나 여전히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부정적 현실을 부각함.

이해와 감상

이 시는 폐촌이 된 마을의 황량하고 쓸쓸한 정경을 묘사한 작품이다.

1연에는 폐가가 된 빈집의 풍경이 묘사된다. 빈집의 대문쪽은 “떨어져 나”가 있는 상태이며, 안마당에는 “복사꽃이 빨강”게 피어 있으며, 그곳에 걸려 있는 “가마솥”은 “벌겋게 녹이 슬”어 있다. 문짝이 떨어져 나가고 가마솥이 녹이 슬어있는 모습에서 빈집이 폐가가 된 지 오래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으며, 화자는 빈집의 풍경을 감각적으로 그려냄으로써 그곳의 황량하고 쓸쓸한 분위기를 부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연에는 폐가에 방치된 물건들의 모습이 제시된다. 빈집의 “부엌 바닥”은 “잡초가 우거”진 상태이며, 그곳에서 화자는 “아무렇게나 버려진 가계부”를 발견한다. “가계부”에는 “콩나물값과 친정어머니한테 쓰다 만 / 편지”가 있는데, 작중 상황을 고려할 때 고달픈 삶으로 인해 집을 버리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빈집 주인의 사연을 짐작할 수 있다.

3연에는 빈집이 여럿 생긴 마을의 모습과 노인에게 동무들의 소식을 듣는 화자의 모습이 제시된다. 화자는 “빈집 서넛 더 더듬다”가 “폐광 올라가는 길”에서 늙은이를 만나 “동무들 소식”을 묻는다. 빈집이 여럿 있다는 것과 “폐광”이라는 단어를 참고할 때, 마을이 폐촌이 된 이유는 폐광으로 인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진 사람들이 마을을 떠났기 때문임을 짐작할 수 있다. 화자의 물음에 “늙은이”는 “서울 내 사는 데서 멀지 않”은 “산동네 이름 두어 곳을” 댈다. “산동네”라는 표현을 참고할 때, 폐광으로 황폐해진 마을을 떠난 “동무들”은 여전히 넉넉하지 않아 고달픈 삶을 살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표현상의 특징

① 묘사적 서술을 활용함.

예 1연~8연

② 색채 이미지를 사용함.

예 “복사꽃이 빨강다”, “벌겋게 녹이 슬었다”

→ 폐촌의 이미지를 부각함.

주제

폐광으로 인해 폐촌이 된 마을의 황폐함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웃에 대한 신경림의 시선

신경림은 ‘시는 쓰러지고 엎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몫이더 큼니다. 상처 받은 사람을 달래고 어루만지는 일이야말로 시가 할 일입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웃을 위한 시 쓰기를 자처한 시인이다. 「폐촌행」 역시 폐광으로 인해 폐허가 된 마을의 쓸쓸한 풍경을 생생하게 그려냄으로써 민중의 고달픈 삶의 실상을 부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민중을 외면하지 않고 지극한 애정으로 민중에게 위로를 전하고자 하는 작가의 애정 어린 시선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날로 기우뚱해 가는 마을 회관 옆

□ : 힘겹고 가난한 마을(농촌)의 현실

청솔 한 그루 곳곳이 서 있다.

「마을 회관」(날로 기우뚱해 감) ↔ 「청솔 한 그루」(곳곳이 서 있음)

「한때는 앰프 방송 하나로

집집의 새앙쥐까지 깨우던 회관」 옆,

「」: 지금과는 다른 과거 「회관」의 모습 대조적으로 제시 → 기우뚱해 가는 현재 「마을」의 부정적 상황을 부각함.

「그 등치의 터지고 갈라진 아픔으로

「등치」: 큰 나무의 밑동.

푸른 눈 더욱 못 감는다」

「」: 아픔을 느끼며 눈 못 감는 「청솔 한 그루」의 모습 → 마을 현실의 비극성 강조

「그 회관 들창 거덜 내는 뗏바람 때」마다 「뗏바람」: ① 일이나 때를 당하여 서슴지 않고 당장.

「들창」: 들어서 여는 창(≒ 들창문)

② 일이나 때를 당하여 단 한 번.

③ 아주 이른 시간.

청솔은 또 한바탕 노엽게 온다.

거기 술만 취하면 앰프를 켜고

천등산 박달재를 울고 넘는 이장과 함께.」

「」: 마을 사람(들)과 함께 우는 청솔의 모습 → 마을의 힘겨운 현실, 비극적 상황을 부각함

「생산도 새마을도 다 끊긴 궁벽」, 그러나

「궁벽」: 「궁벽하다」(매우 후미지고 으스스하다)의 어근

저기 「난장 난 비닐하우스」를 일으키다

「난장」: 여러 사람이 뒤섞여 떠돌아 대거나 뒤엉켜 뒤죽박죽이 된 곳. 또는 그런 상태.

그 청솔 바라보는 몇몇들 보아라.」

「」: 부정적 상황을 극복해 보려는 몇몇들의 모습 → 현실 극복 의지 강조

「그때마다, 삭바람마저 빗질하여

「삭바람」: 겨울에 부는 북풍(北風) → 시련과 고난을 암시함.

서러움조차 잘 걸러 내어

푸른 숨결을 풀어내는 청솔 보아라.」

「」: 부정적 현실로 인한 시련과 서러움을 승화해주는 청솔의 모습

「『나는 희망의 노예는 아니거니와」

「」: 화자가 꿈꾸는 희망이 허황된 것이 아님을 드러냄.

「까막까지 얼어 죽는 이 아침」에도

「꼭두서니」: 꼭두서닛과의 어려해살이 덩굴풀.

저 동녘에선 꼭두서니빛 타고른다.」

「」: 부정적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미래가 도래할 것을 기대하는 화자의 모습

1) 매우 심한 한겨울의 추위.

이해와 감상

이 시는 가난한 농촌 마을의 한겨울의 풍경을 형상화하여 힘겹고 가난한 농촌 현실을 그려낸 작품이다.

화자는 1연에서 “청솔 한 그루”의 모습을 그려낸다. “청솔 한 그루”는 “날로 기우뚱해 가는 마을 회관 옆”에 “꽃꽂이 서 있다”. “날로 기우뚱해 가는”이라는 표현을 참고할 때, “마을”은 이전과 달리 퇴락해 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마을 회관”과 달리 “청솔 한 그루”는 “꽃꽂이 서 있다”는 존재로, 화자는 두 대상을 대비함으로써 “청솔 한 그루”의 꽃꽂한 속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연에는 과거 “마을”의 모습과 아픔을 느끼는 “청솔 한 그루”의 모습이 제시된다. 화자는 “마을 회관”은 “한때는 앰프 방송 하나로 / 집집의 새앙쥐까지 깨우던” 곳이라고 하는데, 이는 1연에 제시된 “마을 회관”의 초라한 모습과 대조되는 과거 “마을 회관”의 생동감 넘치는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어 화자는 “등치의 터지고 갈라진 아픔”으로 “푸른 눈 더욱 못 감는다”라고 이야기한다. 이때 “더욱 못 감는다”라는 구절을 현재 “마을”의 상황과 연결하여 본다면 “청솔 한 그루”의 아픔은 과거와 달리 퇴락해 가는 “마을”의 부정적 현실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를 1연에 제시된 “꽃꽂이 서 있다”는 “청솔 한 그루”의 속성과 연결해본다면, “청솔 한 그루”는 아픔을 견뎌내는 의지를 가진 존재로 볼 수 있다.

3연에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우는 “청솔”의 모습이 제시된다. “청솔”은 “들창 거덜내는 댕바람 때”마다 “술만 취하면 앰프를 켜고 / 천등산 박달재를 울고 넘는 이장”과 함께 “노엽게” 운다. 앞서 제시된 “마을”의 부정적 상황과 연결해보면 “이장”은 힘겨운 현실을 겪고 있는 마을 사람들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으며, “청솔”은 이들과 동질감을 느끼며 함께 울어주는 존재로 이해해볼 수 있다.

4연에는 힘겨운 현실을 이겨내 보려는 “몇몇들”의 모습이 제시된다. “몇몇들”은 “생산도 새마을도 다 끊긴 궁벽”이지만, “난장 난 비닐하우스”를 일으키며 “청솔”을 바라본다. 3연을 고려할 때 “몇몇들”은 힘겨운 현실을 살아가는 마을 사람들로 볼 수 있으며, 이들은 황폐화된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이겨내려는 태도를 보인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를 “그 청솔 바라보는”이라는 구절과 연결해보면, 현실을 극복해 내려는 의지적 태도는 꽃꽂하게 서서 아픔을 견뎌내는 “청솔”의 속성과 조응한다고 볼 수 있다.

5연에는 부정적 현실로 인한 서러움을 승화해주는 “청솔”의 모습이 제시된다. 화자는 “청솔”이 “그때마다, 삭바람마저 빗질하여 / 서러움조차 걸러 내”어 “푸른 숨결을 풀어”낸다고 말한다. 4연의 내용을 고려할 때 “그때”는 “몇몇들”이 현실을 극복해 내려고 하는 때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삭바람 마저 빗질하여 / 서러움조차 잘 걸러 내”는 “청솔”은 부정적 현실로 인한 시련과 슬픔을 승화해주는 모습을 지닌 존재로 이해할 수 있다.

6연에서 화자는 자신이 “희망의 노예는 아니”라고 말하며, “까막까지 얼어 죽는 이 아침”에도 “꼭두서니빛”이 타오른다고 말한다. 이는 “까막까지”가 얼어 죽는 극한의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미래가 도래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희망을 잃지 않는 화자의 태도가 투영된 표현으로 볼 수 있다.

표현상의 특징

① 대비되는 대상을 제시함

예 “마을 회관” ↔ “청솔”

② 대상에 감정을 이입함.

예 “청솔은 또 한바탕 노엽게 운다.”

→ 비극적 상황과 극복 의지를 강조함.

② 색채 이미지를 활용함.

예 “청솔”, “푸른 눈”, “푸른 숨결”, “꼭두서니빛”

→ 화자의 극복 의지를 강조함.

주제

힘겨운 농촌의 현실과 극복 의지, 현실을 견디게 하는 희망

김정희의 그림 〈세한도〉와 고재종의 〈세한도〉



▲ 김정희, 「세한도」

추사 김정희의 그림 「세한도」는 작가가 제주도에서 귀양살이를 할 때, 자신을 잊지 않고 귀한 책을 구해 보내준 제자에게 그려준 그림이다. 한겨울의 극한 추위에도 토담집을 중심으로 왼쪽에 잣나무 두 그루, 오른쪽에 잣나무 한 그루와 소나무 한 그루가 의연하게 서 있다. 이때 굵어 있는 소나무는 모진 세파를 견딘 드높은 의지와 절개를 표상하는 것으로 당시 유배 생활 중이던 추사 김정희 자신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시인 고재종은 김정희의 그림을 모티브로 하여 시 「세한도」를 창작하여 가난한 농촌 마을이 겪는 ‘세한’의 풍경을 형상화하고 있다. 고재종 역시 소나무에 주목하는데, 고재종의 「세한도」에서 소나무는 기울어져 가는 마을 회관 옆에 꽃꽂이 서 있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이를 통해 고재종은 비극적인 농촌 현실과 그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극복해 내려 하는 민중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인쇄한 박수근 화백 그림을 하나 사다가 걸어놓고는 물끄러미 그걸 치어다보면서 나는
“박수근 화백 그림” → 시적 대상 ⇒ 사상을 촉발하는 대상

그 그림의 제목을 여러 가지로 바꾸어보곤 하는데 원래 제목인 ‘강변’도 좋지마는 「할머니’라

든가 ‘손주’라는 제목을 붙여보아도 가슴이 알알한 것이 여간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다가는
“알알하다” : 상처 따위로 약간 아린 느낌이 있다.

나도 모르게 한 가지 장면이 떠오릅니다.」 「그가 술을 드시러 저녁 무렵 외출할 때에는 마당에
「」: “박수근 화백 그림”을 보며 새롭게 이름을 붙여보기다가, 어떤 “장면”을 떠올리는 화자 → 화자의 인식이 확장됨.

널린 빨래를 걷어다 개어놓곤 했다는 것입니다. 그 빨래를 개는 손이 참 커다랐다는 이야

기는 참으로 장엄하기까지 한 것이어서 성자의 그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는 멧쟁이
“성자” : 지혜와 덕이 매우 뛰어나 길이 우러러 본받을 만한 사람.
 「」: “그”(박수근 화백)과 관련하여 전해 들은 일화

이긴 멧쟁이였던 모양입니다.」

「」: “박수근 화백 그림”을 감상하다 “그”(박수근 화백)의 일화를 떠올리며 긍정적인 인식을 드러내는 화자.

□: “박수근 화백”이 생전에 느꼈던 것들.

→ “박수근 화백”이 죽은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화자가 궁금해하는 대상들.

『그러나 또한 참으로 궁금한 것은 그 커다란 손등 위에서 같이 폄지락거렸을 **햇빛들**이

며는 그가 죽은 후에 그를 쫓아갔는가 아니면 이승에 아직 남아서 어느 그러한, 장엄한 손길

위에 다시 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가 마른 빨래를 개며 들었을지 모르는 **빠꼭새 소리**

같은 것들은 다 어떻게 되었을까. 내가 궁금한 일들은 그러한 궁금한 일들입니다. 그가 가지고

갔을 **가난**이며 **그리움** 같은 것은 다 무엇이 되어 오는지…… 저녁이 되어 오는지…… 가을이

되어 오는지…… 궁금한 일들은 다 슬픈 일들입니다.」
“슬픈 일” → “그”(박수근 화백)가 죽은 후 함께 사라진 것들에 대한 슬픔

「」: “그”가 죽은 뒤 함께 사라진 것들에 대해 궁금해하며 슬픔을 느끼는 화자. → 존재론적 한계에 대한 근원적 슬픔

이해와 감상

이 시의 화자는 박수근 화백의 그림을 감상하며 떠오른 일화를 중심으로 그의 예술에 대한 예찬과 존재론적 한계에 대한 슬픔을 그려내고 있다.

1연에는 박수근 화백의 그림을 감상하며 일화를 떠올리고, 그의 예술에 대해 예찬하는 화자의 모습이 제시된다. 화자는 “박수근 화백 그림”을 보면서 “그림의 제목을 여러 가지로 바꾸어 보”곤 한다. 원래 제목인 “강변도 좋지마는 ‘할머니’라든가 ‘손주’라는 제목”을 붙여 보며 화자는 “가슴이 알알한 것이 여간 좋은 게” 아니라고 말한다. 이는 박수근의 그림에 빠져 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으로, 화자가 박수근의 그림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어 화자는 “한 가지 장면”을 떠올리며 외출할 때 빨래를 걷어 개어 놓곤 했던 박수근 화백의 빨래 개는 손이 커다랐다는 일화를 제시한다. 이때 화백의 손이 “장엄하기까지 한 것이어서 성자의 그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며, 화자는 화백을 “멋쟁이”라고 평가한다. “성자의 그것”, “멋쟁이”라는 표현을 고려할 때, 화자는 박수근 화백에 대해 또는 그의 예술에 대해 예찬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연에서 화자는 박수근 화백이 죽은 뒤 함께 사라진 것들에 대해 궁금해하며 슬픔을 드러낸다. 화자는 화백의 “커다란 손등 위에서 같이 꿈지락거렸을 햇빛들”이 “그를 쫓아갔는가 아니면 이승에 아직 남아”서 “장엄한 손길 위에 다시 떠 있는가”라며 궁금해한다. 이어 “그가 마른 빨래를 개며 들었는지 모르는 삐걱새 소리”가 어떻게 되었을지, “그가 가지고 갔을 가난이며 그리움 같은 것”은 무엇이 되어 오는지를 궁금해하며 그 모든 “궁금한 일들은 다 슬픈 일들”이라고 말한다. 이는 “그”가 죽은 후 함께 사라진 것들에 대한 슬픔을 드러낸 것으로, 화자의 슬픔은 영원할 수 없는 존재의 한계에 대한 상념에 의해 촉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현상의 특징

① 산문체를 사용함.

예 시 전체

→ 화자의 내면 인식을 효과적으로 드러냄.

② 동일한 어미를 반복함.

예 “-ㅂ니다.”

→ 운율감을 형성함, 구조적 안정감을 부여함.

주제

박수근 예술에 대한 예찬과 존재론적 한계에 대한 슬픔

존재론적 한계에 대한 슬픔의 의미

1970년대의 고속 성장 속에서 가난은 이미 극복된 것, ‘과거’의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장석남은 그와 달리 가난을 ‘현재’의 문제로 바라보고자 했다. 그에게 가난은 연민이나 동정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근원적인 결여와 상실을 상기하게 하는 통로로 인식 되었으며, 그것으로 인해 촉발된 공허와 슬픔은 현재까지도 해소 되지 않는 문제였다. 이를 고려할 때, 「궁금한 일-박수근의 그림에서」에서 화자가 박수근 화백이 죽은 후 사라진 것들(햇빛들, 삐걱새 소리 같은 것들, 가난, 그리움 등)에 대한 궁금증으로 존재론적 한계에 대한 애상을 느끼는 모습은 장석남의 이러한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나를 쫓아온 눈발 어느새 여기서 그쳐

“나” ⇒ 조선 후기 대동여지도로 만든 고산자 김정호

어둠 덮인 이쪽 능선들과 헤어지면 바다 끝까지

“능선” : 산등성이를 따라 죽 이어진 선.

길게 걸쳐진 검은 구름 떼

헛디더 내 아득히 해맨 날들 끝없이 퍼덕이던

“내 아득히 해맨 날들” → 오랜 시간 동안 해맨 “나” ⇒ 지도를 만들기 위해 오랜 시간 해매고 살아온 김정호의 삶

바람은 다시 옷자락에 와 불고

스치는 소매 끝마다 툭툭 수평선 끊어져 사라진다.』 “나” : 바다 끝에 이르기까지 끝없이 걸어진 “나”의 여정

“일념” : 한결같은 마음, 또는 오직 한 가지 생각. ⇒ 지도를 완성하겠다는 김정호의 일념

『사라진다 일념도 세상 흐린 웃음소리에 감추며

“세상 흐린 웃음소리” → 세상 사람들의 부정적인 웃음소리 ⇒ 지도를 만드는 일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 소리

여기까지 끌고 왔던 사랑 해진 발바닥의

“해진 발바닥”, “감발에 번진 피얼룩” → “나”의 부단한 노력

무슨 감발에 번진 피얼룩도

“감발” : 버선이나 양말 대신 발에 감는 좁고 긴 무명천. 주로 먼 길을 걸거나 막일을 할 때 쓴다.

저렇게 저문 바다의 파도로서 풀어지느냐」

“나” : 일념도 피얼룩도 파도로 풀어진다고 말하는 화자 → 일념과 부단한 노력이 파도 앞에서 사라졌다고 느끼는 모습

『폐선된 목선 하나 덩그러니 뜬 모래벌에는

“목선” : 나무로 만든 배.

무엇인가 줌고 있는

“남루하다” : 옷 띠위가 남아 해지고 차림새가 너저분하다.

남루한 아이들 몇 명」

“나” : 폐선과 남루한 아이들 몇 명 보이는 모래벌의 풍경

“나” : 바다를 보며 허무감을 느끼는 “나”와 모래벌의 쓸쓸한 풍경

→ 고된 여정에서 고독감을 느끼는 “나”의 모습을 부각함

⇒ 지도를 완성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살아온 김정호의 고독감

『굽은 갑에 부딪혀 꺾어지는 목소리가 들린다

“갑(岬)” : 바다 쪽으로, 부리 모양으로 뾰족하게 뻗은 육지.

『어둡고 외진 길목에 자식 두엇 던져 놓고도』

“나” : “나”의 여정으로 좋지 않은 환경에서 자라고 있는 “자식”들의 상황

『평생의 마음 안팎으로 띄워 올린

별빛으로 환해 지던 어느 밤도 있었다.』

“나” : “나”의 마음이 환해지던 “어느 밤” → 일념을 추구하는 것에 대한 “나”의 의지를 엿볼 수 있음.

희미한 빛 속에서는 수없이 물살 흘러지면서

“인광” : 빛의 자극을 받아 빛을 내던 물질이, 그 자극이 멎은 뒤에도 계속하여 내는 빛.

흘러 놓은 인광만큼이나 그리움 끝없고

“그리움” → “자식”(가족)에 대한 그리움

마주 서면 아직도

등불을 켜고 어디론가 가고 있는 듯배 한 척이 보인다」

“나” : 가족에게 “그리움”을 느끼는 화자의 모습과 향해하는 듯배 한 척의 모습

이해와 감상

이 시는 대동여지도를 만든 김정호의 삶을 상상하여 쓴 작품으로, 화자는 지도를 편찬하기까지 김정호의 노력과 그 가운데 느끼는 고단함과 외로움을 그려내고 있다.

1연에는 바다 끝에 이르기까지 끝없이 걸어온 “나”(김정호)의 여정이 제시된다. “나”는 “눈발”이 그치고 “어둠 덮인 이쪽 능선들과 헤어져 “바다 끝”에 이르러 “길게 걸쳐진 검은 구름떼”와 “옷자락에 와 붙는 “바람”과 “끓어져 사라”지는 “수평선”을 마주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때 “헛디더 내 아득히 해맨 날들이 끝없이 퍼덕이던”이라는 표현을 고려할 때, “나”는 오랜 시간 동안 해맨 후에 “바다 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를 김정호의 삶으로 확장해본다면, 지도를 편찬하기 위해 오랜 시간을 해매고 살아온 모습을 형상화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2연에는 바다를 보며 허무감을 느끼는 “나”의 모습과 모래벌의 쓸쓸한 풍경이 제시된다. 화자는 “세상 흐린 웃음소리에 감추”며 “일념”도 사라지며, “여기까지 끌고 왔던 사랑 헤진 발바닥”의 “피열록”도 “저문 바다의 파도로서 풀어”진다고 말한다. 1연의 문맥과 김정호의 삶을 고려할 때, 이는 일념과 부단한 노력이 바다 끝에 이르러 사라졌다는 허무감을 드러낸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어 “폐선된 목선 하나 덩그러니 뜬 모래벌”에서 무엇인가 줍고 있는 “남루한 아이들”의 모습이 제시된다. 이는 바다의 쓸쓸한 풍경을 그려낸 것으로, 바다 끝 여정까지 고독감과 허무감을 느끼는 “나” 즉 지도를 완성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살아온 김정호의 쓸쓸함을 부각한다고 볼 수 있다.

3연에는 가족에 대해 그리움을 느끼는 “나”의 모습과 항해하는 돛배 한 척의 모습이 그려진다. 화자는 “굽은 갑에 부딪혀 꺾어지는 목소리”를 들으며 “어둡고 외진 길목에 자식 두엇 던져 놓고”도 “평생의 마음 안팎으로 띄워 올”려 “환해지던 어느 밤”을 떠올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어둡고 외진 길목에 자식 두엇 던져 놓고”는 문맥을 고려할 때, 일념을 추구하는 동안 또는 바다 끝 여정으로 인해 좋지 않은 환경에서 자라고 있는 “나”의 가족의 모습을 그려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때 “어느 밤”은 가족을 두고 떠나와서도 계속해서 일념을 추구해 화자의 마음이 환해진 때로, 일념 추구에 대한 의지를 부각하는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이어 화자는 “희미한 빛 속에서는 수없이 물살 흩어지”면서 “흩어놓은 인광만큼이나 그리움”이 끝없다고 말한다. 문맥을 고려할 때 끝없는 “그리움”은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화자는 “마주 서면 아직도” “등불을 켜고 어디론가 가고 있는 돛배 한 척”이 보인다고 말하며 시상을 마무리한다. 이는 목적지를 향해 가는 배의 모습으로, 1~2연에서 내용을 고려할 때 고독하지만 끊임없이 일념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나” 즉 김정호의 모습과 상통한다고 이해해볼 수 있다.

표현상의 특징

① 다양한 감각적 심상을 활용함.

예 “검은 구름 떼”, “퍼덕이던 / 바람”, “웃음소리”, “피열록”, “저문 바다의 파도”, “별빛으로 환해지던 어느 밤”, “희미한 빛”
→ 화자의 정서를 부각함.

② 현재형 어미와 과거형 어미를 함께 사용함.

예 “사라진다”, “들린다”, “있었다.”, “보인다”
→ 주제 의식을 효과적으로 드러냄.

주제

바닷가에서 느끼는 고단함과 외로움, 지도를 완성하겠다는 일념으로 살아온 김정호의 삶의 고독함 · 쓸쓸함

지리학자 김정호의 삶에 대한 궁금증

조선 후기 지리학자 김정호는 <대동여지도>를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로, 그는 축척에 맞는 지도의 중요성을 깨닫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지도를 제작하였다고 전해진다. 이러한 김정호의 업적뿐만 아니라 김정호가 개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은 남아 있으나, 자료가 거의 남아 있지 않아 추정할 뿐이다. 따라서 시인 김명인은 <대동여지도>를 만든 김정호의 삶을 주관적으로 상상하여 역사적 자료로 확인이 어려운 고산자 김정호의 고독과 고뇌를 그려냄으로써 김정호의 삶에 대한 대중의 궁금증에 주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바지랑대 끝 더는 꼬일 것이 없어서 끝이다 끝 하고

“바지랑대” : 빨랫줄을 받치는 긴 막대기.

□ :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

다음 날 아침에 나가 보면 나팔꽃 줄기는 허공에 두 뼘은 더 자라서

꼬여 있는 것이다.」 「움직이는 것은 아침 구름 두어 점, 이슬 몇 방울

「 」 : 자신의 생각과 다르게 “바지랑대”가 끝나도 자라는 “나팔꽃”을 발견한 화자

더 움직이는 바지랑대는 없을 것이었다

그런데도 다음 날 아침에 나가 보면 덩굴손까지 흘러나와

허공을 감아쥐고 바지랑대를 찾고 있는 것이다」

「 」 : 자신의 생각과 다르게 “바지랑대”를 찾으며 자라는 “나팔꽃”을 발견한 화자

「이젠 포기하고 되돌아올 때도 되었거니 하고

다음 날 아침에 나가 보면 가냘픈 줄기에 두세 개의 종까지 매어 달고는

“두세 개의 종” → 줄기 끝에 자란 “나팔꽃”

아침 하늘에다 은은한 종소리를 퍼내고 있는 것이다」

「 」 : 자신의 생각과 다르게 포기하지 않고 자라는 “나팔꽃”을 발견한 화자

「이젠 더 꼬일 것이 없다 없다고 생각되었을 때

우리의 아픔도 더 한 번 길게 꼬여서 푸른 종소리는 나는 법일까.」

「 」 : 한계에도 멈추지 않고 자라는 “나팔꽃”을 보고 “우리의 아픔”을 떠올리며 인생을 성찰하는 화자

→ “나팔꽃”이 뻗어 나가는 모습에서 발견한 가치를 삶의 가치로 연결함.

이해와 감상

이 시는 나팔꽃 줄기가 뻗어 나가는 모습에서 발견한 깨달음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1~9행에는 자신의 생각과 달리 계속해서 뻗어 나가는 “나팔꽃”을 발견한 화자의 모습이 제시된다.

화자는 “바지랑대 끝 더는 꼬일 것이 없”다고 하며, “나팔꽃”의 줄기가 더 이상 꼬여 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에 “허공에 두 뻗은 더 자라”서 꼬여 있는 것을 발견한다. 이어 화자는 “더 움직이는 바지랑대는 없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또 “다음 날 아침”에 “덩굴손까지 흘러나”온 상태로 “허공을 감아쥐고 바지랑대를 찾고 있”는 “나팔꽃” 줄기의 모습을 발견한다. 또 이어 화자는 “이젠 포기하고 되돌아올 때도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다음 날 아침”에 “줄기에 두세 개의 종” 즉 꽃까지 피고 자라난 모습을 발견한다.

이러한 화자의 발견은 깨달음으로 이어져, 10~11행에서 삶의 가치에 대한 인식으로 확장된다. 화자는 “꼬일 것이 없다”고 생각 되었을 때, “우리의 아픔도 더 한 번 길게 꼬여서 푸른 종소리”가 나는 것인지 묻는다. 이는 한계에도 멈추지 않고 자라나 꽃까지 피우는 “나팔꽃”을 보며 “우리의 아픔” 즉 인생에 대해 성찰하는 모습으로 이해해볼 수 있다. 즉, 화자는 인생에 대해 질문을 던짐으로써, 고난과 시련과 같은 부정적 현실을 이겨내는 삶의 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현상의 특징

①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함.

예 “다음 날 아침에 나가 보면 ~ 있는 것이다”
→ 대상의 의미를 강조함.

② 다양한 감각적 심상을 활용함.

예 “은은한 종소리”, “푸른 종소리”
→ 대상의 의미를 감각적으로 드러냄.

주제

나팔꽃 줄기를 통한 인생의 의미 성찰

‘나팔꽃’의 이미지와 송수권의 생태적 상상력

나팔꽃은 본래 땅 위를 뻗어 나가기도 하지만 기댈 곳이 있으면 어디라도 감고 뻗어 나가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 「나팔꽃」에 나타난 ‘나팔꽃’은 약해 보이지만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으며, 극한 상황에서도 포기할 줄 모른다. 작가는 이러한 나팔꽃에 주목하여 유한한 생명의 한계를 벗어난 끈질긴 생명력을 예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여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자연 존중을 기반으로 한 송수권 특유의 생태적 상상력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정끝별, 「가지가 담을 넘을 때」

(2024_수능특강, 107p)

「이를테면 수양의 늘어진 가지가 담을 넘을 때

“수양” : 버드나뭇과의 낙엽 활엽 소교목.

□ : 동일한 어미의 반복 → 화자의 추측.

그건 수양 가지만의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 」 : “가지”가 담을 넘을 때 “가지”만의 노력으로 이뤄낸 것이 아니라는 화자의 추측이 드러남.

「얼굴 한번 못 마주친 애면 뿌리와

잠시 살 붙었다 적막히 손을 터는 꽃과 잎이

혼연일체 믿어 주지 않았다면

“혼연일체” : 생각, 행동, 의지 따위가 완전히 하나가 됨.

가지 혼자서는 한없이 떨기만 했을 것이다」

「 」 : “가지”가 “뿌리”와 “꽃과 잎”의 도움으로 담을 넘었을 것이라는 화자의 추측이 드러남.

→ “가지”가 “담”을 넘을 수 있도록 하는 내적 요인들

「한 닷새 내리고 내리던 고집 센 비가 아니었으면

밤새 정분만 쌓던 도리 없는 폭설이 아니었으면

담을 넘는다는 게

가지에게는 그리 신명 나는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 」 : “가지”가 “비”와 “폭설”로 인해 신명 나게 담을 넘었을 것이라는 화자의 추측이 드러남.

→ “가지”가 “담”을 넘게 한 외부 요인들(시련 or 고난)

「무엇보다 가지의 마음을 머뭇 세우고

담 밖을 가뒀 두는

저 금단의 담이 아니었으면

“금단의 담” → “가지”로 하여금 담을 생각을 하게 함

담의 몸을 가로지르고 담의 정수리를 타 넘어

담을 열 수 있다는 걸

수양의 늘어진 가지는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다」

「 」 : “가지”는 밖으로부터 자신을 가뒀 두는 “담”으로 인해 그것을 넘을 수 있게 되었을 것이라는 화자의 추측이 드러남.

→ “담” 또한 “가지”가 “담”을 넘게 한 외부 요인임.

『그러니까 목련 가지라든가 감나무 가지라든가

줄장미 줄기라든가 담쟁이 줄기라든가』 「 」 : “수양의 늘어진 가지”처럼 “담”을 넘어 자라는 식물들

『가지가 담을 넘을 때 가지에게 담은

무명의 획을 긋는

도박이자 도반이었을 것이다」 「 」 : 가지에게 “담”이 지니는 의미

“도반” : 함께 도를 뒀는 벗.

① 도박 → “담”을 넘는 일은 실패할 수도 있으나 위험을 무릅쓰고 하는 일이므로

② 도반 → “담”이 있어서 신명나게 용기내어 담을 넘을 수 있었으므로

이해와 감상

이 시는 수양의 가지가 담 너머로 뻗어 나가는 모습에서 발견한 용기의 가치를 그려낸 작품이다.

1연에는 “수양의 늘어진 가지”에 대한 화자의 추측과 그 “가지”가 “담”을 넘을 수 있도록 하는 내적 요인들이 제시된다. 화자는 “수양의 늘어진 가지가 담을 넘을 때” 그것이 “가지만의 일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는 “가지”만의 노력으로 “담”을 넘기 어려울 것이라는 추측으로, 이에 이어 화자는 “뿌리”와 “꽃과 잎”이 “혼연일체”로 “믿어 주지 않았다”면 “가지 혼자서는 한없이 떨기만 했을 것”이라고 추측을 드러낸다. 이는 “뿌리”와 “꽃과 잎”의 믿음이라는 “가지”의 내적 요인들로 인해 “담”을 넘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2연에는 “수양의 늘어진 가지”에 대한 화자의 추측과 그 “가지”가 “담”을 넘을 수 있도록 하는 외부 요인들이 제시된다. 화자는 “고집 센 비”와 “도리 없는 폭설”이 아니었다면 “담을 넘는다는 게” 가지에게 “신명 나는 일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비”와 “폭설”은 “가지”가 자라 뻗어 나가는 것을 힘들게 한다는 점에서, 시련과 고난을 상징하는 외부 요인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이어 화자는 “담 밖을 가뒀 두”는 “금단의 담”이 없었다면 “가지는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이는 가지를 가두는 “담”이 있었기에 가지가 “담”을 넘으려 했을 것이라는 의미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담” 또한 “담” 너머로 가지가 뻗어 나가게 하는 외부 요인임을 알 수 있다.

3~4연에는 가지가 담 너머로 뻗어 나가는 모습의 의미에 대해 인식을 확장하는 화자의 모습이 제시된다. 화자는 “수양의 가지”처럼 담 너머로 뻗어 나가는 “목련”, “감나무”, “줄장미”, “담쟁이”와 같은 식물을 제시하면서, 가지에게 “담”은 “도박이자 도반이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가지에게 “담”을 넘는 일은 위험을 무릅쓰는 일이자 용기를 내야 가능한 일이라는 것임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화자는 가지가 담을 넘는 과정에서 제약을 벗어나기 위해 용기를 내는 태도의 가치를 탐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현상의 특징

① 동일한 어미를 반복함.

예 “-을 것이다”

②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함.

③ 가정과 이중 부정 표현을 활용함.

예 “~ 않았다면 ~을 것이다”, “~ 아니었으면 ~을 것이다”

→ 운율감을 형성함, 주제 의식을 강조함.

주제

담을 넘는 가지를 통해 발견한 용기의 가치

「가지가 담을 넘을 때」에 드러나는 인식의 확장

「가지가 담을 넘을 때」에 나타나는 생명력이 영향을 미치는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장된다. 가지가 담을 넘은 것이 저절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인식에서부터, 가지를 도운 것이 수양 내부의 요소 뿐만 아니라 외부의 다양한 요소라는 인식에 도달할 때까지 고정 관념은 무너지고 세상을 이해하는 시야가 넓어지는 것으로 그려진다. 또한 시인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방해물로 여겼던 존재까지 사실은 조력자였다는 역설적인 발견을 더해 식물을 넘어선 인간의 삶에 대한 통찰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하나의 수양 가지에 대한 인식이 다른 목련, 감나무, 줄장미, 담쟁이로 이어지는데, 이는 궁극적으로 독자가 자연에서 발견한 연대의 가능성과 효용을 인간에게로 확장하게 한다고 볼 수 있다.

『나는 희망이 없는 희망을 거절한다』

“희망이 없는 희망” → 화자가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대상

희망에는 희망이 없다

희망은 기쁨보다 분노에 가깝다

나는 절망을 통하여 희망을 가졌을 뿐

희망을 통하여 희망을 가져 본 적이 없다』

『』: 역설적 표현을 통해 “희망”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드러냄. → 절망이 있어야 희망을 가질 수 있음.

『나는 절망이 없는 희망을 거절한다』

“절망이 없는 희망” → 화자가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대상

희망은 절망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다

희망만 있는 희망은 희망이 없다

희망은 희망의 손을 먼저 잡는 것보다

절망의 손을 먼저 잡는 것이 중요하다』

『』: “희망”에 “절망”이 공존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 → 절망이 먼저 있어야 간절한 희망이 생김. 간절함이 없는 희망은 가치가 없음.

『희망에는 절망이 있다』

나는 희망의 절망을 먼저 원한다

희망의 절망이 절망이 될 때보다

희망의 절망이 희망이 될 때

당신을 사랑한다』

『』: “절망”을 견뎌 극복하여 “희망의 절망”을 “희망”으로 승화해 내는 “당신”에 대한 사랑
→ 절망을 희망으로 승화하는 삶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함.

이해와 감상

이 시는 희망과 절망이 공존한다는 역설적 인식을 바탕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승화하는 삶의 태도의 중요성을 그려낸 작품이다.

1연에는 “희망”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드러난다. 화자는 “희망이 없는 희망”을 거절하며, “희망은 기쁨보다 분노에 가깝”고 자신은 “절망을 통하여 희망을 가졌을 뿐”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역설적 표현을 통해 화자는 ‘절망이 있어야 희망이 있다’라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연에서 화자는 “절망이 없는 희망”을 거절하며, “희망은 절망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고 “희망만 있는 희망은 희망이 없”으며 “절망의 손을 먼저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이는 “희망”과 “절망”이 공존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모습으로, 이를 통해 화자는 “절망”이 먼저 있어야 간절한 “희망”이 생기며 그러한 “희망”만을 가치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3연에서 화자는 “희망의 절망을 먼저 원”하며, “희망의 절망이 희망이 될 때”에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말한다. 이는 “희망의 절망”을 “희망”으로 승화하는 “당신”에 대한 사랑을 표현한 것으로, 이를 통해 화자는 “절망”을 “희망”으로 승화하는 삶의 태도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현상의 특징

① 역설적 표현을 사용함.

예 “희망이 없는 희망”, “희망만 있는 희망은 희망이 없다” 등

②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함.

예 “나는 희망/절망이 없는 희망을 거절한다”, “희망에는 희망이 없다”, “희망에는 절망이 있다” 등

→ 주제 의식을 강조함.

주제

절망을 희망으로 승화하는 삶의 태도의 중요성

절망과 고통에 대한 정호승의 역설적 인식

정호승의 시에는 주로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는 ‘고통’과 ‘슬픔’이 주된 정서로 나타난다. 그는 이를 통해 인간의 존재와 사랑의 본질에 대한 성찰을 드러내는데, 그에게 ‘비극’이나 ‘고통’, ‘절망’ 등은 단어 그대로의 부정적이기만 한 의미가 아니다. 인간의 본질은 ‘절망’에 있고 따라서 ‘고통’은 필연적이며, 필연적이기 때문에 역설적이게도 극복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인의 인식은 「나는 희망을 거절한다」에서도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이 시의 화자는 절망 속에서 발견하는 희망이야말로 본질에 다가선 아름다운 것이라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는데, 시인은 이를 통해 자신이 추구하는 이상적 삶의 방식을 그려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눈을 감으면

“눈을 감으면” → 과거 회상 시작

어린 시절, 선생님이 걸어오신다

회초리를 들고서」

「」: 어린 시절 선생님을 추억하는 화자

선생님은 낙타처럼 늙었다

“낙타처럼”: 직유법 → 낙타를 떠올리게 하는 선생님의 모습

「늦은 봄 햇살을 등에 지고

낙타는 항시 추억한다.

“낙타” → 늙은 “선생님”

—옛날에 옛날에—」

「」: 항상 추억에 잠기던 늙은 선생님의 모습

「낙타는 어린 시절, 선생님처럼 늙었다

“선생님처럼”: 직유법 → 선생님을 떠올리게 하는 낙타의 모습

나도 따뜻한 봄볕을 등에 지고

금잔디 위에서 낙타를 본다」

「」: “낙타”를 보며 “선생님”을 추억하는 화자 → 과거를 추억하는 행동을 매개로 “선생님”과 “나”, “낙타”를 동일시함

「내가 여원 동심의 옛이야기가

“내가 여원 동심의 옛이야기” → “나”가 동심을 잃어버린 상태임을 암시함.

여기저기

떨어져 있음직한 동물원의 오후」

「」: 오후의 “동물원”에서 동심을 잃은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화자

이해와 감상

이 시의 화자는 동물원의 낙타를 매개로 어린 시절 선생님에 대해 회상하고, 이를 통해 동심을 잃고 살아가는 존재에 대한 인식을 드러낸다.

1~2연에서 화자는 “눈을 감으”면 “어린 시절, 선생님”이 “회초리를 들고”서 걸어오신다고 말한다. 이는 학창 시절을 추억하며 선생님을 떠올리는 모습으로, 이러한 화자의 회상은 3연으로 이어진다.

화자는 “선생님”이 “낙타처럼 늙으셨다”라고 말하며, “낙타는 항시 추억”한다고 말한다. 늙은 선생님을 “낙타”에 빗대어 표현함으로써 화자는 추억에 잠겨 있던 “어린 시절, 선생님”의 모습을 부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연에서 화자는 “따뜻한 봄별을 등에 지고”서 “낙타”를 보며, “낙타”가 “어린 시절 선생님처럼 늙었다”라고 말한다. 이는 늙은 낙타를 “어린 시절 선생님”에 빗대어 표현한 것으로, 이를 통해 화자는 “낙타”를 보며 “선생님”을 추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1~3연의 내용을 고려할 때, 과거를 추억하는 행동을 매개로 “선생님”, “낙타”, “나”를 동일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5연에는 동심을 잃은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화자의 모습이 제시된다. 화자는 “여인 동심의 옛이야기”가 “여기저기”에 “떨어져 있음직한 동물원의 오후”라고 말하며 시간적·공간적 배경을 제시한다. 즉, 화자는 오후의 “동물원”에서 동심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데, 이를 “여인”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화자가 동심을 잃은 것에 대해 안타까움과 쓸쓸함을 느끼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1~4연에서 과거를 추억하는 행동에 주목하여 “선생님”과 “낙타” 그리고 자신을 동일시한 것을 고려할 때, 화자의 안타까움과 쓸쓸함은 동심을 잃은 채 과거를 추억하며 살아가는 존재에 대한 인식에서 촉발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현상의 특징

- ① 직유법을 사용함.
- ②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함.
 - 예 “선생님은 낙타처럼 늙으셨다”, “낙타는 어린 시절, 선생님처럼 늙었다”
 - 대상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부각함.
- ③ 다양한 감각적 심상이 활용됨.
- ④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가 활용됨.
 - 예 “늦은 봄 햇살”, “따뜻한 봄별”
 - 대상의 이미지를 부각함.

주제

어린 시절 선생님에 대한 회상과 동심에 대한 동경

“동물원”의 공간성

「낙타」에서 화자는 ‘동심’을 여의고 낙타 같은 선생님이 있던 유년 시절의 따뜻한 세계로는 돌아갈 수 없는 부정적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러나 시에서 이러한 화자의 모습은 오후에 봄별을 받으며 동물원에서 낙타를 보고 있는 평화로운 모습으로 제시된다. 이처럼 화자가 여유로울 수 있는 것은 ‘동물원’에서는 현실에서와 달리 여기저기 떨어진 동심의 파편이라도 발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즉, 이러한 ‘동물원’이라는 공간은 현실에 존재하지만 현실과 심리적으로 단절된 공간으로 그려지고 있으며, 동물원 밖의 현실에서 동심의 파편을 찾을 수 없었던 화자는 ‘동물원’과 현실의 단절을 현실 도피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동심의 상실이라는 안타까움에 대한 해결책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았기에, 화자는 현실 도피적인 태도를 보이며 ‘동물원’에서 낙타를 보는 것으로 만족하며 위로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청계천 7가 골동품 가게에서

나는 어느 황소 목에 걸렸던 방울을

하나 샀다.」

「」: 골동품 가게에서 방울을 산 구체적인 경험을 제시함.

「그 영롱한 소리의 방울을 팔랑거리던

소는 이미 이승의 짐승이 아니지만,

「나는 소를 몰고 여름 해 질 녘 하산하던

그날의 소년이 되어, 배고픈 저녁연기 피어오르는

마을로 터덜터덜 걸어 내려왔다.」 「」: "방울"로 인해 촉발된 "나"의 과거 기억

「」: "소"를 몰고 하산하여 마을로 걸어 내려왔던 유년 시절을 회상함.

「장사치들의 흥정이 떠들썩한 문명의 □□: "방울소리"와 대비되는 소리.

골목에선 지금, 삼륜차가 울려 대는 경적이

저자바닥에 따라운데」 「」: "떠들썩"하고 "따가"운 "지금"의 골목 풍경.

내가 몰고 가는 소의 팔랑이는 방울 소리는

"내가 몰고 가는" → 다시 시점이 "지금"에서 "그날"로 이동.

돌담 너머 옥분이네 안방에

들릴까 말까,

사립문 밖에 나와 날 기다리며 섰을

누나의 귀에는 들릴까 말까.」

「」: 바쁘고 시끄러운 "지금"의 일상에서 "옥분이"와 "누나"를 그리워하는 화자 → "그날"과 "마을"에 대한 그리움.

이해와 감상

이 시는 “방울”을 매개로 유년 시절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1연에서 화자는 “청계천 7가 골동품 가게”에서 “어느 황소 목에 걸렸던 방울”을 하나 샀다고 말한다. “방울”과 관련한 구체적인 경험을 제시하고, 이를 매개로 화자는 2연에서 유년 시절에 대한 회상을 시작한다.

화자는 “영롱한 소리의 방울을 팔랑거리”던 “소는 이미 이승의 짐승이 아니지”만, 자신은 “해 질 녘 하산하”던 “그날의 소년이 되”어 “마을로 터덜터덜 걸어 내려왔다”라고 말한다. 이는 “방울”로 인해 촉발된 화자의 과거 기억으로, 화자는 “소”를 몰고 하산하여 마을로 걸어 내려왔던 어린 시절을 추억하고 있다.

3연에는 바쁘고 시끄러운 일상 속에서 과거를 그리워하는 화자의 모습이 제시된다. 화자는 “장사치들의 흥정이 떠들썩한 문명”의 “골목”에는 “삼륜차가 올려 대는 경적”이 따갑다고 말한다. 이는 바쁘고 시끄러운 “지금”의 일상 모습을 그려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어 화자는 2연의 “그날”의 시점을 회상한다. 화자는 자신이 “몰고 가는 소의 팔랑이는 방울 소리”가 “옥분이네 안방”에, “사립 문 밖에 나와 날 기다리”는 “누나의 귀”에 들릴지를 묻는다. 2연의 내용을 고려할 때, 이는 과거 “그날의 소년”인 “나”가 소를 몰고 마을로 내려올 때 “옥분이”와 “누나”를 떠올리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 즉, 화자는 유년 시절의 고즈넉한 모습을 회상을 통해 형상화함으로써, “옥분이”와 “누나”, “그날”, “마을” 등 과거에 대한 그리움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현상의 특징

① 대립적 시어가 드러남.

예 “방울 소리” ↔ “장사치들의 흥정”, “삼륜차가 올려 대는 경적”

② 대립적 시공간이 드러남.

예 “청계천 7가 골동품 가게” ↔ “배고픈 저녁 연기 피어오르는 마을”

→ 화자의 그리움을 부각함.

주제

아련한 어린 시절에 대한 그리움

「방울 소리」에 나타난 이중적 시공간

「방울 소리」에는 문명이 가득한 ‘지금’과 소를 몰던 ‘그날’의 ‘마을’이라는 두 개의 시공간이 등장한다. 화자는 ‘방울 소리’를 통해 두 시공간의 연결을 경험하며 과거와의 단절을 극복한다. ‘방울 소리’라는 매개물이 환기하는 추억의 회상을 통해 유년 시절로 역행한 화자는 실제로는 저자바닥에 서 있지만, 상상의 힘을 통해 고향 마을의 거리로 이동한다. 이 과정에서 ‘들릴까 말까’라는 표현을 통해 포착된 애매모호함은 과거와 현재, 상상과 일상, 도시와 농촌 사이의 어딘가에 화자가 위치하고 있음을 잘 느낄 수 있게 한다고 볼 수 있다.

과거와 현재의 대비가 드러나는 작품 김종길의 「성탄제」

김종길의 「성탄제」에 나타난 화자는 ‘반가운 그 옛날의 것(= 눈)’을 통해 과거의 한 장면을 떠올린다. 아버지가 눈 속에서 산수유를 따다 주신 기억을 통해 아버지에 대한 애정과 그리움을 느낀다. 이렇게 과거와 현재가 나란히 나열될 때는 주로 현재는 부정적으로, 과거는 긍정적으로 묘사되는데, 「방울 소리」와 「성탄제」에서 모두 이러한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다.

(전략)

나는 한 마리 어린 짐승,
젊은 아버지의 서느런 옷자락에
열(熱)로 상기한 불을 말없이 부비는 것이었다.

이따금 뒷문을 눈이 치고 있었다.
그날 밤이 어찌면 성탄제(聖誕祭)의 밤이었을지도 모른다.

어느새 나도
그때의 아버지만큼 나이를 먹었다.

옛것이란 거의 찾아볼 길 없는
성탄제(聖誕祭) 가까운 도시에는
이제 반가운 그 옛날의 것이 내리는데,

서러운 서른 살, 나의 이마에
불현듯 아버지의 서느런 옷자락을 느끼는 것은,

눈 속에 따 오신 산수유(山茱萸) 붉은 알알이
아직도 내 혈액(血液) 속에 녹아 흐르는 까닭일까.

- 김종길, 「성탄제」

1.

□ : 시적 대상 ("그" = "그리움" = "능금")

『□는 그리움에 산다.

"그" : "능금" → 의인화

『그리움은 익어서

스스로도 견디기 어려운

빛깔이 되고 향기가 된다.

그리움은 마침내

스스로의 무게로

떨어져 온다.』 「 」 : 익고 떨어지는 "그리움"(능금)의 모습 → 열매가 익고 떨어지는 자연 현상 → 내적 성숙, 자연의 이치

『떨어져 와서 우리들 손바닥에

눈부신 축제의

비할 바 없이 그윽한

여운을 새긴다.』 「 」 : "우리들"에게 "여운"을 새기는 "그리움" → "능금"의 모습에 대한 경이감으로 감동하는 화자

「 」 : 익어서 떨어지는 "그리움"(= "그" = "능금")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 인식이 드러남.

2.

『이미 가 버린 그날과

"이미 가 버린 그날" → 과거

아직 오지 않은 그날에 머물른

"아직 오지 않은 그날" → 미래

이 아쉬운 자리에는

"이 아쉬운 자리" → 현재

『시시각각의 □의 충실만이

"충실" : 내용이 알차고 단단함. → 내적 성숙

익어 간다.』 「 」 : 현재(= "가을") 익어 가는 "그"

보라,

높고 맑은 곳에서

가을이 □에게

한결같은 애무의

"애무" : 사랑하여 어루만짐. → "능금"과 "가을"의 교감

눈짓을 보낸다.』

「 」 : "가을"과의 교감으로 "그"(= "능금")가 익어 가는 모습을 통해 "그리움"의 본질에 대해 표현함.

→ "그리움"은 "능금"의 본질로서, 성숙을 가능하게 하는 생명의 힘 → 존재의 본질로서 내면 성숙

1) 1. 능금나무의 열매, 사과와 비슷한 모양이지만 훨씬 작다. 2. → 사과.

3.

『농칠 듯 농칠 듯 숨 가쁘게

그의 꽃다운 미소를 따라가며는

세월도 알 수 없는 거기

푸르게만 고인

깊고 넓은 감정의 바다가 있다.

우리들 두 눈에

그득히 물결치는

시작도 끝도 없는

바다가 있다.』

「」: “그(= “농금”)를 통해 만난 무한한 “감정의 바다” → 생명의 무한함, 존재의 본질

이해와 감상

이 시는 ‘능금’의 모습을 통해 발견한 존재의 본질과 그에 대한 경이감을 형상화하고 있는 작품이다.

1연에는 익고 떨어지는 ‘능금’ 즉 “그리움”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 인식이 드러난다. 화자는 ‘능금’을 “그”로 의인화하여 “그”가 “그리움에 산다”라고 말한다. 이어 화자는 “그리움”은 익어서 “스스로도 견디기 어려”운 “빛깔”과 “향기”가 되며, “스스로의 무게”로 “떨어져 온다”라고 말한다. 이는 익고 떨어지는 ‘능금’의 모습을 그려낸 것으로, ‘능금’의 본질을 “그리움”으로 표현한 것에서 화자가 존재의 본질에 대해 인식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할 때, “빛깔”과 “향기”가 되고 “스스로의 무게”로 떨어지는 ‘능금’의 모습은 내적 성숙으로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존재의 모습이라 이해할 수 있다. 즉, 이때의 “그리움”은 성숙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 또는 힘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때 화자는 “우리들 손바닥”에 “눈부신 축제의 / 비할 바 없이 그윽”한 “여운” 즉 존재의 본질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느낀 경이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어 2연에서 화자는 “이미 가 버린 그날”, “아직 오지 않은 그날”, “이 아쉬운 자리”에 “시시각각의 그의 충실만이 익어간다”라고 말한다. 1연의 내용을 고려할 때, 이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존재의 본질로서 충실하게 내적 성숙을 이뤄나가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때 화자는 “높고 맑은 곳”에서 “가을이 그에게” 한결같은 “애무의 / 눈짓을 보낸다”라고 말한다. 이는 가을 햇살을 받으며 충실하게 익어가는 ‘능금’의 모습으로, 화자는 “가을”과 ‘능금’을 사랑으로 교감하는 대상으로 그려냄으로써 내면 성숙의 충만함이라는 존재의 본질을 부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3연에서 화자는 ‘능금’의 모습에서 발견한 존재의 본질에 대해 말한다. 화자는 “농칠 듯 숨 가쁘게” “그의 꽃다운 미소를 따라가”면 “깊고 넓은 감정의 바다”, “우리들 두 눈”에 “그득히 물결 치는” “시작도 끝도 없는” “바다가 있다”라고 한다. 1~2연을 고려할 때, “바다”는 ‘능금’의 모습에서 발견한 존재의 본질 즉 무한한 생명력과 내적 성숙의 충만함 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표현상의 특징

① 현재형 어미를 사용함.

- 예 “그는 그리움에 산다.”, “가을이 그에게 / 한결같은 애무의 / 눈짓을 보낸다.” 등
→ 화자의 인식을 부각함.

② 유추의 방식을 사용함.

- 예 “그리움은 익어서 / 스스로도 견디기 어려운 / 빛깔이 되고 향기가 된다.”, “이 아쉬운 자리에는 / 시시각각의 그의 충실만이 / 익어 간다.” 등
→ 주제 의식을 효과적으로 드러냄.

주제

능금을 통해 본 그리움의 본질

시인 김춘수의 ‘본질’에 대한 탐구 의식

김춘수는 ‘본질’에 대해 깊이 탐구하는 시인으로 평가된다. 「능금」에서도 그는 이러한 경향을 잘 보여주고 있다. 작품에 나타난 ‘그(능금)’는 현실에 물질로 존재하는 무언가로 묘사되지만 시 속에서 그것을 따라가면 ‘본질’이라는 추상과 관념에 도달하게 된다. 즉, 이 시의 ‘능금’과 ‘바다’를 실재하는 대상이 아닌 관념적 대상으로 그려낸 것이다. 김춘수는 독자가 시어에 대한 의문을 시작으로 ‘존재’라는 것의 ‘본질’에 대해 탐구하도록 유도하고자 했다고 볼 수 있다.

김춘수의 다른 작품에서 소재로 등장한 ‘능금’

김춘수는 유사한 시어와 시구, 이미지를 다양한 작품 속에서 반복적으로 활용하는 경향을 보인다. 여러 작품에서 유사한 구절이나 글의 일부를 반복해서 표현하는 방식을 통해, 김춘수는 삶과 역사를 진보적이거나 일회적인 것으로 보지 않고 회귀하고 순환하는 구조로 파악하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① 가을 벽공에 / 벽공을 머금고 익어 가는 능금
- 「죽어가는 것들」에서
- ② 보일 듯 보일 듯 / 벽공에 사과알 하나 익게 하고
- 「바람」에서
- ③ 그 많은 사과알이 / 하늘로 깊숙이 떨어지는 것을 본다.
- 「서촌 마을의 서부인」에서
- ④ 툭 툭 툭, 천(阡)의 사과알이 / 하늘로 깊숙이 떨어지고 있었다.
- 「처용단장」에서

Memo

『언제부터

이 잉결볼 같은 그리움이

“잉결볼” : ① 이글이글 핀 솜볼. ② 다 타지 않은 장작볼.

텅 빈 가슴속에 이글거리기 시작했을까』 『』 : 이글거리는 그리움에 대한 화자의 궁금증

“텅 빈 가슴속” → 화자의 내면 ⇒ “그리움”이 촉발된 이유

『“지난여름 내내 앓던 몸살

더 이상 견딜 수 없구나」

『』 : 인내에 한계가 온 화자 → 감내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고 있는 처지를 부각함.

『영혼의 가마솥에 들끓던 사랑의 힘

캄캄한 골방 안에

가둘 수 없구나』 『』 : 들끓던 사랑의 힘을 가둘 수 없는 화자 → 사랑의 힘을 제어하기 힘든 상황을 강조함.

『』 : 사랑의 감정이 인내하고 제어할 수 없음을 인식하는 화자

『나 혼자 부둥켜안고

핑굴고 또 핑굴어도』 『』 : 혼자 온몸으로 사랑을 감당하려는 모습

『자꾸만 익어 가는 어둠을

“자꾸만 익어 가는 어둠” → 그리움과 사랑의 심화

이젠 알알이 쏟아 놓아야 하리」

『』 : 커져가는 감정을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화자 → 감당하기 어려운 그리움과 사랑을 형상화함.

무한히 새파란 심연의 하늘이 두려워

“심연” : ① 깊은 못. ② 좀처럼 빠져나오기 힘든 구렁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나는 땅을 향해 고개 숙인다

『온몸을 휩싸고 도는

어지러운 충만 이기지 못해

“충만” : 한껏 차서 가득함.

나 스스로 껌질을 부순다」

『』 : 그리움과 사랑이 차올라 주체하기 힘들어 껌질을 부수는 화자 → 내적 성숙으로 경지에 이른 사랑을 표출하는 모습을 형상화함.

『아아, 사랑하는 이여

지구가 쪼개지는 소리보다

더 아프게

내가 깨뜨리는 이 홍보석의 슬픔을

“홍보석” : 붉은빛을 띤 단단한 보석. 루비. → 값진 결실

그대의 뜰에

받아 주소서』 『』 : “사랑하는 이”가 “홍보석의 슬픔(=사랑)”을 받아 주기를 바란다는 고백.

이해와 감상

이 시는 석류가 익어 과육이 터지는 모습을 통해 사랑하는 과정에서 겪는 감정들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즉, ‘석류’는 대상에 대한 화자의 사랑을 상징하는 시어로, 화자는 석류가 열매를 맺고 익어 가는 과정과 과육이 껍질을 터뜨리고 나오는 과정을 사랑의 과정으로 그려내고 있다.

1연에서 화자는 “언제”부터 “잉겔볼 같은 그리움”이 “텅 빈 가슴 속에 이글거리기 시작했을까”라고 물음을 던진다. “텅 빈 가슴속”과 “그리움”이라는 표현을 고려할 때, 화자가 사랑하는 대상이 부재한 상황 또는 화자가 자신도 모르던 마음속 사랑의 감정을 자각한 상황이 시적 상황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를 ‘석류’의 성숙 과정과 연결해본다면, 열매 안에 석류알이 차오르기 시작한 시기의 모습을 그려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연에는 사랑의 감정이 들끓어 제어하기 힘든 화자의 모습이 제시된다. 화자는 “지난여름 내내 앓던 몸살”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으며, “영혼의 가마술에 들끓던 사랑의 힘”을 “감감한 골방 안에 가둘 수 없”다고 말한다. 이는 넘치는 사랑의 감정을 인내하고 제어할 수 없는 화자의 모습을 그려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석류’의 성숙 과정과 연결해본다면, 무더운 여름을 지나 열매 안에 석류알로 가득 차오를 정도로 익은 시기의 모습을 그려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3연에는 자신의 감정을 밖으로 드러내려 하는 화자의 모습이 제시된다. 화자는 “혼자 부둥켜 안”고 “뒹굴고 또 뒹굴어”도 “자꾸만 익어 가는 어둠”을 이제는 “알알이 쏟아 놓아”야겠다고 말한다. 이는 온몸으로 그리움과 사랑을 감당하던 화자가 그 감정을 형상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석류’의 성숙 과정과 연결해본다면, 가득 차오른 석류알이 열매 밖으로 터져 쏟아지려 하는 모습을 그려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4연에는 감정의 충만으로 경지에 이른 사랑을 표출하는 화자의 모습이 제시된다. 화자는 “무한히 새파란 심연의 하늘”이 두려워서 “땅을 향해 고개 숙”이고, “온몸을 휩싸고 도”는 “어지러운 충만”을 이기지 못해 화자는 “스스로 껍질은 부순”다. 이는 그리움과 사랑이 차올라 더 이상 주체하기 힘든 화자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으로, 앞선 문맥을 고려할 때 화자가 느끼는 감정의 충만은 인내하고 감내하며 내적으로 성숙해 가는 과정에서 촉발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를 ‘석류’의 성숙 과정과 연결해본다면 과육이 터져 석류알이 밖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모습을 그려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5연에는 자신의 사랑의 고백을 상대방이 받아주길 바라는 화자의 모습이 제시된다. 화자는 “사랑하는 이”를 부르며, “지구가 쪼개지는 소리”보다 더 아프게 “깨뜨리는 이 홍보석의 슬픔”을 “그대의 뜰”에 받아 달라고 한다. 이는 사랑하는 이가 자신의 간절한 마음을 받아 주기를 바란다는 화자의 고백으로, 이를 ‘석류’의 성숙 과정과 연결해본다면 터진 석류알이 뜰에 가득한 모습을 그려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현상의 특징

① 영탄적 어조를 사용함.

예 “아아, 사랑하는 이여” 등

② 다양한 감각적 심상이 활용됨.

예 “잉겔볼 같은 그리움”, “감감한 골방”, “새파란 심연의 하늘”, “홍보석” 등

→ 화자의 정서를 부각함.

③ 유추의 방식을 사용함.

예 “온몸을 휩싸고 도는 / 어지러운 충만 이기지 못해 / 나 스스로 껍질을 부순다”, “지구가 쪼개지는 소리보다 / 더 아프게 / 내가 깨뜨리는 이 홍보석의 슬픔을 / 그대의 뜰에 / 받아 주소서” 등
→ 주제의식을 효과적으로 드러냄.

주제

석류의 성장 과정에서 발견한 사랑의 과정, 내적성숙으로 이룬 사랑의 경지

사랑으로서의 ‘석류’의 이미지

석류는 여러 한국 문학 작품에서 마음이나 사랑을 의미하는 상관물로 제시되곤 한다. ‘석류 = 사랑’이라는 비유가 자주 등장하는 까닭은 석류의 생김새에 있다. 석류는 빨간 껍질과 하얀 과육 안에 붉은 씨앗이 알알이 박혀 있는 과일로, 익으면 껍질이 터지고 속이 보인다. 두꺼운 껍질 안에서 과육이 점차 차오르다 터져 나오는 모습이 가슴 속에 사랑이 차오르다 결국 터져 버리는 모습과 연결되는 것이다. 이가림의 「석류」에서도 이러한 석류가 익어가는 과정에서 착안하여 ‘사랑’의 열병을 앓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대’의 상징적 의미

「석류」의 마지막 연에 나타난 ‘그대’는 1차적으로는 연모, 사랑의 대상으로 볼 수 있지만, 이를 ‘세계’로 확장하여 해석할 수도 있다. 이러한 해석을 바탕으로 한다면, 1~4연의 화자는 시작도 끝도 모르는 그리움을 ‘텅 빈 가슴속’, ‘골방’, ‘가마술’ 등으로 표현되는 자신만의 내면세계에 가두려 했으나, 결국 견디지 못하고 ‘껍질’을 부수고 밖으로 나아간다. 이는 인간의 고독과 소외, 슬픔이 세상과 마주하는 장면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그대’와의 만남, 즉 ‘자아’가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 인간의 외로움에 대한 긍정적 해소 방안이 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흥부 부부가 박덩이를 사이하고

가르기 전에 건넨 웃음살을 헤아려 보라.』

『』: “흥부 부부”가 박을 타는 상황 → 가난한 생활에도 웃음을 잃지 않는 “흥부 부부”의 모습

금(金)이 문제리,

“금”, “황금 버이삭” → 물질적인 풍요 → “흥부 부부”에게 중요하지 않은 요소들

황금 버이삭이 문제리,

웃음의 물살이 반짝이며 정갈하던

“웃음의 물살” → “흥부 부부”가 중시하는 것 → 가난하지만 욕심 없이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확실히 문제다.』

『』: 물질적인 풍요보다 가난하여도 욕심없이 만족하며 사는 삶을 중시하는 “흥부 부부”의 모습이 드러남.

→ 물질적 풍요보다 정신적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상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 인식을 엿볼 수 있음.

『없는 떡방아 소리도

“없는 떡방아 소리”, “손발 닳은 처지” → 가난한 “흥부 부부”의 모습을 드러냄.

있는 듯이 들어 내고

손발 닳은 처지끼리

같이 웃어 비추던 거울면(面)들아.』

『』: 가난 속에서도 서로 웃으며 의지하던 “흥부 부부”의 낙천적인 모습이 드러남.

→ 서로에 대한 이해와 사랑으로 부정적 상황을 견뎌내는 삶의 태도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 인식을 엿볼 수 있음.

『웃다가 서로 불쌍해

서로 구슬을 나누었으리.

“구슬” → 눈물.

그러다 금시

절로 면(面)에 온 구슬까지를 서로 부끄리며

면 물살이 가다가 소스라쳐 반짝이듯

서로 소스라쳐

본(本)웃음 물살을 지었다고 헤아려 보라.

“본(本)웃음” → “구슬”(눈물)을 부끄러워하며 극복한 후의 웃음

그것은 확실히 문제다.』

『』: 가난한 현실로 인해 흘린 눈물마저 웃음으로 승화하는 “흥부 부부”의 모습이 드러남.

→ 부정적인 현실을 낙천적으로 극복하려는 삶의 자세의 중요성을 강조함.

이해와 감상

이 시는 고전소설 「홍부전」의 인물인 홍부 부부를 시적 대상으로 차용하여 가난한 삶 속에서도 소박한 웃음을 잃지 않고 사랑으로 슬픔을 극복하는 서민의 애환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1연에는 욕심 없는 삶의 자세를 지닌 홍부 부부의 모습이 제시된다. 화자는 “홍부 부부가 박덩이를 사이”에 두고 그것을 가르기 전에 서로에게 건넨 “웃음을 헤어려 보”라고 말한다. 고전소설의 내용을 참고할 때 “웃음살”은 가난하지만 욕심 없이 안분지족할 줄 아는 소박한 홍부 부부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이는 소박한 서민의 한(恨)을 바탕으로 한 웃음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어 화자는 “금”, “황금 벼이삭”이 문제가 아니며, “웃음의 물살이 반짝이며 정갈하던” 그것이 “확실히 문제”라고 말한다. “금”, “황금 벼이삭”은 물질적 풍요를 의미하는 표현으로, 화자는 이에 연연하지 않고 정갈한 웃음을 나누는 홍부 부부의 모습을 그려냄으로써 소박하고 욕심 없이 정신적 행복을 추구하는 삶의 자세를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연에는 가난 속에서도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홍부 부부의 모습이 제시된다. 화자는 “없는 떡방아 소리”도 “있는 듯이 들어 내”고, “손발 닳은 처지끼리” 같이 웃으며 “비추던 거울면들”에 대해 이야기한다. “같이 웃어 비추던 거울면들”은 거울처럼 서로 마주 보고 웃는 홍부 부부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없는 떡방아 소리”, “손발 닳은 처지”라는 표현에서 홍부 부부의 가난한 형편을 짐작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있는 듯이 들어 내고”, “같이 웃어 비추”는 모습에서 그들의 낙천적 성격을 엿볼 수 있다. 화자는 이러한 홍부 부부의 모습에 주목함으로써, 서로에 대한 이해와 사랑으로 부정적 현실을 이겨 내는 삶의 자세를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연에는 눈물을 흘리고 진정한 웃음을 짓는 홍부 부부의 모습이 제시된다. 화자는 홍부 부부가 “웃다가 서로 불쌍해”서 “구슬을 나누었”을 것이라 말한다. “구슬”에 눈물을 빚댄 것으로 본다면, 이는 가난한 삶 속에서 서로에 대한 연민으로 눈물을 흘리는 홍부 부부의 모습을 그려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어 화자는 홍부 부부가 “그러다 금시” 서로 “구슬”을 부끄러워하며 “소스라”치며 “본웃음 물살을 지었다”고 헤어려 보라”고 하며 “그것이 확실히 문제다”라고 말한다. 이는 눈물을 흘리다가 다시금 웃음을 짓는 홍부 부부의 모습을 그려낸 것으로, 화자는 눈물을 극복한 후의 진정한 웃음인 ‘본웃음’을 강조함으로써 가난한 삶의 한(恨)을 낙천적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그들의 태도를 부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현상의 특징

① 대비되는 대상이 제시됨.

예 “금”, “황금 벼이삭” ↔ “웃음”

→ 주제 의식을 강조함.

② 유사한 어구를 반복함.

예 “헤아려 보라.”, “그것이 확실히 문제다.”, “그것은 확실히 문제다.”

→ 운율감을 형성함. 주제 의식을 강조함.

주제

가난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홍부 부부

‘살’의 의미

‘웃음살’의 ‘살’은 ‘해, 별, 불 또는 흐르는 물 따위의 내비치는 기운.’을 의미하는 것으로, 「홍부 부부상」에서는 웃음의 성질을 흐르는 ‘기운’의 이미지로 제시하여 웃음이 가진 긍정적 속성과 전파력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웃음살’의 효용은 홍부 부부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주제 의식을 통해 독자들에게까지 전달된다. 이어 화자는 ‘물살’을 통해 ‘물’의 이미지를 제시하면서 ‘웃음 = 물 = 눈물(구슬)’의 용화를 만들어낸다. 이는 ‘웃음’과 ‘울음’을 하나의 이미지로 그려내어 슬픔을 극복하는 희망을 전달하는 것으로, 시인은 ‘웃음살’과 ‘물살’의 이미지를 통해 슬픔의 긍정적 승화를 노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박재삼 시인의 고전소설 차용

박재삼 작품 중에는 고전소설을 활용하여 창작한 시를 찾아볼 수 있으며, 그러한 작품에서 고유의 정서인 한(恨)을 중점적 그려냈다는 점에서 전통시의 맥을 잇는 시인으로 평가받는다.

집을 치면, 정화수(精華水) 잔잔한 위에 아침마다 새로 생기는 물방울의 신선한 우물집이었을레. 또한 윤이 나는 마루의, 그 끝에 평상(平床)의, 갈앉은 뜨락의, 물 냄새 창창한 그런 집이었을레. 서방님은 바람 갈단들 어느 때고 바람은 어려 올 따름, 그 옆에 순순(順順)한 스러지는 물방울의 찬란한 춘향(春香)이 마음이 아니었을레.

하루에 몇 번쯤 푸른 산 언덕들을 눈 아래 보았을까나. 그러면 그때마다 일렁여 오는 푸른 그리움에 어울려, 흐느껴 물살 짓는 어깨가 얼마쯤 하였을까나. 진실로, 우리가 받들 산신령(山神靈)은 그 어디 있었을까마는, 산과 언덕들의 만 리(萬里) 같은 물살을 굽어보는, 춘향은 바람에 어울린 수정(水晶)빛 입자가 아니었을까나.

— 박재삼, 「수정가(水晶歌)」

박재삼의 「홍부 부부상」은 「홍부전」을 소재로 가난한 삶의 애환과 소박한 행복을 그려낸 작품이다. 고전소설을 차용하여 한(恨)의 정서를 표현했다는 점에서 「심청전」을 소재로 한 「수정가」와의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다.

김사인, 「지상의 방 한 칸-박영한 님의 제(題)¹⁾를 빌려」

(2024_수능특강, 283p)

「세상은 또 한 고비 넘고

“고비” : 일이 되어 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나 대목, 또는 막다른 절정.

잠이 오지 않는다

꿈결에도 식은땀이 등을 적신다」

「」 : 고된 삶으로 잠 못 이루고 근심하는 화자의 모습

『몸부림치다 와 닿는

「둘째 놈 애린 손끝이 천 근으로 아프다」

「」 :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인해 부모로서 책임감이 무거움을 형상화함.

세상 그만 내리고만 싶은 나를 예비라 믿어

이렇게 잠이 평화로운가

바로 누고 이불을 다독여 준다」 『』 : 고된 삶 속에서도 자식을 사랑하는 화자의 모습

『이 나이토록 배운 것이라곤 원고지 메꿔 밥 비는 재주

「」 : 글쓰기의 어려움에 대해 말하는 화자의 모습 →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하고 불안한 작가의 빈곤한 삶의 모습을 부각함.

쫓기듯 붙잡는 원고지 칸이

마침내 못 건널 운명의 강처럼 넓기만 한데」

달아오른 불덩어리

초라한 몸 가릴 방 한 칸이

망망천지에 었단 말이냐」 『』 : 궁핍한 작가의 삶을 살아가는 스스로에 대해 한탄하는 화자의 모습

『웅크리고 잠든 아내의 등에 얼굴을 대본다

밖에는 바람 소리 사정없고

머칠 후면 남이 누울 방바닥

“머칠 후면 남이 누울 방바닥” → 세 들어 사는 방 한 칸마저 비워줘야 하는 화자의 처지를 암시함.

잠이 오지 않는다」 『』 : 생계에 대한 걱정으로 잠들지 못하고 고뇌하는 화자의 모습

→ 시인이자 가장으로서 겪는 현실 문제에 대한 화자의 괴로움을 부각함.

1) 작품이나 강연, 보고 따위에서, 그것을 대표하거나 내용을 보이기 위하여 붙이는 이름. (= 제목) 박영한의 소설 「지상의 방 한 칸」에서 제목을 빌려왔다는 뜻.

이해와 감상

이 시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박영한의 「지상의 방 한 칸」이라는 소설의 제목을 빌려 창작한 작품으로, 극심한 생활고로 인해 괴로워하는 가장의 비애를 그려내고 있다.

1~3행에는 근심으로 잠 못 이루는 화자의 모습이 제시된다. 화자는 “세상은 또 한 고비 넘고” 잠이 오지 않아 “꿈결에도 식은 땀이 등을 적신다”라고 말한다. “고비”라는 단어의 의미를 고려할 때, 화자의 근심은 생활의 문제로 인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4~8행에는 고된 삶 속에서도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애정과 책임감을 드러내는 화자의 모습이 제시된다. 화자는 “몸부림치다와 닿는” 둘째 아이의 “애린 손끝이 천 근으로 아프다”라고 말한다. 이는 잠 못 들고 뒤척이다 화자에게 닿은 둘째 아이의 손끝을 보며 가장의 책임감으로 마음이 무거운 화자의 상황을 그려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어 화자는 “세상 그만 내리고만 싶은” 자신을 “애비라 믿”어 아이가 “이렇게 잠이 평화로운가”라고 생각하여 아이를 “바로 눕고 이불을 다독여 준다. 이를 통해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화자는 매우 고단한 상태이며, 이때에도 아이를 생각하며 자식에 대한 애정으로 현실을 감내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9~14행에는 궁핍한 작가의 삶을 살아가는 스스로에 대해 한탄하는 화자의 모습이 제시된다. 화자는 “배운 것이라곤 원고지 메꿔 밥 비는 재주”라 하며, “쫓기듯 붙잡는 원고지 칸”이 “운명의 강처럼 넓기만”하다고 말한다. 이를 통해 화자의 직업이 작가이지만, 삶이 안정적이지 않고 불안한 채로 글을 쓰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어 화자는 “달아오른 불덩어리”, “초라한 몸”을 “가릴 방 한 칸”이 “망망천지에 없단 말이나”라고 탄식한다. 한탄하는 모습에서, 초라하고 궁핍하게 살아가는 자신에 삶에 대한 화자의 자괴감 또는 부끄러움을 엿볼 수 있다.

15~18행에는 생계에 대한 걱정으로 촉발된 절박함으로 고뇌하는 화자의 모습이 제시된다. 화자는 “웅크리고 잠든 아내의 등에 얼굴을 대”본다. 앞선 문맥을 고려할 때, 이는 생활고로 인해 고단하고 위축된 아내의 모습과 그녀를 연민하는 화자의 모습을 그려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어 화자는 “며칠 후면 남이 누울 방바닥”에서 “잠이 오지 않는다”라고 말한다. 화자가 생계의 문제를 걱정하고 한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세 들어 사는 방까지 비워줘야 할 정도로 빈곤한 처지와 그에 대한 고뇌를 형상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현상의 특징

① 현재형 종결 어미를 사용함.

예 “잠이 오지 않는다”, “바로 눕고 이불을 다독여 준다”, “웅크리고 잠든 아내의 등에 얼굴을 대본다” 등

② 영탄적 표현을 사용함.

예 “이렇게 잠이 평화로운가”, “초라한 몸 가릴 방 한 칸이 / 망망천지에 없단 말이나”

→ 화자의 처지를 부각함.

주제

가난한 처지에 대한 가장의 슬픔과 불안

박영한의 〈지상의 방 한 칸〉과 연관성

김사인의 「지상의 방 한 칸-박영한 님의 제를 빌려」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 ‘박영한’의 동명의 작품 「지상의 방 한 칸」의 제목을 빌려온 작품이다. 두 작품은 제목 이외에도 시의 화자와 소설의 주인공이 ‘작가’라는 점, 아버지이며 가장이라는 점, 가난한 처지에 놓여 있다는 점 등을 공유하고 있다.

박영한의 「지상의 방 한 칸」의 주인공 또한 글을 쓸 수 있는 방 한 칸을 구하기 위해 여기저기를 떠돌며, 방 한 칸도 구할 수 없는 작가의 현실을 보여 주는데, 김사인은 이러한 작품의 제목을 빌려 글을 쓸 ‘방 한 칸’을 구하기도 힘든 작가의 열악한 상황과 상업주의에 물든 현실을 고발하고 있다.

김사인의 작품에 드러난 ‘부정’

김사인의 작품 중에는 「딸년을 안고」는 「지상의 방 한 칸-박영한 님의 제를 빌려」와 같이 ‘부정’(父情)을 그려내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지상의 방 한 칸-박영한 님의 제를 빌려」의 주된 정서가 한탄과 자조라면, 「딸년을 안고」는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태도로 개인적 체험을 공동체로 확산하려는 시도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한 살배기 딸년을 꼭 안아보면
술이 번쩍 깬다 그 가벼운 몸이 우주의 무게인 듯
엄숙하고 슬퍼진다
이 목숨 하나 건지자고
하늘이 날 세상에 냈나 싶다
사지육신 주시고 밥도 별게 하는가 싶다
사람의 애비 된 자 어느 누구 안 그러리
그런데 소문에는
단추 하나로 이 목숨들 단숨에 녹게 돼 있다고도 하고
미친 세월 끝없을 거라고도 하고
하여, 한 가지 부탁한다 칼 쥔 자들아
오늘 하루 일찍 돌아가
입을 반쯤 벌리고 잠든 너희 새끼들
그 바알간 귤밤 한번 들여다보아라
귀 뒤로 어리는 황홀한 싹뿔줄들
한 번만 들여다보아라
부탁한다

-김사인, 「딸년을 안고」

「가을 연기 자욱한 저녁 들판으로

□ : ① '-어/아 다오' 반복
□ : 화자가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대상

상행 열차를 타고 평택을 지나갈 때」

「」: 「가을», 「저녁», 「상행 열차», 「평택」 등 구체적인 시공간적 배경을 제시함.

「흔들리는 차창에서 너는

문득 낯선 얼굴을 발견할지도 모른다.

“낯선 얼굴” → 비판 의식을 가진 깨어 있는 존재.

그것이 너의 모습이라고 **생각지 말아 다오.**」

「」: 반어적 표현, 실제 발화 의도 = 현실 비판 의식을 가져 다오 or 낯선 얼굴에 주목해 다오.

오징어를 씹으며 화투판을 벌이는

낯익은 얼굴들 이 네 곁에 있지 않느냐.

“낯익은 얼굴들” → 쾌락과 이익만을 추구하고 현실에 순응하여 살아가는 이들 (→ “낯선 얼굴”)

「황혼 속에 고향치는 **원색의 지붕들**과

잠자리처럼 파들거리는 **TV 안테나들**

흥미 있는 주간지를 보며

고개를 끄덕여 다오.」

「」: 반어적 표현, 실제 발화 의도 = 현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다오. → 부정적 현실에 길들어져 의문을 가지지 않는 모습을 비판

「농약으로 질식한 풀벌레의 울음 같은

“농약으로 질식한 풀벌레의 울음” → 산업화로 인한 부작용(환경 파괴)

심야 방송이 잠든 뒤의 전파 소리 같은

듣기 힘든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아 다오.**」

「」: 반어적 표현, 실제 발화 의도 = “듣기 힘든 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 → 현실 문제에 대한 관심 촉구

「확성기마다 울려 나오는 **힘찬 노래**와

“힘찬 노래”, “자동차 소리” ↔ “풀벌레의 울음”, “전파 소리”

고속도로를 달려가는 **자동차 소리**는 얼마나 경쾌하냐.」

「」: 반어적 표현, “힘찬 노래”와 “자동차 소리”에 대한 비판 의식을 강조함.

「예부터 인생은 여행에 비유되었으니

맥주나 콜라를 마시며

“맥주나 콜라”, “즐거운 여행” → 쾌락을 추구하는 모습을 상징함.

즐거운 여행을 **해 다오.**」

「」: 반어적 표현, 실제 발화 의도 = 쾌락이 아닌 참된 가치를 추구해 다오.

「되도록 **생각을 하지 말아 다오.**」

「」: 반어적 표현, 실제 발화 의도 = 현실의 문제를 외면하지 말고 비판 의식을 가져 다오.

「놀라울 때는 다만

〈아!〉라고 **말해 다오.**

보다 긴 말을 하고 싶으면 **침묵해 다오.**」

「」: 반어적 표현, 실제 발화 의도 = 현실의 문제에 대해 침묵하지 말고 많은 이야기를 해 다오.

「침묵이 어색할 때는

오랫동안 가문 날씨에 관하여

“오랫동안 가문 날씨”: 일상적인 관심거리

아르헨티나의 축구경기에 관하여

“아르헨티나의 축구 경기”: 자극적인 쾌락거리

성장하는 GNP와 증권 시세에 관하여

“성장하는 GNP와 증권 시세”: 세속적 이익에 대한 이야기

「이야기해 다오.」

「」: 반어적 표현, 현실에 관심을 가지고 본질적인 문제들에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 줄 것을 요구함.

「너를 위하여

그리고 나를 위하여」

「」: 현실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우리 모두의 일임을 강조함.

이해와 감상

이 시는 급속하게 진행되는 산업화의 과정에서 부정적 현실과 이를 도외시한 채 쾌락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들에 대한 비판을 그려낸 작품이다.

1~2행에서 화자는 시간적·공간적 배경을 제시한 뒤, 3~7행에서 “너”에게 “낮선 얼굴”이 “너의 모습이라고 생각지 말아 다오”, “낮익은 얼굴들이 네 곁에 있지 않느냐”라며 말을 건넨다. “오징어를 씹으며 화투판을 벌이는”이라는 표현이 쾌락을 추구하며 현실에 관심을 두지 않는 이들의 모습을 그려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생각지 말아 다오”라는 표현은 ‘생각을 해 다오’라는 의미를 반어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화자는 ‘낮익은 얼굴이 아닌 낮선 얼굴에 주목하며, 현실에 관심을 가져 달라’고 “너”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8~11행에서 화자는 “원색의 지붕들”, “TV 안테나들”, “흥미 있는 주간지”를 보며 “고개를 끄덕여 다오”라고 말한다. 이 시가 산업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원색의 지붕들”과 “TV 안테나들”, “흥미 있는 주간지”는 급속한 발전을 추구하는 사회적 풍조와 흥미 위주의 문화가 중시되던 당시의 분위기를 상징적으로 그려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고개를 끄덕여 다오”는 반어적 표현으로, 화자는 이를 통해 부정적 현실에 길들여진 채 살아가는 모습에 대한 비판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2~19행에서 화자는 “듣기 힘든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아 다오”, “즐거운 여행을 해 다오”라고 말한다. 이 역시 반어적 표현으로, 화자는 쾌락적인 풍조에 빠져 사회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이들에 대한 비판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때 “듣기 힘든 소리”로 제시된 “농약으로 질식한 풀벌레의 울음”은 산업화로 인해 파괴된 농촌 또는 자연의 모습을, “심야 방송이 잠든 뒤의 전파 소리”는 현실에 관심을 가지고 문제점을 고발하는 언론의 소리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달리 화자가 경쾌하다고 하는 “힘찬 노래”와 “자동차 소리”는 급속한 발전을 이룬 산업화의 산물들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이때 “얼마나 경쾌하냐”라는 구절 역시 반어적 표현으로 볼 수 있다.

20~28행에서 화자는 부정적 현실에 관심을 두지 않고 개인적이고 속물적인 것에만 매몰되어 가는 모습에 대해 비판한다. 화자는 “되도록 생각을 하지 말”고 “놀라울 때는 다만 / <아!>라고 말”해 달라고 하는데, 이는 현실의 문제에 관심을 두고 침묵하지 말라는 당부를 반어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어 화자는 “가문 날씨”와 같은 일상적인 이야기, “아르헨티나의 축구 경기” 등 현실 문제와 관련이 없는 흥미로운 대상, “성장하는 GNP와 증권 시세”라는 개인적이고 물질적인 대상들에 관하여 이야기해달라고 말한다. 이러한 화자의 요구에는 현실 문제와 관련된 것에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달라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29~30행에서 화자는 “너를 위하여 / 그리고 나를 위하여”라고 말하며 시상을 마무리한다. 앞선 문맥을 고려할 때, 이는 현실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모두의 일임을 강조하는 표현이라 볼 수 있다.

표현상의 특징

① “너”에게 요구하는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함.

예 “생각지 말아 다오.”, “끄덕여 다오.”, “귀 기울이지 말아 다오.” 등

→ 마치 독자에게 이야기하는 듯한 효과를 주어 주제를 강조함.

② 반어적 표현을 활용함.

예 “고개를 끄덕여 다오.”, “귀 기울이지 말아 다오.”, “생각을 하지 말아 다오.” 등

→ 화자의 비판적 인식을 강조해 주제 의식을 부각함.

③ ‘-어/아 다오’를 반복함.

예 ‘생각지 말아 다오’, ‘끄덕여 다오’, ‘해 다오’ 등

→ 부정적 현실의 모습을 부각함.

주제

산업화 시대의 부정적 모습과 이에 안주하는 태도에 대한 비판

「상행」에 담긴 1970년대 시대상

이 시의 배경인 1970년대는 우리 사회가 본격적으로 산업화를 통해 경제 성장을 추구했던 시기였다. 하지만 급속한 발전의 이면에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농촌은 외형상으로 발전된 모습을 보여 주고 있었지만, 무분별한 성장 추구로 인해 심각한 환경 오염이 발생했으며, 보여 주기식 행정에만 급급했던 ‘지붕 개량화 사업’과 같은 정책들은 농민들의 실질적인 삶과 동떨어져 있었다.

그 외에도 1970년대는 군사 정권 시기로, 우민화 정책이 실시되었으며 언론 통제 또한 존재하던 시기였다. 이에 생존에 급급했던 사람들은 삶에 대한 진지한 성찰의 자세를 잃어버렸으며, 황금만능주의가 만연하는 등 자신의安危만 걱정하는 소시민적 삶에 매몰되어 갔다.

「기차 안」과 「기차 밖」 공간의 대비, 「낮익은 얼굴들」과 「낮선 얼굴」 대비

「상행」의 공간적 배경은 그 자체로 근대화를 상징하는 ‘기차’의 안팎으로 설정되어 있다. ‘기차 안’의 사람들은 소시민적인 모습으로 보이고, ‘기차 밖’은 산업화와 근대화가 가져온 문제로 인한 부정적인 모습뿐이다. 이때 화자는 기차의 안팎을 구분하는 ‘차창’에 비친 ‘낮선 얼굴’과 ‘낮익은 얼굴들’에 주목한다. 반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는 소시민적인 모습을 상징하는 ‘낮익은 얼굴들’을 비판의 대상으로, 현실에 관심을 가지는 모습을 상징하는 ‘낮선 얼굴’을 긍정의 대상으로 그려냄으로써 시대 현실에 비판의 목소리를 가질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Memo

『생명은

추운 몸으로 온다』

『』: “생명”에 대한 화자의 인식 ① → ‘생명은 추위로부터 온다.’

별거벗고 언 땅에 꽃혀 자라는

초록의 겨울 보리.

『생명의 어머니도 먼 곳

추운 몸으로 왔다』 『』: “생명”에 대한 화자의 인식 ② → ‘생명의 근원도 추위로부터 왔다.’

『』: 혹독한 추위에도 자라는 겨울 보리와 추위 속에서 움트는 “생명”에 대한 화자의 인식

『진실도

부서지고 불에 타면서 온다

버려지고 피 흘리면서 온다』

『』: “진실”도 고난을 겪은 후 얻을 수 있다는 화자의 인식 → ‘생명과 진리는 고통을 통해 완성된다.’

『겨울나무들을 보라

추위의 면도날로 제 몸을 다듬는다

잎은 떨어져 먼 날의 섭리에 불려 가고

줄기는 이렇듯이

“충전(充電)” : ① 충전지나 충전기에 전기 에너지를 축적하는 일.

충전 부딪돌임을 보라』 ② 휴식을 하면서 활력을 되찾거나 실력을 기르는 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추위 속에서 제 몸을 다듬으며 준비하는 “겨울나무들”의 모습 → 고통을 감내하며 새롭게 생명을 준비하는 속성을 강조함.

『금 가고 일그러진 걸 사랑할 줄 모르는 이는

“금 가고 일그러진” 것. “상한 살” → 상처와 아픔을 가진 존재

친구가 아니다

상한 살을 헤집고 입 맞출 줄 모르는 이는

친구가 아니다』

『』: 상처와 아픔을 가진 존재를 사랑해야 함을 강조하는 화자

→ 다른 존재의 상처와 아픔을 이해하려는 태도와 고통과 시련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드러냄.

『생명은

추운 몸으로 온다

열두 대문 다 지나온 추위로

하얗게 드러눕는

함박눈 눈송이로 온다』

『』: 1연 1~2행 반복. “생명”에 대한 화자의 인식 ① → ‘생명은 추위로부터 온다.’라는 인식을 강조함.

이해와 감상

이 시의 화자는 추위 속에서 움트는 “겨울 보리”, “겨울나무”의 모습에서 고통과 시련을 통해 완성되는 생명의 본질을 인식하고 있다.

1연에는 혹독한 추위에도 자라는 “생명”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제시된다. 화자는 “생명”은 “추운 몸으로 온다”라고 하며, “벌거벗고 언 땅에 꽃혀 자라”는 “초록의 겨울 보리”에 주목한다. 즉,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자라는 “초록의 겨울 보리”를 보며 고통과 시련 속에서 움트는 “생명”에 대해 인식을 확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이어 화자는 “생명의 어머니”도 “추운 몸으로 왔다”라고 말하는데, 이를 통해 화자는 “생명”의 근원 또한 고통과 시련 속에서 왔다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연에서 화자는 “진실”도 “부서지고 불에 타면서”, “버려지고 피 흘리면서 온다”고 말한다. 이는 “진실”도 고난을 겪은 후에 얻을 수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이를 1연과 연결해 본다면, 화자는 생명과 진리는 모두 고통을 통해 완성됨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연에는 추위 속에서 제 몸을 다듬으며 준비하는 “겨울나무들”의 모습이 제시된다. “겨울나무들”은 “추위의 면도날로 제 몸을 다듬고”, “잎은 떨어져 먼 날의 섭리에 불려 가”고 “줄기”는 “충전 부실파”인 상태이다. 잎이 떨어지고 가지나 줄기가 앙상한 겨울나무의 상태를 “충전” 즉 활력을 되찾기 위해 준비하는 모습으로 그려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화자가 “생명”의 본질을 고통을 감내하며 새롭게 생명을 준비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4연에서 화자는 “금 가고 일그러진 걸 사랑할 줄 모르는 이”, “상한 살을 헤집고 입 맞출 줄 모르는 이”는 “친구가 아니다”라고 말한다. “금 가고 일그러진 걸”, “상한 살”이라는 표현을 고려할 때, 이는 상처와 아픔을 가진 이를 사랑하고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는 태도가 중요함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5연에서 화자는 1연의 1~2행을 반복하고, 이어 “열두 대문 다 지나온 추위”로 “하얗게 드러눕”는 “함박눈 눈송이로 온다”고 말한다. “추위”, “함박눈 눈송이”와 같이 고통과 시련을 상징하는 시어를 활용함으로써 화자는 ‘생명은 추위로부터 온다’, ‘생명은 고통과 시련을 통해 완성된다’라는 “생명”의 본질에 대한 인식을 강조하며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표현상의 특징

① 대구적 표현을 사용함.

예 “부서지고 불에 타면서 온다 / 버려지고 피 흘리면서 온다”,
“금 가고 일그러진 걸 사랑할 줄 모르는 이는 / 친구가 아니다
/ 상한 살을 헤집고 입 맞출 줄 모르는 이는 / 친구가 아니다”

② 수미상관의 구조를 활용함.

예 “생명은 / 추운 몸으로 온다”
→ 시적 의미를 강조함.

주제

고난을 겪은 후 얻을 수 있는 생명과 진실

시인 김남조의 ‘생명’에 대한 인식

김남조가 작품 활동을 시작한 1950년대는 6·25 전쟁으로 인해 폐허가 된 사회 속에서 허무주의와 패배주의의 심화로 부정적 세계관이 확산되던 시기였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김남조는 죽음과 파괴 안에서 존재의 허무와 부조리를 발견하며 시를 쓰기 시작하였으며, 민족적 시련에 휘말려 고통을 겪던 시인은 ‘인간 존재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에 집중하여 ‘생명’에 대해 노래함으로써 전쟁의 절망감과 상실감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추위가 칼날처럼 다가든 새벽」

“추위가 칼날처럼 다가든 새벽” → 계절적, 시간적 배경

무심히 커튼을 젖히다 보면

유리창에 피어난, 아니 이런 **황홀한 꿈**을 보았나 □ : “성에 꽃”

세상과 나 사이에 밤새 누가

이런 **투명한 꽃**을 피워 놓으셨을까

들녘의 꽃들조차 제 빛깔을 감추고

“들녘의 꽃들조차 ~ 숨죽이고 있을 때” → 다른 꽃들은 추위로 꽃을 피우지 못할 때.

씨앗 속에 깊이 숨죽이고 있을 때

이내 스러지는 **니르바나의 꽃**을

“니르바나” : 열반. 모든 번뇌의 얽매임에서 벗어나고, 진리를 깨달아 불생불멸의 법을 체득한 경지.

저 얇고 날카로운 유리창에 누가 새겨 놓았을까」

「」 : 추운 겨울 새벽 유리창에 피어난 성에 꽃을 발견하고 그 아름다움에 감탄하는 모습

『허긴 사람도 그렇지

“허긴 사람도 그렇지” → “성에 꽃”에서 인간으로 화자의 인식이 확장됨.

가장 가혹한 고통의 밤이 끝난 자리에

가장 눈부시고 부드러운 꿈이 일어서지」

「」 : 인간도 시련과 고통을 견뎌야 소망하는 바를 이룰 수 있음을 드러냄.

→ 자연의 섭리를 인간사로 확장하여 고난과 고통을 감내하는 삶의 가치를 강조함.

『새하얀 신부 앞에 붉고 푸른 색깔들 입 다물듯이

“새하얀 신부” → “성에 꽃”을 비유함. “붉고 푸른 색깔들” → 들녘의 꽃들을 비유함.

들녘의 꽃들 모두 제 향기를

“들녘의 꽃들 모두 ~ 감추고 있을 때” → 다른 꽃들은 추위로 꽃을 피우지 못할 때.

씨앗 속에 깊이 감추고 있을 때

어둠이 스며드는 차가운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누가 저토록 **슬픈 향기**를 새기셨을까

한 방울 물로 스러지는

“불가해한” : 이해할 수 없는.

불가해한 비애의 꽃송이들을」

「」 : 들녘의 꽃들이 추위로 꽃 피우지 못할 때 슬픈 향기로 새겨지고 이내 사라지는 “성에 꽃”

→ 추운 겨울을 견뎌내고 피어난 성에 꽃이 쉽게 사라지는 것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을 강조함.

이해와 감상

이 시의 화자는 추운 겨울 새벽 유리창에 핀 성에 꽃을 보며 깨달은 고난과 고통을 감내하는 삶의 가치에 대해 노래하고 있다.

1~5행에서 화자는 “추위가 칼날처럼 다가온 새벽”에 무심히 “커튼을 젖히”다가 “유리창에 피어”난 “황홀한 꿈”을 보았다고 한다. 이어 “세상과 나 사이”에 누가 “이런 투명한 꽃”을 피워 놓으셨는지 묻는다. “황홀한 꿈”, “투명한 꽃”은 추운 겨울 새벽 유리창에 핀 “성에 꽃”을 의미하며, “황홀한”이라는 표현을 고려할 때 화자는 “성에 꽃”을 발견하고 황홀함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에 꽃”이 “세상과 나 사이”에 피었으며, 이때 “피워 놓으셨을까”라고 묻는 화자의 모습을 통해 “성에 꽃”을 피우는 이를 조물주 또는 절대자로 상징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즉, “성에 꽃”을 보며 화자는 자연의 섭리에 대해 인식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9행에서 화자는 “들녘의 꽃들”이 “빛깔을 감추고” 숨죽이고 있을 때에 “이내 스러지는 니르바나의 꽃”을 “얹고 날카로운 유리창에 누가 새겨 놓았을까”라고 묻는다. 유리창에 새겨진 “니르바나의 꽃”은 “성에 꽃”으로, 화자는 “이내 스러지는”이라는 표현을 활용하여 쉽게 사라지는 “성에 꽃”의 순간성이라는 속성을 부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얹고 날카로운 유리창”이라는 표현에서, “성에 꽃”이 피는 공간 즉 상황이 부정적임을 드러내고 있다. 이를 고려할 때, 화자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쉽게 사라지는 속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피는 “성에 꽃”의 의지적 성질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를 진리를 깨달은 열반의 경지라는 뜻의 “니르바나”라는 표현으로 연결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성에 꽃”에 대한 이러한 화자의 인식은 10~12행에서 인간사로 확장된다. 화자는 “히진 사람도 그렇지”라고 말하며, “가장 가혹한 고통의 밤이 끝난 자리”에 “가장 눈부시고 부드러운 꿈이 일어”선다고 한다. 이는 시련과 고통을 감내하고 견뎌내야 소망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는 뜻으로, 화자는 자연의 섭리를 인간사로 확장하여 고난과 고통을 감내하는 삶의 가치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3~17행에서 화자는 “들녘의 꽃들”이 “제 향기”를 “깊이 감추고 있을 때”, “어둠이 스며드는 차가운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누가 “슬픈 향기를 새기셨을까”라고 묻는다. 이는 들녘의 꽃들은 피우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핀 “슬픈 향기” 즉 “성에 꽃”에 주목하는 화자의 모습으로, “슬픈”이라는 표현에서 “성에 꽃”의 모습과 성질로부터 촉발된 화자의 감정이 비애감을 짐작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18~19행에서 화자는 “한 방울 물로 스러지”는 “불가해한 비애의 꽃송이들을”을 언급하며 시상을 마무리한다. 이는 앞서 드러난 화자의 비애감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으로, 이내 스러지고 사라지는 “성에 꽃”의 속성이 비애감의 이유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현상의 특징

① 다양한 감각적 심상이 활용됨.

예 “투명한 꽃”, “가장 눈부시고 부드러운 꿈”, “새하얀 신부 앞에 붉고 푸른 색깔들 입 다물듯이”, “슬픈 향기” 등

② 비유적 표현을 사용함.

예 “황홀한 꿈”, “투명한 꽃”, “니르바나의 꽃”, “슬픈 향기”, “불가해한 비애의 꽃송이들” 등

→ 대상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함.

주제

성에 꽃을 통해 깨달은 고난과 고통을 감내하는 삶의 가치

문정희의 「성에 꽃」 vs 최두석의 「성에꽃」

같은 제목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새벽에 발견한 유리창의 성에’라는 시적 소재와 ‘성에 꽃’이 이중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설정까지, 문정희의 「성에 꽃」과 최두석의 「성에꽃」은 유사성을 지닌다. 한편, 최두석의 「성에꽃」에서 ‘성에 꽃’의 아름다움은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 대한 화자의 애정과 연민을 표현한 것이지만, 문정희의 「성에 꽃」에서 ‘성에 꽃’의 아름다움은 부정적 현실을 감내하고 피어나는 삶의 가치를 표현한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새벽 시내버스는
차창에 웬 찬란한 치장을 하고 달린다
엄동 혹한일수록
선연히 피는 성에꽃
어제 이 버스를 탔던
처녀 총각 아이 어른
미용사 외판원 파출부 실업자의
입김과 숨결이
간밤에 은밀히 만나 피워 낸
번뜩이는 기막힌 아름다움
나는 무슨 전람회엔 온 듯
자리를 옮겨 다니며 보고
다시 꽃 이파리 하나, 섬세하고도
차가운 아름다움에 취한다
어느 누구의 막막한 한숨이던가
어떤 더운 가슴이 토해 낸 정열의 숨결이던가
일없이 정성스레 입김으로 손가락으로
성에꽃 한 잎 지우고
이마를 대고 본다
덜컹거리는 창에 어리는 푸석한 얼굴
오랫동안 함께 길을 걸었으나
지금은 먼회마저 금지된 친구여

— 최두석, 「성에꽃」

「파리는 내가 덮고 자는 공간을 깔고 잔다

「파리」→ 시적 대상

날개 휘젓던 공간밖에 믿을 게 없어

날개의 길밖에 믿을 게 없어

천장에 매달려 잠자는 파리는 슬프다

추락하다 잠이 깨면 곧 비행할 포즈

헬리콥터처럼 활주로 없이 이착륙하는 파리」

「」: 화자의 시선에서 바라본 파리의 삶

「구더기를 본 사람은 알리라

→ 의지할 공간조차 없이 처량하고 위태로운 「파리」의 삶을 슬프다고 인식하는 화자

왜 파리가 높은 곳에서 잠드는가를」

「」: 「구더기」였던 「파리」가 「높은 곳」을 동경할 것이라는 화자의 추측이 나타남.

「저 사내는 내가 덮고 자는 공간을 깔고 잔다

「저 사내」→ 시적 대상 ⇒ 화자가 대상화됨

지구의 밑부분에 집이 매달리는 시간

「나는 바닥에 엎드려 자는데

저 사내는 천장에 등을 붙이고 잔다」

「」: 화자에서 「파리」로 관점이 달라지면서 「천장」과 「바닥」의 의미가 역전됨.

발 붙이고 사는 땅밖에 믿을 게 없다는 듯

중력밖에 믿을 게 없다는 듯

천장에 등을 붙이고 잠드는 저 사내는 슬프다」

「」: 「파리」의 시선에서 바라본 「저 사내」(화자)의 삶 → 땅과 중력밖에 믿을 게 없는 「저 사내」의 위태로운 삶을 슬프다고 인식하는 「파리」

「어떤 날은 저 사내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늦게 거꾸로 꾸고려 앉아 전화를 걸기도 한다

저 사내처럼 외로운 사람이 어디 또 있나 보다」

「」: 「파리」의 시선을 통해 잠들지 못하고 외로운 「저 사내」의 처지를 드러냄

→ 삶에 대한 화자의 고뇌, 불안정하고 처량한 삶으로 인한 화자의 외로움을 부각함.

⇒ 인간의 실존적 외로움, 존재론적 외로움에 대한 인식

이해와 감상

이 시는 화자의 시선에서 바라본 파리의 삶과 파리의 시선에서 바라본 화자의 삶을 제시함으로써 존재의 상대적 의미, 인간의 존재론적 외로움이라는 주제 의식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1연에서는 화자의 시선에서 바라본 파리의 삶이 그려진다. 화자는 “파리는 내가 덮고 자는 공간을 깔고 잔다”라고 하며, “날개 휘젓던 공간”과 “날개의 길”밖에 믿을 것이 없어 “천장에 매달려 잠자는 파리는 슬프다”라고 말한다. 또한 화자는 파리가 “추락하다 잠이 깨면 곧 비행할 포즈”로 “헬리콥터처럼 활주로 없이 이착륙”한다고 말한다. “날개 휘젓던 공간”, “날개의 길”밖에 믿을 것이 없어 “천장에 매달려 자”고, “활주로 없이 이착륙”하는 것으로 그려진 파리의 모습에서, 화자는 파리가 의지할 공간조차 없이 위태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2연에서는 “파리”의 시선에서 바라본 화자의 삶이 그려진다. 1연의 내용을 고려할 때 “저 사내는 내가 덮고 자는 공간을 깔고 잔다”라는 구절에서의 “저 사내”는 1연의 화자임을 알 수 있다. 즉 1연의 대상이었던 “파리”가 2연의 화자가 되어 화자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파리는 “나는 바닥에 엎드려 자는”데 “저 사내는 천장에 등을 붙이고 잔다”라고 한다. 즉, 화자에서 “파리”로 관점이 달라지면서 “천장”과 “바닥”의 의미가 역전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때 파리는 “저 사내”가 “발 붙이고 사는 땅밖에 믿을 게 없”고, “중력밖에 믿을 게 없”어 “천장에 등을 붙이고 잠드는 저 사내는 슬프다”라고 말한다. 이를 통해 1연에서의 화자의 인식이 파리의 관점에서 반복되며 관계가 주체와 대상이 역전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파리는 화자가 믿을 게 없어 위태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파리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늦게 거꾸로 쭈그려 앉아 전화를 걸기도” 하는 화자가 “외로운 사람”이라고 말한다. 이는 불안하고 위태로운 삶으로 인해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1~2연에서 화자와 “파리”의 관점을 서로 대비함으로써 존재의 상대적 의미라는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와 연결해 본다면 위태로운 삶으로 인한 외로움은 인간이라는 존재의 존재론적 외로움으로 확대하여 이해해볼 수 있겠다.

표현상의 특징

① 파리와 화자의 시선을 교차함.

예 “파리는 내가 덮고 자는 공간을 깔고 잔다” ↔ “저 사내는 내가 덮고 자는 공간을 깔고 잔다”

② 유사한 구절이 반복됨.

예 “파리는 내가 덮고 자는 공간을 깔고 잔다”, “저 사내는 내가 덮고 자는 공간을 깔고 잔다”, “천장에 매달려 잠자는 파리는 슬프다”, “천장에 등을 붙이고 잠드는 저 사내는 슬프다”

→ 주제 의식을 강조함.

주제

존재의 상대적 의미, 인간의 존재론적 외로움

「오래된 잠버릇」에 담긴 비판적 인식

함민복은 자본주의와 문명에 대해 비판적인 자세를 보이는 작가로 평가된다. 「오래된 잠버릇」에서 어두운 공간으로 그려지는 ‘방’은 소통의 대상이 없는 외로운 공간이다. ‘사내’는 땅 이외에는 믿을 게 없는 상태로 고독과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또한 ‘사내’는 타자를 직접 만나 소통할 수 없음을 ‘전화’로나마 해소하고자 하지만 외로움은 해소되지 않는다. 이러한 소외의 모습에는 ‘도시 공간과 자본주의의 파편화’가 사람들 사이의 연결을 막고 있다는 자본주의와 도시화에 대한 시인의 비판적 인식이 담겨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시인은 간접적인 인간관계가 일반적인 오늘날의 모습이 투영된 모습을 통해 현대인에게 위로를 전함과 동시에 자기 반성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김기택, 「어둠도 자세히 보면 환하다」

(2024_수능특강, 324p)

「창문 하나 없던 낡은 월세 자취방.

“낡은 월세 자취방” → 낡고 누추한 공간

[-던 방.] : 반복을 통해 과거 “방”의 상태를 부각함.

한낮에도 어둠이 빠져나가지 못하[던 방.]

아침에 퇴근하여 햇빛을 받고 들어가면

직사광선이 일제히 켜이어 흠어지[던 방.]

잠시 눈꺼풀에 낀 잔광도

“잔광” : ① 해가 질 무렵의 약한 빛. ② 외부 에너지 공급 중단된 뒤 방출되는 빛.

눈을 깜빡거리면 바로 어둠이 되[던 방.]

퀴퀴하고 질쭉한 어둠이 항상 고여 있[던 방.]

“퀴퀴하다” : 상하고 찌들어 비위에 거슬릴 정도로 냄새가 구리다.

방에 들어서면 눈알이 어둠 속에 깊이 박혀

이리저리 굴려도 잘 돌아가지 않[던 방.]」

「」: “방”의 모습 → 낡고 누추하고 어두운 “방”의 속성을 부각함.

「어둠이 보일 때까지

어둠 속의 무수한 빛과 색깔이

내 눈을 발견할 때까지

오래오래 어둠의 내부를 들여다보[던 방.]」

「」: “방”의 “어둠”에 주목하여 면밀히 관찰하기 시작하는 화자의 모습

「자세히 보면 어둠도 환하게 보이[던 방.]

“자세히 보면 어둠도 환하게” → “방”의 “어둠”을 면밀히 관찰하며 화자가 확인한 역설적 진리

방 안의 온갖 잡동사니들이 큰 숨을 들이쉬며

느릿느릿 어둠을 빨아들였다가

제 속에 든 빛을 오래오래 발산 해주[던 방.]」

「」: “어둠” 속에서 “잡동사니들”이 발산하는 “빛”을 발견한 화자의 모습

보잘것없는 물건들이 서로 비취주고 되비쳐 주며

제 안에서 스스로 발광하는 낮은 빛을

조금씩 끊임없이 나누[던 방.]」

「」: “서로” 빛을 나누어 “어둠도 환하게” 하는 “보잘것없는 물건들”

→ 상생과 공존의 모습 ⇒ ‘자세히 보면 어둠도 환하다’라는 역설적 진리, 상생과 공존의 가치를 강조함.

이해와 감상

이 시의 화자는 어두운 자취방에서 “어둠”에 대해 관찰하며 발견한 역설적 진리에 대해 형상화하고 있다.

1~9행에는 밝고 누추하고 어두운 “방”의 모습이 제시된다. 화자는 “밝은 월세 자취방”이 “한낮에도 어둠이 빠져나가지 못”하며, “햇빛을 받고 들어가”면 “일제히 꺾이어 흩어지”며, “잔광”도 “바로 어둠이 되”며, “퀴퀴하고 걸쭉한 어둠이 항상 고여 있”다고 말한다. 이는 밝고 누추하고 어두운 방의 모습을 그려낸 것으로, 화자는 그 방을 “들어서면 눈알이 어둠 속에 깊이 박혀”서 “이리저리 굴러도 잘 돌아가지 않”는 곳으로 인식하고 있다.

“자취방”에 대한 화자의 인식은 10~13행에서 “어둠”을 면밀하게 관찰하기 시작하면서 확장된다고 볼 수 있다. 화자는 “어둠이 보일 때까지”, “어둠 속의 무수한 빛과 색깔”이 자신의 눈에 발견될 때까지 “오래오래 어둠의 내부를 들여다”본다. 이는 어둠 속에서 “무수한 빛과 색깔”을 발견하려는 화자의 시도로 볼 수 있다.

이어 14~17행에서 화자는 어둠 속에서 “온갖 잡동사니들”이 발산하는 “빛”을 발견하게 된다. 화자는 어두운 방 안의 “온갖 잡동사니들”이 “큰 숨을 들이쉬”며 “느릿느릿 어둠을 빨아들였다”가 그 빛을 “오래오래 발산해”준다고 말한다. 이는 ‘어둠’에서 ‘밝음’을 발견함으로써 역설적 진리를 확인하는 화자의 모습을 그려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18~20행에서 화자는 “보잘것없는 물건들이 서로 비춰주고 되비춰 주”며 “제 안에서 스스로 발광하는 낮은 빛”을 “조금씩 끊임없이 나”눈다고 말한다. 이는 어둠 속에서 “보잘것없는 물건들”이 서로 빛을 나누며 어둠을 밝혀가는 모습을 그려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서로 의지하고 배려하는 것으로 공존하는 가치라는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현상의 특징

① 명사로 끝맺은 시행을 반복함.

예 “-던 방.”

→ 대상의 과거 상태를 부각함.

② 다양한 감각적 심상이 활용됨.

예 “퀴퀴하고 걸쭉한 어둠”, “어둠속의 무수한 빛과 색깔”, “어둠도 환하게 보이던 방” 등

→ 대상의 상태를 효과적으로 표현함.

주제

어둠 속 방 안의 사물들을 통해 본 공동체 의식

김기택 시의 ‘일상성’

김기택은 면밀한 관찰과 묘사를 통해 시적 세계를 만들어 갔는데, 단순하고 표면적인 묘사를 넘어 현상 이상의 본질을 발견하고자 했다. 그는 시적 화자로 선지자의 모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부분과 같은 통념을 가진 일반적인 인간인 화자를 설정하여, 그 화자가 일상적 장면 속에서의 작은 관심과 집중을 통해 역설적 진리를 깨닫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일상적 소재’를 사용하여, 작가가 전하고자 하는 바를 독자가 보다 쉽게 공감할 수 있게 만드는 장치라고 볼 수 있다.

KICE x EBS

현대 소설

이해와 감상

〈원미동 시인〉은 1986년에 발표된 소설로, 위기에 처한 이웃을 외면하는 소시민성에 대한 비판을 그려낸 작품이다. 이유 없이 폭행을 당하는 ‘몽달씨’와 그것을 방관하는 ‘김반장’이 주요 인물로 등장하는데, 이때 자신을 방관한 그마저 포용하는 ‘몽달씨’의 모습을 강조함으로써 이웃의 불행에 무관심한 소시민적인 인물에 대한 비판을 드러낸다. 이들의 이야기를 어린 주인공인 ‘나’의 시점을 통해 보여주어 위선적인 사회에 대한 비판과 남들을 포용하는 따뜻한 마음에 대한 지향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전체 줄거리

경옥(‘나’)은 자신이 그저 그만한 어린아이가 아니라 집안 사정이며 동네 사람들의 속마음을 두루 맞힐 수 있는 눈치를 지녔다고 생각한다. 경옥은 일곱 살짜리로 호적에 올라 있으나 사실 여덟 살 혹은 아홉 살이기 때문이다. 딸만 넷인 상황에서 아들이 줄 알고 낳은 자식이 또 딸이라는 사실에 경옥을 미워하던 부모가 세 살이 되어 서야 아이를 호적에 올려 준 것이다.

경옥의 동네인 원미동에는 원미동 카수나 원미동 멋쟁이, 원미동 똑똑이 등이 있는데 경옥은 그 중에서도 원미동 시인에 주목한다. 원미동 시인의 다른 별명은 몽달씨로, 밤중에 본 모습이 몽달귀신 같다는 이유로 생겼다. 스물일곱 살인 몽달씨는 경옥의 친구로, 늘 그막에 재혼한 아버지의 집에서 함께 살며 동네 사람들에게 ‘약간 돈’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경옥의 또다른 스물일곱 살 친구는 옆집 형제슈퍼의 김반장이다. 그는 경옥의 셋째 언니 선옥과 서로 좋아해 경옥에게 잘해주지만, 선옥이 지지리궁상인 집을 지겨워하며 서울로 가 버린 이후 급작스레 경옥에게 통명스러워진다. 경옥은 다른 언니들을 중학교까지만 보낸 부모가 유일하게 고등학교까지 보낸 선옥이, 그래서 공장은 싫고 차라리 영화배우가 되고 싶었던 선옥이 김반장네의 가게에 만족할 리 없다고 생각한다.

경옥이 몽달씨와 친구가 된 것은 지난 봄이었다. 몽달씨는 김반장과 놀고 싶어 형제슈퍼 앞을 어슬렁거리던 경옥을 불러세워 자신이 베껴 적은 시의 마지막 구절을 읽어주었다. 김반장이 몽달씨에게 시를 쓴다 하니 한 수 지어 와 달라고 부탁했다는 것이다. 경옥은 시인과 친구가 되는 것이 근사하다는 생각에 몽달씨와 친구가 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경옥은 시밖에 모르는 몽달씨보다는 선뜻 간식을 내주는 김반장을 더욱 좋아했다. 동네 사람들도 형제슈퍼에서 어슬렁대며 시간을 보내는 몽달씨를 보며 혀를 찼고, 몽달씨의 새어머니는 몽달씨가 대학에서 잘리고 군대에 다녀오고부터 이상해졌다고 한탄했다. 김반장은 차츰 몽달씨에게 심부름을 시켰다. 바쁘지 않을 때는 몽달씨가 적은 시를 읽어주겠다는 김반장의 말에 몽달씨는 신이 나서 온갖 잔심부름을 했다. 그는 언제고 김반장에게 들려줄 수 있도록 시를 적은 쪽지들을 가지고 다녔지만, 김반장은 시를 읽어주기는커녕 몰래 몽달씨를 이상한 사람 취급했다. 몽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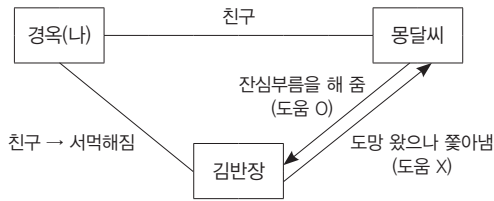
씨의 ‘시적 대화’에 질려 있던 경옥 역시 덩달아 김반장을 따라 몽달씨를 이상하게 여겼다. 동시에 경옥은 은근히 김반장이 자신의 셋째 형부가 되길 바랐다.

초여름 밤(보름 전쯤), 경옥은 김반장을 형부 후보에서 제외하게 된다. 아홉 시쯤 부모님의 싸움을 피해 집을 빠져나온 경옥은 형제슈퍼의 노천 의자에 앉아 있었고 김반장은 그 사실을 눈치채지 못한다. 형제슈퍼를 제외하고는 모든 가게가 문을 닫았고 길에는 사람 하나 없다. 공단 쪽 어두운 길에서 비명 비슷한 소리가 울리고, 이윽고 누군가 필사적으로 가게 쪽으로 도망쳐 온다. 그 뒤로는 젊은 사내들이 도망자를 쫓아온다. 경옥이 있던 자리는 어두워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는다. 도망자는 형제슈퍼 안으로 도망치고, 쫓아오던 사내들은 둘로 나뉘어 하나는 가게 앞을 지키고 서고, 하나는 가게 안으로 들어간다. 경옥은 셋문으로 몰래 가게 안쪽을 들여다본다. 경옥은 바닥에 널브러진 도망자가 몽달씨라는 것을 알고 놀란다. 그러나 김반장은 겁에 질려 도움을 요청하는 몽달씨를 외면하고, 장사를 망치지 말고 나가서 싸우라며 사내와 몽달씨를 쫓아낸다. 경옥은 악독한 사내들에게 맞으며 끌려가는 몽달씨를 보고 원미지물포로 달려가 주씨 아저씨를 부른다. 주씨는 벼락같이 튀어나와 사내들을 저지한다. 지나가는데 대뜸 시비를 걸었다는 몽달씨의 말에 주씨의 정신이 팔린 사이, 사내들은 공단 쪽으로 도망간다. 언제 나왔는지 김반장은 주씨 옆에서 금방이라도 그들을 잡으려 갈 듯 씩씩대고는 몽달씨를 걱정하는 양 부축해 집에 데려다준다.

몽달씨가 앓아누운 열흘 동안 경옥은 김반장이 서먹해진다. 김반장은 여전히 경옥을 처제라고 부르며 간식을 주려 하지만, 경옥은 선옥이 돌아온다면 바로 김반장의 비겁한 행동을 일러바치리라 결심한다. 어른들은 김반장이 복숭아 깡통을 들고 몽달씨를 찾아가고 몽달씨 걱정을 크게 한다며, 그가 진국이라고 칭찬한다. 경옥은 어른들이 하나밖에 모르는 멍텅구리 같다고 생각하고 속이 터질 것 같다고 느끼면서도, 그 밤의 일을 속 시원히 털어놓지는 못한다.

자리를 털고 일어난 몽달씨는 험쵸한 얼굴로도 전처럼 형제슈퍼의 잔심부름을 한다. 경옥은 그가 제정신이 아닌 자작임이 틀림없다고 생각하며, 머리를 다쳐 김반장에게 내쫓긴 부분만 감쪽같이 잊은 것은 아닐지 의심한다. 경옥은 몽달씨가 기억상실증이라고 생각하고, 일을 마친 뒤 또 시를 읽고 있는 몽달씨에게 다가간다. 김반장이 쫓아내는 걸 다 봤다는 경옥의 말에 몽달씨는 순간 정색하지만, 금세 모른 척 주의를 돌린다. 경옥은 더욱 가까이 앉아 김반장이 나쁜 사람이 아니냐고 거듭 묻지만 몽달씨는 못 들은 척 계속해서 판전만 피운다. 그러고는 경옥에게 슬픈 시가 있다며 ‘저 은사시나무는 박해받고 싶어하는 순교자 같’다는 내용의 시를 읽어 준다. 시가 적힌 종이쪽지를 받은 경옥은 눈물을 흘린다.

등장 인물



경옥 (‘나’)	호적에는 일곱 살로 올라갔지만, 사실은 여덟 살 혹은 아홉 살 정도 된 여자아이이다. 눈치가 빨라 동네 사정이나 어른을 마음을 잘 알아챈다. 부모의 홀대로 초등학교나 유치원에 가지 못해 또래 대신 형제슈퍼 김반장이나 몽달씨와 친구로 지낸다. 김반장이 깡패들에게 얻어맞다 도망친 몽달씨를 쫓아내는 모습을 목격하고, 다시 끌려가는 몽달씨를 구하기 위해 지물포 주씨에게 도움을 청한다. 깡패들이 사라진 후에야 정의로운 척하며 몽달씨를 챙기는 김반장을 보고 김반장을 서먹하게 여긴다. 열흘간 누워있다 일어난 몽달씨에게 슬픈 시가 적힌 쪽지를 받고 눈물을 흘린다.
몽달씨	원미동 시인. 초라한 외양이 밤중에 보면 몽달귀신 같다는 이유로 몽달씨라는 별명을 얻었다. 오로지 시에만 열중하며, 바쁘지 않을 때 자신이 적은 시를 읽어주겠다는 김반장의 말에 형제슈퍼에서 잔심부름을 해 준다. 밤길을 지나던 중 깡패들에게 이유 없이 폭행당하고 형제슈퍼로 도망치지만, 김반장에게 매정하게 쫓겨난다. 열흘 후 자리에서 일어나고, 김반장에 대한 경옥의 추궁에도 답을 얼버무리고는 경옥에게 슬픈 시를 건넨다.
김반장	형제슈퍼 주인. 경옥의 언니인 선옥을 좋아해 경옥을 ‘경옥이 처제’라고 부른다. 몽달씨와 동갑이라 자주 비교 대상이 되며, 몽달씨 덕분에 더욱 긍정적으로 평가받는다. 깡패에게 얻어맞다 도망 온 몽달씨를 매정하게 쫓아내 놓고는 깡패들이 사라진 후에야 정의로운 척 몽달씨를 돌본다. 이를 통해 동네 사람들에게 ‘진국’이라는 평가를 듣는다.

주제

소시민적 사회에 대한 비판과 이웃을 포용하는 마음에 대한 지향

출제 포인트

- ① 「원미동 시인」에는 위선적인 인물인 ‘김 반장’과 그것을 용서하고 포용하는 ‘몽달 씨’가 등장한다. 어린 ‘나’의 시선으로 두 인물의 대비가 두드러지는데, 어린아이를 1인칭 관찰자로 설정한 이유는 어른들의 소시민적 세태는 어른의 시각으로는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즉, 현실의 부조리함을 어린 아이의 순수한 시각으로 보여줌으로써 위선적인 소시민성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타인을 포용하는 따뜻한 마음씨에 대한 지향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 ② 동네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몽달 씨’는 황지우의 「서풍 앞에서」라는 시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드러낸다. 이 시에서 ‘은사시나무’는 동네 사람들이 바보로 여기며 외면하는 ‘몽달 씨’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때 그는 ‘박해받고 싶어 하는 순교자’처럼 사람들의 소외와 폭력을 받아들이려 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약자에 대한 폭력적인 현실에 순수하게 맞서는 ‘몽달 씨’의 모습을 통해 현실의 부조리함을 역설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앞부분 줄거리] 어느 날 저녁 ‘나’는 집에서 나와 김 반장이 운영하는 형제슈퍼 노천 의자에 앉아 졸고 있었다. 그때 공단 쪽 어두운 길에서 비명 소리가 들리며 누군가 가게 쪽으로 도망쳐 왔고 그 뒤로는 젊은 사내 둘이 그를 쫓아오고 있었다. 불빛에서 약간 비껴난 쪽 자리에 앉아 있었던 ‘나’는 그들의 눈에 띄지 않았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나는 가게 옆구리의 섯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새 사내의 발길에 차여버린 도망자가 바닥에 엎어져 있었고 김반장이 만약을 위해 사내 주변의 맥주 박스를 방안으로 저 나르면서 뭐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김형, 김형…… 도와주세요.”

쓰러진 남자의 입에서 이런 말이 가느다랗게 흘러나온 것은 그 순간이었다. 그와 동시에 빨간 셔츠의 사내가 다시 쓰러진 자의 등허리를 발로 짹 짹 찌어놓았다.

“이 새끼, 아는 사이요? 그러면 당신도 한번 맛 좀 볼텐가?”

대변에 하얗게 질려버렸다.

“무, 무슨 소리요? 난 몰라요! 상관없는 일에 말려들고 싶지 않으니깐 나가서들 하시오.”

그때 바닥에 쓰러져 버둥거리던 남자가 간신히 몸을 비틀고 일어섰다. 코피로 범벅이 된 얼굴이 슬쩍 드러나보였는데 세상에, 그는 몽달 씨임이 분명하였다. 그리고보니 빛바랜 바지와 물들인 군용 점퍼 밑에 노상 끼입고 다니던 우중충한 남방셔츠가 틀림 없는 몽달 씨였다.

[중략 줄거리] 김 반장은 젊은 사내들에게 폭행당하는 몽달 씨를 외면했고 지물포 주씨 아저씨가 몽달 씨를 구해준다. 그러나 언제 나왔는지 김반장은 주씨 옆에서 금방이라도 그들을 잡으러 갈 듯 씩씩대고는 몽달 씨를 걱정하는 양 부축해 집에 데려다준다. 몽달 씨가 앓아누운 열흘 동안 ‘나’는 김 반장이 서먹해진다.

“김 반장 그 사람 참말이제 진국은 진국인기라. 엇그제만 해도 복숭아 깡통 하나 들고 몽달 청년한테 갔능갑드라. 걱정도 억시기 해췄고, 우찌 댔건 미친놈한테 그만큼 정성들이는 것만 봐도 보통은 아닌 기 맞다.”

지물포 주씨가 행복사진관 엄씨한테 하는 말이었다. 세 살 많다 하여 어김없이 형님으로 받드는 엄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치는 것을 보고 있으면 내 속이 터질 것만 같았다. 그렇지만 이상하게도 그 밤의 일을 속시원히 털어놓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보면 이 김경옥이야말로 진국 중에 진국인지도 모른다.

몽달 씨가 자리 털고 일어난 이야기를 하려다가 또 다른 쪽으로 새버렸지만 몽달 씨야말로 진짜 이상한 사람이었다. 오후반인 소라가 등교 준비를 해야 한다고 서둘러 저희 집으로 가버린 때니까 정오가 조금 지나서였을 것이다. 집으로 가다 말고 문득 형제슈퍼 쪽을 돌아보니 음료수 박스들을 차곡차곡 쌓여놓는 일에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몽달 씨가 보였다. 실컷 두들겨맞고 열흘간이나 누워 있었던 사람이라 안색이 차마 마주보기 어려울 만큼 핏색했다. 그런데도 뭐가 좋은지 히죽히죽 웃어가면서 열심히 박스들을 나르고 있는 게 아닌가. 그것도 김 반장네 가게에서.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보아도 몽달 씨가 분명했다. 저럴 수가. 어쨌든 제정신이 아닌 작자임이 틀림없었다. 아무리 정신이 좀 헛갈린 사람이라도 그렇지. 그날 밤의 김 반장 행동을 깡그리 잊어버리지 않고서야 저럴 수가 없다는 게 내 생각이었다.

있었을까. 그날 밤 머리의 어딘가를 세게 다쳐서 김 반장이 자기를 내쫓은 부분만큼만 감쪽같이 지워진 것은 아닐까. 전혀 엉뚱한 이야기만도 아니었다. 텔레비전에서도 보면 기억상실 증인이 뭔가로 자기 아들도 못 알아보는 연속극이 있었다. 그런 쪽의 상상이라면 나를 따라올 만한 아이가 없는 형편이었다. 내 머릿속은 기기괴괴한 온갖 상상들로 늘 모래주머니처럼 뻘뻘했으니까. 나는 청소년 아버지의 딸이 아니라 사실은 어느 부잣집의 버려진 딸이다, 라는 식의 유치한 상상은 작년도 못 되어 이미 졸업했었다. 요즘의 내 상상이란 외계인 아버지와 지구인 엄마와의 사랑, 뭐 그런 쪽의 의젓한 것이었다. 아무튼 나의 기막힌 상상력으로 인해 몽달 씨는 부분적인 기억상실증 환자로 결정되었다. 그렇다면 이제는 확인할 일만 남은 셈이었다. 오래 기다릴 필요도 없었다. 나는 김 반장네 가게일을 거들어주고 난 뒤 비치파라솔 밑의 의자에 앉아 뭔가를 읽고 있는 몽달 씨에게로 갔다. 보나마나 주머니 속에 잔뜩 들어 있는 종이조각 중의 하나일 것이었다. 멸절한 정신도 아닌 주제에 이번엔 기억상실증이란 병까지 얻어놓고도 여태 시 따위나 읽고 있는 몽달 씨 꼴이 한심했다.

“이거, 또 시예요?”

“그래, 슬픈 시야. 아주 슬픈…….”

몽달 씨가 핏색한 얼굴을 쳐들며 행복하게 웃었다. 슬픈 시라고 해놓고선 웃다니. 나는 이맛살을 찡그리며 몽달 씨 옆에 앉았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이제 다 나았어요?”

“응. 시를 읽으면서 누워 있었더니 금방 나았지.”

금방은 무슨 금방. 열흘이나 되었는데, 또 한 번 나는 몽달 씨의 형편없는 정신 상태에 실망했다.

“그날 밤에 난 여기에 앉아서 다 봤어요.”

“무얼?”

“김 반장이 아저씨를 쫓아내는 것…….”

순간 몽달 씨가 정색을 하고 내 얼굴을 쳐다보았다. 예전의 그 풀려 있던 눈동자가 아니었다. 까맣고 반짝이는 눈이었다. 그러나 잠깐이었다.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않을 작정인지 괜스레 팔뚝에 엉겨붙은 상처 딱지를 떼어내려고 애쓰는 척했다. 나는 더욱 바짝 다가앉았다.

“김 반장은 나쁜 사람이야. 그렇지요?”

몽달 씨가 팔뚝을 탁 치면서 “아니야”라고 응수했는데도 나는 계속 다그쳤다.

“그렇지요? 맞죠?”

그래도 몽달 씨는 못 들은 척 팔뚝만 문지르고 있었다. 바보같이. 기억상실도 아니면서……. 나는 자꾸만 약이 올라 견딜 수 없는데도 몽달 씨는 마냥 판전만 피우고 있었다.

“슬픈 시가 있어. 들어볼래?”

치, 누가 그 따위 시를 듣고 싶어할 줄 알고 내가 입술을 비죽 내밀거나 말거나 몽달 씨는 기어이 시를 읊고 있었다. ……마른 가지로 자기 몸과 마음에 바람을 들이는 저 은사시나무는, 박해 받는 순교자 같다. 그러나 다시 보면 저 은사시나무는 박해 받고 싶어하는 순교자 같다…….

“너 글씨 알지? 자, 이것 가져. 나는 다 외었으니까.”

몽달 씨가 구깃구깃한 종이쪽지를 내게로 내밀었다. 아주 슬픈 시라고 말하면서, 시는 전혀 슬픈 것 같지 않았는데도 난 자꾸만 눈물이 내려 하였다. 바보같이, 다 알고 있었으면서…… 바보 같은 몽달 씨…….

출제 포인트

- ③ 「원미동 시인」의 배경인 1980년대 부천시 원미동은 서울에서 벗어난 변두리 지역이었다. 「원미동 시인」 뿐 아니라 연작 소설 「원미동 사람들」의 다른 소설에서도 원미동은 산업화와 도시화의 그늘에 놓여 있던 소시민들이 살아가는 삶의 공간으로 그려진다. 원미동(遠美洞)의 뜻풀이인 ‘멀고 아름다운 동네’는 연작 소설의 첫 작품 제목으로 쓰이기도 하였다. 즉 시적 배경으로 원미동을 설정한 것은 사람들을 위한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의 개발이 오히려 ‘아름다움’과 멀어지게 만들었다는 현실적 아이러니를 담아내기 위함으로 볼 수 있다.

우리 동네에는 원미동 시인 말고도 원미동 카수니 원미동 멧쟁이, 원미동 똑똑이 등이 있다. 행복사진관 엄씨 아저씨가 원미동 카수인데 지난번 ‘전국노래자랑’ 부천 대회에서 예선에 못 들고 떨어졌더니 대단한 솜씨는 못 될 것이었다. 소라엄마가 원미동 멧쟁이라는 것은 내가 가장 잘 안다. 그 보라색 매니큐어와 노랑머리는 소라 엄마뿐이니까. 원미동 똑똑이는, 부끄럽지만 우리 엄마다. 부끄럽다는 것은 남의 일에 간섭이 심하고 걸핏하면 싸움질이나 해대는 똑똑이는 욕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원미동 시인에게는 또 다른 별명이 있다. 쾅한 두 눈에 부스스한 머리칼, 사시사철 끼이고 다니는 물들인 군용점퍼와 희끄무레하게 닳아빠진 낡은 청바지가 밤중에 보면 꼭 몽달귀신 같다고 서울미용실의 미용사 경자언니가 맨 처음 그를 ‘몽달씨’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경자언니뿐만 아니라 우리 동네 사람이 라면 누구나 그를 좀 경멸하듯이, 어련에 다루듯 함부로 하는 게 보통인데 까닭은 그가 약간 돌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언제부터 어떻게 살짝 돌았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보통 사람과 다른 것만은 틀림없었다. 몽달씨는 무궁화연립주택 3층에 살고 있었다. 베란다에 화분이 유난히 많고 새장이 세 개나 걸려 있는 몽달씨네 집은 여름이면 우리 동네에서는 드물게 뽕뽕거리며 하루 종일 에어컨이 돌아가는 부자였다. 시내에서 한약방을 하는 노인이 늘그막에 젊은 마누라를 얻어 아기자기하게 살아보는 판인데 결혼한 제 형집에 있지 않고 새살림 재미에 푹 빠진 아버지 곁으로 옮겨온 막둥이였다. 그것부터가 팔불출이 짓이라고 강남부동산의 고흥택 아줌마가 욕을 해줬는데,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게 왜 바보짓이라는 건지 알 수가 없었다.

그런 몽달씨에게 친구가 있다면 아마 내가 유일할 것이었다. 몽달씨 나이가 스물일곱이라니까 나보다 스무 살이나 많지만 우리는 엄연히 친구다. 믿지 않겠지만 내게는 스물일곱짜리 남자친구가 또 하나 있다. 우리 집 옆, 형제슈퍼의 김반장이 바로 또 하나의 내 친구인데 그는 원미동 23통 5반의 반장으로 누구보다도 씩씩하고 재미있는 사람이었다. 나는 매일같이 슈퍼 앞의 비치파라솔 의자에 앉아 그와 함께 낄낄거리는 재미로 하루를 보내다시피 하였는데 요즘은 내가 의자에 앉아 있어도 전처럼 웃기는 소리를 해주거나 쭈쭈바 따위를 건네주는 법 없이 다소 통명스러워졌다. 그 까닭도 나는 환히 알고 있지만 모르는 척하는 수밖에. 우리 집 셋째딸 선옥이언니가 지난달에

서울 이모집으로 훌쩍 떠나버렸기 때문인 것이다. 김반장이 선옥이언니랑 좋아지내는 것은 온 동네가 다 아는 일이지만 선옥이언니 마음이 요새 좀 싱숭생숭하더니 기어이는 이모네가 하는 옷가게를 도와준다고 서울로 가버렸다. 선옥이언니는 얼굴이 아주 예뻐다. 남들 말대로 개천에서 용이 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지지리공상인 우리 집에 두고 보기로는 아까운 편인데, 그 지지리공상이 지겨워 만날 뚱하던 언니였다.

참말이지 밝히고 싶지 않지만 우리 아버지는 청소부다. 아침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남의 집 쓰레기통 뒤지고 다니는 직업이라 몸에서 나는 냄새도 말할 수 없을 만큼 지독했다. 아버지만이 아니라 밝히고 싶지 않은 것이 또 있다. 큰언니는 경기도 양평으로 시집가서 농사꾼 아내가 되었으니 상관없지만 둘째 언니 이야기는 말하기가 부끄럽다. 둘째언니는 처음에는 버스 안내양, 그 다음에는 소시지 공장의 여공원, 그 다음에는 다방에서 일하더니 돈 버는 일에 극성인 성격대로 지금은 구로동 어디에서 스물여섯 살의 처녀가 대포집을 열고 있다. 언젠가 한번 가봤더니 키가 멀대같이 큰 남자가 하나뿐인 방에서 위통을 벗어붙인 채 잠들어 있고 언니는 그 옆에서 옆드려 주간지를 뒤적이고 있지 않은가. 그만한 정도로는 나는 일이 되어가는 모양을 알 수가 있었다.

우리 엄마와 청소부 아버지는 딸들들이야 시집보낼 만큼만 가르치면 족하다고 언니들을 모두 중학교까지만 보냈는데 웬일인지 선옥이언니만 고등학교를 보냈었다. 그래서 더 골치이긴 하지만, 기껏 고등학교까지 나왔으니 공장은 싫다, 차라리 영화배우가 되는 편이 낫다고 우겨지상을 피우던 언니가 김반장네의 콧구멍 같은 가게가 성에 찰 리 없을 것이었다.

이제 겨우 일곱 살짜리가 사실은 그보다야 많지만 왜 나이 많은 떠꺼머리 총각들하고만 어울리는지 이상할 터이나 그것은 결코 내 책임이 아니었다. 단적인 소리를 비롯하여 몇 명의 친구들이 작년과 올해에 걸쳐 모두 국민학교에 입학해버렸고, 좀 어려도 아쉽 대로 놀아볼 만한 아이들까지 깡그리 유치원에 다니기 때문에 아침밥 먹고 나오면 원미동 거리에는 이제 두어 살짜리 코흘리개들밖에 남지 않는 것이다. 설령 오후가 되어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끼리끼리만 통하는 아이들이 좀처럼 놀이에 끼워주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만 홀로 뚝 떨어져나와 외계인처럼 어성버성한 아이가 되어버렸다. 우리 동네에는 값이 싼 유치원도 많고 피아노 교습소도 두 군데나 있지만 엄마는 꿈쩍도 하지 않는다. 단칸방에 살아도 모두들 유치원에 보내느라고 아침마다 법석인데 나는 이날 이때껏 유희 한번 제대로 배워보지 못한 것이다. 아버지가 남의 집 쓰레기통에서 주워온 그림책이나 고장난 장난감이야 지천으로 널렸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에는 흥미도 없으니 아무래도 나는 어른이 다 된 모양이었다.

Memo

이해와 감상

〈우상의 눈물〉은 1980년에 발표된 작품으로, 우상으로 설정된 인물인 문제아 ‘기표’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평등한 듯 보이지만 위계질서가 존재하는 고등학교 학급을 배경으로 하여, ‘담임’과 ‘형우’의 선의를 가장한 위선적인 폭력으로 인해 ‘기표’가 제압당하고 무너지는 과정을 그려냄으로써 문제의식을 드러낸다. 즉, 물리적인 폭력에 의한 권력을 상징하는 ‘기표’와, 선의를 가장한 위선적 권력을 상징하는 ‘담임’과 ‘형우’의 대조적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개인을 억압하는 보이지 않는 폭력의 무서움에 대한 비판을 우의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전체 줄거리

유대(= ‘나’)는 기표를 우두머리로 한 재수파 패거리에게 밍보인 죄로 끌려가 린치¹⁾를 당한다. 린치에 대한 소문이 퍼지자 형우는 그대로 참을 거냐며 유대의 속내를 떠보려 하지만, 그는 빙그레 웃기만 한다.

새 학기 첫날, 새 담임선생은 학급을 배에 빗대며 ‘자율’이라는 말을 강조했다. 유대는 담임이 자율을 말하면서도 아이들 위에 군림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며 배의 선장이 누구인지 물었다가 줄지에 임시 반장이 되었다. 그는 자신이 임시 반장이 된 것이 기표의 비위를 거슬렀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가정방문으로 유대의 집에 방문한 담임은 계속해서 반장직을 맡기를 권하지만 유대는 성적을 핑계 삼아 거부하고, 반장감으로 형우가 어머나는 담임의 말을 긍정한다. 곧이어 담임은 반에 문제가 될 학생은 없느냐며 기표 이야기를 묻는다. 유대는 담뱃불에 지겨진 허벅지를 내보이고 싶어하다가도, 기표가 어떤 아이인지 진정 모르는 어른들에게 알리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여겨 자신의 상처를 보이지 않기로 결정한다. 어머니와 담임의 이야기를 들으며 유대는 기표와 담임 사이에 벌어질 싸움을 가늠해 본다. 가정방문이 끝날 무렵 담임은 유대에게 자신의 첩자가 되어 주기를 부탁한다. 유대가 일학년 때 당시 담임에게 이용당해 첩자 노릇을 했다는 사실을 이전 담임에게 전해 들은 것이다. 유대는 치욕감을 느끼며 거절한다. 담임은 기표를 부반장에 임명하려는 뜻을 내비치고, 그것이 기표를 길들여 학급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임을 눈치챈 유대는 반대한다.

체육대회를 위해 체육복 외에도 추리닝 한 벌을 사야 했으나 기표와 그 친구는 추리닝을 사 입지 않는다. 담임은 두 학생의 집안 형편을 언급하며 추리닝을 마련하고, 기표는 담임이 교실을 나가자마자 칼로 추리닝을 찢어 버리고는 다른 학생의 것을 빼앗는다.

학생들은 기표를 구제 불능이며 철저한 악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아무도 기표를 욕하지 않는다. 유대 역시 무자비한 린치를 당했음에도 기표를 미워할 수 없다고 느낀다. 유대는 기표가 패거리들과 우발적으로 악을 저지르고 일말의 미안함조차 느끼지 않는다는 점에서 악마의 자식이라고 생각한다.

5월 중간고사 날, 형우는 잘못을 저지른다. 그는 모든 아이들의 인심을 사며 기표를 특별히 다르게 대하지 않았지만, 기표와 그 친구가 낙제 위기에 처하자 그들을 동정하며 급우들에게 ‘우리 모두를 위해’ 반 전체가 그들을 위해 부정행위를 하자고 제안한다. 자신이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 형우의 말에 반 학생들은 모두 함께 부정행위를 시도하지만 기표는 응하지 않고, 심지어 커닝 페이지를 감독 선생에게 전달한다. 선생이 범인을 추궁하자 형우는 범인을 자청한다. 이윽고 모든 학생들이 자신이 범인이라며 일어나고, 선생은 학생들의 우정을 칭찬하며 부정행위를 용서한다. 기표는 교실에서 사라진다.

종례가 끝나고 청소 시간까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유대, 형우, 정수는 담임의 부름을 받지만 형우와 정수는 보이지 않는다. 찾기를 포기하고 교무실로 향하던 유대는 후문에서 손짓하는 정수를 발견한다. 형우 없이 교무실로 향한 두 사람은 아이들의 답안지를 채점하지만 평소와 달리 속도를 내지 못한다. 정수는 눈에 띄게 허둥거리고, 유대는 기표와 재수파에게 얻어맞고 있을 형우를 떠올린다. 학급을 칭찬하고 기표가 순하다고 평가하는 담임의 말을 들은 유대는 실소하면서도 시침을 뱉는다.

담임은 야단이 났다는 연락을 받고 달려나간다. 정수는 담임에게 말했어야 한다고 후회하지만 유대는 기표가 고자질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며 형우 역시 고자질을 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답안지를 정리해 교무실로 가져간 두 사람은 형우가 한강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까지 달려간다.

입원한 형우는 유대와 정수에게 조용히 하라는 손짓을 해 보이고, 담임에게도 자신이 잘못된 일로 싸웠으니 조용히 돌아가게 해 달라고 부탁한다. 담임은 형우를 때린 것이 기표네 패거리가 아니냐며 유대를 추궁한다. 유대는 형우의 잘못이 무엇이겠냐며 담임을 떠보고, 담임은 형우가 기표네를 위해 많은 일을 했으며 기표에 대한 혐오감을 보인다. 기표가 저질러온 짓을 다 알고 있다는 것이다. 담임의 말에 유대는 어른들의 음흉스러움, 알면서도 모른 체 시치미를 댄 그 저의가 두렵다고 생각한다.

그 후로 형우는 학급에서 일약 영웅이 되고, 기표는 내리 사흘이나 학교에 나오지 않는다. 기표가 다시 출석하자 담임은 그가 피치 못할 가정 사정으로 결석했다고 설명한다. 형우도 퇴원해 학교로 돌아온다. 학교에는 형우의 일화가 미담으로 퍼진다. 유대는 형우에게 담임이 부정행위를 시켰는지 확인한다. 그러자 형우는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담임이 기표를 구원해주고 싶어 하며 자신에게 그 일을 일임했다고 답한다. 그러고는 곧 기표를 구원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자신들이 두려워한 것은 기표가 아니라 그를 둘러싸고 있는 재수파 일원들인데, 그들이 서로가 모르게 병원에 찾아와 형우에게 사과했다는 것이다. 형우는 기표에게 적대감을 드러내면서, 이제 아무도 기표를 무서워하지 않게 될 거라고 자신한다.

여름방학이 지나도록 기표는 침묵한다. 아이들은 이제 재수파 패거리에 신경을 곤두세우지 않고 담임은 기표에게 학급 사무를 맡긴다. 그러던 어느 날 담임과 형우는 기표가 어려운 처지에 놓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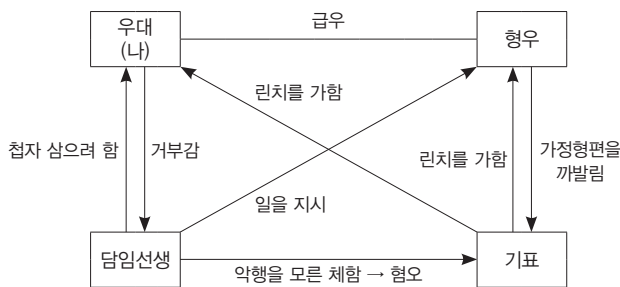
1) 정당한 법적 수속에 의하지 아니하고 잔인한 폭력을 가하는 일.

있으므로 구원해 주어야 한다고 말한다. 형우는 우정과 신뢰 가득한 태도로 기표의 가정사를 낱알이 까발린다. 그 과정에서 기표는 판잣집에서 빈곤하게 살아가는, 동정받아 마땅한 별레처럼 묘사된다. 나아가 형우는 재수파 패거리가 용돈으로, 혹은 공사장에서 일하거나 피를 뽑아 마련한 돈으로 기표의 생활비를 충당해준 일을 진정한 우정으로 미화하며 기표를 '가난한 이웃'으로 명명한다. 담임과 형우가 기표를 돕겠다며 돈을 내놓자 학급 모두가 기표를 위해 돈을 모은다.

기표의 가뜰스한 효성과 재수파들의 우정 어린 피뎌기, 급우들로부터 시작된 친구 돕기 운동이 전교적으로 파급된 성과는 신문 미담란에 실린다. 그 이후로 월요일 조회 때마다 교장은 사회 각계에서 보내 온 성금과 위문편지를 기표에게 전달한다. 기표 얘기가 영화로 만들어진다는 소문이 난다. 일련의 흐름 속에서 기표는 왜소하게 짜부라져 부끄러움을 잘 타는 아이로 변해 버린다. 그렇게 아무도 기표를 무서워하지 않게 된다.

기표 이야기가 영화로 만들어지기 직전, 기표는 여동생에게 "무섭다. 나는 무서워서 살 수가 없다."라는 편지만을 남기고 학교와 집에서 사라져 버린다.

등장 인물



유대 (‘나’)	서술자. 1학년 시절에 담임의 첵자 노릇을 했다가 아이들에게 따돌림을 당했다. 메스껍다는 이유로 기표에게 린치를 당하고도 사건을 발설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첵자 삼아 반을 통제하려는 담임에게 거부감을 느낀다. 알면서도 모른 체하는 어른들의 음흉함을 무섭게 느낀다. 기표와 재수파가 형우를 폭행한 일을 알고도 담임에게 말하지 않고, 자신이 기표를 구원할 것이라는 형우의 말을 부정한다.
형우	반장. 리더십이 있고 모든 학생들에게 두루 인심을 산다. 담임의 지시대로 학급을 이끌고자 하며, 5월 중간고사에 기표와 그 친구를 동정해 부정행위를 주도했다가 재수파에게 린치를 당한다. 자신이 기표를 구원해줄 수 있다고 확신하며, 아무도 기표를 무서워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장담한다. 퇴원한 이후 기표의 가정형편을 낱알이 까발려 그를 동정의 대상으로 만든다.

기표	재수파의 우두머리로, 학생들에게는 철저하게 악한 존재로 여겨진다. 다른 학생들에게 린치를 가하는 등 우발적으로 악을 저지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에게 미움은 받지 않는다. 그러나 형우와 (그를 조종하는) 담임에 의해 동정의 대상으로 전락한 이후에는 몹시 유순하고 왜소해진다. 자신의 이야기가 영화로 만들어진다는 소문이 난 이후 무서워서 살 수가 없다는 편지만을 남기고 사라진다.
담임선생	권위적으로 학생들을 지배하고 학생들을 ‘결속’시키고 싶어 하는 화학 교사. 이를 위해 유대에게 첵자가 되어 주기를 권하기도 하고, 형우에게 재수파에 관련된 여러 일을 지시하기도 한다. 기표가 저질러 온 짓을 모두 알고도 모른 체하는 음흉한 면모를 지니고 있다.

주제

개인을 억압하는 보이지 않는 폭력과 위선에 대한 비판

출제 포인트

- ① 「우상의 눈물」에는 두 종류의 폭력이 등장한다. ‘기표’는 친구들에게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지만, 교활하거나 음흉하지 않아 친구들은 ‘기표’에게 맞고도 ‘기표’에 대해 비난하지 않는다. 그러나 ‘담임’과 ‘형우’는 선의를 가장한 합법적인 폭력을 ‘기표’에게 가하고 ‘나’는 그것이 위선적이라는 생각에 거부감을 느낀다. 작가는 이러한 두 종류의 폭력을 대비하여 제시함으로써, 진실과 호의를 가장한 합법적 폭력의 위험성을 고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② 물리적 폭력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기표’는 ‘담임’과 ‘형우’에 의해 가난한 형편이 알려지게 되면서 친구들로부터 동정을 받게 되고, 자신의 권위를 유지하지 못한 채 도움이 필요한 존재로 전락하게 된다. 이를 고려할 때 제목인 ‘우상의 눈물’은 ‘기표’가 느끼는 비애를 의미하는 것으로, 선의를 가장한 합법적 폭력으로 인한 피해자의 슬픔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우리가 볼 때 기표는 구제 불능이었다. 그의 환경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보기보다 선천적인 어떤 포악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냉혈동물처럼 피가 찬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그는 뱀처럼 작고 징그러운 눈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교활한 자들이 가끔 보이는 그런 거짓 착함마저도 나타내 보일 줄 몰랐다. 철저하게 악할 뿐이었다. 평생을 두고 사랑이라는 낱말로 미화될 수 있는 행동거지를 해 보일 인간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다. 물론 그는 자신의 그런 포악성 때문에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할 것이다. 그의 표정은 항상 독기를 음울하게 깔고 있어 맞서는 사람으로 하여금 섬뜩함을 느끼게 했다.

그런데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중학교 때부터 기표를 알고 지내온 아이들(대부분 삼 학년이거나 졸업했다.)은 기표가 것처럼 철저하게 나쁜 애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 좋지 않게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것이다. 물론 좋은 애라고 말하는 일도 없었지만 아무도 기표를 욕하지 않았다. 피해를 직접 받은 애들마저도 기표에 대해 나쁘게 말하지 않았다.

—말하길 꺼리는 거야. 악에 대한 공포 때문이지.

나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다. 그러나 나는 내 생각이 옳지 않음을 나 자신의 경험 속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기표에 대한 공포는 그에게 린치를 당할 때문이었다. 내가 린치를 당한 사실을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않은 것은 양값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나는 또한 것처럼 무자비한 린치를 당했으면 서도 그를 미워할 수가 없었다. 무언가 헤아릴 수 없는 힘이 그에게 있는 것 같았다.

“형!”

동급생이면서도 우리들은 이 학년에 재학하는 유급생 이십여 명을 꼭 공대했다. 재수파들이 그렇게 대해 주길 바랐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렇게 공대하면서도 입이 껄끄럽지 않은 것은 재수파를 이끌고 있는 기표의 위력 때문인지도 모른다.

“야, 체육복 좀 빌려줘라.”

재수 없는 아이가 유급생인지는 모르고 말을 함부로 놓을 때가 더러 있었다. 그럴 때 그 아이는 영락없이 얻어터졌다. 일의 특징을 따지지 않는 게 기표가 행하는 악의 특징이었다.

—명칭, 조직의 목적, 모임의 횡수를 모두 대라구!

교실에서의 집단 구타 사건으로 그들이 걸려들었을 때 학생 주임은 정말서 쓸 용지를 내밀며 소리쳤다. 기표들은 일 학년 때부터 음성 서클로 지목되어 수차례 조사를 받아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생주임은 번번이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했다. 하나도 그것에 대해 알고 있는 게 없었기 때문이다. 재수파는 우리들의 편의상 불인 이름이었을 뿐이다.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목적이나 정기적인 모임 같은 게 없었다. 동물 영화를 보면 밀림을 달리는 맹수 떼들은 한 리더를 중심으로 같은 방향으로 달려간다. 그들도 그랬다. 그냥 기표를 중심으로 그들은 모였고 계획된 것이 아니라 지극히 우발적인 악이 그들에 의해서 저질러졌을 뿐이다.

기표는 교실에서 담배를 피웠다. 그의 담배 은닉처는 고호의 자화상이 있는 액자 뒤쪽이었다. 쉬는 시간이면 그는 액자 뒤쪽을 더듬어 담배를 꺼냈다. 미션 계통의 학교라 일주일에 몇 번씩 있는 채플 시간을 통해 교목이 인간 양심의 타락을 개탄했다. 바로 그러한 시간에 기표는 주변을 대신해서 교실에 남아 담배를 피우거나 아이들 도시락을 먹어버리는 일을 했다. 그는 적어도 하루 두 개의 도시락을 축냈다. 아무도 그것을 항의하지 않았지만 기표 또한 미안해하는 표정이나 사과의 말을 남기는 법이 없었다.

기표들에게 린치를 당하고 학교 골목을 절뚝거리며 나오던 그 고통스럽고 긴 시간, 내가 생각한 것은 기표야말로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악마의 자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었다.

내가 이런 생각을 얘기가 통할 만한 집안의 어떤 형에게 말했다. 더니 그가 대답했다.

—맞아. 신이 매우 거북하게 생각하는 악마란 바로 네가 말한 놈처럼 착함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런 순수한 악마지. 그러한 순수한 악마만이 신을 돋보이게 하기 때문에 신은 마음속으로 괴로운 거야. 그렇기 때문에 신은 결코 악마를 영원히 추방하지 않아. 항상 곁에 두고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일에 그것을 이용할 뿐이야.

(중략)

“유대, 넌 알 거다. 형우를 때린 놈들이 기표네 패라는 걸 말이다.”

“형우가 그렇게 말했나요?”

“그런 건 아니지만 그건 틀림이 없다. 기표 놈이 아니곤 그런 짓을 할 놈이 없다.”

담임은 혈떡거렸다. 양같이 순하게 길들여졌다고 확신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질타하고 있을 것이다.

“선생님, 형우가 뭘 잘못했다는 걸까요?”

내가 짐짓 떠보았다.

“형우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다. 잘못하기는커녕 형우가 그놈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는지 넌 모를 게다.”

담임선생은 몹시 흥분하고 있었다. 기표에 대한 혐오감으로 해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기표를 미워하다니, 나 역시 담임선생에 대한 적대감으로 몸을 떨었다.

“뭘니까, 선생님. 형우가 기표를 위해서 무얼 했던 말입니까?”

내 반감 짙은 어투에 놀랐는지 담임선생은 좀 멈칫했다. 그러나 곧 비웃음 섞어 말했다.

“임마, 나는 다 알고 있어. 기표가 저질러온 짓 말이다. 유대, 너도 기표한테 당했잖아! 그리고 너희들이 그놈들 부정행위를 거들어 준 것도 알고 있다.”

그랬겠지. 나는 속으로 신음처럼 중얼거렸다. 무서웠다. 어른들의 저 음흉스러움, 알면서도 모른 채 시치미를 떼 그 저의는 무엇인가.

형우는 우리들 사이에서 일약 영웅이 돼버렸다. 예상 안 한 건 아니지만 그 여세는 보통이 아니었다. 삼 학년에서도, 일 학년 하급생들도 이 학년 십삼 반 반장 임형우가 입에 올랐다. 전치이 주의 상해를 입고도 끝내 그 상대를 입에 올리지 않음으로 해서 형우의 존재는 풍선처럼 부풀었다.

기표가 그 사건 다음 날부터 내리 사흘이나 학교에 나오지 않았어도 재수파들은 학생부에 불려가지 않았다. 아무도 그것을 문제삼지 않았다.

담임이 학교에 나오지 않는 기표를 찾기 위해 뚝방 동네를 연이틀이나 헤맨 사실도 학교에 널리 알려졌다. 기표가 학교에 나온 날 담임은 조회 시간에 간단히 말했다.

“최기표 군은 그동안 피치 못할 가정 사정으로 결석했다. 앞으로 다시는 결석이 없을 것으로 안다.”

항상 뻗뻗하게 쳐들고 앉았던 기표의 고개가 잠깐 숙여지는가 싶게 느껴졌다. 그것은 이상한 조짐이었다.

출제 포인트

- ③ 「우상의 눈물」에서는 학교라는 한정된 공간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여기서 학교는 사회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그려낸 공간으로, 부정적 사회 현실을 풍자하기 위해 알레고리적 형식을 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권력 다툼은 작품 창작 시기를 고려할 때, 정치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었던 1980년대의 정치 권력과 전체주의적 폭력을 비판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날 편반이 끝나고 키 크기에 따른 각자의 번호와 교실 좌석까지 다 정해졌을 때 새 담임이 된 김 선생이 입을 열었다.

“이제부터 육십육 명이 운명을 함께하는 역사적 출항을 선언한다. 목적지에 이를 때까지 단 한 사람의 낙오자나 이탈자가 없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아울러 이 시간 분명히 밝혀둘 것은 우리들의 항해를 방해하는 자, 배의 순탄한 진로를 헛갈리게 하는 놈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나무를 전정할 때 역행 가치를 잘라버려야 하듯 여러분의 항해에 역행하는 놈은 여러분 스스로가 엄단할 수 있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일 년간의 일사불란한 항해를 위해서는 서로 사랑과 신뢰로써 반을 하나로 결속하는 슬기를 보이는 일이다.”

새 담임선생은 과학 교사답지 않게 적절한 비유로써 자기가 맡은 반 아이들에게 뭔가 불어넣으려 애쓰고 있는 것 같았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무사안일 속의 일 년이었던 것이다.

“고빠는 여러분 손에 쥐어져 있다.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그 고빠를 당겨 여러분 스스로를 제어해 주기 바란다. 내가 가장 우려하는 바는 여러분 스스로가 내 손에 그 고빠를 쥐여주는 일이다. 나는 자율이라는 낱말을 좋아한다.”

담임선생님은 자율이라는 낱말로 요술을 부려 우리들을 묶고 있었다. 어느 연극 잡지에서 완숙한 연출가는 배우 스스로가 연출하도록 유도하는 비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읽은 것이 생각났다. 대단한 담임을 만났다는 기대로 아이들은 가슴을 부풀리며 앉아 있었다. 열네 개 반에서 네댓 명씩 떨어져 나와 새로이 편성된 새 반의 분위기는 사뭇 숙연했다. 나는 문득 이런 숙연한 분위기가 우습게 생각되었다. 단 며칠 못 가 형편없이 허물어질 아이들이 목에 잔뜩 힘을 주고 앉아 담임선생의 말을 경청하고 있는 게 우습게 보였던 것이다. 이들의 긴장을 풀어 주고 싶은 충동을 받았다.

“선생님, 우리가 탄 이 배의 선장은 누구니까?”

내가 불쑥 일어나서 말했다. 선장은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자율이라는 낱말로 우리를 묶으면서도 실상 우리들 머리 위에 군왕처럼 군림하고 싶은 그의 저의를 찔러주고 싶었던 것이다. 아이들이 내 느닷없는 질문에 부스럭부스럭 굳은 몸을 풀고 있었다.

“이 배의 선장이 누구냐, 그렇게 묻고 있는 사람의 번호와 이름은?”

담임이 얼굴 가득 미소를 잡으며 여유 있게 나를 훑었다. 반격을 당한 나는 얼굴을 붉히며 엉거주춤 다시 일어나야 했다.

“삼십오 번 이유입니다.”

“예수를 판 유단가, 이스라엘 유단가?”

아이들이 와하하 웃음을 터뜨렸다.

“오얏 리, 옥 유, 큰 대자, 이유입니다.”

“좋았어. 이유대 군이 오늘 이 시간부터 일주일간 이 학년 십삼 반의 임시 선장이다. 물론 일주일 뒤에는 새 선장을 뽑겠다. 다시 한 번 강조해 두겠다. 이 배의 주인은 여러분 자신이다. 이유대 선장, 내 말의 뜻을 알겠나?”

아이들이 와하하 웃으며 박수를 쳤다. 반장 하고 싶어 몸살난 애라구요. 그렇게 소리지르는 놈도 있었다. 실로 난처한 입장이 돼버렸다. 한날 농으로 시작한 일이 담임의 임기응변에 의해 꿈쩍없이 임시 반장 감투를 쓰게 되었다. 꿈무늬 빼고 어찌고 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담임은 첫 만남을 끝냈다. 이렇게 해서 된 임시 반장이 기표의 비위를 사납게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됐을 것이다.

(중략)

“유대, 네 도움이 필요하다.”

“뭘 말입니까?”

“우리 반을 위해서 네 협조를 받고 싶다는 얘기다. 물론 나는 네가 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일일이 고자질하는 그런 사람 이라곤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내가 원하는 것은 반 전체를 위한 너의 조언이다. 어때 협조해 줄 수 있겠지?”

나는 얼굴에 열기가 끼쳤다. 이것은 치욕이었다. 담임은 나를 자신의 첩자로 삼으려는 것이다. 일 학년 때도 그랬다. 나는 담임 선생이 원하는 대로 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담임에게 알렸다. 그것은 즐거운 일이었다. 역사를 만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즐거움을 느낄 것이다. 내 입에서 전해진 말이 요술을 부려 아이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시치미 떼고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 통쾌한 일이었다. 아이들 자신을 위해서 내가 이바지했다고 하는 자부였다. ‘우리’를 위해서 내 힘이 쓰이고 있다는 기꺼움 때문에 나는 그러한 고자질을 해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내가 어수룩하다고 생각했던 많은 아이들에게 따돌림받았다. 나는 한날 ‘우리’의 힘을 해치는 담임의 첩자였을 뿐이다. 나를 이용해 먹은 담임이 그 사실을 새 담임에게 인계하는 배신을 했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울화통이 터질 일이었다.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란다. 다만 나는…….”

내 표정이 꽤 굳어 보였던 모양이다. 담임선생은 내 눈치를 살피며 말했다.

“다만 나는 인간적인 면에서 네 도움이 받고 싶을 뿐이다.”

“선생님, 그런 일이라면 임형우가 잘 해줄 겁니다. 선생님이 염려하는 최기표도 형우가 잘 다스려나갈 겁니다. 내일 당장 형우를 반장에 임명하세요.”

“그렇겠? 네 말대로 임형우가 최기표를 잘 다스려준다면 고맙겠지만…… 내 생각엔 최기표를 부반장에 임명하면…….”

“선생님, 기표 한 개인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기표의 힘을 빼어 반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까?”

담임은 무슨 소리냐는 듯 내 얼굴을 뻗히 쳐다보다가 음모의 한 귀퉁이를 드러내 보인 무안감을 감추기라도 하듯,

“여러 사람에게 해가 되는 그런 힘은 아예 빼버리는 게 좋은 거다.”

기표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바로 그런 것에 있는지도 모르는데요—이렇게 말하려다 나는 그만두었다. 그 대신,

“선생님 기표는 유급생인 데다 여러 번 정학을 당했잖아요. 그런 아이를 간부로 임명하면 아이들이 좋지 않게 생각할 겁니다.”

기표가 학교의 지시 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교단 위에 서서 아이들에게 애원하는 광경은 생각만 해도 불쾌했다. 누가 사자를 우리 속에 넣어 길들이는 탈상을 처음 했는가. 나는 내 허벅지의 상처를 결코 격하시키고 싶지 않았다.

이해와 감상

〈사하촌〉은 1936년에 발표된 단편소설로 억압받고 궁핍한 농촌의 모습을 통해 일제 강점기의 농촌 현실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주된 갈등은 ‘보광사’라는 절과 그 절의 논을 소작하는 성동리 마을 사람들 사이의 문제로 촉발되는데, 중생을 구원해야 할 사찰이 농민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폭력적인 공간으로 그려짐으로써 성동리 마을을 유린하는 사찰의 부당한 권력에 대한 비판과 일제 강점기의 농촌의 모순을 부각한다. 사찰의 횡포에 농민들은 집단으로 항거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작가는 이를 통해 현실 문제를 자각하고 극복 의지로 연대하는 농민들의 민중의식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전체 줄거리

심한 가뭄이 든 8월, 아기는 울고 치삼 노인은 미꾸라지 손질에 끔뎀다. 집에 돌아온 아들 들개는 그러잖아도 가문 데다 얼마 안 되는 봇물³⁾도 중들이 죄다 막았으니 농사는 다 틀렸다고 말한다. 치삼 노인은 자기들이 부치는 절논 중 가장 물길 좋은 논이 사실은 이전에 복을 받기 위해 시주한 논임을 상기하며 아들에게 미안함을 느낀다. 남의 논에서 일을 해 주고 돌아오는 아내에게 들개는 괜한 화풀이를 한다.

성동리 농민들의 갖은 애원과 탄원 끝에 T시에서는 수도 저수지의 물을 터 준다. 그러나 마른 땅에 저수지 물은 턱없이 부족해 사람들 사이에 싸움이 난다. 가장 끄트머리 논을 소작하는 들개는 몇 번이고 저수지 물구멍까지 올라가지만 도중에 물을 다 떼여 자기 논에는 제대로 물을 대지 못한다. 이에 그는 소작을 빼앗길 각오를 하고 물을 막는 노승에게 대든다. 한쪽에서는 가동 할멈과 경찰관 주재소의 고자질쟁이 이시봉이 물을 두고 실랑이를 벌인다. 자신의 논으로 돌아온 들개는 제 쪽으로 뚫린 물꼬가 막힌 것을 발견하고 다시 물꼬를 튼다. 그러나 새벽부터 나돌며 날뛰었음에도 반 마지기도 채 적시지 못한 농두령에 낙심하고, 그나마의 물줄기도 끊어 지자 논을 떠난다. 한편 논이 봇물²⁾에 있는데도 절 사람들의 세도에 놀려 물을 제대로 대지 못한 고서방은 큰맘을 먹고 자기 논 물꼬를 조금 더 터놓고, 그러자 양반 하나가 득달같이 달려와 덤빈다. 싸움 끝에 이시봉과 그 패거리가 달려와 고서방(곰보)를 때려눕히고 협박한다. 저수지의 물이 금세 끊어지자 농민들은 억울함과 좌절감에 주저앉지만, 세도를 부려 물을 넉넉히 댄 보광리(중마을) 사람들은 논물을 단속한다. 고서방은 싸움을 이유로 소작을 뺏기리라 짐작해 좌절하고, 지난해 소작을 빼앗기고는 목을 매 자살한 허서방을 떠올리며 죽고 싶다고 생각한다. 이튿날 아침이 되자 하룻밤 사이에 물도둑을 맞은 중들이 아우성을 친다. 논을 매려 나서던 고서방은 물도둑 누명을 쓰고 주재소에 끌려간다.

성동리 농민들은 무더위 속에서 쇠다리주사네 논을 맨다. 쇠다리주사는 일꾼들의 새참조차 제대로 주지 않는다. 멀리서 해수욕을 갔던 보광리 젊은이들이 자동차를 타고 오자, 논을 매던 농민들은

그들을 한참 동안 바라본다. 한편, 주재소로 들어갔다 오는 이시봉을 보며 들개와 철한이는 간밤의 물도둑이 자신들이기 때문에 고서방에게 죄책감을 느낀다. 저녁이 되자 사람들은 냇가로 나오고, 마른 냇가에서 웅덩이를 찾아 먹³⁾을 감는다.

가뭄이 오래 지속되자 성동리 사람들은 기우제를 지낸다. 기우제 끝에 먹구름이 뜨자 사람들은 기뻐하지만 며칠이고 비는 내리지 않는다. 이윽고 보광사에서 백중날 기우불공을 올린다며 농민들에게 참석을 권한다. 백중날이 되자 성동리 사람들(주로 중년이 넘은 아낙네들과 아이들)은 보광사로 향한다. 고급스런 옷을 입고 시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성동리 아낙네들은 자신들의 모습을 부끄러워하고, 시춧돈도 없이 절에는 뭘 하러 왔느냐는 진수 어머니의 타박에 주저하다 힘들게 번 돈을 시주하고 만다. 기우불공이 시작되자 성동리 사람들은 중들의 기도를 따라 함께 절하지만 그들의 모습은 우습기까지 하다.

기우불공도 형편이 없어 가뭄이 계속된다. 농민들은 모를 뽑아 버리고 메밀과 같은 밭곡식⁴⁾을 심는다. 수업료를 못 내 아이들은 학교를 그만둔다. 기껏 찾아온 추석도 가난과 흉년 탓에 음울하게 지나간다. 추석 이후 성동리 사람들은 지계를 지거나 바구니를 들고 산으로 올라가기 시작한다. 그러던 어느 날, 성동리 여자들이 보광사가 있는 산 중턱에서 버섯을 따는데 비탈 위에서 보광사 산지기 수염쟁이가 악을 쓰며 아이들을 쫓는다. 화젯덱이 말려도 돌아보지 않고 달리던 아이들은 가동 할멈의 손자인 상한이가 떨어져 죽은 바위 밑에서 멈춰선다. 아이들은 산의 나무를 도둑질한 것이 아니라 떨어진 밤을 주우려 들른 것 뿐인데, 화젯덱에게 산지기는 아이들이 산에서 도둑질을 했다고 욕박지르고는 사라진다. 한편, 가동 할머니는 손자의 시체를 보고 실성한다.

가을이 다가오지만 가뭄으로 성동리에는 활기가 없다. 여름에 끌려갔던 고서방은 누명으로 고생하다 추석 후에야 겨우 풀려나고, 분풀이는커녕 사방으로 품팔이를 다니기 바쁘다. 아낙네들은 버섯 철이 지나자 멧도라지나 콩잎을 수확하러 다닌다. 가뭄 피해 조사를 마치고도 군청에서는 소식이 없는데 보광사에서는 소작료를 결정하기 위한 간평⁵⁾을 나온다. 농사조합 평의원인 진수는 술상을 벌려 중들을 대접하고, 소작인들은 하나같이 대문 밖에 죄인처럼 쭈그리고 앉아 간평원들을 기다린다. 술에 거나하게 취한 간평원들은 진수의 뒤를 따라 농토를 건성으로 돌아다닌다. 다음날 저녁, 동네 사람들은 진수의 집에 불려가 소작료를 전해 듣는다. 높은 소작료에 다들 놀라지만, 현대의 마름⁶⁾ 격인 평의원 앞에서 아무 불평도 하지 못한다. 들개, 철한이, 고서방, 일본 탄광에서 일하다 온 또쫓이는 야학당에 모여든다. 이들은 저녁마다 야학당에 모여 잡담을 하거나 또쫓이로부터 일본의 탄광 이야기를 듣고,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소작쟁의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다. 그날 밤에도 모인 그들은 마침내 도무지 나올 곳이 없는 소작료를 어떻게 해야 할지 이야기한다.

3) 냇물이나 강물 또는 바닷물에 들어가 몸을 담그고 씻거나 노는 일.

4) 대로 자라는 곡식.

5) 농작물을 수확하기 전에 미리 작황을 조사하여 소작료율을 결정하던 일.

6) 지주를 대리하여 소작권을 관리하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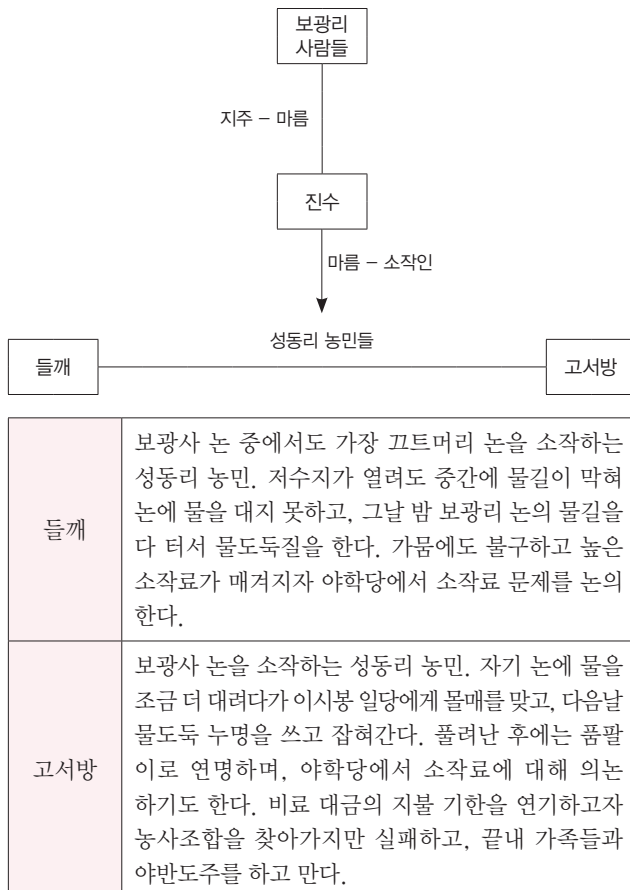
1) 보(논에 물을 대기 위한 수리 시설의 하나.)에 권 물. 또는 거기서 흘러내리는 물.

2) 보의 물목.

가을이 깊어질수록 농민들의 생활은 나빠져, 밤이면 야학당에 모이는 사람이 늘어난다. 농민들은 차츰 쇠다리주사나 진수의 연설에도 속지 않는다. 자신이 농사지는 곡식은 모조리 수확해 먹고 남의 것에도 손을 대, 재산이 많은 쇠다리주사와 진수의 신경이 날카로워진다. 한편 철한이는 들깨의 여동생 덕아와 혼인하라는 어머니의 말에 들뜬다. 그러나 철한의 아버지는 가난한 형편에 혼사가 말이나 되냐며 철한의 어머니에게 화를 내고, 철한은 간신히 그런 아버지를 말린다. 철한의 어머니는 낫을 잃고, 아버지는 기한이 지난 세금고지서와 빚 독촉장을 쥐고 횡답배를 피운다. 아버지가 외양간에 들어가 소의 등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린 한 달 뒤 철한은 혼례를 올린다.

구장과 고서방을 비롯한 네다섯 명이 대표가 되어 보광사 농사조합을 찾아가는다. 그들은 비료 대금의 지불 기한을 연기해 달라고 하소연하지만, 조합 이사는 듣는 체도 앓다 돈을 못 내겠으면 소작을 부치지 말라고 협박한다. 며칠 뒤, 성동리 논 여기저기에 차압 팻말이 꽃힌다. 고서방은 결국 가족들을 이끌고 야반도주를 하고 만다. 논을 빼앗긴 농민들은 저녁마다 짚단, 콩대, 메밀대를 들고 야학당에 모여든다. 이윽고 그들은 차압 취소와 소작료 면제를 탄원코자 마을을 떠난다. 아낙네들은 보광사에서 탄원을 듣지 않을까 염려하지만, 또췌이, 들깨, 철한이, 봉구와 같은 장정을 선두로 한 농민들은 빈 짚단을 들고 산을 오른다. 그 뒤를 따라가는 아이들은 절을 태우러 간다고 부산히 떠들어댄다.

등장 인물



진수	농사조합 평의원. 보광사 편에서 연설하고 소작료를 전달하는 등 성동리 소작인들을 관리하는 마름 역할을 한다.
보광리 사람들	보광사의 종과 그 가족들. 성동리 농민들과 달리 해수욕을 다녀오는 등 여유로운 일상을 보낸다. 성동리 농민들이 보광사의 논을 소작한다는 이유로 세도를 부린다.

주제

일제 강점기 억압받는 농촌의 모순과 농민들의 민중의식

출제 포인트

- ① 「사하촌」은 일제 강점기의 농촌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그 당시 농민 수탈에 앞장선 순사, 군청 주사, 농촌조합 평의원, 보광사의 중 등 지주 계층의 횡포를 사실적으로 그려낸 작품이다. 이 중에서도 부패한 승려들의 모습이 부각되는데, 이는 일제가 우리나라의 토착 종교인 불교에 혜택을 주고 그들과 손을 잡아 식민지 화에 이용하려 했던 당대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② 「사하촌」에서는 횡포를 부리는 지주 계층과 수탈을 당하는 농민들 사이의 대립이 주요한 갈등으로 제시된다. 이때 가뭄이 극심하여 모든 것이 타 들어가는 초여름이 시간적 배경으로, 소작농들이 모여 사는 농촌 마을이 공간적 배경으로 제시된다. 이러한 시·공간 배경의 설정은 일제 강점기 농촌의 모순된 현실을 선명하게 부각하고, 작품 속에 전개될 갈등의 성격을 규정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앞부분 줄거리] 심한 가뭄과 저수지의 물까지 막는 보광사의 횡포에 성동리 사람들은 농사에 어려움을 겪는다. 그 와중에 고서방은 자기 눈에 물을 조금 더 대려다가 물도둑 누명을 쓰고 잡혀간다.

은하수가 남북으로 돌아져도 성동들은 가을답지 않았다. 전 같으면 들이 차게 익어가는 누런 곡식에, 농부들의 입에서도 저절로 너털웃음이 흘러나오고, 아낙네들은 가끔 햅쌀 되나 마련 해서 장 출입도 더러 할 것이로되, 그해는 거친 들을 싱겁게 지키는 허수아비처럼 모두들 맥없이 말라빠졌다.

보광사로부터 산 뿔나무터에도 인제는 더 할 것이 없고, 또 기한이 지나자, 사내들은 별반 할 일이 없었다. 간혹 도둑나무를 하러 다니는 사람이 있지만 붙잡히면 혼이 나곤 했다.

초여름에 무단히 경찰사로 끌려간 고서방은, 남의 논두렁을 잘랐다는 열도당토 않은 죄에 몰려 괜히 몇 달간 헛고생을 하다가 추석 지난 뒤에 겨우 놓여나왔으니, 분풀이는커녕 타고난 천성이라 도둑나무도 못 해오고 꼬박꼬박 사방공사 품팔이나 다녔다. 길이 워낙 멀고 보니, 그나마 닭 울자 집을 나서야 되고, 샅이라곤 또 온종일 허둥대야 겨우 삼십 전 될락말락, 그러나 이렇게 다니는 것은 물론 고서방만이 아니었다.

아낙네들은 버섯철이 지나자 이젠 땃도라지나 캐고, 그렇지 않으면 콩잎 따기가 일이었다. 그것도 자기 산 없고, 자기 밭 적은 그들은 욕 얻어먹기가 일쑤였다.

마침내 군청에서 주사나리까지 출장을 나와서, 소위 가뭄으로 인한 피해 상태의 실지 조사를 하고 가더니, 달포가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고, 동네 안에는 다만 주림과 불안만이 떠돌 뿐이었다. 그래도 보광사에서는 갑자기 간평을 나왔다. 고자쟁이 이시봉과 본사 법무원(法務院)에서 셋—도합 네 사람이 나왔다.

간평! 소작료! 농민들에게는 이 말이 무엇보다도 무섭고 또 분했다. 그러나 그날 절은 소작인으로서는 물론 하나도 출타를 앓고 기다렸다. 농사조합의 평의원이 되어 있는 진수도 그날은 면소 일을 제쳐놓고 중들을 맞이하였다.

그래서, 진수의 집 사랑에서는 일찍부터 술상이 벌어졌다. 미리 마련해두었던 밀주와 술안주가 이내 모자랐는지, 머슴놈이 보광리 상점으로 종종걸음을 치고, 쇠고기 굽는 냄새가 흐뭇이 새어 나오는 통에, 대문 밖에 죄인처럼 주그려뜨리고 앉은 소작인들은, 괜히 헛침만 꿀떡꿀떡 삼켰다. 작인들은 간평원들의 미움이나 받을까 저어했음인지 차례로 안으로 들어가는, 오시느라고 수고했다고 공손히 수인사를 하고 나왔다. 고서방은 지난여름 당한 일을 생각하면 이가 절로 갈렸지만 그래도 시봉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었다.

“에헴, 에헴, 에—헴!”

치삼 노인도, 듣는 사람의 가슴까지 걸릴 기침 소리를 연거푸 뿜으면서 기다란 지팡이를 끌고 대문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자식 같은 사람들 앞에 절을 하고서는, 그러지 말라던 아들의 말을 듣지 않고서, 그에게 자기 집 농사 사정을 여쭙어보려고 했다.

“여보 노인, 그런 소리는 할 필요 없소. 메밀을 갈았으면 메밀을 간 세만 내면 되지 않겠소?”

이시봉은 거만스런 반말로써 사정없이 쏘았다.

치삼 노인은 다시 말해 볼 여지가 없었다.

“여보, 그런 말은 이런 데서 하는 법이 아니오. 괜히 남 술맛 떨어지게!”

곁에 앉은 중 하나가 뒤를 따라 편잔을 하는 바람에, 화가 더 치밀었으나 진수의 권하는 말에 치삼 노인은 다행히(!) 무사하게 밖으로 나왔다. 그러나 “허 참, 복 받겠다고 멀쩡한 자기네 시주해놓고 저런 설움을 받다니 온!” 하는 젊은 사람들의 말도 들은 체 만 체, 뻔뻔 왈왈 떨리는 다리를 끌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진수네 집 대문 밖에 노 우거지상을 하고 앉아서 어서 술이 끝나기를 기다렸다. 그러다가 더러는 투덜거리며 돌아가고, 잡담이나 하고 고누나 두던 늙은 친구들도 나중에는 역시 불평이 나왔다.

“제에기, 간평을 나온 겐가, 술을 먹으러 나온 겐가? 아무 작정을 모르겠군.”

머리끝이 희끔희끔한 친구가 이렇게 불통하니깐, 곁에 있던 까만딱지가,

“글쎄 말이야. 이것들이 또 논을랑 둘러보지도 않고 앉아서만 소작료를 정할 것 아닌가?”

“제에기, 우, 우리 논에는 또 안, 가겠군. 자, 작년에도 앉아서 세만 자, 잔뜩 매더니……”

봉구란 놈도 한 마디 보탰다.

(중략)

이윽고 술이 끝났다. 모가지째까지 별정도록 취해서 나서는 간평원들! 금테 안경을 쓴 진수 아내가 사립 밖까지 나와서 배웅을 하자, 그들은 인도하는 진수의 뒤를 따라서 단장과 함께 비틀거렸다. 그러한 그들의 뒤에는, 얼굴이 노랗고 여원 소작인들이 마치 유행수(流刑囚)처럼 묵묵히 따랐다.

술 취한 양반들에게 웬 간평이 될 리 없었다. 그저 작인들의 말은 마이동풍 격으로, 논두렁에도 바둑이 들어서 보는 법도 없이 다만 진수하고만 알아듣지도 못할 왜말을 주절거리면서,

그야말로 처삼촌 산소 벌초하듯이 흐지부지 지나갈 뿐이었다. 그러면서도 짐짓 성실한 듯이 이따금 단장을 쳐들어 여기저기를 가리키기도 하고, 혹은 수첩에 무엇인가를 적어 넣으면서,

그렇게 허수아비처럼 흐느적거리며 들개의 눈 곁을 지날 때였다.

“왜 메밀을 갈았소?”

시봉은 들개의 수인사 대답으로 이렇게 물었다.

“할 수 있어야죠. 마른 모포기 기다렸댔자 열음 앓을 게고……”

들개는 한 손에는 콩대, 한 손에는 낫을 든 채 열적게 대답했다.

“메밀은 잘 됐구면.”

“뭘요. 이것도 늦게 뿌려서……”

들개는 시봉의 다음 말을 두려워하는 태도였다.

다른 사람들은 슬금슬금 앞두렁으로 걸어갔다. 거기서는 아기를 등에 업은 들개의 아내와 누이동생이 바쁘게 두렁콩을 베고 있었다. 덕아는 열일곱의 처녀로서는 놀랄 만큼 어깻죽지가 벌어지고, 돌아앉은 뒷모습이 한결 탐스러웠다. 자기 뒤에 가까이 낫선 사내들이 와 선 것을 깨닫자, 폭 눌러 쓴 수건 밑으로 엿보이는 두 볼이 적이 붉어진 듯은 하나, 낫을 든 손은 여전히 설 새가 없었다.

“오빠! 왜 암말도 못했소?”

간평꾼들이 물러가자, 덕아는 시무룩해가지고 돌아오는 들개를 안타까운 듯이 쳐다보았다.

“말은 무슨 말을 해?”

“세 줌 매지 말라구……”

“그놈들 제멋대로 매는 걸 어떻게.”

“그럼 오빠는 이까짓 메밀 간 세도 바치려네?”

덕아는 자못 서글퍼하는 말씨였다.

“글쎄, 먹고 남으면 바치지!”

들개는 픽 웃었다. 그는 최근에 와서 갑자기 무던히 배짱이 커졌다.

출제 포인트

- ③ 「사하촌」에서는 보광사 사찰이 있는 ‘보광리’와 그 아래 마을인 ‘성동리’ 마을과의 대비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같은 ‘사하촌’이라는 공간 안에서 상반되는 생활 모습을 보이도록 설정한 것은 두 마을의 상하 권력 관계를 부각하기 위함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농민들을 수탈하는 ‘보광사’에서 농민들을 위해 기우불공을 지낸다는 것과 불공을 드리며 시춧돈을 챙기는 중들의 모습에서 농민들을 착취하는 지주 계층의 부조리함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한 하룻날 보광사 농사조합에서 성동리의 유력자—쇠다리주사와 면서기며 농사조합 평의원인 진수를 청해갔다. 그래서 그들이 저쪽의 의논에 응하고 가져온 소식—그것은, 오는 백중날 보광사에서 기우불공을 아주 크게 올릴 예정이니까, 성동리에서는 한 집에 한 사람씩 참례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기우불공이라니 고마운 일이다.

“하지만 우리 같은 것 그리 많이 모아서 뭘 헌담? 불공은 중들이 헐 텐데……”

농민들은 무슨 영문인지 잘 몰랐다. 그러나 안 갔으면 가만히 안 갔지, 보광사의 논을 부쳐 먹고 사는 그들이라 싫더라도 반대는 할 수 없는 처지였다. 이왕이면 패불(掛佛)까지 내걸어 달라고 마을 사람 측에서도 한 가지 청했다. 패불을 내달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소원성취 된다는 말을 어릴 때부터 종종 들어온 그들이었다. 하지만 절 측에서는 경비가 너무 많이 든다고 첨에는 뚝 잡아땀다. 고까짓 일에 무슨 경비가 그리 날 겐가? 어디, 과연 형명이 있나 없나 보자!—마을 사람들은 꽤 큰 호기심을 품고서 간곡히 청했다. 구장이 두어 번 헛걸음을 한 뒤, 쇠다리주사가 나가서 겨우 승낙을 얻어 왔다. 그래서 칠월 백중날! 보광사에서는 새벽부터 큰 종이 팡팡 울렸다.

성동리 사람들은—농사조합 평의원인 진수와 구장과 그 다음 몇 사람 빼놓고는 대개 중년이 넘은 아낙네들과 쓸데없는 아이 놈들뿐이었지만—장꾼같이 패를 지어 절로 절로 올라갔다.

천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무려 백여 명의 노소승(老少僧)이 우글거리는 선찰 대본산 보광사에는 벌써 백중불공차 이곳저 곳에서 모여든 여인들이 들끓었다.

오색단청이 찬란한 대웅전을 비롯하여, 풍경 소리 그윽한 명부전, 팔상전, 오백나한전…… 부처 모신 방마다 웬만한 따위는 발도 잘 못 들여놓을 만큼 사람들이 짹짹 들어왔다. 그들은 엉덩이 혹은 옆구리를 서로 맞대고 비비대기를 치며, 두 손을 높게 들어 머리 위에서부터 합장을 하고 나뭇이 중절을 하였다. 아들딸 북 많이 달라는 등, 허리 아픈 것 어서 낫게 해달라는 등…… 제각기 소원들을 은근히 빌면서, 잠자리 날개 보다 더 얇은 생노방주 옷에 모두 제가 잘난 체 부처님 무릎 앞에 놓인 커다란 희사함(喜捨函)에 아낌없이 돈들을 척척 넣고 가는 그들! 얼핏 보면 죄다 만석꾼의 부인, 알고 보면 태반은 빚내어 온 이들.

성동리 아낙네들은 명부전 뒤 으스스한 구석에서 잠깐 맘을 거두고서, 대웅전 앞으로 슬슬 나왔다. 자기들 댁에는 기껏 차려왔겠지만, 앉으려는 겐지 켜는 겐지 분간을 못할 만큼 풀이 뻗뻗한

삼베치마 따위로선 그런 자리에 어울릴 리가 만무하였다. 다른 분들과 엄청나게 차가 있는 자기들의 몸차림을 못내 부끄러워하는 듯, 어름어름 차례를 기다리고 섰다.

그러자, 며칠 전부터 와 있던 진수 어머니가 어디서 왔는지 쫓아왔다. 아주 반가운 듯한 얼굴을 하고,

“여태 어디들 처박혀 있었어? 아까부터 아무리 찾아두 온…… 다들 부처님 참배는 했나?”

자기는 벌써 보살님이나 된 셈 치는 어투였다.

“아직 못 봤수. 웬걸 돈이 있어야지!”

이 얼마나 천부당만부당한 대답일까?

“그럼, 시춧돈도 없이 절에는 뭘 하러들 왔수?”

진수 어머니는 입을 뻘쭉하더니,

“이것들 곁에 있다가는 괜히 큰 망신하겠군!”

할 듯한 표정을 하고는 어디론지 핑 가버린다.

베치마패들은 잠깐 주저주저하다가,

“돈 적으며 복 적게 받지 뭘.”

하고는, 남편이나 아들이 끼니를 굶어가며 나뭇짐이나 팔아서 마련한 돈들을, 빛의 끝돈도 못 갚게 알뜰살뜰히도 부처님 앞에 바치고 나온다. 더러는 내고 보니 꽤 아까운 듯이 돌아다 보기도 했다.

(중략)

공양상이 나오자, 주지를 비롯하여 각방 노승들이 참배를 드리고, 다음으로 젊은 중, 강당 학인(學人), 그밖에 애기 중들, 그리고 중마누라와 보살계에 든 여인들, 맨 나중에 일반 손님들의 차례였다. 중들을 빼놓고는 모두 앞을 다투어 돈들을 내걸고 절을 하며 소원성취를 빌었다.

“어서 물러나와요, 다른 사람도 좀 보게.”

진수 어머니는 다 같은 보살계원을 밀어내고 들어서더니, 자기는 돈을 얼마나 냈는지 절을 열 번도 더 했다. 주지 부인을 보고, 어머니 어머니 하고 섰던 진수도, 남 먼저 쫓아나가서 대가리를 땅에 처박았다.

성동리 아낙네들은 이미 주머니가 빈지라, 부러운 듯이 곁에서 남이 하는 구경만 하고 있었다.

이러한 거추장스런 일이 다 끝난 뒤에야 겨우 기우 불공이 시작되었다. 패불 앞에는 큰 북이 나오고, 바라가 나오고, 목탁이 나오고…… 성동리 구장이 동에서 굶어온 돈을 내걸자 기도는 비로소 시작되었다.

“딱딱 딱딱,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팡, 둥, 찰, 딱다글!”

목탁 소리와 함께 독경 소리가 높아지고 경문의 구절마다 팽과리, 북, 바라, 큰 목탁이 언제나 꼭 같은 장단을 짚는다.

성동리 사람들은 중들의 기도를 따라서 자기들도 절을 하였다. 중들의 공동이를 향해서, 어떤 중은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무지막지한 촌뜨기들의 가지각색의 절들을 통일시키기 위하여 불갓 절을 모르는 위인들의 몸에 함부로 손을 대가며 합장절을 가르쳤다. 이번에는 물론 삼베치마들도 한몫 들었다. 그러나 그들의 절이란 어울리기는커녕 우습기가 한량없었다.

Memo

이해와 감상

〈복덕방〉은 1937년 발표된 단편소설로, 경성 외곽의 ‘복덕방’을 배경으로 하여 땅 투기와 그 음모에 빠져 몰락하는 노인 ‘안 초시’라는 인물을 통해 급변하는 근대화 시대에서 몰락하는 소외된 세대의 좌절을 그려낸 작품이다. 또한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도 자신의 명예를 중시하는 딸 ‘안경화’라는 인물을 통해 허영심과 이기심, 위선적 모습을 지닌 새로운 세대에 대한 비판을 형상화하고 있다. 노인인 ‘안 초시’, ‘서 참위’, ‘박희완’과 ‘안 초시’의 딸 ‘안경화’의 대립적인 구도는 1930년대 근대화 적응에 실패한 세대의 소외 문제, 무너지는 가족 공동체의 문제에 대한 비판을 부각한다고 볼 수 있다.

전체 줄거리

수젓구멍으로 흘러나오는 앞집의 음식물찌꺼기를 본 안초시²⁾는 추석이 다가옴을 실감하며 슬픔과 고적함을 느낀다. 주먹구구를 거듭하며 자신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가늠해 본 초시는 주머니에 든 마지막 십 전을 꺼내 쥐고, 성공하여 다시 자신의 돈으로 집과 밥을 마련하고 세상에 부딪쳐 볼 것을 다짐한다.

서참위³⁾의 복덕방에는 초시, 참위, 그리고 박희완이 모인다. 복덕방 주인 참위는 본래 참위였으나 한일합병 이후 백수가 되었다가 가옥중개업을 시작했고, 복덕방이 성업한 이후로 땅과 집을 여럿 마련해 학생을 치고⁴⁾ 있어 중개료가 줄어드는 지금도 형편은 넉넉하다. 그는 참위였던 시절과 달리 초라해진 자신의 모습에 종종 서글퍼하며 훌륭한 무관이었던 옛 동료가 길거리를 도는 장사치가 된 것을 보고 슬픔을 느끼기도 한다. 그러나 참위는 그러다가도 자신이 건사해야 할 가족들을 보며 지금의 생활에 만족하고, 웃으며 살고자 한다. 때문에 나날이 불만이 늘어 가는 초시와는 자주 부딪힌다.

한번은 초시가 참위를 비롯한 친구들을 이끌고 딸의 무용회에 참석했다. 그의 딸 안경화는 일본에서 유학한 뒤 유명한 무용가가 되어 서울에 돌아왔고, 신문마다 나는 딸이 자랑스러웠던 초시가 여러 친구를 데리고 딸의 공연에 찾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참위는 경화의 무용복 차림을 마땅치 않아 하고, 이에 초시가 참위의 가옥 중개업을 걸고 넘어져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 벌어졌다. 이후로 한동안 복덕방에 나오지 않던 초시를 박희완이 데리고 왔다.

희완은 초시만큼은 아니어도 복덕방에 자주 놀러 오는 늙은이로, 재판소에 다니는 조카에게 기대 대서업⁵⁾을 하고 싶어 한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그는 조선총독부에서 펴낸 『속수국어독본』을 달달 외지만, 그럼에도 좀처럼 허가는 나지 않는다. 이러한 희완보다도 초시의 야심은 더 크지만, 딸 경화는 지방 순회로 번 돈을 연구소나 축음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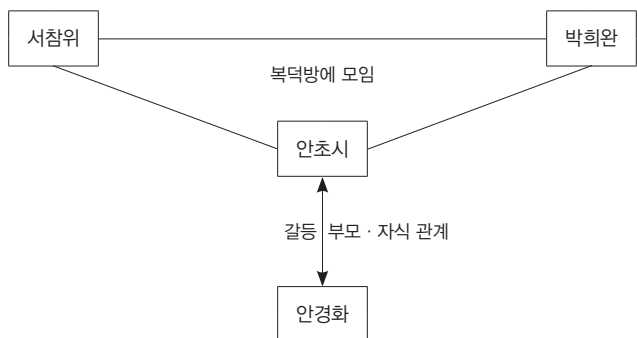
자신의 교제 비용으로 사용하기 바쁘다. 옷이 낡아 샤쓰를 사 달라는 정도 들어주지 않고, 고장이 난 안경다리를 고칠 일 원만 달라면 절반인 오십 전만 주는 것이다. 초시는 오십 전짜리 안경다리를 쓸 바에야 종이 노끈인 채 쓰겠다면 오십 전을 담뱃값으로 써 버린다. 사망보험으로 생색을 내면서 살아 있는 아버지에게는 돈 한 톨 주지 않는 딸에게 초시는 서운함을 느끼고, 돈의 중요성을 날로 강하게 느낀다.

그러던 초시는 황해 연안에 제2의 나진⁶⁾이 생길 것이라는 소문을 희완에게 전해 듣는다. 모씨라는 이가 항구 설계도를 복사해 요지를 알고 있고, 순이익의 2할을 나눠 주면 정보를 주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나진도 개항으로 인해 땅값이 백 배, 크게는 천 배로 올랐던 것을 기억하는 초시는 크게 마음이 동한다. 그날 저녁 초시는 희완에게 들은 이야기를 딸에게 전하고, 그의 말솜씨에 설득된 경화는 연구소 집을 담보로 삼천 원을 빌려 투자하기로 마음먹는다. 초시는 신이 나지만, 딸은 아버지의 손에는 돈을 쥐어 주지 않고 신탁 회사 직원에게 모든 처리를 일임한다. 초시는 잠시 노여워하다가 삼천 원이 가져올 순이익을 기대한다.

그러나 이는 박희완부터가 속아 넘어간 사기행각으로, 경화가 사들인 땅은 축항 후보지로 측량까지 하였으나 개항이 중지된 곳이 었다. 즉 땅값이 오를 것이라는 소문은 개항을 기대하고 너무 이르게 땅을 샀던 모씨가 땅을 처치하기 위해 꾸민 연극이었던 것이다. 큰 돈을 잃은 경화는 초시에게 완전히 등을 돌리고, 궁핍에 시달리던 초시는 좌절하여 음독자살한다.

초시의 시체를 발견한 참위는 무용연구소를 찾아가 경화를 데려 오지만, 경화는 아버지의 죽음을 보고도 자신의 명예만을 중시한다. 경화가 관청에 초시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고 부탁하자 참위는 초시를 위해 든 보험으로 얻을 삼백팔십 원을 모두 초시의 장례를 위해 쓰라고 지시한다. 초시의 장례식을 치르며 참위와 희완은 슬픔에 젖는다. 초시의 묘지까지도 따라가려던 그들은 안경화와 그 지인들이 못마땅해 장례식장을 벗어난다.

등장 인물



1) 가옥이나 토지 같은 부동산을 매매하는 일이나 임대차를 중개하여 주는 곳.
 2) 과거의 첫 시험. 또는 그 시험에 급제한 사람. 서울과 지방에서 식년(式年)의 전해 가을에 보았다.
 3) 대한 제국 때에 둔 위관 계급의 하나. 부위의 아래, 특무정교의 위이다.
 4) 주로 영업을 목적으로 남을 머물러 묵게 하다.
 5) 남을 대신하여 관청 행정이나 법률 행위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주고 보수를 받는 직업.

6) 함경북도 북부에 있는 항구 도시. 나진만의 어귀에 가로놓인 대초도(大草島)가 천연의 방파제를 이루고 있다. 어업, 조선업, 수산 가공업이 활발하다.

안초시	서참위의 복덕방에 모이는 세 노인 중 한 명. 십수 년간 상업에 종사하며 제법 부유하게 지내기도 했으나, 현재는 궁핍하게 살고 있다. 황해에 항구가 생긴다는 소문을 듣고 딸을 설득해 투자했으나, 낭패를 보게 되어 딸에게 외면당한 끝에 자살한다.
서참위	복덕방 주인으로, 복덕방에 모이는 세 노인 중 한 명. 본래는 무관이었으나 한일합병 이후 일자리를 잃었다. 현재는 가옥중개업과 하숙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자살한 초시의 시체를 발견하고, 안경화에게 보험금으로 초시의 장례를 성대히 치를 것을 지시한다.
박희완	서참위의 복덕방에 모이는 세 노인 중 한 명. 재판소에 다니는 조카를 빌미로 대서업을 하고자 하며, 조선 총독부에서 펴낸 『속수국어독본』을 끼고 다닌다. 모씨에게 속아 안초시에게 황해에 항구가 생긴다는 헛소문을 전해 준다.
안경화	안초시의 딸로, 일본 유학까지 한 유명한 무용가이다. 전국 순회를 하며 큰돈을 벌어들이면서도 아버지를 박대한다. 안초시의 설득에 연구소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 투자했다가 낭패를 보고, 이후 안초시를 완전히 외면한다. 아버지가 죽은 후에도 자신의 명예를 우선시하며, 안초시의 자살을 관청에 알리지 말 것을 당부하고 그 대신 장례를 성대하게 치른다.

주제

근대화에 적응하지 못한 세대의 몰락과 가족 공동체 해체에 대한 비판

출제 포인트

- ① 땅 투기로 기대감에 부풀었던 ‘안 초시’가 사기를 당해 결국 자살하고 마는 모습은 근대화 사회에서 소외된 세대의 재기에 대한 기대감과 재기 실패 후 느끼는 좌절감을 잘 보여준다. 또한 ‘안 초시’의 절망은 궁핍함으로 비롯된 한탕주의에 사로잡혀 투기에 열을 올렸던 1930년대 풍조와 함께 몰락한 당대 사람들의 절망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앞부분의 줄거리] 안 초시와 서 참위, 박희완 영감은 서 참위의 복덕방에 모이곤 한다. 박희완 영감은 대서업을 하기 위해 복덕방에서 『속수국어독본』을 외우고, 안 초시는 화투패나 떼고 있다.

“넌 또 무슨 재술 바라구 밤낮 화토편나 떨어지길 바라니?”

“난 심심풀이지.”

그러나 속으로는 박희완 영감보다 더 세상에 대한 야심이 끓었다. 딸이 평양으로 대구로 다니며 지방 순회까지 하여서 제법 돈 양이나 걷힌 것 같으나 연구소를 내느라고 집을 뜯어고친다, 유성기⁷⁾를 사들인다, 교제를 하러 돌아다닌다 하느라고, 더구나 귀찮게만 아는 이 애비를 위해 쓸 돈은 예산에서부터 들지 못하는 모양이었다.

“애? 낚은 솜이 돼 그런지, 샅바느질이 돼 그런지 바지 솜이 모두 치에서 어떤 텐 홀옷이야. 암만해두 사쓸 한 벌 사 입어야겠다.”

하고 딸의 눈치만 보아오다 한번은 입을 열었더니,

“어련히 인제 사드릴까요요.”

하고 딸은 대답은 신선하였으나 사쓰는 그해 겨울이 다 지나도록 구경도 못하였다. 사쓰는커녕 안경다리를 고치겠다고 돈 일 원만 달래도 일 원짜리를 굳이 바꿔다가 오십 전 한 닢만 주었다. 안경은 돈은 좀 주무르던 시절에 장만한 것이라 테만 오륙 원 먹는 것이어서 오십 전만으로 그런 다리는 어렵도 없었다. 오십 전짜리 다리도 있지만 살 바에는 조출한 것을 택하던 초시의 성미라 더구나 면상에서 짹짹이 드러나는 것을 사기가 싫었다. 차라리 종이 노끈인 채 쓰기로 하고 오십 전은 담뱃값으로 나가고 말았다.

“왜 안경다리 안 고치셨어요?”

딸이 그날 저녁으로 물었다.

“흥…….”

초시는 말은 하지 않았다. 딸은 며칠 뒤에 또 오십 전을 주었다.

그러면서 어떻게 들으라고 하는 소리인지,

“아버지 보험료만 해두 한 달에 삼 원 팔십 전씩 나가요.”

하였다. 보험료나 타먹게 어서 죽어달라는 소리로도 들리었다.

“그게 내게 상관 있니?”

“아버지 위해 들었지, 누구 위해 들었게요 그럼?”

초시는 ‘정말 날 위해 하는 거문 살아서 한 톨이라도 다우. 죽은 뒤에 내가 알 게 뭐냐’ 소리가 나오는 것은 억지로 참았다.

“오십 전이문 왜 안경다리 못 고치세요?”

초시는 설명하지 않았다.

“지금 아버지가 종구 낚은 것을 가리실 처지야요?”

그러나 오십 전은 또 마코 값으로 다 나갔다. 이러기를 아마 서너 번째다.

“자식도 소용없어. 더구나 딸자식…… 그저 내 수중에 돈이 있어야…….”

[중략 줄거리] 안 초시는 박희완 영감에게 황해 연안에 제2의 나진이 생길 것이라는 소문을 듣고 딸(안경화)의 돈으로 투자한다.

일 년이 지났다.

모두 꿈이었다. 꿈이라도 너무 악한 꿈이었다. 삼천 원어치 땅을 사놓고 날마다 신문을 훑어보며 수소문을 하여도 거기에는 축항이 된단 말이 신문에도 소문에도 나지 않았다. 용당포(龍塘浦)와 다사도(多獅島)에는 땅값이 삼십 배가 올랐느니 오십 배가 올랐느니 하고 줄부들이 생겼다는 소문이 있어도 여기는 감감소식일 뿐 아니라 나중에, 역시, 이것도 박희완 영감을 통해 알고 보니 그 관변 모씨에게 박희완 영감부터 속아 떨어진 것이었다. 축항 후보지로 측량까지 하기는 하였으나 무슨 결점으로인지 중지되고 마는 바람에 너무 기민하게 거기다 땅을 샀던, 그 모씨가 그 땅 처치에 곤란하여 꾸민 연극이었다.

돈을 쓸 때는 일 원짜리 한 장 만져도 못 봤지만 벼락은 초시에게 떨어졌다. 서너 끼씩 굶어도 밥 먹을 정신이 나지도 않았거니와 밥을 먹으러 들어갈 수도 없었다.

“재물이란 친자 간의 의리도 배주 밑 도리듯 하는 건가?”

탄식할 뿐이었다. 밥보다는 술과 담배가 그리웠다. 물론 안경다리는 그저 못 고치었다. 그러니 이제 오십 전짜리는커녕 단 십 전짜리도 얻어볼 길이 없다.

추석 가까운 날씨는 해마다의 그때와 같이 맑았다. 하늘은 천리같이 트였는데 조각구름들이 여기저기 널리었다. 어떤 구름은 깨끗이 바래 말린 옥양목처럼 흰빛이 눈이 부시다. 안초시는 이번에도 자기의 때 묻은 적삼 생각이 났다. 그러나 이번에는 소매 끝을 볼거나 떨지는 않았다. 고요히 흘러내리는 눈물을 그 더러운 소매로 닦았을 뿐이다.

여름이 극성스럽게도 덥더니, 추위도 그럴 징조인지 예년보다 무서리가 일찍 내리었다. 서참위가 늘 지나다니는 식은 관사(殖銀官舍)에들 올타리가 넘게 피었던 코스모스들이 끓는 물에 데쳐낸 것처럼 시커멓게 무르녹고 말았다.

참위는 머리가 멍하였다. 요즘 와서 올기 잘하는 안초시를 한번 위로해주려, 잊지않는 데리고 나와 청요릿집으로, 추탕집으로 새로 두점을 치도록 돌아다닌 때문 같았다. 조반이라고 몇 술 뜨기는 했으나 혀도 그냥 뻑뻑하다. 안초시도 그럴 것이니까 해는 벌써 오정 때지만 끌고 나와 해장술이나 먹으리라 하고 부지런히 내려와보니, 웬일인지 복덕방이라고 쓴 배 발이 아직 내어걸리지 않았다.

“이 사람 봐야…… 어느 땐 줄 알구 코만 고누…….”

그러나 코 고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미달이를 밀어젖힌 서참위는 정신이 번쩍 났다. 안초시의 입에는 피, 얼굴은 잿빛이다. 방 안은 움 속처럼 음습한 바람이 횡 끼친다.

“아니……?”

7) 원통형 레코드 또는 원판형 레코드에 녹음한 음을 재생하는 장치.

참위는 우선 미담이를 닫고 눈을 비비고 초시를 들여다보았다. 안초시는 벌써 아니요, 안초시의 시체일 뿐, 둘러보니 무슨 약병인 듯한 것 하나가 굴러져 있다.

참위는 한참 만에야 이 일이 슬픈 일인 것을 깨달았다.

출제 포인트

- ② ‘안경화’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는 현대적인 여성으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출세와 개인적 행복만 추구하는 이기적인 인물로 그려진다. 특히 아버지인 ‘안 초시’의 죽음을 직면하였을 때, 사회적 체면만을 중시한 채 부모에 대한 효를 다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이때 서술자는 ‘안경화’를 직접적으로 비판하지 않는데, 이는 이러한 인물 유형이 등장한 것이 근대화 사회로의 변화로 인한 공동체의 해체 때문이라는 작가 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이태준은 옛것을 숭상하는 상고(尙古) 취향을 지닌 작가로 알려져 있으며, 이런 그의 태도는 그의 작품에서 주로 과거의 전통적 가치관에 예찬, 변두리나 농촌 등의 공간에 대한 애정과 동경, 자본주의의 공간인 도시에 대한 비판 등으로 표현된다. 「복덕방」에서도 역시 대규모 건축 회사에 의해 도태되어 가지만 인간미가 넘치는 서울 변두리의 한 ‘복덕방’과 ‘복덕방’ 밖의 공간으로 출세 지향 주의와 물질주의를 대표하는 무용연구소를 설정하여 전통적인 것에 대한 지향과 도시적인 것에 대한 지양을 동시에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앞부분 줄거리] 서 참위의 복덕방에 모이는 노인 중 한 사람인 안 초시는 박희완 영감의 말을 듣고 딸(안경화)의 돈으로 땅에 투자하지만 모씨의 사기 행각에 넘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여름이 극성스럽게도 덥더니, 추위도 그럴 징조인지 예년 보다 무서리가 일찍 내리었다. 서참위가 늘 지나다니는 식은 관사(鎭銀官舍)에들 올라타가 넘게 피었던 코스모스들이 끓는 물에 데쳐낸 것처럼 시커멓게 무르녹고 말았다.

참위는 머리가 멍하였다. 요즘 와서 올기 잘하는 안초시를 한번 위로해주려, 엿저녁에는 데리고 나와 청요릿집으로, 추탕 집으로 새로 두점을 치도록 돌아다니던 때문 같았다. 조반이라고 몇 술 뜨기는 했으나 허도 그냥 뻑뻑하다. 안초시도 그럴 것이니까 해는 벌써 오정 때지만 끌고 나와 해장술이나 먹으리라 하고 부지런히 내려와보니, 웬일인지 복덕방이라고 쓴 배 발이 아직 내어걸리지 않았다.

“이 사람 봐야…… 어느 땐 줄 알구 코만 고누…….”

그러나 코 고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미닫이를 밀어젖힌 서참위는 정신이 번쩍 났다. 안초시의 입에는 피, 얼굴은 잿빛이다. 방 안은 움 속처럼 음습한 바람이 횡 끼친다.

“아니……?”

참위는 우선 미닫이를 닫고 눈을 비비고 초시를 들여다보았다. 안초시는 벌써 아니요, 안초시의 시체일 뿐, 둘러보니 무슨 약병인 듯한 것 하나가 굴러져 있다.

참위는 한참 만에야 이 일이 슬픈 일인 것을 깨달았다.

파출소로 갈까 하다 그래도 자식한테 먼저 알려야겠다 하고 말만 들던 그 안경화무용연구소를 찾아가서 안경화를 데리고 왔다. 딸이 한참 울고 난 뒤다.

“관청에 어서 알려야지?”

“아니야요, 아스세요.”

딸은 펄쩍 뛰었다.

“아스라니?”

“저…….”

“저라니?”

“제 명예도 좀…….”

하고 그는 애원하였다.

“명예? 안 될 말이지. 명예 생각하는 사람이 애빌 저 모양으로 세상 떠나게 해?”

“…….”

안경화는 엎드려 다시 울었다. 그러다가 나가려는 서참위의 다리를 끌어안고 놓지 않았다. 그리고

“절 살려주세요.”

소리를 몇 번이나 거듭하였다.

“그럼. 비밀은 내가 지킬 테니 나 하자는 대루 할까?”

“네.”

서참위는 다시 앉았다.

“부친 위해 보험 든 거 있지?”

“네, 간이 보험이예요.”

“무슨 보험이던…… 얼마나 타게 되누?”

“삼백팔십 원요.”

“부친 위해 들었으니 부친 위해 다 써야지?”

“그럼요.”

“에헴, 그럼…… 돌아간 이가 늘 속사쓸 입구퍼 했어. 상등 털 사쓰를 사다 입히구, 그 우에 전진으로 수의 일습 구색 마쳐 짓게 허구…… 선산이 있나, 묻힐 데가?”

“웬걸요, 없어요.”

“그럼 공동묘지라도 특등지루 널찍하게 사구…… 장례식을 장하게 해야 말이지 초라하게 해 버리면 내가 그저 안 있을 게야. 알아들어?”

“네에.”

하고 안경화는 그제야 핸드백을 열고 눈물 젖은 얼굴을 닦았다.

안초시의 소위 영결식이 그 딸의 연구소 마당에서 열리었다.

서참위와 박희완 영감은 술이 거나하게 취해 갔다. 박희완 영감이 무얼 잡혀서 가져왔다는 부의 이 원을 서참위가

“장례비가 넉넉하니 자네 돈 그 계집애 줄 거 없네.”

하고 우선 술집에 들러 거나하게 곱빼기들을 한 것이다.

영결식장에는 제법 반반한 조객들이 모여들었다. 예복을 차리고 온 사람도 두엇 있었다. 모두 고인을 알아 온 것이 아니요, 무용가 안경화를 보아 온 사람들 같았다. 그중에는, 고인의 슬픔을 알아 우는 사람인지, 덩달아 기분으로 우는 사람인지 울음을 삼키느라고 꺾꺾 하는 사람도 있었다. 안경화도 제법 눈이 젖어 가 지고 신식 상복이나 공단 같은 새까만 양복으로 관 앞에 나와 향불을 놓고 절하였다. 그 뒤를 따라 한 이십 명 관 앞에 와 꾸벅거리었다. 그리고 무어라고 지껄이고 나가는 사람도 있었다.

그들의 분향이 거의 끝난 듯하였을 때,

“에헴”

하고 얼굴이 시뻘건 서참위도 한마디 없을 수 없다는 듯이
나섰다. 향을 한 움큼이나 집어 놓아 연기가 시커멓게 올려
솟더니 불이 일어났다. 후 후 불어 불을 끄고, 수염을 한 번 쓰다
듬고 절을 했다. 그리고 다시,

“험……”

하더니 조사(弔辭)를 하였다.

“나 서참월세 알겠나? 흥…… 자네 참 호살세 호사야……

잘 죽었느니, 자네 살았으문 이만 호살 해 보겠나? 인전 안
경다리 고칠 걱정두 없구…… 아무튼지……”

하는데 박희완 영감이 들어서더니

“이 사람 취했네그려.”

하며 서 참의를 밀어냈다.

박희완 영감도 가슴이 답답하였다. 분향을 하고 무슨 소리를
한마디 했으면 속이 후련히 트일 것 같아서 잠깐 멍청하고
서 있어 보았으나

“으흐읍……”

하고 울음이 먼저 터져 그만 나오고 말았다.

이해와 감상

〈역마〉는 1948년에 발표된 단편소설로, 한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유랑할 수밖에 없는 운명인 역마살을 거스르지 못하고 순응하게 되는 ‘성기’를 중심으로 인물의 의지보다는 운명에 의해 삶이 결정된다는 우리나라 전통의 숙명론적 인생관이 잘 드러나는 작품이다. ‘계연’과의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한 ‘성기’는 운명에 저항하지 않고 순응해 떠돌이의 삶을 선택하며 내면적 고뇌를 해소하게 된다. 작가는 이를 통해 운명 앞에 인간의 노력이 무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운명에 순응하는 것이 인간이 구원받는 길이라는 우리 민족의 전통적 의식 세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전체 줄거리

화개장터에서 주막을 운영하는 옥화는 남편 없이 아들 성기와 둘이 살아간다. 어느 여름날 늙은 체장수와 그의 딸 계연이 주막에 찾아온다. 체장수는 여기저기를 전전하던 자신의 내력과 부녀 둘이 의탁할 곳 하나 없다는 외로운 신세 한탄을 늘어놓는다. 젊었을 때, 꼭 서른여섯 해 전에는 화개장터에서도 놀았다는 체장수의 말에 옥화는 놀란 표정을 짓는다.

화개장날이면 책장사를 하는 성기는 장 볼 준비를 겸해 장날 하루 전에 절에서 마을로 내려온다. 어디로든 훑힐 가보고 싶은 그는 절 생활에 싫증을 내지만, 옥화는 성기가 떠난다는 말을 꺼내려고만 해도 역정을 낸다.

성기가 세 살이 되었을 때, 할머니는 손자의 사주를 보았다가 역마살을 발견했다. 할머니는 떠돌이 중과 인연을 맺은 어미 탓에 성기에게 역마살이 있다며 옥화를 비꼬았으나, 옥화는 그렇다면 자신이 떠돌이 중과 인연을 맺은 것은 남사당패에게 반해 자신을 낳은 할머니 때문이라고 말했다. 결국 할머니는 성기가 열 살이 됐을 때부터 절에 보내어 살을 풀어 보려고 노력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 옥화는 성기에게 화개장터 책장사를 시켜 살을 풀어보려 했다.

옥화는 집에 도착한 성기에게 계연을 소개하고, 성기는 계연에게 첫눈에 반한다. 체장수가 화갯골로 들어가며 간청을 해 잠시 말아두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튿날 장터에 책을 팔러 나간 성기에게 계연이 점심을 가져온다. 성기는 설렘을 느끼면서도 티를 내지 않고 그간 끼니를 가져다 주던 상돌 엄마의 행방을 묻는다. 그러나 그 이튿날도 옥화는 상돌 엄마 대신 계연에게 성기의 시중을 들게 하고, 성기에게는 계연을 칭찬한다. 그러고는 체장수가 자신에게 계연을 양딸로 맡기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넘기지 전한다.

칠불암까지 책값을 받으러 가야 한다는 성기의 말에 옥화는 계연을 데려가기를 권한다. 옥화의 우김에 성기는 계연을 데리고 집을 나선다. 계연은 두렵으며 딸기를 따느라 뒤쳐진다. 성기는 나무에 올랐다 치마가 걸린 계연을 구해 준다. 산길을 계속 걷던 두 사람은 계연이 탄 과일을 나눠 먹지만 성기는 과일을 먹다 말고 잠이 든다. 배가 고프고 목이 말랐던 계연은 성기를 깨우는데, 몸을 일으킨 성기가 계연에게 입을 맞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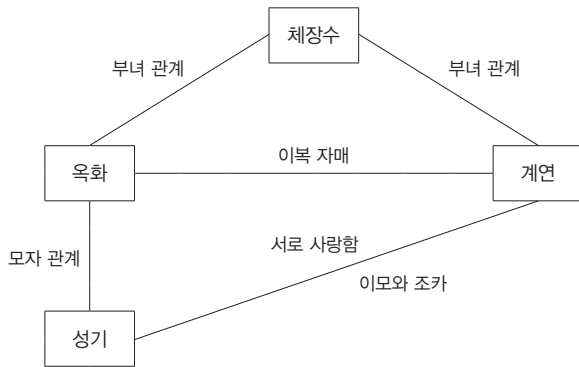
화갯골로 들어간 체장수는 보름이 넘도록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던 어느 날 옥화는 계연의 왼쪽 귓바퀴에 있는 조그만 사마귀를 발견하고 당황한다. 계연이 의아해하자 옥화는 한숨을 내쉬며 얼버무리고는 이튿날 악양에 다녀온다. 악양에 다녀온 옥화는 어쩐지 이전과 달리 성기와 계연의 사이를 경계한다. 본래 심장이 약하고 남의 미움 받기를 싫어하는 성기는 그러한 어머니의 태도를 노여워하며, 집에 돌아오는 대신 절에만 머물며 계연과 거리를 둔다.

절에서 내려온 성기는 체장수 영감과 떠날 채비를 마친 계연을 발견한다. 성기는 어지러움과 노여움과 조바심을 느끼며, 떨어질 수 없을 만큼 계연에게 마음을 주었음을 깨닫는다. 그럼에도 그는 어머니에게 자신의 감정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말없이 앉아 버린다. 그런 성기에게 옥화는 체장수가 고향 친구의 아들을 만나 고향인 여수로 돌아가게 되었다고 전해 준다. 작별의 때가 오자 계연은 자신을 배웅하는 옥화를 애절하듯 보다가 서럽게 운다. 그는 붙잡아주기를 바라는 듯 성기에게도 거둬 하직 인사를 하지만, 성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계연을 떠나보낸다.

봄이 오기 전, 보는 사람마다 성기의 회복을 단념할 정도로 상태가 나빠지자 옥화는 성기와 계연 사이를 끊어 놓은 까닭을 털어놓았다. 체장수 영감이 서른여섯 해 전 남사당패로 화개장터에 와 하룻밤을 묵었다는 자신의 아버지가 틀림없으며, 계연은 그 왼쪽 귓바퀴 위의 사마귀로 보아 자기의 동생임이 틀림없다는 것이었다. 옥화는 두 사람의 사이를 막은 것은 인륜 때문이니 원망하지 말아 달라며 눈물을 흘렸다. 성기는 그 말에 힘을 얻은 듯, 새로운 결심을 한 듯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다.

계연을 떠나보낸 성기는 앓아눕고, 초여름이 될 즈음에야 자리에서 일어난다. 자리에서 일어난 성기에게 옥화는 여전히 생부를 찾아 강원도에 가 보고 싶은지, 혹은 장가들어 자신과 화개장터에서 살아갈 것인지 묻지만 성기는 어느 쪽에도 응하지 않는다. 한 달 뒤 성기는 옥화에게 옛편을 맞춰 달라고 부탁하고, 보름 후 화개장터 삼거리 길에서 어머니와 하직한다. 그는 화갯골 쪽으로 가는 길, 계연이 넘어간 구레 쪽 길, 하동 쪽으로 난 길 중에서도 하동 쪽으로 난 길을 고른다. 발걸음을 옮기며 성기는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콧노래를 흥얼거린다.

등장 인물



성기	옥화의 아들. 역마살이 있어 할머니에 의해 어려서부터 절에서 생활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는 어머니 옥화의 뜻에 따라 화개장터에서 책장수 노릇을 한다. 계연을 사랑하게 되지만 어머니의 뜻을 거스르지 못하고 그를 떠나보내고 앓아눕는다. 계연이 자신의 이모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자리에서 일어나고, 역마살에 순응해 길을 떠난다.
옥화	성기의 어머니. 떠돌이 중을 만나 성기를 낳았고, 화개장터에서 주막을 운영한다. 성기가 떠나지 않기를 바라 계연과 성기를 이어 주고자 했지만, 체장수가 자신의 아버지이며 계연이 자신의 동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두 사람을 떼어놓는다.
체장수	옥화와 계연의 아버지. 서른여섯 해 전 화개장터에서 옥화의 어머니와 인연을 맺었다. 그 사실을 모른 채 계연을 옥화에게 맡기고 화갯골로 들어간다. 본래는 아예 양팔로 말길 심산이었던 듯하나, 고향 친구의 아들을 만나 계연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간다.
계연	옥화의 이복동생. 아버지를 따라 화개장터에 와 옥화의 주막에 잠시 맡겨진다. 옥화와 자매라는 사실을 모른 채 성기를 사랑하게 되지만, 결국 아버지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간다.

주제

운명의 수용을 통한 인간의 구원

출제 포인트

- ① 「역마」에는 인물과 그 인물이 타고난 운명과의 갈등이 두드러지게 형상화되어 있다. 대상이 특정 인물이나 사회가 아니라 운명인 만큼 그 갈등 양상은 보다 처절하고 애처롭게 그려진다고 볼 수 있다. 아들의 역마살을 풀기 위해 ‘성기’와 ‘계연’을 이어주려 노력하다 ‘계연’이 이복동생임을 알고 무력해진 ‘옥화’의 모습과 헤어짐으로 슬퍼하는 ‘계연’의 모습, 이별 후 앓아누웠다가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길을 떠나는 ‘성기’의 모습에서 그 처절함과 애처로움이 부각된다고 볼 수 있다.

[앞부분 줄거리] 옥화는 아들 성기의 타고난 역마살을 풀기 위해 갖은 노력을 한다. 그러던 어느 날, 체장수 영감이 딸 계연을 데리고 와 옥화네 주막에 맡기고 떠난다. 옥화는 아들 성기의 역마살을 풀기 위해 체장수 딸 계연과 성기를 이어주려 한다.

“계연아, 오빠 세숫물 놔드려라.”

이튿날 아침에도 옥화는 상돌 엄마를 부엌에 둔 채 역시 계연에게 성기의 시중을 들게 하였다. 세숫물을 놓는 일뿐 아니라 숟가락을 들고 다니는 것이나 밥상을 차려 오는 것이나 수건을 찾아주는 것이나 성기에 따른 시중은 모조리 그녀로 하여금 들게 하였다. 그러고는

“아이가 맘이 컴컴치 않고, 인정이 있고, 얄미운 데가 없어.”

옥화는 자랑삼아 이런 말도 하였다.

“저의 아버지는 월일인지 반역지 비슷하게 거저 곧장 나만 믿겠다고, 아주 양팔처럼 나한테다 맡기구 싶은 눈치더라만…….”

옥화는 잠깐 말을 끊어서 성기의 낮빛을 살피고 나서 다시

“그래, 너한테도 말을 들어봐야겠고 해서 거저 대강 들을 만하고 있었잖나……. 언제 한번 데리고 가서 칠불(七佛) 구경이나 시켜줘라.”

하는 것이, 흡사 성기의 동의를 구하는 모양 같기도 하였다.

그리고 나서 옥화는 계연의 말을 옮겨, 구레 있는 저의 집이 래야 구레움에서 외파로 떨어진 산기슭 밑에서 이웃도 없이 있는 오막살인가 보더라고도 하였다.

“그럼 살림은 어찌고 나왔을까?”

“살림이래야 그까짓 거 방문에 자물쇠 채워두었으면 그만 아냐, 허지만 그보다도 나그넛길에 데리고 나선 계연이가 걱정이지.”

이러한 옥화의 말투로 보아서는 체장수 영감이 화갯골에서 나오는 대로 계연을 아주 양딸로 정해줄 생각인 듯이 보였다. 다만 성기가 꺼릴까 보아 이것만을 저어하는 눈치 같았다. 지금까지 몇 번이나 옥화는 성기더러 장가를 들라고 권했으나 그는 응치 않았고, 집에 술 파는 색시를 몇 차례나 두어도 보았지만 색시 쪽에서 간혹 성기에게 말썽을 내인 적은 있어도 성기가 색시에게 그러한 마음을 두는 일은 한 번도 있는 적이 없어, 이러한 일들로 해서, 이번에도 옥화는 그녀로 하여금 성기의 미움이나 받지 않게 할 양으로, 그녀의 좋은 점만 이야기하는 듯한 눈치 같기도 하였다.

아랫집 실과 가게에서 성기가 짚신 한 켤레를 사 들고 오려니 옥화는 비죽이 웃는 얼굴로 막걸리 한 사발을 그에게 떠주며

“오늘 날씨가 너무 덥잖나?”

고 하였다. 술 거를 때 누구에게나 맛보기 떠주기를 잘하는 옥화였다. 계연이는 방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었다.

“계연아, 너도 빨리 나와, 목마를 텐데 미리 좀 마시고 가거라.”

옥화는 방을 향해서도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

항라 적삼에 가는 삼베 치마를 갈아입고 나오는 계연은 그 선연한 두 눈의 흰자위 검은자위로 인하여 물에 어린 한 송이 연꽃이 떠오르는 듯하였다.

“꼭 스무 해 전에 내가 입었던 거다.”

옥화는 유감한 듯이 계연의 옷맵시를 살피주며 말했다.

“어제 꺼내서 품을 좀 줄여놨더니만 청승스리 맞는고나. 보기 보단 품을 여간 많이 입잖나, 이앤……. 자, 얼른 마셔라. 오빠 있음 무슨 내외할 사이냐?”

그러자 계연은 웃는 얼굴로 술잔을 받아 들고 방으로 들어가 마시고 나오는 모양이었다.

성기는 먼저 수양버드나무 밑에 와서 새 신발에 물을 축이 었다. 계연이도 곧 뒤를 따라나섰다. 어저께 성기가 칠불암까지 책값 수금 관계로 좀 다녀올 일이 있다고 했더니, 옥화가 그러면 계연이도 며칠 전부터 산나물을 캐러 간다고 버르는 중이고, 또 칠불암 구경은 어차피 한번 시켜주어야 할 계고 하니, 이왕이면 좀 데리고 가잖겠느냐고 하였다.

성기는 기슴도 좀 뛰고, 그래서, 나물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고, 싫다고 했더니 너더러 누가 나물까지 캐라느냐고, 앞에서 길만 끌어주면 되잖느냐고 우기어, 기승한 어머니에게 성기는 더 항변을 못 하고 말았던 것이다.

[중략 부분 줄거리] 옥화는 계연의 왼쪽 귓바퀴에 난 사마귀를 발견하고 자신의 동생이 아닐까 의심한다. 체장수 영감이 돌아와 들려준 이야기로 계연이 옥화의 이복동생임이 밝혀진다.

“여수 쪽으로 가시게 되면 영영 못 보게 되겠구만요.”

옥화도 영감을 따라 일어서며 이렇게 말했다.

“사람 일을 누가 알간디, 인연 있음 또 볼 터이지.”

영감은 커다란 미투리에 발을 끼며 말했다.

“아가, 잘 가거라.”

옥화는 계연의 조그만 보파리에다 돈이 든 꽃주머니 하나를 정표로 넣어주며 하직을 하였다.

계연은 애걸하듯 호소하듯 한 붉은 두 눈으로 한참 동안 옥화의 얼굴을 쳐다보고만 있었다.

“또 오너라.”

옥화는 계연의 머리를 쓸어주며 다만 이렇게 말하였고, 그러자 계연은 옥화의 가슴에다 얼굴을 묻으며 영영 소리를 내어 울기 시작하였다.

옥화가 그녀의 그 물결같이 흔들리는 둥그스름한 어깨를 쓸어주며

“그만 울어. 아버지가 저기 기다리고 계신다.”

하는 음성도 이젠 아주 풀이 죽어 있었다.

“그럼 편히 계시오.”

영감은 옥화에게 하직을 하였다.

“할아버지 거기 가보시고 살기 여의찮거든 여기 와서 우리 하고 같이 삽시다.”

옥화는 또 한 번 이렇게 당부하는 것이었다.

“오빠, 편히 사시오.”

계연은 이미 시뻘겋게 된 두 눈으로 성기의 마지막 시선을 찾으려 하직 인사를 했다.

성기는 계연의 이 말에, 꿈을 깬 듯, 마루에서 벌떡 일어나, 계연의 앞으로 당황히 몇 걸음 어둑어둑 걸어오다간, 돌연히 다시 정신이 나는 듯 그 자리에 화석처럼 발이 굳어버린 채, 한참 동안 장승같이 계연의 얼굴만 멍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오빠, 편히 사시오.”

이렇게 두 번째 하직을 하는 순간까지도, 계연의 그 시뻘겋은 두 눈은 역시 성기의 얼굴에서 그 어떤 기적과도 같은 구원만을 기다리는 것이었고 그러나, 성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릴 뻔하던 것을 겨우 버드나무 가지를 움켜잡을 수 있었을 뿐이었다.

출제 포인트

- ② 소설의 공간적 배경으로 등장하는 ‘화개 장터’는 전라도와 경상도의 경계에 있는 장터로서 떠돌이들이 모이고 흩어지는 장소이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장소인 ‘화개 장터’는 ‘옥화’의 어머니가 남사당패와 정을 통하여 ‘옥화’를 갖게 된 장소이면서 ‘옥화’가 떠돌이 승려와 인연을 맺어 ‘성기’를 낳은 장소이며, ‘성기’와 ‘계연’의 사랑이 이뤄질 뻔한 장소이기도 하다. 즉, 3대에 이르는 사건이 벌어지며 역마살이라는 운명이 순환하는 공간으로 그려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나이 예순도 훨씬 더 넘어 보이는 늙은 체장수 하나가, 첻바퀴와 바닥감들을 어깨에 걸머진 채 손에는 지팡이와 부채를 들고 옥화에 주막을 찾아왔다. 바로 그 뒤에는 나이 열대여섯 살쯤 나 보이는 몸매가 호리호리한 소녀 하나가 조그만 보따리를 옆에 끼고 서 있었다. 그들은 무척 피곤해 보였다.

“저 큰애기까지 두 분입니까?”

옥화는 노인보다 ‘큰애기’의 얼굴을 바라보며 이렇게 물었다. 노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저녁상을 물린 뒤 노인은 옥화에게 인사를 청했다. 살기는 구례에 사는데 이번엔 경상도 쪽으로 별이를 떠나온 길이라 하였다. 본시 여수가 고향인데 젊어서 친구를 따라 한때 구례에 와서도 살다가, 그 뒤 목포로 광주로 전전하였고, 나중 진도로 건너가 거기서 열일여덟 해 사는 동안 그만 머리털까지 세어져서는, 그래 몇 해 전부터 도로 구례에 돌아와 사는 것이라 하였다. 그렇지만 저런 큰애기를 데리고 어떻게 다니느냐고 옥화가 묻는 말에 그렇잖아도 이번에는 죽을 때까지 아무 데도 떠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인데 떠나지 않고는 두 식구가 가만히 굶을 판이라 할 수 없었던 것이라 했다.

“그럼, 저 큰애기는 할아버지 딸입니까?”

옥화는 ‘남꽃불’ 그림자가 반쯤 비친 바람벽 구석에 붙어 앉아가끔 그 환한 두 눈으로 이쪽을 바라보곤 하는 소녀의 동그스름한 어깨를 바라보며 이렇게 물었다.

노인은 또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 평생 객지로만 돌아다니고 나니 이제 고향 삼아 돌아온 곳(구례)이라야 또한 객지라 그들 아버 딸이 어디다 힘을 입고 살아가야 할는지 아무 데도 의탁할 곳이 없다고 그들의 외로운 신세를 한탄도 했다.

“나도 젊었을 때는 노는 것을 좋아했지라요. 동무들과 광대도 꾸며갖고 댕겨봤는데 젊어서 한번 바람 들어놓게 평생 못 잡기 마련이랑게……. 그것이 스물네 살 때 정초님께 꼭 서른여섯 해 전일 것이여, 바로 이 장터에서도 하룻밤 논 일이 있었지라요.”

노인은 조용히 추억의 실마리를 더듬는 듯, 방 안을 두리번거리며 살피보곤 하는 것이었다.

“어이유! 참 오래전일세!”

옥화는 자못 놀라운 시늉이었다.

이튿날은 비가 왔다.

화개장날만 책전은 펴는 성기는 내일 장 볼 준비도 할 겸 하루를 앞두고 절에서 마을로 내려오고 있었다.

쌍계사에서 화개장터까지는 시오 리가 좋은 길이라 해도, 굽이 굽이 벌어진 물과 돌과 산협이 장려한 풍경은 언제 보나 그에게 길멀미를 내지 않게 하였다.

처음엔 글을 배우러 간다고 할머니에게 손목을 끌리다시피 하여 간 곳이 절이었고, 그다음엔 손윗동무들의 사랑에 끌려 다니다시피쯤 하여 왔지만 이즘 와서는 매일같이 듣는 북소리, 목탁 소리, 그리고 그 경을 치게 희맑은 은행나무, 염주나무, 이런 것까지 모두 싫증이 났다.

당초부터 어디로 훨훨 가보고나 싶던 것이 소망이었지만, 그러나 어디로 간다는 건 말만 들어도 당장에 두 눈이 시뻘개져서 역정을 내는 어머니였다.

“서방이 있나, 일가친척이 있나, 너 하나만 믿고 사는 이년의 팔자에 너조차 밤낮 어디로 간다고만 하니 난 누굴 믿고 사냐?”

어머니의 낯두리는 인제 귀에 못이 박일 정도였다.

이러한 어머니보다도 차라리, 열 살 때부터 절에 보내어 중질을 시켰으니, 인제 역마살도 거진 다 풀려갈 것이라고 은근히 마음을 느꾸시는¹⁾ 편이던 할머니는, 그러나 갑자기 세상을 떠나버렸다. 당사자라면 다시는 더 사족을 못 쓰던 할머니는, 성기가 세 살 났을 때 보인 그의 사주에 시천역²⁾이 들었다 하여 한때는 얼마나 낙담을 했던 것인지 모른다. 하동 산다는 그 키가 나지막한 명주 치마지고리를 입은 할머니가 혹시 갑자를축을 잘못 짚지나 않았나 하여, 큰절(쌍계사를 가리킴)에 있는 어느 노장에게도 가 물어보고 지리산 속에서 도를 닦아 나온다면 어떤 키 큰 영감에게도 다시 뵈어봤지만 시천역엔 모금도 요동이 없었다.

“천성 제 애비 팔자를 따라갈려는 게지.”

할머니가 어머니를 좀 비꼬아 하는 말이었으나 거기 깊은 원망이 든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이런 말엔 각별하게 신경을 쓰는 옥화는

“부모 안 닮는 자식 없단다. 근본은 다 엄마 탓이지.”

도리어 어머니에게 오금을 박고 들었다.

“이년아 예미한테 너무 오금 박지 마라. 남사당을 붙었음, 너를 버리고 내가 그놈을 찾아갔나, 너더러 찾아달라 성화를 댔냐?”

그러나 서른여섯 해 전에 꼭 하룻밤 놀다 갔다는 젊은 남사당의 진양조 가락에 반하여 옥화를 배게 된 할머니나, 구름 같이 떠돌아다니는 중과 인연을 맺어 성기를 가지게 된 옥화나 다 같이 ‘화개장터’ 주막에 태어났던 그녀들로서는 별로 누구를 원망할 틈도 없는 어미 딸이었다. 성기에게 역마살이 든 것은 어머니가 중 서방을 정한 탓이요, 어머니가 중 서방을 정한 것은 할머니가 남사당에게 반했던 때문이라면 성기의 역마운도 결국은 할머니가 장본이라, 이에 할머니는 성기에게 중질을 시켜서 살을 때우려고도 서둘러보았던 것이고, 중질에서 못다 푼 살을, 이번에는, 옥화가 그에게 책장사라도 시켜서 풀어보려는 속셈인 것이었다. 성기로서도 불경보다는 암만해도 이야

1) ‘느꾸다’의 방언.

2) ‘역마살’을 의미함.

기책에 끌리는 눈치요. 중질보다는 차라리 장사라도 해보고 싶다는 소청이기도 하여, 그러나 옥화는 꼭 화개장만 보이기로 다짐까지 받은 뒤, 그에게 책전을 내주기로 했던 것이었다.

이해와 감상

〈두 파산〉은 1949년에 발표된 단편소설로, 광복 직후 정신적·경제적 가치관의 혼란으로 파산하는 두 인물을 통해 당시의 물질만능주의적 세태를 사실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신여성으로 자랐으나 경제적 무능력으로 지게 된 빚 때문에 경제적 파산을 하게 된 '정례 모친'과 윤리와 도덕과는 멀어진 채 물질만능주의에 빠져 정신적 파산을 겪는 '김옥임'의 갈등을 그려낸다. 이 갈등을 통해 작가는 두 유형의 파산을 보여주고 있으나, 어느 쪽이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는 인물인지에 대한 판단은 내리지 않는다. 이를 통해 비판의 대상은 인물 개인이 아니라, 인물들을 각각 파산에 이르게 만든 당시 사회 구조적 모순이 궁극적인 비판의 대상임을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전체 줄거리

정례네 학용품 상점에 교장이 찾아온다. 정례 어머니는 교장에게 밀린 지난달 이자를 내고, 이번 달 이자와 원금을 받으려 하는 교장에게 김옥임의 빚 10만 원과 은행빚 30만 원의 이자를 내기도 벅하다고 말한다. 그럼에도 교장은 이번 달 이자와 원금 5만 원을 요구하고, 정례 어머니는 저자세를 취하며 그를 달랜다. 그러던 중 교장이 김옥임이 자신의 20만 원 빚을 정례 어머니에게서 받으라고 했다고 전달한다. 정례는 옥임에게 받을 돈은 그에게서 받으라고 따진다. 교장은 옥임의 편을 들며 정례 어머니에게 돈을 받으려 하지만, 정례 어머니는 그럴 수 없다고 코웃음을 친다.

옥임이 내놓으라는 돈은 정례 모녀가 상점을 벌일 때 동업을 하겠다고 내놓은 10만 원에서 늘어난 빚이었다. 정례 어머니는 집문서를 담보로 잡아 가게를 열었고, 그럼에도 형편이 넉넉하지는 못해 고리대금을 하는 옥임의 동업 제안과 10만 원을 받아들였다. 옥임은 하는 일 없이 월말마다 2할의 배당을 받아 갔다. 그러던 어느 날 정례 아버지가 마지막 남은 땅을 팔아 시작한 택시사업이 실패하여 상점의 돈을 융통하기 시작했고, 이를 본 옥임은 자신이 내놓은 밀전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가게를 팔아서라도 자신의 돈을 내놓으라는 옥임의 요구에 정례 모녀는 분함을 느꼈지만, 결국 8만 원의 보증금 영수증을 옥임에게 담보로 내주고 출자금 10만 원은 1할 5푼 이자의 빚으로 돌려게 되었다. 정례 어머니는 옥임을 통해 알게 된 교장에게 5만 원을 더 빌려 기울어 가는 상점을 다시 일으켜 보고자 했다. 그러나 정례 아버지의 택시 사업은 빚만 남기고 끝났을 뿐이며 치솟는 물가로 인해 이자를 갚기도 쉽지 않았다. 그 결과 옥임에게 내야 할 이자가 여덟 달이나 밀려 빚은 총 22만 원이 되고 말았다. 그러자 옥임은 자신이 교장에게 진 22만 원의 빚이 있으니 정례 어머니에게 그 22만 원을 대신 갚아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소학교와 동경의 여자대학 시절까지도 모두 함께하고, 배당으로 20만 원 가까이 벌었으면서도 돈 문제로 잔혹하게 구는 옥임에 정례 어머니는 맥이 풀린다. 은행빚 30만 원과 옥임에게 진 빚 22만 원, 교장에게 진 빚 5만 원을 다 합한 57만 원의 빚은 정례 어머니에게 좌절을 안긴다. 그는 돈을 떼먹지 않겠다고 교장에게 화를

내고, 해방 덕에 빚놀이를 시작해 큰돈을 번 옥임이 교장에게 빚을 졌다는 것은 말도 안 되므로 이는 모두 변리를 더 얻어내려는 옥임의 수작이라고 생각한다. 교장은 석 달로 기한을 늘려 주겠다고, 자신이 조카에게 20만 원을 1할 이자로 빌려 쓸 테니 우선 22만 원 중 2만 원만 갚고 표를 쓰라고 권한다. 그러나 정례 어머니는 옥임에게 빌린 돈이니 옥임과 해결하겠다고 딱 잘라 교장을 쫓아낸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정례 어머니는 황토현 정류장에서 옥임과 마주친다. 옥임은 자신을 오라가라하는 정례 어머니를 아니꼬워하며 시비를 건다. 길바닥에서 대뜸 '젊은 서방'을 들추며 곤두세우는 옥임을 보며 정례 어머니는 30년간 보아 온 친구 옥임이 크게 달라졌음을 깨닫는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한 정례 어머니가 옥임을 끌고 가려 하자, 옥임은 많은 식솔을 건사하고 병들어 누운 늙은 영감의 약값을 벌려는 자신의 돈을 떼먹으려는 정례 어머니는 도둑년이라며 악을 쓴다. 정례 어머니가 애써 달래 뒤통목으로 데려가려 하지만, 옥임은 돈을 내놓으라며 난장을 피운다. 정례 어머니는 생전 처음 당하는 모욕을 견디다 못해 골목길로 도망치고, 서러움에 눈물을 보인다. 옥임은 20대 후반까지도 동경에서 신여성으로 지내다 지금 남편의 후처로 들어가 호강하며 살았다. 그러나 그 남편은 중풍에 걸려 3년째 누워 있으며 해방이 됨과 동시에 반민자¹⁾가 되게 생겼으므로, 옥임은 제 살길을 차리겠다고 고리대금업을 시작한 것이다. 정례 어머니는 상하 식솔을 혼자 떠맡고 남편의 약값을 제 손으로 벌어야 한다는 옥임의 우는소리가 옥을 덜 먹기 위한 발뻘이라고 여긴다.

옥임은 달아나는 정례 어머니를 비웃으며 후련함과 시원함을 느낀다. 그는 자기보다 훨씬 늙어 보이고 살림에 찌든 그에게 젊은 서방이 과분하다고 생각하며, 자식 없이 군식구들만 들썩이고 늙은 영감의 병수발이나 하는 자신보다 잘 키워 놓은 자식들과 한창 때인 남편에 둘러싸인 정례 어머니의 팔자가 낫다고 생각한다. 옥임은 정례 어머니에게 이년 저년을 붙여 가며 난장을 피우고 속이 후련한 것이 은연중의 시기나 자기 화풀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도, 교장에게 들러 한 소리 해 두었으니 다음날 표라도 받아다 달라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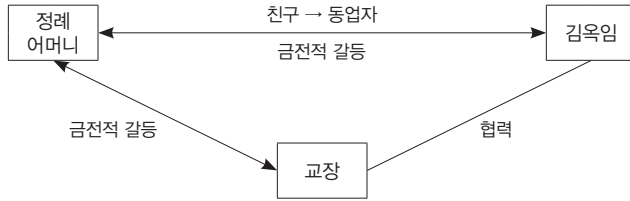
이튿날 교장은 다시 정례네 상점을 찾아와 수작을 부린다. 정례 어머니는 셰익스피어 원서며 『인형의 집』을 읽던 옥임이 돈만 밝히게 된 사실이 가엾다며, 자신은 살림이 파산 지경이지만 옥임은 성격 파산인 듯하다고 웃으며 하소연한다. 교장은 자기변명처럼 옥임의 편을 들고, 정례 어머니는 20만 원 표에 2만 원 현금을 얹어서 내놓는다.

이후 정례 어머니는 두 달에 걸쳐 교장의 5만 원 빚을 갚고도 석 달째에 상점을 빼앗기고 만다. 20만 원이 석 달치 이자가 붙은 26만 원으로 늘어났고, 정례 모녀는 상점의 보증금까지 찾지 못하고 상점을 내놓게 된 것이다. 옥임은 5만 원의 이익을 보고 상점을 교장에게 팔아넘겼고, 교장은 손에 넣은 상점을 딸 부부에게 넘겨

1) 제 민족에게 반역한 자. 여기서는 친일파를 이름.

준다. 죽 쭈어 개 준 꼴이 되자 정례 어머니는 몸살감기와 울화로 앓아눕고, 정례 아버지는 옥임에게 수작을 부려 돈을 되찾겠다며 앓아누운 부인 옆에서 껄껄 웃는다.

등장 인물



정례 어머니	무능한 남편 대신 학용품 상점으로 가게를 꾸리고 있다. 본래는 동경에서 여자대학까지 나온 엘리트 이나, 현재는 57만 원의 빚을 짊어지고 파산 직전에 처해 있다. 고리대금을 건디다 못해 옥임에게 가게를 빼앗기고 앓아눕는다.
김옥임	정례 어머니와 소학교부터 여자대학까지 함께 다녔으며, 친일파인 늙은 영감의 후처가 되었다. 그러나 해방 후 남편은 중풍으로 쓰러졌고 본인은 반민자의 아내가 될 처지에 놓였다. 이를 간판으로 악독한 고리대금업자 노릇을 하고 있으며, 젊은 남편과 잘 자란 자식들에 둘러싸인 정례 어머니를 시기한다. 정례네 상점을 빚 대신 빼앗아 교장에게 팔아넘긴다.
교장	고리대금업자. 해방 전 보통학교 교장이었다는 이유로 정례 모녀에게 교장 선생님이라고 불린다. 이복에서 내려온 딸 내외에게 주고 싶어 정례네 상점에 눈독을 들이며, 끝내 상점을 사들여 딸에게 준다.

주제

해방 직후 경제적, 정신적 파산에 이른 두 인물을 통한 사회 구조적 모순에 대한 풍자

출제 포인트

- ① 「두 파산」에는 다양한 갈등 양상이 제시된다. 채권과 채무 관계로 인해 발생한 '정례 모친'과 '옥임'이, 이익을 추구하는 속물적인 '교장'과 인정을 중시하는 '정례 모친'이, 경제적 가치만 추구하는 '옥임'과 순수한 이상을 가진 '정례'가 대립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대립들의 중심에는 모두 '돈'의 문제 또는 '돈'을 바라보는 관점에 의한 차이가 전제되어 있다. '돈'을 중심으로 다양한 갈등 양상이 제시되는 점에서, 해방 직후 물질 만능주의가 만연한 사회 풍조에 대한 비판이라는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자 했다고 볼 수 있다.
- ② 작품의 제목인 '두 파산'은 '옥임'의 정신적 파산과 '정례 모친'의 물질적 도산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옥임'은 시대의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여 경제적 어려움이 없으나 부도덕한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해방 직후 물질만능주의에 빠진 부유층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정례 모친'은 성실하게 살고 있으나 경제 능력이 부족한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해방 직후 혼란한 현실에 나약하게 무너지고 마는 소시민의 모습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앞부분 줄거리] 옥임은 길바닥에서 정례 어머니를 향해 '젊은 서방'을 들추며 빌린 돈을 갚으라고 큰소리친다. 정례 어머니는 옥임을 달래 보지만 옥임은 계속해서 자신의 불쌍한 처지를 말하며 돈을 달라고 난장을 피운다. 정례 어머니는 생전 처음 당하는 모욕에 골목길로 도망친다.

스물예닐곱까지 동경 바닥에서 신여성 운동이네, 연애네, 어찌네 하고 멋대로 놀다가, 지금 영감의 후실로 들어앉아서, 세상 고생을 알까, 아이를 한번 낳아보았을까, 40 전의 젊은 한때를 도지사 대감의 실내마님으로 떠받들려 제멋대로 호강도 하여본 옥임이다. 지금도 어디가 40이 훨씬 넘은 중늬은이로 보이랴. 머리를 곱게 지지고 엷은 얼굴 단장에, 번질거리는 미국제 핸드백을 착 끼고 나선 땀시가 어느 댁 유한마담이지, 설마 1할, 1할 5푼으로 아귀다툼을 하고 어려운 예전 동무를 쫓아다니며 울리는 고리대금업자야 누가 짐작이나 할까. 해방이 되자, 고리대금이 전당국 대신으로 터놓고 하는 큰 생화가 되었지만, 옥임이는 반민자(反民者)의 아내가 되리라는 것을 도리어 간판으로 내세우고 부라퀴같이 댔된 것이다. 중경 도지사요, 전쟁 말기에는 무슨 군수품 회사의 취체역인가 감사역을 지냈으니 반민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날이면, 중풍을 3년째나 누웠는 영감이, 어서 돌아가주거나 하기 전에야 으레 걸리고 말 것이요, 걸리는 날이면 떠메어다가 징역은 시키지 않을지 모르되, 지니고 있는 집간이며 땅섬지기나마 몰수를 당할 것이니, 비록 자신은 없을망정 자기는 자기대로 살길을 차려야 하겠다고 나선 길이 이 길이었다. 상하 식술을 혼자 떠맡고 영감의 약값을 제 손으로 벌어야 될 가련한 신세같이 우는 소리를 하지마는 그래야 남의 욕을 덜 먹는 발뺌이 되는 것이다.

옥임이는 정례 모친이 혼쭐이 나서 달아나는 꼴을 그것 보라는 듯이 결눈으로 흘려보고 입귀를 셀룩하여 비웃으며, 버젓이 사람 틈을 헤치고 종로 편으로 내려갔다. 의기양양할 것도 없지마는, 가슴속이 후련하니 머릿속이고 가슴속이고 무언지

몽치고 비비 꼬이고 하던 것이 확 풀어져 스러지고 회가 제대로 도는 것 같아서 기분이 시원하다. 그러나 그 몽치고 비비 꼬인 것이라는 것이 반드시 정례 어머니에게 대한 악감정은 아니었다. 옥임이가 그 오랜 동무에게 이렇다 한 감정이 있을 까닭은 없었다. 다만 아무리 요새 돈이라도 20여만 원이라는 대금을 받아내려면 한번 혼을 단단히 내고 제독을 주어야 하겠다고 버르기는 하였지만, 열떨결에 나온다는 말이 젊은 서방을 둔 떠세나 무어냐고 한 것은 구석 없는 말이었고 지금 생각하니 우스웠다. 그러나 자기보다도 훨씬 늙어 보이고 살림에 찌든 정례 모친에게는 과분한 남편이라는 생각은 늘 하던 옥임이기는 하였다. 남의 남편을 보고 부럽다거나 샘이 나거나 하는 그런 물상식한 옥임이도 아니지마는 자식도 없이 군식구들만 들썩거리는 집에 들어가서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늙은 영감의 방을 들여다보면 공연히 짜증이 나고, 정례 어머니가 자식들을 공부시키느라고 어려운 살림에 얹매고 고생하나, 자기보다 팔자가 좋다는 생각도 나는 것이었다. 내년이면 공과 대학을 나오는 맏아들에 중학교에 다니는 어머니보다도 키가 큰 둘째아들이 있고, 딸은 지금이라도 사위를 보게 다 길러놓았고, 남편은 편둥편둥 놀며 마누라가 조리차를 하는 용돈이나 받아 쓰고, 자동차로 땅뺨기는 까불렸을망정 신수가 멀쩡한 호남자가 무슨 정당이라나 하는 데 조직부장이니 훈련부장이니 하고 돌아다니니 때를 만나면 아닌 게 아니라 장래 대신이 되지 말라는 법도 없을 것이다. 팔구 삭 동안 동사를 하느라고 매일 들러서 보면, 젊은 영감을 등이라도 두드리고 머리를 쓰다듬어줄 듯이 지성으로 고이는 꼴이란 아닌 게 아니라 옆에서 보기에든 부러운 생각이 들 때가 없지 않았지만, 결혼들을 처음 했을 예전 시절이나 도지사(道知事) 관사에 들어서 드날릴 때야 어디 존재나 있던 위인들이냐? 그것이 처지가 뒤바뀌어서 관 속에 한 발을 들여놓은 영감이나마 반민자로 지목이 가다니, 이런 것 저런 것을 생각하면 쪽쪽 뿜아놓는 자식들과 한참 활동적인 허우대 좋은 남편에 둘러싸여 재미있고 기운껏 차게 사는 양이 역시 부럽고 저희만 잘된다는 것이 시기도 나는 것이었다. 보기 좋게 이년 저년을 붙이며 한바탕 해대고 나서 속이 후련한 것도 그러한 은연중의 시기였고, 공연한 자기 화풀이였던지 모른다.

옥임이는 그길로 교장 영감 집에 들러서,

“혼을 단단히 내주었으니까 인제는 판소리 안 할 거외다. 내일 가서 표라두 받아다 주슈.”

하고 일러놓았다.

“오늘은 아귀를 지어주시렵니까? 언제 갚으나 갚고 말 것인데 그걸루 의상할 거야 있나요?”

이튿날 교장이 슬쩍 들러서 매우 점잖은 수작을 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교장 선생님부터가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김옥임이가 그렇게 되다니 불쌍해 못 견디겠어요. 예전에 셰익스피어의 원서를 끼구 다니고, 『인형의 집』에 신이 나구, 엘렌 케이의 숭배자요 하던 그런 옥임이가 동냥자루 같은 돈 전대를 차구 나서면 세상이 모두 노랑 돈뎛으로 보이는지, 어련에 코 묻은 돈뎛이나 바라고 이런 구멍가게에

나와 앉았는 나두 불쌍한 신세지마는 난 옥임이가 가엾어서
어제 울었습니다. 난 살림이나 파산 지경이지 옥임이는 성격
파산인가 보더군요…….”

정래어머니는 분하다 할지 딱하다 할지 속에 맺히고 서린
불쾌한 감정을 스스로 풀어버리려는 듯이 웃으며 하소연을
하는 것이었다.

출제 포인트

- ③ ‘옥임’과 ‘정례 모친’의 채무 관계로 인한 갈등에서 ‘교장’은 ‘옥임’의 편에 선 뒤 부정적 행동을 하는 매개 인물로 등장한다. ‘옥임’이 ‘정례 모친’에게 출차했다가 빚으로 전환한 돈의 이자를 대신 받아 내는 역할을 하며 빚 독촉을 하는 모습과 ‘정례 모친’이 빚을 갚지 못해 결국 내어놓게 된 문방구를 자신의 딸 내외에게 주는 모습에서 자신의 탐욕을 위해 부정적 행위를 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 그런데 김옥임 여사가 무어라지 않습니까?”

그만 일어설 줄 알았던 교장은 담배를 붙이며 새판으로 말을 꺼낸다.

“왜. 무어라구 해요?”

정례 모녀는 무슨 말이 나오려는지 벌써 알아채고 입이 뻐죽들 하여졌다.

“글쎄. 그 20만 원 조건을 대지르구 날더러 예서 받아가라니 그대 어떻게들 이야기가 귀정이 났지요?”

영감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정례는 잔뜩 버르고 있었던 듯이 모친의 앞장을 서서 가로 탄한다.

“교장 선생님! 그따위 경위 없는 말이 어디 있어요? 그건 요나마 우리 가게를 판 들어먹게 하구 말했던 말이지 뭐예요!”

하고, 얼굴이 발끈해지며 눈을 세로 뜬다.

“응? 교장이라니? 교장은 별안간 무슨 교장…… 허허 허…….”

영감은 허청 나오는 웃음을 터뜨리며 저편 아이들을 잠깐 거들떠보고 나서.

“글쎄, 그러니 뻔히 사정을 아는 티에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하며 말끝을 어물어물해버린다. 이 영감이 해방 전까지 어느 시골선지 오랫동안 보통학교 교장 노릇을 하였다는 말을 옥임에게서 들었기에 이 집에서는 이름은 자세히 모르고 하여 교장 교장 하고 불려왔던 것이 입버릇으로 급히 튀어나온 말이나, 고리대금업의 패를 차고 나선 지금에는 그것을 내세우기도 싫고, 더구나 저런 소학교 아이들 앞에서는 창피한 생각도 드는 눈치였다.

“교장 선생님이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으실 게 뭐예요. 그 아주머니한테 받으실 건 그 아주머니한테 받으십시오.”

정례는 또 모친이 입을 벌릴 새도 없이 퐁퐁 쏘아준다.

“앤 왜 이러니!” 모친은 딸을 나무라놓고,

“그렇겐 못하겠다구 벌써 끝낸 말인데 또 왜 그럴꾸.”

하며, 말을 잘라버린다.

“아, 그런데 김씨 편에서는 댁에서 승낙한 듯이 말하던데요?”

영감의 말눈치는 김옥임이 편을 들어서 20만 원 조건인가를 여기서 받아내려는 생각인 모양이다.

“판소리! 내가 아무리 어수룩하기루 제 사폐만 봐주구 제 춤에만 놀까요?”

정례 어머니는 코웃음을 쳤다.

김옥임이의 20만 원 조건이라는 것이, 요사이 이 두 모녀의 자나깨나 큰 걱정거리요. 그것을 생각하면 밥맛이 다 없을 지경

이지마는, 자초(自初)는, 정례 모녀가 이 상점을 벌이고 나자, 장사가 잘될 성부르니까 김옥임이가 저도 한몫 끼자고 자청을 하여 10만 원을 들여놓고 들어왔던 것이다. 그리고 그 가지고 들어온 동사 밀천 10만 원의 두 곱을 빼가고도 또 새끼를 처서 오늘에 와서는 22만 원까지 달라는 것이다.

[중략 줄거리] 길거리에서 정례 모친을 만난 옥임은 큰 소리로 돈을 갚으라며 난장을 피운다. 정례 모친은 큰 치욕감을 느끼며 도망친다. 그 후 정례 모친은 교장에게 자신은 살림이 파산 지경이지만 옥임은 성격 파산인 듯하다고 웃으며 하소연한다.

정례 어머니는 분하다 할지 딱하다 할지 속에 맺히고 서린 불쾌한 감정을 스스로 풀어버리려는 듯이 웃으며 하소연을 하는 것이었다.

“그런 말씀을 하시니 나두 듣기에 좀 괴란쩍습니다마는 다 어려운 세상에 살자니까 그런 거죠. 별수 있나요. 그래도 제 돈 내놓고 싸든 비싸든 이자라고 명토 있는 돈을 어엿이 받아먹는 것은 아직도 양심이 있는 생활입니다. 입만 가지고 속여먹고 등쳐 먹고 알로 먹고 꿩으로 먹는 허울 좋은 불한당 아니고는 밥알이 올곧게 들어가지 못하는 지금 세상 아닙니까…… 허허허.”

하고 교장은 자기변명인지 옥임이 역성인지를 하는 것이었다.

이날 정례 어머니는 딸이 옆에서 한사코 말리며, “그따위 돈은 안 갚아도 좋으니 정장을 하든 어찌든 마음대로 하라구 내버려두세요” 하며 팔팔 뛰는 것을 모른 척하고 20만 원 표에 2만 원 현금을 엮어서 옥임이 갖다가 주라고 내놓았다.

정례 모친은 그 후 두 달 걸려서 교장 영감의 5만 원 빚은 갚았으나, 석 달째 가서는 이 상점 주인이 바뀌어 들고야 많았다. 정말 교장 영감의 조카가 나서나 하였더니 교장의 딸 내외가 들어앉았다. 상점을 내놓고 만 바에는 자질구레한 셈속을 따진 대야 죽은 아이 귀 만져보기지 별수 없지마는, 하여튼 20만 원의 석 달 변리 6만 원이 또 늘어서 26만 원인데 정례 모녀가 사글세의 보증금 8만 원마저 못 찾고 두 손 털고 나선 것을 보면, 그 8만 원을 아끼고 남은 18만 원을 점방의 설비와 남은 물건값으로 치운 것이었다. 물론 옥임이가 뒤에 앉아 맡은 것이나. 권리 값으로 5만 원 더 없어서 교장 영감에게 팔아넘긴 것이었다. 옥임이는 좀 더 남겨먹었을 것이로되 교장 영감이 그 빚 받아내는 데에 공로가 있었기 때문에 5만 원만 없어 먹고 말았고, 또 교장은 이북에서 내려온 딸 내외에게는 톱 알맞은 장사라는 생각이 있어서 애초부터 침을 삼키고 눈독을 들이던 것이라. 이 상점을 손에 넣으려고 애도 썼지마는, 매득하였다고 좋아하였다.

정례 모녀는 1년 반 동안이나 죽도록 벌어서 죽 쑤어 개 좋은 일 한 셈이라고 절통을 하였으나 그보다도 정례 모친은 오래간 만에 몸이 편해져서 그렇기도 하였겠지만 몸살감기에 율화가 터져서 그만 누운 것이 반달이나 끝었다.

Memo

이해와 감상

〈유예〉는 1955년에 발표된 단편소설로, 6·25 전쟁을 배경으로 하여 전쟁의 비극성과 인간성 파괴에 대한 비판을 그려낸 작품이다. 인민군 포로로 처형되기 전 한 시간의 유예 시간 동안 주인공의 의식의 흐름대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1인칭과 3인칭의 시점을 교차해 가며 주인공의 의식을 중심으로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면서 극한의 상황에서 인간이 겪는 내면적 고뇌를 그려낸다. 인간의 생명이 무가치하다는 주인공의 상념을 생생하게 드러냄으로써 전쟁의 비극성과 인간성 파괴라는 주제 의식을 형상화하고 있다.

전체 줄거리

몸을 웅크린 채 가마니 속에 쓰러져 있는 ‘나’는 자신이 누운 주변을 둘러보고, 귀퉁한 냄새로 자신이 놓인 차가운 움 속에 며칠 전까지 누군가 있었음을 짐작한다. ‘나’는 자신을 움 속에 던져놓은 이들의 대화를 복기하며 바로 전에 움에 있던 사람이 자신이 목격하고 구하려 애썼던 이였는지 궁금해한다.

몽롱한 정신 속에서 그는 자신의 소속 사단이나 학벌, 공산주의나 미국에 대한 의견을 질문받은 대화를 떠올린다. 상대는 ‘나’에게 계급 의식이 그대로 남아 있으니 다시 생각할 유예 시간을 주겠다고, 한 시간 후 ‘나’의 답변이 모든 것을 결정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움 속 감방으로 끌려 오던 순간을 회상한다. 그는 자신이 한 시간 후면 북한군에게 총살당할 것이라고, 총살은 그들에게 평범한 일이므로 그들은 자신을 죽인 후에도 아무 일이 없었던 듯 일상을 보낼 것이라고 짐작한다. ‘나’는 싸우다 죽는 것이 인간의 본연이며 그 무엇을 위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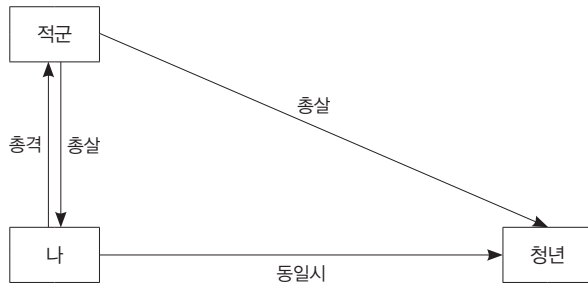
‘나’는 북으로 진격하던 일을 회상한다. 그의 수색대는 적의 배후 깊숙이 파고들었고, 본대와와의 연락이 끊어지기 시작했으며, 후퇴 중에 적에게 당하거나 눈과 추위 속에 낙오되는 이가 늘어 갔다. 대원들은 차츰 눈과 굶주림과 추위 속에 죽어 갔고, 소대장인 ‘나’는 매번 부하들의 마지막 시신을 지켰다. 고작 여섯 명 남은 인원으로서 XX 지점에 도달하자 평지와 대로가 나왔지만, 선임 하사가 적군의 흔적을 발견했다. 적군을 피하기 위해 소대원들은 밤을 틈타 대로를 건너 산으로 향했으나 산에 거의 다 도착했을 무렵 적군에게 공격당했다. ‘나’는 총에 맞은 선임 하사를 부축해 끌며 산속으로 들어갔다. 정신을 잃고 쓰러졌을 때는 새벽이 가까운 시점이었다.

‘나’는 추위에 몸을 떠다. 구두 발자국 소리가 가까워지자 그는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발자국 소리는 재차 멀어진다. 그는 몽롱하게 흠여지는 정신으로 적과의 대화를 회상한다. 상대는 ‘나’가 법과를 선택한 이유를 묻고, 계급적 인습 관념을 버리기를 종용하며, ‘나’와 같은 인물을 맞이할 마음의 준비가 되었다며 회유했다. 그러나 ‘나’가 그 얼굴을 차갑게 볼 뿐 말이 없는 모습을 보고는 ‘말하고 있는 모든 것을 이해’하겠다고 유감을 표했다.

‘나’는 다시금 산속의 일을 회상한다. 쓰러졌던 ‘나’는 해가 높아졌을 때에야 몸을 일으켰다. 선임 하사는 이제 자신의 차례가 왔다고 말했다. 선임 하사는 군대 생활이 무엇보다도 즐겁다고 말해 왔으며, 사람은 서로 죽이게끔 마련된 존재라고 믿었다. 사람이란 곧 싸우는 것, 싸우다 쓰러지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였다. ‘나’를 안심시킨 선임 하사는 양지로 기어가 나무에 기대 숨을 거뒀다. 혼자 남은 ‘나’는 몇 번이고 의식을 잃거나 굴러떨어지면서도 남쪽으로 걸었다. 며칠이고 밤이 오고 해가 뜨는 내내, 눈을 헤치며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그에게는 전부였다. 끝내 마을을 발견한 ‘나’는 몽클한 마음으로 마을로 내려가지만, 발자국 하나 없는 마을은 황량하기만 했다. 그때 멀리서 군인들이 다가왔고, ‘나’는 아군인지 적군인지 구별하기 위해 숨죽여 광경을 지켜본다. 담장에 몸을 숨기고 그들의 대화를 엿들은 ‘나’는 ‘동무’나 ‘총살’이라는 단어를 듣고, 내의 바람의 청년이 양손을 등 뒤로 묶인 채 맨발로 선 것을 발견했다. 인민의 처사에 이의가 있느냐는 적군 대장의 질문에, 청년은 포로가 되었을 때 자신이 하나의 생명체인 인간으로서 살았고 인간으로서 죽어 간다는 것을 느껴 기쁠 뿐이라고 답했다. 대장은 청년을 조소하며 독길을 따라 남쪽으로 걷기를 명령했다. ‘나’는 그가 곧 총살당할 것임을 직감하고, 독길을 걷는 것이 청년이 아닌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해 사수를 쏘았다. 계속해서 적군을 쏘던 ‘나’는 결국 피를 흘리며 쓰러지고 말았다. 그렇게 ‘나’는 움 속 감방으로 끌려왔고, 몇 차례의 심문을 거쳤다.

‘나’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나리라고 생각한다. 발자국 소리와 말소리가 들리고, 맑은 광선과 사닥다리가 내려온다. 빨리 나오라는 적군들의 고함과 독촉에 ‘나’는 감각 없는 무릎으로 애써 사다리를 오른다. 밖으로 나오자마자 쓰러진 ‘나’는 끝나는 그 순간까지 정확히 자신을 끝냈겠다는 의지로 일어서 걸음을 옮긴다. ‘나’는 청년이 걸었던 눈 쌓인 독길을 마주하고 가슴이 탁 트이는 기분을 느낀다. 적군은 총살을 준비하고, ‘나’는 끝까지 자신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마음으로 정확하게 걸음을 옮긴다. ‘나’는 뒤희리에 충격을 느끼지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의식이 어두워져가는 것을 느끼며 ‘나’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다. 적군은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일상을 보낼 것이고 누가 죽었건 지나가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며 ‘나’의 의식이 어두워진다.

등장 인물



‘나’

남한군 수색대를 이끄는 소대장. 적진에 깊이 침투했다가 본대와의 연락이 끊기고, 후퇴 중에 모든 소대원을 잃는다. 빈 마을에 혼자 도착했다가 북한군이 한 청년을 총살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청년을 자신과 동일시해 북한군에게 총을 쏘다 붙잡힌다. 움 속 감방에 갇히고 몇 차례의 심문을 거친 뒤 청년과 같은 방식으로 총살당한다.

주제

전쟁의 비극성과 인간성 파괴

출제 포인트

- ① 「유예」는 극한상황 속에서도 목숨을 구걸하지 않고 거짓된 삶을 살기를 거부하는 주인공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인간의 생명과 그 존엄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죽음에 대한 주인공의 반복적 발화는 삶과 죽음의 무의미성을 강조함으로써 전쟁의 비정함을 고발하는 것임과 동시에, 반어적으로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감추려는 내면의 의지와 삶이 끝나는 순간까지 자신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강박관념 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② 「유예」의 주인공은 자신이 처형당하는 장면을 내적 독백의 형식으로 상상하는데, 이 과정에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없는 의식의 흐름 기법을 통해 시간의 구분을 모호하게 하여 '과거 속의 미래'에 대해 서술한다. 의식의 흐름 기법은 객관적 사물, 내적 독백, 인물 대화를 구분 없이 서술하기도 하며, 의식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문장부호를 삭제하기도 하는데, 「유예」 또한 이러한 특징을 보인다. 주인공의 내면세계는 내적 독백으로 드러나고, 대화나 묘사는 주인공의 의식 속에서 재편성되어 나타나며, 주인공이 느낀 상황에 대한 감각만이 제시된다.

몸을 웅크리고 가마니 속에 쓰러져 있었다. 한 시간 후면 모든 것은 끝나는 것이다. 손과 발이 돌덩어리처럼 차다. 허영계 흠뻑마다 서리가 앉은 깊은 움 속, 서너 길 높이에 통나무로 막은 문틈 사이로 차가이 하늘이 엿보인다. 귀퉁한 냄새가 코를 찌른다. 냄새로 짐작하여 그리 오래된 것 같지는 않다. 누가 며칠 전까지 있었던 모양이군. 그놈이나 매한가지지, 하고 사닥다리를 내려서자마자 조그만 구멍으로 다시 끌어 올리며 서로 주고받던 그자들의 대화가 아직도 귀에 익다. 그놈이라고 불린 사람이 바로 총살 직전에 내가 목격하고 필사적으로 놈들의 사수(射手)를 향하여 방아쇠를 당겼던 그 사람이었을까…… 만일 그 사람이 아니었다면 또 어떤 사람이었을까…… 몸이 떨린다. 땀속까지 얼음이 박힌 것 같다.

소속 사단은? 학벌은? 고향은? 군인에 나온 동기는? 공산주의를 어떻게 생각하시오? 미국에 대한 감정은? 그럼…… 동무의 말은 하나도 이치에 닿지 않소.

동무는 아직도 계급의식이 그대로 남아 있소. 출신 계급을 탓하지는 않소. 오해하지 마시오. 그근성이 나쁘다는 것뿐이오. 다시 한 번 생각할 여유를 주겠소. 한 시간 후, 동무의 답변이 모든 것을 결정지를 거요.

몽롱한 의식 속에 갇혀 지나간 대화가 오고 간다. 한 시간 후면 모든 것은 끝나는 것이다. 사박사박 걸음을 옮길 때마다 발 밑에 부서지던 눈, 그리고 파발총구를 등 뒤에 느끼며 앞장서 가는 인민군 병사를 따라 무너진 초가집 뒷담을 끼고 이 움 속 감방으로 오던 자신이 마음속에 삼삼히 아른거린다. 한 시간 후면 나는 그들에게 끌려 예정대로의 독길을 걸어가고 있을 것이다. 몇 마디 주고받은 다음, 대장은 말할 테지, 종소. 뒤를 돌아다 보지 말고 똑바로 걸어가시오. 발자국마다 사박사박 눈 부서지는 소리가 날 것이다. 아니, 어쩌면 놈들은 내 옷에 탐이 나서 흘랑

빨가벗겨서 걷게 할지도 모른다(찢어지기는 하였지만 아직 색깔이 제 빛인 미[美] 전투복이니까……). 나는 빨가벗은 채 추위에 살이 빨가니 얼어서 흰 독길을 걸어간다. 수발의 총성, 나는 그대로 털썩 눈 위에 쓰러진다. 이윽고 붉은 피가 하얀 눈을 호젓이 물들여간다. 그 순간 모든 것은 끝나는 것이다. 놈들은 멧쩍게 총을 다시 거꾸로 돌려메고 본대로 돌아들 간다. 발의 눈을 털고 추위에 손을 비벼가며 방 안으로 들어들 갈 테지. 몇 분 후면 그들은 화롯불에 손을 녹이며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담배들을 말아 피우고 기지개를 할 것이다.

누가 죽었건 지나가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들에겐 모두가 평범한 일들이다. 나만이 피를 흘리며 흰 눈을 움켜쥔 채 신음하다 영원히 목살되어 묻혀갈 뿐이다. 전 근육이 경련을 일으킨다. 추위 탓인가…… 귀퉁한 냄새가 또 코에 스민다. 나만이 아니라 전에도 똑같이 이렇게 반복된 것이다.

싸우다 끝내는 죽는 것, 그것뿐이다. 그 이외는 아무것도 없다. 무엇을 위한다는 것, 그것도 아니다. 인간이 태어난 본연의 그대로 싸우다 죽는 것. 그것뿐이라고 생각하였다.

(중략)

눈이 함빡 쌓인 흰 독길이다. 오! 이 독길…… 몇 사람이나 이 독길을 걸었을 거냐. 흰칠히 트인 별판 너머로 마주 선 언덕, 흰 눈이다. 가슴이 탁 트이는 것 같다. 똑바로 걸어가시오. 남쪽으로 내뿜은 길이오. 것처럼 가고 싶어 하던 길이니 유감없을 거요. 걸음마다 흰 눈 위에 발자국이 따른다. 한 걸음 두 걸음 정확히 걸어야 한다. 사수 준비! 총탄 재는 소리가 바람처럼 차갑다. 눈앞엔 흰 눈뿐, 아무것도 없다. 인제 모든 것은 끝난다. 끝나는 그 순간까지 정확히 끝을 맺어야 한다. 끝나는 일 초, 일각까지 나를, 자기를 잊어서는 안 된다.

걸음걸이는 그의 의지처럼 또한 정확했다. 아무리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걸음걸이가 죽음에 접근하여 가는 마지막 길일지라도 결코 허튼, 불안한, 절망적인 것일 수는 없었다. 흰 눈, 그 속을 걷고 있다. 흰칠히 트인 별판 너머로, 마주 선 언덕, 흰 눈이다. 연발하는 총성. 마치 외부 세계의 잠음만 같다. 아니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그는 흰 속을 그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정확히 걸어가고 있었다. 눈 속에 부서지는 발자국 소리가 어렴풋이 들려 온다. 두런두런 이야기 소리가 난다. 누가 뒤통수를 잡아 일으키는 것 같다. 뒤허리에 충격을 느꼈다. 아니,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흰 눈이 회색빛으로 흩어지다가 점점 어두워간다. 모든 것은 끝난 것이다. 놈들은 멧쩍게 총을 다시 거꾸로 돌려메고 본부로 돌아들 갈 테지. 눈을 털고 추위에 손을 비벼가며 방 안으로 들어들 갈 것이다. 몇 분 후면 화롯불에 손을 녹이며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담배들을 말아 피우고 기지개를 할 것이다. 누가 죽었건 지나가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모두 평범한 일인 것이다. 의식이 점점 그로부터 어두워갔다. 흰 눈 위다. 햇볕이 따스히 눈 위에 부서진다.

출제 포인트

- ③ 「유예」는 허무의식에 바탕을 두고 있는 실존주의적 경향이 도입된 전후 불안한 시대의 풍조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작품으로 볼 수 있다. 인민군 포로가 되어 존재의 가치가 부정되는 고립된 상황에 처해 있는 주인공을 통해 인간이란 어떤 존재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근본적인 물음을 제시하며, 주인공의 과거 회상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이 파괴되는 현실에 대한 회의와 존재의 가치를 구현하고 있다. 이때 1인칭 주인공 시점을 통한 독백을 중심으로 하여 과거와 현재가 교차되는 양상을 보이다가,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시점이 혼재되어 나타나는 양상을 보인다.

“소대장님, 인제는 제 차례가 된 모양입니다.”

그는 조용히 선임 하사의 얼굴을 지켰다. 슬픈 빛이라고는 조금도 없다. 오랜 군대 생활에 이겨온 굳은 의지가 엿보일 뿐이다.

선임 하사, 그는 이차 대전 시 일본군에 소집되어 남양 전투에 종군하다 북지(北支)로 이동, 일본의 항복과 더불어 포로 생활이 개월을 거치고 팔로군(八路軍), 국부군, 시조(時潮)가 변전(變轉)되는 대로 이역(異域)을 표류하다 고국으로 돌아와 다시 군문으로 들어선 것이었다. 군대 생활이 무엇보다도 재미있다는 그, 전투가 자기 생활 속에서 제일 신이 나는 순간이라는 그였다.

“사람은 서로 죽이게끔 마련이오. 역사란 인간이 인간을 학살해온 기록이니까요. 그렇게 생각지 않으시오? 난 전투가 제일 재미있소. 전투가 일어나면 호흡이 벅차고 내가 겨누 총구에 적의 심장이 아른거릴 때마다 나는 희열을 느낍니다. 그 순간 역사가 조각되고 있는 것같이 느껴지거든요. 사람이란 별게 아니라 곧 싸우는 것을 의미하고, 싸우다 쓰러지는 것을 의미할 겁니다.”

이것이 지금껏 살아온 태도였다. 이것뿐이다. 인제 그는 총에 맞았다. 자기 차례가 된 것을 알 뿐이다. 어렴풋이 희미한 기억을 타고 선임 하사의 음성이 떠오른다. 그는 몸을 조금 일으키려고 꿈지럭거리다가 그대로 털썩 쓰러졌다. 바쁜 팔 위에 경련이 일어난다. 헛바닥을 꼭 깨물고 고통의 일순을 넘겼다. 인제 모든 것은 끝나는 것이다. 선임 하사의 생각이 이어온다.

“소대장님, 제 위치는 결정되었습니다. 안심하십시오.”

분명히 말을 끝낸 선임 하사는 햇볕이 조용히 깃드는 양지 쪽으로 기어가서 늪은 떡갈나무에 등을 기대고 앉았다.

햇볕을 받아가며 조용히 내리감은 눈, 비애도, 슬픔도, 고독도, 그 어느 하나도 없다. 다만 눈 속에 덮인 산속의 적막, 이것이 그의 얼굴 위에 내릴 뿐이다. 의식을 잃은 듯 몸이 점점 비스듬히 허물어지다가 털썩 쓰러졌다. 그는 급히 다가서서 선임 하사를 일으키려 하였다. 그 순간 눈을 가늘게 떴다. 입가에 미소가 가벼이 흐른다. 햇볕이 따스히 그 입가의 미소를 지킨다.

“이대로……”

눈을 감았다. 잠시 가는 숨결이 중단되며 이어갔다.

무릎까지 파묻히는 눈 속을 헤치며 남쪽으로 남쪽으로 걸었다.

몇 번이고 의식을 잃고 그대로 쓰러졌다. 때로는 눈보라와 종일 싸워야 했고 알 길 없는 방향을 더듬으며 헤매어야 했다. 발이 얼어 감각이 없다. 불안, 절망이 그를 엄습하기 시작하였다. 내가 잡은 이 방향이 정확한 것인가? 나의 지금 이 위치는? 상의할 아무도 없다. 나 하나뿐. 그렇다고 이대로 서 있을 수도 없다.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눈 속을 헤치며 걸었다. 어디까지 이렇게 걸어야 하는 것인가? 언제쯤 이렇게 걸어야 하는 것인가? 밤이면 눈 속에 묻혀서 잤다. 해가 뜨면 또 걸어야 한다. 계곡, 비탈, 눈에 쌓인 관목 숲, 깎아 세운 듯 강파르게 솟은 산마루, 그는 몇 번이고 굴러 떨어졌다. 무릎이 깨어지고 옷이 찢어졌다. 피로와 기아. 밤이면 추위와 더불어 고독이 엄습한다. 악몽, 다시 뒤덮이는 악몽, 신을 끝에 눈을 뜨면 적막과 어둠뿐. 자주 흠어지는 의식은 적막 속에 영원히 파묻혀만 간다. 나는 이대로 영원히 눈 속에 묻혀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밤은 지새고 또 새벽은 온다. 그는 일어났다. 눈 속을 또 헤쳐야 한다. 산세는 더욱 험악하여만 가고 비탈은 더욱 모질다. 그는 서너 길이나 되는 비탈길에서 감각을 잃은 발길의 헛갈림으로 굴러 떨어졌다. 잠시 의식을 잃었다가 다시 본정신이 들기 시작하였을 때 그는 어떤 강한 충격으로 입술을 짹 깨물었다. 전신이 쿡쿡 쑤신다. 그는 기다시피 하여 일어섰다. 부르짖 주먹이 푸들푸들 떨고 있다. 세 길…… 네 길…… 까마득하다. 그러나 올라가야만 한다. 그는 입을 악물고 기어오르기 시작하였다. 전신에서 땀이 비 오듯 흐른다. 정신이 다자꾸 흐린다. 하늘이 빙그르르 돈다. 그는 눈을 꼭 감고 나무뿌리를 움켜쥔 채 잠시 정신을 가다듬는다. 또 기어오른다. 나무뿌리가 흔들릴 때마다 눈덩어리와 흙덩어리가 부서져 내린다. 악전 끝에 그는 비탈에 도달하였다. 도달하던 순간 그는 의식을 잃고 그대로 쓰러졌다.

밤이 온다. 또 새벽이 온다. 그는 모든 것을 잊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눈을 헤치며 발걸음을 옮기는 것, 이것이 그에게 남은 전부였다. 총을 둘러멜 기운도 없어 허리에다 붙들어 매었다. 그는 다자꾸 흠어지는 의식을 가다듬어가며 발을 옮겼다.

한 주일째 되던 저녁, 어슴푸레하게 저녁이 깃들 무렵 그는 이 험한 준령을 정복하고야 말았다.

다음 날, 해가 어언간 높아졌을 무렵에 그는 눈을 떴다. 그는 순간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바로 눈앞, C자형으로 산줄기가 돌아나간 그 움푹 파인 복판에 집들이 점점이 산재하여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을 모르고 눈 속에서 밤을 보냈다니…… 소복이 집들이 둘러 앉은 마을!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핑 돌았다. 그는 눈물을 머금으며 마을로 내려갔다. 마을 어귀에 다다랐다. 집 문들이 제멋대로 열어젖혀진 채 황량하다. 눈이 마을 하나 가득히 쌓인 채 발자국 하나 없다. 돼지우리, 소 헛간, 아! 사람들이 사는 곳! 그는 방 안으로 들어갔다. 열어젖힌 창문…… 방바닥 하나 가득히 먼지 속에 흩어진 물건들…… 옷! 찢어진 낡은 옷들! 그는 그 옷들을 주워서 꼭 움켜쥐었다. 사람 냄새…… 땀국에 젖은 사람 냄새…… 방 안을 둘러본다. 너무도 황량하다. 사람 사는 곳이 이렇게 황량해질 수는 없는 것만 같이 느껴진다. 아무리 몇 번이고 보아온 그것이었다 할지라도……

이해와 감상

〈탐〉은 1970년에 발표된 단편소설로 ‘탐’을 소재로 하여 전쟁의 폭력성과 무의미함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작가 황석영은 이 작품을 쓰기 직전 베트남으로 파병을 다녀왔는데, 작가의 직접적 체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베트남 전쟁의 의미를 그려내고 있다. ‘탐’의 상징성이 서사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탐’은 베트남 민중의 사랑과 애착을 상징하고 베트남 불교 문화를 대표하는 대상으로 그려진다. 이러한 상징성 때문에 적군도 한국군도 ‘탐’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지만, 베트남 민중이나 불교 문화에 특별한 가치를 두지 않는 미군들은 ‘탐’을 단지 돌덩이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여겨 불도저로 가볍게 밀어 버린다. 작가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 뚜렷한 명분 없이 무의미한 죽음만을 낳은 전쟁의 부조리함을 고발하고자 했다고 볼 수 있다.

전체 줄거리

미군 혼성 지원 기지인 아메리칼 사단의 합동 기동순찰병이던 ‘나’는 본대로부터 작전 지역인 R에 도착한다. ‘나’는 본래 기지에서 포로 인계나 첩자 호송 등의 업무를 맡고 있었는데, 고향의 소식을 듣거나 전쟁의 참상을 마주할 때면 잠을 이루지 못했다. 또한 ‘나’는 파견대 책임조장인 하사에게 괴롭힘을 당하며 장교가 되지 못한 것과 작전에 지원하지 못한 것을 후회했다. 그러나 기지에서의 생활은 전투를 하고 있던 동료들에 비해선 호화로웠다.

그러한 ‘나’가 R에 가게 된 것은 여단이 북으로 이동하며 늘어난 외곽 경비로 인원이 부족해졌기 때문이었다. 하필 ‘나’는 이미 평정된 지역을 정부군에게 인계하는 마지막 일주일까지 남은 후발대였다. 치열한 전투로 생긴 R-포인트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누군가 차출되어야 했을 때, 외곽을 방어하거나 선발대로 떠난 본대 동료들 대신 후발대 파견 인원 중에서 제비뽑기로 떠날 사람을 골랐다가 ‘나’가 선택된 것이다. 동료들은 응원하며 여분의 탄창을 주고 ‘나’의 충을 바꿔 주었다.

본대원들이 식사하는 시간에 ‘나’는 R에 도착했다. 하사관(본대장)은 보충병인 ‘나’를 포함해 아홉 명인 ‘우리’가 탐을 지키는 데 목숨을 거는 상황을 못마땅해했다. 문 상병은 ‘나’에게 월남군 차가 지나가면 그걸 타고 기지로 도망가라며, 참모들이 미쳤다고 말했다. 그의 말에 초소를 둘러본 ‘나’는 초소들이 무엇을 지키기 위한 것이냐며 R의 임무를 궁금해했고, 문 상병은 무너진 사원의 탐을 지키는 것이라고 알려 주었다. 무너진 사원을 밀어낼 때 주민들의 반대로 탐만 남겨 두었고, 주민들의 감정에 큰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부대에서 그 탐을 계속 지켜 왔다는 것이다. ‘나’는 순찰 중에 만난 주민들의 종교적 열의를 떠올렸고, 탐을 차지하는 쪽이 주민들의 신뢰나 석가여래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확신이 들 것이므로 탐은 충분한 전략적 가치를 지녔다고 생각했다.

설 전날, 하사는 전날 잡은 인질을 끌고 나와서는 탐에 묶는다. 적의 사격을 막기 위한 탐의 방패막인 셈이다. ‘나’는 탐을 지키는

임무가 언제 끝날지 묻지만, 하사는 ‘중대가 철수할 때’라는 막연한 대답만을 내놓는다. ‘나’는 그가 꼭두각시 같다고 생각한다.

‘나’와 소총수는 둘이서 청음초¹⁾ 근무를 선다. 소총수는 테러에 가까웠다는 전날의 전투 이야기, 군대 전의 이야기, 제대 이후의 희망 따위를 얘기하지만 ‘나’는 미래 얘기가 허망하다고 느낀다. 그러던 중 숲속 여기저기서 목탁 때리는 듯한 소리, 호각 소리, 고함 소리 따위가 울려 퍼진다. 소총수는 적의 소리라며, 그들이 전날 밤에도 자신들을 밤새껏 놀렸다고 말한다. ‘나’는 적의 소리에 초조함과 불안함을 느끼지만, 통신병은 무전기를 통해 명령 이전에는 결코 사격하지 말 것이며 아무리 위급한 상황에서도 사전에 보고할 것을 명령한다.

총소리가 나고, 근처에 있는 B교량 쪽에서 미군들이 경기관총을 쏘아 대기 시작한다. 소총수는 그들이 교량을 파괴하려는 것이라고 짐작한다. ‘나’는 적들이 포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하고, 소총수는 적들이 탐과 인질 때문에 ‘우리’를 쓸어버릴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요란한 전투음 끝에 B교량이 무너진다. ‘나’는 적의 목적이 교량 폭파였으며 그로 인해 ‘우리’의 철수도 늦어질 것이라고 짐작한다.

소총수는 이상한 소리를 알아채고, ‘나’는 하사에게 연락해 적이 가까이 침투했음을 알린다. 생포하라는 하사의 명령에 ‘나’는 함정 인지 모르니 사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소총수는 자신이 해치우겠다며 나섰다가 적에게 사로잡힌다. 대대의 무너진 참호와 병커에 자리 잡은 적군이 인질을 위해 소총수를 유인한 것이다. 하사는 본대에 연락해 적에게 포격을 가한다.

본대는 R-포인트에 더 이상 인원을 보충해줄 수 없으며, 도로 정찰 부대와 순찰 차량의 근무를 중단하겠다는 소식을 전한다. 교량이 폭파되어 강변에 남은 이유가 사라진 미군들은 기지로 철수하고, R에는 ‘우리’만이 남는다. 중대본부에서는 R 부근 외곽 지점들의 확인 결과를 보고하라는 명령이 떨어진다. 마을을 수색하던 ‘우리’는 전날 포격으로 부상당한 적을 한 명 발견해 처치하고 마을을 통과한다. ‘나’는 두려움과 적의에 찬 주민들이 음흉하고, 교활하며, 우리를 비웃는 적 같다고 느낀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들의 고요한 마을에 침입한 것이 바로 ‘우리’라고 생각한다. 마을 밖 우물가에서 수통을 채우고 물을 끼었던 ‘우리’는 적에게 저격당해 문 상병을 잃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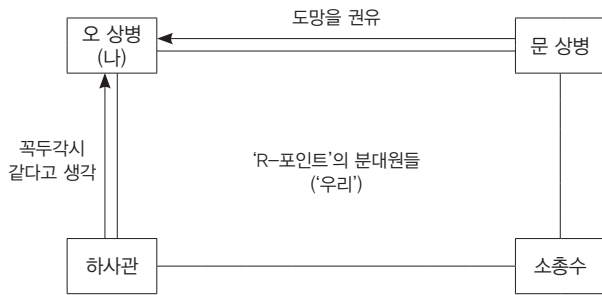
그날 밤, ‘우리’는 적이 틀림없이 결전을 준비하고 있으리라는 생각에 초소 주위의 배수로를 최후 저항선 삼아 대기한다. 통신병이 작전이 변경되었다는 통신을 전달하고, 북쪽에서는 계속해서 포성이 들린다. 밤 10시가 되자 적의 사격이 시작되고, ‘우리’는 격렬하게 저항한다. 본대에 포격을 요청하고, 총을 쏘고, 지뢰나 수류탄을 터뜨리는 과정에서 ‘나’는 남의 땅과 남의 어둠 속에 있는 ‘우리’가 도피로가 차단된 일곱 마리의 쥐새끼 같다고 느낀다. 지난

1) 적의 움직임을 눈으로 볼 수 없는 흐린 날씨가 밤에 소리를 들어 적의 행동을 탐지하려고 전방에 둔 초소.

한 전투 속에서 인질이 되었던 소총수와 분대장인 하사, 통신병이 목숨을 잃는다. 살아남은 ‘우리’는 죽은 이들의 시체 사이로 넘어져 줄기 시작한다.

눈을 뜬 ‘나’는 전투가 모두 지나갔음을 깨닫는다. 무전기에서는 철수하라는 명령이 흘러나온다. 그때 국도 북쪽으로부터 미군들이 진입해 오고, 캠프와 토치카²⁾를 짓궂다며 불도저로 바나나 밭을 밀어버리기 시작한다. ‘나’는 석탑을 가리키며 ‘우리’가 작전 명령에 따라 그것을 지켰음을 설명한다. 인민해방전선이 탑을 빼앗으려 했다는 사실부터 불교와 주민들의 관계, 참모들의 판단, 마을에 대해 설명하며 ‘나’는 ‘우리’가 깨갓이 속아 왔음을 깨닫는다. 미군 장교는 그런 골치 아픈 것은 없애버려야 한다고 말한다. ‘나’는 석탑에 피를 흘려 지킬 가치가 없었으며 ‘우리’가 싸워 지켜낸 것은 겨우 ‘우리’ 자신의 목숨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으면서도, 역겨움을 느끼며 불도저를 멈춰 달라고 부탁한다. 미군 장교는 자신들이 끌고 온 트럭에 ‘우리’를 태워 여단본부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말한다. ‘우리’는 전사자의 시체와 장비를 싣고 R을 떠나고, 불도저는 탑을 무너뜨린다.

등장 인물



‘나’ (오 상병)	본대의 합동 기동순찰병으로 근무하다, 제비뽑기로 인해 R-포인트에 보충병으로 파견된다. 임무를 수행하면서도 자신이 고향이 아닌 남의 땅에 침입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의식한다. 격렬한 전투 끝에 지켜낸 석탑을 불도저로 밀어 버리려는 미군 장교를 막으려 하지만, 이내 자신들이 깨갓이 속아 왔음을 깨닫는다.
하사관	R-포인트에 자리한 본대의 젊은 분대장. 전투 과정에서 지뢰의 살상 방향을 적군 쪽으로 돌려 놓기 위해 뛰어나가고, 결국 목숨을 잃는다.
문 상병	‘나’가 처음 본대에 도착했을 때 도망을 권유하고, R-포인트의 임무에 대해 알려 준다. 마을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적군에게 저격당해 사망한다.
소총수	탈영을 했다가 영창에 다녀왔으며, 영창에서 벗어나자마자 R-포인트로 오게 되었다. 고향에 돌아가면 받은 수당으로 땅을 사서 염소를 기르고 싶어 한다. ‘나’와 청음초 근무를 서던 중 적군의 김새를 알아 채고 생포하기 위해 병커로 숨어들었다가 사로잡힌다. 이후 전투 중 인질 교환을 위해 끌려 나왔다가 목숨을 잃는다.

2) 콘크리트, 흙주머니 따위로 단단하게 쌓은 사격 진지.

주제

전쟁의 폭력성과 무의미함에 대한 비판

출제 포인트

- ① 「탑」에서 겉보기엔 아주 초라해 보이는 ‘탑’은 베트남 사람들에게 종교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전쟁 상황에서 ‘탑’은 정치적이고 전략적으로 이용되는데, ‘나’는 그러한 ‘탑’을 지키며 베트남 사람들이 탑을 통해 느끼는 정신적 가치에 공감하게 된다. 그러나 미군은 이러한 가치를 가진 ‘탑’을 최싹식 무기와 거대한 불도저로 무너뜨리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지켜 내야 하는 가치란 무엇인지에 대한 회의와 힘의 논리를 전제로 하는 전쟁의 폭력성에 대한 비판이라는 주제 의식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그는 한쪽 눈을 감구 총구 속을 들여다보면서 말했다.

“참모들은 미쳤어.”

그가 고개를 돌리며 분해된 총대로 도로 건너편을 가리켰다.

“가서 봐라. 그리구 생각해 봐. 정신이 온전한 놈들의 짓인가를 말이지.”

나는 식사를 하다 말고 깡통을 손에 든 채 일어섰다. 도로 건너편에는 블록으로 지은 세 채의 초소가 있었는데, 보급대대의 경비 초소였던 자리였다. 초소가 부대에서 따로 독립되어 지어져 있던 것을 보면 꽤 중요한 무엇이 있는 것 같았으나, 세 갈래로 갈라진 길의 한복판에 약간 널찍한 빈터와 초소 뒤로 울창하게 자란 숲이 보일 뿐이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길을 지키려구 초소를 지었을 리는 없구.”

역시 문 상병은 고개를 흔들었다.

“그리구 보니까, R의 임무는 뭐야? 도대체 모두 철수해 버린 보급대대 앞 노상을 지키는 무슨 이점이라두 있니?”

“탑이 있거든.”

“탑이라니…….”

“그전엔 여기 사원(寺院)이 있었어. 무너진 사원을 불도저로 밀어낼 때 주민들의 반대로 탑만 남겨놓았거든. 월남인들의 감정에 큰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부대 진주 초기부터 지켜왔던 거야. 우리는 저 탑을 적이 옮겨가지 못하도록 무사히 보존했다가 정부군에게 물려주는 거지. 저따위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 낸 자들은 바보야. 전략적 가치와 정치적 가치가 어떻다느니 하지만, 이놈의 전쟁은 시작부터가 전략적이라 그 말이지.”

장난감과 같은 작은 탑을 지켜야 하는 일이란 걸 알았을 때, 나는 지프에 실려 이곳으로 오면서 느꼈던 공포감마저도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실로, 그것은 탑이라는 거창한 말을 붙이기엔 너무나도 초라한 물건이었다. 초소와 숲 사이의 마당에 사람 두 키 정도의 높이로 세워져 있는 보잘것없는 돌덩이에 지나지 않았다.

둘은 조잡한 솜씨로 여섯 모 비슷하게 다듬어졌고, 중간중간에 희미하게 지워진 문자가 새겨져 있었다. 그러나 자세히 윗부분을 관찰하면서 나는 차츰 그렇게까지 초라한 것은 아님을 깨닫게 되었다. 탑의 위층부터 층층이 솟아 있는 사람들의 옷자락에 둘러싸인 부처의 좌상이 부조(浮彫)되어 있었는데, 그 꼭대기 부분만은 진짜인 듯했고, 나머지 부분은 나중에 보수한 것

같았다. 부녀들의 옷자락과 긴 띠와 손가락들의 윤곽은 아주 섬세했으며, 부처님의 거의 희미해진 조상은 그래서 더욱 신비로워 보였다. 짐작건대는 이것이 지방민의 사랑과 애착의 대상 이리라는 것이었다. 아마도 포연과 총성이 없었을 때, 빛나는 햇빛 아래 나무 그림자의 옷을 입은 사원에서 종이 울려 퍼지고, 지나는 농부와 아이들과 가족들은 탑을 향하여 경건하게 무릎을 꿇었으리라.

인민해방전선은 그들의 정치적 선전을 위하여 탑의 탈환을 목적으로 할 것이라는 예상은 오래전부터 있어온 모양이었다. 월남군 수뇌부는 그 점에 착안하였고, 우리 부대가 진주했을 때, 참모들에게 건의했을 것이다. 나는 전에도 순찰 중에 여러 촌락들을 지나다니면서 그들의 종교적 열의에 놀랐었다. 곳곳마다 집 앞에는 그들의 서서히 타오르는 듯한 평화에의 염원처럼 연기를 피어 올리고 있는 향로 그릇과 내실에 불단이 마련되어 있었다. 꺼지지 않고 타오르는 향은 줄기찬 기도였을 것이다. 그들이 집과 토지를 버리고 비교적 안전한 도시로 몰려들 때에도, 가족 중의 누군가는 소중히 향로를 그의 가슴에 운반하고 있었다. 강과 교량이나 유리한 지형처럼 탑은 누가 보기에든 전략적 가치가 있었으며, 그것을 차지하는 쪽은 주민들의 신뢰와 석가여래의 가호를 받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을 것이었다. 그러한 양편의 관심으로 해서 탑은 이 전쟁의 한 상징적인 물건이었다.

(중략)

“우리는 작전 명령에 따라서 저 탑을 지켰습니다.”

나는 초라하게 서 있는 작은 석탑을 가리켰다. 중위가 고개를 저었다.

“탑이라구? 나는 저런 물건에 관해서 명령받은 일이 없는데,”

“아직 통고되지 않았을 겁니다. 아군은 월남군에게 탑을 인계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인민해방전선은 저것을 빼앗아 옮겨가려고 했습니다.”

나는 얘기하고 싶지 않았으나 불교와 주민들의 관계, 참모들의 심리적인 판단이며 마을에 관해서 설명하려고 애썼다. 그렇지만 말하고 나자마자 우리는 깨닫게 되었다. 그게 누구의 것인가. 내 말이 다 끝나기 전에 불교라는 낱말이 나오자 이 단순한 서양 친구는 으흠, 하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중위가 말했다.

“그런 골치 아픈 것은 없애버려야지. 미합중국 군대는 언제 어디서나 변화시키고 새롭게 할 수가 있네. 세계의 도처에서 말이지.”

나는 우리가 탑과 맺게 된 더럽고 끈끈한 관계에 대해서 달리 설명할 방도가 없음을 깨달았다. 장교는 자기가 가장 실질적이며 합리적인 강대국 아메리카인의 전형임을 내세우고, 탑에 대한 견해도 그런 바탕에서 출발할 것이다. 한 무더기의 작은 돌덩어리가 무슨 피를 흘려 지킬 가치가 있었겠는가. 나는 안다. 우리가 싸워 지켜낸 것은 겨우 우리의 자신의 개 같은 목숨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그러나 나는 역겨움을 꼭 참고 말했다.

“중지시켜 주십시오.”

중위는 내게 한쪽 눈을 찡긐 감아 보이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기계 앞으로 걸어가서 중사에게 뭔가 일렀다. 배불뚝이

미군 중사는 불도저 위에서 뛰어내리며 투덜거렸다.

“노란 놈들은 이해할 수 없단 말야.”

중위가 비워둔 2.5톤을 가리키며 여단본부까지 태워다 주겠다고 말했다. 우리는 전사자의 시체와 장비를 싣고 R을 떠났다. 차가 바나나 숲을 채 돌아가지 못해서, 나는 불도저의 굼직하게 가동하는 엔진 소리를 들었다. 불도저는 빈터의 가운데로 돌격했고, 떠받친 탭이 기우뚱했다가 무너져 자취를 감추었다. 탭의 그림자마저 짓이겨졌을 것이다. 달리는 트럭이 일으켜놓는 먼지가 시야를 차단했다.

출제 포인트

- ② 「답」의 배경은 베트남 전쟁으로, 작품에는 전쟁 당시 참전했던 한국군이 겪었던 제3국 입장으로서의 가치관 혼란과 이념 충돌 문제가 사실적으로 그려진다. 특히 명령에 따라 별다른 목적의식 없이 탑을 지키는 임무를 수행하는 한국군은 자신을 이질적인 존재로 인식하며 소외의식을 느끼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자신들이 참전한 전쟁에서 목적성을 찾지 못한 채 현지인들에게 폭력을 가하고, 참전 병사들의 죽음을 목도하는 비참한 상황으로 인해 전쟁의 무의미성을 느끼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

“적이 마을엔 없는 모양이야. 수색했지만 주민들뿐이더군.”

우리는 산개해서 마을을 지나갔다. 주민들이 뒷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우리들이 지나가는 것을 내다보고 있었다. 그들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적의가 깃든 시선을 던졌다. 노인들은 음흉스러워 보였고, 아이들은 교활해 보였으며, 여인네들은 우리를 비웃고 있는 것 같았고, 남자들은 모두들 밤에는 게릴라로 변하는 적인 것 같았다. 그들의 고요한 마을에 침입한 것은 바로 우리들이었다. 여긴 우리의 고향이 아니다.

마을을 벗어나 대대 지역의 울타리 근처에 있는 우물가에 이르렀다. 우리는 빈 수통을 채우기 위해 잠깐 우물가에 머물렀다. 철모를 벗어 물을 떠서 머리 위에 뒤집어썼다. 한참 물을 끼얹고 있을 때 우리의 배후에서 회초리로 마룻장을 두드리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저격이다!”

나는 우물 옆 물구덩이 속으로 상반신을 처박았다. 방향을 짐작할 수가 없었다. 벌떡거리는 가쁜 숨소리가 바로 머리 위에서 들려왔다. 가슴을 정통으로 얻어맞은 문 상병이 구덩이 안으로 기어 들어오려고 험쩍리고 있었다. 나는 손을 뻗쳐서 그를 내게로 끌어당겼다. 그는 얻어맞은 가슴 속에 손가락을 찔러 넣고 바람이 좁은 구멍을 빠져나가는 듯한 호흡을 내쉬고 있었다. 그는 두어 번 연약하게 기침을 했는데 그때마다 피가 입으로 솟아올랐다. 웅덩이에 고인 물이 차츰 붉어졌다. 우리 머리 위로 실탄이 계속해서 지나갔다. 마을에서 남쪽으로 떨어진 선인장 숲에서 경기관총이 쫓아대고 있는 것을 알았다. 우리는 얼마 동안 저항했다. 그러나 우리는 기관총 사제 정면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어서 대대의 울타리 쪽으로 접근할 수가 없었다. 나는 세 개째의 탄창을 갈아 끼웠다. 총구가 열을 내서 울부짖고 있는 동안은 내가 적의 공격을 제압하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우리의 좌측 울타리 너머로 진출한 분대장의 목소리가 들렸다.

“엄호할 테니, 울타리를 넘어와라!”

그들이 숲을 향해서 집중 사격을 하는 동안, 나는 축 늘어진 문 상병을 들쳐 업고 울타리 앞에까지 기어갈 수 있었으나, 두 몸이 한꺼번에 넘을 수는 없었다. 몸을 반쯤 일으키며 그를 울타리 너머로 던지는 데 성공했다. 철모가 팍 돌아갔다. 실탄이 철모를 빗기며 지나간 것이다. 나는 철모를 벗어 던지고 울타리 옆을 기었다. 아군 쪽에서 M79 유탄발사기의 사격하는 소리가 들렸고 숲에 날아가서 터지는 쩌지는 듯한 파열음이 일어났다. 유탄이 계속해서 날아갔다. 적의 경기관총 소리가 멀어져가다가 그쳤다. 분대장이 손을 내밀어 우리를 하나씩 끌어올렸다.

“모두 무사한가?”

“한 사람 얻어맞았습니다.”

참호 아래 쓰러진 문 상병의 몸을 일으켰을 때 그는 완전히 절명해 있었다. 우리가 그를 운반했을 적에는 경적이 시작되어. 그의 뻣뻣해진 다리가 땅에 질질 끌려왔다. 나는 나중에 우리 소속대인 중대에 돌아가 전사보고서를 쓰기 위해 그의 소지품을 간수하기로 했다. 호주머니에 들어 있는 것은 수첩 한 권 뿐이었다. 수첩 안에 구겨진 5달러짜리 CI 군표와 검역 카드, 품목마다 모두 빈칸인 PX 카드, 겹봉이 찢겨 닳아버린 편지 몇 장, 두어 장의 가족사진이 있었다.

우리는 그를 블록 초소의 뒤에다 눕혀놓고, 파리가 날아앉지 못하도록 개인 텐트의 반쪽으로 덮어놓았다. 텐트 자락 아래로 아주 커다랗게 보이는 정글화가 솟아올라 있었다. 나는 땅 위에 떨어진 빼죽한 그림자를 보았고, 얼굴을 쳐들어 눈부신 햇살이 그 뒤에서 빛나고 있는 검은 석탑을 올려다보았다. 포로는 더위에 지쳐 탑에 묶인 채 졸고 있었다. 이런 입체감 없는 사진 속을 누비고 보급 헬리콥터가 먼지바람을 일으키며 낮게 떠왔다.

우리는 헬리콥터가 떨어뜨린 이틀분의 C레이션과 탄약을 받고 길게 늘어진 로프에 시체를 달아 매어 올렸다. 보충병은 역시 오지 않았다. 하사는 무전으로 한 사람이 전사했다는 것을 알렸으나, 본대의 무전병은 억양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 알았다. R-포인트는 계속 수고하도록. 라자 아웃!

본대는 초소 주위의 배수로를 최후 저항선으로 정하고 적의 기습을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밤 적은 틀림없이 결전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황혼녘에 보급대대 부근의 마을 사람들이 간단한 짐을 짊어지고 국도의 남쪽으로 피난 가는 게 보였다. 그들은 적의 어떤 작전 계획을 알아차린 것이 분명했다. 중대 병력중의 집결은 관내 정규군과 지방 게릴라 몇 사람이면 충분하니까. 아무 때나 우리를 공격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일곱 사람이 중대 병력을 상대한다는 것은 이미 승산 없는 싸움이며, 며칠 전부터 같은 장소에 배치되어 있었던 우리의 위치와 화력이 이미 노출되었으므로 몇 시간 못 가서 탑은 점령될 것이다. 우리가 시간을 지연시킬 가능성을 믿고 있는 것은 본대에서 지원될 81밀리 박격포의 포격과, 적이 탑을 파괴하지 않으려고 소화기로써만 우리를 공격할 것이라는 점이었다. 무전 수신을 하고 있던 통신병이 소리를 질렀다.

“작전은 변경된다구 합니다.”

“철수 명령이냐?”

“우리를 내버리는 건 아니겠지.”

제각기 떠드는 우리들을 목살하고 통신병이 하사에게 수신 내용을 보고했다.

“정부군은 예정과 달리 훨씬 남쪽으로 공격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미군 교체 병력이 명일 09시까지 여단본부를 접수합니다. 후발 중대는 미군에게 작전권을 인계하고 헬리콥터로 이동 지역에 공수된다는 하달입니다. 그리고 적의 구정 공세가 전 남부 월남에 걸쳐 개시되었습니다.”

“좋아. 모두 들었나? 하루 앞당겨졌다. 오늘이 전투의 마지막 밤이다.”

“기분 나쁜데.”

“높은 놈들은 지도만 들여다보구 있을 거다.”

“R 전원에게 무공훈장을 내리도록, 그리고 보상금과 조위금은…….”

“재수 없는 소리 지껄이지 말아.”

북쪽에서 포성이 계속 들려왔고, 하늘 위 사방으로 떠오른 조명탄의 불꽃들이 보였다. 편대를 지어 날아가는 무장 헬리콥터들의 프로펠러 소리가 먼 곳에서 들려왔다.

“작전 명령만 없다면 저따위 탐 같은 건 수류탄으루 당장 날려버렸으면 좋겠다.”

부사수가 말했고,

“사기당하는 건 우리뿐이다.”

하면서 선임조장이 말했다.

【이해와 감상】

〈큰 산〉은 1970년에 발표된 작품으로 ‘고무신 짝’과 관련하여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 현대 사회의 이기주의를 그려낸 소설이다. 작품의 공간적 배경인 ‘나’의 마을은 대학을 나와 비교적 교육 수준이 높은 젊은 부부들이 많이 사는 동네로,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일정한 수준 이상의 지식과 교양을 갖춘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이렇게 합리적인 사람들조차 ‘고무신 짝’을 불길한 것으로 생각하고 이웃집 담장 너머로 던진다. 이때 ‘나’는 이러한 사건의 원인이 ‘큰 산’이 없기 때문이라 생각하며 ‘큰 산’을 떠올리며 그리워한다. ‘큰 산’은 사람들에게 안정감과 근원적 동질감을 주는 대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작가는 이를 통해 불안정한 사회에서 조화의 질서, 윤리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단단하고 근원적인 힘이 필요하다는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전체 줄거리】

첫눈 내린 아침, 아내와 ‘나’는 대문 옆 담 위에 놓인 흰 고무신 짝을 발견하고 꺼림칙함을 느낀다. ‘나’는 일부터 아무렇지도 않은 듯 굴지만, 아내는 웬지 뽀로통하게 반응한다. ‘나’는 본래 대범한 편이던 아내가 최근 자신을 조금 답게 된 듯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굿하는 소리를 듣고도 모른 체할 정도로 소심하게 구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나’는 아내가 자신의 소심한 성격을 구질구질하게 여기면서도 조심하고 있고, 그럴수록 자신들이 그런 일에 더 예민해진 것이라고 느낀다.

‘나’는 고무신 짝을 살펴본다. 별 특징이 없는 남자 고무신 짝은 금방 씻어 말린 듯 새하얗게 희고, ‘나’는 그것을 불길하게 느낀다. 도둑의 물건인지 의문하는 ‘나’에게 아내는 편잔을 주고, 쓰레기꾼의 장난이 아닌지 짐작한다. ‘나’는 아내의 말을 듣지도 않고 고무신 짝에 주의를 뺏긴다. ‘나’는 지난밤의 굿 소리를 언급하는 아내를 막으며 아내 역시 자신처럼 공포감에 휘말려 있다고 확인한다.

‘나’는 국민학교 4학년이던 시절을 회상한다. 태평양전쟁이 나던 이듬해, 그는 발에 버려진 검정색 지카다비(일본식 광장 노동자용 신발) 한 짝을 보고 공포에 떠는 일이 있었던 것이다. ‘나’는 당시 혼했던 지카다비 한 짝이 그렇게까지 무서웠던 이유를 고민하다가, 마가솔¹⁾ 비가 내리던 ‘그날’의 기억을 떠올린다.

당시 ‘나’는 저녁 즈음에 비를 맞으며 혼자 돌아오고 있었고, 학교에서 나올 때부터 동네의 ‘큰 산’이 안 보일 것이라고 예상하며 쓸쓸해 했다. 당시 ‘나’는 비가 쏟아지는 날이면 큰 산이 구름에 가려진다는 사실을 쓸쓸하게 여겼다. 큰 산이 가려지면, 어느 때는 큰 산에 의지하며 조화롭던 주위 야산들이 시커멓게 뚜렷해지며 그로테스크해지고, 들판도 의지할 데를 잃고 가라앉으며, 온 세상이 균형을 잃고 개개의 것들이 자기주장을 하느라 티격태격하는 듯 보였기 때문이다. 즉, ‘나’에게 큰 산은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모든 균형의 근원을 떠받들어 주는 존재였던 것이다.

빈 달구지 서너개를 따라가면서도 어린 ‘나’는 달구지에 올라타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고, 평소라면 빈 달구지에 타라고 권유했을 달구지꾼들도 유독 냉랭했다. ‘나’는 달구지꾼들과 헤어져 마을로 들어가는 길에 들어선 후에야 저녁때와 비를, 큰 산이 보이지 않는 쓸쓸함을 분명하게 의식했다. ‘나’는 큰 산이 구름에 가리는 것이 세상에 쓸쓸한 느낌을 더하고 사물들이 분수대로 제자리에 쏙 들어앉지 못하는 이유가 되는 까닭을 궁금해하다가, 바로 그때 길 가장자리 무발에 버려진 그 지카다비 짝을 발견했다. 그러고는 공포감에 휩싸여 미친 듯이 빗속을 달렸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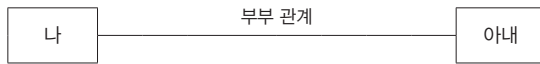
얼마 뒤(= 열흘쯤 후), ‘나’는 아내가 그날 밤 고무신 짝을 들고 골목 길을 기웃대다가 어느 집 담장으로 횡 던져 버렸음을 알게 된다. ‘나’는 자신이 고무신 짝을 대문 앞의 쓰레기통에 버렸어도 아내의 미심함이 풀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짐작한다. 하루 종일 집에만 있는 아내가 쪽이 더 큰 미심함을 느꼈을 것이며, 고무신 짝의 논리 속에 빠진 아내가 쓰레기통에서 고무신을 꺼내 남의 집 담장 너머에 던지는 것으로 액땜을 자처했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사건 당일로부터 열흘쯤 지나 다시 눈이 왔다. 아이의 호들갑에 ‘나’는 뜰로 나갔고, 눈 내린 뜰 한가운데 선 아내와 눈 내린 겨울 아침을 즐겼다. 그러면서도 ‘나’는 문득 고향의 큰 산을 떠올리며 허전해 했다. 그때, 눈을 밟으며 큰문 쪽으로 달려나가던 아내가 담 아래에서 이전의 고무신 짝을 발견했다. 아내는 혈떡거리듯 떨었고, ‘나’는 과거의 경험을 떠올리며 공포를 느꼈다. 아내는 고무신이 염병처럼 집들 사이를 돌아다닌다고 말했다. 아내의 말에 ‘나’는 새벽 일찍 뜰 한가운데서 고무신 짝을 발견했을 또 다른 부부들도 굿소리를 떠올리며 공포감을 느꼈을 것이고, 그래서 이웃집에 고무신 짝을 버렸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모두 합리적인 사람으로 대우받고 싶으면서도 ‘액’은 맞닥뜨리고 싶지 않아 고무신 짝을 남의 집 담장 너머로 던진 것이다.

‘나’가 고무신 처치를 고민하자 아내는 버스를 타고 멀리 가져가 남의 집에 버리겠다고 말하고, ‘나’는 국민학교 시절을 떠올리며 ‘큰 산이 안 보여서’ 모두가 이렇다고 중얼거린다. ‘나’는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 넉넉함으로 자리하던, 늘 사람을 안심시키던 큰 산을 떠올린다. 그날 밤 아내는 고무신을 싸들고 나가서는 아홉 시가 지나 서야 개운한 얼굴로 돌아온다. ‘나’와 아내는 그 일에 대해 구태여 아무 소리도 하지 않는다.

1) 늦가을

등장 인물



'나'	미신에 관련해서는 소심한 성격을 지녔다. 집 뜰에 버려진 흰 고무신을 보고 공포감을 느끼며 과거의 경험을 회상한다. 그의 고향에는 모든 균형의 근원을 떠받드는 '큰 산'이 있었고, '나'는 비가 와 산이 가려질 때 세상이 조화를 잃는 모습을 쓸쓸하게 느꼈던 것이다. 이후 쓰레기통에 버렸던 고무신이 다시 뜰로 돌아온 것을 보고 공포감을 느끼지만, 아내가 이웃집 담장 너머로 고무신을 버렸다는 것을 알고는 모든 것이 큰 산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아내	현대 여성으로, 미신과 관련된 일에도 본래는 대범한 편이었다. 그러나 집 뜰에 버려진 흰 고무신을 보고 공포감을 느끼며, '나'가 나간 사이 쓰레기통에서 고무신을 꺼내 남의 집 담장 너머로 버린다. 버린 고무신이 돌아오자 공포감을 느끼지만, 이내 악착같은 얼굴로 아주 먼 곳에 있는 남의 집에 고무신을 버리겠다고 결심한다. 그날 밤 고무신을 들고 나갔다가 아홉 시가 지나서야 개운한 얼굴로 돌아온다.

주제

현대 사회의 이기주의에 대한 비판과 인간성 회복을 위한 근원적 가치

출제 포인트

- ① 「큰 산」은 분단으로 인한 공동체의 해체와 더불어 군사 정권의 독재 체제로 인해 불안해진 1970년대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작가는 표면적으로 시대적 배경을 언급하지는 않지만, 「고무신짝」이라는 소재로 촉발된 두려움 앞에 불안해 하며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시대의 모습을 드러내고자 했다고 볼 수 있다. 즉, 군사 정권에서 사람들의 일상을 무너뜨리는 미지의 힘에 대한 공포, 공동체의 해체로 인해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는 당시 풍조 등 1970년대 사회의 어두운 면모를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 ② 「큰 산」은 어린 시절부터 「나」에게 익숙한 존재로, 「나」는 「큰 산」이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넉넉함으로 자리 잡고 근원을 든든하게 떠받들어 준다고 믿는다. 그래서 「나」는 「큰 산」을 느낄 수 없기에 억운으로 받아들여진 「고무신짝」에 대해 공포를 느끼고 이기적인 행동을 하게 된 것으로 여긴다. 즉, 현대인들에게 근원적 동질감이 사라졌기 때문에 타인의 불행을 도외시한 채 자신의 행복만 추구하는 식의 자기중심적 태도를 지니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이기주의에 빠진 현대인들에게 마음의 근원을 되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제 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앞부분 줄거리] 어느 날 대문 옆 담에 흰 남자 고무신짝 하나가 놓여 있어 「나」와 아내는 꺼림칙함을 느낀다. 「나」는 고무신짝을 보면서 어린 시절 밭에 버려진 신발 한 짝을 보고 공포를 느꼈던 일을 떠올린다.

그때 그 무발의 지카다비짜이 그토록까지 무서웠던 것은 대체 무슨 까닭이었을까. 그 지카다비가 지닌 평범하고도 단순한 용처를 떠나 생판 엉뚱하게도 무발에 처박혀 있어서, 그 지카다비의 지카다비로서의 노선 혹은 룰에서 벗어져 나온 그 점이 공포감으로 작용했던 것일까? 일단 그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다. 그러나 단순히 그 이유뿐일까. 단순히 그 이유였다면 그냥 그 정도로 처절해 치울 수가 있었을 것이다. 그 무렵 모든 신의 바닥 고무는 고무 성분이 덜 들어가 녹신녹신하지가 못하였으니까 어쩌다가 바닥의 중동이가 툭 부러져 더 이상 못 신게 되어서 훌쩍 무발에 버렸으리라. 한 짝은 무발 한가운데로 멀리 버리고 한 짝은 이렇게 가장자리계로. 이 지카다비짜에만 한해서는 분명히 이러했을 것이다. 공포감이고 뭐고 느껴질 건덕지라고는 없다.

아, 지금이야 생각이 난다. 그날은 마가을비가 내렸었는데, 무슨 까닭인지 나는 저녁답에 혼자 비를 맞으며 돌아오고 있었다. 지금 아무리 머릿속을 짜내어도 무슨 이유로 그때 그렇게 혼자만 늦게 돌아오게 되었는지는 생각이 나지 않는다. 그러나 다만 확실한 사실은 학교에서 혼자 나올 때부터 이미 나는 「큰 산」이 안 보일 것이라는 예상으로 쓸쓸해 있었던 것이다. 이 정도로 꽤연하게 비가 쏟아지는 날은 으레 큰 산은 구름에 갇혀 가려진다.

하긴 일반론으로서도 그렇긴 하다. 활짝 갠 날보다 덜 갠 날이 기분이 언짢은 법이며, 덜 갠 날보다 흐린 날이, 흐린 날보다 비 오는 날이, 비 오는 날 가운데서도 마가을 저녁답의 빈 들판에 내리는 비가 훨씬 더 쓸쓸한 법이다. 그러나 그 무렵의 나에

게는 더 분명한 것이 있었다. 비가 이 정도로 쏟아지는 날에는 큰 산이 구름에 갇혀 가려진다는 점이었다. 그 큰 산이 가려지면, 어느 때는 그 큰 산에 의지하면서 각각이 각각의 분수 나름으로 암전히 있던 가까운 주위의 야산들이 갑자기 시커멓게 뚜렷 뚜렷해지며 그로테스크한 외양으로 변해 버리는 것이다. 그리하여 들판도 의지할 데를 잃어버리며 한결 가라앉는다. 온 누리는 그렇게 갑자기 균형을 잃고 쏠려해지고, 개개의 것들이 개개 나름으로 저를 주장해 나서며 티격태격거리기 시작하는 듯이 보이는 것이다. 그것이 어째서 그렇게도 쓸쓸하게 느껴졌던 것일까.

우리 마을 서쪽 멀리 청빛의 마식령 줄기가 가로 뻗어 있는데, 마을 사람들은 이것을 「큰 산」이라고 불렀다. 내 경우 이 큰 산은 그곳에 그 모습으로 그렇게 있다는 것만으로 항상 나의 존재의, 나를 둘러싼 모든 균형의 어떤 근원을 떠받들어 주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태어난 뒤 가장 먼저 익숙해진 것은 어머니의 젖가슴이었겠지만, 두 번째로 익숙해진 것은 그 큰 산이었을 것이다. 아침 저녁으로 우리집에서 정면으로 건너다보이던 그 큰 산, 문만 열면 서쪽 하늘 끝에 웅장하게 덩터루이 솟아 있던 그 청빛 큰 산. 그 큰 산에서부터 산과 골짜기들이 곧두박질을 치듯이 내려오다가 골짜기 하나가 길게 뻗으면서 갑자기 흰 치맛자락 퍼듯이 큰 내를 이루며 내려오는 가에 미루 나무숲이 우거지고, 우리 마을이 앉아 있다. 그렇게 우리 마을 앞에서부터 좁은 들판이 시작된다. 이 들판은 더욱 퍼지면서 밑으로 흘러내려가, 두 야산 끝머리의 한 머리는 원산 거리 쪽으로 금방 잘록하게 끝나고, 한 머리는 비옥한 안변 평야의 북쪽 끝으로 가닿는다.

바람도 없이 비는 꽤연히 쏟아졌고, 저녁답이라, 들판은 행하니 비어 있었다. 위 보매기 마을로 올라가는 길과 우리 마을로 들어가는 갈림길까지는 빈 달구지 서넛이 가고 있어 그런대로 나도 심심치는 않았다. 달구지꾼들은 늑수그레하였고, 소 엉덩이 뒤에 바싹 붙어 앉아 웅숭그리고 있었는데, 싸릿대로 엮은 샷갯을 쓰고 쉬임없이 웅얼거리고들 있었다. 비를 맞고 가는 어린 나더러도 저희들 빈 달구지에 올라타라고 했을 법도 한데, 어째선가 그날따라 하나같이 모두가 냉랭하였다. 나도 그날따라 웬일인지 그들의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어린 나이에 걸맞지 않게 접어 생각하면서, 무리를 해서까지 굳이 올라 타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그 달구지꾼들과 헤어져 마을로 들어가는 안길로 혼자 쫓이면서, 비로소 나는 저녁답과 비를, 그리고 큰 산이 안 보이는 쓸쓸함을 분명하게 의식했다. 아, 그때의 그 분명한던 의식! 그리고 그 쓸쓸함!

[중략 부분 줄거리] 「나」는 고무신짝을 쓰레기통에 버렸지만 아내는 「나」 몰래 그것을 다시 꺼내 이웃집 담장 너머로 던져버렸다. 그러나 며칠 후 「나」와 아내는 그 고무신짝이 다시 우리집 담 밑에 놓여있는 것을 발견한다.

“어찌진 어째요, 놔두세요, 내가 처리할게.”

아내는 독오른 표정이 되며, 악착같이 해보겠다는 듯이 중얼거렸다.

“처리하다니, 어떻게?”

“아주 멀리 보내지요. 이따가 밤에.”

“산에라도 가져다가 버릴 요량인가?”

“뭇 허러 산에 가져가요. 우리가 그렇게 질 수는 없는 거 아녜요.”

하고 아내는 발끈하며 다시 말하였다.

“밤에 저놈의 걸 들고 버스 타고 멀리 가져갈 테예요. 하다 못해 동빙고동에라도.”

“어려러.”

나는 입을 벌리며, 악착같이 해볼 기세인 시뻘게진 아내의 얼굴을 마주 쳐다보았다.

동시에 초등학교 4학년 적의 그 지카다비짜와 그때 그 큰 산이 구름에 갇혀 가려졌던 교묘한 산천을 떠올렸다.

“큰 산이 안 보여서 이래, 모두가.”

내가 나지막하게 혼자소리로 중얼거리자, 아내도 나를 귀신 내리고 있는 박수 쳐다보듯이 쳐다보고 있었다.

“당신 이제 무슨 소리 했수. 대체 큰 산이 뭐유, 큰 산이?”

“.....”

그 큰 산은 청빛이었다. 서쪽 하늘에 늘 덩더룻이 웅장하게 퍼져 있었다. 아침 저녁으로 혹은 네 철을 따라 표정은 늘 달랐지만, 근원은 뿌리 깊게 일관해 있었다. 해뜨기 전 새벽에는 청청한 빛으로 싱싱하고, 첫 햇별이 켜면 산머리에서부터 백금색으로 빛나고, 햇별 속의 한낮에는 멀리 물러앉은 청빛이었다. 해질녘 저녁에는 골짜기 하나하나가 손에 잡힐 듯이 거뭇게 윤곽을 드러내고, 서서히 보랏빛으로 물들어 간다. 봄에는 봉우리부터 여드러워지고, 겨울이면 흰색으로 험준해진다. 가을에는 침착하게 물러앉고, 여름이면 더 높아 보인다. 그 큰 산 쪽으로 셋바람이 불면 비가 왔고, 큰 산 쪽에서 바다 쪽으로 맞바람이 불면 비가 그치고 하늘이 개었다. 그 큰 산은 늘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형태 없는 넉넉함으로 자리해 있었다. 그 큰 산이 그곳에 그렇게 그 모습으로 뿌리 깊게 응거해 있다는 것이 늘 안심이 되었던 것이다.

깊숙하게 늘 안심이 되었던 것이다.

아, 그 큰 산, 큰 산.

출제 포인트

- ② 「큰 산」에서 ‘고무신짝’은 중심 소재로 등장하는데, 누군가에 의해 버려진 ‘고무신짝’은 굿이라는 미신적 요소와 결합하여 사람들에게 불길한 존재이자 액운으로 여겨진다. 이에 따라 사람들은 액운을 떨쳐내야 한다는 생각에 혈안이 되어 남에게 그 액운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교육 수준이 비교적 높아 교양 있는 젊은 부부가 살고 있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일 것 같은 마을의 사람들이 미신적 요소로 인해 비합리적이고 이성적이지 못한 행동을 하는 모습은, 당시 혼란스러운 시대 현실과 그에 따른 소시민들의 공포감이 의식에 내재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아침에 깨어 보니 온 누리에 수북하게 첫눈이 내렸는데, 대문 옆 불룩담 위에 웬 흰 남자 고무신짝 하나가 얹전하게 놓여 있었다. 얼마 안 신은 듯한 거의 새 고무신짝이었다.

아내와 나는 다 같이 꺼림칙한 느낌에 휩싸였다.

“웬 고무신일까. 누가 장난을 했나.”

내가 일부러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중얼거리자,

“아무리, 장난으로 저랬을라구요.”

아내는 어쩐지 뽀로통해지면서 말했다. 아내는 현대여성이 어서라기보다는 본시부터 이런 일에는 대범한 편이었는데, 요즘 조금은 나를 닮게 된 모양이었다.

사실은 이런 일에는 내 쪽에서 훨씬 소심하고 과민한 편이어서 아내는 이런 나를 조금은 구질구질하게 여겨 왔었다.

간밤에도 근처 어느 집에서 굿을 하는 모양으로 팽과리 소리가 요란했다. 텔레비전 안테나가 무성하고, 갓 대학 출신의 젊은 셀러리맨 부부가 많이 살고 있는 동네인데도, 한밤중이면 굿하는 팽과리 소리가 가끔 멀리 가까이 들리곤 하는 것이다. 아니, 반드시 한밤중만도 아니다. 한밤중의 그 소리가 더 기분이 나쁘고 음산하게 들린다뿐이다. 그러나 우리는 한 번도 그 일을 지나가는 말로라도 입 밖에 낸 일은 없었다. 어쩐지 그런 유의 얘기를 주고받기조차 처음부터 꺼림칙했던 것이다. 더러 아내가,

“또, 또 어느 집에서 굿하나 봐요.”

하고 무심결에 한마디 불쑥 지껄이기라도 하면, 나는 번번이 탄청을 피우며 못 들은 체해 버렸다.

그럴 때마다 나는 벌써 소심해져 있었고, 그 무슨 불길한 것에 손끝에 닿는 듯하여 그런 쪽의 대꾸조차 입에 올리기를 꺼렸던 것이다. 아내는 나의 이런 소심한 성격을 알고 나서부터는 내심 구질구질하게 여기면서도 한편으로는 나름으로도 조심하는 것 같았으나, 그럴수록 우리 두 사람은 그런 일에 더 예민해져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 이상한 고무신짝을 들고 이모저모 뜯어보았다. 분명히 더도 덜도 아닌, 남자 고무신짝 하나였다. 크기도 특별나게 크다거나 작다거나 하지 않고, 표준형 정도였다. 조금 이상하다면 금방 씻어 말린 듯이 새하얗게 희다는 점이다. 그것이 더 을씨년스럽고 기분이 나빴다.

“그럼, 도둑일까?”

“도둑이면 발자국이라도 있을 거 아녀요. 도둑이 미쳤나, 그렇게 얹전하게 올려놓게.”

“또 알아? 심리전을 쓰느라고 저랬는지.”

“.....”

아내는 쓰디쓰게 피시시 웃었다. 그 웃음 속에는 나에게 대한 가벼운 핀잔이 스며 있었다. ‘당신이 늘 그런 데에 필요 이상으로 신경을 쓰니까 저런 것도 저렇게 끼어드는 거야요. 심리전이라는 것도 그렇지요. 이쪽에서 약점이 있으면 쓰는 게지’ 하는 눈길이면서도, 아내는 낮은 가락으로 말하였다.

“호옥 쓰레기꾼이 장난을 했나. 두 사람 가운데 젊은 쪽이 꽤 장난꾸러기인데, 뉘 집 쓰레기통에 한 짝만 들어 있으니까 그걸.....”

“그렇군, 그렇군.”

나도 둔하게 건승건승 대답은 하였으나 이미 아내의 그런 소리를 제대로 듣고 있지 않았다.

그 흰 남자 고무신짝 하나는 고무신으로서의 분명 단순한 용처를 일거에 몇 차원을 뛰어넘어 뚜렷뚜렷하게 내 어느 깊은 안 속으로 이미 달려들고 있음을 어쩔 수 없었다.

‘이 양반, 또 병났군’ 하는 듯 아내는 상을 찡그리면서,

“어젯밤도 팽과리 소리가 밤새 나던데요. 어느 집에서 또 굿을 하는 모양이던데,”

하고 말하자,

“쓸데없는 소리.”

나는 울컥 화를 내듯이 두 눈을 부릅뜨기까지 하였다.

이 일로 인하여, 이미 아내도 나처럼 공포감에 휘말려 있는 것이 확실해 보였다.

(중략)

“대체 어떻게 된 셈이지?”

“돌아다니고 있어요, 저게. 염병 돌 듯이.”

아내는 빠른 입놀림으로 이렇게 혈떡거리듯이 지껄였다. 나는 그 아내를 금방 신내리는 무당 쳐다보듯이 을씨년스러운 느낌 섞어 쳐다보았다.

“돌아다니다니, 대체 무슨 소리야?”

“이집에서 저집으로, 저집에서 이집으로.”

“그때 그 고무신짝은 분명히 쓰레기통에 버렸지 않아.”

“아무래도 꺼림칙해서 그날 밤 당신이 들어오시기 전에 내가 다시 들고 나갔던 거예요.”

“무엇이? 그럼 어느 집 담장 너머로 버렸었다는 말인가?”

“그렇지요.”

아내는 당연하다는 듯이 약간 우락부락한 얼굴까지 되며 말하였다.

“왜?”

“왜라뇨. 당신 그걸 지금 나한테 따져 묻는 거예요?”

“던지긴 어느 집으로 던졌어?”

“몰라요.”

“.....”

그러니까 이렇게 된 모양이다. 새벽 일찍 뜰 한가운데 그 고무신짝이 떨어진 것을 본 그 어느 집의 부부들도 찌렁한 느낌에 휘어감기며 간밤내 근처에서 들리던 굿하는 팽과리 소리 같은 것을 떠올리며 공포감에 사로잡혔을 것이다. 별로 복잡하게 궁리할 것도 없이, 그날 낮이든가 밤에, 이웃집 아무 집에선

담장 너머로 그 고무신짝을 훌쩍 던졌을 것이다. 남편 모르게 아내가, 혹은 아내 모르게 남편이. 그만한 자존심들은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액은 이웃집으로 옮겨 보내고, 제 집은 일단 마음을 놓았을 것이다. 그러자 담장 안에 웬 고무신짝 하나가 떨어진 것을 본 그 집에서도, 그렇게 제 집으로 들어온 액을 멀리하는 못 쫓고 그날 낮이면 낮, 밤이면 밤에, 근처 이웃집으로, 또 던져 버렸을 것이다. 그 이웃집에서는 다시 이웃집으로, 또 그 이웃집으로, 순이네 집에서 영이네 집으로, 영이네 집에서 웅이네 집으로, 웅이네 집에서 건이네 집으로, 이런 식이었을 것이다. 모두 현대적인 교육을 받은 터여서 자존심들은 있었을 것이다. 모두가 합리적인 사람 대우는 대우대로 받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대우는 대우고, 겪는 것은 겪는 것이다. 그들은 서로 상처 한 군데 입음이 없이 그 고무신 짝만 이웃집 담장 너머로 던지면 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합리적으로 생각하면서 합리적으로 웃음도 나왔지만, 아내는 담장은 웃을 경향이 아니었다. 두 번째로까지 극성맞게 들어온 이놈의 고무신짝을 대체 어찌란 말인가. 이 액을 우리 부부끼리만 감당할 자신이 우리는 이미 없었다.

“대체 저놈의 것을 어찌지?”

나는 이미 액투성이 때가 엉기엉기 묻은 듯한 그 고무신짝을 만지기도 싫어서, 엇비슷이 건너다보며 투덜거렸다.

“어찌긴 어째요, 놔두세요, 내가 처리할게.”

아내는 독오른 표정이 되며, 악착같이 해보겠다는 듯이 중얼거렸다.

“처리하다니, 어떻게?”

“아주 멀멀리 보내지요. 이따가 밤에.”

“산에라도 가져다가 버릴 요량인가?”

“뭇 허러 산에 가져가요. 우리가 그렇게 질 수는 없는 거 아녜요.”

하고 아내는 발끈하며 다시 말하였다.

“밤에 저놈의 걸 들고 버스 타고 멀리 가져갈 테예요. 하다 못해 동빙고동에라도.”

“어러러.”

나는 입을 벌리며, 악착같이 해볼 기세인 시뻘게진 아내의 얼굴을 마주 쳐다보았다.

이해와 감상

〈우리 동네 김씨〉는 1977년에 발표된 단편소설로, 국가 주도로 근대화가 진행되던 시기의 농촌을 배경으로 하여 당시의 불합리한 국가 정책 현실에 대한 비판과 그에 대한 농민들의 대결 의식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가뭄으로 시달리는 천동면 놀미 마을의 농민인 ‘김승두’가 다른 동네의 물을 끌어다 쓰는 것으로 인한 다른 농민과의 갈등, 민방위 교육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국가의 정책으로 인해 부면장과 대립하는 농민들의 모습이 중심 사건으로 제시된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 작가는 실질적이지 못하고 획일적으로 적용되었던 국가 주도의 농촌 정책에 대한 비판과, 이로 인해 농촌 공동체가 와해되어 가는 현실을 그려내고자 했다고 볼 수 있다.

전체 줄거리

가뭄이 심하게 들어 놀미 마을은 여기저기서 밭을 논리고 농사를 칠씩 이후로 미룬다. 눈에 나간 김승두에게 새참을 든 아내가 찾아온다. 그러나 김승두는 지난밤 꿈 홍몽의 꿈땀¹⁾을 아내와의 싸움으로 치르고 싶지 않았고, 호스를 산 일로 불평하는 아내에게 핀잔을 주어 금세 집으로 돌려보낸다. 그는 간밤에 꿈 홍몽에 아침부터 내내 사로잡혀 불안해한다.

하늘이건 관청이건 믿을 수 없음을 깨달은 천동면 마을(척굴, 앞쟁이, 저무니, 무술이, 너르내, 조브내 등) 사람들은 가뭄을 자신의 힘으로 이겨내고자 빚을 졌다. 승두 역시 이번 가뭄에 척굴 조총범에게 5할 이자로 12만 원을 빌려 호스를 장만했다. 놀미에는 지하수조차 없어 주변 사람들은 바닷물이고 아내는 쓸모없음을 따졌지만, 그는 지룡산 너머 천북면 장승굴 저수지 물을 겨냥하고 기다렸다. 지룡산의 물을 모두 머금은 저수지는 물이 넉넉하나 놀미는 그 덕을 보기는커녕 저수지로 인해 더욱 가물었고, 저수지 관리권은 천북면에서 쥐고 있는 데다 물값이 비싸 선뜻 사 쓰기도 어려웠다. 그러나 승두는 올해 가뭄엔 무술이 마을과 앞쟁이 마을에서 장승 저수지 물을 천동면으로 들여올 것이라 확신했으므로, 호스와 전깃줄을 장만해서는 들여오는 물을 몰래 가져다 쓸 계획을 세웠다.

기다림 끝에 마침내 물길에 물이 쏟아진다. 김승두는 남병만의 양수기를 빌리고 사막다리로 전봇대에 올라가서는 전깃줄에 양수기 전선을 잇는다. 눈에 물이 차오르자 아내는 기뻐하고, 남병만은 고작 돈 몇 푼에 양수기를 빌려준 것을 아까워한다. 그러더니 병만은 호스를 빌리고 싶은 듯 집으로 돌아가 소주, 마늘 파우를 차려 온다. 두 사람은 술을 따며 그날 있을 민방위 훈련을 불평한다. 이때 무술이 마을 이장의 아들 유순봉과 방앗간집 아들 장재원이 술을 얻어먹으러 다가온다. 병만과 승두는 못마땅하게 여기면서도 그들과 술을 나눈다. 유순봉은 무술이 마을 사람들이 산 물을 도둑질해 간다며 승두를 비꼬고, 승두는 그가 물지기로 나섰음을 눈치채고 찢려 한다. 지난밤 꿈자리까지 떠올린 김승두는 다투는 대신 모른 척하며 둘러대는 것으로 꿈땀을 하면서도 양수기를 끄지 않겠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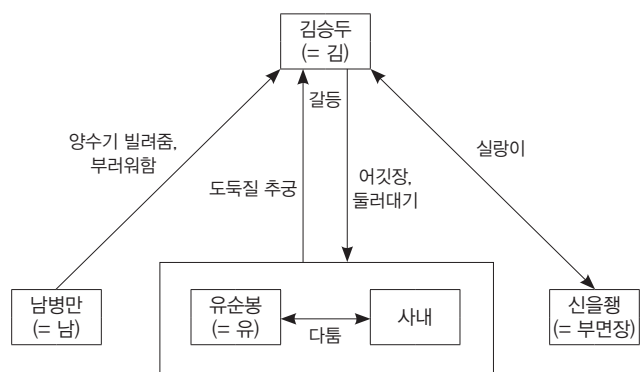
계획을 낸다. 그가 천연덕스럽게 술을 건네며 둘러대도 유순봉은 계속해서 비꼬거나 이죽대고, 물도둑을 잡아다가 지서 순경 일거리를 만들어주러 온 것이니 서에 다녀올 각오를 하라며 협박한다. 김승두는 처음 다짐한 대로 역지를 부리며 뺨대자 순봉은 양수기를 빼앗아 가져가려 하지만, 승두는 양수기도 훔쳐 온 것이니 가져가 처벌하면 장물아비가 될 각오를 하라는 거짓말로 위기를 넘긴다.

그런 그들의 뒤에 소리 없이 중년 사내가 다가온다. 그는 승두에게 양수기 사용자냐고 묻고, 안보 문제를 들먹이며 승두를 다했다. 승두는 재차 능글맞게 둘러대는 것으로 상황을 모면하려 하지만, 사내는 넘어오지 않고 승두를 협박한다. 사내가 물 때문에 찾아왔다고 생각한 김이 굴하지 않고 대들자, 사내는 자신이 도전(盜電)²⁾ 신고를 받고 조사하러 나온 한전 출장소 직원임을 밝힌다. 사내는 길게 말할 것 없다며 승두를 끌고 가려 하고, 순봉은 물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으니 보내줄 수 없다고 붙잡는다. 순봉과 사내는 자신의 일을 중시하고 상대의 문제는 가벼운 것으로 치부하며 다룬다.

싸움이 이어지는데 승두의 아내가 민방위 모자와 완장을 낀 채 다가온다. 한 시가 다 되었으니 민방위 훈련에 참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툼이 흐지부지 끝나고 승두는 민방위 훈련 장소인 천동국 민학교로 향한다. 놀미 주민들 사이에 자리를 잡은 그는 봉변 없이 꿈땀을 마쳤다는 생각에 후련해한다.

국민의례와 국기에 대한 경례, 민방위 신조 복창, 민방위 노래 등을 거쳐 교육이 시작된다. 부면장 신을쟁이는 확성기에 대고 풀을 베어 퇴비를 하라는 연설을 하다가, 떠들거나 자리를 옮기는 청년들을 두고 한바탕 욕을 쏟는다. 그러고는 교육할 얘기가 없으니 시간이나 죽이라면서 퇴비에 대한 유의사항을 읊는다. 부면장이 헥타르³⁾를 운운하자 김승두는 버릇처럼 혼잣말로 만지를 거는데, 하필 주변이 조용해 부면장에게 들리고 만다. 승두와 말로 실랑이를 벌이던 부면장이 승두에게 뭇 하는 사람이나고 묻자, 주변에서는 높은 사람이라며 승두의 역성을 들어 준다. 그러자 부면장은 농민들을 진정시키고, 이어서는 편히 쉬시라며 사과한다. 승두는 쏟아져 나오는 농민들의 박수가 자신을 향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웃는다.

등장 인물



1) 꿈에서 본 좋거나 나쁜 조짐을 현실로 겪어서 때우는 일.

2) 전기를 몰래 훔쳐 씬.

3) 미터법에 의한 넓이의 단위. 1헥타르는 1아르의 100배로 1만 m²이다. 기호는 ha.

김승두 (=김)	놀미 마을의 농민. 가뭄을 이겨내고자 빚을 내 호스를 산다. 병만에게서 양수기를 빌려 다른 마을이 산 물을 몰래 빼돌려 쓴다. 이를 추궁하러 온 유순봉과 사내에게 어깃장이나 둘러대기로 대응하며, 민방위 훈련으로 학교에 가서도 부면장에게 어깃장을 놓는다.
남병만 (=남)	놀미의 농민. 승두에게 양수기를 빌려주고, 물을 빼돌려 쓰는 승두를 부러워한다. 그의 호스를 빌려 자신도 물을 갖다 쓰고자 한다.
유순봉 (=유)	무술이 이장의 아들. 장제원과 함께 승두를 찾아와 물을 도둑질한 책임을 묻는다. 전기 도둑질로 승두를 끌고 가려는 사내와 다투다, 민방위 훈련 시간이 되어 흐지부지 승두를 놓아준다.
사내	한전 출장소 직원. 도전(盜電) 신고를 받고 승두를 찾아온다. 그를 지서로 끌고 가려 하지만, 물도둑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순봉에게 가로막힌다. 다투던 중 민방위 훈련 시간이 되어 승두를 흐지부지 놓아준다.
신을쟁 (=부면장)	천동면의 부면장. 상투적이고 권위적인 말로 농민들을 훈계하다가도 자리를 이탈하는 청년들에게는 사투리로 욕을 한다. 어깃장을 놓는 승두와 말다툼을 벌이지만, 농민들이 승두의 역성을 듣자 꼬리를 내린다.

주제

국가 주도의 근대화 정책으로 인해 와해되어 가는 농촌 현실에 대한 비판

출제 포인트

- ① 「우리 동네 김씨」는 1970년대 농촌을 배경으로 하여, 자본주의적 근대화 정책으로 인해 황폐해져 가는 농촌의 현실과 근대화화에 대한 저항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가 주도하는 각종 개발 정책들은 농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획일적으로 적용되면서 농민들은 불합리한 정책에 반기를 들게 되고, 농민과 정부의 대결 양상이 짙게 드러난다. 한편, 이러한 갈등은 ‘관(官)’과 ‘민(民)’의 대립을 넘어 농촌 내 주민들 간의 갈등과 대립으로 팽배해져 가고 작가는 그로 인해 와해되어 가는 농촌 공동체의 모습을 비판적으로 그려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김은 대개 살아온 경우에 비춤으로써 스스로 깨달음이 있어, 가물면 하늘 탓, 물마지면 관청 탓 하던 묵은 버릇을 우선하여 고치고, 제힘으로 재변을 이겨낼 줄 알아야만 흙의 종살이에서 벗어나 흙을 부리는 농군이 되느니라 믿었다.

한두 번 속아봤던가. 체구실하는 농군이라면 하늘이건 관청이건 일찍이 아무것도 믿을 만한 게 없었음을 터득하여, 자기 농토는 자기 요량으로 다스려보겠다는 정신부터 기르지 않으면 안 되겠던 것이다.

김도 이번 가뭄으로 장터에서 택시 굴러 돈놀이하는 척굴 조충범이한테 오부 이жат돈 십이만 원을 썼다. 나중 고추만 볶으면 바로 주게 되려니 하고 그 돈으로 호스 이백 미터를 샀던 것이다. 일 미터에 육백 원짜리 호스였다.

그가 없는 돈에 그 비싼 것을 사들이자 동네 사람들은 불행이가 미어질까 봐 얼굴을 저리 돌리며 웃어제끼고, 아내도 환장하지나 않은 것인가 하고 여겨보며 종주먹을 들이대고 그 쓸모없음을 따졌다.

원래 놀미만큼 메지고 지대 높은 부락도 드문 데다, 그중에서도 개뚝배미는 자갈 투배기 가풀막 버덩을 일군 충충다랑이로, 지룡산 걸가지 개랑물이 아니면 두터지 한 마리 얼씬 않을 개자리였다. 게다가 곁에 붙은 서 말 가웃지기 더운갈이 논만 해도 남병만(南炳萬)이가 단위조합 돈을 얻어 대가며 일곱 군데나 아흔여덟 자씩 뚫어봤지만, 지하수는 고사하고 겉물 한 모금 뽑아보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김도 지하수를 찾는대거나 들 가운데에 고인 돛병을 퍼올릴 공상 따위는 순제 근처에도 안 가려고 했다. 그러나 개뚝배미 충충다랑이가 생계의 전부인 김으로서는 혼구명이 난 무너리처럼 면산바라기만 하고 앉아 있을 수만도 없었다.

김은 며칠을 두고 궁리한 끝에 아직도 임자가 없어 남아 있던 한 가지 방법에 놀라면서 눈이 번해졌다. 갇냥갇 대충 하다 보니 양수기만 빌릴 수 있다면 반드시 물을 끌어낼 만한 때가 머잖아 오겠던 것이다.

김은 노력노력하며 지룡산 너머 천북면(川北面)의 장승골 저수지 물을 겨냥하고 기다리기로 했다.

[종락 부분의 줄거리] 김은 저수지의 물을 몰래 끌어다 자신의 논에 물을 채운다. 그때 유가 술을 얻어먹으러 다가와 그 모습을 보고 물도둑질이라며 트집을 잡는다.

“또랑물 좀 가로치기했다구 고발소 가면, 대동강물 팔아 먹은 김선달이가 지하에서 무슨 소리 허라구?”

유가 못 알아들어 하는 틈에 김은 말끝을 맺었다.

“요새 텔레비에 나오잖아. 고전 유모아 극장…… 아마 그중에서 자기 후배 얘기가 기증 저질이라고 노여워할 거라.”

그러자 울근불근하던 유의 얼굴이 굳음살로 덮이며 뻣성 섞인 말로 발끈했다.

“장마 때야 논물을 쏟아간들 끄러 허겠다. 그러나 사람 목마른 건 견뎌두 곡식 타는 건. 눈으로 못 보는 게 농투산인디, 비싼 물 옆 치기해 가는 주제에 대이구 유식헌 소리만 무식하게 짓까부르면 다여?”

हा고는 금방 견어찰 듯이 양수기를 노려보았다. 그러는 서술에 남은 제 양수기 걱정이 앞서는지, 지레 굶주어서 얼른 담배를 꺼내 유에게 내밀었다.

김은 너무 반자를 해주면 나중에 무슨 막말을 듣게 될지 모르겠어, 애초에 다잡한 작정을 풀고 벌나가 보기로 했다. 김이 말했다.

“다가 아니면? 물이 그러끔 아까우면 돈으루 따져 줄터, 돈으루 따지기 복잡하면 물을 도루 채어가는 계구…… 나두 댐이 반만 모질구 나머지는 여려서, 고대 죽는소리하는 사람 보면 먼저 눈물이 앞을 가리는 승질이라…… 종두룩 허랑께.” 김이 부아를 질러주자 유는 대번 오금탱이가 들썩하며 대거리할 짓둥이를 하고 나섰다.

유가 말했다.

“사람이 어리눅스름 해주는 것두 가량이 있는겨. 논바닥에 죄스며든 것을 돈으로 쳐줘? 뭐? 물을 도루 찾아가?”

“말끝에 물음표 좀 웬만큼 달구, 더 낮은 방법이 있길랑 담화를 해보라구. 도둑으루 멧덕 씌워 잡으려하면 중거물두 따러 가야 할 게 아녀. 그러자면 천상 내 눈에 실린 물을 담어가는 수백이 읊는다, 나두 다 집이 생각해서 허는 소리여.”

हा고 김도 지라심줄마냥 느껴져렸다.

“수고스럴 게 뭐여. 양수기만 떼어갓구 가면 넉넉허지. 헐 수 읊어. 서루 뻥한 처지에 피차 삼가힐 노릇이지만, 안 봤으면 모를까 일단 봤으니께 말루 해결 못허면 지서 신세 지는 수백이 도리 읊잖여.”

유의 말끝을 따라 장도 자리를 털고 일어서며

“게 물은 원제까장 쓰자는겨?”

हा고 물었다.

“집이두 가랑허다시피 내가 무슨 논이 있다? 쓰구 지지구, 이와 빛은어 호스 사왔으니 꺾끔만 더 물구경시키다가 즈심 먹으러 들어가며 견어버릴라네.”

그 말에 유가 양수기 쪽으로 몇 걸음 옮겨갔다. 양수기에 손을 댈 기세였다. 김은 얼른 없는 소리를 했다.

“양수기는 근디리지 않는 게 즈잖을 거라. 까짓것, 내 것만 갈어두 상관 았겠는디 내 행편에 양수기가 턱이나 있남. 게, 급허기는 허구 빌려달라면 펄쩍 뛰갓구 해서 야중에야 무슨 소리를 듣건 먼저 쓰는 게 임자라구, 나두 주인 몰래 무턱

대구 들어온 게거든. 그러니까 집에서 저걸 이력저력헌다 할
것 같으면 곧 장물애비가 되는 심이니깐 알구서 허여.”
그러자 유는 못 들은 척하고 양수기부터 켰다.

출제 포인트

- ② 「우리 동네 김씨」는 토속적이고 사실적인 방언의 사용으로 당대의 상황을 정확하고 생생하게 전달하여 현장의 모습을 직접 체험하는 듯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또한, '관(官)의 언어'와 '민(民)의 언어'의 대립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적'과 같은 어휘를 부적절하게 반복하는 '중년 사내'의 모습은 농민들 앞에서 권위를 내세우거나 그들의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관리 계층의 고압적 태도를 드러낸다. 반면 이에 어깃장을 놓거나 말장난으로 대응하는 농민의 언어는 감정적이고 탈규범적인 모습으로 웃음을 자아내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더라 이 애깁니다.”를 반복하며 권위적이고 상투적인 모습을 보이던 부면장이 흥분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상스러운 욕설을 내뱉는 모습은 이성적 언어로 감싸진 지배층의 맨얼굴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며 이데올로기의 허구성을 풍자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앞부분의 줄거리] 계속되는 가뭄에 건디다 못한 김은 다른 동네의 저수지 물을 몰래 훔쳐다 끌어 쓴다. 그 모습을 본 유가 나타나 김과 유는 다투게 되고 그들의 뒤로 중년 사내가 나타난다.

김은 다시 유를 노려볼 틈이 없었다. 자기 뒤에도 무엇이 소리 없이 와 있던 것이다. 뒤에 있는 것은 낮이 처음일 뿐더러 나이드 늙숙한 게, 비록 남방서츠 조각에 흙투배기 운동화쪽으로 밑을 하고, 민방위 모자로 눈썹 채은 했어도 속에 말마디나 젓답아 둔 것 같은 틀거리가 분명했다.

중년 사내는 담배부터 붙여 물더니 흔들어 끈 성냥개비를 김의 발밑으로 던지며 입을 떼었다.

“나 좀 보겨. 시방 당신이 저 양수기 쓰시는겨?”

“그 아시는 게 내 답답이유.”

보이는 것이 그런 것이라 김도 풀이던 속으로 대꾸했다.

“누가 그러라게 함부로 쓰셔?”

중년 사내는 샷대질을 했다. 손버릇이나 하고, 애매한 사람 여럿 다했해 본 투라 속으로는 떨떠름했으나 김도 주눅들지 않고 내뻗었다.

“가뭄에 물치기는 땅임자의 도리구 조상에 효도유, 왜 그류?”

중년 사내가 천복면 수리 담당이거와 장승골에 사는 그 비스름한 것이려니 싶어 김은 더욱 독심에 기운을 모았다.

중년 사내가 말했다.

“왜 그류? 왜 그러겄구먼…… 남의 재산을 불법적으 쓰구 두 가뭄 핑계만 대면 단 중 아셔?”

중년이 대들려는 짓둥이를 하자 김은 급한 김에 말도 안 되는 대꾸를 했다.

“내가 원제 불법적으로 썼유. 물법적으로 썼지. 농민이 눈에 물을 대는 건 당연히 물법적인 거유.”

그러자 중년은 어이가 없는지, 불이 일고 있던 눈을 끄덕거리며 끄면서 한탄하듯 중얼거렸다.

“꽁— 뭘 아는 사람이래야 말 같은 소리를 듣지…… 내 새끼두 야중에 이런 사람 될라 미서서 이 노릇 못 집어친다니게. 꽁—.”

“…….”

김이 무슨 말인지 미처 못 새기고 있을 때, 중년은 하던 말투를 바꾸지 않고

“사람이라는 것이 종자를 받으면 주렁이에 처놓는 것처럼 배알는 것버팀 우선적으 가르치는 뱀이건만, 이 친구는 위치기 컸길래 남으 팔에 찌그렝이 붙는 것버팀 배웠는구…… 불법적으 쓰다 들켰으면 사궤적으 나오는 게 아니구, 뭇세 큰소리쳐? 나 봐, 워따 대구 큰소리여? 당신 허는 것이 보통 사건인 중 알어? 시대적으 볼 것 같으면 안보적인 문제여. 뜨진 국에 맛을 몰라두 한도가 있는 게지, 되지 못허게 워따 대구 큰소리여, 큰소리가…….”

마치 철부지를 타이르듯 훨씬 부드러운 음성이었다. 그러나 김은 처음부터 별것이 아닌 줄 알았으므로 기세를 누그리지 않았다. 더구나 뒤에는 무술이 유순봉이와 장재원이자 자기를 시험하고 있었다. 남병만이라도 마찬가지였다. 나중 동네에 소문날 일을 생각해서라도 그들이 보는 앞에서 공갈 한마디에 누저 버려 그참 허탕이 될 수는 없겠던 것이다. 김도 손사래를 치며 떠들었다.

“나 봐유, 맥은 워디 기시길래 이러시는지 몰라두, 요란이 과허실 건 읊는구. 찬밥 그지는 문전 거절을 해 보낼 수 있어두유, 물 한 바가지 동냥을 쫓는 건 풍속을 어그리는 일이유. 하물며 양석이 타서 지나가는 또랑물 좀 잠깐 여췄다구, 뭘유? 안보적인 문제유? 풍년 곡석 일 년 양석이면 흉년 곡석은 삼 년 양석이유. 날 좀 더웁다구 되는 대루 험박허시면 클나유. 해 저물라면 멀었응게 말이 되는 말만 해두 넉넉허유.”

[중략 부분의 줄거리] 계속해서 김과 중년 사내가 다투던 중 민방위 교육 시간이 되어 싸움은 일단락되고 모두 학교로 모이게 된다.

“안녕히십니까. 신을쟁(申乙鐘)이올시다. 이름이 선창여 부민장백이는 못합니다마는, 지가 여러분들보다 배운 게 많다거나, 워디가 잘나서 이 앞에 쓴 건 아닙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육에 면장님께서 꼭 나오실라구 허셨습니다. 호의만 끝나면 즉시 나오셔서 교육에 임하실 줄루 알구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은 지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예나 이제나 조금도 변함없는 부면장의 인사였다. 부면장은 하던 말을 계속했다.

“그런디 교육에 들어가기 전에 지가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발 퇴비 좀 부지런히 해달라 이깁니다. 워편 동네를 가볼래두 장터만 벗어났다 허면, 질바닥으 풀에 걸려 땡길 수가 읊는 실정이더라 이 애깁니다. 아마 여러분들두 느끼셨을 중 알구 있습니다마는, 풀에 갇혀서 자존거가 안 나가구 오도바이가 뒤루 가는 행편이더라 이깁니다. 풀 버서 남쥬유? 퇴비허면 누구 농사가 잘되느냐 이 애깁니다. 식전 저녁으 두 짐씩만 베풀유. 그런디 저기, 저 구석은 뭇 땀이 일어났다 앉았다 허메 방정떠는겨? 왜 왔다리 갔다리 허구 떠드는겨? 꼭 젊은 사람들이 말을 안 탄단 말여. 야— 저런 싸가지 묻는 늙은 색괴…… 야늬야, 말이 말 같잖여? 너만 덩네? 저늬 색괴…… 직 애비는 저기 즘잖게 앉아 있는디 자식은 저 지랄을 혀. 이 중에는 동기간이나 당내간은 물론

이구 한 집에서 뚝뚝 부자지간이 교육을 받으러 나오신 분두 즉값은 줄로 알구 있습니다마는, 웬제구 볼 것 같으면 아버지나 윗으른은 즘잖게 시키는 대루 들으시는데, 그 자제들은 당최 말을 안 타구 속을 썩이더라 이깁니다. 교육 중에 자리 이사 땡기구, 간첩모냥 쑥떡거리구…… 야 늑아, 너 시방 워디서 담배 피는겨? 너는 또 워디 가네? 저늑으 색괴들…… 그래두 안 꺼? 건방진 늑 같으니라구. 너 깨금말 양시환 씨 아들이지? 올 봄에 고등학교 졸업헌 늑 아녀? 너지? 건방머리 시여터진 늑 같으니라구.”

부면장이 한바탕 들었다 놓은 뒤에야 겨우 뭇 좀 하는 곳 갈아졌다.

출제 포인트

- ③ 「우리 동네 김씨」에서 ‘김’은 물과 전기 도둑 문제로 ‘중년’, ‘유’와 대립하다, ‘민방위 교육’ 시간이 다 되었다는 ‘김’의 아내의 말에 각자 아무런 응수도 하지 못하고 떠나게 된다. 이러한 장면은 농민들에게 획일적이고 강제로 적용되던 민방위 교육을 풍자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이후 진행되는 민방위 교육에서도 부면장으로 대표되는 농민들의 실상을 고려하지 않는 지배 권력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는 그를 조롱하는 ‘김’의 모습을 통해 관청 주도의 일방향적 근대화 정책을 해학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앞부분의 줄거리] 계속되는 가뭄에 건디다 못한 김은 다른 동네의 저수지 물을 몰래 훔쳐다 끌어 쓴다. 그 모습을 본 유가 나타나 김과 유는 연쟁을 벌이고, 그들의 뒤로 중년 사내가 나타나 전기를 훔치고 있다며 지적하며 큰 다툼이 벌어진다.

자기 차례가 됐는데도 유는 말대답 대신 열오른 시선 그대로 남병만의 뒷전을 겨누어보았다. 또 무엇이 오나 하고 김이 고개를 돌려보니 아내였다. 그녀는 삼을 든 다른 손에 노란색 민방위 완장과 초록색 민방위 모자를 쥔 채 뒤뚱바리 걸음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모두 무르춤하고 있는 사이 그녀가 손엇것들을 내밀며 말했다.

“새루 한시가 거집 났을 텐디, 안 갈류? 근수 아버지 명복 아버지 와서 하냥 가자구 쫓어쫓던디. 이장두 연장 잊지 말구, 지각 말라구 땃 번씩 방송허더면…….”

시계가 있는 사람은 일제히 손목을 들여다보았다. 김의 시계도 한시가 다 되어 있었다. 한결같이 민방위 훈련에 나갈 사람들이 분명하자 남병만이 영너리로 수선스럽게 말했다.

“예미— 발바닥이 안 뵈게 달음박질해두 늦겠네. 얼른 가서 창원이버텨 쫓어보구, 옷 갈어입구 땀라면 바쁘겠구나…….”

남은 김더러 들으라고 두런거리며 뒤도 안 돌아보고 개똥배미 너머로 뛰어갔다. 양수기에는 창원이를 불러다 앉힐 테니 놔두고 먼저 가라는 뜻이었다. 김은 아내 손을 받아들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꿈— 민방위두 못 나가게 붙잡을라나?”

“…….”

아무도 응수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그들이 먼저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김은 그제서야 그들이 처음부터 훈련에 직접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채비를 갖추고 나왔던 것을 깨달았다. 김은 비로소 한고비 넘겼나 싶었다.

그래서 속이 후련한 김에 허탕질거리로 해보는 소리를 했다.

“저저곰 서루가 바쁘니께 얘기는 가면서 험시다. 그제 쥔 경계 적일 텡께.”

그러나 이미 맥이 풀렸는지, 중동무이한 말을 다시 이르려 하는 이는 없었다.

김은 아내가 점심 먹으라고 주는 오백 원을 받아 쥐고 그들을 뒤따랐다.

천동국민학교는 놀미, 무술이, 앞뱅이부락에서 오솔길이 나와 만나는 삼사미 원편으로 장터 초입에 있었다.

그들은 하학한 아이들로 복새가 일어 미어지는 학교 앞에 이르도록 이렇다 할 이야기가 없었다. 동네를 벗어나서 장터 가는 길에 이르자 아는 얼굴이 즐비했으므로 말을 조리 있게 이어나갈 만한 겨를도 없었지만.

그들은 측백나무 울타리 밑 개구멍으로 해서 학교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제각기 아는 얼굴 틈에 휩쓸려 어떻게 헤어졌는지도 모르게 흩어졌다.

사람들은 모두 이탈리아 포플러와 은수원사시가 하늘을 가린 운동장 울타리를 따라 가늘게 늘어앉아 그들 턱을 보고 있었다.

김도 놀미 사람들이 고만고만하게 삽자루를 깔고 늘앉은 철봉대 옆구리로 갔다. 남병만이 그 틈에 섞인 것은 김이 앉으며 일변 붙여 문 담배가 끝 만해졌을 때였다. 남은 자전거를 울타리에 기대어 채워놓고

“워치기 된 심여? 그냥저냥 해결을 본 심인감?”

하고 물었다.

“넌들 알수 있간. 즈들 요량대루 헐 테지.”

말은 그렇게 해도 내심으로는 그럴 수 없이 후련했다. 일이 흐지부지돼서가 아니라 큰 봉변 없이 꿈땀을 마친 것 같기 때문이었다. 그는 그래서

“창원이 시켜 양수기를 돌려놓구 왔는디 괜참을라나?”

남이 못 미더워하며 물었을 때도

“내빠러뉘. 지랄해두 즈들찌리 헐 텡께. 물난리 불난리는 구경이 더 재미있는 거.”

하고 남의 말 하듯 하며 두 다리를 뻗을 수 있었다.

“앉어주슈. 앉어줘유.”

하는 소리에 눈을 드니, 면에서 나온 사람이 건전지 나팔을 쓰고 있었다. 곧 교육에 들어가겠다는 거였다.

“기립해 주시유. 기립해 줘유.”

이윽고 정렬도 안 된 채 엉겨주춤하게 서서 국민의례가 시작되었다.

국기에 대한 경례, 이하 생략. 민방위 신조 복창. 민방위 노래 합창. 앉어주시유. 앉어줘유.

김은 출석 점검표를 받아 소속과 이름을 써 내기까지 이십 분이 넘어 걸렸다. 놀미 사람 중에서는 쓸 것을 가지고 나온 이가 아무도 없어, 이장의 볼펜 하나를 수십 명이 쪼개 쓰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출석 점검표가 면직원의 손으로 되돌아가기까지는 한 시간도 더 걸렸다.

“앉어주슈. 앉어줘유. 혹시 새사둔이 뵈더래두 이런 디서는 인사가 늦어두 송이 아닝께, 왔다리 갔다리 구만 허구, 참구 앉어줘유.”

면직원은 나팔을 물고 고래고래 소리질렀다.

“시방버텨 교육에 들어가겠습니다. 담뱃불들 끄시구, 손 사람은 앉어줘유. 앉은 분은 죄용해 주시유. 한 번 말허면 들어주시유.”

대강 정돈이 된 듯하자 면직원은 부면장을 돌아다 보았다. 매양 그랬듯이 부면장은 뒤에 서서 잇곳도 앉고 방위병이 앰프 손질하는 것만 지켜보고 있었다. 앰프와 확성기는 각각 두 대의 자전거 짐반이에 얹혀 있었으며, 수백 명의 귀청을 찢는 비명만 지를 뿐, 좀처럼 말을 들을 성싶지 않았다. 면직원이 입

다물어유, 앉어줘유, 담배들 꺼유, 소리를 두어 차례 더 외친 뒤에야 확성기는 조용할 줄 알았다. 이윽고 부면장이 명승 담배갑만한 마이크를 손아귀에 넣고 돌아서며 훌훌 불어 성능 시험을 하더니, 일 년 전의 그것에 한마디도 늘고 줄음이 없는 것 같은 소리를 되풀이했다.

이해와 감상

〈소리의 빛〉은 1978년에 발표된 단편소설로, 소리꾼 여인과 의붓오빠의 기구한 사연을 그려낸 작품이다. 이 작품은 눈먼 여인과 사내가 주막에서 만나 소리를 나누는 외부 이야기와 두 사람의 어린 시절을 보여주는 내부 이야기를 통해 액자식 구성으로 서사가 진행된다. 소리꾼이었던 의붓아비를 중오하였지만 결국 소리를 잊지 못하는 사내와 여인의 눈이 멀게 된 사연 등을 통해 이들의 기구한 삶을 보여주고 소리를 통해 ‘한’의 예술적 승화라는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전체 줄거리

홀아비 천씨는 장흥읍에서 작은 주막을 물려받아 운영한다. 손님이 적은 주막을 천렵¹⁾으로 꾸려나간다. 주막에는 서른쯤 된 장님 여인이 한 명 있어, 천씨가 강으로 나가면 주도 역할을 하며 손님을 맞는다. 동네 사람들은 여인과 천씨 사이를 두고 이런저런 소문을 내기도 하지만, 여인이 주막에 자리를 잡고 십여 년이 지나도록 두 사람 사이에는 그럴 낌새가 없다. 천씨와 여인은 소문에 아랑곳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보낸다. 다만 해가 지고 밤이 깊으면 여인은 주막 구석방에서 놀랍도록 구성진 남도 노래를 부른다.

임자년 늦가을의 어느 저녁, 외지 손님 하나가 주막에 찾아온다. 한약재 수집을 위해 서울에서 왔다는 손님은 약재를 수소문하지도 않고 곧장 주막을 찾아들고, 심지어는 여인이 장님인 것을 알고 있었던 듯 차분한 태도를 보인다. 손님은 주막에 묵게 되고, 해가 진 뒤 여인이 저녁상을 들이자 읊내서부터 소문을 듣고 왔으며 소리를 간절히 청한다. 이를 들은 여인은 잠시 노기를 띠다가는 체념한 듯 머리와 옷차림을 단장하고 호남가를 부른다. 미려한 여인의 소리가 아닌 호방하고 장중한 장부의 소리가 울리는데 손님은 이번에도 의아해하지 않고, 감탄하며 거듭 소리를 청한다. 손님은 감탄하며 다음 소리를 청하면서도, 길이가 짧은 단가 대신 춘향가나 심청가와 같은 진짜 판소리를 요구한다. 그러나 여인은 무언가를 예감한 듯 손님에게 소리를 좋아하게 된 내력을 묻는다. 손님은 자신이 마흔 넘도록 소리를 찾아 남도 천지를 헤매었으나 여인의 소리를 만났으니 후회가 없다고 말한다. 여인의 소리에는 자신에게 무엇보다 반갑고 소중한 것이 있고, 그것을 만나기 위해 자신은 오랜 세월을 헤맨 듯하다는 것이다. 여인은 초조하고 안타까운 표정으로 그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묻는다.

손님은 그 소중한 것, 즉 그가 소년일 때 잃었거나 나이를 먹으며 잃어가고 있던 뜨거운 핏덩이의 내력에 대해 말하기 시작한다. 그 이야기는 몇 해 전 사내가 보성 고을의 한 주막집에서 밤새워 어느 여자의 소리를 들어주고, 그녀에게 들려준 자신의 어린 시절과 그 숙명의 핏덩이의 내력에 관한 이야기였다. 그에게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의 머리 위에 이글이글 불타오르는 여름 핏덩이, 숙명의 핏덩이가 있었다. 소년(=손님)은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와

둘이 살고 있었고, 매일 언덕밭 모퉁이의 무덤가에서 하루 종일 농사를 짓는 어머니를 기다리며 어머니가 웅얼거리는 노랫가락을 들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산고개를 넘어 낯선 노래꾼이 들어왔다. 노래꾼은 하루 종일 숲속에서 노래를 불렀고, 소년의 어머니는 그 산소리에 화답하듯 더욱 분명하게 노래했다. 어스름이 질 즈음 노래꾼은 밭에 있던 어머니를 덮쳤고 마을로 내려와 살게 되었다. 노래꾼은 매일같이 산으로 들어가 노래를 불렀고 어머니는 그 노래에 답하듯 노래했으므로 소년은 언제나 두 사람의 노랫가락을 들어야 했다. 그럴 때면 그의 머리 위에는 언제나 불타오르는 핏덩이가 걸려 있었다. 소년은 핏덩이를 소리의 얼굴, 숙명처럼 찾아 헤매는 운명의 얼굴이라고 여겼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소년의 어머니는 노래꾼의 아이를 낳고 죽었다. 노래꾼은 어머니의 무덤을 만든 후 핏덩이를 데리고 마을을 떠났다. 그러나 소년은 노래꾼의 얼굴이 소리의 얼굴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에게 소리의 얼굴은 소리로 밥구절을 하는 소리꾼이 아니라 뜨거운 핏덩이였다. 그것은 괴롭고 고통스러운 얼굴이었으나, 핏덩이가 없으면 그의 육신과 영혼이 맥을 놓고 늘어져 소년은 핏덩이를 찾아 헤맬 수밖에 없었다.

이야기를 마친 손님은 소리만 들으면 핏덩이를 다시 보곤 하는데 여인의 핏덩이이야말로 자신의 뜨거운 핏덩이를 품은 소리라고 평한다. 이야기를 끝내고도 손님은 고통스러운 표정을 하고 있었으나 여인은 차분히 침묵을 지킨다. 그리고는 손님에게 북통과 장단 막대를 밀어 주며 장단을 잡아줄 것을 주문한다. 손님은 당황하면서도 북채를 준다. 그로부터 여인은 손님의 장단에 맞춰 밤새 노래를 부른다. 여인뿐 아니라 손님의 장단 역시 예사롭지 않으나, 두 사람은 상대편의 숨씨를 놀라워하지도 않고 끊임없이 소리와 장단을 이어 나간다. 새벽녘 동이 틀 무렵에야 소리는 끝나고 두 사람은 여인의 방에서 함께 잠자리에 든다. 아침이 밝자 손님은 약속한 듯 말도 없이 주막을 떠나 버린다.

잠에서 깬 여인은 잠자리를 정리하고 밖으로 나온다. 기다리고 있던 천씨가 손님의 행방을 묻자 여인은 오라비가 말도 없이 떠났다고 말한다. 지난밤 다녀간 손님은 자신의 오라비였다는 것이다. 밤새 두 사람의 이야기를 엿들었던 천씨는 손님의 어머니가 낳은 핏덩이가 여인인지 묻는다. 여인은 그렇다고 대답하며, 오라비는 그 핏덩이가 계집아이였다는 사실과 소리꾼 노인이 길을 떠날 때 오라비도 함께였다는 말을 참아 버렸다고 말하고는 자신의 기억을 털어놓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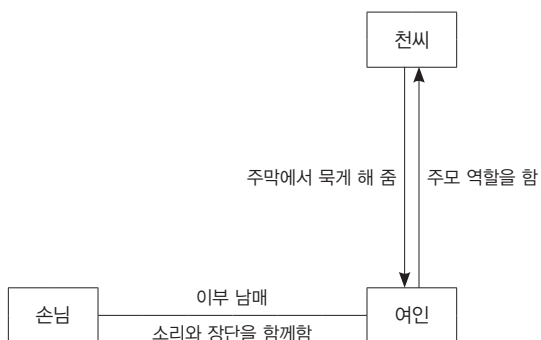
소리꾼은 어린 오누이를 앞세워 구걸을 하고 다녔다. 그는 어린 오누이에게 소리를 가르치려 애썼으나 오라비는 끝내 소리를 하지 않으려 했고, 어렸던 여인만이 조금씩 소리를 익혔다. 그러자 소리꾼은 여인에게만 소리를 가르치는 대신 오라비에게는 북장단을 가르쳤다. 오누이의 숨씨는 뛰어났으나, 오라비는 북채잡이조차 하기 싫었는지 어느 가을날 도망치고 말았다. 그러자 소리꾼은 딸까지 도망갈까 불안해하며 여인의 눈을 멀게 했다. 눈이 먼 이후로 여인의 소리는 더욱 윤택해져 오라비 없이도 구걸 유량을 계속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나이가 든 소리꾼은 어느 겨울 보성 고을 근처

1) 냇물에서 고기잡이하는 일.

빈집에서 피를 토하며 숨을 거두고, , 여인에게 오라비와의 인륜관계나 눈을 멀게 한 사실을 밝히며 사죄한다.

천씨는 지난밤의 손님이 오라비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인은 손님의 장단 솜씨가 노인의 솜씨와 그대로라 느껴 손님을 오라비로 확신하며 그 역시 자신을 알아보았을 것이라고 말한다. 천씨가 손님이 여인을 알아보고도 정체를 밝히지 않은 까닭을 궁금해하자 여인은 그가 자신을 죽이고 싶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답한다. 소리꾼은 죽기 전 여인에게 한 가지 사실을 더 알려 주었는데, 자신이 소리를 할 때마다 오라비의 눈에 살기가 돌았다는 것이다. 그는 오라비가 싫은 짓을 참으면서도 자신을 따라다니는 것이 자신이 어미를 죽였다고 생각하여 죽은 어미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라고 믿었으며,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서 원수를 갚으라고 더욱 목청을 돋우곤 했다. 그러나 오라비는 결국 원수를 갚기도 전에 소리꾼의 소리를 못 견뎌 도망치고 말았다는 것이 소리꾼의 이야기였다. 여인은 지난밤 자신도 그 살기를 느꼈다며 오라비가 말한 헛덩이는 바로 살기일 것이라고 추측한다. 그가 자신의 소리에 살기를 느꼈으면서도 또 소리 때문에 먼저 몸을 피해 갔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여인은 오라비가 자신이 눈을 잃은 곡절조차 묻지 않은 것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여긴다. 천씨가 십여 년간 자신을 곁에 두고도 신상을 묻지 않았듯이, 소리를 하거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은 그걸 다 안다고 여인은 말한다. 천씨는 여인의 소리에 서린 정한을 만나면 여인의 험난한 내력과 눈이 멀게 된 사연도 알 수가 있었다며 수궁한다. 여인을 위로하듯, 천씨는 여인의 오라비가 떠난 것 역시 여인의 한을 다치게 하거나 빼앗지 않으려는 의도였을 것이라고 짐작한다.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지닌 한을 살아가는 힘과 양식으로 삼으며, 여인 역시 한으로 소리가 열리고 한으로 소리가 깊어지는 사람이므로 그 한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이다. 여인은 눈물을 흘리지만 천씨는 눈치채지 못하고 위로를 이어간다. 또 생각하면 손님이 여인을 다시 찾아올 거라는 천씨의 말에 여인은 고개를 젓는다. 그녀는 오라비 역시 스스로의 한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다시 자신에게 와서 한을 빼앗길 짓을 하지 않을 것이며, 설령 그가 이곳에 다시 찾아온대도 만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떠나려는 낯에 천씨는 좌절하지만, 여인은 오라비의 한을 아껴드려야 한다며 주막을 떠나기로 마음먹는다.

등장 인물



천씨	장흥읍에서 작은 주막을 운영하는 홀아비. 천렵을 통해 주막 살림을 연명하고 있으며 십여 년간 아무 것도 묻지 않고 장님 여인이 주막에서 지낼 수 있게 해 주었다. 손님이 묵고 간 날 손님과 여인의 대화를 모두 엿듣고, 손님이 돌아간 후 여인에게 그간의 내력과 손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다.
여인	소리꾼과 손님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아버지에게 소리를 익혔고, 오라비가 떠난 후 딸까지 도망갈까 불안했던 아버지에게 의해 눈이 먼다. 천씨의 주막에서 주모 역할을 하고 있으며, 소리를 들으러 온 손님이 자신의 오라비임을 직감하며 밤새 노래를 부른다. 오라비가 떠난 이후 그 한을 아껴드리기 위해서라며 주막을 떠나기로 결심한다.
손님	여인의 오라비.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와 둘이 살았으나, 어머니가 소리꾼의 아이(= 여인)를 낳고 죽자 소리꾼에게 복수하고자 그를 따라다닌다. 소리꾼에게서 복 치는 법을 배웠으며, 소리를 못 견디고 도망가고 만다. 이후 소리를 들을 때만 만날 수 있는 ‘뜨거운 헛덩이’를 찾아 남도 전역을 헤맨다. 그러던 중 여인을 찾아와 소리를 해 달라고 부탁하고 자신이 소리를 찾아다니게 된 내력을 이야기한다.

주제

한(恨)의 예술적 승화

출제 포인트

- ① 「소리의 빛」의 서사 구조는 과거와 현재가 교차되는 양상을 보인다. 사내와 여인의 어린 시절에 해당하는 과거와 사내와 여인이 재회한 현재로 나뉘어 전개되는데, 현재의 사건이 흐르는 중간중간 ‘사내’의 회상과 ‘여인’의 회상이 삽입되어 두 사람 각각이 살아온 내력을 드러낸다. 작가는 이러한 구조를 통해 단편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닌, 독자 스스로가 답을 찾아낼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소리 듣기를 그토록이나 즐겨하시오?”

“.....”

여자의 물음에 무엇인가 속을 들킨 것처럼 표정이 움츠러들었다. 사내가 새삼 유심스런 눈초리로 그녀를 곱곰 건너다보았다. 여자가 소리를 좀 쉬고 싶은 게 분명했다.

“소리를 좋아하시게 된 내력이라도 있으시오? 소리 좋아하는 시는 양반치고 내력 없는 분은 없습네다.”

확신을 가진 듯 여자가 거꾸 손님에게 물었다.

“내력이라니.....”

사내가 잠시 말을 망설이는 듯하더니 마침내 무슨 속다짐이라도 하고 난 듯 갑자기 한 차례 한숨소리 같은 것을 길게 내뿜었다.

“하기야 내력으로 말한다면 그런 것이 아주 없지도 않았제.”

그리고는 한숨을 토해낼 때의 망연스런 표정만큼이나 허허한 목소리로 천천히 입을 떼기 시작했다.

“내력이 있었제..... 나이 사십이 넘어서도록 아직 이 흉한 꼴을 하고 남도 천지 소리를 찾아 안 가본 데가 없는 몸이라네. 하지만 오늘 밤 자네 소리를 만나고 보니 후회를 안 해도 좋았을 세월이었네.....”

“들을 만한 데도 없이 천하기만 한 제 소리요.”

여자가 짐짓 겸손해하였다. 그러나 사내는 희미한 웃음기 속에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닐세. 자네 소리에는 내게 무엇보다 반갑고 소중한 것이 있네. 소리보다도 나는 그 소리 속에서 그것을 만나러 이 세월을 허송하고 다녔을지도 모르는 소중스런 것이 말이네.” “그것이 무엇이요! 손님한테 그토록 소중한 것이 무엇이요.”

눈먼 여자의 표정이 점점 초조하고 안타깝게 변해갔다.

“자네가 정 듣고 싶다면 내 말을 해줌세.....”

사내가 천천히 그 소중스런 것의 내력을 말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가 어렸을 때 잃었거나 나이를 먹어가면서 잃어가고 있던 어떤 뜨거운 햇덩이에 대한 기억이었다.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의 머리 위에 이글이글 불타오르는 뜨거운 여름 햇덩이가 있었다. 어렸을 적부터의 한 숙명의 햇덩이였다.

그것은 바로 몇 해 전이던가, 사내가 보성 고을의 한 주막집에서 밤새워 여자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녀에게 들려준 자신의 어린 시절과 그 숙명의 햇덩이에 관한 회한 어린 내력에 다른 아닌 이야기였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어린 시절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와 단둘이 살아가던 사내에게 떠돌이 소리꾼이 찾아오고, 사내의 어머니는 소리꾼의 딸을 낳은 후 사망한다.

“일이 그렇게 되고 보니 그 소리를 하던 남자, 그러니까 내겐 아마 의붓아버지가 되었을 뻔한 그 사내는 이제 더 이상 얼굴을 들고 살아갈 수가 없게 됐제. 그래서 끝내는 애 어미 되는 사람의 무덤을 만든 뒤에 그길로 곧 핏덩일 싸들고 마을을 떠나고 말았다네!”

사내는 이제 남의 얘기라도 하듯이 담담한 얼굴이 되어 이야기를 끝맺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소년은 아직도 그때의 그 사내의 얼굴이 소리의 진짜 얼굴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소년에겐 여전히 그 뜨거운 햇덩이가 소리의 진짜 얼굴로 남아 있었다. 나이가 들어가도 마찬가지였다. 사정이 달라져버린 소리의 사내가 핏덩이 같은 갓난애와 소년을 데리고 이 고을 저 고을로 소리를 하며 밥구걸을 다니고 있었을 때도, 소리의 진짜 얼굴은 언제나 그 뜨겁게 이글거리는 햇덩이 쪽이었다.

괴롭고 고통스러운 얼굴이었다. 하지만 어떻게 된 심판인지 사내는 그 고통스런 소리의 얼굴을 버리고 살 수가 없었다. 머리 위에 햇덩이가 뜨겁게 불타고 있지 않으면 그의 육신과 영혼이 속절없이 맥을 놓고 늘어졌다. 그는 그의 햇덩이를 만나기 위해 끊임없이 소리를 찾아다니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런 식으로 이날 이때까지 반생을 지내온 숙명의 태양이요, 소리의 얼굴이었다.

“하니까 그 다음 이야기는 이제 말을 하지 않아도 대개 짐작이 가겠네마는, 어쨌거나 나는 그런저런 내력으로 이 나이 마흔이 넘어서도 그 누추한 어릴 적 기억을 버리지 못해 이런 청승맞은 소리 비렁뱅이질을 계속하고 다니는 꼴이라네. 소리를 들으면 어렸을 적에 그 발두렁가에 누워 보던 바다비늘이 아슴아슴 떠오르고 골짜기 숲으로부터 복터위를 씻어가던 한 줄기 바람결이 내 얼굴을 지나가고..... 아니 그보다도 나는 소리만 들으면 그 이마 위에서 무섭게 들끓고 있던 여름 햇덩이를 다시 보게 된 것일세. 자네처럼 뜨거운 내 햇덩이를 품은 소리를 만난 일이 없는 것 같단 말일세..... 이제 내가 이토록 자네 소리에 끌리는 까닭을 알겠는가.....”

출제 포인트

② 「소리의 빛」에서 ‘햇덩이’의 기억은 ‘사내’에게 고통스러운 것인 동시에 반갑고 소중한 것으로 인식된다. ‘사내’는 이글거리는 햇덩이로 인해 고통스러워 하지만, 그것을 계속해서 찾아다닌다. 이는 고통스러운 ‘햇덩이’가 오히려 현재의 자신을 지탱시켜주는 원동력으로 작용함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작가는 인간이 ‘한’으로 인해 고통스럽게 살기도 하지만, 품은 ‘한’으로 인해 도리어 살아갈 힘을 발견할 수도 있다는 의미를 전달하고자 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햇덩이’의 기억이 지니는 이중적 의미는, ‘오라비’와 ‘누이’의 관계에서도 드러난다. 오라비의 경우 누이에 대한 자신의 죄책감을 덜고 싶은 의도로, 누이의 경우 오라비에게 연민을 느끼게 됨과 동시에 자신의 과거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게 할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글썄…… 자네를 알아보고도 오라비는 어쩌서 끝내 오라비라는 소리 한마디 못해보고 그렇게 허망히 길을 떠나가고 말았던 말인가.”

“그것은 아마 오라비가 또 날 죽이고 싶었기 때문이었을 것이요.”

“오라비가 자넬 죽이고 싶어하다니?”

사내의 두 눈이 다시 크게 벌어졌다.

“노인네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말씀하신 것이 또 한 가지 있었답니다. 당신은 늘 소리를 할 때 오라며 눈에 살기가 도는 것을 보았더라고요. 당신이 소리를 하면 오라비는 이상스럽게 눈빛이 더워지면서 당신을 해치고 싶어 못 견뎌다더랍니다. 오라비가 싫은 것을 참아가면서도 의붓아비를 따라 다닌 것은 그 불쌍한 노인네가 당신의 어머니를 죽인 거라 작심하고 어미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였을 거랍니다. 노인네는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서 원수를 갚으라고 오라비 앞에 더욱 힘이 뻗치게 목청을 돋워대곤 하셨더라고요……. 하지만 오라비는 결국 원수를 갚기는커녕 당신 편에서 먼저 노인의 소리를 못 이기고 도망을 치고 말았다는 말씀이었지요. 그런데…… 어젯밤엔 저도 소리를 하면서 오라비한테서 그런 살기가 완연하게 느껴져 오더구만요. 오라빈 그걸 무슨 햇덩이 같은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게 바로 살기였을 게라요. 오라비가 그 햇덩이 때문에 이마가 뜨거울 때 당신은 그 살기가 일고 있었던 것이요.”

“자네는 그럼 오라비한테서 그런 살기를 느끼면서도 무슨 정성으로 밤새껏 그리 목청을 뽐냈던가? 오라비 살기가 부풀어 끝장이라도 나고 싶었던가 말이네.”

“…….”

“그리고 또 자네 오라비란 사람도 그런 살기가 돌았다면 어쩌서 끝내 자네를 해치지 못하고 말도 없이 문을 나갔겠는가 말이네.”

“그야 오라비는 옛날에도 노인을 해치진 못했지요. 노인을 해치고 싶어했다 뿐, 소리 때문에 외려 당신 쪽에서 몸을 피해 달아난 위인이었다지 않습니까. 오라비넌 제 소리에

살기가 일었는지 모르지만, 제 소리 때문에 또 당신 쪽에서 먼저 몸을 피해가신 것입네다.”

“그걸 자네 오라비도 알았을까. 오라비한테도 자네가 그토록 자기를 알아보고 있는 눈치를 말이네.”

“소리가 어우러져 나가면서 오라비넌도 족히 그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요.”

(중략)

“그리고 보면 아마 자네 오라비라는 사람이 그렇게 가버린 것도 자네의 한을 다치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었는가 싶네. 사람들 중엔 때로 자기 한덩어리를 지니고 그것을 소중하게 아끼면서 그 한덩어리를 조금씩 갈아 마시면서 살아가는 위인들이 있는 듯싶데그랴. 자네가 그렇고, 내가 그렇고, 알고 보면 자네 오라비라는 사람도 아마 그 길에서 그리 먼 데 있는 사람은 아닐 걸세.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 한이라는 것이 되려 한세상 살아가는 힘이 되고 양식이 되는 폭 아니겠는가. 그 한덩어리를 원망할 것 없을 것 같네. 자네같이 한으로 해서 소리가 열리고 한으로 해서 소리가 깊어지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것을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일세. 자네 오라비도 아마 그 점을 알고 있었던 듯싶네. 자네는 아까 오라비가 자넬 해치고 싶은 충동을 못 이겨 간 거라고 말했지만, 그 말이 설사 맞는 데가 있다 치더라도 내 짐작이 크게 들리지는 않을 것 같네. 자네 오라빈 자네 소리에 서린 한을 아껴 주고 싶은 나머지, 자네한테서 그것을 빼앗지 않고 떠나기를 소망했음에 틀림없을 걸세.”

여자의 찌부러든 두 눈에서 소리 없이 물기가 맺혀 흐르고 있었다. 하지만 사내는 아직도 미처 여자의 눈물을 알아채지 못하고 있었다.

“너무 망연해할 건 없네. 언제 또 생각나면 그 양반이 자넬 다시 찾아올 때도 있을 법한 일이 아닌가.”

사내가 다시 간절한 목소리로 여자를 위로하려고 했다. 하지만 여자는 조용히 고개를 가로젓고 있었다.

“그렇게는 아니 될 중 싶소. 오라비넌도 아마 저 모양으로 당신의 한을 먹고 살아가시는 양반이라면 이제 다시 제게 와서 당신의 한을 앗길 것을 하시지도 않으실 양반이요.”

그리고 나서 그녀가 다시 조용히 뱉어낸 몇 마디는 주막 주인 천씨 사내로서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소리였다.

“오라비네가 예까지 다시 절 찾아온다고 해도 우리 남매는 이제 이것으로 두 번 다시 상면을 할 수도 없는 처지고요.”

심상찮은 여자의 말에 주인 사내가 문득 수상한 눈길로 그녀를 돌아다보았으나, 여자는 이미 마음을 굳게 작정해버린 뒤인 것 같았다.

“오라비네가 제 소리를 아껴주시는데, 저한테도 그 오라비의 한이나마 제것 한가지로 소중하게 아껴드릴 도리를 다해드려야 할 듯싶소.”

말하고 있는 여자의 표정은 그녀가 술청마루 끝 햇벌 속으로 나와 앉아 보이지도 않는 눈길로 먼 산허리 쪽을 더듬어대면서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있는 듯하던 그런 때의 그 하염 없는 표정 그대로였다.

하지만 여자는, 이제 비로소 형언할 수 없는 절망감으로 그녀 앞에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주인 사내조차 까맣게 잊어버린 듯한 숨 섞인 목소리로 혼잣말처럼 중얼거리고 있었다.

“어르신네 곁을 찾아온 지도 벌써 십 년이 넘었구요. 제 팔자를 생각해보면 당치도 않게 편한 세월이 너무 길었었나 보아요. 이젠 그만 어디론가 몸을 좀 옮겨야 할 때도 되지 않지요…….”

Memo

■ 이해와 감상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는 1983년에 발표된 작품으로, 6·25 전쟁으로 인한 이산가족의 아픔을 형상화하는 동시에 당시 중산층의 가장된 허위의식과 이기심에 대한 비판을 그려낸 소설이다. 피난길에서 언니인 ‘수지’는 일부러 동생을 잃어버리고, 버림받은 동생 ‘오목(수인)’은 고아가 되어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한편, ‘수지’와 그의 오빠 ‘수철’은 동생을 버린 죄악을 외면하기 위해 더욱 더 이기적이고 위선적인 모습을 한 채 중산층으로 살아간다. 이러한 두 삶의 양상이 교차되어 서술되는데, 작가는 동떨어져 보이는 두 삶이 결국 전쟁과 근대화라는 현실에서 나온 것임을 보여줌으로써 인간애의 회복과 우리가 처한 현실이 어떠한지에 대해 지각해야 한다는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전체 줄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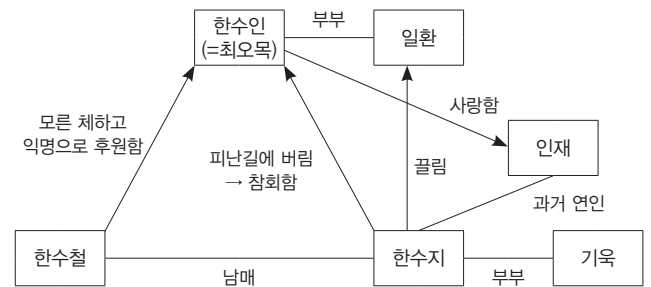
1장 한 옛날에	‘수지’는 각각 일곱 살과 다섯 살인 아들이 싸우는 것을 보고 큰아들이 동생을 죽일지도 모른다면 불안해 하고, 자신의 과거를 회상한다. 일곱 살이었던 언니 ‘수지’는 6·25가 터지자 다섯 살인 동생 ‘오목(수인)’에게 먹을 것을 모두 빼앗기는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피난길에서 ‘은표주박 노리게’를 쥐어주고 동생의 손을 일부러 놓아 버렸고, 이후 전쟁이 끝나고도 트라우마를 겪는다.
2장 숨바꼭질	여대생이 된 ‘수지’는 동생 ‘오목’이 있던 고아원 ‘오누이의 집’을 찾아 ‘오목’을 만나지만 자신이 언니임을 밝히지 않고, 어느 날 고아원을 찾아가 고아원이 문을 닫았다는 사실과, ‘오목’이 익명의 후원자의 도움으로 재수학원에 취직했음을 알게 된다. ‘오목’은 재수학원에서 일하며 외로움에 ‘오누이의 집’을 찾아가 고아원 동기 ‘일환’을 만나고 고백을 받지만 거절하고 돌아온다. ‘오목’은 계속된 외로움에 금은방을 찾아 ‘은표주박 노리게’를 감정받고 자신이 대가떡 귀한 따님이었다는 환상에 젖는다. 이후 ‘오목’은 재수학원을 뛰쳐나와 ‘미순’의 집에 가정교사로 지내게 된다. 한편, ‘오목’을 재수학원에 취직시킨 익명의 후원자는 ‘수지’와 ‘오목’의 오빠인 ‘수철’이었고, 그는 신문광고를 통해 ‘오목’을 찾아냈으나 ‘오목’을 모른 채하고 익명의 후원만을 전하고 있었다.
3장 명암	대학원을 졸업한 ‘수지’는 대학시절 사귀던 가난한 연인 ‘인재’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기욱’과 맞선을 본다. ‘오목’은 미순이네 집의 양자가 되어 ‘최오목’이 되었으며 ‘인재’에게 감정을 느낀다. ‘수지’에게 버림받은 ‘인재’는 ‘오목’을 범하고, 우연히 둘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질투를 느낀 ‘수지’는 ‘인재’에게 ‘오목’이 고아원 출신이라는 사실을 폭로한다.

4장 응달	‘오목’은 실연의 상처와 자신을 ‘박균’과 혼인시키려 하는 미순이네 집에 질려 혼담을 거부하고 집을 뛰쳐나오고, ‘수지’와 ‘인재’의 관계는 파탄나고, ‘수지’는 ‘기욱’과의 결혼을 결심한다. 이후 ‘오목’은 고아원에서 함께 자란 ‘춘자’의 집에 머무르다 ‘일환’을 떠올리고 수소문해 ‘일환’을 찾아가 청혼한다. ‘일환’은 한 차례 거절하지만 결국 ‘오목’을 안고, ‘오목’은 ‘인재’와의 일로 죄책감을 느낀다. 이후 지하실에 살림을 차린 둘은 돈 문제 등으로 다툼을 벌이고 ‘오목’은 자신이 ‘인재’의 아이를 임신했음을 깨닫는다.
5장 양달	‘수지’와 ‘기욱’은 약혼 반지를 맞추고, 약혼식을 치른다. 이후 ‘수지’는 ‘수철’의 서재에서 부모를 찾는 ‘오목’의 신문 광고 문치를 발견하고, ‘수철’이 오목을 찾는 체만 하며 모른 채했다는 사실을 알고 분노한다. ‘수철’의 냉담한 태도에 거리감을 느낀 ‘수지’는 ‘인재’ 앞에서 ‘오목’의 과거를 폭로한 일에 죄책감을 느껴 ‘인재’를 찾아가 ‘오목’을 내버려 두지 말라고 부탁하지만, ‘인재’도 ‘오목’의 행방을 알 수 없다는 말을 듣는다. ‘인재’에게 감정이 남아있던 ‘수지’는 ‘인재’를 유혹하지만 거절당한다. 이후 집에 돌아온 ‘수지’는 ‘수철’ 부부의 분위기를 보며, ‘수철’이 ‘오목’을 버리며 지키고자 했던 가정의 행복을 깨닫고 ‘오목’을 잊고자 한다.
6장 미리 온 아이	‘오목’은 출산이 임박하고, ‘일환’은 돈을 구해오겠다며 나가버린다. ‘일환’이 없는 사이 아이를 출산한 ‘오목’은 자신의 아이가 ‘인재’의 아이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아이가 ‘미리 온 아이’라고 믿는다. 이후 돌아온 ‘일환’에게 조산을 했다고 말하지만, ‘일환’은 뜻 모를 행동만 한 채 집을 나가 버린다. 이후 집에서 쫓겨난 ‘오목’이 ‘일환’을 찾아가 둘은 화해하고 ‘산동네’로 이사한다. 이후 몇 달간 화목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나, 주변인에게 아기가 ‘일환’을 닮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부터 ‘일환’은 외박이 잦아지고 ‘오목’을 폭행하기도 한다. 그러던 중 재차 ‘오목’에게 아이가 생기고, ‘일환’은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희망을 품지만, 그런 희망이 두려웠던 ‘오목’은 첫째 아이를 고아원에 버려 버린다. 이후 그 사실을 안 ‘일환’이 ‘오목’과 다투고 아이를 데려오지만, 이후 출산한 자신의 아이가 딸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화를 내고 그들의 생활은 한층 더 불행해진다.

7장 안개 속의 집	<p>‘기옥’과 결혼한 ‘수지’는 교수이자 불우이웃을 돕는 단체의 장이 되어 있으며, 여러 자선 활동으로 명성을 얻었다. 하지만 부부 사이가 좋지 않던 ‘수지’와 ‘기옥’은 ‘천 기사’ 문제로 다투고, ‘수지’는 ‘기옥’에게 모든 일은 ‘정치적’이라고 말하며 속물적인 모습을 보인다. 이후 ‘수지’의 집에 화재가 나 보일러 기사로 ‘일환’이 찾아오고, ‘수지’는 ‘일환’에게 감정을 느낀다. 이후 ‘기옥’은 중동으로 출장을 가게 되고, ‘수지’는 보일러 수리 문제로 또다시 ‘일환’을 집으로 불러 설렘을 느낀다. ‘기옥’이 중동에 출장 중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일환’은 ‘수지’에게 자신도 중동으로 갈 수 있도록 청탁한다. 이후 ‘일환’의 아내인 ‘오목’이 감사 표시를 위해 ‘수지’의 집에 찾아오고 ‘수지’는 ‘오목’의 남편에게 감정을 품었다는 사실과 가난한 ‘오목’의 신세에 죄책감을 느낀다. 이전에 만난 적이 있는 둘은 서로를 알아보고 과거 고아원이나 ‘인재’와 관련된 이야기를 풀어놓는다.</p>
8장 부드러운 겨울	<p>‘수지’는 ‘수철’에게 ‘일환’의 중동행을 부탁해 성사시키고, 과거 ‘오목’을 버린 일과 관련된 죄책감을 느낀다. 그때 ‘오목’이 아들 ‘일남’과 함께 찾아오고, ‘오목’은 자신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음을 전한다. 이후 ‘수지’는 ‘일남’에게 애정을 느끼며 ‘오목’에 대한 연민을 품고 싶어하고, ‘일환’의 취직을 도와줬다는 생각으로 죄책감을 덜고자 한다. 그러나 자신을 ‘은인’으로 느끼는 ‘일남’에 ‘수지’는 부끄러움을 느끼며, ‘오목이네’와 상종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한편 ‘일환’은 ‘일남’을 미워하고 구박하였으나, 막내아들 ‘영남’이 태어난 이후로 ‘일남’을 받아들이며, 중동행이 결정된 이후로 ‘일남’에게 ‘오목’을 부탁한다. 이후 ‘일환’은 중동으로 떠나게 되고, 얼마후 ‘수지’에게 ‘일남’이 찾아와 ‘오목’의 입원 소식을 전한다. ‘일남’을 따라 병원에 도착한 ‘수지’는 ‘오목’을 치료하기엔 너무 늦었음을 깨닫고, ‘오목’의 ‘일남’을 비롯한 자식들을 임시로 맡게 된다. 이후 ‘수지’는 ‘오목’에게 참회한 이후 ‘오목’의 아이들을 떠맡는 것과 자신의 죄의식을 저울질하다 ‘수철’을 찾아가는다. 그곳에서 ‘오목’을 완전히 잊은 채 행동하는 ‘수철’의 모습을 보고 경멸을 느낀 ‘수지’는 비로소 과거 자신의 죄와 그로 인한 죄책감을 수용하고 ‘오목’의 아이들을 맡겠다고 다짐한다. 이후 ‘수지’는 ‘오목’에게 찾아가지만 ‘오목’은 임종에 가까워져 있었고, ‘오목’은 ‘수지’에게 ‘은표주박 노리게’를 건네며 감사의 표시를 전한다. ‘은표주박 노리게’를 건네받은 ‘수지’는 무릎을 꿇고 ‘오목’에게 참회하며 자신이 언니임을 밝힌다. 그 참회가 끝났을 때 ‘오목’은 이미 죽어 있었으나, ‘오목’의 평온한 얼굴을 본 ‘수지’는 자신이 용서받았음을 믿는다.</p>

※ 상세한 전체 줄거리는 KBS 강좌 자료실에 따로 첨부하도록 하였습니다. 자료실에 첨부된 자료를 확인하시고 학습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등장 인물



한수지	<p>1951년 겨울, 전쟁으로 인해 허기와 결핍을 느낀다. 계속해서 동생에게 음식을 뺏기는 상황에 지쳐 동생 오목이를 일부러 버린다. 이후 고아원을 찾다다니며 봉사하다 ‘오목이’라는 인물을 만나고 자신의 동생이 아닐지 의심하지만, 확인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대학원 졸업식에서 캠퍼스 커플이었던 인재의 초라한 모습을 발견하고, 이후 가족들에 의해 조건이 훨씬 좋은 기옥과 맞선을 본다. 기옥과 결혼하기로 마음먹었으면서도 인재를 흔들다가, 오목이 인재를 좋아하는 것을 알고 질투심에 오목이 고아원을 폭로한다. 결국 기옥과 결혼하고, 그 과정에서 수철 역시 오목을 모른 채했으며 그것이 자신의 완벽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였음을 알게 된다. 이후 집의 보일러를 수리하러 온 일환에게 끌리고, 그 사람이 바로 오목의 남편임을 알고 천벌이라고 생각한다. 중동에 가고 싶다는 일환의 간청을 들어 주고, 외면하고 싶다고 생각하면서도 오목을 병간호하며 오목의 아이들을 돌본다. 결국 오목의 다섯 아이들을 모두 품기로 결정하고, 죽어가는 오목에게 자신의 죄를 참회한다.</p>
한수인 (=오목이) (=최오목)	<p>피난길에 수지에 의해 버림받았다. 자신의 이름을 기억했고, 유일한 소지품인 은표주박을 소중히 여긴다. 자신은 버림받은 게 아니라 피난길에 잃어버린 대가덕의 딸이라고 생각한다. 자신이 자란 고아원인 ‘오누이의 집’이 사라진 뒤 명절에 그곳을 찾아갔다가 일환을 만나지만, 일환의 고백을 가볍게 흘려 버린다. 재수학원에서 숙식하며 일하던 중 미순이네에 방문하게 되고, 한옥집에 정감을 느껴 그 집의 가정교사가 된다. 박군과 결혼시킬 속셈인 미순이네에 양녀로 입적되지만 인재를 좋아하게 되고, 그를 좋아하는 마음에 자신이 사랑받는 딸인 양 거짓말로 둘러댄다. 수지에게 거절당한 인재에게 범해지고, 인재와 양식 집에 갔다가 수지에게 정체를 폭로당한다. 이후 일환을 다시 찾아 그와 결혼하지만, 뱃속에는 인재의 아이가 있었다. 그 후 몇 년간 방황하는 일환과 힘겹게 살아간다. 일환을 중동으로 보내줄 사람이 있다는 소식에 답을 사들고 방문했다가 수지와 재회한다. 처음에는 원망했던 수지를 차츰 구인으로 여기게 되고, 일환이 중동으로 떠나고 난 뒤 결핵이 심해진다. 죽기 직전 수지에게 사과와 감사를 전하며 은표주박을 준다.</p>

주제

전쟁으로 인한 이산가족의 아픔과 중산층의 허위 의식에 대한 비판

출제 포인트

- ①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는 이산가족이 된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통해 근대화 시기 중산층의 속물적이고 이중적인 허위의식에 대해 비판한다. 작가는 이산가족 문제를 전쟁이나 분단의 산물로 국한하지 않고 당대의 속물적 욕망으로부터 비롯되었을 수 있음을 시사하고, 그 욕망은 면죄될 수 없다는 비판적 시각에서 '수지'와 '수철'을 그려냈다고 볼 수 있다.

'수지'는 고아가 된 '오목'을 '모르는 척'하고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으나 그로 인한 죄책감에 위선적으로 자선활동을 하는 이중적 인물로 그려지며, '수철'은 '오목'을 모른 척하면서도 아무런 갈등도 겪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모습은 '수인'이라는 호칭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는데, '수지'와 '수철'은 어린 '오목'은 알지 못하는 '수인'이란 호칭으로 그녀를 찾는 체하며, 위선적인 모습과 함께 자신들의 죄책감을 덜고자 한다. 이는 근대화 시기 지배적이었던 '속물적 도덕'에 대한 비판을 그려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럼 명자가 취직했다는 데가 남의집살이군요? 그렇죠?”

수지는 날카로운 소리로 사모님을 추궁했다.

“그래 식모자리야, 그 팔푼이가 그만큼 풀렸으면 됐지 우리 보고 더 뭘 어찌라는 거야?”

“그럼 목이도 식모로 보냈겠군요? 목이도! 아아, 어찌면...”

수지는 불덩이 같은 분노가 가슴을 단근질하는 것 같아 자기도 모르게 들입다 악을 썼다. 그리고 불러선 안될 이름을 불러 버린 해방감과 그 이름이 그녀의 불의를 관통하면서 남긴 통증 때문에 진저리를 쳤다.

사모님의 얼굴에 의혹과 호기심이 스쳤다. 그러나 잠깐 동안이었다. 수지는 자기 앞에 별안간 부자가 된 여자, 별안간 비단 옷을 휘감고 덕지덕지 화장을 한 여자의 유일한 미덕은 상상력이 빈곤한 거라고 생각하면서 희미하게 미소지었다.

“목이는 아닐걸”

“확실해요? 그게”

“식모로 간 애는 명자하고 또 한 애밖에 없었으니까. 둘 다 내 친구 연줄로 내가 시켰어. 그뻘엔 다 유선생이 취직을 시켰고, 목이는 우리 집에서 제일 나이배기고 또 똑똑하니까 잘됐겠지 뭐”

“걔 고입검정고시를 합격하고 대입검정고시를 준비중이었어요”

“똑똑해도 헛똑똑했지. 오르지 못할 나무를 뭇 하러 쳐다 보누. 참 수지 학생은 어떻게 그렇게 목이에 대해 자세하게 알지?”

“개가 절 제일 따랐으니까요. 제가 보기에 제일 될성부르기도 했구요”

“될성불러 봤잖아지 뭐. 고아 출신이 어디 가”

단 한 번이었지만 목이의 손목을 잡아준 적이 있었다. 가장 나이배기어서 원아라기보다는 보모 노릇을 더 많이 하고 있었다. 부지런한 데 비해 가냘프고 차가운 손목이었다. 수지가 그걸 원치 않고 또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인지 목이한테서 오목이의

모습을 찾아낼 수는 없었다. 실상 수지에게 오목이의 모습이 남아 있해도 그건 믿을 게 못 됐다. 말이 일곱 살 다섯 살이지 만으로 다섯 살 세 살을 겨우 넘겼을 무렵이었으니까.

수지에게 남아 있는 오목이의 모습은 자괴난 심심승처럼 배만 잔뜩 부르고 얼굴은 먹어도 먹어도 허기진 아귀 같은 매우 비사실적인 거였다.

그렇다고 목이와 오목이가 전혀 판사사람이라고 부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수지는 목이가 오목이인지 아닌지를 반신반의인 채로 놓아 두길 원했고 목이의 모습 중에 오목이의 모습은 꼭 그녀가 원하는 것만큼만 있었다. 있기도 하고 없기도 했다.

목이가 오목이인지 아닌지를 반신반의로 남겨놓고 싶은 건, 그게 오목이를 찾고 싶은 마음을 위해서도 찾기 싫은 마음을 위해서도 똑같이 유리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녀의 상반된 두 개의 마음에 똑같이 희망을 주었다. 목이하고 오목이하고 동일인인지 아닌지를 언제까지나 반신반의로 남겨놓고 싶은 마음은 또한 오목이의 손목을 일부러 놓아 잃어버리고 난 일곱 살 적의 심리상태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이었다.

그때 수지가 동생을 놓아버리고 나서 한참만에 목메어 찾아 헤맨 동생의 이름은 늘 부르던 오목이란 애칭이 아니라 가족간에 거의 통용된 적이 없는 수인이란 호적상의 이름이었다. 일곱 살 먹은 계집애의 것이라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그 놀라운 기지, 껌칙한 간지에 수지는 훗날 문득문득 전율했다.

(중략)

꽤 오래 전 신문인 듯 노랗게 변색한 크고 작은 조각들이 마룻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는 사뿐했는데도 수지는 웬지 그 소리와 동시에 가슴속에서 뭔가가 무겁게 철썩 내려앉는 소리를 들었다.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어지럽게 흩어진 그것들을 주워모았다. 그것들이 흘러내릴 때 섬광처럼 머리에 지나간 생각은 틀림이 없었다. 그건 전후 몇 년 동안 이산가족찾기운동이 한창 활발할 때 각 신문에서 다투어 취급하던 자식이 부모를, 부모가 자식을 찾는 무료광고 및 개인적으로 낸 유료광고 중에서 오린 거였고 하나같이 오목이가 낸 광고였다.

그럼 수철이는 오목이가 수인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말인가? 대개의 광고가 오목이의 그 당시의 사진까지 싣고 있었다.

긴가민가해서 오래 뒹을 가능성보다는 확실히 알면서도 그랬을 가능성이 더 많았다. 수지는 수철이가 소년시절부터 바로 몇 해 전까지 얼마나 지치지도 않고 꾸준히 수인을 찾아 헤맸으며, 광고를 낸 것만도 거기 떨군 신문조각의 수효의 몇 곱절은 된다는 걸 알고 있었다. 잃어버린 동생에 대한 이런 진국스럽고 눈물겨운 우애로 하여 수철이가 일가친척으로부터 얼마나 칭송과 존경을 받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수지 역시 그런 수철을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자랑스럽고 미덥기도 했지만 자신의 어린 날이 저지른 악마짓에 대해 더더욱 무서운 가책을 느껴야만 했다. 수철이의 도덕은 그녀에게 가혹한 형벌이었다.

수철이의 변함없이 극진한 우의에 비해 자기는 얼마나 용서

받지 못할 계집애였던가. 얼마나 징그러운 악마였던가.

마치 〈앞에 가는 사람은 도둑놈, 뒤에 가는 사람은 순경〉 하는 것만큼이나 의심할 여지 없이 확정된 도덕적인 순위가 회까닥 전도되는 것 같은 느낌과 함께 수지는 부르짖었다.

“이럴 수가 세상에 이럴 수가...”

수지의 분노는 극심했다. 그녀는 오목이를 모른 척한 수철이를 용서할 수가 없었다.

수철이는 그녀에게 오빠인 동시에 부모였다. 부모를 한꺼번에 잃자마자 수철이는 어린 누이동생을 위해 부모 노릇까지를 겸했고, 그 어려운 노릇을 그가 얼마나 훌륭하게 감당해 왔나는 일가친척들의 칭송이 아니더라도 수지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수철이의 보호자 노릇은 트집잡을 만한 꼬투리라곤 없이 완벽했었다.

따라서 수지가 오목이를 모른 척한 자신은 저만큼 접어두고, 수철이를 용서할 수 없는 건 아우를 모른 척한 형은 용서할 수 있어도 자식을 모른 척한 부모는 용서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였다.

“이럴 수가 세상에 이럴 수가...”

그녀는 마치 벗겨진 위선의 껍질을 확인하듯이 징그러워 하면서 한편 통쾌해 하면서 낡은 신문조각을 주워 올렸다.

출제 포인트

- ②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는 피난민이 복새통을 이루는 한가운데에서 이산가족이 된 주인공들의 이야기로, 성인이 된 '수지'는 자신이 일곱 살 때 동생을 일부러 버렸던 일로 인해 악몽에 시달리고 동생을 버린 '죄책감'에 신음한다. 한편, '오목'은 고아가 된 이후 고아 신세를 벗어나기를 희망하지만, 고아에 대한 배타적 시선과 전쟁 이후 극심해진 빈부격차로 인해 평생 가난한 신세를 벗어나지 못한다. 작가는 전쟁으로 인한 이산가족의 '결합'이 아닌, '지속적 분리'를 그려냄으로써 전쟁의 비극성과 이산가족의 아픔을 부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상 일곱 살이란 나이는, 어른도 먹을 것이라면 덮어놓고 치사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난리통에 두 살 터울밖에 안되는 동생에게 먹을 것을 모조리 양보하고 의젓하기엔 가당치도 않은 나이였다. 겉으로 착한 언니 노릇을 제 아무리 훌륭하게 연기했다고 해도 속으로 상처까지 없을 수 없었다. 수지는 오목이가 먹을 것 외에 갖고 싶어하는 단 하나의 것을 양보하지 않으므로써 스스로의 상처를 달래려 들었다.

수지가 그것만은 내주지 않을 거라는 게 너무도 확실하기 때문에 오목이도 그것을 갖고 싶은 것만은 잘 참아냈다. 참을수록 그건 대단한 보물이 돼갔다. 두 계집애의 미묘한 갈등이 꼭 은행알만한 은표주박에게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진귀한 보물 노릇을 시키고 있었다. 오목이는 그걸 한번 만져보는 꿈을 자주 꾸었고 수지는 그걸 잃어버리는 꿈을 꾸었다. 오목이에게 길몽이 수지에게엔 흉몽이었다.

그 대단한 은표주박 노리개를 꺼내보는 수지의 얼굴에 마음이 얼음장 같은 어른의 미소가 감돌았다. 그게 보물이 아니라 큰극비를 실은 진작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이 노련한 표정이었다.

그러나 곧 먹을 것을 빼앗길 때 같은 애처로운 चे념과 언니다운 양보심을 최대한으로 발휘한 착하디착한 얼굴로 그것을 오목이 손아귀에 쥐어주었다.

“너 가져”

오목이는 악착같이 휘어잡았던 언니의 옷자락을 스르르 놓고 두 손으로 그것을 받았다. 그게 뭐라는 걸 확인하자 그걸 가지라는 말이 믿기지 않아 언니를 쳐다보았다.

“언니야, 뭐라구?”

“너 가지라니까”

“정말?”

오목이는 그 꿈같은 사실에 도취해서 청홍의 칠보무늬가 신비하게 반짝이는 은표주박을 두 손으로 애무했다. 오목조목한 예쁜 얼굴이 기쁨으로 빛난다.

마지막 피난민의 물결이 격랑처럼 드센 한가운데에서의 일이었다.

수지는 자연스럽게 오목이의 손목을 놓쳤다. 혼자가 된 수지는 허둥지둥 사람 사이에 휩싸여 오목이로부터 멀어졌다. 너무 서둘다가 하마터면 고꾸라져서 어른들의 발길에 짓밟힐 뻔하기도 했다.

동생의 손목을 놓치고 따로따로가 된 지 얼마 만인지 문득 수지는 동생을 부르기 시작했다.

“수인아, 수인아”

이미 동생과는 멀어질 대로 멀어진 뒤였지만 동생이 가까이 있어도 알아듣지 못했을 것이다. 수인은 동생의 본명이었지만 호적에만 그렇게 올랐을 뿐, 식구들 사이에서도 그 이름으로 동생을 부른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수인아, 수인아”

수지는 거의 울상이 되어 목멘 소리로 동생을 찾아 헤맸다. 오목이란 입에 오른 호칭 대신 호적상의 이름이 왜 하필 그때 떠올랐는지 모를 일이었다. 그 이름은 황망중 생급스럽게 떠오른 이름 같기도 하고 미리미리 계획된 용의주도한 음모의 일환 같기도 했다.

(중략)

목이는 그런 일환이를 의식적으로 냉담한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그녀와 친밀한 한 다발의 막연한 느낌 속에서 비로소 구체적인 연인의 모습을 뽑아내려 하고 있었다. 그녀의 미래의 연인은 모든 면에서 일환이와 정반대여야만 했다. 그는 빠드렁니여서도 안되고, 천격스러운 들창코여서도 안되고, 불결해서도 안될 것은 물론이거니와 무식해서도 안되고 가난해서도 안됐다.

연기가 가시자 창밖의 공기는 다시 투명해졌다. 그 투명한 공기를 무참하게 둘로 가르고 지나간 주황빛 빨랫줄 위에 산중의 적요로움이 위태롭게 얹혀 있었다.

먼 곳을 지나가는 평의 발자국 소리, 또는 그와 유사한 환청에도 주황빛 선은 전율했고, 그럴 때마다 종점에서 시동을 거는 버스의 엔진 소리가 산의 뿌리를 미미하게 흔드는 걸 앓은 채 감지할 수 있을 만큼 적요로움도 세련돼갔다.

“목아, 우리 둘은 참 잘 어울리는 한 쌍이 될 것 같지 않니?”

일환이가 잠긴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얼굴은 더럽게 얼룩졌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만났을 때처럼 터무니없이 밝게 빛나고 있었다. 목이는 그런 그에게 연민을 느끼면서 가볍게 부정했다.

“어머머, 당치도 않아”

“짜식 당치 않긴. 누가 보아도 우린 어울리는 한 쌍일걸”

“어째서?”

“너도 나도 천애의 고아고, 그러면서도 어려서부터 속 아는 사이고, 나는 너를 좋아하고 또 너를 행복하게 해 줄 자신이 있으니까”

일환이가 소년처럼 으스대며 말했다. 목이는 자신도 느낄 수 없을 만큼 짧은 순간 그런 그를 싱그럽게 생각했다.

그러나 그게 어떤 계기가 될까 봐 목이는 재빨리 자신을 도사렸다.

“누가 보아도 어울리는 한 쌍이란 게 무슨 뜻이지? 오빠”

“이렇게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다 그럴 거란 얘기지 뭐?”

일환이가 어병하게 대답했다.

“고아는 고아끼리 어울려야 한다는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난 싫어. 난 힘 자라는 데까지 세상 사람들의 그런 기대에 어긋나 보일 거야”

“내가 싫다는 소리니?”

일환이가 점점 더 어병하게 선량한 눈을 꿈벅거렸다.

“응, 그럴지도 몰라. 우리는 고아니까 세상 사람들의 동의를 부모의 동의만큼이나 존중해야 할지도 모르지만, 좋은 집 자식들이 부모의 동의에 감지덕지하는 것도 우선 저희들끼리 좋고 나서가 아닐까?”

목이는 자기가 생각해도 좀 심하다 싶을 만큼 일환이에게 모질게 굴면서도 실상은 일환이보다는 고아는 고아끼리 어울리기를 바라는 세상 사람들의 상식에 맹렬한 적의를 품었다.

출제 포인트

- ③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에 나오는 ‘은표주박 노리개’는 여러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수지’는 피난길에서 ‘오목’이 평소 탐내던 ‘은표주박 노리개’를 주고 ‘오목’을 버리게 되는데, 이때 노리개는 수지의 죄책감을 더는 수단으로 기능한다고 볼 수 있다. 이후 ‘오목’은 성인이 되어서까지도 ‘은표주박 노리개’에 과도한 집착을 보이는데, 이때 ‘오목’은 노리개를 자신의 이름과 함께 과거와 현재를 연결해주는 유일한 물건으로 인식하며 스스로를 위로하는 모습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임종을 맞이하는 ‘오목’이 수지에게 믿음과 사랑과 감사의 표시로 전달하는 물건으로 ‘화해’의 의미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도 한다.

[앞부분의 줄거리] 언니 수지로부터 평소 탐내던 은표주박 노리개를 받고 피난길에서 버려져 고아원에 맡겨진 오목은 그 노리개에 과도한 집착을 보인다. 자신이 고아라는 사실에 외로움을 느끼던 오목은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은표주박 노리개를 감정받고자 금은방을 찾는다.

영감은 목이의 뭔가를 열렬히 갈망하는 듯한 시선에 까닭 없이 궁지에 몰리면서 되는 대로 둘러댔다.

“아마 아이들을 무척 위해 기른 집안이였겠지. 자식에 대한 자애가 유별난...”

“아아, 할아버지 그만, 그만하면 됐어요.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목이가 달뜬 소리를 냈다. 시든 꽃이 물을 머금고 살아나듯 그녀는 초라함을 떨고 느닷없이 싱싱하게 되바라졌다. 영감은 자기가 되는 대로 둘러댄 말과 그녀의 변모가 무슨 상관인지 알지 못했으므로 어리둥절했다.

“안녕히 계세요, 할아버지”

목이는 크나큰 목적을 달성한 것처럼 미련 없이 그리고 당당하게 금은방을 나서려고 했다.

“잠깐만 아가씨”

영감이 목이를 불러 세웠다.

“그걸 팔지 않겠나?”

“이건 제 거예요”

목이는 당황해서 바보처럼 중얼댔다.

“아가씨 저구말구. 그러니까 사겠다는 게 아닌가. 은값만 치면 정말 옛 한 가락 값도 안되지만 내 특별히 생각해서 골동품 값을 쳐줄 테니 얼마나 필요한가 말해 봐요”

목이는 잠자코 몇 걸음 뒷걸음질을 치는가 했더니 쏜지가 빠지게 도망을 쳐버렸다. 목이가 없어지고 한참 만에야 영감은 자신의 선심도 그녀의 태도도 다같이 이해할 수가 없어서 껄껄 맥빠진 웃음을 웃었다.

“사장님 그게 정말 그렇게 값나가는 골동품이예요?”

“몰라, 내가 언제 골동품 장사해 봤다던?”

“근데 왜 골동품 값에 사겠다고 하셨어요?”

“글쎄다. 나 보기에 그 계집애가 몹시 곤궁해보이길래 몇 톨 집어줄까 해서...”

“사장님도 어느새 망령이 나셨어요”

점원은 영감이 평소 얼마나 구두쇠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편잔을 주었다. 영감 역시 자신의 선심을 믿지 않았다. 그 계집애의 그 물건에 대한 이상한 집념에 잠시 홀렸던 게 아닌가 싶어 고개를 가우뚱했다.

금은방을 나온 목이는 줄곧 앞만 보고 걸었다.

“나는 대가댁의 귀염을 받은 딸이었다”

코트 주머니에 찌른 손으로 은표주박을 소중하게 어루만지며 그 생각을 되풀이 곱씹었다. 그건 뜻밖의 수확이었다.

비록 몇 년 동안 빼앗긴 채 잊고 지내기도 했지만 그녀의 그 물건에 대한 애착은 자신도 임의로 못할 만큼 끈덕진 데가 있었다. 그런 비정상적인 집념은 그녀의 유년기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었고 좀더 오래 전 이미 망각된 시간 속에 뿌리 내리고 있었다.

“나는 누굴까?”

그 망각된 시간 속에 그녀의 정체도 고스란히 파묻혀 있었다. 그녀는 그 은표주박을 단서로 자신의 정체 일부의 발굴해 낸 것처럼 경탄했고 감동했다.

“나는 대가댁의 귀염받는 딸이었다”

고아원 아이들—그중에도 꿈 많은 계집애들 중에는 자신의 전생이 공주였다던가 왕비였다던가 공상에 도취한 나머지 터무니없이 거만하게 구는 아이가 종종 있었다. 그래 봤잖아 남의 웃음거리나 되는 게 고작이었지만, 목이의 망각의 시간 역시 그런 아이들의 전생만큼이나 신비하고 아득했지만 목이는 애써 그런 공상과 자신이 알아낸 정체는 엄연히 구별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중략)

병원에선 오목이의 임종이 임박해 가족을 찾고 있었다. 주사로 임종을 잠시 유예하고 있는 상태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오목이의 의식은 또렷했고 표정은 해맑았다.

“아아, 언니! 언니, 어디 갔었어? 못 보고 죽을까 봐 얼마나 조바심했는 줄 알아.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거든. 진작 할 걸 왜 여태 참았나 몰라. 죽을 때까지 나 미련한 건 하여튼 알아줘야 한다니까”

오목이는 마지막으로 재미있는 농담이라도 한 것처럼 장난스러운 미소를 띠고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그녀의 목소리는 숲속 길을 거닐 때 문득 옷소매를 스치고 나무들 사이로 도망치는 미풍이나 환청처럼 인간적인 애증과 갈등이 남김없이 걸려진 고요하고 무심한 것이었다.

그런 오목이의 목소리는 죽음에 끝까지 따라다니는 설마 하는 비현실감을 단숨에 몰아냈다. 그리고 죽음을 직시해야 하는 일을 피할 수 없게 됐다는 크나큰 두려움이 수지를 엄습했다. 수지는 떨리는 소리로 말했다.

“오! 오목아, 나야말로 할 얘기가 있었는데, 진작 했어야 하는 애긴데 왜 여태껏 못했나 몰라. 미련하게시리...”

“언니 내가 먼저야”

오목이가 섬뜩하도록 강경한 목소리로 말하면서 믿을 수 없을 만큼 바짝 마른 팔로 허공을 휘저었다.

“언니 내가 언니를 얼마나 싫어했는지 언니는 아마 모르고 있었을 거야. 고아원에서 처음 언니를 만났을 때부터 난 언니

가 싫었어. 왜 그렇게 미웠는지, 아마 질투였나 봐. 언니 제발 용서해 줘. 일생에 누굴 그렇게 미워해 보긴 언니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

“난 미움 받아 싸단다. 난 널 용서해 줄 자격도 없어. 아아, 내 죄를 네가 안다면...”

“언니 내 말 안 끝났어. 내 말 먼저 할 테야. 나에겐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언니, 내 미움은 참 이상해. 내가 남을 내 마음처럼 믿고 의지하기도 언니가 처음이었으니. 언니를 다시 만나기 전에 난 이미 죽었어야 했어. 막내 낳을 때 안 죽은 걸 의사는 기적이라고 말했지만 그때 난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었어. 아이들을 어떡하구 죽냐 말야. 언니도 알다시피 우린 두 내외가 다 고아 아냐? 다 망가진 몸을 정신력 하나로 살아 있다는 게 얼마나 고달픈 일인지 언니는 아마 모를 거야. 그때 언니를 다시 만난 거야. 언니를 만나고부터는 정신력으로 살아 있는 그 지겹고 고된 일로부터 놓여날 때가 됐다 싶은 생각이 왜 그렇게 분명히 떠올랐을까. 참 이상해. 아무튼 자기가 죽은 후 자기 어린 자식들을 마음놓고 맡길 수 있다고 생각할 만큼 누구를 믿는다는 건 동기간에도 여간 우애 있는 동기간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난 하필 죽도록 미워하고 있다고 생각한 언니에게 그런 걸 느낀 거야. 언니, 언니에게 힘든 짐을 지워주려고 일부러 꾸민 얘기가 아냐. 꾸민 것처럼 이상한 얘기지만 정말이야. 자기 자식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을 만큼 남을 믿을 수 있다는 건 너무도 큰 은총이야. 언니 정말 고마워. 언니에 대한 내 믿음과 사랑과 감사의 표시로 언니에게 이걸 주고 싶었어. 이걸 내 전 재산이자 내 모든 거야. 내가 죽는 날까지 알기를 그렇게 원했지만 결국 못 알아내고 만 나의 정체까지도 아마 이 속에 포함되었을 거야. 내가 고아가 되기 전부터 내가 지녀온 유일한 물건이거든. 난 이걸로 내 정체를 어떻게든 건져올려 보려고 무지 애썼지만 허사였어. 아아, 내 아이들...”

오목이가 천근의 무게처럼 힘겹게 건네준 건 은표주박이었다. 은행알만하고 청홍의 칠보무늬가 아직도 영롱한 은노리개였다.

출제 포인트

- ④ ‘수지’는 ‘천기사’ 문제로 ‘기옥’과 다투며, ‘출세’를 위해서는 ‘상전의식’을 가져야 하며, 모든 행위를 ‘정치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한다. ‘천기사’는 ‘정치적’으로 자신의 지위를 위해서 ‘기옥’을 이용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하며, 자신들의 부부 관계 역시 ‘정치적’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모습은 물질적 부와 사회적 지위와 체면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비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운천기사 버르장머리를 그 따위로 길들여서 어쩔 셈이
에요?”

수지가 젖은 머리를 빗질하면서 말했다.

“왜 천기사가 당신한테 무례하게 군 일이라도 있었나?”

“제까짓 게 감히 나한테 어떻게 무례하게 굴어요? 당신을 우
습게 볼까 봐 그러는 거예요. 나보기에 그 사람, 하인의식이
없어요”

“하인의식?”

기옥이 씹어뱉듯이 말했다.

“그래요, 하인의식이요. 왜 내 말이 뭐 틀렸나요? 하긴 천기
사 나무랄 일도 아니죠. 당신이 상전의식이 없으니까 천기사가
하인의식이 없을 수밖에. 위신을 좀 지켜요”

“당신 같은 박애주의자, 자선사업가가 그런 인간차별하는
소릴 함부로 해도 되는 거야?”

“난 지금 당신 얘기하고 있는 거지 내 얘기하고 있는 거 아녜
요. 내 얘기라도 그렇죠. 난 그동안 시간 많고 돈 많은 부자
친구들을 꾸준히 설득해서, 오늘 마침내 그들과 어떤 고아원
과 모자결연까지 맺고 오는 길이에요. 그들에게도 좋은 일이
고 고아들에게도 좋은 일이지요. 나도 보람을 느꼈구요”

“보람 좋아하네”

기옥이 하품을 하며 시들하게 말했다. 그의 마음은 분노를
빌려서건 경멸을 빌려서건 욕망을 빌려서건 아내를 향해 열릴
듯도 싶다간 말곤 했다.

“비꼬지 말아요. 당신이 비꼬는 대로 나는 자선사업간지도
모르죠. 사업가는 너무 거창하고 그게 취민지도 몰라요. 그
렇지만...”

그녀도 말을 끊고 잠깐 뜸을 들이고 나더니 정색하고 계속
했다.

“그렇지만 나는 고아를 내 집까지 끌어들이진 않았어요. 내
아이들하고 고아들을 같은 식탁에 앉힐 생각 같은 건 추호도
없다구요. 대사회적인 관심과 내 아이들에 대한 사랑하곤 엄
연히 다르다는 전제하에 행동해 왔어요”

“당신이 똑똑하다는 건 진작부터 알고 있었어. 정떨어지게
똑똑하다는 걸”

기옥은 흥분하지 않고 잠꼬대처럼 노곤하게 말했다.

“우리 서로 정떨어진다는 말 같은 건 삼가고 삼시다”

수지 역시 발 씻고 자라는 말처럼 감정 없이 가볍게 말했다.

“왜 자존심이 상하냐?”

“별로. 정떨어지긴 나도 마찬가지일걸요”

“왜 같이 살지? 우린”

“그걸 몰라서 물어요?”

“아이들 때문일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속 편다면 그렇게 생각하구려”

수지가 씩씩하게 말하고 침대로 들어왔다. 씩씩한 말투 때문
인지 가까이 누운 아내의 몸에서 냉기가 풍겨와 기옥은 이불을
끌어당겨 가운데다 골을 만들면서 물었다.

“어떤 내가 그렇게 정이 떨어집디까?”

“여가를 천기사 따위하고 보내는 걸 볼 때 같은 때...”

“어차피 여간 여가잖아. 속 편하게 보낼 자유가 있다고 생각
하는데”

“난 여가에 대한 생각이 좀 달라요. 남자가 출세하고 못하
고는 여가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달렸다고 생각해요. 당신도
여가를 그따위로 죽일 생각 말고 활성화시켜야 해요”

“여가를 활성화시키라? 그럼 여가가 아니게?”

“이렇게 말귀도 못 알아듣는 건, 활성화 대신 정치적이란
말을 쓸까요?”

“새록새록...”

“당신도 좀 철이 내려면 내 말 우습게 듣지 말아요. 여가를
좀 정치적으로 보낼 수 없어요?”

수지는 그 말을 오랫동안 별렀던 것 같다. 정색하고 말했다.
기옥을 무시하는 투 대신 간절한 기미마저 엿보였다.

(중략)

“당신에겐 내가 필요해요. 사랑 때문이라곤 하지 말아요. 내
가 돈 있는 여자기 때문에 필요한 거 숨기지 않아도 돼요. 당신
은 천성적으로 자신한테 여러 식구 밥줄을 매달고 허덕일 체질
이 아니라구요. 그런 궁상과 불안은 생각만 해도 몸서리가 날
걸요. 나 역시 당신이 필요해요. 난 사회적으로 성공도 하고 존
경도 받고 싶지만 가정에서 실패한 여자로서가 아니라 가정과
사회생활을 양립시킴으로써요. 출세한 남자에게만 아름답
고 정숙한 아내가 액세서리가 되란 법 없잖아요. 출세한 여자
에게도 성실하고 이해성 깊은 남편은 값진 액세서리예요. 이러
게 우린 서로를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용하기 위해 같이 사는 거
예요. 그게 정치적이란 거구요”

“제발 입 좀 닥치지 못해. 당신이란 여자 정말 지겨운 여자군.
더는 더는 못 참을 것 같아”

기옥이 벌쳐 몸을 일으켰다.

“큰소리치지 말아요. 당신은 참을 수 있어요”

수지가 주문을 외듯이 신들린 목소리로 말했다.

“바른 말은 누구든지 듣기 싫어하지만 당신은 유별나더라.
그러게 늘 바른 말만 하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이왕 바른 말
이 나온 김에 한마디만 합시다. 오늘의 주제가 정치적이니까
하나만 더 정치적인 것의 예를 들게요”

“듣기 싫다니까”

“천기사 말예요. 천기사가 당신의 바둑친구 노릇을 하는 거
이것도 천기사로선 상당히 정치적인 술수일걸요”

“뭘 눈엔 뭇밖에 안 보인더니, 당신 정말 계속해서 이렇게
정떨어지게 굴 거야?”

“당신이 그렇게 펄펄 뿔 줄 알았어요. 그렇지만 할말은 해야겠어요. 왜냐하면 당신하고 천기사하과의 관계는 천기사만 일방적으로 정치적이기 때문이에요. 천기사는 상전의 바둑 비위를 맞춤으로써 상전하고 마치 친구처럼 굴 수가 있지만 당신은 뭐예요? 우리 부부가 서로 정치적인 건 서로 대등하게 이용하는 거니까 상관없지만 천기사한테는 당신이 일방적으로 이용당하고 있단 말예요. 정신 좀 차려요. 당신도 한번 정치적으로 놀아보라는 건 일요일까지 천기사따위를 집으로 끌어들이지 말고 당신이 천기사가 되어 당신 상전네 집에 쳐들어가 보란 말예요. 상전을 끌어내도 좋구요. 당신이라고 골프 못 치란 법 있어요? 상전이 좋아하는 놀이를 통해 우선 상전과 대등해지는 기막힌 술수는 천기사한테 배울 만하잖아요?”

“그 상전 소리 좀 집어치지 못해? 나한테 상전이 어딴어? 나는 하인이 아냐”

“상전 소리는 그럼 취소하죠. 대신 상사라 해도 좋고 출세를 위해 잡을 수 있는 꼬나풀이라고 해도 좋아요”

이해와 감상

〈달로 간 코미디언〉은 2007년에 발표된 단편소설로, 타인을 이해하게 되는 인물들의 모습을 통해 진정한 소통의 어려움과 진실을 전달하는 일의 어려움을 그려낸 작품이다. 우스꽝스러운 연기를 하는 코미디언 아버지에 대한 수치심과 행방불명된 아버지를 잃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라디오 PD ‘안미선’이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는 과정, 그러한 그녀를 사랑하는 ‘나’가 ‘안미선’을 이해하게 되는 과정이 서사 전개 중심이 된다. 이때 실제 역사 사건들을 언급하거나, 책, 편지, 대화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서사 전개 방식이 사용되는데, 이는 진실에 밝히는 과정까지의 노력 또는 진실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의 어려움이라는 주제 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전체 줄거리

소설가인 ‘나’는 갓 전임교수가 된 선배의 임용 축하 파티에 초대받아 갔다가, 배추머리 인형처럼 파마한 안미선을 처음 만난다. 배추머리 인형에 대한 이야기는 이윽고 세계 챔피언이 되려 라스베이거스에서 싸우다 뇌사한 권투선수의 이야기로 이어진다. 안미선은 ‘나’에게 그 선수의 고통을 소설로 쓸 수 있겠느냐고 묻고, ‘나’는 그 권투선수의 고통을 이해한다면 쓸 수 있겠으나 자신은 고통이라는 걸 모르는 소설가라고 말한다. 미선은 ‘나’가 조만간 그 권투선수에게 대한 소설을 쓰게 되리라고 짐작한다.

‘나’는 이별의 이유조차 이해하지 못한 채 3년의 시간을 흘려보낸다. 그러나 ‘나’는 지인들과 오뎅바에서 9·11 테러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9·11 테러로 약혼녀를 잃었다고 말한다. 처음에는 놀랐지만 이내 폭소를 터트리는 지인들 앞에서 ‘나’는 입을 다물었지만 내가 하고자 했던 이야기는 미선이 노스트라다무스가 9·11 테러를 암시하는 시를 썼다는 이야기를 하며 그 시 때문에 ‘나’와 결혼할 수 없다고 설명했던 일이었다. 그날 모임에서 사람들의 웃음에도 자신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데 용기를 얻은 ‘나’는 일주일일 채 지나지 않아 낚술을 마시고 미선을 찾아간다.

방송국 1층에서의 실랑이 끝에 ‘나’는 미선과 재회한다. 뒤늦게 찾아온 낭패감에 ‘나’는 횡설수설하고, 미선은 ‘나’를 이끌고 건물을 빠져나간다. 눈을 질끈 감고 그를 따라가던 ‘나’는 가로수에 이마를 세계 부딪혀 나자빠지고 만다. 미선은 깔깔대며 웃고, ‘나’를 데리고는 여의도공원으로 향한다.

미선은 ‘때로 눈앞이 캄캄해져서 길을 걸어가다가 가로수에 부딪쳐서 넘어지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묻는다. ‘나’는 미선이 자신의 곁에 없고 그래서 소통이 안 되는 상황이 고통스러웠다고 털어놓는다. 세상 모든 게 고통이고, 세상 모든 것과 부딪혔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나’는 아무 이유 없이 사랑하고 아무 이유 없이 이별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하며 미선에게 저녁식사를 제안한다. 미선은 거절하지만, ‘나’가 에야크 인디언을 언급하며 듣는 사람이 없으면 말하는 사람도 없으므로 세계는 침묵이고 암흑이라고 말하자 같이 저녁을 먹겠으니 침묵과 암흑의 세계에 대해 더

자세히 말해 보라고 요청한다.

그날로부터 2년이 흐른 후, ‘나’는 미선으로부터 항공 우편으로 CD를 받는다. 편지에는 그가 마지막 에야크어 사용자 이야기에 착안하여 방문학자 신분으로 미국에서 공부중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편지에서 미선은 소통할 대상을 잃었다는 것은 곧 자신을 표현할 방법을 상실했다는 것이며, 자신이 미국에 온 것은 1982년 가을 라스베이거스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궁금해 미국에 오게 되었다고 밝힌다.

미선은 편지에서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무명의 코미디언이었던 그의 아버지는 ‘달나라로 간 별주부전’이라는 레퍼토리를 갖고 있었으나 코미디언 ‘이주일’ 등에 밀려 빛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전두환이 대통령으로 취임하며 기존의 인기 코미디언들이 ‘저질 연예인’으로 낙인찍혔고, 어부지리로 그녀의 아버지는 일종의 성공을 하게 되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 미선은 아버지의 행적을 뒤쫓다가 자신의 아버지 안복남이 전두환의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공연하는 영상을 발견했다. 무고한 시민들을 죽이고 대통령이 된 군인을 향해 성군이 나섰다고 외치는 모습을 보며 미선은 아버지의 행적 쫓기를 그만두어야 할지 고민했다. 아버지가 가족을 버리고 미국으로 도망친 이유를 이해한다는 것이 불가능할지 모른다고 예감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선은 한 사람이 살아온 인생의 진실은 목소리나 침묵, 암흑 등에서 드러난다고 믿었으므로 아버지의 영상을 모았다. 그 테이프에 ‘달로 간 코미디언’이라는 제목을 써붙이고는 반복해서 돌려보았다. 그리고 아버지의 슬랩스틱 연기가 1980년 9월 이후 눈에 띄게 이상해졌음을 알았다.

언제나처럼, ‘달나라로 간 별주부전’의 마지막 장면에서 안복남은 ‘성군이 나섰도다’로 시작하는 〈쾌지나 칭칭나네〉를 불렀다. 그러나 그는 관객을 향해 걸어가다 무대 앞쪽으로 추락하고 말았고 이후로 그에게는 방송출연 제의가 가지 않았다. 미선 역시 얼마 후 비디오테이프를 더는 보지 않게 되었다.

‘나’는 미선의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 점자도서관으로 향한다. ‘나’는 점자도서관의 관장인 이인용을 만나 미선이 동봉한 CD를 전달한다. 인용은 오디오로 만들어지거나 점역되는 책은 실용서나 베스트셀러뿐이므로 자신 같은 시각장애인의 입장에서 안 팔리는 소설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한다. 요약이 불가능하거나 잘 팔리지 않는 책들은 시각을 잃으며 자신의 세계에서 완전히 사라졌고, 그러므로 세상에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믿기도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나’는 망설임 끝에 인용에게 미선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그가 왜 CD를 인용에게 전해달라고 했는지 묻는다.

인용은 자신이 시력을 상실한 일 년 뒤에 안구가 파열되었고 그래서 안구를 적출했다고 말한다. 그로 인해 그에게서 시각적 세계가 완전히 사라졌고, 동시에 그 시각적 세계 안에서 자신의 몸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투명인간이나 유령 같은 존재가 되었음을 깨달았다는 것이다. 그는 보여야만 존재할 수 있으므로 시각장

애의 핵심은 자신이 사라진다는 점이라고 강조한다. 설명을 계속하던 인용은 미선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안복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당시 그가 가족을 버리고 집을 판 돈으로 애인과 도망쳤다는 말을 들은 인용은 안복남이 시력을 잃어가는 상태였을 테니 치료를 받았다면 좋았겠다고 대꾸했고, 그걸 어떻게 아느냐는 미선의 질문에 안복남의 연기를 통해 알았다고 대답했다. 그 말을 들은 미선이 울고 있었다고 인용은 회상한다.

1982년 10월 8일, 시합을 벌일 권투선수와 코치, 국내 프로모터, 그 후원자인 젊은 회장, 그가 데려온 안복남이 라스베이거스에 도착했다. 현지 코디네이터였던 유학생은 자신의 이야기에 호응하지 않았던 권투선수와 안복남을 인상 깊게 보았다. 이틀 뒤 라운드 매치에서 한국인 도전자 14라운드가 되어서야 링 위에 쓰러졌다. 선수의 말만 믿고 돈을 걸었던 젊은 회장은 큰돈을 날렸다. 안복남은 회장이 밀반출한 50,000달러를 들고 도망쳤다. 회장의 부탁으로 안복남을 찾아나선 유학생은 안복남이 땀을 렌터카를 발견했다. 전복된 렌터카를 본 경찰들은 안복남이 히치하이킹을 해서 라스베이거스를 빠져나갔으리라고 말했지만, 유학생은 안복남의 안정을 발견하고 그가 사막을 향해 걸어갔으리라고 생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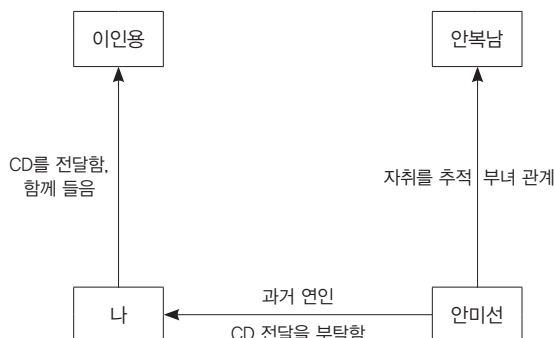
‘나’와 인용은 음향자료실에서 미선이 보내 온 CD를 재생한다. CD는 미선이 비디오테이프에서 옮겨 둔 안복남의 목소리로 시작되고, 그 다음으로는 1982년에 함께 라스베이거스로 갔던 사람들의 증언 등이 편집 없이 흘러나온다. 어느덧 저녁이 되고, ‘나’는 인용의 동의를 구하고 방의 불을 끈다. 어두운 방 안에서 ‘나’는 증언들을 듣다 두 눈을 감는다. CD에서 처음으로 미선의 목소리가 나오고, 그가 라스베이거스로 가는 여정에서 녹음된 소리를 통해 사막에서 실종된 안복남의 고독을, 그를 이해하기 위해 사막으로 달려가는 미선의 욕망을, 그리고 그들이 볼 사막의 빛과 어둠 파위를 듣는다. 이윽고 지루할 정도로 길게 바람 소리가 이어지고, 미선이 “지금, 보이세요?”라고 묻는다. 바람 소리가 계속 이어지다 CD는 멈춘다. ‘나’와 인용은 CD를 다시 듣기로 결정하고, 미선이 라스베이거스로 출발하는 부분부터 CD를 다시 재생한다. 미선의 목소리 이후 ‘나’는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내 어둠과 침묵 속에서 안복남을 본다. 그가 환한 빛의 세계를 향해 걸어가는 모습과 마침내 다다르게 될 둥근 원을 본 ‘나’는 그것이 ‘만월’이라고 말한다. 어둠 속에서 인용은 대답하지 않고, ‘나’는 혼자서 더없이 밝고 환한 보름달을 마주한다.

‘나’	소설가. 선배의 교수 취임 축하 자리에서 안미선을 만나 사랑에 빠진다. 함께 떠난 휴가에서 그에게 청혼하고, 한 달쯤 후에 이별을 통보받는다. 실연에 괴로워하다 미선을 찾아가 소통할 수 없음의 괴로움을 토로한다. 이후 미선이 항공 우편으로 보낸 CD를 점자도서관 관장 인용에게 전달하고 함께 CD를 듣는다.
안미선	피디이자, 코미디언 안복남의 딸. 사람의 인생은 그 사람의 말보다도 말 사이의 침묵에서 드러난다고 믿는다. 아버지가 몰래 집을 팔고 미국으로 도망친 이후 계속해서 그의 자취를 추적해 왔다. ‘나’와 사귀었지만, ‘나’의 청혼을 웃음으로 얼버무린 후 이별을 통보한다. 술을 마시고 찾아온 ‘나’와의 대화를 계기로 라스베이거스로 떠나 아버지가 실종된 사막으로 향한다. 아버지의 생전 영상과 그에 대한 증언들, 아버지를 찾아 떠난 여정을 편집 없이 녹음한 CD를 ‘나’에게 보낸다.
안복남	코미디언이자 안미선의 아버지. 인기 없는 무명 연예인이었으나, 유명 연예인들이 ‘저질 연예인’으로 낙인찍히는 동안 전두환이 ‘성군’이라고 외치며 인기를 유지한다. 시력이 점점 떨어져 공연 중에 무대에서 추락한 뒤로는 방송에 출연하지 못했고, 가족을 버리고 미국으로 떠나 실종된다.
이인용	점자도서관 관장.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미선과 알게 되었고, 그에게 안복남이 당시 시각장애인이 되었을 것이라고 알려준다. ‘나’에게 보이지 않는 것은 곧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다고 설명해 주고, 미선이 보내 온 CD를 함께 듣는다.

주제

진정한 소통과 진실을 전달하는 일의 어려움

등장 인물



출제 포인트

- ① 「달로 간 코미디언」속 주인공들은 모두 타인에 대한 온전한 이해와 소통에 도달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 '나'는 미선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환상에 빠져 청혼을 하지만, 미선에게 거절당한다. '미선'은 아버지를 온전히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아버지의 행적 쫓기를 그만두어야 할지 고민한다. 즉 이러한 인물들의 모습을 통해 작가는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는 것의 어려움과 진실에 다가가기 위한 노력을 이야기하고 있다.

비록 그녀가 내게 이별을 통고한 것은 그로부터 한 달이 더 지난 뒤의 일이었지만, 실제로 우리가 헤어지게 된 건 바로 그 순간이었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날 보름달을 배경으로 하늘을 가로질러 날아가던 크고 검은 부엉이의 실루엣을 보면서 나는 그 또렷한 실루엣처럼 나의 미래가 더없이 명료할 것이며, 또한 동시에 그녀가 그 순간의 인간이 되기까지의 모든 과정마저도 것처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믿었다. 그런 명징한 세계 안에서 나는 그녀에게 죽을 때까지 잘 자라는 인사를 건넬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다. 부엉이가 숲으로 사라지고 나서 몇 분이 지날 때까지 우리는 그렇게 저녁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나는 감동에 겨워 얼마 전부터 마음속에 품고 있던 이야기를 꺼냈다.

“우리 결혼하자”

내 말에 그녀는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더니 빙긋 웃었다.

“진지하게 하는 이야기야. 웃지 말고.”

그러자 그녀는 정말 재미난 이야기를 들었다는 듯이 고개를 젓혀가면서 깔깔거리며 웃었다. 나는 그녀의 팔을 잡아끌며 “웃지만 말고 대답해봐, 빨리, 빨리”라고 채근했고, 그녀는 웃으며 그만하라고 몸을 뺐다. 그 행복했던 몇 분 사이에 팔 개월 남짓 우리에게 존재했던 온기가 부엉이를 따라 눈부시도록 푸른 저녁 하늘을 가로질러 우주 저편으로 날아갔다는 사실을 나는 한 달쯤 뒤에야 깨닫게 됐다. 그나마 그녀와 나 사이에 존재했던 온기가 아주 없어진 게 아니라 우주 어딘가로 날아갔다고 생각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나는 실연의 고통으로 이미 오래전에 죽어야만 했을 테니까.

[중략 부분의 줄거리] 미선과 헤어지고 3년이 흐른 후, '나'는 미선과 재회하고 소통의 부재로 인한 고통에 대해 이야기한 후 헤어진다. 그로부터 2년 후 '나'는 미선으로부터 편지를 받는다.

피디가 되기 전부터 그랬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아버지가 안복남씨라는 걸 스스로 말한 적이 없었다. 그건 단순히 아버지가 어느 날 가족을 버리고 미국으로 떠나버렸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일 년 남짓 텔레비전에 등장했던 그는 방송계에서조차 완전히 잊혀진 존재였기 때문에 아버지가 코미디언이었다고 말할 처지가 아니었다. 사람들은 그 시절의 코미디언으로 배삼룡과 남보원과 구봉서와 이기동과 이주일을 떠올릴 뿐이었다. 하지만 <대한뉴스> 제1297호를 보고 난 뒤에 그녀는 자신의 짐작과 달리 많은 사람들이 극장의 대형 스크린에 나와서 무고한 시민들을 죽이고 대통령이 된 군인을 향해 “성군이 나섰

도다아!”라고 외쳤던 그 코미디언을 기억하고 있으리라 생각하게 됐다. 단 한 번도 아버지가 그런 일을 했으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던 그녀로서는 그쯤에서 이제 아버지의 행적을 뒤쫓는 일을 멈춰야만 하는 건 아닐까 하고 생각했다. 일생을 통틀어 그녀가 아버지와 함께 보낸 시간은 1981년 5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대략 십칠 개월의 기간이 전부였다. 안복남씨는 어쩌면 자신이 알던 그 사람이 아닐지도 몰랐다. 왜 안복남씨가 가족을 버리고 미국으로 도망쳐버렸는지 이해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일지도 몰랐다. 그쯤에서 아버지에 대한 행적을 추적하는 일을 멈추는 게 옳았다.

그럼에도 그녀는 편지에다가 다음과 같이 썼다.

“옛날에 충주호에서 부엉이 볼 때 내가 했던 말을 기억하겠지? 사람들이 퇴근한 뒤 편집실에 혼자 앉아서 릴테이프를 이리저리 돌려가면서 한 사람의 일생을 편집할 때 그게 어떤 기분인지 내가 얘기한 적이 있었잖아. 밤이 늦도록 편집하다보면 어느 틈에 이야기의 내용은 더이상 들리지 않고 목소리의 톤과 빠르기가 들리지. 그런 목소리에 오랫동안 귀를 기울이고 있노라면 한 사람이 살아온 인생의 빛과 어둠, 열기와 서늘함, 고독과 슬픔마저도 들을 수 있을 것만 같아.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그런 미세한 결 같은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 아, 이 사람은 지금 고생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그 목소리만은 그 시절이 제일 행복했었다고 말하고 있구나. 몇 번이고 반복해서 듣다보면 그렇게 혼자 중얼거릴 때가 있어. 편집하면서 내가 제일 안타까웠던 순간은 목소리가 끊어질 때였어. 더 말할 수 있는데, 사람들은 어느 순간 말을 멈춰. 한동안 침묵이 이어지고 릴테이프는 혼자서 돌아가지. 침묵과 암흑, 내 귀에는 잡음만이 들려. 몇 번을 반복해서 듣다 보면 어쩌면 바로 그 순간이 내가 귀를 기울이는 순간일지도 몰라. 거기에 진실이 있을지도 몰라. 1초, 2초, 3초, 4초, 5초. 나는 목소리가 다시 나타나길 기다리면서 없어진 그 목소리의 감정을 읽어.”

그녀는 아버지를 기억하는 사람들을 수소문하는 동시에 영상자료원과 방송국을 오가면서 아버지에 대한 영상을 몇 개 더 찾아낸 뒤, 테이프 하나에다가 그 영상들을 복사했다. 그녀는 그 테이프에다가 ‘달’이라고 적었다가 얼마 뒤 다시 ‘로 간 코미디언’이라고 덧붙였다. 그뒤로 그녀는 틈이 날 때마다 그 테이프를 반복적으로 돌려봤다. 화면은 바라보지 않은 채 그저 소리만 듣기도 했고, 소리를 완전히 줄인 채 화면만 바라보기도 했다.

출제 포인트

- ② 「달로 간 코미디언」에서 이해, 소통의 궁극적인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침묵’과 ‘암흑’이다.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고 소통하지 못하던 인물들은 말해지지 못한 것, 말과 말 사이의 침묵에 대해 이해하게 되고, 두 눈을 감고 암흑 속에서 나타난 타인의 모습을 통해 이해와 소통에 이르게 된다. 작가는 이해와 소통의 어려움 속에서 이러한 ‘침묵’과 ‘암흑’의 모티프를 통해 타인에 대한 이해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는 음향자료실에 나란히 앉아서 CD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CD는 그녀가 비디오테이프에서 옮겨 놓은 아버지의 목소리들, 예컨대 “지구 연돌아 이제 안녕, 오빠는 달로 간다”라거나 “웃을 일이 아니에요” 같은 우스갯소리로 시작했다. 그 다음부터는 1982년 그 권투선수와 함께 라스베이거스로 갔던 사람들의 증언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몇 번의 부도와 재기를 오가며 사기 전과 8범의 처지로 서울에서 개인택시를 운전하고 있는 ‘젊은’, 하지만 이제는 머리칼이 하얗게 새어버린 회장, 아직도 10월 10일이면 무슨 일이 있더라도 죽은 선수를 대신해 생전에 그가 그렇게 좋아하던 쇠갈비를 구워서 억지로 삼킨다는 코치, 유학에서 돌아온 뒤 모교에서 교수로 재직중이던 코디네이터 등의 증언이 흘러나왔다. 아버지와 관계된 이야기인 한, 그녀는 그 누구의 목소리도 편집하지 않았다.

거기에는 “이런 말하든 서운하다고 생각하겠지만서도 당신 아버지는 내 원수다. 그때부터 내 운이 종말을 고했단 말이다”라거나 “있었지. 장회장이 데려왔지. 그제 다지” 등과 같은 목소리뿐만 아니라 기계류가 작동하면서 내는 잡음, 멀리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대화,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발걸음, 열렸다가 이내 닫히는 문, 오랫동안 저 혼자서 울리는 전화벨 등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따금 아무런 소리도 들려오지 않을 때도 있었다. 그럴 때면 이관장과 나는 가만히 앉아서 다시 누군가의 목소리나 주위의 소리가 들려올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다. 그러는 동안, 창에 드리운 블라인드로는 기울어가는 햇살이 노랗게 물들었고, 골목길에서 뛰어놀던 아이들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나는 이어지다가 끊어지고, 다시 이어지다가 끊어지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참 고독하다고 생각했다. 나는 두 눈을 감고 그 목소리들에 귀를 기울이다가 이관장에게 “불을 꺼도 괜찮겠습니까?” 라고 말했다. 전자식 손목시계에 달린 버튼을 누르면서 “왜, 지금 방 안이 어둡습니까?” 라고 이관장이 내게 되물었다. 시계에 내장된 여자 목소리가 “지금 시각은 오후 여섯시 삼십오분입니다”라는 문장을 만들었다. “아니, 지금 불은 켜져 있습니다. 꺼도 괜찮겠느냐고 물었습니다”라고 내가 말했다. “저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라고 이관장이 대답했다.

나는 일어나 방 안의 불을 켰다. 아직 빛이 드문드문 남아 있는 성긴 어둠이 방 안에 들어찼다. 목소리들은 이십사 년 전 라스베이거스에서 50,000달러를 들고 사라진 코미디언에 대해 때로는 유창하게, 때로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듯, 때로는 여전히 분노를 이기지 못해, 때로는 그 일이 여전히 혼란스럽다

는 듯 더듬더듬 증언하고 있었다. 나는 가만히 앉아서 저마다 빛을 발하는 CD플레이어와 앰프와 콘솔의 불빛들을 바라보다가 이윽고 두 눈을 감았다. 두 눈을 감으니 졸리다는 생각이 들 즈음, 처음으로 그녀의 목소리가 나왔다. 2006년 10월 8일, 그녀는 차를 한 대 빌려서 혼자서 라스베이거스를 향해 출발한다고 말했다. 운전석에 앉은 그녀는 자신이 타고 가는 도로의 번호와 자신이 반드시 지나가야만 하는 도시 이름을 중얼거렸다. 580번을 타고 가다가 5번으로, 다시 베이커스필드에서 58번으로, 모하비를 거쳐 바스토우에서 15번으로, CD에는 버클리에서 라스베이거스로 가는 여덟 시간 동안, 그녀가 녹음기를 켜다가 끄는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나는 무덤덤한 그녀의 목소리 사이에서 자동차의 엔진 소리를, 틀어놓은 라디오 소리를 창을 스쳐가는 바람 소리를, 그녀의 기침소리를 들었다. 나는 쪽 뺨은 길의 좌우로 펼쳐진 사막을, 곱결처럼 부드럽게 오르내리는 도로의 굴곡을, 열어놓은 창으로 들어오는 공기의 서늘함을 들었다. 나는 어느 날 사막에서 실종된 한 남자의 고독을, 그 남자를 이해하기 위해 사막을 향해 달려가는 한 여자의 욕망을, 그리고 그 남자와 그 여자가 보게 될 사막의 빛과 어둠, 열기와 서늘함, 고독과 슬픔을 들었다.

그리고 다시 녹음기를 켜다가 켜는 기척이 들렸다. 저 멀리에서 자동차 한 대가 달려오는 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이내 다가온 속도 그대로 우리에게서 멀어졌다. 자동차 소리가 사라지니 실내는 문득 고독해졌다. 처음과는 약간 다른 종류의 고요가 찾아왔다. 누군가 낮은 음으로 휘파람을 불어대는 소리 같기도 하고, 한 500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서 파도가 치는 소리 같기도 하고, 코요테가 밤하늘을 향해 울부짖는 소리 같기도 한 바람 소리가 들렸다. 아주 오랫동안, 지루할 정도로 길게 바람 소리는 계속 이어졌다. 그녀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 하는 의문이 들 즈음, 그녀의 목소리가 불쑥 등장하더니 “지금 보이세요?”라고 물었다. 그 목소리는 젖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그제 다였고, 십오분 가깝게 규칙적으로 마이크를 스쳐가는 바람 소리만 계속 이어지다가 어느 결엔가 모든 소리는 사라지고, 우리는 어둠과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CD는 멈춰 있었고 양쪽 스피커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우리는 미동도 하지 않고 그대로 앉아 있었다. 한참 있다가 “아무래도”라고 말하며 이관장이 입을 열었다.

“다시 한번 더 들어보는 게 좋겠죠?”

“그래야 할 것 같네요. 관장님은 뭔가 보이십니까?”

“그러지 말고 일단 다시 들어봅시다.”

나는 두 눈을 뜨고 자리에서 일어나 CD플레이어를 향해 걸 어간 뒤, 연주시간이 표시되는 부분의 숫자를 바라보면서 빨리 감기 버튼을 눌렀다. 몇 번 시행착오를 거친 끝에 나는 그녀 혼자서 라스베이거스를 향해 출발하는 부분을 찾아냈다. 그녀는 한번 더 580번 도로를 타고 가다가 5번으로, 다시 베이커스필드에서 58번으로, 모하비를 거쳐 바스토우에서 15번으로 갈아탄 뒤 라스베이거스에 도착했다. 그리고 바람 소리가 계속 지루하게 이어진다고 생각할 즈음에 그녀가 등장해 “지금 보이세요?”라고 물었다.

나는 규칙적으로 들려오는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어둠

과 침묵 속에서 밤의 사막, 그리고 전복 사고로 안경을 잃어버린 한 코미디언의 모습이 보일 때까지. 이제 시작도 끝도 없이 광활한 사막에 혼자 남게 된 그가 고개를 두리번거리다가 마침내 환한 빛의 세계를 향해 걸어가는 모습이 보일 때까지. 그가 걸어가는 길의 먼 끝 지평선에서부터 사막의 별거벗은 윤곽이 밝게 드러날 때까지. 그가 그 밝은 길을 따라 걸어가 마침내 다르게 될 그 둥근 원이 떠오르게 될 때까지.

“아, 이진 만월이군요. 맞지요?”

이번에는 눈을 감지도 않은 채, 내가 중얼거렸다. 이관장에 게서는 아무런 대답도 들리지 않았다. 나는 혼자서 더없이 밝고 환한 보름달을 마주 보고 있었다. 거기에는 나 혼자뿐이었다.

Memo

이해와 감상

〈꺼삐딴 리〉는 1962년에 발표된 단편소설로, 일제 강점기부터 한국 전쟁 이후의 혼란한 시기를 배경으로 하여 인간의 기회주의적인 면모에 대한 비판을 드러낸 작품이다. 일제 강점기, 광복, 한국 전쟁 등 주요한 역사적 전환기 때마다 권력자였던 외세(일본, 소련, 미국)에 붙어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물인 ‘이민국’을 통해 현대 자본주의 사회 지도층들의 이기적이고 기회주의적인 면모에 대한 풍자와 비판을 드러낸다.

전체 줄거리

외과 의사 이민국이 수술을 막 마치고 응접실 소파에 기대어 앉는다. 그는 환자가 혼수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했다는 데 꺼림칙함을 느낀다.

인국의 병원은 먼지 하나 없이 정결하며 치료비가 다른 병원보다 배는 비싸다. 인국은 병보다도 환자가 병원비를 낼 능력이 있는지부터 판단하는 의사이며, 따라서 그의 고객은 왜정시대에는 일본인이었으며 현재는 권력층 혹은 재벌 측에 드는 이들로 구성되어 있다.

인국은 양복 조끼 호주머니에서 회중시계를 꺼내고, 미국 대사관 직원인 브라운 씨와의 약속까지 남은 시간을 확인한다. 시계는 그가 일본의 제국대학을 졸업할 때 받은 것이며 일제 강점기, 소련군 점령하의 감옥 생활, 6·25 사변, 38선, 미군 부대를 거치는 내내 함께한 물건이다.

인국은 딸 나미에게서 온 편지를 떠올린다. 왜정시대에는 내선일체 혼인론(조선과 일본이 결혼으로 뭉쳐져야 한다는 주장)을 당연하게 여겼던 그임에도 외국인 교수와 결혼하고 싶어하는 딸에게는 못마땅함을 느낀다. 그는 딸과 사윗감의 사진에 코웃음을 친 뒤 약속 준비를 서두른다. 인국이 살림방으로 건너가자 그의 후처 혜숙이 인국을 맞이한다.

거제도 수용소에서 아내가 죽은 후 서울로 다시 돌아온 인국은 간호원으로서 자신을 돕던 혜숙과 결혼했다. 나미 역시 처음에는 재혼에 찬성을 표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나미와 혜숙의 사이는 멀어졌고 혜숙은 나미를 장애물처럼 여겼다. 인국은 나미가 미국으로 떠난 것이 가정 분위기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혜숙이 낳은 아들을 장차 미국으로 유학 보내려면 나미를 미국인과 혼인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체념한다. 혜숙의 화장대에 놓인 골동품과 석간신문을 들고 인국은 집을 나선다.

인국은 1945년 8월 하순을 회상하기 시작한다. 일제로부터 해방된 이후 그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는 당시로부터 6개월 전 ‘모범적인 황국신민’으로서 춘석이라는 사상범(=독립운동가)의 입원을 거절했으며, 공교롭게도 해방 이후 그를 마주쳤기 때문이다. 회상 중에 춘석과의 과거 일을 다시 회상하는데 소련군이 입성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에 인국은 벽장을 열었고, 잠꼬대까지 일본어로 할 정도였던 인국은 얻어낸 ‘국어 상용의 가’라는 표창을

찢어 버렸다. 소련군의 행진을 본 인국은 친일파였던 자신의 앞날을 불안해할 뿐, 지난 일에 대한 뉘우침이나 가책은 느끼지 않았다.

회상을 마치고 자동차 속에서 석간신문을 펼친 인국은 ‘북한 소련유학생 서독으로 탈출’이라는 기사를 보고 아들을 모스크바에 억지로 유학 보낸 일을 회상한다. 해방 이후 그는 소련의 세력 아래 살기 위해서는 노어를 배워야 한다고 주장했고, 스텐코프 소좌의 연줄을 통해 아들을 소련으로 보냈다. 그러나 아들이 유학한 바로 다음 해에 6·25가 터졌고 아들의 소식도 끊기고 말았다. 인국은 석간신문의 기사에서 아들의 이름을 찾지 못하고 연락이 없는 아들을 한심하게 여긴다. 그러면서 그는 아들을 유학 보내라고 권유한 스텐코프와의 만남을 회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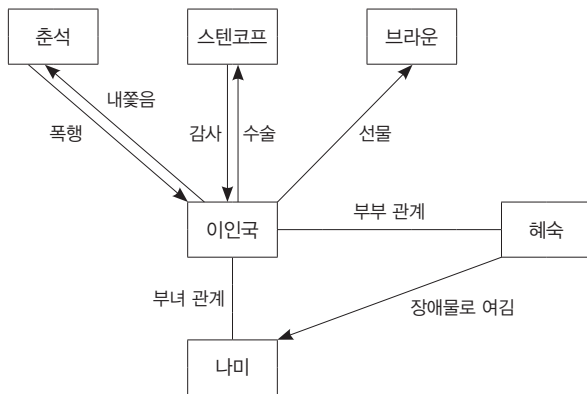
해방이 되고 자위대가 치안대로 이름을 바꾼 다음날, 인국은 치안대에 연행되었다. 그는 자신의 처지에 절망감을 느끼면서도, 즉결 처형이 아니라는 데 희망을 품지만, 일본 병사 군복을 입은 춘석에게 얻어맞고 소련 병사에게 회중시계를 빼앗겼다. 빼곡한 감방 속에서 인국은 노어회화 책을 읽고, 자신의 죄가 무기징역이나 사형감이라는 사실에 불안해하고, 식민지 백성은 어쩔 수 없었다며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인국의 옆자리에서 자던 청년이 피통을 짜자, 인국은 그가 적리라는 전염병에 걸렸다고 진단했다. 청년이 격리된 이후로도 환자가 늘자 소련 장교 스텐코프는 인국에게 환자 진료를 맡겼다. 인국은 희생할 기회를 찾았다는 생각에 치료에 최선을 다하고, 계속 병원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그러나 처벌의 결말이 모호했으므로, 인국은 그간 공부한 노어로 스텐코프에게 왼쪽 뺨에 붙은 혹을 제거해 주겠다고 제안했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자 스텐코프는 인국을 ‘꺼삐딴 리’라고 부르며 감사를 표하고, 그가 집에서 통근해도 좋다고 허락했다. 더 부탁할 것이 없느냐는 스텐코프의 말에 인국은 회중시계를 찾고 싶다고 부탁하고, 회중시계를 돌려받았다.

인국이 스텐코프와의 일을 회상하는 동안 자동차는 브라운의 관사 앞에 도착한다. 인국은 브라운의 집에 놓인 여러 골동품들을 보며 저것들도 자신처럼 누군가가 가져다 준 것이리라는 생각에 얼굴을 붉힌다. 그러나 이는 자국의 문화재를 외국으로 내보낸다는 자책감이 아니라 자신이 가져 온 상감청자가 별로 달갑지 않을 수 있다는 염려에 기인한 감정에 가깝다. 브라운은 선물에 기뻐하고, 인국에게 국무성의 통지가 왔음을 알린다. 인국은 스텐코프와의 일을 떠올리며 자신의 처세술이 미국에도 통한다는 사실에 기고만장한 기분을 느낀다.

브라운의 집을 나선 인국은 미국으로 떠날 생각에 들떠 하며, 자신이 수술한 환자의 경과가 가볍게 잊어버린다. 그는 혁명이 일거나 나라가 바뀌어도 자신은 살아남을 수 있다고 자신하며 만족감을 느낀다.

등장 인물



인국	외과 의사로, 권력에 아부하며 자신의 안위를 챙겨 왔으며 경제력에 따라 환자를 가려 받는다. 일제 강점기에는 일본어를 배워 친일파 노릇을 했고, 소련 점령 시기에는 노어를 배워 소련 장교에게 복종했다. 미 국무성 초청케이스를 할당받기 위해 미국 대사관 직원에게 고려청자를 선물한다.
혜숙	인국의 후처. 본래 간호원이었으며, 6·25 이후 인국과 재회하여 결혼했다. 나미의 출국과 자신의 아들 출산 이후에야 인국과 부부로서 가까워졌다. 나미와는 사이가 멀어졌다.
나미	인국의 딸. 인국의 재혼에 찬성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혜숙에게 결혼생활의 장애물 취급을 받았다. 대학 영문과에서부터 유학 시절까지 자신을 도와준 미국인 교수와 결혼하겠다는 편지를 보낸다.
춘석	사상범으로 수감되었다가 병 때문에 풀려난 반일 투사. 인국의 병원에서 치료받고자 했으나 입원을 거절당한다. 해방 이후 조선인 자위대(치안대)에 소속되며, 인국이 체포되자 그를 걷어차며 보복한다.
스텐코프	소련군 장교. 왼쪽 얼굴에 오리알만한 혹이 있다. 수감소에서 전염병이 발생하자 인국에게 환자들의 치료를 맡긴다. 이후 인국이 자신의 혹을 수술로 제거해 주자 인국이 처벌받지 않도록 조치하고, 그의 아들이 소련으로 유학할 수 있게 돕는다.
브라운	미국 대사관 직원. 인국에게 고려청자를 선물받고 기뻐하며, 미 국무성 초청 케이스에 인국이 확정되었다는 소식을 알려 준다.

주제

인간의 기회주의적 면모에 대한 비판

출제 포인트

- ① 「꺼삐딴 리」의 「이인국 박사」는 근대 지식인으로서의 명예와 의무를 저버리고 권력과 부를 좇는 철저한 기회주의자의 전형적 인물로 볼 수 있다. 그는 처세술을 통해 일제, 소련, 미국 등 그때 그때 권력을 잡는 외세에 기생해 살아가는 사대주의자인 동시에, 끝없는 자기합리화를 통해 그것에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도덕적이지 못한 속물로 묘사된다. 한편, 그의 처세술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바로 ‘언어’라고 볼 수 있는데, 일제 치하에서는 ‘일본어’를, 소련군이 점령한 북한에서는 ‘노어’를, 월남 이후에는 ‘친미파’로 ‘영어’를 공부하고 사용하는 모습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

그는 간밤에 출감한 학생이 내던지고 간 노어회화 책을 첫장부터 곰곰이 뒤지고 있을 뿐이다.

등골이 쏘고 옆구리가 결려 온다. 이것으로 고질이 되는가 하는 생각이 없지 않다.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사뭇 내려가고 있다. 아무리 체념한다면서도 초조감을 막을 길 없다.

노어 책을 읽으면서도 그의 청각은 늘 감방 속의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있다. 그들이 예측하는 식대로의 중형으로 치른다면 자기의 죄상은 너무도 어마어마하다. 양곡 조합의 쌀을 몰래 팔아먹은 것이 7년, 양민을 강제로 보국대에 동원했다는 것이 10년, 감정적인 증결이 아니라 법에 의한 처단이라고 내대지만 이 난리 판국에 법이고 뭇이고 있을까, 마음에만 거슬리면 총살일 판인데…….

(친일파, 민족 반역자, 반일투사 치료 거부, 일제의 간첩 행위…….)

이건 너무도 어마어마한 죄상이다. 취조할 때 나열하던 그대로 한다면 고작해야 무기징역, 사형감일지도 모른다.

그는 방안을 둘러보며 후큰 숨을 내쉬었다.

처마 밑에 바싹 달라붙은 환기창에서 들이비치던 손수건만한 햇살이 참대자처럼 길어졌다가 실오리만큼 가늘게 떨리며 사라졌다. 그 창살을 거쳐 아득히 보이는 가을 하늘이 잊었던 지난 일을 한 덩어리로 읽어 휘몰아오곤 했다. 가슴이 찢릿했다.

밖의 세계와는 영원한 단절이다.

그는 눈을 감았다. 마누라, 아들, 딸, 혜숙이, 누구누구……. 그러다가 외과계의 원로 이인국 박사에 이르자, 목구멍이 타는 것같이 꼭 막혔다.

그는 헛기침을 하고 침을 삼켰다.

(그럼, 어쩐단 말이야, 식민지 백성이 별 수 있었어. 날구 똥들 소용이 있었느냐 말이야. 어느 놈은 일본 놈한테 아침을 안했어. 주는 떡을 안 먹은 놈이 바보지. 흥, 다 그놈이 그놈이었지.)

이인국 박사는 자기변명을 합리화시키고 나면 가슴이 좀 후련해 왔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감옥에 전염병 환자가 발생하고, 인국은 환자를 치료한 것을 계기로 처벌을 피한다. 이후 인국은 소련군 장교의 혹을 제거해주고 그의 환심을 사 풀려나지만, 6·25 전쟁이 터지고 인국은 월남하여 친미파로 거듭난다.

브라운 씨의 영어 반 한국어 반으로 섞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인국 박사는 흐뭇한 기분에 젖었다.

“닥터 리는 영어를 어디서 배웠습니까?”

“일제 시대에 일본말식으로 배웠지요, 예를 들면 ‘갓도 이즈아 캣도’ 식으로요.”

“그런데 지금 발음은 좋은데요, 문법이 아주 정확한 스텐더트 잉글리시입니다.”

그는 이 말을 들을 때 문득 스텐코프의 말이 연상됐다. 그리고 보면 영국에 조상을 가진다는 브라운 씨는 아르(R) 발음을 그렇게 나타내지 않는 것 같게 여겨졌다.

“얼마 전부터 개인 교수를 받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인국 박사는 자기의 어학적 재질에 은근히 자금을 느꼈다.

브라운 씨가 부엌 쪽으로 갔다오더니 양주 몇 병이 놓인 쟁반이 따라나왔다.

“아무 거라도 마음에 드는 것으로 하십시오.”

이인국 박사는 위드카 잔을 신통한 안주도 없이 억지로라도 단숨에 들이켜야 속 시원해 하던 스텐코프를 브라운 씨 얼굴에 겹쳐 보고 있다.

그는 혈압 때문에 술을 조절해야 하는 자기 체질에 알맞게 스카치 잔을 활듯이 조금씩 목을 축이면서 브라운 씨의 이야기를 기다렸다.

“그저, 국무성에서 통지 왔습니다.”

이인국 박사는 뭇 듯이 기뻐으나 솟구치는 흥분을 억제하면서 천천히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했다.

“댕큐, 댕큐.”

어쩌면 이것은 수술 후의 스텐코프가 자기에게 하던 방식 그대로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인국 박사는 지성이면 감천이라구, 나의 처세법은 유 에스 에이에도 통하는구나 하는 기고만장한 기분이었다.

청자병을 몇 번이고 쓰다듬으면서 술잔을 거듭하는 브라운 씨도 몹시 즐거운 기분이었다.

“미국에 가셔의 모든 일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염려 마십시오, 떠나실 때 소개장을 써드리지요.”

“감사합니다.”

“역사는 짧지만, 미국은 지상의 낙토입니다. 양국의 우호와 친선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댕큐…….”

다음날 휴전선 지대로 같이 수렴하러 가기로 약속하고 이인국 박사는 브라운 씨 대문을 나섰다.

이번 새로 장만한 영국제 쌍발 엽총의 깃푸른 총신을 머리에 그리면서 그의 몸은 날기라도 할 듯이 두둥실 가벼웠다. 이인국 박사는 아까 수술한 환자의 경과가 궁금했으나 그것은 곧 잊겨졌다.

그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포부와 희망이 부풀어올랐다.

신체검사는 이미 끝난 것이고 외무부 출국 수속도 국무성 통지만 오면 즉일 될 수 있게 담당 책임자에게 교섭이 되어 있지 않은가? 빠르면 1주일 내에 떠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브라운 씨의 말이 떠올랐다.

대학을 갓 나와 임상 경험도 신통치 않은 것들이 미국에만 갔다 오면 별이라도 판 듯이 날치는 꼴이 눈꼴사나웠다.

(어디 나두 땡겨오구 나면 보자!)

문득 딸 나미와 아들 원식의 얼굴이 한꺼번에 망막으로 휘몰아 왔다. 그는 두 주먹을 불끈 쥐며 얼굴에 경련을 일으키듯 긴장을 띠다가 어색한 미소를 흘려보냈다.

(흥 그 사마귀 같은 일본놈들 틈에서도 살았고, 닥싸귀 같은 로스케 속에서도 살아났는데, 양키라고 다를까…… 혁명이 일겠으면 일구, 나라가 바뀌겠으면 바뀌구, 아직 이 이인국의 살구멍은 막히지 않았다. 나보다 얼마든지 날뛰던 놈들도 있는데, 나쯤이야…….)

그는 허공을 향하여 마음껏 소리치고 싶었다.

(그러면 우선 비행기 회사에 들러 형편이나 알아볼까…….)

이인국 박사는 캘리포니아 특산 시가를 비스듬히 문 채 지나가는 택시를 불러 세웠다.

그는 스프링이 튕 듯이 복스에 털석 주저앉았다.

“반도호텔로…….”

차창을 거쳐 보이는 맑은 가을 하늘은 이인국 박사에게는 더욱 푸르고 드높게만 느껴졌다.

출제 포인트

- ② 「꺼삐딴 리」라는 제목의 “꺼삐딴”은 ‘까삐딴’에서 파생된 말로, ‘까삐딴’은 영어의 Captain에 해당하는 러시아어이다. 8·15 직후 소련군이 북한에 진주하자 ‘까삐딴’이 ‘우두머리’·‘최고’라는 뜻으로 많이 쓰였는데, 그 발음이 와전되어 ‘꺼삐딴’으로 통용된 것으로, 작중 ‘스텐코프’가 자신의 혹을 수술해준 ‘이인국’을 극찬하며 부른 명칭이다. 이러한 명칭을 제목으로 사용한 것에는 작가의 언어적 표현 의도가 들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캡틴’이라는 칭호가 어울리지 않는 속물적이고 기회주의적인 인물인 이인국을 비판하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

[앞부분의 줄거리] 해방 이후, 친일 행적으로 인해 소련군에 끌려간 이인국은 감옥의 전염병 환자를 치료한 것을 계기로 병원에서 일하게 된다.

그는 환자의 치료를 하면서도 늘 스텐코프의 왼쪽 뺨에 붙은 오리알만한 혹을 생각하고 있었다.

불구라면 불구로 볼 수 있는 그 혹을 가지고 고급 장교에 까지 승진했다는 것은, 소위 말하는 당성(黨性)이 강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전공(戰功)이 특별했음에 틀림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것 하나만 물고 늘어지면 무엇인가 완전히 살아날 틈바귀가 생길 것만 같았다.

이인국 박사의 뜨내기 노어도 가끔 순시하는 스텐코프와 인사말을 주고받을 수 있을 정도로 진전되었다.

이 안에서의 모든 독서는 금지되었지만 노어 교본과 당사(黨史)만은 허용되었다.

이인국 박사는 마치 생명의 열쇠나 되는 듯이 초보 노어책을 거의 암송하다시피 했다.

크리스마스를 전후하여 장교들의 주연이 베풀어지는 기회가 거듭되었다.

얼근히 주기를 땀 스텐코프가 순시를 돌았다.

이인국 박사는 오늘의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다.

수일 전 소군 장교 한 사람이 급성 맹장염이 터져 복막염으로 번졌다.

그 환자의 실을 뽑는 옆에 온 스텐코프에게 이인국 박사는 말 절반 손짓 절반으로 혹을 수술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스텐코프는 ‘하라쇼’를 연발했다.

그 후 몇 번 통역을 사이에 두고 수술 계획에 대한 자세한 의사를 진술할 기회가 생겼다.

이인국 박사는 일본인 시장의 혹을 수술하던 일을 회상하면서 자신있는 설복을 했다.

(동경 경응대학 병원에서도 못하겠다는 것을 내가 거뜬히 해치우지 않았던가.)

그는 혼자 머리 속에서 자문자답하면서 이번 일에 도박 같은 심정으로 생명을 걸었다.

소련 군의관을 입회시키고 몇 차례의 예비 진단이 치러졌다.

수술일은 왔다.

이인국 박사는 손에 익은 자기 병원의 의료 기계를 전부 운반하여 오게 했다.

군의관 세 사람이 보조하기로 했지만 집도는 이인국 박사 자신이 했다. 야전 병원의 젊은 군의관들이란 그에게 있어선 한갓 풋내기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는 수술을 진행하는 동안 그들 군의관들을 자기 집 조수 부리듯 했다. 집도 이후의 수술대는 완전히 자기 전단하의 왕국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아까 수술 직전에 사인한, 실패되는 경우에는 총살에 처한다는 서약서가 통일된 정신을 순간순간 흐려 놓곤 한다.

수술대에 누운 스텐코프의 침착하면서도 긴장에 찻던 얼굴, 그것도 전신 마취가 끝난 후 3분이 못 갔다.

간호부는 가제로 이인국 박사의 이마에 내뿜힌 땀방울을 연방 찍어내고 있다.

기구가 부딪는 금속성과 서로의 숨소리만이 고의 반사등이 내리비치는 방안의 질식할 것 같은 침묵을 헤살짓고 있다.

수술은 예상 이상의 단시간으로 끝났다.

위생복을 벗은 이인국박사의 전신은 땀으로 흠뻑 젖었다.

완치되어 퇴원하는 날 스텐코프는 이인국 박사의 손을 부서져라 쥐면서 외쳤다.

“꺼삐딴 리, 스바씨보.”

이인국 박사는 입을 헤벌리고 웃기만 했다. 마음의 감옥에서 해방된 것만 같았다.

“아지, 아진…… 오첸 하라쇼.”

스텐코프는 엄지손가락을 높이 들면서 네가 첫째라는 듯이 이인국 박사의 어깨를 치며 찬양했다.

다음날 스텐코프는 이인국 박사를 자기 방으로 불렀다.

그가 이인국 박사에게 스스로 손을 내밀어 예절적인 악수를 청한 것은 이것이 처음이었다.

(적과 적이 맞부딪치면서 이렇게 백팔십 도로 전환될 수가 있을까, 노랑 대가리도 역시 본심에서는 하나의 인간임에는 틀림없는 것이 아닌가.)

“내일부터는 집에서 통근해도 좋소.”

이인국 박사는 막혔던 독이 터지는 것 같은 큰 숨을 삼켜가면서 내쉬었다.

이번에는 이인국 박사가 스텐코프의 손을 잡았다.

“스바씨보, 스바씨보.”

“혹 나한테 무슨 부탁이 없소?”

이인국 박사는 문득 시계가 머리에 떠올랐다.

그러면서도 곧이어 이 마당에 그런 이야기를 꺼낸다는 것은 오히려 피죄죄하게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뒤따랐다. 그러나 아무래도 그 미련이 가셔지지 않았다.

이인국 박사는 비록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솔직히 심중을 털어놓으리라고 마음먹었다.

그는 통역의 보조를 받아가며 시간과 장소를 정확히 회상하면서 시계를 약탈당한 경위를 상세히 설명했다.

스텐코프는 혹이 붙었던 뺨을 쓰다듬으면서 긴장된 모습으로 듣고 있었다.

“염려 없소, 독포오루 리. 위대한 붉은 군대가 그럴 리가 없소. 만약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무슨 착각이었을 것이오. 내가 책임지고 찾도록 하겠소.”

스텐코프의 얼굴에 결의를 띤 심각한 표정이 스쳐가는 것을 이인국박사는 똑바로 쳐다보았다.

(공연한 말을 끄집어내어 일껏 잘 되어가는 일에 부스럼을 만드는 것은 아닐까.)

그는 솟구치는 불안과 후회를 짓눌렀다.

“안심하시오, 독포오루 리, 하하하.”

스텐코프는 큰 웃음으로 넋지시 말끝을 막았다.

이인국박사는 죽음의 직전에서 풀려나 집으로 향했다.

어느 사이에 저렇게 노어로 의사 표시를 할 수 있게 되었느냐고 스텐코프가 감탄하더라는 통역의 말을 되뇌이면서…….

출제 포인트

- ③ 「꺼빼판 리」는 ‘플래시백의 기법’을 일관되게 사용하며, 현재에서 과거로, 과거에서 또 대과거로 시간을 역행하며 다시 이것을 현재로 연결해 나간다. 이인국의 굴곡 있는 생애를 그려내기 위해 과거와 현재를 뒤엎기게 하여 그의 생애사적 굴곡을 플롯의 굴곡에 맞추어 소설을 설계했다고 볼 수 있다. 작가는 이를 통해 일제 강점기, 북한 사회, 남한 사회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묘사를 그리는 한편, 비판하고자 하는 인물형의 생애와 성격을 효과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앞부분의 줄거리] 상류층을 고객으로 하는 병원을 운영하는 이인국은 미국 대사관 직원과의 약속을 위해 집을 나서며, 자신의 과거를 회상한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은 분명 기적임에 틀림없는 일이었다. 간헐적으로 반복되어 공포와 감격을 함께 휘몰아치는 착잡한 추억. 늘 어제 일만 생생하기만 하다.

1945년 8월 하순.

아직 해방의 감격이 온 누리를 뒤덮어 소용돌이칠 때였다.

말복도 지난 날씨언만 여전히 무더웠다. 이인국 박사는 이 며칠 동안 불안과 초조에 휩몰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다. 무엇인가 닥쳐올 사태를 오돌오돌 떨면서 대기하는 상태였다.

그렇게 붐비던 환자도 하나 얼씬하지 않고 실 사이 없던 전 화도 뜸하여졌다. 입원실은 최후의 복막염 환자였던 도청의 일본인 과장이 끌려간 후 텅 비었다.

조수와 약제사는 궁금증이 나서 고향에 다녀오겠다고 떠나 갔고 서울 태생인 간호원 혜숙만이 남아 빈집 같은 병원을 지키고 있었다.

2층 10조 다다미방에 혼도시와 유까다 바람에 뒹굴고 있던 이인국 박사는 건디다 못해 부채를 내던지고 일어났다.

그는 목욕탕으로 갔다. 찬물을 퍼서 대야째로 머리에서부터 몇 번이고 내리부었다. 등줄기가 시리고 몸이 가벼워졌다.

그러나 수건으로 몸을 닦으면서도 무엇인가 짓눌려 있는 것 같은 가슴 속의 갑갑증을 가셔낼 수가 없었다.

그는 창문으로 기웃이 한길가를 내려다보았다. 우글거리는 군중들은 아직도 소음 속으로 밀려가고 있다.

굳게 닫혀 있는 은행 철문에 붙은 벽보가 한길을 건너 하얀 윤곽만이 두드러져 보인다.

아니 그 곳에 씌어 있는 구절.

‘親日派, 民族反逆者를 打倒하자.’

옆에 붉은 동그라미를 두 겹으로 친 글자가 그대로 눈앞에 선명하게 보이는 것만 같다.

어제 저물녘에 그것을 처음 보았을 때의 전율이 되살아왔다. 순간 이인국 박사는 방 쪽으로 머리를 휩 돌렸다.

(나야 원 관찮겠지…….)

혼자 뇌까리면서 그는 다시 부채를 들었다. 그러나 벽보를 들여다보고 있을 때 자기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일그러지는 얼굴에 경멸인지 통쾌인지 모를 웃음을 비죽거리면서 아래위로 훑어보던 그 춘석이 녀석의 모습이 자꾸만 머리 속으로 엄습

하여 어두운 밤에 거미줄을 뒤집어쓴 것처럼 꺼림칙하기만 했다.

그깟놈 하고 머리에서 씻어 버리려도 거머리처럼 자꾸만 잡아 붙은 것만 같았다.

벌써 6개월 전의 일이다.

형무소에서 병보석으로 가출옥되었다는 중환자가 업혀서 왔다.

행땡그런 눈에 앙상하게 빼만 남은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는 환자, 그는 간호원의 부축으로 겨우 진찰을 받았다.

청진기의 상아꼭지를 환자의 가슴에서 등으로 옮겨 두 줄기의 고무줄에서 감득되는 숨소리를 감별하면서도, 이인국 박사의 머리 속은 최후 판정의 분기점을 방황하고 있었다.

입원시킬 것인가, 거절할 것인가…….

환자의 몰골이나 엮고 온 사람의 옷매무새로 보아 경제 정도는 뻔한 일이라 생각되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마음에 켜기는 것이 있었다. 일본인 간부급들이 자기 집처럼 들락날락하는 이 병원에 이런 사상범을 입원시킨다는 것은 관선 시의원이라는 체면에서도 땀땀지 못 할뿐더러, 자타가 공인하는 모범적인 황국신민의 공든 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순간 그는 이런 경우의 가부 결정에 일도양단하는 자기식으로 찰나적인 단안을 내렸다.

그는 응급치료만 하여 주고 입원실이 없다는 가장 땀땀하고도 정당한 구실로 애걸하는 환자를 돌려보냈다.

환자의 집이 병원에서 멀지 않은 건너편 골목 안에 있다는 것은 후에 간호원에게서 들었다. 그러나 그쯤은 예상로운 일이었기에 그는 그대로 아무렇지도 않게 흘려버렸다.

그런데 며칠 전 시민대회 끝에 있는 해방 경축 시가행진을 자기도 흥분에 차 구경하느라고 혜숙이와 함께 대문 앞에 나갔다가, 자위대 완장을 두르고 대열에 끼인 젊은이와 눈이 마주쳤다.

이쪽을 노려보는 청년의 눈에서 불뚱이 튀는 것 같은 살기를 느꼈다.

무슨 영문인지 모르고 어리벙벙하던 이인국 박사는, 그것이 언젠가 입원을 거절당한 사상범 환자 춘석이라는 것을 혜숙에게서 듣고야 슬금슬금 주위의 눈치를 살피며 집으로 기어들어 왔다.

그 후 그는 될 수 있는 대로 거리로 나가는 것을 피하였지만은 공교롭게도 어제 저녁에 그 벽보 앞에서 마주쳤다.

Memo

이해와 감상

〈말을 찾아서〉는 1996년에 발표된 작품으로, ‘나’와 ‘당숙’, ‘노새’가 겪는 갈등과 화해의 과정을 중심으로 인간의 내적 성숙을 보여준다. 이 작품은 ‘나’가 과거를 회상하는 액자식 구성을 취하고 있다. 어린 시절 ‘나’가 ‘노새’를 끌던 ‘당숙’을 부끄럽게 여겨 갈등을 겪지만 결국 화해하는 과정, 어린 시절에는 끝내 받아들이지 못했던 ‘노새’에 대해 어른이 된 후 죄책감과 연민을 느끼며 내적인 화해를 이루는 과정을 통해 주인공의 내면적 성숙을 엿볼 수 있다.

전체 줄거리

‘나(이수호)’는 「메밀꽃 필 무렵」속 배경인 봉평 이야기를 써 달라는 청탁을 딱 잘라 거절한다. ‘나’는 봉평에 대해서라면 누구보다 이야기가 많았지만, 그 이야기들을 하다 보면 나오게 될 자신의 아부제(양아버지)와 그의 말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가 그 원고를 거절한 또 다른 이유는 정초에 낀 꿈이다. 아이들을 친가인 강릉에 보내고 아내와 여행을 간 ‘나’는 새해 첫날 밤 말에게 주위를 맴도는 꿈을 꾸었다. 꿈에서 깨어난 ‘나’는 껄끄러움을 느끼며 일본에서 먹은 말고기를 떠올린다. 여행이 끝날 때까지도 꿈으로 연애했하는 ‘나’에게 아내는 강릉 어른들에게 좋은 꿈인지 나쁜 꿈인지 물어보라고 조언했다. ‘나’는 아버지의 얼굴보다도 아부제를 먼저 떠올리며 말에 대해서는 그가 더 해박하리라 생각했다.

‘나’는 아부제에게 전화를 걸어 새해 안부를 전한 뒤 말 꿈에 대해 묻고 좋은 꿈이라는 답을 들었다. ‘나’가 아이들의 안부를 확인하며 ‘나’의 친부모보다 ‘나’의 양부모를 우선시하자 아부제는 뿌듯한 티를 감추지 못했다. ‘나’가 말고기를 먹는 일은 어떤지 넌지시 묻자 아부제는 그것도 괜찮다고 답했다. 말 꿈에 계속해서 심란해하는 ‘나’에게 아부제는 좋은 꿈이라고 확인해 주지만, ‘나’는 해코지를 한 뒤 다시 본다면 좋을 게 없다는 말에 찔찔해 했다. ‘나’는 말고기를 입에 댄 뒤 말 꿈을 꾸었다면 이는 해코지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는 말을 끌던 아부제가 유일하게 금하던 말고기를, 자신이 먼저 꺼림칙해질 것을 알면서도 먹은 일을 후회했다.

여행으로부터 두 달 전, ‘나’는 일본의 문학 심포지엄에 참여한 후 오사카에서 일행들과 술집에 방문했다. 그곳의 메뉴에서 일행들은 말 사시미(회)를 발견하고, 호기심에 주문까지 마쳤다. ‘나’는 말 사시미에 호기심을 가지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린 시절 집에서 키우던 말을 떠올리며 내키지 않아 했다. 한 점씩 먹은 일행들의 중용 끝에 ‘나’는 꺼림칙한 기분을 느끼면서도 말고기를 먹었고, 계속해서 말 사시미를 떠올리며 거부함을 느꼈다.

‘나’는 정초의 말 꿈 역시 말 사시미로 인해 낀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는 말고기를 먹지 않았더라도 말 꿈을 좋게 여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아부제 집에 양자로 들어가기 전부터도 ‘노새집 양재’로 불렸고 아부제를 찾아 봉평에 다녀온 뒤로는 ‘노새집 아들’로 불렸으나 말에 대해 한 번도 좋은 생각을 가져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전화로 거절했던 원고를 요청한 것이 자신과 함께 대화—봉평—진부를 취재하며 「메밀꽃 필 무렵」의 무대를 여행했던 후배임을 알게 되고, 결국 원고를 쓸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어 글쓰기를 시작한다.

그는 누이를 찾으러 봉평에 갔다는 이야기로 시작해 글을 써나가지만, 사실 ‘나’가 봉평에 간 것은 누이가 아니라 몇 달째 집을 나가 있는 당숙을 찾기 위해서였다. ‘나’의 양아버지인 당숙은 당시 마흔이 넘어서도 아이가 없었고, ‘은별’이라는 노새를 끄는 일을 해 ‘노새 애비’라고 불렸다. ‘나’가 초등학교 4학년이었을 때, 집안 어른들은 당숙모가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나’를 작은집(당숙네 집)의 양자로 정했다. ‘나’는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정해진 일에 반발했다. 작은할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작은집 양자로서 당숙과 함께 장례 절차를 치르면서도 ‘노새집 양재’가 되기를 계속해서 거부했다. 자신의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의 아들이 되는 것도 싫었거니와 남들이 이유 없이 깔보는 노새집의 ‘노새 애비’ 아들이 되기는 더욱 싫기 때문이었다. ‘나’는 노새(은별)와 노새를 끄는 당숙을 창피하게 여겼고, 중학교에 들어가면서는 그 정도가 더욱 심해졌다. 당숙 역시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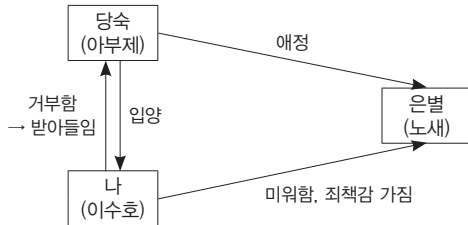
그러던 어느 날, 웬일로 당숙은 자신을 모른 척하는 ‘나’를 불러 세우고 용돈을 준 뒤 동료들에게 ‘나’를 아들로 소개했다. ‘나’는 당숙에게 돈을 돌려준 다음 양자가 되지 않겠다고 소리친 뒤 도망쳤다. 그 뒤로 당숙은 밤마다 술에 취해 들어오더니 이윽고 집에 돌아오지 않고 밖을 떠돌기 시작했다. 당숙모는 당숙이 여자를 사서라도 애를 낳아야겠다고 말하며 울었다고 말하며, 날마다 ‘나’의 집에 와서는 아버지에게 당숙을 찾아 데려와 달라고 부탁했다. 일이 이렇게 되자 집안 어른들은 늦게라도 양자를 셋째(‘나’) 대신 둘째(‘나’의 작은형)로 바꾸자고 했고 ‘나’의 작은형 역시 동의했지만, 당숙모는 ‘나’를 내놓을 수 없다며 거부했다. 노새집 양자는 죽어도 안 가겠다고 작은형이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따르겠다고 말하는 모습을 보며 ‘나’는 ‘노새집 양자’에 대한 부끄러움과 서러움을 풀고, 당숙을 찾아 봉평으로 떠났다.

봉평에 도착한 ‘나’는 친척인 영자를 찾아 당숙의 행방을 물었다. 영자가 알려준 대로 장터 언저리를 살폈지만 당숙이나 당숙의 노새는 찾아볼 수 없어 ‘나’는 강릉옥에 들어가 당숙을 찾았다. 강릉옥 주인으로부터 당숙이 산판에 들어가 모레나 돼야 나오리라는 답을 들은 ‘나’는 고마운 마음에 밥과 소머리국을 주문해 먹었다. 밥을 다 먹은 ‘나’는 영자네 집으로 돌아와 있다가, 당숙이 돌아왔으니 진부옥으로 가 보라는 영자의 말에 감사 인사를 전하고 당숙을 찾아갔다. ‘나’는 내내 입속으로 연습한 ‘아부제’라는 호칭으로 당숙을 부르며 용서를 구했고, ‘나’를 본 아부제는 선뜻 돌아가겠다고 답했다. ‘나’는 아부제와 함께 돌아가기 위해 봉평에서 하루를 더 머물렀고, 다음날 아부제의 손에 이끌려 대화에 갔다. 아부제는 ‘나’에게 비싼 야광 손목시계를 사 준 뒤 가족들의 물건을 몇 가지 샀다. ‘나’와 아부제는 해가 질 때쯤 봉평으로 돌아왔다. 아부제는 자신의 동료들에게 연신 ‘나’를 자랑한 뒤에야 ‘나’와 함께 길을 떠났다. 메밀

발을 걸으며 아버제는 몇 번이고 ‘나’에게 자신을 아버지로 여겨 데리러 온 것이 맞느냐고 물으며 감격에 젖었다. 두 사람은 메밀밭을 걸으며 수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아버제는 ‘나’에게 어른들이 시켜서 데리러 온 것인지, 아버제라고 부르라고 시킨 것인지, 자신이 말을 끄는 게 싫은지 ‘나’에게 물었다. ‘나’는 데리고 오라고 하기는 했으나 ‘이렇게’ 데리고 오라고 한 것은 아니며 아버제라는 호칭도 스스로 부른 것이라도 답하면서도 말 끄는 게 싫냐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러고는 강릉에 내려가면 아버제 집에 가서 살겠다고 말했다. 아버제는 고맙다고 말하며 내려가면 노새를 치우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날 밤에도, 이후 아버제의 집에서 살면서도 ‘나’는 말이나 아버제의 일(말 끄는 일)과는 화해하지 못했다. 아버제의 말은 ‘나’가 중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다리를 다쳐 앓다가 죽었다. 사체는 마부들이 가져갔지만 아버제는 그들을 따라가지 않았고, 고기를 보내겠다는 제안도 거절했다. 그날 ‘나’는 작은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처음으로 우는 아버제를 보았다.

‘나’는 자신이 누리는 모든 것이 말의 등에서 나왔음에도 말에게 참으로 많은 설움과 눈총과 미움을 주었다고 회상하며 그가 죽어 정말 (이름대로) 하늘의 은별이 됐대도 자신은 말에 대해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나’는 원고에 아버제의 노새 이야기를 쓰지 못하고, 그 노새의 슬픈 생애에 대해 제대로 글을 쓸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다린다.

등장 인물



‘나’ (이수호)	강릉 출신의 작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노새를 끄는 당숙의 양자로 결정되지만, 노새집 아들이 되기 싫어 완강히 거부한다. 자신의 거부에 상처받아 집을 나간 당숙을 찾아 봉평으로 가고, 그곳에서 당숙을 ‘아부제’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끝내 아버제의 말인 은별과는 화해하지 못한다. 이 때문에 어른이 되어서도 은별에 대한 죄책감을 지니고 있다.
당숙 (아부제)	노새를 끄는 ‘노새 애비’. 마흔이 넘어서도 자식이 없어 조카인 ‘나’를 양자로 들이려 정성을 쏟지만, ‘나’의 완강한 거부에 상처를 입고 집을 나간다. 자신을 찾으러 와서는 아부제라고 부르는 ‘나’에게 감격하며 고마워한다. 동료들에게 ‘나’를 자랑하고 ‘나’에게 좋은 손목시계를 사 주는 등 애정을 쏟는다. 자신이 끄는 노새 은별이 죽었을 때 눈물을 보이며 슬퍼한다.
은별 (노새)	당숙이 끄는 노새. ‘나’가 양자 되기를 거부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된다. 온갖 핏박 속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나’에게 설움과 눈총과 미움을 받다가, 공사에서 다리를 다친 뒤 앓다 죽는다.

주제

갈등과 화해를 통한 내면적 성숙

출제 포인트

- ① 「말을 찾아서」에서는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이라는 소설이 직접적으로 언급되기도 하며, 소재(“허생원 - 나귀 / 당숙 - 노새”), 공간(“봉평에서 대화로 가는 산길과 그 길의 달밤 분위기”)과 같은 장치들을 통해 두 작품은 내적 연관을 유지한다. 그러나 이러한 장치들이 두 작품 사이에서 정확히 대응되는 것은 아니며, 서로 유사하면서도 약간씩 어긋나게 연결되어 각각의 의미를 드러내는 독특한 방식으로 패러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나는 저쪽에서 무어라고 더 말을 하기 전에 서둘러 전화기를 내려놓았다. 그러나 사실 봉평에 대해서라면 누구보다 가슴속에 묻어두고 있는 이야기가 많았다. 어린 날 보았던 봉평 장터에 대해서도 그렇고, 「메밀꽃 필 무렵」 속의 허생원과 그의 나귀, 또 그들이 걸었던 봉평에서 대화로 가는 80리(그러나 실제로는 60리밖에 되지 않는) 산길과 그 길 옆에 끝없이 펼쳐져 있던 메밀밭에 대해서도 그랬다. 다만 내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은 것뿐이었다. 그 얘기를 하자면 나는 어쩔 수 없이 작품 속의 나귀가 아닌 또다른 나귀와 아부제(양아버지) 얘기를 해야 할 것이다.

“어디 전환데 그렇게 받아요?”

전화를 끊고 나자 옆에 섰던 아내가 말했다.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긴요? 원고 청탁 전화 같던데…….”

“원고 청탁 전화면 왜?”

“전화를 그런 식으로 받으니 그러지요. 애써 전화한 사람 무안하게…….”

“말 얘기를 해달라니까 그렇지. 정초부터 말 꿈을 꾸는 것도 부족해 말 얘기를 해달라고…….”

“작품 여행 얘기가 아니고요?”

“그 얘기가 그 얘가지. 「메밀꽃 필 무렵」에 말 얘기가 안 나와? 나귀 얘기가 말 애긴 거지.”

“이제 그만 생각해요. 나쁜 꿈도 아니라면서…….”

“그래도 내가 언짢으니까 그렇지.”

며칠 동안 말 꿈으로 내가 신경을 쓰는 걸 보아서인지 아내도 더 이상 뭐라고 말하지 않았다. 만약 그러지 않았다면 아내도 지지 않고 그 속에 나귀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메밀꽃 필 무렵」을 어떻게 말 얘기라고만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을 것이다. 어쨌거나 중요한 건 그게 말 얘기든 나귀 얘기든 지금 내가 그 원고를 쓰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다. 정초에 그런 꿈까지 꾸는 다음 또다른 나귀 얘기와 어린 날 아부제를 찾아 봉평에 갔던 얘기를…….

(중략)

돌아오는 길 내내 아부제는 그 말을 묻고 또 물었다. 나는 새로 찬 야광 시계를 보며 10분이나 20분 간격마다 지금 몇 시 몇 분이다, 를 말했다. 자정 통행금지 시간이 다되어 이목정 말먹이집에 닿았다.

다음 날 아침부터 걸은 길도 그랬다. 풀인 여물을 가마니에 받아 싣고 노새가 맥을 못 추는 한낮만 잠시 그들에 피했다가

저녁 늦게야 대관령에 닿았다.

“자지 않고 떠나면 새벽이면 닿는다.”

“아부제.”

“어.”

“그러면 그냥 가요.”

“그라이자 우리 말상주 시키는 대로, 영 내려가다 중간 반정(半程) 집에 가서 뭐 좀 달래서 먹구.”

그리고 또 밤길을 걸었다. 아부제는 마차에 올라타기도 하고, 내리막 언덕이 심한 곳에서는 마차에서 내려 말의 고삐를 잡기도 했다. 그때면 나도 따라 내려왔다. 아부제가 그냥 타고 있으라고 해도 그랬다. 그러면서 아부제와 나는 또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그 영을 넘어왔던가.

“아부제.”

“어.”

“뭐 하나 물어봐도 돼요?”

“그러든 누가 묻는 말이라구.”

“아부제가 진부옥 아주머이를 좋아했어요?”

“그래 보이더나?”

“야.”

“아니다. 내가 좋아한 게 아니구 그쪽에서 그런 거지. 내가 이래 다 큰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없는 줄 알구. 그러니 니두 내려가 숙모한테 그런 말 하든 안 된다.”

“그러든 나두 니한테 뭐 물어봐도 되젠?”

“야.”

“니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해서 날 데리구 오라구 시키든?”

“데리고 오라고 시키긴 했는데, 이렇게 데리고 오라고 시키는 않았어요.”

“날 아부제라고 부르라구 시킨 것두 아니구?”

“야.”

“그럼, 니가 니 마음으루다 부른 말인?”

“야, 아부제.”

“그러든 하나 더 물어두 되젠?”

“야.”

“니 내가 말 끄는 게 싫은?”

“…….”

그 말만은 대답하지 못했다. 아부제도 그 말을 두 번 묻지 않았다.

“아부제.”

“어.”

“나 내려가면 이제 아부제 집에 가서 살려구 해요.”

“우리집에?”

“야.”

“어른들이 그렇게 하라구 시키든?”

“아뇨. 지 마음으로요.”

“니 마음으로?”

“야. 그래서 올라올 때 하생골 어머니한테 내 방 하나 치워놓으라고 했어요.”

“수호야.”

“야.”

“아부제는 고맙다. 무슨 말인 줄 알제?”

“야.”

“그래, 내려가든 나두 이 짐승 치우지 뭐. 니 싫어하는 걸 계속할 게 뭐 있젠.”

“허, 이놈이 말귀 알아듣나. 절 치운다니까 대가리를 흔들게.”

“안 치워도 나 아부제 집에 가 살아요…….”

“그래, 치우지 뭐. 치울 거야. 이제 이거 힘두 제대루 못 써 사람 망신시키는 거. 늙어서 고집두 늘구…….”

그날 아부제와 나는 온 하늘과 온 산이 붉게 동틀 무렵 하생 골집에 닿았다.

출제 포인트

- ② 「말을 찾아서」는 당숙과의 갈등과 화해를 통한 어린 '나'의 내면적 성장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어린 시절 '나'는 '당숙'의 집에 양자로 들어가게 되지만 노새를 끄는 '당숙'에 대한 부끄러움으로 인해 양자가 되길 거부한다. 이후 '나'는 내면적 성장을 이루고 당숙을 찾아가 화해를 이루게 된다. 그러나 화해가 '나'의 일방적인 희생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나'가 '아버지'가 아닌 "아부제"라는 호칭을 사용했다는 점, '노새'의 존재를 끝내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점에서 진정한 의미의 갈등 해소에까지는 이르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할아버지와 작은할아버지를 포함해 그냥 어른들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정한 것이었다. 나는 마을 사람들이 나를 '노새집 양재'라고 할 때야 비로소 어른들이 그 일 때문에 늘 사랑에 모였었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 작은집으로 가는 양자니까 큰아들이 갈 수는 없고, 나머지 세 아들 가운데 하나를 지목하러니까 작은할아버지와 당숙이 셋째아들인 나를 지목한 것이었다.

“그럼 작은형을 보내지 왜 날 보내?”

당숙의 양자로 정해진 걸 알고 내가 처음 어머니에게 따진 말은 그것이였다.

“작은집에서 널 들이겠단다. 아버지 어머니가 너를 보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들이겠느냐니까.”

나를 달래기 위한 말이 아니라 실제로도 그랬을 것이다. 그 때 작은형은 중학교 3학년이어서 집안에 무슨 일이 있는지 말하지 않아도 알았을 테고, 노새를 끄는 작은집(아니, 노새를 끌지 않더라도)에 자기는 죽어도 양자로 가지 않을 거라고 분명하게 말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짐작하고 있는 작은집에서도 일을 꺾고리롭게 처리하는 것보다는 부드럽게 처리하자는 뜻에서 아직 무얼 모를 것 같은 나를 지목했을 것이다. 또 나를 낳고 나서 그 사이에 여동생을 낳은 다음 낳은 막내는 아직 젖먹이나 다를 게 없어 작은할아버지나 당숙이 보기에도 어느 세월에 절 받고 잔 받을까 싶었을 것이다.

“나는 양재 안가”

“누가 지금 가서 살라나? 나중에 작은집 제사만 맡으면 되지.”

“그래도 안가”

그러나 그게 어디 내 마음대로 될 일이던가. 그해 가을 덜컥 작은할아버지가 세상을 뜨자 나는 단박 새로 지어 입힌 베옷을 입고 불려나가 어린 상제 노릇을 해야 했다. 게다가 탈상 전 일 년 동안 보름과 삭망 아침마다 작은집에 불려가 작은할아버지 궤연에 당숙과 함께 잔을 올리고 절을 하고 와야 했다. 그러면서도 나는 말끝마다 ‘양재 안 가’를 입에 달고 살았다. 그냥 양자도 싫고 서러웠지만 ‘노새집 양재’는 더더욱 싫고 부끄러웠다.

“나 양재 안 가니까 도로 물려.”

작은집에 불려 내려갔다는 날마다 나는 어머니에게 떼를 썼다.

“니가 몰라서 그렇지 작은집 살림이 어디 적은 살림인 줄 아나? 어여 그러고 가만 있으면 나중에 그게 다 니 것이 되는데.”

“나 그런 거 안 가질 거니까 도로 물려오란 말이야. 노새집 양재 안 할 거니까.”

“말은 뭐 아무나 끌고 부리는 줄 아나? 다 있고 부지런하니 그러지.”

“그럼, 소로 끌면 되잖아.”

내가 참을 수 없는 게 그것이었다. 마을에 우차를 끄는 종기 아버지조차 노새를 부르는 당숙을 노새, 노새, 하고 부르며 은근히 깔보고 우습게 아는 것이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은 오죽했겠는가. 농사만 지어도 될 일을 당숙은 농사일은 거의 작은할아버지와 당숙모에게 맡기고 아침마다 노새를 끌고 시내(강릉)로 나갔었다.

(중략)

“아부제…….”

나는 신발을 벗고 방으로 들어서며 말했다. 강릉에서 올라 올 때부터 내내 입 속으로 되뇌며 연습한 말이었다. 아버지가 있으니 아버지라 부를 수는 없고, 그러면서도 아버지라는 뜻을 불려야 하고, 이젠 당숙을 그렇게 불려야 하고 그렇게 불려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다. 아부제가 놀라는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아부제…….”

“지가 잘못했어요.”

“언, 언제 완?”

“어제요. 어머니가 아부제 모시고 오라고 해서요.”

“…… 밥은 먹은?”

“야. 내일 온다더니요?”

“여계서 들어오는 사람 편에 니가 왔다는 얘기를 들었잔.”

“진지는 드셨어요?”

“거계서 먹기는 해두 니가 뭘 안 먹었음 같이 먹을라구…….”

“말은요?”

“뒤결에 매났는기 이젠 그것두 힘을 못 써서…….”

“아부제…….”

“…….”

“가요, 집에…….”

“오냐, 가야제. 니가 왔다 해서 다 챙겨 내려왔는기. 집은 다 편한?”

“야.”

“느 숙모도?”

아부제는, 나는 빈 몸으로 오고 아부제는 말을 가져왔으니 나는 차를 타고 내려가고 아부제는 내일 산에서 간조패들이 내려오면 돈을 마저 받은 다음 말을 끌고 내려오겠다고 했지만, 나는 나도 아부제하고 함께 내려가겠다고 했다. 가방까지 들고 나왔는데도 그날 하루 더 영자누나 방에서 잠을 잤다. 아부제는 어디서 잠을 잤는지 모른다. 다음 날 영자누나가 출근한 다음 아부제가 말하던 대로 열시쯤 진부옥으로 다시 갔을 때 아부제는 이발을 하고 면도를 한 얼굴로 멀끔하게 앉아 있었다. 부엌 쪽을 살펴도 그 여자는 보이지 않았다.

“니 나하구 대화 가지 않으엔?”

“거긴 어딘데요?”

“차를 타든 된다. 거긴 여기보다 큰 전방들이 많으니 니 뭐 사구 싶은 것두 사구…….”

그날 아부제는 내게 시계를 사주었다. 내가 고른 것보다 아부제 마음에 드는 게 더 비쌌는데 비싼 그것을 사주었다. 큰형은 시계가 있어도 고등학교 3학년인 작은형은 아직 시계가 없었다. 라디오를 틀면 매시간마다 아홉시를 알려드립니다, 열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는 오리엔트 야광 손목시계였다. 그외에도 내 옷과 숙모 옷 몇 가지를 더 사고, 할아버지와 아버지 어머니의 옷가지도 샀다. 그리고 거기서 먹는 점심을 내가 내 식대로 아부제 것과 내 것을 시켜 먹었다. 아부제한테 내가 컸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봉평으로 돌아오니 해가 저물고 있었다. 아부제는 진부옥에서 돈만 받으면 떠날 준비를 하고 흥정산 간조패들이 오기를 기다렸다. 그 사람들은 우리가 저녁을 먹은 다음에 내려왔다.

“야, 느들 장래 우리집 대주 봐라. 우리 아들 얼굴 얼마나 흰한가 한번 보란 말이다. 느 아들들이면 이만한 나이에 혼자 애비 찾아 오겠나?”

아부제는 그들로부터 받아야 할 돈을 받은 다음 길을 떠나기 전 몇 잔 술을 마시며 연신 내 자랑을 했다. 어제까지는 내가 아부제라고 불려도 그 말을 드러내놓고 좋아하지 못하고 서먹해하더니 이젠 마음껏 그 말을 좋아했다.

“언제는 정 불일 아들이 없어 돌아다닌다더니?”

“아들이 없기는, 내가 노새나? 아들이 없게 애비 산에 가서 안 온다구 이렇게 여계까지 데리러 오는 아들이 있는데. 자, 이제 나는 아들하구 떠나네. 해져서 선선할 때 떠나야지, 짐승을 끌구 가는기…….”

■ 이해와 감상

〈오발탄〉은 1959년에 발표된 단편 소설로, 전쟁의 포화가 휩쓸고 지나간 6·25 직후 우리 사회의 혼란상을 그린 작품이다. 가난한 노동자이면서 비극적 사건을 겪는 ‘철호’는 당대의 사회상을 대변하는 인물이다. 작품의 제목인 ‘오발탄’은 거듭된 비극적 사건으로 인해 가치관의 혼란을 느낀 ‘철호’가 자신이 처지를 비유한 말로, 당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갈 곳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을 상징하는 말로 볼 수 있다.

■ 전체 줄거리

계리사¹⁾ 서기 송철호는 퇴근 시간인 5시에서 한 시간이 지나도록 사무실을 떠나지 않는다. 점심을 먹지 못해 허기가 나고 갈 데도 없기 때문이다. 청소를 해야 하는 사환²⁾ 아이의 재촉에 곧 나갈 듯 대답하면서도 그는 사무실을 나서는 대신 모서리 창가로 향한다. 대야에 물을 따라 손을 담갔다가 뻘 철호는 손에서 씻겨나오는 파란 잉크를 피라고 여긴다. 그러고는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원시인을 떠올린다. 원시인은 식구들을 위해 온종일 숲을 헤매지만 모든 사냥에 실패하고, 누군가 버린 짐승 내장을 씹는다. 철호는 까닭 모를 울분에 거칠게 손을 씻는다.

허기진 채로 철호는 해방촌 고개를 오른다. 그는 판잣집 골목골목을 지난 후에야 시멘트 부대 중이를 얻어 만든 집에 도착한다. 그의 실성한 어머니는 미라 같은 몸을 하고는 낯선 목소리로 가자는 말만 반복해 외친다. 말없이 어머니를 지나친 철호가 뒷방으로 올라간다. 구석에 앉아 있던 만삭인 그의 아내가 말없이 일어서 부엌으로 향한다. 다섯 살짜리 딸은 삼촌이 치마와 구두를 사 주기로 했으며, 화신 백화점 구경을 간다고 신나 자랑한다. 철호는 자신의 현 셔츠를 잘라 치마로 입고 짹짹 양말을 신은 딸을 바라본다. 어머니는 다시금 가자는 외침을 반복한다.

철호는 저녁을 먹고 집 뒤 산등성이의 바위 잔등으로 향한다. 그는 하염없이 네온사인만 바라보다 일어서고, 밤하늘에서 북두칠성과 북극성을 찾아서는 고향이 있는 북쪽을 한참 바라보다 내려온다. 골목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어머니의 외침이 다시 들린다. 철호는 발걸음을 멈췄다가, 무겁게 걸음을 옮긴다.

어머니의 ‘가자’는 외침은 고향으로 돌아가자는 뜻이었다. 정신 이상이 생기기 전부터 철호의 어머니는 북쪽 고향에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랐다. 철호가 삼팔선을 설명해도 납득하지 못했으며 그저 고향에 돌아가 죽고 싶어 했다. 그럴 때마다 철호는 남한에서만 얻을 수 있는 자유를 강조해 설명했으나 어머니는 끝내 이해하지 못하고 철호를 원망했다. 북쪽에서 큰 지주로 풍족하게 살다 해방촌 판잣집에 떠밀려 온 어머니는 나라를 찾았다면서 집을 잃어야 하는 상황을 납득하지 못했고, 결국 6·25 사변이 터지고 용산 일대가 폭격당한 날 실성하고 말았다.

철호는 뒷방에 들어선다. 자는 딸에 옆에 앉은 아내가 딸애의 빨간 신발을 들어 보이며, 삼촌(영호)이 사 왔다고 가늘게 웃는다. 방 한쪽에 앉은 영호는 철호에게 보란 듯 살아보자며 큰소리를 친다. 제대 후 2년간 백수로 지내며 매일같이 술만 마시는 영호의 주정이 철호는 못마땅하다. 그는 술친구들과 그만 어울리라며 영호를 타박하지만, 영호는 친구들을 두둔한다. 어머니가 다시금 가자고 소리친다. 영호는 어머니가 계신 곳을 오래 바라본다.

철호가 국산 담배를 뽑아 물자 영호는 양담배를 내민다. 그러나 철호는 받지 않고 국산 담배에 불을 붙인다. 어머니는 다시 잠꼬대로 소리친다. 영호는 자신이 양담배를 피우는 게 못마땅하느냐고 묻는다. 철호는 분에 맞지 않는다고 답하지만, 영호는 철호가 자신을 오해하고 있다고 말한다. 친구들은 술 담배는 사 주고 차는 태워 주더라도 돈을 주지는 않기에 그것을 거절하지 않을 뿐이며, 철호가 돈이 없어 걸어 다닌다고 해서 자신까지 그럴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어쨌든 정신을 차려야 하지 않겠느냐는 철호의 말에 영호는 수긍하지만, 취직을 하라는 당부에는 회의적인 태도를 보인다. 남처럼 용기만 조금 있으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영호의 말에 철호는 긴장한다. 영호는 양심, 윤리, 관습, 법률 따위를 벗어던지면 잘살 수 있다고 말한다. 그렇게 살려면 진작 잘살 수 있었다는 철호의 말에도 영호는 끄떡하지 않는다. 그는 고생을 참고 견디는 철호를 존경한다고 말하면서도 양심이나 윤리, 관습 따위를 하찮게 여긴다. 영호는 가난하더라도 깨끗이 살겠다는 철호의 태도가 너무 커다란 희생을 요구한다고 말한다. 살려면 돈이 필요하고, 그러니 남들이 그렇듯 양심을 벗어던지고 법률 선까지 나가 살자고 주장한다. 법률이 어차피 사람들 사이에 약속된 선이라는 것이다. 철호는 그 말이 돈 있는 사람은 모두 나쁘다는 억지라고 반박하지만 영호는 그를 부정한다. 잘사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고, 양심껏 살면서 잘살기는 어렵지만 양심을 벗어던지면 기필코 잘살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억설이고 비틀린 마음이라는 철호의 말에 영호는 그렇다면 더 빠르게 비틀렸어야 한다고 답한다. 어머니가 미치기 전에, 하나뿐인 여동생이 양공주³⁾가 되기 전에, 남들이 기피하는 군대에 자원하기 전에 비틀렸어야 한다는 영호의 후회에 철호는 아무 말을 하지 않는다. 철호의 아내와 영호는 눈물을 삼킨다. 그럼에도 철호는 영호의 태도를 긍정하지 않고, 영호는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은 모르겠으나 생명만이라도 유지하는 방법은 알 것 같다며 웃는다.

방문이 열리고, 여동생 명숙이 아랫방으로 들어와 눕는다. 철호는 명숙을 거들떠보지 않고, 퇴근길 전차 창 너머로 본 명숙의 모습을 회상한다. 명숙은 미군 지프차에 앉아 미군의 수작을 받고 있었다. 전차 속 청년들은 명숙을 보고 속닥거렸고, 철호는 슬픔과 설움, 자괴감 등을 느꼈다. 그 뒤로 철호는 명숙과 대화하지 않았고 명숙 역시 마찬가지였다. 영호가 불을 끄고 두 방 사이의 문을 닫는다. 어머니의 잠꼬대에 깨어난 명숙이 어머니의 손을 쥐고 숨죽여 운다. 뒷방에서는 철호의 딸이 엄마를 찾는다. 아내는 영호가 사 온 빨간 신발을 딸에게 보여 준다. 딸은 자기 게 맞는지, 예쁜지, 내일 신어도

1) '공인 회계사'의 전 용어.

2) 관청이나 회사, 가게 따위에서 잔심부름을 시키기 위하여 고용한 사람.

3) 예전에, 미군 병사를 상대로 몸을 파는 여자를 이르던 말.

되는지 묻고 나서야 다시 잠든다. 그러나 곧 일어나서는 몇 번이고 신발을 만져 보고 또 신어 보고, 한참을 바라본 뒤에야 다시 잠든다.

며칠 뒤, 출근한 철호는 영호의 문제로 호출받아 경찰서로 향한다. 그는 양공주인 명숙이 단속에 걸릴 때마다 신원 보증을 하느라 경찰서에 자주 들락거렸고 그때마다 명숙이 밉고 원망스러워 울었다. 그러나 이번은 명숙이 아닌 영호 때문이라는 사실에 철호는 며칠 전 영호와의 대화를 떠올리며 불안감을 느낀다. 경찰서에 도착한 철호는 형사에게서 영호가 권총 강도를 저질렀다고 전해 듣는다. 영호와 또 한 명의 피해자가 총기로 협박해 천오백만 환이 든 지프를 강탈했다가 잡혔다는 것이다. 형사에게 끌려 나온 영호는 법률 선은 뛰어넘었으나 인정 선에서 걸렸으며, 쓰어버렸어야 했다고 웃는다. 그러고는 철호에게 돌아가라고 권하고 뒷문으로 끌려나간다. 자기 대신 철호가 아이를 화신 백화점에 데려가 주라고 부탁한다. 철호는 눈물로 앞이 흐려진다. 형사는 쓸 의사가 처음부터 없어 보였으며, 공범을 모르는지 철호에게 묻는다. 그러나 철호는 답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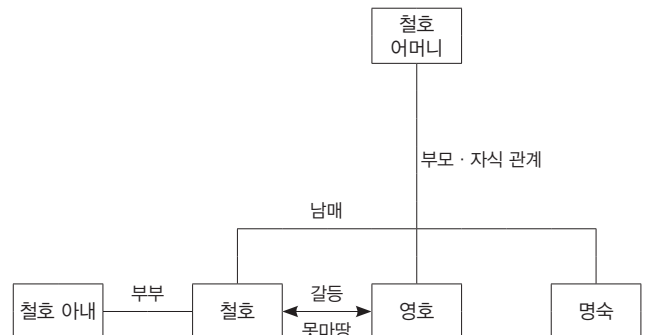
철호는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간다. 골목에 들어서자 어머니의 가자는 외침이 들린다. 철호는 건다 말고 울음을 터뜨리고, 어딜 가자는 거냐며 혼자 소리 지른다. 아랫방에 들어서자 명숙은 병원에 가 보라고 말한다. 철호의 아내가 출산하던 중 병원에 실려 갔다는 것이다. 철호는 맥이 빠지고, 오랜만에 머릿속이 깨끗해진다. 더 놀랄 일이 없을 것이라는 심정이 된 것이다. 그가 집을 나서자 명숙은 돈다발을 쥐어준다. 명숙의 구멍 난 나일론 양말을 본 철호는 오랜만에 오빠로서의 애정을 느끼며 집을 나선다.

S병원에 도착한 철호는 아내의 부고를 전해 받는다. 그는 시체의 위치조차 묻지 않고 평온한 얼굴로 병원을 나선다. 큰일이 끝난 듯도, 해야 할 일이 많이 생긴 듯도 한 기분이 들지만 할 일이 무엇인지는 생각나지 않아 철호는 우두커니 병원 현관에 머무른다.

병원을 나선 철호는 사무실 쪽으로 향하지만 퇴근 시간이 지나 사무실에 갈 이유가 없음을 깨닫는다. 그는 여러 가게를 기웃대면서도 무엇이 있는지는 알아채지 못한다. 치과를 발견한 철호는 충치의 통증을 느끼고 치과에 방문해 충치 하나를 뽑는다. 통증은 느껴지지 않는다. 철호는 반대쪽 충치도 뽑아 달라고 요구하지만, 의사는 출혈이 심할 것이라며 거부한다. 빈혈증이 일어나면 큰일이 난다는 것이다. 철호는 다른 치과에 방문해 우긴 끝에 나머지 어금니도 발치한다. 그는 다시 건다 서울역에 가까워진다. 몸이 떨리고 눈앞이 어두워지자 철호는 허기 때문이라고 짐작한다. 설렁탕을 생각하자 군침이 고여 침을 뱉자, 침 대신 진한 피가 쏟아진다. 철호는 비틀거리며 걸음으로 식당에 찾아가 설렁탕을 주문한다. 다시 입 안에 물이 고여 철호는 음식점을 벗어난다. 입에 고인 것을 시궁창에 뱉지만 어두워 침인지 피인지 구분할 수 없다. 이상한 기분에 철호는 집으로 돌아가 눕기로 마음먹고 택시를 잡는다. 해방촌으로 향하던 그는 아내의 죽음을 떠올리고 S병원으로 행선지를 바꾸지만, 아내가 이미 죽었다는 생각에 영호가 간혀 있는 경찰서로 행선지를 바꾼다. 그러나 경찰서에 도착해서도 철호는 가자는 말만 반복한다. 운전수는 자기 갈 곳도 모르는 오발탄 같은 손님이 걸렸다고 중얼거린다. 그 말을 들은 철호는 아들 구실, 남편 구실, 애비 구실, 형 구실, 오빠 구실, 계리사 사무실 서기 구실처럼 해야 할 구실

이 너무 많으며 자신이 조물주의 오발탄이라고 생각한다. 갈 곳을 알 수는 없는데 어디든 가야 한다고 생각하던 철호는 어머니의 환청을 들으며 쓰러진다. 운전수의 조수가 다시 행선지를 묻지만 철호는 답이 없고, 택시는 철호의 피가 그의 가슴팍을 적시는 줄도 모르고 거리를 달린다.

등장 인물



철호	계리사 사무실의 서기. 가난해도 깨끗하게 살고자 하지만, 가족을 제대로 부양하지 못하는 현실에 자괴감을 느낀다. 제대로 취직하지 않고 술이나 마시는 영호를 못마땅해 하고, 양심만 버리면 잘살 수 있다는 영호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양공주가 된 누이 명숙에게 복잡한 감정을 갖고 있다. 영호의 권총 강도 사실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아내의 죽음을 겪고 갈피를 잃는다. 결국 양쪽 충치를 모두 뽑고 과다출혈로 정신을 잃는다.
영호	철호의 동생. 고학으로 대학에 진학하지만, 어머니의 원수를 갚겠다며 군대에 자원입대했다가 파편이 배에 박힌다. 제대한 이후 2년간 백수로 지내며 친구들과 술만 마신다. 조금만 용기를 내 양심을 버리면 잘살 수 있다며 철호와 갈등한다. 권총 강도를 시도했다가 맥없이 체포당한다.
철호 어머니	철호, 영호, 명숙의 어머니. 북쪽 고향에서 지주로 풍요롭게 살다가 해방촌 빈민가로 오게 된 사실을 견디지 못한다. 삼팔선 등을 이해하지 못한 채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다가, 6·25 사변을 계기로 실성한다. 자나깨나 입버릇처럼 ‘가자!’고 외친다.
명숙	철호와 영호의 여동생. 양공주가 되어 미군을 상대한다. 철호와는 데면데면하게 지내지만, 철호의 아내가 병원에 실려 가자 돈을 들고 가야 한다며 철호에게 돈다발을 건넨다.
철호 아내	여자대학까지 나온 아름다운 여성이었으나 철호와 결혼한 뒤 고생하며 초췌해진다. 난산 중 아이가 팔부터 나오는 바람에 병원에 실려 가고, 결국 목숨을 거두고 만다.

주제

6·25 전쟁 직후 혼란한 사회상으로 인한 비극적 삶

출제 포인트

- ① 「오발탄」의 주인공 ‘철호’는 가난하지만 양심적 삶을 살고자 하는 인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양심을 버릴 줄도 알아야 한다는 동생 ‘영호’와 갈등한다. 두 인물은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가치관의 차이를 보이는데, 철호가 지키고자 하는 ‘양심의 율타리’와 영호가 넘어서야 한다고 말하는 ‘법률선’은 이러한 그들의 가치관 차이를 보여 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저도 형님을 존경하고 있어요. 고생하시는 형님을 용케 이 고생을 참고 견디는 형님을. 그렇지만 형님은 약한 사람 이야요. 용기가 없는 거지요. 너무 양심이 강해요. 아니 어쩐지 사람이 약하면 약한 만치, 그만치 반대로 양심이란 가시는 여물고 굳어지는 것인지도 모르죠.”

“양심이란 가시?”

“네, 가시지요. 양심이란 손끝의 가십니다. 빼어버리면 아무렇지도 않은데 공연히 그냥 두고 건드릴 때마다 껌껌껌 놀라는 거야요. 윤리요? 윤리, 그건 나이롱 뽀스 같은 것이죠. 입이나 마나 불알이 덜렁 비쳐 보이는 매한가지죠. 관습요? 그건 소녀의 머리 위에 달린 리본이라고나 할까요? 있으면 예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없대서 뭐 별일도 없어요. 법률? 그건 마치 허수아비 같은 것입니다. 허수아비. 덜 굳은 바가지에다 되는데로 눈과 코를 그리고 수염만 크게 그린 허수아비 누더기를 걸치고 팔을 꺾 벌리고 서 있는 허수아비. 참새들을 향해서는 그것이 제법 공갈이 되지요. 그러나 까마귀쯤만 돼도 벌써 무서워하지 않아요. 아니 무서워하기는 커녕 그놈의 상투 끝에 턱 올라앉아서 썩은 흙을 쑤시던 더러운 주둥이를 쓱쓱 문질러도 별일 없거든요. 흥.”

영호는 코웃음을 쳤다. 그리고 거기 문턱 밑에 담뱃갑에서 새로 담배를 한 개 빼어 물고 지금까지 들고 있던 다 탄 콩다리에서 불을 옮겨 빨았다.

(중략)

영호는 새로피워 문 담배를 연거푸 서너 번 들이빨았다. 그리고 또 말을 계속하였다.

“저도 형님의 그 생활 태도를 잘 알아요. 가난하더라도 깨끗이 살자는. 그렇지요, 깨끗이 사는 게 좋지요. 그런데 형님 하나 깨끗하기 위하여 치르는 식구들의 희생이 너무 어처구니없이 크고 많단 말입니다. 혈벙고 굶주리고, 형님 자신만 해도 그렇죠. 밤낮 쑤시는 충치 하나 치치 못하시고, 이가 쑤시면 치과에 가서 치료를 하거나 빼어버리거나 해야 할 것 아니야요. 그런데 형님은 그것을 참고 있어요. 낫을 잔뜩 찌푸리고 참는단 말입니다. 물론 치료비가 없으니까 그러는 수밖에 없겠지요. 그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 돈을 어떻게든가 구해야죠. 이가 쑤시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걸 형님 처럼, 마치 이 쑤시는 것을 참고 견디는 그것이 돈을—치료비를 버는 것이거나 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 안 쓰는 것은 혹 버는 셈이 된다고 할 수도 있을 거야요. 그렇지만 꼭 써야 할 데 못 쓰는 것이 버는 셈이라고는 할 수 없지 않아요. 세상

에는 이런 세 층의 사람들이 있다고 봅니다. 즉 돈을 모으기 위해서만으로 필요 이상의 돈을 버는 사람과 필요하니까 그 필요하니까의 돈을 버는 사람과, 또 하나는 이걸 꼭 필요한 돈도 채 못 벌고서 그 대신 생활을 조리는 사람들 신발에다 발을 맞추는 격으로, 형님은 아마 그 맨 끝의 층에 속하겠지요. 필요한 돈도 미처 벌지 못하는 사람. 깨끗이 살자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시겠지요. 그래요. 그것은 깨끗하기는 할지 모르죠. 그렇지만 그저 그것뿐이지요. 언제까지나 충치가 쏘아 부은 불을 싸쥐고 웅상일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야 형님! 인생이 저 골목 안에서 십 환짜리를 받고 코 흘리는 어린애들에게 보여주는 요지경이라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값만치 구멍으로 들여다보고 말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어디 인생이 자기 주머니 속의 돈 액수만치만 살고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둘 수 있는 요지경인가요 어디. 돈만치만 먹고 말 수 있는 그런 편리한 목구멍인가요 어디. 싫어도 살아야 하니까 문제지요. 사실이지 자살을 할 만치 소중한 인생도 아니고요. 살자니까 돈이 필요하구요. 필요한 돈이니까 구해야죠. 왜 우리라고 좀더 넓은 테두리, 법률선(法律線)까지 못 나가란 법이 어디 있어요. 아니 남들은 다 벗어던지구 법률선까지도 넘나들면서 사는데, 왜 우리만이 웅색한 양심의 율타리 안에서 숨이 막혀야 해요. 법률이란 뭐야요. 우리들이 피차에 약속한 선이 아니야요?”

영호는 얼굴을 번쩍 들며 반쯤 끌려놓았던 넥타이를 마저 끌러서 방구석에 퍽 던졌다.

철호는 여전히 턱을 가슴에 푹 묻은 채 묵묵히 앉아 두 짝다 엄지발가락이 몽땅 밖으로 나온 뚫어진 양말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나일론 양말을 한 켤레 사면 반년은 무난히 뚫어지지 않고 견딘다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뻥히 알면서도 번번이 백 환짜리 무명 양말을 사 들고 들어오는 철호였다. 7백 환이란 돈을 단번에 잘라낼 여유가 도저히 없는 월급이었던 것이다.

출제 포인트

- ② 「오발탄」에서 ‘철호’는 가난한 가족의 가장으로서 양심을 지키며 살아가고자 하는 인물이다. 충치로 인한 고통을 매일같이 참는 모습에서 ‘충치’는 철호의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양심, 윤리 의식을 상징하는 소재임을 알 수 있다. ‘철호’는 어머니의 정신 이상 증세와 동생이 권총 강도 행각을 벌이다 붙잡히는 일, 아이를 낳다 아내가 사망하는 비극적 사건 등을 겪은 이후 무너지고 만다. 이후 거리를 방황하던 ‘철호’는 치과에 들어가 ‘충치’를 모두 빼버리는데, 이는 황폐화된 사회에서 양심적 삶을 살아가려다 그 의지를 모두 잃고 좌절하는 인물의 비극적 삶을 나타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앞부분 줄거리] 철호는 계리사 사무실에서 일하며 힘겹게 가족을 부양한다. 그는 가정의 책임감과 양심으로 매일 쑺시는 충치를 참으며 일하지만, 동생 영호가 권총 강도 사건으로 경찰에 잡혀가고 아내가 아이를 낳다 죽고 말자 정신적 혼란을 느낀다.

철호는 갑자기 이가 쑺시는 것을 느꼈다. 아침부터, 아니 벌써 전부터 훌쩍훌쩍 쑺시는 충치가 갑자기 아파났다. 양쪽 어금니가 아래위 다 쑺졌다. 사실은 어느 것이 정말 쑺시는 것인지조차도 분간할 수가 없었다. 철호는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보았다. 만 환 다발이 만져졌다.

철호는 치과 간판이 걸린 층계 이층으로 올라갔다.

치과 걸상에 머리를 젖히고 입을 아 벌리고 앉았다. 의사는 달가달가닥 소리를 내며 이것저것 여러 가지 쇠꼬치를 그의 입에 넣었다 꺼냈다 하였다. 철호는 매시근하니 잠이 왔다.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고 입을 크게 벌린 채 눈을 감고 있었다.

“좀 아팠지요? 뿌리가 꾸부러져서.”

의사가 집계에 뽑아 든 이를 철호의 눈앞에 가져다 보여주었다. 속이 시커멓게 썩은 징그러운 이 뿌리에 빨건 살점이 묻어나왔다. 철호는 숨을 입에 문 채 머리를 좌우로 흔들어 보았다. 사실 아프지도 아무렇지도 않았다.

“됐습니다. 한 삼십 분 후에 숨을 빼어버리슈. 피가 좀 나을 겁니다.”

“이쪽을 마저 빼주십시오.”

철호는 옆의 타구에 피를 뺀고 나서 또 한쪽 볼을 눌러 보았다.

“어금니를 한 번에 두 대씩 빼면 출혈이 심해서 안 됩니다.”

“괜찮습니다.”

“아니, 내일 또 빼지요.”

“다 빼주십시오. 한목에 몽땅 다 빼주십시오.”

“안 됩니다. 치료를 해가면서 한 대씩 빼야지요.”

“치료요? 그럴 새가 없습니다. 마약 쑺시는걸요.”

“그래도 안 됩니다. 빈혈증이 일어나면 큰일 납니다.”

하는 수 없었다. 철호는 치과를 나왔다. 또 걸었다. 잇몸이 멍하니 아픈 것 같기도 하고 또 어찌하면 시원한 것 같기도 했다. 그는 한 손으로 볼을 쓸어보았다.

그렇게 얼마를 걸던 철호는 거기에 또 치과 간판을 발견하였다. 역시 이층이었다.

“안 될 텐데요.”

거기 의사도 꺼렸다. 철호는 괜찮다고 우겼다. 한쪽 어금니를 마저 빼었다. 이번에는 두 볼에다 다 밤알만큼씩 한 솜 덩어리를 물고 나왔다. 입 안이 찢혔다. 간간이 길가에 나서서 피를 뺐었다. 그때마다 시뻘건 선지피가 간 덩어리처럼 엉겨서 나왔다.

남대문을 오른쪽에 끼고 돌아서 서울역이 보이는 데까지 왔을 때 으스스 몸이 한번 떨렸다. 머리가 횡하니 비어버린 것 같다고 생각했다. 바로 그때에 번쩍 거리에 전등이 들어왔다. 눈앞이 한번 환해졌다. 그런데 다음 순간에는 어찌 된 셈인지 좀 전에 전등이 켜지기 전보다 더 거리가 어두워졌다. 철호는 눈을 한번 꼭 감았다. 다시 떴다. 그래도 매했가지였다. 이건 뱃속이 비어서 그렇다고 철호는 생각했다. 그는 새삼스레, 점심도 저녁도 안 먹은 자기를 깨달았다. 뒤통가 좀 먹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구수한 설렁탕 생각이 났다. 입 안에 군침이 하나 가득히 괴었다. 그는 어느 전주 밑에 가서 쭈그리고 앉아서 침을 뺐었다. 그런데 그건 침이 아니라 진한 피였다. 그는 다시 일어섰다. 또 한 번 오한이 전신을 간질이고 지나갔다. 다리가 약간 떨리는 것 같았다. 그는 속히 음식점을 찾아내어야겠다고 생각하며 서울역 쪽으로 허청허청 걸었다.

“설렁탕.”

무슨 약 이름이거나 한 것처럼 한마디 일러놓고는 그는 식탁 위에 엎드려버렸다. 또 입 안으로 하나 찢절한 물이 괴었다. 철호는 머리를 들었다. 음식점 안을 한 바퀴 휘 둘러보았다. 머리가 아찔했다. 그는 일어섰다. 그리고 문밖으로 급히 걸어 나갔다. 음식점 옆 골목에 있는 시궁창에 가서 쭈그리고 앉았다. 울 킁 하고 입 안의 것을 뺐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주위가 어두워서 그것이 핀지 또는 침인지 알 수 없었다. 철호는 저고리 소매로 입술을 닦으며 일어섰다. 이를 뺀 자리가 쿡 한번 쑺졌다. 그러자 뒤이어 거기에 호응이나 하듯이 관자놀이가 또 쿡 쑺졌다. 철호는 아무래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이제 빨리 집으로 돌아가 누워야겠다고 생각했다.

■ 이해와 감상

〈말하는 돌〉은 1981년에 발표된 단편소설로, 전쟁으로 인한 개인의 비극과 그 비극으로 인한 상처를 용서와 화해를 통해 치유해가는 과정을 그려낸 작품이다. 작가는 전쟁 중 누명을 쓰고 마을 사람들에게 의해 죽게 된 ‘나’의 아버지를 통해 전쟁의 비인간성을 고발하고, 그들에게 복수하고자 했으나 용서와 화해의 가치를 깨닫고 자신의 복수를 부끄럽게 느끼는 ‘나’의 모습을 통해 인간의 순수성 회복이라는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자 했다고 볼 수 있다.

■ 전체 줄거리

‘나’는 커다란 돌을 들고 버스에 올라탄다. 여차장과 일부 승객의 아니꼬운 반응에도 ‘나’는 거절당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돌을 깔고 앉는다. 승객들은 ‘나’가 들고 탄 돌이 수석이나 정원석일 거라며 떠돌고, ‘나’는 돌을 안방에다 모실 거라고 말한다. ‘나’에게 그 돌은 아무도 없는 산꼭대기에서 30년 동안이나 아버지를 지켜 준 고마운 돌이기 때문이다.

‘나’는 부면장의 머슴이었던 아버지를 회상한다. 고향 월곡리에서 아버지는 가장 키가 크고 힘이 센 남자였고, ‘나’는 부면장네 사랑채 쇠죽방에서 아버지와 돌이 살며 아버지처럼 힘센 머슴이 되기를 꿈꿨다. 그러나 아버지는 ‘나’에게 머슴이 되어서는 안 되며, 열 살이 되면 자신을 떠나 도회로 나가야 한다고 단단히 당부했다. 아버지의 호통에 ‘나’는 열 살이 되기를 두려워했다.

‘나’가 열 살이 되던 해 초여름에 전쟁이 터졌다. ‘나’와 아버지를 부리던 부면장 부자는 피란을 가지 못하고 집 뒤 대밭에 숨었고, 아버지와 집을 지키면서도 ‘나’는 몰래 집을 빠져나가 모자에 붉은 별을 붙인 사람들을 구경했다. 며칠 후 아버지는 대창¹⁾을 짊어 들고 마을 청년들과 어울리기 시작했고, ‘나’에게는 부면장댁을 지켜주기 위한 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날 밤 부면장 부자와 월곡리 이장이 대창에 찔려 죽음을 당했다. 새벽녘에야 대창 없이 돌아온 아버지는 주저앉아 통곡했고, 그 뒤로는 마을 청년들과 어울리지 않았다. ‘나’는 아버지가 부면장 부자를 죽였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가, 아버지가 서울에 있는 부면장의 큰아들을 간절히 기다리는 모습을 보고 자신이 틀렸음을 깨달았다. 이후 아버지와 ‘나’는 대문을 걸어 잠그고 집 안에 틀어박혔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버지와 함께 대창을 들고 몰려다니던 가난한 젊은이들은 대문을 걸어차며 아버지를 불렀지만, 아버지는 그들을 ‘짐승만도 못한’ 놈들이라고 부르며 상종하지 않았다.

가을이 지나고 붉은 별을 붙인 사람들이 월곡리에서 사라졌다. 그들이 사라지자 피란 갔던 마을 사람들, 부면장네 가족들, 서울에 있던 부면장의 큰아들도 돌아왔다. 부면장의 가족들이 자기 가족을 죽인 이를 찾으며 분노하자 대창을 들고 다니던 젊은이들은 숨을 죽였고, 부면장 집으로 몰려와 아버지의 목에 밧줄을 감고 아버지를 끌고 나갔다. 아버지가 부면장 부자를 죽였다는 것이 그 이유

였다. 아버지는 누명을 씌우지 말라며 반항했으나 그들을 이기지 못하고 까치산으로 끌려가 죽음을 당했다. ‘나’는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보려고 쫓아가다, 아버지를 끌고 간 젊은이들에 의해 미루나무에 묶이고 말았다. ‘나’는 아버지를 끌고 간 청년들보다도 이를 말리지 않고 무표정하게 구경하는 월곡리 사람들에게 더 큰 원망을 느꼈다. 얼마 뒤 내려온 젊은이들은 부면장 부자와 이장을 죽인 빨갱이의 앞잡이를 처치했다고 자랑스러워했다. ‘나’는 아무도 풀어주지 않아 밤이 이슬하도록 묶여 있다가, 껌보네 주막 아줌마가 풀어 주어 간신히 미루나무에서 벗어났다. 그러나 부면장네 집에서는 은혜도 모르는 살인자의 아들이라며 ‘나’를 내쫓았고 월곡리의 누구도 ‘나’를 받아주지 않았다. 결국 ‘나’는 껌보네 주막에서 식은 밥 한 덩이를 먹고 아무도 없는 상엿집에 묵었다. 다음날 ‘나’는 곰배팔이²⁾ 장돌식과 함께 아버지의 시체를 찾아 까치산을 올랐다. 아버지의 시체를 발견한 ‘나’는 돌식과 함께 땅을 파 아버지를 묻고 돌무덤을 만들었다. 그러고는 돌식에게 돌무덤을 부탁하고, 월곡리 사람들을 머슴으로 부릴 수 있을 만큼 큰돈을 벌기 전에는 돌아오지 않겠다고 다짐한 뒤 월곡리를 떠났다.

30년간 시장바닥에서 일하며 어느 정도 성공한 ‘나’는 월곡리로 돌아왔다. 월곡리의 누구도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여섯 아들의 아버지가 된 돌식 역시 이름을 밝힌 뒤에야 ‘나’를 알아보고 반가워했다. 돌식과 그간의 이야기를 나누던 ‘나’는 자신이 월곡리를 떠난 뒤 아버지의 누명이 풀렸음을 알게 되었다. 아버지를 죽인 젊은이들끼리 싸우다가 서로가 한 일을 폭로했다는 것이다. 그들이 모두 월곡리에 사는지 확인한 ‘나’는 돌식에게 까치산을 사 주고 아버지를 까치산 꼭대기에 이장할 수 있게 준비해 달라고 부탁했다. 특히 이장을 할 때는 아버지를 까치산으로 끌고 갔던 네 명을 인부로 쓰고, 월곡리 사람들에게 한해 누구든 까치산 꼭대기까지 폐³⁾를 떠오면 천 원씩 주라고 당부했다. 돌식을 보낸 ‘나’는 몰래방아 엿터에 앉아 30년 전의 슬픈 기억을 곱씹었고, ‘나’를 데리러 온 돌식은 부탁한 일이 모두 잘되었다고 말했다.

다음날 ‘나’는 돌식과 함께 돌무덤에 찾아가 무덤을 파냈고, 유골이 남아 있을지 모르겠다는 돌식의 말에 유골이 고스란히 흩어 되었는데도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 손으로 모만 덩실하게⁴⁾ 쓰면 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나’는 가장 크고 못생긴 돌은 아버지의 유골을 모시듯 옮겨놓았다. 거의 흩어 되어 버린 아버지의 유골 사이에서 두개골 부스러기를 찾아낸 ‘나’는 그것들을 소중히 갈무리하면서도 허무함을 느꼈다. 인부들이 모두 올라온 뒤 ‘나’는 월곡리가 뻥히 내려다보이는 산봉우리에 아버지의 무덤을 만들기 시작했다. 차례로 폐를 떠 온 마을 사람들은 마련된 술과 돼지고기를 실컷 먹고 허리를 굽히며 ‘나’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 아버지를 소처럼 부리고 개처럼 천대하던 이들이 그의 무덤에 폐를 떠 오고 무고한 아버지를 죽인 이들이 아버지의 무덤을 만드는 모습에 자신의

2) 팔이 꼬부라져 붙어 펴지 못하거나 팔뚝이 없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3) 흩어 붙어 있는 상태로 뿌리째 떠낸 잔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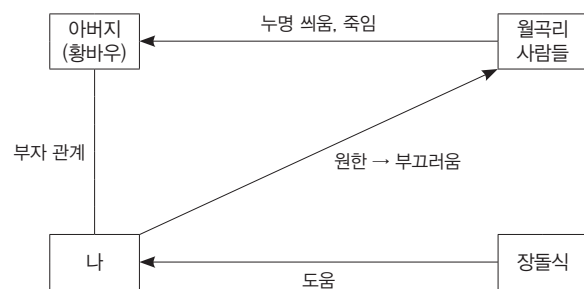
4) 물 따위가 웅장하고 시원스럽게 높다.

1) 대나무를 짊은 창.

한이 풀리는 것을 느끼고, 아버지의 한 역시 풀렸기를 바랐다. 일이 모두 끝난 후 ‘나’는 자신이 30년 전 살해당한 황바우의 아들이며 그들이 만든 묘가 황바우의 묘임을 밝히지만, 기대와는 달리 마을 사람들은 놀라거나 죄책감을 드러내지 않았다. 오히려 덕담을 하거나 마련된 술을 마시고 기분 좋게 내려가버리고 만 것이다. 그 모습을 본 ‘나’는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끼고, 꼭 하룻밤 묵고 가라는 부면장 아들의 간청에도 월곡리를 떠났다. 돌무덤의 돌을 가져가려는 ‘나’를 돌식이 의아하게 여기자, ‘나’는 그 돌에 아버지의 혼과 자신들의 우정, 월곡리 사람들의 마음이 들어 있을 것 같으며 고향을 잊지 않기 위해 돌을 집에 가져가겠다고 말했다. 돌식은 이제야 한이 풀렸느냐고 묻고, ‘나’는 자신이 잘못 생각했던 것 같으며 아버지의 한을 풀기는커녕 아버지를 욕되게 했다고 자책한다. ‘나’는 부끄러움으로 다시는 마을 사람들의 얼굴을 볼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버스 안에서 ‘나’는 돌을 깔고 앉은 채 준다. 꿈속에서 ‘나’는 아버지를 깔고 앉아 있었고, 아버지는 ‘나’에게 불효막심한 놈이라고 고함을 친다. 고함소리에 깨어난 ‘나’는 버스가 도시로 접어들고 있음을 깨닫는다.

등장 인물



‘나’	머슴인 아버지와 함께 부면장 댁에서 살았다.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방관한 월곡리 마을 사람들을 원망하며, 아버지의 돌무덤을 만든 후 마을을 떠난다. 30년 동안 악착같이 일해 부자가 된 뒤 월곡리에 돌아온다. 큰돈을 주고 월곡리 사람들의 손으로 아버지를 이장해 복수하려 하지만, 자신이 황바우의 아들이임을 알게 된 마을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부끄러움을 느낀다. 아버지의 돌무덤을 표시해 두었던 돌을 들고 도시로 돌아간다.
아버지 (황바우)	부면장네 머슴으로 ‘나’와 돌이 살았다. 전쟁이 일어나고 부면장 부자가 대숲에 숨자 집을 지킨다. 부면장네를 지키기 위해서라며 대창을 든 젊은이들과 어울리지만, 부면장 부자가 죽은 후에는 그들과 관계를 끊는다. 전쟁이 끝난 후 부면장 부자를 죽였다는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죽는다.
장돌식	아버지가 죽은 후 마을 사람 모두에게 외면당한 ‘나’와 함께 까치산에 올라 함께 돌무덤을 만들어 준다. ‘나’의 부탁대로 30년 동안 돌무덤을 살펴주고, ‘나’가 월곡리로 돌아오자 크게 반기며 이장을 돕는다.

주제

전쟁의 비극성과 용서와 화해를 통한 인간의 순수성 회복

출제 포인트

- ① 「말하는 돌」은 전쟁 중 누명을 쓰고 사망한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기 위한 '나'의 이야기를 그려낸 작품이다. '나'의 아버지는 전쟁이 발발하자 '부면장네 부자'를 지키려 하지만, 결국 '부면장네 부자'는 사망하게 되고 '나'의 아버지는 그들을 죽였다는 누명을 쓰고 살해당한다. 즉, 작가는 인간성이 파괴되고 공동체가 분열되는 전쟁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순박하고 무고한 이들이라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전쟁의 참담함을 부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열 살이 되던 해, 아버지가 내 다리를 부러뜨려 내쫓을까봐서 슬금슬금 아버지를 배돌던 그해 초여름, 뱀딸기처럼 빨간 아침 해가 까치산 머리 위로 봉긋이 솟아오를 무렵, 마을 앞 신작로에 수많은 탱크들이 으르렁거리며 지나갔다.

전쟁이 터졌다고들 했다. 미처 피란을 못 간 부면장 부자가 영접결에 집 뒤 대밭에 숨었으며 그 큰 집을 아버지와 돌이서 지켰다.

아버지는 나를 방 안에 가두어두려고 했으나, 아버지 몰래 집에서 빠져나간 나는 무서움도 모르고 마을을 꿰고 다니며 모자에 붉은 별을 붙인 사람들을 구경했다. 아무것도 무섭지 않았다.

며칠 후, 아버지는 대창을 짊어 들고 마을 청년들과 어울렸다.

“이 맥을 지켜주기 위해서는 이 길뿐이다. 내가 현 말을 귀담아들었다가 후담에 어른이 되거든 대창 든 애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도록 하라.”

치르르치르르 뱀의 혀바닥 같은 번갯불이 별도 없이 까마귀 날개처럼 어두운 밤하늘을 훑아대던 날 밤, 내게 집을 맡기고 대창을 꼬나 쥐고 나가던 아버지가 말했다.

그날 밤에 대밭에 굴을 파고 숨어 있었던 부면장 부자와, 월곡리 이장이 까치산 참나무숲에 끌려가 대창에 찢려 죽음을 당했다.

마을 사람들은 한밤중에 참나무숲에서 들려오는 하늘을 찢어발기는 듯한 비명소리를 들었다. 나는 번갯불과 함께 식은 땀이 축축하게 젖은 등줄기를 대패로 깎는 듯한 비명소리를 듣고, 호롱불도 밝히지 않은 먹방에서 이불을 뒤집어쓰고 바들바들 떨었다.

새벽녘에야 대창을 들지 않고 휘주근하게 기운이 빠져 돌아온 아버지는, 두엄자리 옆 닭의 벼슬 모양으로 빨간 맨드라미 꽃밭 위에 털썩 주저앉더니 두 발로 땅을 짚어 차며 통곡을 했다.

그런 일이 있은 뒤부터 아버지는 대창을 들고 마을 청년들과 어울려 다니는 일이 없었다.

때가 되어도 밥 먹을 생각을 하지 않고 빈 물레방아 돌아가는 소리 같은 한숨만 계속 토하며 푹푹 찌는 쇠죽방 안에만 붙박여 있었다. 그 무렵, 이 세상에서 가장 힘센 남자로 믿고 있었던 아버지가 갑자기 염병을 앓고 난 늙은이처럼 힘이 없어 보였다. 아버지는 나보다 훨씬 약해 보였다.

대창에 찢려 죽은 부면장 부자를 안산 철쭉꽃밭에 묻고 돌아온 아버지는 대문을 걸어 잠그고 한 발짝도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나는 아버지에게 부면장 어른과 그의 늙은 아버지를 누가 죽였느냐고 물어봤지만, 아버지는 대답 대신 괴로운 얼굴로 격렬하게 고개를 가로저을 뿐이었다. 그때 나는 혹시 아버지가 부면장네 살림을 독차지하려고 그들 부자를 죽였을지도 모른다는 엉뚱한 생각에, 불현듯 아버지가 무서워지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그런 내 생각이 틀렸음을 곧 알 수가 있었다. 그것은 아버지가 서울에 가 있던 부면장의 큰아들을 잔잔하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되련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집을 지켜야 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뿐이란단.”

아버지의 그 말에 나는 비로소 내가 잠시라도 아버지를 의심했던 것이 부끄럽게 생각되어, 마음속으로 용서를 빌었다. 아버지가 부면장 부자를 죽였다면 도련님을 기다리지 않을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었다.

“되련님이 못 돌아오시면요?”

“꼭 돌아오실 겁니다. 이 덕이 그렇게 허망하게 찌그러질 집이 아니다.”

내 말에 아버지가 대답했다.

(중략)

집에 돌아온 부면장네 가족들은 너무 지쳐버렸기 때문인지 두 어른의 죽음을 별로 마음 저리게 슬퍼하는 것 같지가 않았다. 이장집 식구들도 마찬가지였다. 집에 돌아온 그들은 슬픔을 짜낼 기력마저도 없어 보였다. 그들은 배불리 밥을 먹고 몇 날을 푹 자고 나서야, 얼굴에 서서히 슬픔과 분노를 함께 떠올렸다. 슬픔보다 분노가 더 컸다. 자기 가족을 누가 죽였느냐면서 눈에 빨간 자운영꽃 같은 핏발을 뿔뿔하게 세웠다.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핏발선 눈을 보고 있으면 마치 자신이 죄 지은 사람처럼 심장이 오들거리고 온몸의 힘이 쏙 빠졌다.

눈에 핏발을 세운 그들이 자기 가족을 죽인 사람이 어느 놈이냐면서 뿌드득뿌드득 이를 갈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창 짊어 들고 한데 어울려 햇불 밝히며 산을 오르내리던 젊은 사람들이 동짓달 서릿발에 구절초꽃잎 지듯 죽은 듯 숨을 죽였다.

그러던 그들이 어느 날 아침 우르르 부면장 집으로 몰려오더니, 쇠죽을 끓이고 있던 아버지의 목에 삼으로 꼭 밧줄 홀랑이를 걸고 개 끌듯 끌고 나갔다.

“부면장 어르신 부자를 죽인 이 개만도 못한 놈아. 네놈이 부면장네 살림을 차지하려고 눈이 뒤집혀서……”

아버지를 끌고 나가면서 그들은 목청껏 소리쳤다.

“이놈들아, 네놈들 죄를 왜 나한테 뒤집어씌우냐. 천벌을 받을 놈들아.”

아버지는 발부리에 힘을 쏟아 땅을 밀어 버티고, 홀랑이 밧줄을 움켜쥐고 잡아당기며 발버둥 치고 울부짖었다. 그러나 아무리 힘이 센 아버지였지만 네 사람의 청년들에게는 당해내지 못했다.

그들은 흘랑이 밧줄을 잡아당기고 작대기로 허리와 어깨를 후려치며 발버둥치는 아버지를 끌고 이슬이 안개가 되어 몽글 몽글 퍼지는 까치산으로 들어갔다.

나는 이미 아버지의 죽음을 예견하고 있었다. 내 힘으로 아버지를 살려낼 수는 없었지만,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라도 보고 싶어서, 목이 터지도록 아버지를 부르며, 뒤따라갔다. 그러자 아버지를 끌고 가던 청년들이 나를 붙잡아, 동구 밖 상여바위 옆, 마을 사람들이 개를 잡을 때 매달아 죽이는 Y자 모양의 미루나무에 묶어버렸다. 나는 미루나무에 묶인 채 아버지가 끌려가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상수리나무며, 가시나무, 가시나무, 쥐똥나무, 황철나무 등 잡목이 울창한 까치산 후미진 계곡 속으로 끌려간 아버지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아버지의 슬픔과 분노가 범벅된 아버지의 울부짖음만이 산울림처럼 찌렁찌렁 울려왔다.

월곡리 사람들은 아무도 아버지의 죽음을 말리지 않았다. 아이들과 노인들까지도 마을 앞 돈들막 위에 모여 서서는 아버지의 죽음을 기다리기라도 하는 것처럼 무표정하게, 까치산 계곡에서 울려오는 아버지의 울부짖음을 심장에 송곳질하는 아픔을 참으며 듣고 있을 뿐이었다.

나는 아버지를 끌고 간 청년들보다도 아버지의 죽음을 말할 생각은 않고 무표정하게 구경만 하고 있는 이들 마을 사람들이 더 원망스러웠다.

출제 포인트

- ② 「말하는 돌」에서 ‘나’가 아버지의 돌무덤을 만드는 데 이용했던 ‘돌’은 아버지의 ‘혼’을 의미하며, 아버지의 ‘돌’이 ‘나’에게 괴로운 듯 ‘이 불효막심한 놈아’라고 외치는 모습은 복수를 통해서 온전한 화해와 치유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인식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즉, 작가는 이를 통해 복수가 아닌 용서가 갈등의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음을 말하며, 그것을 통한 상처 치유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앞부분의 줄거리] 부면장네 머슴이었던 ‘나’의 아버지는 6·25 전쟁이 발발하고 부면장을 죽였다는 누명을 쓰고 억울한 죽음을 당한다. 이에 ‘나’는 돌무덤을 만들어 아버지의 시신을 묻은 후 마을 사람들을 머슴으로 부릴 수 있을 만큼 큰돈을 벌기 전까지 돌아오지 않겠다고 복수를 다짐하며 마을을 떠난다. 30년 후 어느 정도 성공을 이룬 ‘나’는 마을로 돌아와 마을 사람들을 동원하여 아버지의 무덤을 이장하고자 한다.

“이 사람아 그 돌을 왜 신주 모시듯 허나?”

아무래도 내 태도가 이상했음인지 장돌식이가 뚜벅 물었다.

“30년 전 이 큰 돌을 돌이서 옮겨 놓느라 얼마나 힘들었었는가. 그때 내가 아버지가 묻힌 곳을 잊지 않도록 표시를 해놓아야 한담서, 돌이서 이 큰 돌을 끄꽁거리며 옮겨 오지 않았는가.”

내 말에 장돌식은 희번하게 아침이 밝아오는 소나무 가지 끝을 보며 그때의 기억을 살려낸 듯 여러 차례 고개를 끄덕였다.

예상했던 대로 아버지의 유골은 거의 흩이 되어버렸고, 두개골 부스러기만 흙 속에 뒤섞여 있었다.

나는 준비해 간 백지 위에 흙덩이와 함께 두개골의 부스러기를 소중하게 싸서 비닐봉지 속에 넣었다.

월곡리에서 아무도 가슴 높이로 들어 올리지 못하는 들독을 어깨너머로 펴 펴 들어 던지고, 집채 같은 나뭇짐을 지고도 달음질을 치듯 하던, 억세고 왁살스럽던 아버지가 한 줌의 두개골 부스러기만 남다니, 갑자기 밝아오는 아침 하늘이며, 서울의 집에 있는 식구들까지도 무의미하게 생각되어졌다.

그 한 줌의 뼈부스러기를 찾아내기 위해 30년 동안을 시장바닥에서 발바닥에 불이 붙도록 뛰었던 일이 허무하기만 하였다.

파헤쳐진 무덤의 흔적은 30년 전 아버지의 시체보다 더욱 처참하게 보였다.

구덩이를 메운 뒤 장돌식을 내려 보내 인부들을 데려오게 한 다음, 아버지의 뼈부스러기를 담은 비닐봉지를 들고 까치산 봉우리에 올라가, 햇살이 더 곱게 퍼지기를 기다렸다.

햇살이 더 높게 퍼져 내려 이슬을 털어내기 시작할 무렵, 장돌식이가 열두 사람의 인부와 지관을 앞세우고 내가 앉아 있는 까치산 봉우리로 올라왔다.

얼핏 보니, 바지계를 지거나 삽이나 괭이를 들고 올라온 인부들의 얼굴을 대충 알아볼 수가 있었고, 아버지를 까치산으로 끌고 갔던 네 사람 모두 보여, 나는 그들의 얼굴을 하나 하나 떠올리며 가슴에 맺혀 있는 이름들을 마음속으로 외쳐 불렀다. 그들 네 사람들은 이제 50줄의 중늙은이들이었지만

피죤피죤하게 오그라져 나이보다 훨씬 늙어 보였다. 늙고 찌들어진 그들이 불쌍하게 보였다.

다행히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중략)

월곡리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마지막 남은 한 잔의 술까지도 깡그리 털어 마시고, 저물어가는 햇살을 받으며 거나하게 취해서 기분 좋게 흥얼거리며 까치산에서 내려가버렸다.

나는 순간 까치산에서 내려가고 있는 마을 사람들의 뒷모습을 바라보기조차 자신이 부끄러워 고개를 돌려버렸다.

잠시 후에, 산에서 내려가던 부면장네 아들이 허위허위 허리를 꺾고 다시 올라왔다.

“오랜만에 고향이라고 왔으니 오늘 밤에는 우리 집에서 하룻밤 쉬었다 가소, 자네가 어디 살고 있는지 알았으면 한번 찾아갔을 걸세.”

부면장 아들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하고, 같이 내려가자고 하였다.

나는 그에게 잠시 후에 내려가 하룻밤 묵고 가겠노라고 약속을 하고 먼저 내려가도록 했다.

“꼭 우리 집에서 하룻밤 쉬었다 가야 허네 양?”

부면장 아들은 산에서 내려가면서 다짐을 받았다.

양귀비꽃 같은 놀이 깔리기 시작하는 까치산 꼭대기에는 나와 장돌식과 음식 그릇을 치우는 장돌식의 처만 남아 있었다.

나는 장돌식한테 인부를 불러 아버지의 돌무덤에서 한쪽 다박솔 옆에 숨겨놓다시피 한 못생긴 큰 돌을 버스길까지 운반해주도록 부탁하고, 아버지의 큰 무덤 위에 올라앉아 월곡리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 돌은 왜 신작로까지 운반하고 그러는가?”

장돌식은 산을 내려가던 인부 한 사람을 불러 내가 부탁한 대로 다박솔 옆의, 30년 전 우리들이 끄꽁거리며 옮겼던 큰 돌을 운반해달라고 시키고 나서 내 옆에 쪼그리고 앉으며 물었다.

“집으로 가져가려고.”

“미쳤는가? 하필이면 그 큰 돌을……”

“어쩐지 그 돌에 우리 아버지의 혼이 들어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자네와 나 두 사람의 우정과, 월곡리 마을 사람들의 마음도…… 그 돌이라도 집에 갖다 놔야 고향을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아서……”

나는 장돌식을 보며 허탈하게 웃으면서 말했다.

“건 그렇고, 그래, 자네 기분이 어쩐가? 이제야 한이 풀리는가?”

장돌식도 나를 보고 씩씩하게 웃으면서 물었다.

“내가 아무래도 잘못 생각했었던 것 같구만.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어도 되는 건데 말일세. 이제 부끄러워서 다시는 고향에 올 수가 없겠어. 내가 크게 잘못했네. 아버지의 한을 풀어주는거녕 되레 아버지를 욕되게 하고 말았어.”

나는 마치 내 심장을 떼어서 아버지의 유골 부스러기와 함께 무덤 속에 파묻어버린 것처럼 마음이 공허해졌다. 우울하고 공허한 마음 때문에 말 한마디 없이 산을 내려왔다. 장돌식이가 부면장 아들과 약속한 대로 하룻밤 더 묵고 가라고 붙잡는 것을

탈탈 뿌리쳤다. 내가 지지른 부끄러움 때문에 마을 사람들의
얼굴을 다시 볼 수가 없을 것 같았다.

나는 돌을 깔고 앉은 채 버스 안에서 자울자울 졸았다.

꿈속에서 나는 아버지를 깔고 앉아 있었다. 내 엉덩이 아래
깔린 아버지가 몹시 괴로운 듯 버둥거리더니 ‘이 불효막심한
놈아’ 하고 고함을 쳤다. 고함소리에 놀란 나는 벌떡 일어났다.
뽕뽕 자동차 클랙슨 소리가 귀청을 찔렀다. 버스는 불빛 사이에
낡은 기억처럼 어둠이 출렁이는 도시로 접어들고 있었다.

이해와 감상

〈곡두 운동회〉는 1995년에 발표된 소설로, 전쟁 중 일어나는 이념 갈등을 겪는 가상의 한 마을을 배경으로 하여 폭력적이고 기만적인 권력에 대한 비판을 그려낸 작품이다. 작가는 권력자들에 의해 두 부류로 나뉜 후 생사의 운명이 뒤바뀌는 마을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전쟁의 비극성과 부조리한 권력에 대한 비판을 드러내고자 했다고 볼 수 있다.

전체 줄거리

바닷가 최남단 마을의 8월 0일 금요일 새벽, 대형 트럭을 탄 일군의 남자들이 총소리를 내며 생소한 곡조와 가사로 마구 노래를 부른다. 마을 사람들은 그 노래가 바로 적군의 노랫소리임을 본능적으로 깨닫고 당황한다. 불리한 전황을 전해 들으면서도 전투가 먼 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소문에 안심하던 사람들은 예상외로 이른 적군의 침략에 당황한다.

이 마을은 본디 작고 조용한 바닷가 마을 경관들 역시도 마을 사람들과 평화롭게 어울려 살아가는 곳이었다. 그러나 전쟁이 시작되고 마을이 전략적 요충지로 낙점되자 아군 부대가 읍사무소에 주둔하기 시작한다.

불리해지는 전황 속에서도 이 작은 마을까지는 전쟁의 여파가 미치지 않아 마을은 언뜻 평화스러워 보인다. 그러나 8월 0일로부터 바로 사흘 전 저녁, 읍사무소 건물 남쪽 귀퉁이에서 작은 폭발물이 터지는 사건이 발생한다. 다음날(=8월 0일로부터 이틀 전) 경찰은 약방집 둘째아들을 포함하여 의심스러운 이들을 체포하지만, 모든 이들이 하루 만에(= 8월 0일의 바로 전날)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난다.

8월 0일 새벽녘에 울려 퍼지는 적군의 노랫소리에 누군가는 겁에 질려 떨고 누군가는 우리 세상이 되었다며 기뻐한다. 약방집 둘째아들은 자신의 석방과 노랫소리에 의혹을 느끼다가 집을 나서고, ‘해방군’의 군복을 입은 이들에게 은밀하게 끌려간다. 부유한 유지인 정미소집 주인 남자는 자신이 희생되리라 불안해하며 간밤의 기묘한 꿈을 떠올린다. 읍장의 아내 역시 기이한 꿈을 꾀다. 목사는 뒤늦게 적군의 침입을 전해 듣고 순교를 각오한다.

트럭이 멈추고 군가 소리가 잦아들자 소금장수와 대장장이, 구두수선공 같은 이들이 ‘해방군 만세’를 외치며 마을을 누빈다. 주민 상당수는 불안에 떨고, 일부는 회심에 찬 웃음을 머금으며, 대부분의 주민들은 살아남기 위해 어떤 방도를 취해야 하는지 절박한 고민에 빠진다.

한편 소금장수는 푸줏간집 곰보사내를 찾아가 함께 일하기를 종용한다. 곰보사내는 평범하고 우직스러운 사내로 세상살이에 대한 별다른 불만이나 원한을 품어 본 적 없었으나 소금장수가 완장을 차고 거들먹거리는 모습에 부러움을 느낀다. 그는 소금장수의 말대로 자신이 억울하고 불쌍해야만 하는 이유를 억지로 생각해낸 뒤 해방군을 환영하러 뛰쳐나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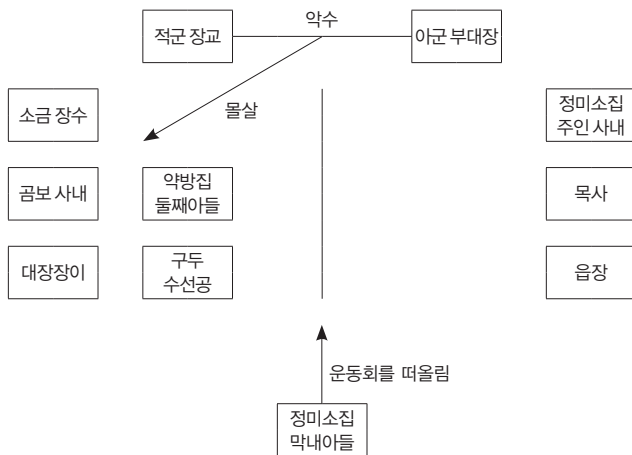
8시 정각이 되자 해방군은 마을 사람들을 학교 운동장에 집합시킨다. 학교 운동장 한가운데에는 □□□ 모양으로 새끼줄이 둘러져 있고, ‘해방군 만세’라는 완장을 찬 주민들이 호루라기를 불며 이웃들을 새끼줄 가운데(□■□)로 몰아넣는다. 적군 제복 차림의 병사들이 무기를 겨누며 주민들을 둘러싸는데 혈색이 좋고 제복의 품이 맞지 않아 전투를 치르며 내려온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곧 매부리코 장교가 완장 패거리들에게 주민들을 선별하도록 명령한다. 아이와 노인을 제외하고 선별 작업이 이어진다. 소금장수는 적극적으로 선별 작업을 지휘하지만, 약방집 둘째아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 꺼림칙함을 느낀다. 새끼줄의 오른쪽 편에는 완장 패거리가 미워하던 사람들을, 왼쪽 편에는 완장 패거리가 자기들 맘에 드는 인물들을 분류해서 나눈다. 이에 새끼줄의 왼쪽 편에 앉은 사람들은 기뻐하고, 오른쪽(노티나무 쪽)에 앉은 사람들은 초죽음이 된 꼬락서니로 좌절한다. 정미소집 막내아들은 학교 뒤편의 변소에 갔다가 약방집 둘째아들의 비명소리를 듣는다.

주민들은 새끼줄의 왼쪽과 오른쪽(■□■)으로 모두 나뉜다. 오른쪽에 앉아 있던 여자 한 명이 왼쪽으로 끼어들려다가 완장 패거리에게 의해 저지당한다. 심사가 모두 끝나고 정오가 되자 매부리코 장교는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번쩍 펼쳐 올린다. 거의 동시에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울리며 트럭이 들어오고, 그곳에서 전날 저녁까지 읍사무소에 주둔해 있던 아군 병사들이 내린다. 아군 부대장과 매부리코 적군 장교가 힘차게 악수하는데 약방집 둘째아들이 묶인 채 끌려나오며 비명을 지른다. 소금장수, 푸줏간집 곰보, 대장장이 같은 완장 패거리는 자신들이 속았음을 깨닫고 좌절한다. 새끼줄 오른쪽에 꿰어앉아 있던 읍장은 적군 부대가 사실 0시의 아군 부대였으며 반란군을 색출하기 위해 적군 행세를 했다고 밝힌다. 완장 패거리들은 순식간에 새끼줄 왼쪽으로 쫓겨 들어가고, 새끼줄 왼쪽에 앉아 있던 사람들이 몰살당한다. 새끼줄 오른쪽에 앉아 있던 사람들은 만세를 외치며 살아남은 환희와 감격을 드러낸다. 한편 애초에 교문 근처로 제외되어 있었던 노인네들과 아이들은 어리둥절해 하고, 정미소집 막내아들은 사람들이 환호하는 모습을 보고 운동회날의 흥겨운 폐회식을 떠올린다.

얼마의 세월 이후 전쟁이 끝나고, 마을은 다시 평화로워진다. 사람들은 대낮의 기괴한 곡두 놀음을 잊어버린 듯 보인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마을 서쪽 바닷가의 학교 운동장에서는 예전처럼 운동회가 열리고, 운동회 날이면 나이 지긋한 어른들은 손뼉을 치다가도 깜짝 놀라 불안해하거나 어두운 얼굴을 짓곤 한다.

등장 인물



약방집 둘째아들	적군과 은밀히 동조하던 사람들 중 우두머리. 읍사무소 건물 귀퉁이 폭발 사건으로 잡혀갔다가 풀려나지만, 다음날 새벽 '해방군'의 군복을 입은 아군들에게 끌려간다.
부대장	읍사무소에 주둔하는 아군의 우두머리. 적군과 동조하는 사람들을 색출하기 위해 철수한 양 사람들을 속인다.
정미소집 주인 사내	부유한 유지이며 읍장 경력이 있고, 다른 지방에서 경찰 간부로 근무 중인 큰아들을 두고 있다. 본래부터 '인민의 적, 각오하고 기다려라'와 같은 협박을 받은 적이 있어 적군의 노랫소리에 큰 위협을 느낀다.
목사	적군이 누구보다도 먼저 교회당에 불을 지르고 자신이 해할 것이라는 생각에 불안해한다. 자신이 살해당할 상황에서는 '저들을 용서'하라는 기도를 올리지만, 상황이 뒤집히자 '악을 능멸하시고 의인을 구하'는 신에게 감사를 올린다.
소금장수	맨날 억울하게 압박과 핍박만 받고 살아왔으므로 해방 전선에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곰보 사내를 설득하여 해방군 전선에 합류하도록 하고, 주민 선별 작업을 적극적으로 지휘한다.
곰보 사내	평범하고 우직스러운 사내. 세상살이에 대한 별다른 불만이나 원한을 품어 본 적 없었으나, 소금장수가 완장을 차고 거들먹거리는 모습에 부러움을 느껴 해방군 전선에 합류한다.
정미소집 막내아들	열 살짜리 어린아이로, 사이렌 소리에 사람들이 학교 운동장에 모이는 모습을 보고 운동회날 아침 같다고 느낀다.

주제

전쟁의 비극성과 부조리한 권력에 대한 비판

출제 포인트

- ① 「곡두 운동회」의 제목은, 철없는 아이의 눈에 비친 전쟁과 폭력으로 인한 고통이 마치 '흥겨운 운동회날'처럼 보인 비극적 아이러니를 담고 있다. 반면 그날의 비극을 주도한 이들에게 그것은 기막힌 아이디어와 각본에 따라 연출된 연극, '곡두각시 놀음'에 불과하였음을 보여 주며 국가(지배) 권력의 기만성과 폭력성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전쟁이 끝난 이후 마을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지만, 노인들의 '불안스런 시선'에는 그날의 고통이 '트라우마'가 되어 남아있음을 시사하며, 그 까닭을 알지 못하는 아이들과 불안이 대비되어 비극성을 심화한다고 할 수 있다.

[앞부분의 줄거리] 바닷가의 조용한 마을, 어느 날 새벽 마을에 반란군이 쳐들어오고, 마을은 혼란에 휩싸인다. 8시 정각이 되자 반란군은 마을 사람들을 학교 운동장에 집합시키고, 사람들은 하나둘 운동장으로 모이기 시작한다.

비슷한 시각에 정미소집에서는 약간의 동요가 있었다. 이 집의 팔십이 넘는 노모가 아들 내외를 붙잡고 방정맞게 곡소리를 낸 까닭이었다. 노파는 원래 가벼운 노망기가 있는 데다가 허리를 거의 쓰지 못하는 처지였으므로 하는 수 없이 혼자 집에 남겨둘 도리밖에 없었는데, 이 가는귀먹은 노인네가 어떻게 무슨 낌새를 알아차렸는지, “너희들이 나만 몰래 떼어놓고 잔칫집에 가려고 그러는 거지야” 하면서 껴끼어 우는 시늉을 했다. 아들내외는 고개를 떨군 채 끝내 대꾸도 없이 집을 빠져나왔고, 그들의 열 살짜리 막내아들은 제 어미의 손을 잡고 대문을 나서면서 혼자 문득 이날이 마치 어느 운동회날 아침 같다는 생각을 했다.

정말, 마을은 이날따라 언뜻 보기에는 운동회날이나 무슨 축제일의 아침처럼 술렁거리고 있었다. 사람들은 거의 같은 시각에 온 가족이 오물오물 무리를 지어 한꺼번에 거리로 몰려나와서는 마을 서쪽 바닷가에 위치한 국민학교를 향하여 느릿느릿 걸음을 옮기고 있는 중이었다. 주민들은 도중에서 역시 자기네들처럼 누렇게 떠 있는 얼굴들과 마주칠 때마다 서로 잔뜩 긴장된 시선을 어정쩡하게 주고받는 등 마는 등하고는 이내 경계하는 표정을 짓곤 하였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반란군 우두머리는 운동장에 모인 사람들을 반란군 동조자와 비협조자로 분류하고, 비협조자로 분류된 읍장, 우체국장, 정미소집 가족, 목사 등은 죽음의 공포에 휩싸인다. 그러나 이 선별 작업은 반란군으로 위장한 아군이 반란군 동조자를 색출해 내기 위한 연극이었고, 마을 사람들의 희비가 엇갈린다.

만세, 만세애, 만만세에……

드디어 이번에는 느티나무 쪽으로부터 엄청난 만세 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읍장과 우체국장, 그리고 정미소집 주인 사내와 읍장의 똥똥보 아내를 비롯한 느티나무 쪽 사람들은 마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듯한 그 기막힌 환희와 감격을 도저히 주체할 길이 없어 장대 같은 눈물 줄기를 쭉쭉 흘려대며 미친 듯 발을 구르고, 서로 부둥켜안고 펄쩍펄쩍 뛰어오르며 목이 터져라 손바닥이 부서져라 만세를 부르고 박수를 쳐대고 있었다. 그들은 바로 일 순간 전까지 자신들의 머리 위에 드리워져 있던 죽음의 그림자를, 그 소름끼치는 공포와 처참한 고통

의 기억을 까아망게 잊어버리고 다만 기쁨으로 전율했다. 그리고 조금 전까지 자신들의 육체와 영혼 모두를 그토록 엄청난 힘으로 엮어매어 짓누르고 있던 그 죽음의 족쇄를 참으로 자연스럽게 새겨줄 너머 저쪽 사람들에게 되돌려주는 것으로 통쾌한 복수를 실현시킴으로써, 가슴 벅찬 희열과 통쾌한 감격을 더더욱 감당키 어려운 지경으로 만들었다.

원, 간밤의 꿈이 이렇게도 맞을 수가 있단.

정미소집 사내는 펄쩍 간밤의 그 기이한 꿈을 떠올리며 아내를 부둥켜안았다. 예배당 종지기 집사도 목사의 팔을 붙들고 펄쩍 울음을 쏟았다.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하고 금방까지기도를 했던 목사는 충격을 받은 탓인지 즉석에서 기도문의 내용을 수정하여 이번에는 “주여, 악을 능멸하시고 의인을 구하시옵는 아버지시여, 감사하옵니다. 진실로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고 중얼거렸다. 그러다가 끝내는 목구멍으로 치솟아오르는 감격을 억누르지 못하고 목사는 다른 사람들과 조금도 다름없이 만세 만세 만만세를 목청껏 외쳐대기 시작하고 있었다.

한편, 그런 순간에도 오히려 멀뚱해져 있는 쪽은 교문 근처에 따로 떨어져 있는 노인네들과 아이들이었다. 거기까지 달려와서 미처 그 내막을 알려주는 이가 아무도 없었으므로 그들은 여전히 무슨 영문인지를 몰라 어리둥절한 상태였던 것이다. 저만치 운동장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희한한 광경을 입을 벌린 채 시종 지켜보고 있던 정미소집의 열 살짜리 막내아들의 눈에 그것은 흡사 청군 백군이 한데 모여 운동회날의 흥겨운 폐회식을 치르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얼마의 세월이 흐른 뒤 전쟁은 끝이 났고 바닷가 그 작은 마을에도 민첩한 도둑처럼 다시 평화가 숨어들어왔다. 그 동안 마을 주민의 전체 수효는 전보다 오히려 줄어들어 있었지만, 그 부족한 자리를 채우기까지에는 그다지 오래 걸리지 않았다. 여자들은 부지런히 아이를 낳았으며, 갓 짝을 맺은 젊은 부부들은 주인 없이 오래 버려져 있던 빈집들을 허물어뜨리고 그 자리에서 새로운 집을 지어 살림을 차렸다. 그래도 해마다 팔월 어느 날이면 마을의 꽤 많은 집들마다에는 한꺼번에 똑같이 제 사상이 차려지곤 했지만, 무심한 세월은 사람들의 쓰디쓴 기억의 잔에다가 조금씩 맹물을 타넣어주었으므로 오래지 않아 그들은 어느 해 한여름 대낮의 그 기괴한 곡두 놀음쯤이야 쉬이 잊어버릴 수 있었다.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하늘이 유리알처럼 맑은 가을날을 잡아 마을 서쪽 바닷가의 학교 운동장에서는 예전처럼 다시 운동회가 열렸고, 그때마다 온 마을 사람들은 청군과 백군으로 나뉘어 한바탕 열띤 응원을 벌이며 박수를 치고 만세를 불렀다. 그러다가도 나이 지긋한 어른들은 손뼉을 치다 말고 깜짝 놀라 불안스런 시선으로 서로의 얼굴을 훑 훑 훑 훑쳐보며 문득 어두운 얼굴을 짓곤 했는데, 아직 어린 꼬마들은 도통 그 까닭을 알 수가 없었다.

출제 포인트

- ② 임철우의 소설은 오월의 광주에서 시작한다. 그의 소설을 관통하고 있는 폭력과 상흔에 대한 서사는 작가의 5·18에 대한 직접적 체험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곡두 운동회」는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광주 5·18’이라는 사건을 기표로 그 폭력을 조망하고 있다. 이때 사실적 증언이나 재현이 아닌 새로운 서사를 통해 당시의 고통을 현재화하는데, 이는 당시의 고통을 ‘오월의 광주’로만 한정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역사적 기억 전체로 확장하면서 끊임없이 반복된 국가 권력의 폭력성과 그로 인한 트라우마를 고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소금장수는 몇들어지게 거수 경례를 척 붙인 뒤 의기양양해져서 게걸음으로 어기적어기적 돌아나왔다. 저편에서 대장장이와 푸줏간집 곰보가 부러워하는 눈으로 이쪽을 건너다보고 있었다. 소금장수는 다시 한번 자신의 특별한 위치를 확인시킨 셈이라고 여겨졌으므로 대단히 기분이 흡족했다. 이제 자신의 앞날은 흰히 트여 있었고 그것이 그의 빈약한 가슴팍에 턱없이 부푼 바람을 집어넣도록 만들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내심한 가지 꺼림칙한 느낌이 여전히 남아 있음도 사실이었다. 무슨 영문인지 모르게 큰길과 그 약방집 둘째아들의 행방이 아직 까지도 묘연했기 때문이었다. 약방집 식구들은 물론 동료들 중 누구도 그 청년을 보았다는 사람이 없었다. 해박한 지식으로 보나 또 그 동안의 치밀한 계획과 사상 교육의 공로로 보나 자신들을 앞에서 지휘하고 이끌어줄 명실상부한 지도자는 바로 그 청년이 틀림없을 터였다.

틀림없다구. 놈들이 도주하면서 함께 끌고 가버린 것이 분명해. 소금장수를 비롯한 대부분의 완장 패거리들은 행방을 알 수 없는 약방집 둘째아들에 대하여 그런 식으로 추리를 하고 있었다.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소금장수의 주장에 의해서 따로 뿔뿔히져 나온 스무 명 남짓한 노인네들은 새끼줄의 맨 우측 칸으로 □□■과 같이 끌려들어난 가장 첫번째 사람들이었다.

“억울합니다. 대체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들 이러슈.”

“뭔가 착오가 있는 게 분명해. 나야말로 억울해요. 여보게, 소금장수, 자네가 아무리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는가, 응.”

한동안 저마다의 억울함과 부당함을 호소하다가 이내 애걸조로 나오며 법석을 피우던 노인들은 곁에 둘러서 있던 적군 제복 차림의 병사들이 철커덕 하고 총알을 장전함으로써 위협을 해 보이자 금방 시퍼렇게 질린 채 껌소리도 못 하고 느티나무가 있는 우측 새끼줄 안으로 허둥지둥 쫓겨 들어가고 말았다.

완장 패거리들은 이번에는 나머지 어린 아이들과 노인들을 이끌고 새끼줄로부터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교문 근처의 포플러나무 그늘 밑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 한데 주저앉도록 했다. 교문 쪽에 따로 떨어져나온 아이들과 노인들은 어렴풋이나마 자신들은 이날의 선별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노인들은 약간 긴장을 풀고 허리춤으로부터 담배쌈지를 꺼내거나 옆사람과 가만가만 얘기를 주고받기도 했으며, 아이들은 잔뜩 호기심에 찬 눈을 반짝이며 저만치서 벌어지고 있는 광경을 지켜보기 시작했다.

잠시 후, 운동장의 새끼줄 한가운데에 모인 주민들은 언뜻 학교 건물로부터 끌려나오고 있는 몇 명의 사내들의 모습을 발견했다. 놀랍게도 그 사람들은 읍장과 우체국장, 조합장, 소방서장 등등의 관리들이었다. 손목에 철사줄을 감은 채 그들은 일렬로 늘어선 총을 멘 병사들에게 이끌려 단상 앞까지 걸어왔다. 지켜보던 가족들의 입에서 한동안 탄성과 울음 섞인 비명이 흘러나왔다. 읍장의 뚱뚱보 아내 역시 남편의 묶인 모습을 확인하자마자 털썩 땅바닥에 주저앉아버리고 말았다.

“에그머니, 경찰을 따라 무사히 피신한 줄로만 알았더니 저게 웬일이람.”

그녀는 남편을 좀더 가까이에서 보려고 두어 걸음 앞으로 나가려다가 완장 패거리들의 고향 소리에 놀라 다시 주저앉아버렸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우연히도 뒤를 힐끔 돌아보는 읍장의 눈이 뚱뚱보 여자의 그것과 마주쳤다. 그녀는 온통 울상을 지으며 남편에게 손짓을 해보았는데, 그때 남편의 얼굴이 기묘하게도 방긋 웃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으므로 그녀는 잠시 얼떨떨해져 있었다. 아마 잘못 봤겠지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남편의 그 표정을 소금장수가 훑쳐본 모양이었다.

“어, 이 작자 좀 봐라. 웃어? 웃음이 나와? 이 판국에도 정신을 못 차렸군.”

소금장수는 다짜고짜 달려가더니 읍장의 가슴팍을 뽐다 건어질렀다.

“아, 아닙니다. 웃다니요. 무, 무슨……”

그렇듯 황황히 변명을 하려던 읍장은 금방 어이쿠, 소리를 내지르며 앞으로 고꾸라졌고, 뚱뚱보 여자는 주저앉아 그걸 지켜보고 있다가 그만 눈을 가렸다. 이윽고 읍장을 비롯한 다른 관리들은 느티나무가 서 있는 새끼줄의 우측 칸 안으로 끌려들어가더니 이미 먼저 들어가 있던 스무 명의 노인들과 함께 땅바닥에 무릎을 꿇려 앉혀지고 있었다.

다음에, 완장 패거리들은 경찰 가족을 일일이 끌어냈다. 묘하게도 지서장집을 비롯하여 여섯 가구의 경찰 가족들은 거의 대부분이 고스란히 아직 마을에 남겨져 있었던 것이다. 약속이나 한 것처럼 그들은 남편 혹은 아버지의 얼굴을 간밤에는 구경조차 하지 못한 채 다른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이날 새벽녘에 적군이 들어오기 전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잠자리에 들어 있었다고 했다. 하얗게 질린 모습으로 끌려나온 이들 경찰 가족 사람들 역시 새끼줄의 우측 칸으로 격리되어졌다.

그리고 나자, 주민들은 한 사람씩 차례로 불리어져 나가 선별심사를 받기 시작했다. 교실에서 꺼내온 낮은 책상을 여러 개 맞붙여놓고서 그 앞에 적군 제복 차림의 병사 세 명이 의자에 앉았고 그 곁으로는 소금장수와 대장장이, 애꾸눈 구두 수선공, 푸줏간집 곰보를 비롯한 예닐곱 명이나 되는 완장 패거리들이 붙어 서서 피심사자의 신원 및 성분 내력을 증언해주는 형식을 취했다. 한 사람씩 그 성분을 따져 이쪽이나 저쪽이나로 가려내는 데에는 그다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더러는 우측으로 데려가라는 판정을 받게 되면 자신의 무고함과 판정의 부당함을 극구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으나 대부분 완장 패거리들의 증언이 그 결과를 결정적으로 좌우하는 눈치였다.

출제 포인트

- ③ 임철우 소설 안에서의 폭력은 내부의 균열에서부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침입자'에 의해 발생하여 내부를 향해 부과된다. 이후 '침입자'는 사라지고 내부의 인물들은 침입자가 만든 어넨 틀 내에서, 그 틀 자체를 자각하지 못한 채 서로 적대하며, 내부의 균열을 심화시키기도 한다. 그 과정에서 인물들은 서로 의심하고 경계하게 되며, 공동체는 파괴되는 모습을 보인다. 한편, 각각의 인물들은 외부로부터의 폭력에 대해 기다렸다는 듯이 완장을 차고 권력을 휘두르기도 하며, 두려움에 떨며 대응 방식을 고민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선창가의 푸줏간집 곰보사내도 바로 그런 고민에 빠진 사람들 중의 하나였다. 이 사내 역시 그 소동을 방안에서 숨어 처음부터 낱알이 지켜보면서 하루아침에 세상이 뒤집혔다는 사실을 알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행여 당장 계 목에 칼이 들어오리라는 위기감 따위는 애초부터 없었다. 사실 푸줏간집 곰보사내는 너무나 평범하고 우직스럽기만 한 인물이었다. 그저 돈을 벌어 모으기 위한 욕심 때문에 언제 이쪽인지 저쪽인지 색가림을 해볼 여유도 흥미도 없었고, 또 그런 능력도 재주조차도 없이 오로지 무지하고 무식할 따름이었다. 간단한 숫자 계산도 할 줄을 몰라서 장부 정리라든가 머리 아픈 복잡한 살림 따위야 아내에게 죄다 떠맡겨버리고는, 자신은 온통 피범벅이 되어 열심으로 칼질을 해대는 한 가지 재주밖에는 지니고 있지 않았다.

다섯시가 조금 지났을 무렵, 오들오들 떨고 있는 아내와 마주 앉아서 푸줏간집 사내가 방 안에서 꼼벅꼼벅 담배를 빨고 있으려니, 담장 밖에서 만세 소리와 함께 여덟시까지 학교 운동장으로 모여라 어쩌라 하고 외쳐대는 소금장수의 들뜬 목소리가 들려왔다. 얼썬 저런 등신 같은 녀석이 오늘 아침은 웬일로 저리 설치고 다닌담, 하고 있는데, 이내 가게 뒷문이 쿵쿵 두드러지면서 “어이 곰보, 날세. 어서 문 좀 열어보게” 하고 소금장수가 부르는 소리가 났다. 둘은 서로 만났다 하면 대뜸 우선 욕설부터 튀어나오는 죽마고우 사이였다.

“무신 일이며, 꼭두새벽부터 악다구니를 쓰고?”

러닝 셔츠 바람으로 나가보니 소금장수는 어느 틈에 이마엔 흰 수건을 질끈 동여매고 손에는 큼직한 몽둥이까지 꼬나온 험상헌 물골로 터억 버티고 서 있었다. 그 몽둥이는 아마도 제 집 뽕이자루를 뽑아온 것일 터였다.

“어이, 곰보. 자네 시방 집에서 뭘 하고 자빠져 있는 것이여. 우리 세상이 되었던 말이며, 나나 자네같이 맨날 억울하게 압박과 핍박만 받고 살아온 놈들이 어서 나와서 해방 전선에 솔선수범 앞장을 서야제, 이려고만 있으면 되겠어? 어서 나와라. 할 일이 태산같이 많으께.”

소금장수는 이날따라 감히 겁도 없이 함부로 곰보라고 부르기도 하면서 흥분한 얼굴로 떠들어대었다. 하지만 그까짓 것쯤이야 아무래도 좋았다. 푸줏간집 사내의 눈에는 소금장수의 그 텅없이 당당하고 의기양양해진 모습이 신기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했다. 그는 어디서 구했는지 어깨에 하얀 완장을 두르고 있었는데 거기엔 붉은색 글자가 몇 개 적혀 있었다. 그것이 ‘해

방군 만세’라는 글자임을 소금장수가 잔뜩 거드름을 피우며 가르쳐주었을 때 곰보는 입을 비쭉거려보이기는 했으나 사실은 그 완장을 찬 모습이 꽤나 부럽고 그럴싸해 보이기는 했던 것이다.

“어물어물하다가는 팔자 고칠 기회도 다 놓치고 마는 것이여. 나 먼저 갈 테니께 금방 뒤따라오란 말이지. 알았는가. 그럼 나는 가네.”

완장 두른 어깨를 앞뒤로 흔들며 소금장수가 맞은편 골목으로 바빠 뛰어가버린 뒤에 곰보는 방안으로 돌아와서 생각에 잠겼다. 사실 그는 세상 돌아가는 판국을 거의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 온 처지였다. 아까 소금장수는 자기더러 핍박이니 억울이니 하고 떠들어대면서 해방 전선이 어떻고 자기네들이 앞장을 서야 하느니 어쩌느니 하고 늘어놓았었지만, 그런 말들이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조차도 도통 애매모호할 뿐더러 생각해보면 자기는 이제껏 세상살이에 대해 별다른 불만이나 원한을 품어 본 적도 역시 없었다. 이젠 어느 정도 돈도 모았고, 아들만 셋씩이나 줄줄이 빼내준 아내의 궁둥이는 아직 살집이 실팍지게 올라 있어서 그런대로 손바닥으로 두드리기에 좋았으며, 자신은 여전히 건강하고 힘이 넘쳤다. 가끔 이웃 사람들이 백정이니 곰보딱지니 하고 장난삼아 친근하게 불러주긴 했지만, 그것이 반드시 분하고 괘씸하게 여겨지는 것만도 아니었다.

하지만 말이며……. 하고 푸줏간집 사내는 팔짱을 낀 채 소금장수의 말대로 자신이 억울하고 불쌍해야만 하는 이유를 새삼스럽게 찾아내기 위하여 둔한 머리를 애써 모아보기 시작했다. 그래서 억지로 분하고 성난 표정을 지어보려고 제깬에는 상당히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는데, 웬일인지 그때마다 소금장수의 의기양양한 얼굴과 흰 머리카, 완장, 그리고 그 완장에 씌어 있는 해방군 어쩌고 한다는 글자가 눈앞에 어른거리는 것이었다. 마침내 다행스럽게도 별장계 분노하고 성난 것처럼 보이는 얼굴을 만들어내는 데에 어렵사리 성공했을 때 곰보는 벌떡 일어나더니 옷을 주워입기 시작했다. 그의 아내와 아이들이 눈이 둥그래져서 쳐다보고 있었다.

“어, 어딜 가실라고 그래요?”

“어디는 밖으로 열린 나가서 환영을 해야 할 것 아닌가.”

“으마, 당신 미쳤수. 당신이 뭘데 그런 일을 한단 말이우. 이럴 때는 가만히 있는 게 상책일 텐디.”

“이 여편네야, 모르는 소리 좀 그만해. 나도 인자는 옛날처럼 어굴하고 피뻘받는 그런 불쌍하고 못난 인간 곰보가 아닌게 나도 엄연히 해방 정선에 솔선수범해야 한몫 끼여볼 참이여. 알어? 그걸 알기나 하겠냐고.”

그렇게 제법 어려운 말을 섞어가며 퍽 소리를 쳐주고 나니 그는 팬스레 기분이 좋았다. 곰보는 밖으로 나가려다가 이내 다시 돌아오더니 뻗뻗하게 힘이 들어간 목으로 방안을 휘휘 둘러보았다. 그리고는 방바닥에서 무엇인가를 손으로 집어 들고는 그것을 주욱 찢어내렸다.

“에그머니나, 그건 내 속치마 아네요?”

“속치마 속곳이건 어떻다는 말이며, 색깔이 희기만 하면 되얏제!”

이러면서 곰보는 길다랗게 찢어낸 형질을 이마에다가 질끈 동여매더니 부리나케 밖으로 뛰쳐나가버렸다.

Memo

KICE x EBS

극 시나리오

■ 이해와 감상

〈출세기〉는 1974년에 발표된 희곡으로, 1967년 광산에 매몰되었다가 16일 만에 구출된 광부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작품이다. 작가는 실화를 바탕으로 갱구 매몰 사고 현장에서 구조되어 언론을 통해 유명인이 된 ‘김창호’라는 인물을 설정하여, 상업주의와 허위성으로 물든 현대 대중 언론에 대한 비판을 그려내고자 했다고 볼 수 있다.

■ 전체 줄거리

탄광 내부에서 광부들이 일하던 중 갱도가 무너진다. 탄광 밖 광산촌에서는 사이렌 소리가 울린다. 그 소리에 김창호의 아들과 딸은 아버지가 갱 속에 있다며 탄광을 구경하러 뛰어간다. 김창호의 아내 박 여인은 무너진 갱이 동5 갱(김창호가 들어간 곳)임을 알고 비명을 지르며 퇴장한다. 한편 갱 안에서는 살아남은 김창호가 전구를 켜다. 전화를 떠올린 그는 흙을 파내 전화를 걸어 보지만 통하지 않는다. 김창호는 다시 옆드려 전화선을 조작한다.

사고 현장 사무소에서 소장과 안전관리실장이 대화를 나눈다. 소장은 피해 보상금과 발골 비용을 묻고, 실장은 금액을 가늠한 후 진작부터 갱내를 보수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소장은 보수 비용과 탄을 캐지 못해 생기는 손해 비용을 고려하면 사고가 나서 치르는 비용보다 보수 비용이 적게 든다고 지적한다. 그때 홍 기자가 사무실로 들어와 사망자 수와 사고 원인을 묻는다. 갱내 1500미터 지점이 붕괴되었다는 소장의 말에 홍 기자는 갱내 보안시설 불비가 원인이라고 기록하지만, 소장이 사택을 미끼로 회유하자 ‘채굴 심도가 깊어 갱 벽이 무너져 내리는 예기치 못하는 사고’로 원인을 고쳐 적는다. 그때 김창호에게서 전화가 걸려 온다. 서로 상황을 전달한 뒤 전화를 끊고, 소장은 생사탐을 죽일 수는 없으니 방법을 강구하기로 한다. 홍 기자는 흥미 있는 사건이라며 갱 속에서 살아남은 최고 기록을 묻는다.

탄광 바깥 현장, 김창호의 어린 아들딸이 아빠를 구해 달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울상인 엄마와 함께 등장한다. 김창호를 구하자는 사람들이 우르르 등장하고 기자들은 카메라를 들이댄다. 홍 기자는 아이들에게 아빠를 기다린다는 말을 하라고 요구한다. 이어 홍 기자는 박 여인의 인터뷰를 한 뒤 젊은 광부를 인터뷰한다. 젊은 광부는 회사를 비판하며 미리 막을 수 있었던 사고임을 강조하다가 김창호와의 친분을 과시한다. 광부들은 박수 치지만 기자는 마이크를 끄고 비쳐선다. 인터뷰를 보느라 행진을 멈췄던 사람들이 구호를 외치며 퇴장하고, 꼬마 행상이 아이스크림과 엽차를 팔며 따라간다.

사무소, 자신의 기술로 김창호를 구해 내겠다고 자신하는 실장에게 소장은 기간과 비용을 따져 묻는다. 실장이 생명은 귀중한 것이라고 답하자 소장은 경제원칙을 들먹이며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얻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때 의사와 홍 기자가 들어온다. 의사는 전화로 김창호를 진찰하고는 통화를 마무리한다. 얼마나 견딜 수 있는냐는 기자의 질문에 의사는 최대 14일이라고

답하고, 실장은 일주일 내에 구출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 소장은 김창호가 입구로 스스로 파고 나올 가능성이 없는지 궁금해한다.

병원 연구실에서 연구생이 김창호의 건강을 묻자, 박사 1은 부정적으로 전망한다. 그러나 박사 2는 그의 견해에 반대하며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연구생들이 박수를 치자 으쓱해서는 자신의 견해를 의학적으로 뒷받침한다. 박사 1은 박사 2가 자신의 견해에 사사건건 반대한다며 화를 내고, 두 사람은 누가 옳은지 두고 보자고 다툰다.

갱 안에 갇힌 김창호는 실성한 것처럼 환각을 보고, 두려움에 벽을 주먹으로 쳤다가, 자신은 아직 살아 있다며 전화를 두드린다. 그러나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다.

탄광 밖 현장, 갱 입구 높은 곳에서 스님이 염불을 읊는다. 아래쪽에서는 TV 카메라 근처에 사람들이 몰린다. 행상들은 장사에 열을 올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막 도착한 목사 일행이 기도한다. 요란한 소리 사이에서 홍 기자가 마이크에 대고 방송을 시작한다. 그는 이번 광산 사고가 올 들어 두 번째 큰 사고이며 김창호가 11일째 갱도에 갇혀 있음을 보도한 후 소장을 인터뷰한다. 소장은 구출에 온갖 힘을 다하고 있으며 지장이 많은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한다. 한쪽에서 호위를 받으며 비서관이 등장해 카메라에 포즈를 취하고 사무실로 들어간다. 홍 기자는 다른 기자들을 인터뷰한다. 인터뷰를 마친 그는 감격에 젖어, 생명은 존엄한 것이며 인간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를 경계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확인해야 한다고 보도를 마무리한 뒤 광고를 덧붙인다.

갱내에 있는 김창호에게 전화가 걸려 온다. 소장은 회장이 김창호의 건강을 염려해 비서관을 보냈으며 전화를 바꿔 준다. 신난다는 이름의 비서관은 김창호를 격려하고는, 힘없이 감사인사를 하는 김창호에게 뭐 부족한 게 없냐고 묻는다.

살롱에 앉은 기자 1, 2가 식당 음식에 불평한다. 기자 1은 김창호가 죽든 살든 결말이 나야 자신들이 고생을 덜 한다고 말하고, 기자 2는 김창호가 갱 속에서 살아남은 세계 기록을 갱이니 살아 나와야 한다고 말한다. 차를 나르던 마담이 장사가 잘된다는 말에 서울에서 원정 왔다고 말하자 기자 2는 김창호 덕에 근처가 호경지라고 답한다. 마담은 하루이틀 안에 구조가 끝난다는 소식에 구조가 며칠만 더 늦어지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아쉬워한다.

플래카드를 든 사람들과 보도진, 행상들, 밴드부 따위가 몰린 구조 현장에서 홍 기자가 보도를 시작한다. 그는 김창호가 구출되기 직전이며 김창호의 생환이 온 국민의 기쁨이며 인간 생명의 승리라고 말하며 소장을 인터뷰한다. 소장은 김창호의 건강에 지장이 없으며 자신은 오로지 그의 생환만을 바라 왔다고 감격한다. 홍 기자는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광고 멘트를 덧붙인다. 그때 박 여인이 아들딸을 데리고 등장한다. 홍 기자는 그들을 인터뷰한 뒤 김창호가 구출된 뒤의 입원과 환영 스케줄을 보도하고, 그의 입원 소식에 기증된 물건들을 언급한다. 김창호가 구조되어 나오자 밴드가 군악을 연주하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진다. 의외의 풍경에 김창호는 겁에 질리고, 가족을 만나지 못한 채 경찰, 의사, 소장, 실장

등에 끌려 나간다. 군중들이 만세를 부르며 그 뒤를 따르자 김창호의 가족들만 덩그러니 남는다. 아이들이 아버지가 왜 잡혀가느냐, 감옥으로 가느냐고 질문하자 박 여인은 강하게 나무란다.

진료실 침대에 환자복을 입은 김창호가 누워 있는데 주치의, 인턴, 간호원이 들어온다. 그들은 원하는 게 있으면 말하라고 하면서도 가족들을 만나고 싶고 집에 가고 싶다는 김창호의 요구는 들어주지 않는다. 그들은 의학계에 필요하며 여러 검사를 진행하고, 냉정하게 실험을 진행하더니 김창호를 끌고 나간다. 김창호는 겁에 질린다.

기자회견 석상, 김창호가 주치의의 호위를 받아 단상에 앉는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대자 주치의는 김창호의 시력이 약화됐다며 선글라스를 씌운다. 그러고는 김창호에게 전 국민에게 김창호를 알려야 하니 참으라고 속삭인다. 흥 기자가 살아 나온 소감을 묻자 김창호는 당황해 집에 가고 싶다고만 대답하지만, 주치의가 귀에 대고 무어라 속삭이자 국민 여러분에 대한 감사 인사를 한다. 기자회견에서 김창호는 처자식을 생각해 죽고 싶지 않았으며, 가장 큰 괴로움은 배고픔과 외로움이었고, 살아 나오면 꽃밭을 가꾸고 싶었다고 대답한다. 다시 광산으로 돌아가겠냐는 질문에는 푸른들이 있는 곳에서 농사를 짓고 살겠다고 말한다.

김창호의 집, 겁에 질린 박 여인과 아들딸을 기자 1이 취재한다. 그때 김창호가 등장해 가족들을 끌어안는다. 기자들은 그런 모습을 찍고, 김창호는 익숙하게 포즈를 취한다. 기자는 가족과 얘기하려는 김창호를 계속 가로채어 인터뷰를 진행한다. 또 다른 방송기자가 녹음기를 들고 뛰어와 소감을 묻는다. 김창호는 국민에 대한 감사와 집에 와 기쁘다는 말을 거듭 반복한다. 기자 1이 다시 사진을 요구해 김창호 가족은 선물 꾸러미를 들고 억지로 웃는다. 불일을 마친 기자들이 퇴장하자 김창호는 아이들에게 선물 상자 속 케이크를 먹이고, 아내에게는 서울에 가 할 일이 있다고 말한 뒤 뱃속 아기의 상태를 확인한다. 김창호가 이웃들이 모두 사라져 의아해하자 박 여인은 그를 구출하느라 진 빚 때문에 광산이 망했고, 그래서 모두 다른 광산으로 일자리를 찾아 떠났다고 답한다.

공개홀, 김창호는 유머 게임 시간이라는 프로그램에 여러 유명인들과 함께 스페셜 게스트로 출연한다. 사회자의 요구에 그는 능숙한 연설조로 국민에 대한 감사를 전한다. 다른 게스트들의 차례 끝에 김창호는 음정이 맞지 않는 우스꽝스런 노래를 부른다. 관중은 모두 웃고, 사회자는 광고 멘트를 덧붙인다. 광고 음향이 크게 울려 퍼진다.

어떤 실내, 광부 차림을 한 김창호에게 매니저 미스터 양이 헬멧을 씌우고 검정 분장을 해 준다. 김창호가 수익을 묻자 그는 200만원이 넘어가며, 오늘 목소리 계약을 하면 50만 원을 받는다고 답한다. 김창호는 돈 벌기가 쉽다며 웃고, 미스터 양은 유명해지면 그런 거라고 맞장구를 친다. 그는 인터뷰가 있을 것이라고 알려 주며 기자의 질문에 재미있게 거짓말을 보태라고 지시한다. 그러고는 광고 녹음을 연습시킨다. 김창호가 자신을 위해 일해 줘 고맙다고 인사하자, 그는 오해하지 말라며 자신이 김창호가 얻은 수입의 10%를 가져가는 매니저임을 강조한다. 한편 김창호의 집에서 박 여인은 다시 돌아온 젊은 광부와 마주친다. 광산이 다시 열려 돌아왔다는 것이다. 광부 부부가 퇴장하자 아이들은 아버지가 언제

돌아오는지 묻고, 박 여인은 모른다고 답한다. 그러고는 진통을 느낀다.

미스터 양은 김창호를 요청¹⁾으로 데려간다. 양옆에 기생이 뛰어와 앉자 김창호는 어쩔 줄 모르고, 기생은 그의 품에 파고들며 아양을 부린다. 미스터 양은 기생이 그에게 반했으니 실컷 놀라고 말하고, 기생에게 김창호를 잘 모시라고 말한 뒤 퇴장한다.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말에 김창호는 기생을 끌어안으며 웃는다. 김창호의 집에서 어둠 속에서 박 여인이 진통으로 신음한다. 아들은 아버지를 찾고, 딸은 엄마를 걱정한다.

기생집, 김창호는 기생의 무릎을 베고 눕는다. 그는 기생을 만난 뒤 그동안 헛살았음을 알았다고 말하지만 기생은 신경질을 부린다. 그녀는 갱 속 이야기에도 싫증을 내고 김창호를 구박한다. 김창호는 자신이 기생의 모든 말을 들어 주었으니 이번에도 말을 해보라고 하지만, 아직 줄 게 남았냐는 기생의 질문에는 자기 자신이 있다며 호호 웃는다. 기생은 돈이 떨어졌으면 물리날 줄 알아야 한다며 김창호를 쫓아낸다. 쫓겨난 김창호는 미스터 양을 찾아가 다시 일하자고 말지만, 미스터 양은 전에 없던 태도로 김창호를 팔시한다. 이제 자신은 김창호의 매니저가 아니라 신인가수를 데뷔시킨 매니저이며, 사람들이 김창호를 모두 잊어 김창호에게는 상품 가치가 없다고 잘라 말한다. 매니저는 상품 가치가 있는 사람만 골라낸다는 것이다. 김창호는 비참하리만치 진지한 얼굴로 다시 땅속으로 들어가 더 오래 있다 나오면 안 되느냐고 묻는다.

김창호는 늙고 허술한 모습으로 광산촌을 찾아간다. 그는 광부들에게 가족의 행방을 묻지만 답을 얻지 못한다. 예전처럼 갱내에 들어가 일할 수 있을지 묻는 김창호에게 광부는 손과 얼굴의 빛깔이 자신들과 달라졌으며, 흙구덩이 속에 뒹 하루 들어오느냐고 반문한다. 광부들이 노래하며 퇴장하자 혼자 남은 김창호는 자기 손을 들여다본다.

기자실에서 흥 기자가 논문을 소리내 읽는다. 김창호가 등장해 자신을 소개하지만 흥 기자는 심드렁한 태도로 응한다. 김창호가 가족을 잃고 차비도 떨어졌으며 도움을 청하자, 흥 기자는 500원짜리를 주고는 아래층 광고부에서 사람 찾는 광고를 취급한다고 말한 뒤 김창호를 무시한다. 김창호는 말을 잃고 퇴장하고, 흥 기자는 마스크가 인간 부재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논문의 결론을 읽고서도 마스크의 위대함만을 찬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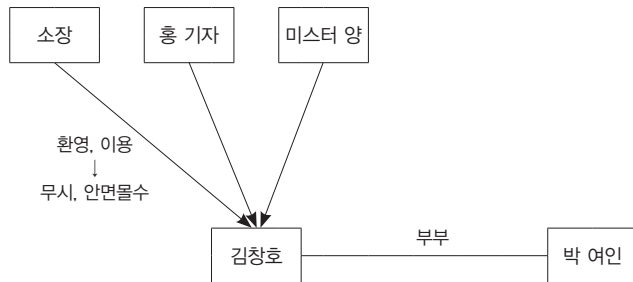
지치고 초췌한 모습의 김창호가 기듯이 거리를 걷다 가족과 마주친다. 해산으로 해썹해진 박 여인은 남편을 보고 놀라고, 아이들은 달려가 아버지에게 안긴다. 김창호가 뱃속 아기를 찾자 박 여인은 그를 외면하며 사산했다고 대답한다. 그러자 김창호는 푸른 하늘을 보고자 열 달을 캄캄한 곳에 갇혀 있다는 아기를 왜 묻어 버리느냐고 절규한다. 그때 폭음과 사이렌 소리가 울린다. 김창호는 자신이 그 속에 묻혀 있어야 한다며, 아주 오래 살아남을 수 있다며 괴로운 비명을 지른다.

갱도 밖 현장에 카메라와 경찰, 구경꾼이 모여든다. 흥 기자는 메탄가스 폭발로 탄광이 매장되었으나 배관공 이호준이 생존해 있다고 보도한다. 김창호 가족이 등장하자 흥 기자는 달려와 그를

1) 고급 요릿집.

카메라 앞에 비추고는 추켜세우고, 배관공이 구출될 때까지 갯내에서 주의할 점이 무엇인지 묻는다. 김창호가 신나서 주의점을 늘어놓기 시작하는데, 다른 기자에게 배관공의 죽음을 전해 들은 홍 기자가 마이크를 뺏어 그 소식을 전하고는 방송을 마무리해 버린다. 보도진과 구경꾼이 퇴장하고 김창호와 그 가족들만 남는다. 박 여인이 가자고 재촉하자 김창호는 하늘로 가서 모두 깜짝 놀랄 기록을 세우자고 말하고 가족과 함께 퇴장한다.

등장 인물



김창호	광부. 무너진 갯도에 갇힌 채 생존하며 신기록을 세우고 일약 스타가 되어 매스컴에 휘둘린다. 그러나 번 돈은 기생에게 모두 탕진하고, 유명세가 떨어지자 아무도 그를 찾지 않는다. 다시 돈을 벌어 보려 미스터 양이나 홍 기사를 찾아가지만 외면당하고, 초췌한 몰골이 되어 가족에게 돌아간다.
소장	동진 광업소 소장. 갯도가 무너졌는데도 비용과 손해, 경제 원칙부터 들먹일 정도로 돈을 중요시한다. 그러나 매스컴 앞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하고, 나아가 김창호가 구출될 때에는 감격한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김창호를 구조하느라 낸 빚을 갚지 못해, 광산을 부도내고 도망가 버린다.
홍 기자	갯도 사고가 나자 사무소에 찾아와 앞뒤 사정을 묻고, 소장이 뇌물로 회유하자 사고 발생 원인을 왜곡해 기록한다. 취재와 보도를 이어가며 '생명은 존엄한 것'이라고 감격해 말하거나 김창호의 생환이 '온 국민의 기쁨이며 인간 생명의 승리'라고 추켜세우지만, 김창호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식자 도움을 청하는 김창호를 냉정하게 무시한다. 이후 탄광이 재차 무너지자 김창호를 인터뷰하지만, 배관공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다시금 태도를 바꾼다.

주제

상업주의와 허위성으로 물든 현대 대중 언론에 대한 비판

출제 포인트

- ① 「출세기」는 대중에게 관심을 끌 만한 사건을 과장하여 다루다
효용성과 상업적 가치가 상실된 순간 버리는 자본주의 속 대중
언론의 행태를 적나라하게 그려내고 있다. 이러한 행태와 이에
이용당하는 약자의 모습, 생명보다 돈을 더 중요시하는 인물의
모습, 방송 말미에 광고 멘트가 붙는 모습 등을 통해 작가는
인간을 상품화하는 대중 언론의 상업주의와 허위성을 고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소장 빌어먹을 사고, 사고! 이놈의 사고만 없으면 해 먹을 텐데...

안전관리실장 안전모를 벗으며 등장.

소장 어떻게 됐어?

실장 가망 없습니다.

소장 피해 보상금과 발굴 비용이 모두 얼마나 들겠어?

실장 보상이 열두 명에 1200만 원, 그리고 발굴 비용이 200만
원은 넘겠습니다.

소장 망했군.

실장 진작부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갱내를 보수했으면 이런
사고는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소장 5갱에서 사고 날 줄 미리 알았단 말이오?

실장 갱 전체가 오래돼서...

소장 갱구 하나 보수비가 얼마나 든다고 했지?

실장 약 150만 원.

소장 갱구가 일곱 개면?

실장 1050만 원.

소장 갱구 하나 보수 기간이?

실장 보름 잡아야죠.

소장 그럼 갱구 하나는 보름 동안 채탄을 못 해 얼마 손해가,
실장?

실장 225만 원.

소장 갱구 일곱 개면 1575만 원 보수할 동안 손해액까지 합하면?

실장 2000만 원이 넘겠는데요?

소장 그것 봐, 사고 나서 치르는 비용보다 많지 않은가? 내가
평생 여기 소장 해 먹을 건 아니잖아?

실장 ...

소장 내 말 틀려?

실장 그럴듯하군요.

홍 기자 들어온다

소장 어이구, 수고하십니다. 홍 선생, 역시 소식이 빠르군.

홍 기자 (직업적으로) 사망자가 몇이나 됩니까?

소장 선산부 6명, 후산부 5명, 배관공 1명, 모두 12명이 묻혀
있습니다.

홍 기자 다 죽었겠지. (적으며) 모두 12명으로 집계됨. 생존자는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사고 원인은?

소장 갱내 1500미터 지점이 붕괴됐습니다. 너무 오래 캐 먹어서
...

홍 기자 갱내 보안시설 불비가 원인.

소장 홍 선생, 이거 누구 목 자르려고 이러십니까? 내 그러지
않아도 주재소 숙소가 불편할 걸 알고 사택을 한 채 내놓을
계획이었는데... 말이 난 김에 우리 가 봅시다.

홍 기자 (고쳐 적는다.) 채굴 심도가 깊어 갱 벽이 무너져 내리는
예기치 못하는 사고.

소장 같은 말이라도 얼마나 표현이 부드럽습니까?

홍 기자 그런데 피해자 명단을 발표 않는 이윤 뭍니까? 밖에서
유족들이 아우성인데?

소장 조금 희망을 연장해 주는 게 낫지 않습니까? 흥분해 있는데
지금 발표를 하면 유족들이 울고불고 아우성, 더 시끄러워
집니다. 밤에 좀 지쳐 있을 때 발표할 겁니다.

홍 기자 시체 발굴에 걸리는 시간은?

실장 일주일 걸립니다.

소장 그 비용만 해도 손해가 막심합니다. 우리 나가서 목이나
죽입니다. 사택도 들러볼 겸. (실장에게) 나 춘자네 가 있을
테니까 무슨 일 있음 연락해. (전화벨 울린다.) 무슨 전화야?

실장 (전화 받는다.) 여보세요?

김창호 (소리 지른다.) 여보세요, 나 김창호입니다. 배수부
김창호! (흥분하고 열에 떠 있다.)

실장 어? 집에 있수? 우린 당신이 죽은 줄 알구. (소장에게)
한 명 줄어듭니다.

소장 100만 원 절약됐군.

(중략)

홍 기자 국민 여러분! 여기는 강원도 정선군 동진 광업소 사고
현장입니다. 지하 1500미터 갱 속에 갇혀 만 16일간이나
굶주림과 추위와 싸워 가며 초인적인 인내력으로 생명을
지탱해 왔던 김창호 씨. 그가 드디어 구출되기 직전에 있습
니다. 그의 생환은 김창호 씨 개인뿐 아니라 온 국민의 기쁨
이며 인간 생명의 승리입니다. 오늘이 있기까지는 각 방송
 보도진은 물론이려니와 국민 여러분의 성원 없이는 불가능
했을 것입니다. 그럼 담당 영업소 소장 권오창 선생님께 몇
말씀 묻겠습니다. 구출될 시간은 대략 몇 시쯤 됩니까?

소장 예. 지금 김창호 씨와 구조대와는 서로 대화를 나누는
거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30분 내로 구출될 전망입
니다.

홍 기자 김창호 씨의 건강 상태는 어떻습니까?

소장 어젯밤부터 파이프를 통해서 미음 같은 음식을 공급했습
니다만 큰 지장은 없다고 봅니다.

홍 기자 감사합니다.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소장 전 오로지 그 사람의 생환만을 바라 왔습니다. 제가 광산에
있는 지 20년이 넘습시다만 (감격) 이렇게 오늘처럼 보람
있고 감격해 본 적은 없습니다. (콧물을 닦는다.)

홍 기자 우리 모두 경건한 마음으로 생명의 존엄 유지를 위한
햇불을 들어야겠습니다. 이 방송은 여성의 미를 창조하는
몽셀 느그르 화장품과 스타킹 메이커 와키누가 나일론 제공
입니다.

출제 포인트

- ② ‘출세’는 무너진 광산에 갇혀 있던 사람이 세상에 나오게 된다는 “숨어 살던 사람이 세상에 나옴.”이라는 의미의 출세로도 해석할 수 있으며, 위 사건으로 일약 스타덤에 오른 ‘김창호’가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오르거나 유명하게 됨”을 의미하는 출세로 이해할 수도 있다. 「출세기」에서는 주인공의 출세와 더불어 타락의 과정까지 제시된다. 순박했던 주인공 ‘김창호’는 출세하여 언론을 경험하고 물질만능주의자로 타락함에 따라 변화하는 심리와 태도를 보여주는데, 작가는 이를 통해 현대인의 허영심과 우매함에 대한 비판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7. 어떤 실내

김창호 광부 옷차림이다.
매니저 미스터 양 헬멧을 씌워 준다.

미스터 양 거울을 보시우! 비슷한가?
김창호 얼굴이 좀 검어져야 광부 냄새가 나겠는데요?
미스터 양 분장을 좀 합시다. (얼굴에 검정을 묻힌다.)
김창호 돈 걸린 게 얼마나 됩니까?
미스터 양 한 200만 원은 넘어갑니다. 하여간 계산은 나중에 합시다. 오늘 당신 목소리 계약하면 50만 원은 받으니까.
김창호 헛허...
미스터 양 왜 웃으시우?
김창호 돈 벌기 아주 쉽군요.
미스터 양 유명해지면 다 그런 겁니다.
김창호 오늘 스케줄이 어떻게 됩니까?
미스터 양 (쪽지 보며) 주간 고십 기자와의 인터뷰, 당신 사진 찍을 겁니다.
김창호 광부 모습으로 말이죠?
미스터 양 예, 광산에 있을 때 찍어 놓은 사진이나 있으면 이런 고생 안 하지?
김창호 난 재미있는데...
미스터 양 기자가 갯 속에서 가장 괴로웠던 일이 뭐냐? 결혼은 언제 했느냐? 그런 시시결결한 얘길 물을 겁니다.
김창호 그건 여러 사람한테 말했는데?
미스터 양 줄줄 외우고 계시우! 시간 절약되니까... 조금씩 재미있게 거짓말을 보태!
김창호 난 거짓말을 못 합니다.
미스터 양 차차 하게 됩니다. 그래야 이 짓도 오래 해 먹지.
김창호 이 짓이라니? 난 그래도 양심이 있습니다.
미스터 양 누구 없수? 다 잊어버리고 있으니까 그렇지. 그런 거 끄집어낼 필요가 없어요! 양심을 들먹이면 아주 신경질 난다구요! 자! 녹음하기 전에 한 번 더 연습합니다. 읽어 봐요! 감정 넣어서...
김창호 (읽는다.) 과자라면 구수한 경상도 문둥깡. 너도 나도 먹자, 영양 많고 맛있는 문둥깡! 문둥깡의 자매품 차카라 쿠키!

미스터 양 좋습니다. 우악스럽게. 여자들이 들으면 먹고 싶어 미치고 환장하게 해야 합니다. 갑시다!

김창호 당신 수고가 많습니다. 덕의 일도 바쁠 텐데 나를 위해서 뛰어 주니 내가 인복이 많은 모양이죠?

미스터 양 오해하지 마시우! 난 매니저요. 당신 수입금의 10퍼센트를 먹는대구요. 양심적으로... 아— 또 신경질 나는군!

(중략)

22. 어느 방

미스터 양 손톱 갈고 있다.

김창호 (호기 있게) 아— 미스터 양! 오랜만입니다.
미스터 양 (힐끗 보며) 미스터 양, 미스터 양 하지 말아요. 내 나이가 몇인데?

멈칫하는 김창호.

김창호 저, 우리 다시 그전처럼 일합시다. 방송국도 나가고, 무슨 바자회도 열고, 내 목소리도 좋아졌습니다. 아— (발성)
미스터 양 시끄러! 시끄러! 당신 뭐하려고 그래? 난 당신 매니저가 아니라구. 난 신인가수 옥명아를 데뷔시킨 매니저야.
김창호 나도 노래 기차게 잘할 줄 안다구요. (구성진 유행가를 술집 가락조로 한 구절 뽑는다.)
미스터 양 그게 노래요? 편도선 앓는 소리지.
김창호 전에는 내가 한마디 하면 모두 박수 쳤는데.
미스터 양 그땐 당신이 상품 가치가 있을 때지. 지금은 다 잊어버렸대구요. 신기록이 또 나오기 전엔 김창호 썬 아무것도 아니야. 매니저가 뭘데? 상품 가치가 있는 사람만 골라내는 게 직업이야.
김창호 그럼 다시 땅속으로 들어갔다가 더 오래 있다 나오면 안 될까요? 그동안 잘 먹어 뉘서 자신 있는데...

김창호의 얼굴 비참하리만치 진지하다.

Memo

이해와 감상

〈영웅 모집〉은 1934년에 발표된 희곡으로, 파고다 공원을 배경으로 하여 1930년대의 다양한 군상을 보여준다. 작가는 여러 인물을 계속해서 등장시키고, 그들의 모습을 관찰하고 논평하는 피에로의 시선을 그려냄으로써 1930년대 병든 현실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전체 줄거리

파고다 공원에 피에로가 엄숙한 얼굴로 서 있다. 깨끗한 차림새의 소년A와 초라한 차림새의 소년B가 공원으로 들어온다. B는 카스텔라를 먹고 있는 A에게 카스텔라를 나눠 달라고 간청하지만 A는 약 올리기만 할 뿐 나눠 먹으려 들지 않고, 이내 B는 쟁쟁하게 카스텔라를 뺏어 먹는다. 달아나는 B를 A가 욕하며 쫓아간다. 이를 본 피에로는 악착스럽다며 한숨을 쉰다.

전문학교 학생인 A와 B가 공원으로 들어온다. 두 사람은 마작 구락부¹⁾의 수입이 상당하다는 소문을 언급하며, 아무리 공부를 해 봐야 결국 끝은 눈만 높은 백수라며 한탄한다. 두 사람은 자신들이 높은 벼슬을 얻을 것이라는 부모의 기대를 운운하며 쓰게 웃고, 부잣집 딸과 결혼하는 게 제일이나 그것도 운이 있어야 한다며 우울해하다가, 이윽고 내일은 아침부터 학교를 빠지고 늦잠이나 자다가 마작이나 하겠다며 자리를 뜬다. 피에로는 그들을 보다 민족의 선두가 될 청년들이 타락했으니 큰일이라며 탄식한다.

여학생 차림을 한 매춘부가 공원으로 들어와서는 벤치에 앉아 숙된 유행가를 부른다. 피에로는 그녀를 보며 인상을 찌푸린다. 그때 어떤 남자가 들어와서는 매춘부에게 다가와 말을 걸고, 두 사람은 흥정 끝에 함께 사라진다. 피에로는 여성이 거리에서 정조를 흥정하는 세태에 탄식한다.

신사 A와 B가 공원으로 들어온다. 피에로는 그들을 주의 깊게 살펴본다. A는 파고다 공원을 불하²⁾받아서 다 헐어내려 한다고 말한다. B는 고적³⁾을 없애는 일이나 반대가 클 것이라고 가로막는다. 그러나 A는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라며, 서울 한복판의 귀한 땅에 사리탑을 세워 놓고 공원으로 쓰는 것은 낭비요 손해라고 주장한다. 자신이라면 공원을 다 헐어 버리고는 요릿집이나 카페, 댄스홀, 오락장, 마작 구락부 등을 만들어 부자가 되겠다는 것이다. 두 사람은 계속 이야기를 나누며 사라진다. 피에로는 A를 두고 사리탑의 심오한 가치나 민족의 회고적 감정을 짓밟는 죽일 놈이라며 성을 낸다.

젊은 과부가 두 아이의 손을 잡고 들어온다. 딸과 아들은 과자를 사 달라고 조르지만 과부는 나중에 사 주겠다며 아이들을 달랜다. 과부의 옛 친구가 공원으로 들어와서는 과부를 알아채고 말을 건다. 다정한 상봉 끝에 친구는 과부에게 다시 결혼했다는 소식이 사실인지 묻고, 과부는 결혼한 것이 아니라 첩으로 들어간 것이

라고 정정한다. 친구는 팔자 편하고 아이들을 잘 키우면 첩이 무슨 상관이나고 위로하지만, 과부는 다시 파탄이 났다며 신세 한탄을 시작한다. 죽은 남편은 남긴 것이 없고 자신은 재주가 없어 먹고 살 길이 요원하여 수치를 참고 싸전⁴⁾가게 판무식꾼⁵⁾의 첩이 되었으나 6개월 만에 쫓겨났다는 것이다. 앞일이 막막하다는 과부에게 친구는 다시 재혼할 것을 권해 보려 하지만 과부는 애까지 둘이나 딸린, 자신 같은 여자를 누가 데려가겠느냐고 쓰게 웃는다. 자신은 다시 또 속아 무지한 놈의 첩이 되었다가 몇 개월 만에 쫓겨나길 반복할 것이라는 과부의 말에 친구는 한숨을 쉬고, 과부 가족을 자기네 집으로 데려간다. 피에로는 울 듯이 한숨을 쉬며 그들을 바라본다.

병든 노동자가 통곡하며 공원으로 절독거리며 들어온다. 반대편에서 나타난 순사가 그를 잡아 흔들고는, 여기는 우는 데가 아니라며 내쫓으려 한다. 노동자는 독섬까지 가야 한다고 말하다가 복받쳐 울음을 터뜨린다. 사흘째 굶은 처자가 기다리고 있으며, 자신은 살수가 없어 문 안⁶⁾에 들어와 막일을 하다가 다리를 다쳤고, 그래도 벌이를 찾아보려 병든 다리를 끌고 다시 문 안에 들어왔지만 아무도 일을 주지 않아 깜박 잠이 들었다는 것이다. 그는 굶어 죽어가는 처자가 기다리는 독섬까지 병든 다리로 갈 생각에 계속해서 운다. 순사는 사정이 딱하다고 말하면서도 노동자를 이끌고 공원 밖으로 나간다. 그 모습을 모두 본 피에로는 한숨을 쉰다.

룸펜⁷⁾ 삼사 인이 피죄죄한 차림에 굶주린 빛으로 공원에 들어온다. 벤치에 앉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반대편에서 번듯한 차림새의 A와 B가 등장한다. A는 자신이 변절자라지만 룸펜 삼사인과 자신이 다를 바 없다고 합리화한다. 피에로는 그들을 보며 분노한 얼굴이 된다. A와 B는 자신들처럼 태도나 표명하는 것이 차라리 죄를 덜 저지르는 길이며, 민중이나 민족을 위해 일한다는 사람들도 사실은 일반 민중을 위하는 것은 아니라 결국 돈 있는 사람들에게 이익을 줄 뿐이라고 주장한다.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좌파로 발 벗고 나서지 않을 바에야 자본주의에 알맞은 행세를 하는 것이 제일이라는 것이다. A와 B는 담배꽁초를 버린 뒤 유유히 사라지고, 룸펜 일당은 B가 버리고 간 담배 토막을 주우려고 소란을 벌인다. 피에로는 더욱이 성을 낸다.

이주민 가족이 공원으로 들어온다. 딸은 사리탑을 가리키며 저것이 무엇인지 묻고, 아버지는 예전에 이곳(파고다 공원)이 절이었으나 불이 나서 절은 없어지고 탑만 남았다가 공원이 된 것이라고 알려준다. 간도로 떠나면 언제 다시 와서 서울 구경을 하겠냐며 잘 보아 두라는 아버지의 말에 어머니는 시간 낭비라며 핀잔을 주지만, 아버지는 살기 어려워 만리타국으로 떠나더라도 조선 종자이므로 서울 구경은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잘 되면 돌아와서 보란 듯 살자는 아들의 말에 아버지는 목멘 소리로 다시 돌아오면 잘들 살라고 말하고 가족들과 함께 사라진다.

1) 클럽(club)의 일본식 음역어. 취미나 친목 따위의 공통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조직한 단체.

2) 국가 또는 공공 단체의 재산을 개인에게 팔아넘기는 일.

3) 옛 문화를 보여 주는 건물이나 터.

4) 팔과 그 밖의 곡식을 파는 가게.

5) 아주 무식한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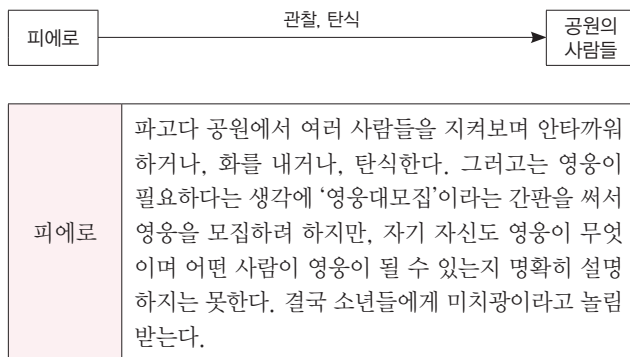
6) 사대문 안을 의미함.

7) 부랑자 또는 실업자를 이르는 말. 일제강점기에는 대체로 룸펜 인텔리겐치아(지식층에 속하면서 실직한 사람.)를 칭했다.

주정꾼 A와 B가 등장했다가, 서로를 박상⁸⁾이나 김상이라고 부르며 반가워하고는 비틀거리며 함께 사라진다. 피에로는 그들을 흘려보며 망할 자식들이라고 일갈하고는, 이리저리 거닐며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한다. 그리고는 큰일이 났으니 아무래도 위대한 영웅이 필요하다고 뛰쳐나간다.

곧 피에로가 ‘영웅대모집’이라고 쓴 덜 마른 선간판과 종을 들고 공원으로 뛰어나온다. 피에로는 히틀러나 무솔리니, 워싱턴이나 나폴레옹 같은 영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워싱턴이 프랑스의 영웅이라거나 나폴레옹이 미국의 아버지라는 둥 횡설수설한다. 소년들이 몰려들어 구경하자, 피에로는 모두가 응모하라며 영웅은 좋은 것이라고 홍보한다. 민족을 구하여 이름이 영원히 남고, 좋은 집에서 살 수 있고, 술과 호색을 마음껏 할 수 있으며 약간의 허물은 모두 덮어준다는 것이다. 소년감은 영웅이 뭐냐고 묻고, 조선을 위해서 일할 사람이라는 피에로의 말에 일을 시키면 품삯을 주느냐고 묻느냐며 옆집 김서방을 데려와도 되느냐고 묻는다. 피에로가 기막혀 하자 소년병이 영웅의 자격을 묻고, 큰 사람이어야 한다는 말에 자기네 집 행랑아범의 키가 크다고 말한다. 피에로는 다시 소년감을 꾸짖고는 어서 영웅이 나오라며 소리를 친다. 소년들은 자기들끼리 영웅이 뭐냐거나 모른다는 이야기를 나누고, 피에로를 미치광이라고 놀린다. 피에로는 성을 내며 소년들을 쫓아가고, 소년들은 계속해서 소리를 치며 막이 내린다.

등장 인물



주제

1930년대의 다양한 군상을 통한 병든 현실 비판

8) 일본어에서 존경과 겸손의 접미사로 쓰이는 상さん을 발음한 것.

출제 포인트

- ① 「영웅 모집」은 1930년대의 파고다 공원을 배경으로 하여, 1930년대의 다양한 인간군상을 파편적으로 드러내 당시의 세태를 풍자하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전문학교 학생인 A와 B는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요행만을 바라거나 염세주의적 태도를 보인다. 가난한 신세의 과부는 자식들을 위해 수치를 참아가며 척 생활을 하지만, 그마저도 쫓겨나는 등 비참한 생활을 한다. 작가는 피에로의 독백을 통해 이러한 당대의 현실을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A (다리를 쭉 뻗고 하품을 하며) 아-이고 오늘도 그렇지렁 해가 저물었었나!

B (나른해서) 그런 모양일세. 그런데 그놈의 마작 구락부가 수입이 상당한 모양이야!

A 그럼 이 사람아, 어느 날은 하로에 사오십 원이 들어온다네.

B 그거 참! (간(間)) 나도 학교인지 막걸린지 집어치고 마작 구락부나 낼까보다.

A 나두 허너니 그 말일세.

B 글썄 이놈의 공부를 애тан가틴해서 학교를 졸업하면 무얼 하느냐 말이야! (흥분이 된다) 우등으로 졸업한 놈하고 또 우락부락하든 웅원단장이나 하고 일류 운동선수나 해서 몇 놈이 취직이 되고는 그 나머지는 모다 그대로 늘비-하게 처져 버리니.

A 명색이 좀 배웠대서 눈만 높아지고…….

B 그래 말이야 글썄. 요즘은 중학교나 중학정도의 실업학교를 마친 사람이 되려 취직률이 낮아데그려!

A 월급 적고 부리기 편하니까 그러치.

B 그리고 우리는 고등룸펜 면허장 하나를 얻어가지고는 뒤통수를 툭툭 치고 나서고…….

A 중학교부터 전문학교까지 졸업 하느라고 들인 돈이 적어도 삼사천 원은 될 텐데 그 놈 가지고 차라리 호떡장수라도 했으면!

B 아하! 우울해 (담배를 꺼내어 A도 주고 자기도 붙여 문다) 그런 줄 변연히 알면서도 그래도 그대로 다니고 있으니 우리가 바보지.

A 행여 삼사십 원짜리 취직이라도 될까 하는 요행수를 바라고 그러지. (고소(苦笑)를 한다)

B 이 사람아 우리 집 영감님은 지금 군수 하나는 따 놓았으리라고 한울같이 믿고 쟁시다네.

A 하하하하 군-수- 허허 참!

B (따라서 고소를 하며) 가가 맥히지.

A 돈 있는 집 색시한테로 장가를 가는 게 제일이야

B 돈 있는 집 색시도 제한이 있지 그렇게 제마닥 얻어걸리란 법이 있단나!

A 그러니까 운수라지.

B 럭비-선수 ‘슈-바리에’ 놈 보게! 그 놈은 그런 운수가 당하잔 해도 제 집에 돈이 있으니까 넉넉할 텐데 게다가 부자 집 딸하고.

A (고개를 끄덕거리며) 허기야 그런 걸 보면 운수도 밑천이 있어야 걸리는 모양이야.

두 사람 (잠시 말이 없이 우울해서 앉아 있다)

B (벌떡 이러서며) 가세.

A (따러 이러선다)

B 내일은 경칠 것 아침부터 사보투한다.

A 나두 늦잠이나 실컷 자고 오정 때쯤 마작이나 하러 오겠네.

두사람 (이야기하면서 오른쪽 전면으로 퇴장)

피에로 (두 사람의 사라지는 양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독백)
아-하 큰일 났어! 장차 민족의 선두가 될 청년들이 마음이 저렇게 타락이 되어서! (천천히 걸어서 우수 전면에 이른다)

(중략)

딸 (어머니의 손을 놓고 후면(後面) 좌편(左便) 벤치로 달려가 걸터앉으며) 어머니 여기서 놀다 가 응.

과부 (백없이) 그래라. (아들을 데리고 벤치에 가서 걸터앉는다)

딸 어머니.

과부 뭐야.

딸 나 과자 사주.

아들 나두.

과부 시방 돈 없으니 후제 사주마.

아들 시-러.

과부 그렇게 어머니 졸르면 착한 아이 아니야 응.

아들 흥-시-러.

딸 (갑작이) 어머니 어머니.

과부 왜 그래?

딸 그때 저 우리 우리 새아버지가 과자 많이 사주었저?

과부 (안색이 좋지 않아진다) 응.

딸 그런데 왜 아니 오우.

과부 그런 소리 묻는 것 아니야.

옛 친구 (조금 전에 좌수(左手) 전면으로 등장하여 유심히 과부를 바라보다가 그 앞으로 급히 가서 선다) 아이구 이게 누구요? 언니 아니요?

과부 (반겨 놀래어 마주 일어선다) 아이구 난 누구라구!

두 사람 손을 서로 움켜잡는다.

옛 친구 글썄 이게 얼마만이요? 왜 이러케 늙었어!

과부 (적적하게 미소한다) 나이 먹으니 늙을 밖에.

옛 친구 그래두 원! (두 아이를 번갈아 보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며) 너이들도 많이 자랐구나! 잘들 있었니?

두아이 (다소곳하고 있다)

옛 친구 그런데 그새 어떻게 지냈수?

과부 그렇지렁

옛 친구 (갑작이) 그런데 언니 저 (주저하다가) 나 누구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저 거시기 다시 결혼했다구?

과부 (고소(苦笑)) 그게 결혼이요? (남의 일같이 빈정대며)
 침살이로 들어간 거지!

옛 친구 (놀래어) 어! 그게 웬 소리?

과부 웬 소리는 뭘 웬 소리? 나이 삼십이 넘고 자식이 둘이나
 따랐는데 지금 이 세상에 누가 그리 어수룩해서 정실로 모셔
 가겠소?

옛 친구 그래두 원! (간(間)) 그렇지만 또 생각하면 뭘 어쩔소.
 그렇게라도 팔자 편케 잘 살고 어린 것들이나 잘 길르면
 그만이지.

과부 (고소(苦笑)) 그거나마 그렇게 되었드라면 오직이나 좋겠
 소만 또 파탈이 낫다우.

옛 친구 (발을 구르며) 어찌면! 그게 웬 소리요. 어떻게 되어서
 원 팔자가 그렇게 기구하단 말이요. (눈물을 흘린다) 이야기
 좀 해요.

과부 (고소(苦笑)) 띄운 얼굴에 역시 눈물! 남편이 끼쳐준 것
 없고 내가 벌어먹고 살자니 재주가 없고. (한숨을 내신다)
 그래 할 수 없이 저것들을 데리고 남의 침으로 들어갔구려!
 돈이 넉넉하고 제법 이렇다는 사람이야 기생이니 여학생
 이니 꽃 같은 여자가 늘비한 세상에 나 같은 새끼 달린 늙은
 것을 생각이나 하겠소. 겨우 걸린다는 게 어느 싸전가가의
 판무식꾼이지! (한숨) 그래도 수치를 참어가면서 내 한 목숨은
 죽은 셈치고 자식들이나 그 덕에 길러가자 든 것인데 세상에
 침을 오래 데리구 살려는 사내가 있소? 여섯 달만에 갈렸지.
 (한숨)

옛 친구 저를 어찌!

과부 지낸 일도 지낸 일이거니와 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 아득
 허우. 내 한 목숨만 같으면 죽어라도 버리겠지만 저 불쌍한
 어린 것들이 있어 죽지도 못허구…… 그대로 살아가자니
 거지가 되는 수밖에는 별 도리가 없고……

옛 친구 (잠시 생각하다가) 누구 얹전한 사람이나 골라서 한 번
 더. (말을 못한다)

과부 (고소(苦笑))를 하면서) 얹전한 사람이 무엇이 부족해서
 나 같은 여편네를 고른답디까? 또 나는 그렇다고 저 어린
 것들의 짐까지 질려구 한답디까?

옛 친구 그러니 글썽 저 일을 어떻게 해!

과부 되어가는 대로 되라지! 인제 또 속아서 무지한 놈의 침살
 이나 몇 달 하다가는 쫓겨나고 그렇저렇…… (간(間)) 그러니
 그게 산 목숨이야? (간(間)) 창피하고 분해!

출제 포인트

- ② 「영웅 모집」에서 ‘피에로’는 당대의 현실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며, 민족을 위해 영웅이 필요하다는 적극적인 현실 타개책을 제시하며 객관적 관찰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피에로가 영웅을 모집한다고 제안하는 결말부에 이르러서는 정작 자신도 영웅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며, 피에로가 주장한 영웅의 의미가 부정당하고 그 정체가 모호해지는 장면이 나타난다. 이를 통해 시대 전반이 병들어 있다고 진단하는 작가의 생각을 읽어낼 수 있다.

[앞부분 줄거리] 이주민 가족이 등장해 북간도로 떠나기 전 마지막 서울 구경을 한다.

아버지 마누라도 원 딱한 소리 마우. 우리는 늙었으니 그런 것 저런 것 상관없지만 저것들이야 어대 그렇소? 조선서 태어나서 조선서 저만큼씩이나 자라가지고 아무리 살 수가 없어 만리 타국으로 떠나기는 할 망정 그래도 조선 종자들인데 서울 구경 한 번 못한대서야 저이도 인제 원이 아니되겠소!

아들 아버지 그런 걱정은 마세요. 인제 잘 되면 돌아와서 보아란 듯이 살 텐데.

아버지 아무렴 그래야지. 만리 타국의 호지에 가서 영영 뿌리가 박 혀서야 쓰겠니. (간(間)) 다들 보았니? 다행히 다시 돌아오거든 시방 하든 말 일르고 잘들 살아라. (눈물이 눈에 고인다. 목멘 소리로) 가자 인젠.

일동 (우수(右手) 전면으로 퇴장)

피에로 (방금 울듯이 그들의 뒤를 바라보다) 조선을 죽도록 지키자구!

주정꾼 A와B (비틀거리며 마주 잡고 좌수(左手) 후면으로 등장)

피에로 (이마를 찌푸린다)

A 어— 튀튀.

B 아 여보 박상!

피에로 (홀려본다)

B 게 우리가 오랜만에 만나서……

A 오랜만이구 말구 응 긴상!

B 아하하하하…… 누—따 주우쿠나

A 노—들강변 비둘기 한 쌍.

B 허허허허 이런 제—길.

두사람 (여전히 비틀거리며 우수(右手) 전면으로 퇴장)

피에로 (홀려보며) 망할 자식들! (고개를 숙이고 뒷집을 지고 뚜벅뚜벅 무대 전면을 왔다갔다 거닐면서 골똘히 생각한다. 가끔 가다가 고개를 갇웃거린다)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아무래도 큰일 났어. (간(間)) 영웅이 영웅이! 위대한 영웅이 나야만 해. (고개를 끄덕거린다) 그래 영웅이 나야 해, 영웅이 영웅이! (갑작이 좌수(左手) 전면으로 뛰어들어 간다)

—무대 잠시 빈다—

피에로 (‘영웅대모집(英雄大募集)’이라고 쓴 아직 먹이 마르지

아니한 선간판을 손에 들고 또 한손에는 조그마한 종을 들고 허둥지둥 뛰어나온다. 휘휘 돌리다가 전면 벤치에 간판을 기대어 세워놓고 관객석을 향하여 서서 종을 흔들며 부르짖는다) 자! 영웅이 나와야 합니다. 영웅! 이태리의 히틀러—같은 영웅 독일의 뭇솔리니—같은 위대한 영웅, 와싱턴 같은 거룩한 영웅! 나폴레옹 같은 위대한 영웅. 보시요 와싱턴은 불란서의 오늘날의 영화를 끼치었고 나폴레옹은 미국의 아버지가 되지 아니하였습니까? 우리에게도 영웅이 있어야 됩니다. 자— 영웅.

소년들 (여기저기서 모여들어 차츰차츰 피에로를 둘러싸고 구경을 한다)

피에로 자— 우리 조선에도 영웅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응모 하십시오. 자 누구나 다 응모 하십시오. 영웅은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민족을 구하여 그 일함이 영원히 남으니 좋고 또 영웅에게는 여러 가지 특전이 있습니다. 좋은 집에서 살 수가 있고 맘대로 술을 먹을 수가 있고 호색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약간의 허물은 모다 덮어줍니다. 자— 누구든지 와서 영웅이 되십시오. 시기는 지금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자—

소년 갑 여보세요?

피에로 왜 그러니?

소년 갑 그게 무슨 약이요?

피에로 (흥이 깨져서) 약? 예끼놈!

소년 을 나는 빈대약 파는 줄 알었지.

피에로 (기가 맥혀) 이놈아 약이 아니야 조선의 큰 일꾼 영웅을 모집하는 게야.

소년 갑 영웅이 무어유?

피에로 우리 조선을 위해서 일할 사람이다.

소년 갑 (까막까막 생각하다가) 그림 저 우리 집 옆에 김서방 오라구 해요? 일 시키면 품삷 주지요? 전에는 생선장수 했지만 지금은……

피에로 (기가 맥혀) 예끼 녀석!

소년 병 그림 영웅은 어떤 사람이라야 해요?

피에로 위대해야 한다. 큰 사람이라야 된다.

소년 갑 큰 사람이요?

피에로 아무렴 큰 사람이라야지.

소년 갑 그러면 저 우리 집 행랑아범이 키가 펴 큰데.

피에로 예끼 녀석! (그리려 한다)

소년 갑 (피하며) 괜—히 그래요!

피에로 (다시 종을 흔들며) 자— 영웅이야 영웅! 어서 바빠 나오십시오. 이대로 가다가는 큰일납니다. 어서 영웅이 나오시오.

소년 을 (저희끼리) 이에 그림 영웅이 무어냐.

소년 갑 몰라.

소년 병 아마 저 사람이 미친 놈인가보다?

소년 정 옳—아 미친 놈이야. (물러서며) 야 미친 놈 봐라.

소년들 (사방으로 헤어지며 일제히) 야— 미친 놈 봐라.

피에로 (눈이 둥그랴다가 성이 나서 이리저리 날뛰며) 이놈의 자식들!

소년들 야- 미치광이다.

피에로 (눈을 뒤집어쓰고 이리저리 소년들을 쫓는다)

소년들 (더욱이 소리를 지른다)

—급히 막이 내린다—

| 이해와 감상

〈소〉는 1934년에 발표된 희곡으로, 일제의 가혹한 수탈로 인해 황폐화되어 가던 1930년대 농촌의 모습을 그려낸 작품이다. 빚을 갚기 위해 ‘소’를 팔아야 하는 상황, 마름의 횡포로 꿈과 소망마저 좌절되는 현실 등 작가는 당대 우리 농촌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그려냄으로써 모순적인 사회의 구조를 비판하고자 했다고 볼 수 있다.

| 전체 줄거리

제1막

명랑한 늦가을, 무대는 시골 농가의 마당과 뒷마루가 꾸며져 있다. 집 뒤쪽에서 타작하는 소리와 일꾼들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말뚝이는 절구통 뒤에 숨어 게으름만 부린다. 국서가 말뚝이를 찾지만 발견하지 못하고, 이웃 사람인 우삼과 만나 풍년을 기뻐하며 퇴장한다. 개똥이가 뱃사람 옷을 입고 등장하고, 국서는 일은 않고 쏘다니는 개똥이를 꾸짖고는 말뚝이의 행방을 묻는다. 모른다고 불통히 대꾸한 개똥이는, 자신은 뱃사람이니 농사를 지을 수는 없다며 소를 팔아 노잣돈을 대 달라고 요구한다. 요새는 만주에만 가면 일거리가 많으니 이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국서는 그럴 수는 없다며 펄쩍 뛰고는 개똥을 욕박질러 일을 시킨다. 국서는 계속해서 말뚝이를 찾지만 찾지 못하고 퇴장한다. 말뚝은 혼자 남아 죽어도 일은 안 하겠다며 투덜댄다.

우삼과 문진이 어계춤을 추며 등장하고, 서로 풍년을 기뻐한다. 사슴(마름)이 등장한다. 우삼은 재차 풍년이라며 기뻐하고 국서 처는 술을 대접한다. 국서를 찾는 마름과 함께 다른 사람들도 모두 퇴장한다. 말뚝은 혼자 남아 거둬 불평한다. 국진이 헛간 입구 쪽으로 등장해서는 국서 처에게 함지를 껴매 달라고 부탁한다. 국서 처는 함지를 켈 삼꾼을 찾다가 말뚝을 발견하고, 아버지(=국서)에게 혼나기 전에 타작마당에 나가라며 달라고 혼낸다.

귀찬이 아버지가 등장해 무슨 일인지 묻는다. 국서 처는 바쁜 날 말뚝이가 갑자기 게으름을 피운다며 한탄한다. 귀찬 아버지는 도리깨를 빌리고, 추수가 잘되었는지 묻는다. 국서 처는 농사가 잘되면 논과 밭 주인들이 밀린 도지를 모두 받아내려 해 오히려 흉년보다 못할까 싶다고 걱정한다. 귀찬 아버지는 내년부터 집행될 농지령 때문에 밀린 도지를 이번 추수까지 다 내야 한다는 소문을 전하며, 그 까닭에 딸 귀찬을 일본에 팔게 되었다고 말한다. 국서 처는 이젠 아들이 아니라 딸 낳기를 바라야겠다며 아들만 둘인 자신의 처지를 한탄한다. 그때 국진이 함지를 찾아 등장해 낫을 갈기 시작한다.

유자나무 집 셋째 딸이 노래를 부르며 등장한다. 술에 취한 그녀는 국서 처에게 개똥의 행방을 묻지만, 대답을 듣지 못하고 퇴장한다. 국서 처는 그녀가 서울 청루에 팔려 가서 5년을 지내고 온 뒤로 실성한 사람이 됐다고 말한다. 귀찬 아버지는 귀찬이 팔려 가는 데는 좋은 데라고 답하고, 국서 처는 맞는 말이라며 맞장구친다. 귀찬이 유자나무 집 셋째 딸처럼 되지만 않으면 좋겠다던 귀찬 아버지는 딸의 부름에 퇴장한다.

개똥과 말뚝이 등장한다. 감나무 밑에 앉은 말뚝을 본 국서 처가 개똥에게 까닭을 묻자 개똥은 장가를 보내주지 않아서라고 대답한다. 그러고는 소를 팔자고 조른다. 국서 처는 국서가 집안 식구보다도 소를 더 소중히 여기니 포기하라고 하지만, 만주에서는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설득에 넘어가 국서를 구슬려 보기로 한다.

국서 처가 퇴장하자 말뚝이 개똥을 막아서고는 망할 자식이라며 욕박지른다. 도망치는 개똥을 쫓아가려던 말뚝은 국서와 부딪히고, 국서를 피해 도망간다. 국서는 밀린 도지를 다 갚으라는 마름에게 힘껏 해 보겠다고 답하고, 마름은 소작인의 고생을 안다면서도 자신에게 말세¹⁾를 후하게 주기를 당부하고 퇴장한다.

개똥과 그를 쫓는 말뚝이 다시 등장한다. 국서는 바쁜 타작날 농땡이를 부렸다며 말뚝을 붙잡아 매질하려 한다. 그때 개똥이 말뚝의 심술은 장가를 못 갔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국서의 욕박과 국서 처의 구슬림, 구경꾼들의 동조에도 말뚝은 울기만 한다. 그러자 젊은 일꾼이 말뚝과 귀찬이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다. 개똥도 맞장구를 치고, 국서 처는 귀찬이 일본으로 팔려가게 됐다는 사실을 상기한다. 젊은 일꾼은 말뚝이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심술이 난 것이 아니냐고 추론한다. 말뚝은 고개를 끄덕이고 귀찬을 원망한다. 귀찬이 부모들에게 말하고 함께 살자고 약속해 놓고서는 일본으로 간다는 것이다. 국서는 귀찬의 몸값을 마련할 수 없으니 포기하라고 성을 낸다. 국진과 국서 처, 구경꾼들이 다른 여자를 찾아보라고 달래도 말뚝은 죽어 버리겠다며 몸부림을 치고, 결국 국서가 일꾼들을 시켜 말뚝을 묶어 둔다. 국서는 말뚝이 정신을 차려야 한다면 일꾼을 시켜 말뚝에게 물을 끼얹고는 그를 가둬 버린다. 일꾼들과 구경꾼들이 모두 퇴장한 뒤, 국진은 귀찬네 집의 사정을 알아보고 말뚝의 장가를 성사시켜 보자고 제안한다. 국서는 여차피 안 될 일이라며 반대하지만 국진은 이쪽 뜻이나 말하고 오겠다며 퇴장한다. 국서는 국진을 쫓아나가고, 국서 처는 귀찬네 형편이 변해 말뚝이 귀찬과 결혼할 수 있기를 터주신과 성주신에 빈다.

제2막

마름과 국서가 뒷마루 양지에서 도지를 셈하고 국서 처는 소먹이를 준다. 문진이 전날 타작한 품삯을 받으러 오자 국서는 셈할 돈이 모자란다고 남는 짚을 지고 가라고 권한다. 문진은 돈으로 받고 싶어하지만 할 수 없이 지게에 짚을 싣는다. 그가 말뚝의 용태를 궁금해하자 국서 처는 귀찬과 결혼할 수 있게 되자 새벽부터 기운을 차려 난리라고 답한다. 귀찬네가 받아 쓴 선금 천 냥을 국서네가 빚을 저물어 주고 색시로 얻어 오기로 했다는 것이다. 문진은 선금을 물어주는 것만으로 딸을 내놓을 리 없다며, 귀찬네가 딸을 내놓는 것은 국서네가 소를 가졌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말뚝이 웃으며 짐을 지고 등장하자 문진은 말뚝을 놀리고, 말뚝은 듣기 싫다면서도 그저 웃으며 퇴장한다. 그 모습에 문진과 국서 처는 실컷 웃고는 함께 퇴장한다.

1) 곡식을 사고팔 때 가운데서 흥정을 붙여 주고 그 보수로 받는 돈.

마름은 도지가 모자란다며 국서를 독촉한다. 어려운 사정을 설명해도 마름은 듣지 않으며, 자신에게 주는 말세가 적다며 불평한다. 화를 내며 퇴장하는 마름을 따라 국서도 퇴장한다.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개똥과 쇠똥치(소장수A)가 들어온다. 들키면 혼난다며 걱정하는 쇠똥치에게 개똥이 그 대신 노자만 되면 소를 헐값에 팔겠다고 다짐한다. 쇠똥치는 소가 마르고 늙었다며 값을 깎아 부르고, 개똥은 말이 안 된다고 말하면서도 누가 올까 불안한 마음에 부른 값에 팔겠다고 말한다. 쇠똥치가 소를 끌고 가려 하자 개똥은 저녁에 집을 떠날 때 끌어내 주겠다고 말한다. 지금 들키면 큰일이라는 것이다. 들킬 일을 걱정하는 쇠똥치에게 개똥은 재차 자신들만 입을 다물면 아무도 모른다고 안심시킨다. 그때 말뚱이 등장해 개똥과 쇠똥치를 발견하고 의아해하지만, 개똥은 아무것도 아니라며 시침을 뱉다.

국서와 마름이 등장해, 쇠똥치와 개똥은 슬금슬금 퇴장한다. 말뚱은 의아해하다 소를 도로 잘 매어 둔다. 마름은 모자란 도지를 올해 안에 갚지 않으면 결단을 짓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다. 그 말을 들은 말뚱이 농사지는 것들을 모조리 가져가 남은 게 없으니 결단을 내려면 내 보라며 대든다. 국서는 말뚱을 말리다 못해 쫓아내고, 분노한 마름은 도지를 갚지 않으면 소라도 뺏어가겠다고 흥분하고, 애원하는 국서 부부를 뿌리치며 나가 버린다. 국서 부부는 마름을 건드렸으니 논을 떼이고 말겠다고 걱정한다. 그때 이웃사람 영실이 등장해 읍에 간 국진이 돈 꾸는 일로 국서를 불렀다고 전해 준다. 국서 처는 읍에 다녀오는 길에 마름의 기본을 풀어 줄 물건을 사 오라고 부탁한다. 유자나무집 딸이 등장해 개똥을 찾자 국서 처와 국서는 그녀를 쫓아낸다. 이윽고 국서가 집을 나서자 국서 처는 선금을 물어 줘야 하니 꼭 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한다.

국서 처는 말뚱에게 국서가 시켰으니 쇠진드기를 잡아 달라고 부탁한다. 말뚱은 마름이 잘못된 일이라며 국서의 태도에 불만을 갖지만, 곧 귀찬을 언급하며 자신이 색시를 잘 고르지 않았냐고 묻는다. 국서 처의 동의를 얻은 말뚱은 자신이 귀찬과 결혼하기만 하면 호강을 시켜 주겠다고 국서 처에게 다짐한다. 호들갑을 떠는 말뚱에게 편잔을 준 국서 처는 귀찬네가 딸을 주는 것이 말뚱이 아닌 소 때문이라며 말뚱에게 소에 절을 시킨다. 웃으며 반항하다 결국 절한 말뚱은 귀찬을 보고 부끄러워한다. 말뚱은 아버지를 찾으러 왔다는 귀찬을 데리고 퇴장한다. 마침 개똥이 바쁘게 등장해서는 국서 처에게 옷을 싸 달라고 부탁한다. 승금청²⁾에 일이 있어 네 시까지 가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가 부탁만 남겨 두고 나서는데 유자나무집 딸이 등장해서는 개똥을 따라간다. 귀찬과 웃으며 이야기 하던 말뚱은 노래를 부르며 집으로 온다. 국서 처는 그 모습을 보고 웃는다.

국서와 국진이 등장해, 저당이 없어 돈을 빌리지 못했음을 전한다. 화를 내는 국서에게 국진은 소를 팔자고 제안한다. 돈을 빌린대도 이자가 점점 커져 어차피 소를 팔아야 할 테니, 지금 파는 게 상책이라는 것이다. 국서는 자식보다 소가 중요하다고 망설이지만, 국진과 국서 처의 설득 끝에 소를 파는 데 동의한다. 국서는 소가 팔리는 걸 볼 수 없다며 방 안으로 들어가고, 순돌(소장수B)이 등장한다.

국진이 소를 팔려 하자 순돌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팔린 소가 아니냐고 묻는다. 그 소리에 국서는 방에서 뛰쳐나오며 노하고 국서 처도 어이없어하지만 순돌은 국서네 소가 벌써 팔렸다는 말을 들었다고 답한다. 국서, 국진, 국서 처는 무슨 영문인지 의아해 하며 캐묻지만, 순돌은 자세하게는 모르며 소를 산 사람이 쇠똥치라는 것만 안다고 말한다. 국진은 논 임자가 팔아버린 것이라고 짐작하고, 이에 국서는 말뚱이 마름에게 담빈 탓이라며 성을 낸다. 그러나 말뚱은 쇠똥치의 인상착의를 확인한 후 개똥이 데려왔던 사람이 소장수임을 알아낸다. 국서와 국진은 개똥이 소를 팔아 만주에 가려 했을 것이라고 짐작한다. 말뚱은 개똥이 자신의 장가 밑천을 팔아 버렸다는 생각에 분노해 낫을 빼 들고 뛰어나간다.

국서 처는 개똥이 소를 팔지 않았을 것이라며, 읍내 승금청에 가겠다고 개똥의 말을 전한다. 그러나 국서는 그것이 가족들을 속이고 만주로 도망치려는 개똥의 거짓말이라고 생각한다. 그때 개똥이 등장하고, 소 판 돈을 어쨌냐는 국서의 다그침에 소를 팔지 않았다고 응수하며 도망치려 한다. 그러나 낫을 들고 등장한 말뚱에게 가로막힌다. 놀란 개똥은 집 뒤로 숨고, 말뚱과 국서가 뒤를 따라간다. 비명을 지른 개똥은 헛간 입구에서 나타나 피를 흘리며 쓰러진다. 국서는 신음하는 개똥에게 덤벼들어 몸을 뒤진다. 국진은 피가 나는 개똥의 머리를 감싸 주며 개똥에게 진상을 묻는다. 그러자 개똥은 소를 팔려고 하기는 했으나 소장수가 들켰을 때를 염려해 사 주지 않았다고 고백한다. 그러자 동무가 네 시까지 읍내 승금청에서 만주로 갈 노동자를 모집한다고 알려줬고, 그래서 급하게 옷을 챙겨 떠나려 했다는 것이다.

그때 마름이 소장수C(소장수A와 이름이 같고 용모도 닮은, 또다른 ‘쇠똥치’)와 함께 등장한다. 목은 도지를 내지 못한다면 소를 데려가겠다는 것이다. 국서는 남의 소를 몰래 팔 수는 없다고 저항하지만 마름은 법을 찾으려면 돈부터 내라고 말한다. 국진은 소를 몰아 내보 내려는 소장수C를 막고는 소를 데리고 집 뒤로 간다. 국서 부부와 마름, 구경꾼까지 모두 그 뒤를 따라가고 말뚱과 개똥만 남는다. 개똥은 물을 달라며 앓고, 말뚱은 벽을 지고 움직이지 않는다.

제3막

약 보름 후, 국서네 마당에 문진과 일꾼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눈다. 소가 어떻게 되었냐는 문진의 질문에 국서 처는 마름이 소장수를 시켜 물고 갔다고 답한다. 젊은 일꾼은 자신이었다면 혼쭐을 내 줬을 거라고 말하지만, 늙은 일꾼은 세상은 주먹다짐이 아니라 돈으로 움직인다고 편잔을 준다. 국서 처는 억울함을 드러내며, 생각한 끝에 국진을 읍내로 보냈고 대서소나 변호소를 통해 재판을 걸 것이라고 말한다. 마름과 논 임자를 혼내 주겠다는 것이다. 젊은 일꾼은 자신도 증인으로 나서겠다고 편을 들어 주지만, 늙은 일꾼이나 문진은 농담만 던진다. 문진은 소 덕을 보려다 외려 다치기만 한 개똥을 놀려 주고는 퇴장한다.

젊은 일꾼이 개똥의 상태를 묻자, 국서 처는 개똥이 아직 낫지 않았으며 소를 빼앗긴 뒤로 온 집안이 엉망진창이 됐다고 말한다. 작은아들 개똥은 머리를 다치고 속을 앓고, 큰아들 말뚱은 혼인이 무산돼 생피폐를 부리거나 마름 집에 불을 지르려 했으며, 국서는 소를 빼앗기고 화병에 걸려 방에서 앓는다는 것이다. 그 말에 늙은

2) 승금청, 순검막, 숨검이 일을 보던 조그마한 막으로 오늘날 파출소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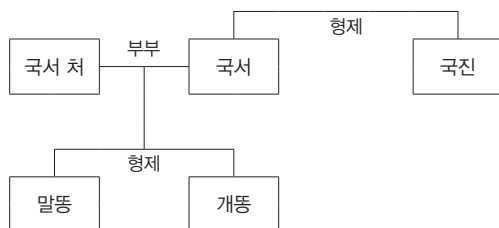
일꾼이 방문을 열고 국서를 불러내지만, 얼굴만 내민 국서는 꼴이 아니다. 그는 재판에서 따져 소를 돌려받겠다고 다짐하며 소의 먼 친척이 도장관에게서 일등상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재차 꺼낸다. 늙은 일꾼은 소를 뺏긴 대가로 도지가 모두 탕감되었는지 묻는다. 국서는 소를 판 뒤에도 일백아흔 냥이 모자란다는 마름의 말을 인용하며, 마름이 돈을 얼마나 받았는지 모른다고 불신한다. 그는 국진이 돌아오기만 하면 소를 되찾겠다는 일념에 불탄다. 그를 본 늙은 일꾼은 소 하나 없어지고 가족들이 풍비박산 난 만큼 소가 농가의 명줄이라는 말이 맞는 말 같다고 생각한다.

거나하게 취한 이웃 사람 우삼이 똑같이 취한 귀찬 아버지를 어깨에 끼고 노래를 부르며 들어온다. 우삼은 노래를 부르며 귀찬이 효녀라고 칭찬한다. 젊은 일꾼이 웬일로 초저녁부터 취했느냐고 묻자 우삼은 귀찬 아버지가 딸을 판 돈이 남아 그 돈으로 술을 마셨다고 답한다. 국서 처는 귀찬에게서 기별이 없었는지 묻고, 귀찬 아버지는 영 소식이 없다고 답한다. 우삼은 귀찬이 일본에 팔려갔으니 팔자가 뚫다고, 신선놀음이나 즐길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귀찬 아버지는 자신이 자식을 팔아먹은 게 같은 놈이라며 자책한다. 우삼이 그를 달래 부축해서는 퇴장하고, 일꾼들도 퇴장한다.

유자나무집 딸과 국진이 각각 등장한다. 국서와 국서 처는 국진을 발견하고 달려가 맞이한다. 국진이 기척을 알아채자 유자나무집 딸은 퇴장한다. 재판 날짜를 묻는 국서에게 국진은 재판을 걸지 않았다고 답한다. 재판을 걸면 소는 재각 찾을 수 있지만, 목은 도지를 집행하게 되면 집이나 집터까지 모두 날리고 화전민이 되어야 하며 재판 비용도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국진은 또한 재판을 하게 되면 논까지 떼이게 된다고 말한다. 이때 개똥이가 등장하지만 누구도 눈치채지 못한다. 국서는 내력 있는 소를 빼앗길 수 없으며 분해하지만, 국진은 이번 일만큼은 성미대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자신이 아예 논 주인을 찾아가 소와 도지를 서로 탕감했다고 알린다. 국서는 울며 방으로 들어간다.

이때 이웃 젊은 사람이 몇 등장해 국서 처를 찾는다. 말뚝이는 논 임자의 곳간에 불을 질렀고, 도망도 치지 않고 주재소 송금에게 붙잡혀 갔다는 것이다. 국진과 국서 처는 사람들을 따라 퇴장하고 국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방으로 돌아간다. 혼자 남은 개똥은 상처만 나으면 만주로 가겠다고 중얼거리고, 취해서 등장한 유자나무집 딸은 자신을 데려가 달라며 달라붙는다. 개똥은 그를 뿌리치지만 유자나무집 딸은 웃기만 한다.

등장 인물



국서	소작으로 먹고 사는 농부. 소를 애지중지하며 자식보다 귀하게 여기지만, 말뚝이의 결혼을 위해서는 소를 팔아야 한다는 동생(국진)과 처의 설득에 소를 팔기로 결심한다. 개똥이가 몰래 소를 팔려고 했다는 사실에 분노하고, 이후 마름에게 소를 빼앗기게 되자 화병으로 앓아눕는다. 재판으로 소를 되찾으려 하지만 실패한다.
국서 처	국서의 처(아내). 개똥이가 소를 팔아 자신의 노잣돈을 마련해 달라고 조르자 국서가 허락할 리 없다며 소스라치지만, 만주에 가 쉽게 돈을 벌어 오겠다는 개똥이의 회유에 설득당한다. 말뚝이의 심술이 결혼때문임을 알고는 귀찬이의 몸값을 갚아줄 수 없다며 반대하지만, 결국 국진과 함께 국서를 설득한다. 개똥이가 소를 팔았다는 추측에 그럴 리 없다며 개똥이를 감싼다.
국진	국서의 남동생. 말뚝이의 결혼을 위해 읍으로 돈을 빌리러 가지만 저당이 없어 돈을 빌리지 못한다. 말뚝이의 결혼을 위해 소를 팔자고 국서를 설득해 동의를 얻어내지만, 소장수에게 소가 이미 팔렸다는 말을 듣고 당황한다. 마름이 소를 뺏어가자 소를 찾기 위해 재판할 방도를 알아보나, 손해를 계산한 끝에 논 임자를 찾아가 소와 도지를 서로 탕감한다.
말뚝이	국서 부부의 첫째 아들. 타작날 내내 심술을 부리고 농땡이를 피운다. 그 까닭이 귀찬이의 일본행 때문임을 안 가족들이 귀찬이와 결혼시켜 주려 하자 금세 기분이 풀려 열심히 일하고, 어머니에게는 결혼만 하면 호강을 시켜 주겠다고 장담한다. 한편 말세나 도지를 가혹하게 뜯어 가는 마름에게 성을 내며 대들다 국서에게 혼이 난다. 장가 밀친인 소를 개똥이가 팔았다는 이야기에 분개해 닢으로 개똥이에게 상처를 낸다. 결국 마름에게 소를 뺏겨 귀찬이를 일본으로 떠나보내게 되고, 화를 내며 논 임자의 곳간에 불을 지른다.
개똥이	국서 부부의 둘째 아들. 배를 타고 일한 적이 있으며 농사일에 마음을 붙이지 못한다. 농사일에는 희망이 없다며 만주로 떠나 돈을 벌고 싶어 하고, 어머니에게 소를 팔아 노잣돈을 대 달라고 조르지만 아버지의 반대에 부딪힌다. 가족들 몰래 소를 팔아치우려다 실패하자 송금청을 통해 만주로 떠나려 한다. 소를 판 범인으로 몰려 머리에 상처를 입고 만주로도 떠나지 못하지만 계속해서 만주에 대한 미련을 품는다.

주제

1930년대 농촌의 모순적 사회 구조 비판

출제 포인트

- ① 「소」는 1930년대 일제 강점기 농촌을 배경으로 하여, 당대 농민들의 생활상을 사실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소작농을 짓는 농민들은 농사가 잘 되어도 땅 주인에게 도지로 수확한 것을 모두 빼앗겨 버리며 심지어 도지를 내지 못해 자신의 자식까지 파는 모습도 나타난다. 한편, ‘유자나무집 딸’은 그렇게 팔려간 인물의 미래 모습으로,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그려지지만 이는 ‘귀찬이’의 비극적 미래와 나아가 당대 농민들의 비극적 생활을 비유적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귀찬이 부 : (도리깨를 내리며) 참, 댁의 이번 추수는 어때요?

올해는 물이 흔해서 우리 동리엔 전반으로 잘됐나 봐요.넌장 해마다 흉년에 쪼들리더니 이번에는 좀 허리를 펴는지.

처 : 농사가 잘되면 어디 논 임자 밭 임자가 가만듭니까? 이 몇 해 동안 밀려 내려오던 콩 도지, 쌀 도지를 이번에 들어서 죄다 받아 널려구 덩비는걸요. 피려 흉년이 드는 것만 같지 못할 겁니다.

귀찬이 부 : (소리를 낮추어서) ...그런데 저 댁에서도 이런 소문을 들었어요? 어찌 되는 건지 내년부터서는 무슨 농지령이란 법령이 새로 내린다나요. 그래서 입때까지 밀린 도지는 이번 추수까지 다 해 들여놔야 한대요. 그렇잖으면 논을 떼고 막 집행을 헌대요.

처 : 우리한테는 금년 봄부터 그런 말썽이군요. 어찌 되는 놈의 세상인지.

귀찬이 부 : 허는 수 없어서 우리는 우리 집 귀찬이란 녀를 팔아 먹게 했지요.

처 : 귀찬이를? 그 암전한 애를?

귀찬이 부 : 도지를 갚지 않으면 논을 떼다는 데야 해볼 장수가 있나요. 자식이라도 팔아서 갚다 갚아야지.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썩 잃고 매 잃는다는 셈으로 논은 논대로 떨어지구 자식은 자식대로 굶어 죽일걸.

말뚱이 : (혼자말같이) ...눈이 떨어지면 어찌란 말야! 벌어 먹을! 자식 팔아먹구 잘되는 집안은 못 봤어! (퇴장)

처 : (말뚱이를 바라보고) 저런! 육싹할! 저놈이 바로 환장을 했어! ... 그런데 귀찬이는 영 팔게 했수?

귀찬이 부 : 이천냥(사십원)에 아주 작정을 지었답네다. 그것두 원체 요즘은 이곳저곳서 계집애 팔려는 데가 많아서 좀체 사갈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는 것을 읍내 나까무라 상헌데다가 말해서 일본으로 팔게 했어요. 선금으로 우선 천냥(이십원) 받고, 도장 찍구 계약까지 했지요.

처 : 예그 댁에는 딸을 잘 가져서 보통이 신세는 면하시구려. 우리 집에는 사내새끼가 둘이나 있으면서 무슨 팔자소관으로 그런지 사람의 간장을 이처럼 썩이는구려. 한 자식은 배 타러 다닌다구 떠맏기다가 집에 들면 농사짓는 것을 업수이 여기구 한 자식은 여태 근실히 잘하든 놈이 버쩍 오월부터 병든 황소같이 늘어자빠지니... 우리 집안에는 무슨 망조가 든 거야요. 그렇잖으면 이럴 리가 없어요.

귀찬이 부 : (일어서며) ...계집애가 나서 귀찬스럽다구 해서개에미가 귀찬이란 이름을 붙였지요. 그랬는데 그게 되려 우리한테 덕을 보겠지요, 이히히.

처 : 참 세상일은 모를 일이야요 뭐든지 그저 거꾸로만 돼 가거든요. 춘향 모의 문자가 아니라두 인젠 아들 낳기는 바라지 말고 딸 낳기만 바래야겠군요. ...이왕이면 저 뒤에 가서 술한잔 가지고 가슈.

귀찬이 부 : 술요? 웬 게 남았수?

(국서의 처, 귀찬이 부를 데리고 헛간으로 나가려 한다. 그럴 적에 국진이 낫을 들고 들어온다.)

국진 : (국서의 처에게) 함지 다 됐어요? ...에그 얼른 좀 꾸매세요.

(국서의 처와 귀찬이 부 헛간 입구로 나간다. 국진이 솥들을 찾아서 낫을 갈기 시작한다. 간(間). 유자나무집 셋째 딸의 노래소리 우편(右便)에서 들린다.)

(노래)

청치마 밑에다 쇠주병 차구서
오동나무 수풀로 임 찾아가누나

(우편에서 무대로 돌맹이 오륙 개 튀어 들어온다. 유자나무집 딸 돌에 맞아 비명. 그쪽을 향해서 국진이 소리친다.)

국진 : 이놈들아 왜 돌질을 해!

유자나무집 딸 : (상처를 만지며 빙글빙글 웃으며 우편서 들어온다. 뒤를 돌아으며) ...괜히 재들이 돌질을 하지. 아마 나를 미치광인 줄 아나 봐, 히히... (돌을 도로 주어 던진다.)

국진 : 좀 비틀거리는 걸 보니 너 어디서 취했구나 또?

유자나무집 딸 : ...임순네 집 타작하는 데서 한잔 얻어먹었쥬. 이것 봐요. 나는 취하기만 하면 우리 서울 나지미 상 생각이 나. 우리 나지미 상은 목에다가 안 땀기를 들이고, 두 눈은 새까맣고... 참 멋쟁이 서방님이더니... (헛간으로 나오는 국서의 처를 보고) 개똥 어머니 날새 안녕합니까? 개똥이는 어딴어요? 네?

처 : 왜 넌 밤낮 개똥이만 찾아다녀? 개 아버지한테 들키기만 하면 또 혼날려구!

유자나무집 딸 : 그런 말 마세요. 개똥 어머니. 그러면 개똥이 꺼정 나를 싫어해요. ...홍 싫어하면 어때? 나만 정들었으면 그만이지... (힘없는 콧노래를 부르고 나간다.)

국진 : (낫을 갈어 들고) 저 계집애 신세도 말썽 아니로군. (집 뒤로 퇴장)

처 : (헛간 입구에서 유자나무집 딸을 가르키며 귀찬이 부에게) 재 알지요. 유자나무집 셋째 딸이야요. 서울 청루에 팔려 가서 다섯 해 동안 살고 왔대나요. 그러더니 그만 저 지경이겠

지요. 열이 쪽 빠저서 아주 실성한 사람같이 됐어요. 어릴 적에는 애가 여간 칠칠하질 않더니—

귀찬이 부 : 허지만 우리 집 귀찬이가 팔려 가는 데는 아주 좋은 데래요. 바로 일본 땅이라니까요—

처 : 암요. 일본은 돈 많은 데지요. 아무러면 조선 땅허구야 같겠수. 일본 가서 부자 되지 않은 사람이 없대요. 척푼 없든 길선네 집두 그 집 작은아들이 일본 가서 뇌동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잘살게 됐죠. 더군다나 귀찬이란 녀은 재치가 베멘 하우. 운수가 좋으려 들면 암전한 새신랑까지 얻어 올는지 모를 일입네다.

귀찬이 부 : 헛헛헛..., 우리 팔자에 어찌 그런 것까지야 바라겠수. 그저 금방 왔다가 간 유자나무집 셋째딸같이나 안 됐으면 좋지요. 그 지경 돼 가지구 제 고향이라구 찾아오면 제 부모 되고 어떻게 볼까요 간장이 가퍼서, 차라리 죽어 오는 게 낫지.

출제 포인트

- ② 1930년대 일제 강점기 농민들의 생활을 힘들게 했던 것은 일제 뿐만 아니라 친일 지주 세력과 '마름'의 횡포이기도 했다. '마름'은 지주를 대리하여 소작권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친일 지주 세력에게 빌붙어 농민들을 직접 수탈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자신이 농민에게 받을 '말세'에 따라 농민들에게 권력을 가했다. 「소」에서도 마름의 심기를 건드려 결국 '소'의 소유권을 마름에게 빼앗기고 마는 모습을 통해 당시 친일 지주 세력과 마름의 행태를 비판적으로 그려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마름 : ...마흔닷 말에다가 서 말 두 되 두 홉을 보태고 게다가 열한 말 닷 되 두 홉을 털어 내면... 이것 보게! 서른일곱 말 일곱 되 틀림없지 않나? ...그러면 작년치 떨어진 게 두 섬 여섯 말 재작년치 떨어진 게 석 섬 두 말! 거기서 금년에 들어온 게 한 섬 한 말 그러니까 통쳐서 떨어진 게 녀 섬 일곱 말 이네. 그럼 이젠 다 어떻게 해준단 말인가? 저번에 간평하러 왔을 적에 자네 논 입자 앞에서 뭐라구 말했나? 이번 추수에는 어떻게 해두 다해 드리겠다구 했지.

국서 : ...글쎄요 허긴—

마름 : '글쎄요'를 찾아서 끝이 날 일이 아니야. 정신 좀 채려!

국서 : 허지만 우리 힘껏 헐 대로 다 해 드리지 않았수?

마름 : 이게 무슨 배짱인가? 쌀이 없다면 콩이나 팥이나 그렁 잡으면 조 같은 것이라도 내놓고 헐 말이지? 자네야 어떻게 하든 간에 이 떨어진 서른일곱 말 일곱 되는 꼭 금명간에 해 드려 내야 하네!

국서 : 그렇지만 여태 묵은 것두 이번에 들어서 그만큼이나 깊 어지지를 앓았습니까. 실상 말이지 그걸 다 치른다구 우리들 집안 양식이라는 한 톨 쌀도 남지를 앓았답니다.

마름 : 그런 죽어 가는 소리는 작년 재작년 흉년 때부터 들어서 귀에 아주 젖었어. 인젠 소용없어. ...좌우간 일어나게 집 뒤에 가서 말질해 놓은 벼섬이나 챙겨 보세. 그리고 자네 내게 주는 말세두 금년에는 변변치를 못해서! 그거 원 생각할수록 고약하거든!

국서 : 아닙니다. 말세만은 그처럼이나—

마름 : 그처럼이 뭐야! 작년 재작년 흉년 때에 자네 뭐랬어? ...요다음 농사만 잘되면 그저 눈을 꿈벅 감고, 푼더분히게 주겠다구 그러지 않았어? 엑 이 사람! 천하에 원!

[종락 부분 줄거리] 적은 말세에 불만을 가진 마름은 모자란 도지를 올해 안에 갚지 않으면 소라도 빼앗아 가겠다며 으름장을 놓는다. 돈을 마련하지 못한 국서네는 결국 소를 팔기로 하는데, 소는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팔린 뒤였고, 국서의 집으로 마름이 찾아온다.

마름 : 국서 내가 지금 온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아까 말해 두고 간 그 도지 때문에 왔는데 이런 판에 말하기는 안됐지만은 잘 듣게. 나는 집에 가서 이렇게 생각하고 왔네. 자네가 묵은 도지를 아즉 못 해다 갚는 바에야 내가 저 소를 몰고 가두 무 방한 일이라구. 어때? 그러는 게 피차에 말썽두 적구 앞일을 봐서두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

국진 : 아니—

마름 : 자 쇠뭉치야!

(‘쇠뭉치?’라구 부르는 소리에 일동 의아한 듯이 서로 얼굴을 본다.)

마름 : (소장수 C더러) 이놈아, 쇠뭉치야, 저 소를 몰고 나가 거라.

국서 : 니가 쇠뭉치로구나! 음! 똥똥하고 머리 깎은!

국진 : 이게 무슨 짓이우? 남의 소를 두고 미리 소장수하구 흥정까지 허구 와서—

마름 : 일없네! 자네 작은아들이 이 소 흥정을 헐려다가 못했던 말을 내가 듣고 얼씨고나 허구 쫓아온 걸세.

국서 : 남의 소를 입자 몰래 팔어먹는 법이 어디 있담!

구경하는 사람 중에서 : 암 그런 법은 없지.

마름 : 돈을 내놓고 법은 찾게. 그것이 정당한 일일세.

국진 : (소장수 C가 소를 몰아내려는 것을 떼밀어 버리고) 비켜! 이런 악착스런 노릇이 어디 있어! 솔랑은 마구간에 넣어 놓고 따져 봐! (소를 몰고 집 뒤로 간다.)

소장수 C : (따라 나가며) 이런 제기랄!

마름 : (같이 따르며) 이래서는 뒷일이 좋지 못해! 이 사람 국진이!

쳐 : ...원, 천하에! 남의 소를 가지구 이게 무슨 짓이야, 남의 집 명줄을 가지구....

(구경꾼까지 모두 소를 따라서 무대 뒤로 나간다. 무대에는 마루에서 앓는 개똥이와 벽을 지고 부둥하는 말똥이뿐—)

■ 이해와 감상

〈불꽃〉은 선우휘 원작의 단편소설 「불꽃」을 각색한 시나리오이다. 이 작품은 3·1 운동부터 8·15 광복, 6·25 전쟁에 이르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방황하는 주인공 ‘현’의 모습을 중심으로 서사가 진행된다. 현실에 순응적이고 체념적이었던 ‘현’은 일련의 사건을 경험하며 현실에 적극적으로 맞서는 인물로 변모하는 모습을 보인다. 작가는 이를 통해 역사의 비극 속에서 갈등을 극복하고 자기 개혁을 실천하는 인간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전체 줄거리

부영산 계곡, 숲 사이에서 고현이 피 흘리는 다리를 끌고 등장한다. 현은 냇물을 들이켜고 가쁜 숨을 돌리고는, 절뚝이며 가파른 산비탈을 기어오른다. 간신히 기어올라 동굴에 도착한 현은 벽에 기대 눈을 감는다. 그는 아버지를 찾듯 굴 안을 둘러본다.

이윽고 화면이 흑백으로 연출된다. 굴속에서 공포에 질린 사람들 사이에서 현의 아버지가 담담히 굴 밖을 응시한다. 왜놈 헌병들이 굴 앞으로 밀려들어서는 총을 난사한다.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죽어간다.

현이 아무도 없는 굴속에서 눈을 뜬다. 현은 웅성대는 사람들의 환성을 듣고, 왜놈에게 끌려나가는 아버지를 환각으로 본다. 그는 그 환각이 사실은 연호에게 끌려 나가는 자신의 시체임을 느끼고 정신을 가다듬는다. 현은 총을 열어 탄환 다섯 발을 확인하고 다시 장전한다.

경찰서 앞마당, 왜놈들이 총을 장전하고 기다린다. 장터를 메운 군중들이 절규하듯 만세와 찬송가를 부른다. 좌판 위에는 조정태, 백 목사, 현 아버지가 서 있다. 조정태가 공약 삼장을 외치자 군중이 열기를 띤다. 그 속에서 현 아버지를 확인한 중구가 놀라 어딘가로 달려간다. 조정태와 현 아버지가 선장을 하며 만세 행렬의 선두에 선다.

고 영감네 싸전 가게까지 만세 소리가 돌린다. 주판알을 튕기던 고 영감은 하필 장날에 난리라며 눈을 흘긴다. 옆에서 새색시인 현의 어머니가 기도를 드린다. 고 영감은 만세 운동이 쓸데없는 객기라며 혀를 차고는 현 어머니를 안으로 들여보낸다. 그때 중구가 뛰어 들어와 현 아버지가 만세꾼들 맨 앞장에 섰다고 알린다. 고 영감은 뛰쳐나가려는 현 어머니를 막으며 밖을 내다본다.

군중이 만세를 부르고 태극기를 흔들며 싸전 가게 앞까지 밀려온다. 고 영감은 그 물결의 맨 앞에 선 아들을 보고 놀라 주저앉고, 현 어머니는 군중을 뒤따라간다. 고 영감은 집안이 망했다며 가슴을 쥐어뜯는다.

군중은 만세를 부르며 경찰서 앞으로 다가온다. 왜경들은 일제히 무차별 사격을 가한다. 백 목사와 현 아버지가 총알을 맞는다. 총성과 아우성이 울리며 사람들이 흩어진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쫓겨 오자, 고 영감은 문을 걸어 잠그고 달려오는 사람들을 내쫓는다. 바깥에서 사람들이 총에 맞아 죽지만 고 영감은 못 본 체하고 돌아선다. 이윽고 헌병들이 들어닥쳐 가게

안을 살살이 뒤지고 다시 사람들을 쫓아 달려간다.

길가에는 주검들이 쓰러져 있고 왜경들은 묶은 사람들을 끌고 간다. 그 사이로 달려온 현 어머니가 시체 속에서 현 아버지를 찾지만, 발견하지 못한다. 동굴로 달려간 현 어머니는 동굴 안에서 끌려나오는 현 아버지의 시체를 발견하고 기절한다.

경찰서 뒷마당에 이끌려 온 고 영감은 어느 시체 앞에 세워진다. 헌병은 거적을 벗겨 현 아버지의 시체를 드러내고는 고 영감에게 아들이 맞느냐고 묻는다. 고 영감은 현실을 부정하지만, 왜경은 시체나 인수해 가라고 잘라 말한다. 고 영감은 엉뚱한 쪽으로 가벽에 이마를 자꾸 부딪힌다.

동굴 안의 현은 시선을 돌려 동굴 밖을 바라본다. 가을 산 풍경에 이어 산비탈의 조상 산소, 그 아래쪽의 아버지 산소를 보던 현은 동굴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에 시선을 돌리고, 물방울을 손아귀에 잡으려 해 본다.

고 영감네 안채, 어린 현이 처마 밑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을 잡으려 애쓴다. 방 안에서 점심을 먹던 고 영감은 마당으로 내려서다 현을 발견하고 동전 한 닢을 준다. 현은 밥을 먹으라는 김씨(고 영감의 후처)의 제안을 거절하고 그대로 집으로 뛰어간다. 어머니가 일하는 밭에 도착한 현은 어머니에게 공책을 자랑하고 사탕을 먹여 준다. 그러고는 물놀이를 하러 뛰어간다.

장터 주막거리의 술집에 왜놈 차림을 한 중구가 자전거로 술통을 싣고 온다. 그의 처 말순은 술독을 받으며 기무라 순사가 회식을 준비하라고 했다고 전한다. 그때 현이 들어와 연호를 찾는다. 중구는 못마땅한 듯 ‘흑부리 영감’의 안부를 묻지만 현은 대답하지 않고, 웃으며 나온 연호와 뛰어나간다. 중구는 그 모습을 흘려보다 자전거를 타고 간다. 싸전 가게 앞을 지나던 중구와 고 영감의 눈이 마주치지만, 둘은 서로 아는 체도 하지 않는다. 고 영감은 배은망덕한 놈이라며 중구를 욕한다.

앞가을에서 물놀이를 하던 연호, 현, 구산, 덕용은 참외밭에 숨어들어 서리를 시도한다. 자는 줄 알았던 촌 영감님의 호령에 현이 주저앉고, 그를 챙기려던 연호가 현과 나란히 붙잡힌다. 영감님은 두 사람을 원두막에 올려 벌을 세운다. 지루해진 두 사람은 그림자를 보다 하늘을 보면 하늘에 그림자가 생긴다며, 그림자와 하늘을 번갈아 보며 논다.

저녁 무렵 현의 집, 현 어머니는 마루에서 빨래를 손질하고 현은 옆드려 숙제한다. 별안간 현이 아버지의 사인을 묻자, 어머니는 놀라서 엄한 얼굴을 했다가 곧 아버지가 보고 싶으냐고 묻는다. 현이 끄덕이자 어머니는 현이 아버지와 똑같이 생겼으니 아버지가 그리우면 거울을 보라고 일러 주고, 할아버지에게는 아버지 이야기를 묻지 말라고 당부한다. 그러고는 아버지가 훌륭한 사람이었다고 알려 준다. 그때 고 영감이 찾아와 밭이며 울타리를 확인하고 챙겨 준다. 시간이 흘러 고 영감이 현네 집을 나서고, 현 모자는 배웅을 나온다. 고 영감은 현 어머니에게 야소당¹⁾에 왜 가느냐고, 현 아버

1) ‘야소당’, 즉 교회회를 이르는 말. 기독교가 전래된 19세기 말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야소 기리사독’으로 음차해 불렀다.

지가 죽은 것도 그곳에 갔다가 동티²⁾를 만났기 때문이라고 타박하고는 정 가려면 현은 데려가지 말라고 당부한다. 잠시 걸턴 고 영감은 현에게 동전을 쥐어 주고는 모자와 헤어진다.

읍내 언덕 위 교회로 신도들이 모인다. 현 어머니는 갈림길에서 간신히 현을 떼어 읍내로 보내고는 언덕을 오른다. 교회 단상에는 조경태 목사가 서 있고 신도들은 찬송가를 부른다. 함께 노래하던 현 어머니는 어느새 곁에 선 현 아버지를 발견한다. 포근한 미소를 띠고 현 어머니는 남편과 이야기를 나누지만 찬송가가 끝나자 현 아버지의 모습은 사라진다.

읍내에서 구산과 말다툼을 하던 현은 구산이 고 영감을 흑부리라고 욕하자 주먹을 들고 덤벼든다. 흠뻑 맞은 구산은 울며 돌아가고 현은 자랑스럽게 고 영감네로 향한다. 화들짝 놀란 고 영감에게 현은 구산이 할아버지를 놀렸기에 싸웠다고 뿌듯하게 말하지만, 면장네 막내(= 구산)와 싸웠다는 말에 고 영감은 현의 따귀를 때린다. 고 영감은 다시 현의 등을 때리며 욕을 먹더라도 지는 게 이기는 거라고 성을 낸다. 싸우기 좋아하고 나서기 좋아해서 잘되는 놈은 없고, 현의 아버지도 그래서 죽었다는 것이다. 현은 억울함에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는 세상을 위해 훌륭한 일을 하다 돌아가셨다며 할아버지는 거짓말쟁이라고 대꾸한다. 노한 고 영감은 현을 집으로 끌고 간다. 그러고는 현 어머니에게 철없는 자식에게도 애비처럼 죽으라고 부추기는 거냐고, 그러려면 자기가 데려가 키우겠다고 욕박지른다. 현은 싫다며 할아버지를 뿌리치고 뛰어나가고, 현 어머니는 잘못했다면서도 현 아버지의 죽음을 폄하하지는 말라고 부탁한다. 고 영감은 남이야 뭐라든 지금은 그저 죽어지내는 게 자기보존의 길이라고 당부하고 돌아간다. 현 어머니는 마루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린다. 한편 개울가에 도착한 현은 모멸감에 눈물을 흘린다. 현이 고개를 들자 하늘에는 그림자의 환영이 나타나고, 그것은 현이 모멸감을 삼키듯 침을 삼키고야 사라진다.

동굴 안의 현은 암벽에 기대 눈을 감는다. 그는 계곡 쪽에서 말소리가 들리자 재빨리 총을 겨냥한다. 한 무리의 나무꾼들이 지나갈 뿐임을 확인하고는 안도한다. 까마귀 소리가 크게 울린다.

중학교 교실, 불온서적을 보았다는 이유로 학생 A가 일본인 선생에게 뺨을 맞는다. 현은 그것을 멍하니 바라본다.

현이 교정을 나서는데 M 선생이 형사에게 끌려가고 있다. 독서회를 열어 학생들에게 독립 사상을 주입한 혐의라는 것이다. 선생과 눈이 마주쳐 현은 흠칫 물러선다. 선생의 뒷모습을 보던 현이 다시금 교문을 향해 걸어가는데, 학생들과 함께 웅성대던 연호가 그를 불러세운다. 민영이 나서서는, 현의 아버지가 삼일 혁명 당시 훌륭한 죽음을 하셨으니 현은 자신들의 뜻을 알 거라고 말한다. 자신들과 비밀 운동을 조직하자는 말에, 현은 주저하다 비밀 운동을 조직해도 달랠 게 없다고 말한다. 언제까지 수동적이어야 하느냐는 민영의 대꾸에 현은 숙제나 시험이 과중하다며 등을 돌린다. 민영은 비겁한 자식이라며 현을 욕하고, 연호는 그에게 흠여머니가 있다며 현을 감싼다. 하늘을 본 현은 다시 그림자의 환영을 보고 불쾌함을 느낀다. 현은 다시금 모멸감을 삼키듯 침을 삼키고, 그제야 환영은 사라진다.

교회 앞, 현 모자가 나와 조경태와 인사를 나눈다. 조경태의 딸 영순을 보며 현은 설렘을 느낀다. 모자가 집으로 돌아가는데 연호가 달려온다. 친구들이 전문대 시험을 친다는 소식을 전한 연호는 현에게 책을 돌려주고, 심부름하러 뛰어간다. 현 어머니는 현에게 정말로 공부를 더 하지 않을 셈이냐고 묻지만, 현은 어머니와 함께 있으며 농사일을 하는 게 더 좋다고 대꾸한다.

교무실에서도 현은 담임에게 이만한 교육이면 족하다고 말한다. 담임은 1등인 그의 성적을 아까워하지만, 현은 그저 남을 괴롭히지 않고 자기대로 살고 싶다고 말한다. 담임은 실망한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버스에서 현은 자기대로 살겠다는 마음이 할아버지와 같은 생각인지, 비밀 운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주저한 것은 어째서인지 따위를 생각하고, 남이야 어쩌하든 말려들고 싶지 않다고 생각한다. 문득 하늘에 그림자의 환영이 떠오르지만, 똑바로 보면 환영은 사라진다. 현은 역겨운 기분에 침을 삼킨다.

고씨네 선영³⁾, 아랫단에 놓인 현 아버지의 무덤에 현이 절한다. 그가 물러나자 고 영감은 음복을 한 뒤 현에게 술을 권한다. 그러고는 현의 아버지가 야소교를 믿고부터 잘못되었다고 탄탄한다. 현이 아버지는 나라를 찾으려는 훌륭한 일을 하다 돌아가셨다고 반박하자 고 영감은 격노한다. 벼슬하는 놈들만 앉아 백성들을 착취하는 나라가 뭐가 아쉬워서 찾느냐는 것이다. 그는 남의 일에 나설 것도, 남에게 기댈 것도 없이 제 몫으로 제 살림을 해야 한다고 따진다. 반박하려던 현은 어머니의 애원에 말을 삼킨다. 하늘에 다시 그림자의 환영이 보인다. 현이 노려봐도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는다.

현이 넓은 꽃밭을 가꾼다. 현 어머니가 밭에서 돌아오며 영순을 데려온다. 예배당에 쓸 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영순은 현과 이야기하다 부끄러움에 꽃도 꺾지 않고 도망친다. 그날 밤, 영선(고 영감의 늦둥이 아들)의 처가 뛰어들어 영선과 고 영감 이 면서기 시험으로 싸운다고 알린다. 세 사람은 급하게 고 영감네로 향한다. 고 영감은 중구의 자식이 면서기 시험을 친다는데 왜 너는 못느느냐며, 머슴이었던 중구가 자기 집에서 물건을 빼돌려 나가서는 술장사를 차린 주제에 자기 욕만 한다며 성을 낸다. 그런 놈이 자기보다 잘되어야 하겠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영선은 고 영감이 중구에게 느끼는 경쟁심의 희생자는 되고 싶지 않으며, 면서기도 될 수 없다고 잘라 말하고는 나가 버린다. 그때 현 모자가 도착하자 고 영감은 올 것 없으면서 문을 닫지만, 곧 문을 열고는 중구의 자식이 면서기면 현은 군수보다 높은 판검사가 되어야 한다며 일본에 유학을 가라고 권한다.

홍성집에서 거나하게 취한 중구와 순사부장 기무라가 나온다. 중구는 연호를 자랑하며 기무라와 면사무소에 향한다. 연호를 자랑스러워하던 중구는 고 영감과 현을 보고 얼굴을 굳힌다. 중구와 고 영감은 서로를 무시하고, 중구는 일부러 더 거드름을 피우며 현의 인사를 무시한다. 이에 고 영감은 들으라는 듯 판검사 시험을 보러 일본 유학 가는 데 호적을 떼러 왔다고 말하고, 두 사람은 서로 으르렁댄다. 맞붙으려는데 연호가 제 아버지를 말리고 고 영감에게 등본을 건넨다. 획 나가는 영감을 현이 따라가는데 기무라가 개천에서 용이 또 나온다고 웃는다. 현은 모멸감을 참고 밭을 댔다. 하늘에 그림자의 환영이 보인다.

2) 건드러서는 안 될 것을 공연히 건드려서 스스로 걱정이나 해를 입음. 또는 그 걱정이나 피해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3) 조상의 무덤. 또는 그 근처의 땅.

읍내 플랫폼에서 현은 고 영감과 어머니와 작별한다. 저만치 서 있던 영순은 현이 손을 들어주자 돌아서 온다. 기차가 터널로 들어가고 현은 회상에서 깨어난다.

동굴 속의 현은 몽롱한 의식 속에 괴로워하다 눈을 뜬다. 그는 죽음을 예상하다가도 노이 올 것이라고 확신한다. 예광탄과 포성 소리에 귀를 기울인 현은 포 소리가 분명하다고 중얼거린다. 그 소리가 메아리가 되어 일본에서 들던 강의 소리로 울린다.

일본 제대 강의실에서 동양윤리학 교수 다카라가 계국주의를 연설한다. 동굴 속의 현은 중간중간 빈정거린다. 기억 속 강의실의 현은 손을 들고 다카라에게 질문한다. 다카라는 소나 돼지가 인간을 위해 달걀 생명을 바친다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 보였다는 것이다. 현은 다카라의 불쾌한 시선을 마주하지 못하고 외면한다. 현이 자기혐오에 젖어 창밖을 바라보면 그림자의 환영이 나타나다가 사라진다. 현은 모멸감을 삼킨다.

교내 풀장, 해엄치는 현의 모습을 본 수영 코치가 수영부에 들 것을 권하고, 가장 뛰어난 요시다와 경쟁해볼 것을 제안한다. 그러나 현은 경쟁의식이 맞지 않는다고 사양하고 물러간다. 요시다는 그가 겁을 내는 것이라며 웃는다. 현은 문득 멈췄다가도 다시 걷는다. 하늘에 그림자의 환영이 부각된다.

교내 캠퍼스에서 현이 릴케의 시를 암송하는데 아오야끼가 흥분한 얼굴로 다가온다. 드디어 진주만 공격을 멋지게 해치워 선전포고를 했고, 미국과의 전쟁이 시작된다는 것이다. 현은 아무 감동을 느끼지 못하지만 촉매를 듣자는 아오야끼에게 끌려 일어난다.

술 취한 아오야끼와 그를 부축한 현이 카페의 문을 열고 나온다. 일본 계국주의에 경도된 아오야끼는 대의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고 자원입대를 각오하지만, 조선 사람인 현은 공감하지 못한다. 현은 어쨌든 정열이 있다는 사실에 아오야끼를 부러워하고, 아오야끼는 현을 하숙집으로 데려가 자신의 책을 모두 주고 감정에 도취해 잠든다. 현은 아오야끼가 생명을 불태울 정열과 목숨을 바칠 나라가 있어 행복한 놈이라고 여긴다. 자신은 싸움에 참여할 명분도, 싸움을 거부할 용기도 없으니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는 것이다. 동굴 속 현은 자신이 고향으로 돌아갔던 것이 현실도피는 아니었는지, 그럼에도 전쟁 참가는 무의미한 게 아니었는지 의문한다.

고향에 돌아간 현은 어머니와 평화롭게 사는 일에만 관심을 둔다. 그런데 과수원에서 일하던 현에게 연호가 다가와 마르크스주의에 관심이 없는지 묻는다. 현은 연호가 면서기를 그만둔 것이 공산주의 탄압 때문인지 묻는다. 현이 자신의 책은 거의 문학 서적이라고 답하자 연호는 이 시대에 문학 따위나 읽는 현은 행복하다고 말한다. 연호는 시대를 지배하는 게 정치고 사상이라고 확신하지만 현은 답하지 않는다. 한편 현은 영순과 조금씩 사랑을 쌓아 간다.

그러던 중 현에게 일본군 입영 통지서가 오고, 현은 외갓댁이 있는 외딴 어촌으로 몸을 피한다. 그는 주막집에서 술에 취해 언제 끌려갈지 모른다고 웃고, 후회 없이 자신을 불사를 일이 없냐며 주정을 부린다. 현을 찾아온 영순이 기생에게 부축받는 그를 발견하고, 현을 인도받아 바닷가로 향한다. 허탈해하며 앞뒤 없는 소리를 하는 현을 영순은 안타까워하고, 두 사람은 밤을 보낸다. 동굴 속 현은 영순을 떠올리며 괴로워한다. 마을 입구에서 어부 차림을 한 현이 영순을 전송하는데 고향의 순사부장이 다가온다.

현 어머니가 과수원으로 숨차게 달려와 현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전한다. 고 영감은 집안이 쑥밭이 될 거라는 협박에 자신이 현을 팔았다고 고백한다. 결국 현은 연호와 함께 징집된다. 동굴 속 현은 괴로워하며 노을을 기다린다.

일본군 내무반에서는 마주선 상대의 뺨을 치는 훈련을 시킨다. 연호는 상대의 뺨을 힘껏 때리지만, 현은 미친 짓이라며 맞기만 한다. 원한이 없으니 때릴 수 없다는 현을 상등병이 반항이냐며 욕박지른다.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지는 현을 연호가 바라본다. 이윽고 연호와 현을 포함한 신병들이 차출된다. 붙잡은 중국인들을 총살하라는 명령에 현은 일부러 총을 잘못 쏘고 채찍을 맞는다. 그러자 연호가 현이 놓친 사람을 쏘 죽인다. 내무반에 돌아온 연호는 용감하게 쏘어야 한다고 타박하지만 현은 총을 쏘는 것이 용감한 일인지, 쏘지 않는 것이 용감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답한다.

중국어 마을을 학살하는 일본군 사이에서, 현은 탈영을 감행한다. 만주 광야를 달리며 현은 강렬한 생명력을 느낀다. 들판에 도착한 현은 중국 소녀를 보고 욕정을 느끼지만, 허벅지를 찢러 가며 수절하던 어머니를 떠올리고 대검으로 자신의 허벅지를 찢으며 충동을 참아낸다.

동굴 속 현은 계곡 들판에서 올라오는 네 개의 인영을 보고 총을 움켜쥔다. 그는 31년 전 아버지가 죽은 동굴에서 죽음과 노을을 기다린다.

들판에 누운 현에게 중국 군인 셋과 연호가 다가온다. 계곡에서는 괴뢰군 복장의 연호와 결박당한 고 영감, 괴뢰군 줄병이 올라온다.

다른 동굴 안 중국군과 함께하는 연호는 자신이 팔로군⁴⁾과 내통하고 있었다고 털어놓는다. 현을 따라 탈영했지만 그를 놓쳤고, 중국 군인들과 합류해 현을 찾아다녔다는 것이다. 연호는 소련군이 조선 땅으로 밀려들어 가고 있으니 조선의 해방은 멀지 않았다고 확신한다. 친일파, 지주, 자본가를 모두 죽이고 그들의 것을 누리겠다는 연호에게 현은 회의적인 태도를 보인다. 연호는 인민이 혁명과 투쟁을 요구하고 있으며 혁명에는 피가 불가결하니 자신들은 인민에게 그 위대한 사명을 받았다고 자부한다. 그러나 현은 인간이 원하는 게 혁명이나 투쟁이 아니라 평화와 안정이라고 말하며 연호가 인민들에게 언제 그런 사명을 받았느냐고 묻는다. 연호는 현이 멍청하다며 자신에게 부지런히 배우라고 말한다.

동굴 속 현은 연호가 말했던 '해방'을 조소하며 계곡으로 들어서는 네 사람을 기다린다. 그는 일본인촌과 광장에서 해방군이 저지르던 살육과 만행을 떠올리며, 그것이 혁명의 완수를 위한 피의 숙청이라고 분노한다.

연호의 고급 응접실, 현은 괴뢰군복을 입은 연호에게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한다. 연호는 나서서 일해야 한다며 현을 협박하다가, 현이 듣지 않자 그는 역시 부르주아이며 자신의 적이라고 말한다. 현은 자신과 연호가 친구이며, 그 이전에 동포라고 말하고는 연호가 주장하는 공산주의의 깊이를 의심한다. 연호가 전화를 받는 사이 현은 평양에서 떠난다.

계곡에서는 연호와 고 영감, 고 영감에게 총을 겨누는 괴뢰군 둘이 올라온다. 동굴 속 현은 할아버지를 발견하고 슬퍼한다.

4) 항일 전쟁 때 화베이(華北)에서 활약한 중국 공산당의 주력군. 1937년 제이 차 국공 합작 후의 명칭이며, 1947년에 인민 해방군으로 고쳤다.

현이 고향으로 돌아가자 고 영감은 잔치를 벌인다. 그날 밤 현은 영순과 이야기를 나눈다. 영순은 서울로 가야 할지 고민하는 현의 마음을 알아챈다. 현은 자신이 비겁한 사람이라며, 할아버지를 욕한 아이와 싸웠을 때를 회상한다. 칭찬을 기대했으나 매를 맞았다는 실망과 좌절에 두꺼운 껍질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동굴 속 현은 하늘에 다시금 나타나는 두꺼운 껍질의 그림자를 보고 침을 삼킨다. 그는 다가오는 네 사람에게 충을 겨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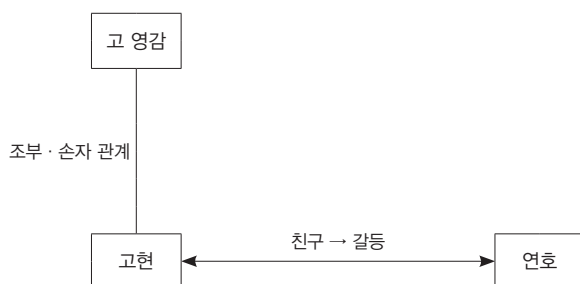
6·25 전쟁이 나고, 연호는 괴뢰군의 지휘자가 되어 군대를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온다. 붉은 '부위원장' 완장을 두른 중구는 고 영감을 친일파 반동이라고 부르며 쌀 창고를 압류한다. 연호는 현의 집을 찾아가 선전 선동책을 맡아 주기를 부탁한다. 현이 망설이자 연호는 발끈하고, 다음날까지 자신에게 찾아오라고 말한 뒤 돌아간다.

동굴 속 현은 계속해서 연호 일행을 겨냥한다. 연호는 동굴 바깥에서 현을 부르지만 현은 대답하지 않는다.

현의 집으로 괴뢰군들이 쳐들어와 현을 끌고 나간다. 연호는 광장에 현, 조정태 목사, 국민회 회장 등을 붙잡아 두르는 조직을 이탈하고 혁명을 반대하는 자의 말로를 보여주겠다고 말한다. 국민회 회장과 조정태가 차례로 동동이질을 당한다. 현은 살인이라고 외치며 연호의 얼굴에 주먹을 날리고, 소총을 빼앗아 도망치다 다리에 충을 맞는다.

계곡에 선 연호는 할아버지의 죽음을 보고 싶지 않으면 나오라며 동굴 속 현을 협박한다. 고 영감은 내려오기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으니 걱정 말고 내려오라며 현을 달랜다. 그는 한 발짝씩 동굴을 향해 다가간다. 어린 현의 모습이나 왜놈에게 쫓기던 사람을 내쫓던 자신의 과거 등을 떠올리며, 고 영감은 현에게 어떻게 하든 도망쳐 살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고는 연호에게 총살당한다. 현이 충을 들고 뛰어나가려는데 그림자의 환영이 눈앞을 가로막는다. 그것은 붉은 불덩어리가 되어서는 하늘 가득히 확산된다. 현이 뛰어나와 괴뢰군을 쏜다. 연호의 총에 맞은 현은 연호를 쏘고 쓰러진다. 확산되는 불덩어리 사이로 현은 꽃밭과 백마를 타고 달려오는 자신의 모습, 어머니와 영순의 모습이 있는 찬란한 세계를 본다. 새로 태어난 현이 고 영감의 시체, 선조들의 선영, 아버지가 죽은 동굴에 둘러싸여 곳곳이 일어선다.

등장 인물



고현	할아버지 욕을 한 아이와 싸웠다가, 면장 아들과 싸웠다는 이유로 할아버지에게 뺨을 맞고 절망한다. 이후 3·1 운동을 하다 죽은 아버지를 존경하면서도, 할아버지의 영향으로 투쟁 등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다. 진학하지 않고 고향에서 지내려 하지만 중구에게 경쟁심을 느낀 고 영감에 의해 일본으로 가 유학하게 된다. 진주만 공습을 계기로 고향으로 돌아온 뒤 입영 통지서를 받고 외가로 몸을 피한다. 그러나 고 영감의 자백으로 발각되어 징집된다. 일제의 공격 명령을 거부하다 탈영해 고향으로 돌아온다. 연호의 회유를 계속해서 거부하다 동동이질을 당할 위기에 처하지만 도망친 끝에 아버지가 죽은 동굴로 향한다. 인질로 끌려온 할아버지의 총살을 계기로 연호와 괴뢰군에 투쟁하며 새롭게 거듭난다.
고 영감	현의 할아버지. 3·1 만세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자신의 가게로 도망치려 하자 문을 걸어 잠근다. 현 아버지의 죽음에 큰 충격을 받으면서도, 그가 싸우고 나서기 좋아해서 죽은 것이며 자기 보존만이 살길이라고 믿는다. 자신의 재산을 훔쳐 술집을 차린 옛 머슴 중구를 미워하며, 그의 자식인 연호보다 자신의 자식(영선)이나 손자(현)가 더 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 끝에 현을 일본으로 유학 보낸다. 고향으로 돌아온 현에게 입영 통지서가 오자 현을 외가로 피신 시키지만, 가족을 모두 숙대밭으로 만들겠다는 협박에 현이 있는 곳을 털어놓는다. 해방 이후 6·25가 터지면서, '부위원장'이 된 중구에게 재산을 압류당한다. 인질이 되어 현이 있는 동굴까지 끌려왔다가 연호에게 총살당한다.
연호	현의 친구이자 중구의 아들. 면서기가 되지만, 현이 유학에서 돌아올 즈음에는 공산주의에 대한 탄압 때문에 일을 그만둔다. 문학이 아니라 정치와 사상이 세상을 바꿀 것이라고 믿는다. 징집당한 뒤로는 현과 달리 매정하게 사람을 때리고 무고한 사람을 쏜다. 탈영한 현을 찾아와 자신이 공산당 군대와 내통하고 있었음을 밝히고 현에게도 혁명 전사가 되기를 권한다. 인민 해방과 계급투쟁을 들먹이며 자신에게는 피의 혁명을 일굴 사명이 있다고 주장한다. 해방 이후에는 고급 응접실에서 현과 갈등한다. 6·25가 터지자 지휘자로서 괴뢰군을 이끌고 고향에 돌아온다. 현에게 선전 선동책이 되어 주기를 부탁하지만, 현이 거절하자 그를 매질하려 한다. 고 영감을 인질로 잡아 동굴로 도망친 현을 쫓아오고, 싸움 끝에 현에게 충을 맞아 죽는다.

주제

역사의 비극 속에서 자기 개혁을 실천하는 인간의 의지

출제 포인트

- ① 「불꽃」에서는 시대에 대응하는 방식과 관련하여 삼대(고 영감, 현 부, 현)의 인물들은 각기 다른 양상을 보인다. 현실에 안주하는 삶을 원하는 '고 영감'과 현실 개혁을 시도한 '현의 아버지', 그리고 '현'은 그 둘 사이에서 방황하는 인물로 그려진다. 이때 방황하던 인물인 '현'은 현실에 정면으로 맞서는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는 모순된 시대 현실에 고뇌하고 갈등을 극복하고자 하는 인물을 긍정하는 작가의 시각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앞부분의 줄거리] 현은 일제강점기 3·1 운동을 하다 돌아가신 아버지를 존경하지만, 현실에 순응하며 살아야 한다는 할아버지 '고 영감'으로 인해 가치관에 혼란을 겪으며, 투쟁에 소극적인 면모만을 보인다.

S#42. 길

현 모 그래 넌 정말 공부 더 안하구 말 작정이나?

현 중학교나 졸업하면 됐죠, 뭘?

현 모 그래두 남들은 다들 가는데,

각박한 한숨.

현 (조용히) 어머니.

현 모 응.

현 전 전문학교나 대학에 가는 것보다 어머니 곁에 같이 있으면서 농사일이나 거들구 있는 게 더 좋아요.

현 모 그래두…….

현 (웃어주며) 이만하면 저는 족해요.

S#43. 교무실

답임 족하다니?

현 전 이만한 교육이면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진학할 생각도 없고 저는 집에 돌아가 어머니를 모시고 편히 살아갔으면 합니다.

답임 (성적표를 내보이며) 자네는 우리 학교에서 졸업 성적이 일등이야. 그만한 재능이 아깝지 않은가?

현 (조용히 웃을 뿐) …….

답임 그러면 인생에 대한 아무런 목적도 없고, 청년다운 야망도 없나?

현 네. 남을 괴롭히지 않고 그저 저는 저대로 살아간다는 것, 저는 것뿐입니다.

답임 허어—.

실망하는 얼굴.

S#44. 버스 안

고향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의 현. 눈앞을 스치는 낯익은 시골 풍경.

현 …… 그저 나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할아버지 같은 그런 생각일까? 아니 할아버지와는 다르다고 생각되지만 설혹 같은 것이라면 그것이 또 어떻다는 것이냐. 인생의 목적?

야망? 포부? …… 민영이 애들이 비밀 운동을 함께 하자고 권유했을 때 나는 왜 거기 혼연히 뒹굴 수 없는 주저를 느꼈을까? 아니야……. 남이야 어떠하든 나야 말려들 것이 무엇인가?

문득 흐르는 야산 위에 크게 검게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뜨거운 거북 껍질을 한 그림자의 환영. 흠칫해서 찬찬히 보는 현. 그러나 흐르는 풍경 위엔 아무것도 없다. 기분이 역겨워 꿀꺽 침을 삼키는 현.

S#45. 고씨네 선영

십수 기 무덤.

아랫단에 외로운 무덤 하나. 그 앞에 현은 절을 한다.

뒷전에 담배 피우는 고 영감과 이윽히 바라보는 현 모.

현. 물러나면 제수 놓고 음복하는 고 영감. 외로운 아버지의 무덤.

고 영감 (술잔을 따르며) 자, 너두 한잔 들어라. 이제 마실 나이가 됐느니라.

현. 머뭇거리며 어머니 쪽을 본다.

고 영감 술은 어른 앞에서 배워야 하느니. 그래야 술버릇이 점잖아지지.

술잔을 들어 삼키다가 기침을 하는 현.

고 영감 요즘 녀석들은 버릇이 없어. 신학문을 한답시고 허파에 바람들만 잔뜩 들었거든.

현 …….

고 영감 신학문이니 뭐니 해도 글은 제 이름자만 쓰면 족한 것이고, 예의범절은 명심보감 한 권이면 알아본단 말이야.

후유— 한숨 내쉬고 비감해지더니.

고 영감 네 애비가 사람은 똑똑했지. 유달리 영특하기에 난 내 앞장감이 생겼다고 은근히 바랬는데 그놈의 야소교*를 믿고 부터 잘못된 거야. 조상 제사 외면하구 생고집만 부리다가 그 몰골이 되고 말았으니. 그 어디서 흘러들어왔는지 야소란 귀신이 탈이었어.

현 그러나 아버지는 훌륭한 일을 하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나 벌칙 화를 내는 고 영감.

고 영감 (성성한 흰 수염을 떨며) 어떤 놈이 그따위 소리하던? 훌륭한 일을 했다고? 애비 두고 죽은 불효가 훌륭하다든? 네 어미 청상과부 만든 것이 훌륭하다든?

현 그렇지만 나라를 찾으려구 하시다가…….

고 영감 나라를 찾아? 그래, 그놈의 나라가 뭘 하는 나라든? 아니 벼슬하는 놈들만 앉아 백성들 것 훑어가거나 하는 그런

나라를 뚫이 아쉬워서 도루 찾아? 나라를 송두리째 팔아
먹은 놈들이 뉘 놈들인데? 사람은 순리대로 살아야 하는 거여.
하기야 나라 뺏긴 것두 좋을 리야 없겠지만 종자가 원래 제
구실 못하는 말종이니 말이야. 그래 세상 형편에 따라 제
손으로 제 일 처리해야지. 손톱만큼두 남의 일에 나설 것두
없구. 남한테 기댈 것두 없구. 제 뭇으로 제 살림 하는 게
제일여.

현 그렇지만...

무어라 반박하려 든다. 그러나 가만히 소매를 당기는 현
모의 애원의 눈길. 현, 꿀꺽 참으며 외면해 버린다. 그때, 저쪽
부영산 건너편 하늘에 거대하게 나타나는 두꺼운 껍질의 그림
자의 환영. 자신을 찍어 누를 듯 압도해 온다. 노려보는 현. 좀
처럼 없어지지 않는 그놈.

* 아소교 : '예수교'의 음역어.

출제 포인트

- ② 「불꽃」에서 ‘현’은 자신을 뒤덮는 두꺼운 ‘껍질’을 만들고, 그 속에서 소극적인 면모만을 보이며 모멸감을 느낄 때마다 하늘에서 ‘두꺼운 껍질’의 음영을 띤 그림자 환영을 본다. 환영은 ‘현’을 압박하는 것으로, 3·1운동을 주도하다가 죽은 아들로 인해 현실에 안주하는 삶을 추구하는 할아버지의 강요로 인해 갖게 된 것이다. 즉, 작가는 부조리한 현실에 체념적이고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행동의 원인을 비극적인 우리 역사의 흐름 속에서 찾고 있다고 볼 수 있다.

S#27. 읍내 거리

꼬마들 모여서 시끄럽기 짝이 없다.

구산 니가 져어. 종 드러.

현 그런 법이 어디 있어? 니가 일부러 밀구서 다시 해야 돼.

구산 잔말 마. 진 건 진 거야.

현 안 해. 나 그런 거.

획 돌아서 가는데

구산 (등 뒤에 대고) 누구누구 할아버진 흑부리래요. 쇠불알 흑부리, 흑부리래요.

놀리는 소리에 다시 획 돌아서는 현.

현 (악이 올라) 왜 남의 할아버질 욕해?

구산 욕함 어때?

현 왜 놀려?

구산 놀림 어때?

현 (주먹을 꼭 쥐며) 올 할아버지 놀림 가만 안 놔둔다.

구산 어쥬, 요게.

턱을 치켜든다. 순간 맹렬히 부딪쳐 들어가는 현. 옆치락뒤치락 싸움이 벌어진다. 바짝 신이 나서 응원하는 꼬마들. 옷이 터지고 흙투성이. 코피가 터지는 현. 그래도 악착같이 덤벼들어 기어이 깔고 앉는다. 사정없이 마구 때리는 현. 구산, 금세 피가 터지며 커다란 녀석이 앙- 운다. 지나던 어른이 달려와 간신히 두 녀석을 떼어놓고 호통을 친다. 구산 엉- 엉- 울며 제 집으로 간다.

연호 (뿔 듯이 좋아서) 현이가 이겼다.

코피를 쓱 문대며 씩 웃는 현. 세상이 온통 자기 것 같다.

S#28. 고 영감네 안채

대문이 찌꺼 열리고 얼굴에 피 흐르는 현이 자랑스럽게 씩씩 대며 들어선다.

김씨 (놀라서) 아니 현이 웬일이냐? 누구허구 쌌냐?

고 영감 (벌컥 문 열고 내다보며) 무어? 쌌었어?

눈이 휘둥그레 나온다. 현 말없이 대야에 물 퍼서 푸우푸우 세수부터 한다.

고 영감 (달려 나오며) 아니 웬일이여? 너 누구허구 쌌냐?

현 자랑스러운 얼굴 들며

현 짜식이, 할아버지를 흑부리라고 놀리잖아? 그래서 막 패줬지 뭐.

고 영감 뭐? 흑부리? 그래……. 그렇다고 누구하고 싸운 게냐? 이런 꼬락서닐 하고.

현 구산이 짜식이 할아버질 놀리잖아?

고 영감 뭐이 어찌? 그럼 면장네 막내하구 싸웠단 말여?

현 (자랑스레) 응!

순간 철썩, 따귀가 모질게 올라오는

고 영감 예끼 이놈 자식. 아, 그깟 일루 쌌을 혀?

경악하는 현. 어안이 병병.

고 영감 (다시 등줄기를 후리며) 놀리면 어때? 욕 좀 먹기로 사람이 죽는 거여?

현 (도무지 영문을 몰라) 할아버질 욕하는 걸…….

고 영감 시끄러 이놈아. 지는 게 이기는 거여. 싸우기 좋아하구 나서기 좋아해서 잘된 놈 봤냐? 제발 네 애비처럼 웬 말쟁이냐?

현, 너무나 억울해서 눈물이 나온다.

고 영감 네 애비도 바로 그 짝이었어. 이놈아. 그래서 비명횡사한 거여. 이 철딱서니 없는 놈아.

현 씨, 할아버진 거짓부렁 쟁이야. 아버진 세상을 위해 훌륭한 일을 하다가 돌아가셨대.

[중략 부분의 줄거리] 고 영감의 영향으로 소극적인 인물로 자라난 현은 고 영감의 강요에 일본으로 유학을 가게 되고, 진주만 공습을 계기로 고향으로 돌아온다. 하지만 이후 학병으로 일본군에 징집되어 끌려가고, 일제의 공격 명령을 거부하고 탈영하여 고향으로 돌아온다.

S#125. 독길 (밤)

영순 세상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한 세대가 가면 어지러운 세대가 오고…….

현 이 민족의 비극이지…….

영순 할단새라고 아세요?

현 할단새.

영순 히말라야에 산다는 가상적인 새예요.

현, 본다.

영순 밤새 추위에 떨면서 아침이 되면 등지를 틀어야지 마음먹다가 아침이 되면 지난밤의 고통을 깨끗이 잊어버리고 만다는 새.

잠시 침묵

현 (무겁게) 하지만 그건 내 경우와 달라.

영순 …….

현 난 껍질 속에 움츠러드는 소라야. 아니 달팽이인지도 모르지. 주위가 시끄러워지면 슬며시 움츠러드는 소라. 그것도 두껍고 두꺼운 갑옷 같은 껍질을 만들어 놓고 그 속에 숨곤 하는……. 달팽이…….

영순 아네요. 현씨는 용감한 거예요. 학병으로 가기 전에 도피했었잖아요. 학병으로 가셔도 부대를 탈출했죠? 이만한 경력이면 애국자의 경력이 충분해요.

현 아니야. 그렇지 않아. 난 비겁했던 거지……. 언젠가 어렸을 적 할아버지를 욕한 아이와 싸운 적이 있었어……. 그때 난 공명과 칭찬을 기대 했었는데……. 오히려 할아버지의 매를 맞았지. 그 때부터 나는 실망과 좌절을 느끼고 두꺼운 껍질을 만들기 시작한 거야.

홀깃 밤하늘을 본다.

S#126 밤하늘(이미지)

부영산 마루에 쭈욱 나타났다 사라지는 두꺼운 껍질의 음영.

S#127 동굴 안

그 기분 나쁜 음영을 지우듯 꿀꺽 침을 삼키는 현.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만 25년에 걸쳐 전 5부로 완성된 박경리의 대하소설인 「토지」를 각색한 극이다. 구한말부터 해방에 이르는 장구한 시간과 평사리 작은 마을부터 시작하여 경성과 간도까지 광범위한 공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작가는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다양한 인물들과 그들이 겪는 삶의 모습을 그려냄으로써 민족적 삶의 흐름을 형상화하고 있다.

전체 줄거리

최치수가 사랑방에서 딸 서희의 문안을 받는다. 그러나 치수는 이윽고 심한 기침에 시달려 서희를 내보낸다. 별당 뜰에서 석류꽃 타래를 만들던 서희를 별당 아씨(서희의 어머니)가 발견한다. 아씨는 서희를 안아주고는 안채의 윤씨에게 데려간다. 서희는 할머니(윤씨)에게 문안을 드린다.

밤, 삼수와 둘은 몰래 나선 구천(환)을 뒤따라 갔다가 산 중턱에서 그를 발견한다. 환은 한이 서린 눈으로 최 참판가의 전경을 내려다보다 울음을 터뜨린다.

치수가 지인의 병문안을 간 사이, 윤씨는 서희를 사랑으로 내보내고 환과 별당 아씨를 도장에 가둔다. 봉순네는 환을 이대로 죽게 할 수는 없으며, 단 한 번만 마님에게 거역하겠다고 말한다.

윤씨는 연곡사에서 김개주에게 겁탈당했던 밤을 회상한다. 김개주는 은장도의 날을 뽑은 윤씨를 저지하고는, 고대광실¹⁾이 싫증 나면 찾아오라고 말하고는 연곡사를 떠났다.

봉순네는 밤을 틈타 별당 아씨와 환을 빼내, 뒷담의 작은 문으로 내보낸다. 다음날 낮부터 서희는 엄마를 데려오라며 악을 쓴다. 봉순네의 달램에도 그치지 않자 윤씨는 회초리로 서희를 혼낸다. 서희는 울음을 그치지만 곧 꽃바구니를 윤씨에게 던지고 엄마를 데려오라며 악을 쓴다.

치수가 돌아온다. 그는 누워 있는 윤씨에게 의원을 부를지 묻지만 윤씨는 거절하고, 집안에 이변이 있었다고 전한다. 치수는 구천의 일을 남의 말 하듯 전하고, 그저 내버려 두라고 말한다. 안채에서 벗어난 치수는 초당으로 올라가다가 구천을 회상한다. 절에서 왔느냐는 물음에도 고개를 젓고 아버지의 이름도 모른다고 말했던 구천은, 누굴 닮았냐고 혼잣말하는 치수를 쏘아봤다.

한편 마을의 주막 영산댁 집에서는 김평산이 문턱을 넘어서며 소리를 지른다. 그를 맞이한 강 포수는 좋은 일이 있느냐는 평산의 질문에 긍정한다. 누군가의 강한 부탁을 받았다는 것이다. 술을 마시고 거나하게 취한 두 사람은 헛간으로 향한다. 강 포수는 금가락지를 받았는데 팔 엄두가 안 난다며 평산에게 가락지를 팔아 달라고 부탁한다. 평산이 내막을 묻자, 망설이던 강 포수는 최 참판 댁 귀녀가 남자를 흘린다는 여우 아랫도리를 사갔다고 털어놓는다. 평산은 귀녀를 찾아가, 치수가 자식을 보기는 글렀으니 귀녀에게는 여우

아랫도리가 아니라 셋서방²⁾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자신이 주선할 테니 애만 낳으라는 것이다.

서울의 개명 양반 조준구가 행차한다. 준구는 최치수의 집으로 향해 윤씨에게 인사를 올리고, 그간 일본 사람들과 상종하며 일했으나 시국이 어지러워 내려왔다고 말한다.

초당에서 친구 이동진과 마주 앉은 치수는 동학농민운동을 회상한다. 동진은 당시 치수의 집만이 무사했던 게 불공 덕분일 것이라고 말한다. 마을에 쳐들어왔던 동학 교인 김개주가 연곡사 중 우관의 친동생이라는 것이다. 김개주가 홀아비로 아들을 키웠다는 동진의 말에 치수는 그날 밤을 회상한다.

동학군이 쳐들어온 밤, 김개주는 윤씨를 찾아갔다. 그는 자신이 연곡사에서 만난 김개주라고 밝히고, 윤씨가 낳은 환이 장부가 되었음을 알려 주러 왔다고 말했다. 그는 치수를 찾아가 내일 아침에는 무리를 데리고 떠나겠다고 말하고는 위엄 있게 지나갔다. 치수는 분노했고, 윤씨는 굳은 자세로 앉아만 있었다.

조준구가 도착해 치수는 회상에서 깨어난다. 치수는 준구와 동진을 서로 소개한다. 안부를 묻는 준구에게 치수가 계집이 머슴과 함께 달아났다고 답하자, 동진이 서울의 형편이 어떻냐며 말을 돌린다. 세 사람은 의병이나 단발령에 대해 의견을 나누다 초당을 나선다.

평산은 마을에서 칠성을 찾아간다. 그는 잘하면 신세가 될 것이라고 칠성을 꼬드겨 귀녀와 밤을 보내게 한다. 얼마 후, 준구와 걸던 치수는 서낭당에 도착하자 기척을 죽이고 준구를 자수당에 데려간다. 자수당 안에서는 귀녀가 천지신명에게 치수의 아들을 갖게 해 달라고 빈다. 내려오는 길에 준구는 치수가 귀녀에게 손을 댔음을 알게 된다. 치수는 준구와 함께 웃다가, 일전에 말한 염창을 구해 달라고 부탁한다.

윤씨는 문 의원에게 진맥을 받는다. 문 의원은 심기를 가라앉히면 되니 약을 가지러 보내라고 말하고는 치수의 안부를 묻는다. 윤씨는 치수가 첩포를 구해 사냥을 떠나려 한다고 답하고, 별당 아씨와 환을 찾아 나설 심산일 것이라고 짐작한다. 치수는 자신이 받은 수모라면 작은 것도 잊지 않는 성미라는 것이다. 치수는 열 살 적을 회상한다. 어머니가 중태라 절에서 일 년쯤 휴양해야 한다던 문 의원은 치수가 병명을 묻자 얼굴을 굳혔고, 어른이 되면 알 거라고 슬픈 얼굴로 말했다.

병색이 완연한 얼굴로 누운 윤씨에게 치수가 찾아간다. 치수는 의원을 부르기를 제안하지만 윤씨는 거부한다. 치수가 사냥을 떠난다는 이야기에 두 사람은 잠시 대치한다. 치수는 윤씨가 돌아온 날을 회상한다. 그는 버선발로 뛰어나가 윤씨를 맞이했지만, 윤씨는 치수를 보자마자 뒤로 물러섰다. 윤씨는 치수에게 꼭 산에 가야겠느냐고 묻는다. 살생은 죄악이라는 윤씨에게, 치수는 싸늘히 웃으며 심신 단련에는 좋을 것이라고 말한 뒤 물러간다.

수동³⁾과 강 포수를 거느린 치수가 연곡사에 들어선다. 그는 우관 스님에게 사람을 찾을 겸 지리산을 헤쳐 볼 것이라고 말한다.

2) 남편이 있는 여자가 남편 몰래 관계하는 남자.

3) 심부름하는 터벅터벅 아이.

1) 매우 크고 좋은 집.

몇 마디 나누던 치수는 핏줄을 거역할 수 있다 생각하냐고 묻는다. 우관은 거역할 수 없다고 답하고, 치수에게 나리께서는 거역할 수 있느냐고 묻는다. 치수가 피를 더럽힌 자에 대해서는 거역할 수 있다고 답하고는, 곧 죽을 사내(환)를 위해 쌀 백 석을 보시⁴⁾하겠다고 말한다. 우관은 불자이니 객귀를 천도할 의무도 있고, 핏줄을 거역하지 못하니 우관 외에는 그의 혼백을 달랠 사람이 없을 듯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관은 자기 생전에 그를 천도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잘라 답한다.

사당으로 올라가는 귀녀와 평산을 본 준구는 무언가를 눈치챈다. 그는 평산을 찾아가 이야기를 하나 들려준다. 옛날 어느 곳, 늦게까지 자손을 못 본 부잣집 외아들은 자신에게 씨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첩까지 들였고, 재산이 탐난 첩은 다른 사내와 정을 통해 임신하고는 남편을 살해했다는 것이다. 얘기를 마친 준구는 재미 많이 보라며 자리를 떠난다.

산속의 어느 목기막⁵⁾, 치수는 강 포수에게 화전민의 수나 산에 숨어든 사람들에게 관해 묻는다. 그러고는 다음부터는 빈 막에서 잡자리를 마련치 말라며, 목적은 사냥이 아니라 사람 찾기라고 말한다. 수동은 겁에 질린다. 화전민의 오두막으로 옮겨간 어느 밤, 강 포수는 귀녀를 자신에게 달라고 부탁한다. 귀녀만 얻을 수 있다면 치수가 잡으라는 모든 짐승을 잡아 바치겠다는 말에 치수는 사람도 잡겠느냐고 묻는다. 시간이 흘러 숲속, 구천을 발견한 치수가 저놈을 잡으라고 외친다. 강 포수가 구천을 겨누자 수동이 달려들어 달려 주자고 빈다.

강 포수는 귀녀를 찾아가 저고리감을 안긴다. 귀녀는 그를 떼어날 궁리를 하지만 강 포수는 귀녀를 욕박질러 안는다. 강 포수가 행랑채로 돌아가자, 김 서방은 산에 돌아가 있으면 알아 처리할 것이라는 치수의 말을 전달한다. 돈도 함께 주려는 김 서방에게 강 포수는 충만 한 자루 받아 떠난다.

칠성에게 임이네(칠성의 아내)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며 귀녀의 임신 소식을 전한다. 그는 뛰쳐나가 평산에게 소문이 사실인지 묻지만, 평산은 귀녀를 볼 일이 통 없다며 오히려 칠성에게 진위를 묻는다. 한편 치수는 귀녀를 불러 강 포수의 아내가 되라고 말하고는, 하인 길상에게 초당에서 밤을 보내겠다고 말한다. 귀녀는 평산을 찾아가 앞일을 의논한다. 평산은 독기, 혹은 자신을 천대하는 최참판가에 대한 적의를 띤다. 초당에 자리한 치수는 돈을 부탁하는 준구를 돌려보낸 뒤 잠든다. 어둠 속을 틈타 잠입한 평산이 삼꾼으로 치수의 목을 졸라 죽인다. 평산이 달아난 뒤, 광녀 토출이 방을 데워야 한다며 온전치 못한 정신으로 초당에 불을 지른다. 불을 보고 사람들이 몰려들자 토출네는 불길 속으로 뛰어든다. 김 서방과 수동이 불길로 뛰어들어 치수의 시체를 꺼낸다.

윤씨는 치수를 죽인 게 토출네가 아니라고 확신한다. 그를 죽인 사람은 이 집안에 있다는 윤씨의 말에 봉순네는 귀녀를 추궁하라고 제안한다. 귀녀가 아이를 뱌 듯하다는 것이다. 윤씨는 귀녀를 찾아가 임신을 확인하고, 아이 아버지를 묻는다. 귀녀가 치수의 아이라고 말하자 윤씨는 김 서방을 불러 귀녀를 고방에 가두고, 귀녀가 치수를 죽였다고 확신한다. 그녀는 치수가 생산하지 못하는 몸인 줄

몰랐느냐고 물은 뒤, 귀녀에게서 아이 아버지가 칠성이라는 답을 얻어낸다. 칠성은 매질을 당하고, 일을 꾸민 것이 평산이라고 고발한다. 몽둥이질 끝에 평산은 자신이 치수를 죽였음을 자백한다. 귀녀는 칠성도 살인에 관여했다며 죄를 뒤집어씌운다. 평산의 아내는 목을 매어 죽고, 강 포수는 옥에 갇힌 귀녀를 찾아와 옥바라지를 한다. 칠성의 아내는 아이들을 데리고 잠적한다.

3년이 지나 서희와 봉순은 곱게 자라난다. 임이네는 고생 끝에 마을로 돌아온다. 준구의 아내 홍씨도 아들 병수와 함께 남편을 찾아온다. 준구와 정을 맺은 하녀 삼월은 착잡해진다. 홍씨는 별당으로 들어가 하인들을 부린다. 서희는 홍씨를 예우하지 않고, 윤씨가 손님들을 별당에 보낸 것인지 확인한다. 그는 어린 주인의 위엄으로 병수를 사랑채에 보낸다. 준구는 집을 팔고 생계가 막막하니 당분간만 지내게 해 달라고 윤씨에게 부탁한다. 그러나 홍씨는 화려하고 부유한 모습으로 들어와 윤씨에게 인사한다. 윤씨는 준구 가족에게 사랑채를 쓰라고 지시한다. 물러나온 홍씨는 서희를 내보내고 별당을 쓰고 싶다고 불평한다.

뒤채에서 지내라는 윤씨의 지시에 준구는 반발한다. 종이 살던 집에서 지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윤씨는 손아랫사람인 준구가 불평할 일이 아니며, 본래 뒤채에서 지내던 김 서방은 종이 아니라고 일갈한다. 준구는 서희를 안채로 들이고 홍씨를 별당에 두길 간청하지만, 윤씨는 정 불편하다면 서울로 돌아가라고 잘라 말하고는 홍씨의 안채 출입을 삼가게 하라고 지시한다.

마을에서는 용의 아내 강청택이 임이네와 다툼을 벌인다. 임이네와 용이 바람을 피웠다는 것이다. 격분하는 강청택에게 용은 칠거지악⁶⁾을 들먹이고, 임이네가 자손 없는 자기네 집에 자손을 낳아 줄 것이라고 말한다.

전염병이 돌아 강청택과 김 서방, 문 의원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이 죽는다. 영수와 윤보는 나라가 망하러니 별일이 다 생긴다고 한탄을 하고, 마을 사람들은 집집마다 부적을 붙인다. 준구는 전염병이 입으로 옮겨진다고, 홍씨에게 음식을 끓여 먹고 뒤채에서 세 가족 모두가 꼼짝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한다. 봉순네도 전염병으로 숨을 거두자, 윤씨는 밤중에 서희를 찾아간다. 더 오래 살아 서희를 돌보고 싶었지만 이번 돌림병은 심상치 않다는 것이다. 그녀는 서희에게 훗날을 대비해 금을 넣어둔 장소를 알려 준다. 얼마 후 윤씨도 목숨을 거둔다. 준구의 가족들은 윤씨의 죽음에도 뒤채를 벗어나지 않는다. 서희는 별당에서 봉순, 길상과 함께 힘겨운 시간을 보낸다.

몇 년이 흘러 동진이 돌아온다. 집에 돌아온 그는 치수와 윤씨가 모두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수동이 동진을 찾아와서는 준구가 참판 댁 살림을 모두 들어먹게 생겼다고 하소연한다. 치수와 윤씨를 생각해서라도 의지할 곳 없는 서희를 돌봐 달라는 것이다. 동진은 자신은 남일 뿐이라고 망설이지만, 이윽고 서희의 집을 찾아가 간다. 하인들은 울며 동진을 맞이하고, 서희는 어린 여주인의 모습으로 동진을 맞이한다. 준구는 동진을 맞아 술잔을 나눈다.

마을의 주막 영산택네에서는, 윤보가 용에게 월선이 돌아왔다고 전해 준다. 용은 월선이 무당이 되기 싫다며 붓짐장수에게 시집갔

4) 자비심으로 남에게 재물이나 불법을 베풀.

5) 목기를 만들던 산막.

6) 예전에, 아내를 내쫓을 수 있는 이유가 되었던 일곱 가지 허물. 시부모에게 불손함, 자식이 없음, 행실이 음탕함, 투기함, 몸을 병을 지니, 말이 지나치게 많음, 도둑질을 함 따위이다.

던 순간을 떠올리고 자리에서 일어서 나룻터로 향한다. 월선의 집까지 따라간 용은 자신의 잘못들을 모두 월선의 탓으로 돌린다. 월선이 자신을 떠났기 때문에 자신이 이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용은 다시는 도망가지 말라며 월선을 끌어안고, 두 사람은 회포를 풀며 장날마다 함께할 것을 약속한다. 월선은 그동안 간도에서 국밥 장사를 했다고 회포를 푼다.

윤씨의 방을 차지한 홍씨는 새 침모에게 일거리를 주고 방을 나신다. 고방으로 향한 홍씨는 곡식을 꺼내는 삼수를 보고 투덜댄다. 삼수는 이 고방이 별당 아씨와 머슴(구천)이 갇혀 있던 곳이라며 흐느낀다. 그때 서희가 삼수를 채찍질하고, 수동과 길상을 시켜 삼수를 결박한다. 홍씨는 누구 앞에서 행패냐며 삼수에게 다가서지만, 말채찍을 든 서희가 그를 막아선다. 홍씨가 서희에게 덤비려 하자 봉순, 수동, 길상이 막고 나선다. 홍씨는 두고 보자며 자리를 벗어나고, 서희는 삼수를 매질하라고 명령한다.

가뭄으로 흉년이 든 땅에서 사람들은 길을 헤매고, 아이들은 익지도 않은 복숭아를 따 먹는다. 사람들은 서희네 고방 앞에서 삼수에게 굶질대며 곡식을 배급받는다. 우물가와 논둑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삼수가 불공평하게 쌀을 나눠주는 일을 불평한다.

준구는 사랑방에서 삼월을 안고 누워 아들을 낳으라고 권유한다. 삼월은 원하는 것도 없고 아들도 낳고 싶지 않다고 거부한다. 그때 홍씨가 도적이 들었다며 방에 들이닥쳤다가 삼월을 발견하고 달려든다. 준구는 삼수를 이끌고 고방으로 가려 하는데, 삼수는 도적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니 자신은 갈 수 없다고 한다. 기민미를 못 받은 사람들이 자신을 노린다는 것이다. 삼수는 달아나고, 준구는 고방으로 향한다. 서희가 지켜 선 고방에서는 마을 사람들과 남자 하인들이 곡식을 저 나른다. 곡식을 공평하게 나누지 않았다는 말을 들은 서희가 명령한 일이다. 누구의 수작이냐는 준구의 말에 윤보가 나선다. 그는 자신을 윤보 목수라고 소개하며, 윤씨 생전과는 달리 곡식을 고루 나눠 받지 못해 서희에게 연고를 물었다고 답한다. 수동은 서희가 홍씨에게 도장 엽서를 받아 오라고 지시해 갔으나 홍씨가 거부했고, 노한 서희가 도끼로 고방 문을 부수도록 지시했다고 말한다. 준구는 분노하지만 사람들과 서희는 개의치 않고 곡식을 나른다.

삼월은 홍씨에게 무섭게 매를 맞는다. 그는 준구가 자신을 겁탈한 것이라고 호소하지만 홍씨는 듣지 않는다. 자신의 처소로 돌아온 삼월은 밤 동안 실성한 듯 등잔불만 본다. 순이는 삼월에게 도망을 권하지만 삼월은 답하지 않는다.

준구는 삼수에게 수동의 병세를 묻고, 좋지 않은 병이라며 집에서 내쫓도록 지시한다. 그러나 서희는 수동을 내보낼 수 없다고 단호하게 거부한다. 준구가 멋대로 군다면 서울 외가댁을 찾아가겠다는 기백에 준구는 놀란다. 홍씨는 서희를 못마땅해 하고, 준구는 서희를 아들 병수와 결혼시킬 속셈을 품는다. 그러나 병수와 혼인하라는 홍씨의 말에 서희는 두 번 다시 그런 소리 말라며 거부하다 쓰러진다. 한편 병수는 몰래 별당 담장에 숨어서는 서희를 훑어볼까 바라본다. 그를 발견한 길상이 서희와의 혼인은 꿈도 꾸지 말라고 무섭게 잘라 말하자, 병수는 서희가 불쌍하고 부모가 부끄러울 뿐이라고 말한다. 서희가 너무 예쁘고 가여워 숨어 본다는 말에 길상은 누그러지고, 모른 체할 테니 다시는 오지 말라고 당부한다. 병수는

돌아서 가다가 몰래 눈물을 흘린다.

끝내 수동은 목숨을 거둔다. 홍씨는 후련해 하고, 봉순은 서희만을 걱정하던 수동의 죽음을 슬퍼하며 운다. 서희는 그런 봉순을 단속하면서도, 최 참판 댁은 망하지 않으며 홍가 것도 조가 것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한다. 산중의 외딴 초옥에서 별당 아씨도 병으로 목숨을 거둔다.

준구의 방으로 김 훈장이 찾아간다. 그는 을사조약에 도장을 찍은 을사조약을 죽여야 한다고 말하지만, 준구는 총칼이 한 것이며 대세라고 미적거린다. 김 훈장은 무기가 없으면 죽창으로라도 싸워야 한다면서, 준구에게 의병장이 되어 주기를 간청한다. 그러나 준구는 딱 잘라 거절하고, 김 훈장은 자리를 박차고 떠난다. 타작마당에 모인 사람들 사이에서 김 훈장은 나라 상황을 이야기하며 울음을 터뜨린다. 한조는 나라를 뺏기면 땅도 뺏긴다며 나서겠다고 답하고, 사람들은 상기된 얼굴로 김 훈장을 바라보거나 제각기 웅성댄다. 월선의 집에 찾아간 용은 사람들이 의병으로 나오지 않는 것을 불평하다가, 월선에게 간도가 어떤 곳인지 묻는다.

서울로 떠났던 목수 윤보가 몇 해 만에 귀향한다. 사내 하나가 왜 병과 조선군의 싸움이 불만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윤보는 나라의 군인들이 왜놈들과 사생결판을 내는 게 구경이냐며 분노한다. 영산댁 주막에 모인 사람들은 살기 어려움을 토로한다. 그 자리에 앉은 윤보와 용은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 사람들은 먹고 살기도 어려우며 도지 빛과 장리에 시달리는 상황을 한탄하며 준구를 원망한다. 흉년이 들었을 때 결단을 댔어야 한다고 누군가 후회하자, 영팔은 지금도 늦었다고는 할 수 없다고 작게 중얼거린다. 영팔과 용, 윤보는 서로 눈을 빛낸다.

분노한 농민들이 횃불을 들고 모여들어 최 참판가를 둘러싼다. 삼수가 안에서 대문을 열자 연장과 횃불을 든 군중이 대문 안으로 몰려든다. 누군가는 삼수를 에워싸지만, 윤보는 알고도 말하지 않았으니 삼수는 죽이지 말라고 지시한다. 장정들이 사당채와 안채로 쳐들어가지만 준구도, 땅문서도 온데간데없다. 장정들은 고방에서 곡식을 모두 빼내고 남녀 하인들을 가둔다. 준구와 홍씨는 우물가에 숨어 그들을 지켜본다. 그때 삼월이 나타나 준구와 홍씨를 사당으로 데려가 숨긴다. 삼수는 그들 몰래 뒤를 쫓아 준구와 홍씨의 행방을 파악하고 사라진다.

윤보는 마루에 나선 서희에게 놀라게 해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고방의 곡식을 꺼낸 일에 용서를 빈다. 서희는 패념치 말라고 달랜 뒤 몸조심하라며 장정들을 돌려보낸다. 길상도 그들을 따라 떠난다. 짐을 모두 실은 용은 장정들과 떠나고, 윤보는 다른 장정들과 남아 사당을 수색한다. 장정의 명령으로 삼수는 사당으로 앞장선다. 사당으로 와 장정들은 안팎을 뒤지고 횃불들이 멀어지자 삼수는 준구를 부른다. 사람들이 뒤채를 뒤지고 있으며, 자신이 준구를 살려 줄 테니 한 몫을 달라는 것이다. 재산을 줄 테니 살려달라는 간청에 삼수는 미소짓는다.

아침이 되자 홍씨는 미친 여자 같은 몰골로 집으로 돌아온다. 분노한 홍씨는 서희에게 달려간다. 그녀는 서희의 소행임을 모두 알고 있다며 소리치고, 죽여 보라고 소리치며 서희의 뺨을 때린다. 봉순은 서희를 감싸고, 모멸감에 서희는 연못가로 뛰쳐나간다. 그러나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는 생각에 서희는 발걸음을 돌린다.

준구와 홍씨의 고발로 삼수, 삼월, 임이네와 그 아이들이 왜병에게 총살당한다. 윤보의 텅 빈 집에는 무수한 탄흔이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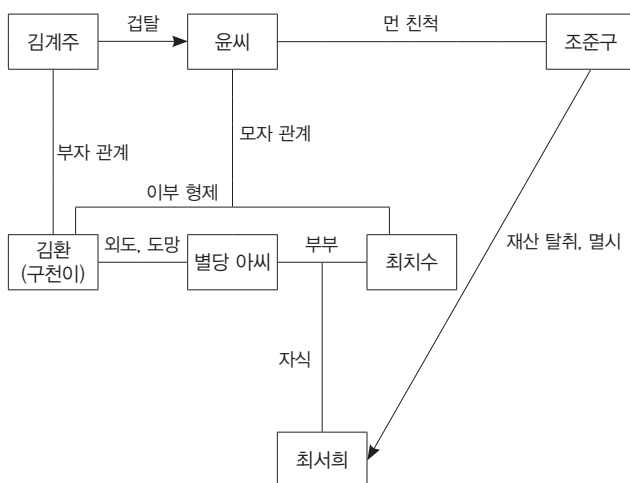
한밤중, 월선의 집에 용이 찾아온다. 그는 날이 새기 전에 길상이 숨어 있는 동진네 집으로 갈 것이라고 말하고, 윤보의 죽음을 전해 준다. 일본 순사와의 사격전에서 한복과 강 포수, 윤보가 죽었다는 것이다. 용은 나라 안에서는 꼼짝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간도로 갈 것이라며, 월선에게 같이 가자고 제안한다. 그러고는 다 함께 떠날 작정이니 서희에게도 이야기를 전하라고 부탁한다. 그는 월선을 끌어안고 오랜만에 고향에 돌아온 것 같다고 중얼거린다.

별당에 찾아간 월선은 봉순에게서 서희가 병수와 결혼하게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월선에게 간도행을 전해 들은 서희는 윤씨가 물려 준 금덩어리를 봉순에게 건네고는 길상에게 전하도록 지시한다. 월선에게는 자신도 함께 간도로 가겠다고 말한다. 봉순이 동진의 집에 도착하자 길상과 용이 그를 맞이한다. 길상은 용이 월선만 남겨두고 진주로 떠난 뒤 월선이 서희와 함께 부산으로 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한다. 길상은 진주에 모일 사람 수를 확인하고 서희와 봉순을 갈라놓자고 제안한다. 준구는 구례 쪽으로 올 테니, 봉순이 움직이는 흔적을 남겨야 서희가 안전하다는 것이다. 안방에서는 동진의 아들 상현이 아버지의 안부를 알아 오겠다며 어머니와 작별한다. 밤이 되자 봉순은 길상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신이 불잡혀 진주로 가지 못하더라도 부산으로 떠나야 한다고 당부한다. 길상은 간도에 가면 결혼하자고 맹세하지만, 봉순은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난다.

서희와 봉순은 제물이 든 함지를 들고 윤씨의 묘소로 향한다.
두 사람은 묘소에서 월선과 만나고, 이윽고 길상과 합류한다.

구레로 향하던 가마가 왜병과 순사들에게 가로막힌다. 봉순은 자신이 최 참판댁의 당주 서희라고 당당히 말하고, 왜병의 손에 죽음을 맞는다. 진주의 식구들은 흩어져 조심스럽게 이동한다. 서희는 길상, 월선, 상현과 함께 길을 떠나고, 새벽을 틈타 배에 오른다. 길상은 봉순을 떠올리며 뱃머리에서 눈물을 닦는다.

| 등장 인물



최치수 (최 참판)	최씨 가문의 당주. 아이를 만들 수 없는 몸이다. 아내인 별당 아씨가 자신의 이부동생인 머슴 구천과 눈이 맞아 도망가자, 구천을 죽이려 산을 수색한다. 최가의 재산을 탕진 노비 귀녀에게 손을 댄 뒤 귀녀를 강 포수와 결혼시키려다, 재산에 대한 욕심과 적의를 품은 평산에게 살해당한다.
윤씨	최치수의 어머니. 연곡사에서 김개주에게 겁탈당해 환을 낳는다. 치수를 죽인 죄를 몰어 귀녀와 평산, 칠성을 처벌한다. 최가의 안주인으로서 서희의 뒤를 봐 주고 가문의 중심을 지키지만 돌림병으로 목숨을 잃는다.
김환 (구천이)	윤씨가 김개주에게 겁탈당해 태어난 아들. 김개주의 손에 길러지다가 구천이라는 이름으로 최가의 머슴이 된다. 별당 아씨와 사랑에 빠져 고방에 갇히고, 봉순네의 도움으로 야반도주를 감행한다.
최서희	치수의 딸.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윤씨까지 목숨을 잃자 조준구와 흥씨에게 재산을 빼앗기고 멸시 속에서 자라난다. 그럼에도 최가의 주인으로서의 위엄과 의지를 잃지 않고, 어려운 마을 사람들에게 곡식을 나눠 준다. 의병 활동을 하다 돌아온 윤보와 용에게 금덩어리를 건네고, 함께 간도로 떠난다.
조준구	윤씨의 먼 친척. 일본인들과 어울리다가 여의치 않자 윤씨에게 빌붙고자 최가를 찾아온다. 집을 잃고는 아내 흥씨와 아들 병수까지 불러 놀러왔고, 윤씨가 죽은 뒤로는 최 참판가의 재산을 차지하고 서희를 억압한다. 한편으로는 계집종 삼월을 겁탈한다. 횡재를 듣고 일어난 농민들에게 죽을 뻔 하지만, 삼월의 도움으로 몸을 피하고 삼수에게 간청하여 목숨을 건진다. 이후 일본 헌병에게 마을 사람들과 삼수를 고발하여 총살하게 한다.
봉순	서희의 계집종. 어려서부터 서희와 함께 자랐고, 지성으로 서희를 돌본다. 흥씨가 서희를 공격할 때에도 몸을 던져 감싼다. 길상과 서로 좋아하지만 맺어지지 못한다. 간도를 향해 떠날 때 서희의 안전을 위해 서희와 갈라져 움직이고, 왜병과 순사를 마주치자 서희를 자처해 죽음을 맞이한다.
윤보	목수. 흥년이 들었는데 삼수가 불공평하게 곡식을 나눠 주자 서희를 직접 찾아가 까닭을 묻고 마을 사람들을 위한 곡식을 얻어낸다. 서울에 다녀온 뒤에는 마을 사람들을 모아 봉기를 일으키고, 이후 의병으로 활동하다 왜병의 총에 맞아 전사한다.
용	평사리 주민으로, 사랑하던 월선이 떠난 뒤 강청덕과 혼인한다. 그러나 강청덕에게 아이를 얻지 못하고, 도망쳤다 돌아온 임이네와 정을 통한다. 전염병으로 강청덕을 잃는다. 이후 돌아온 월선과 재회하지만, 윤보와 함께 봉기를 일으키고 의병이 된다. 몇 년 후 마을로 돌아와서는 월선, 서희 등과 함께 간도로 떠난다.

주제

역사적 사건 속 민족적 삶의 흐름

출제 포인트

- ① 「토지」는 일제에 의해 조금씩 국권이 피탈 당해가던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를 배경으로 하여 당시의 시대상을 그려내고 있다. 작중 인물의 대사나 회상을 통해 당시 시대적으로 중요한 사건이었던 ‘동학농민운동’이나 일제의 ‘단발령’으로 인한 ‘의병 활동’ 등의 모습이 사실적으로 그려지며, 이러한 시간적 배경을 바탕으로 다양한 인물들의 모습 또한 사실적으로 나타난다. 이는 격동의 근대사를 살아온 우리 민족의 삶을 형상화한 것으로, 작가는 특히 그들의 애환과 그들의 강인한 생명력에 주목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앞부분의 줄거리] 19세기 말 경남 일대의 대지주인 최 참판가, 가문의 주인인 ‘최치수’의 어머니 ‘윤씨’는 과거 동학군의 우두머리 ‘김개주’에게 겁탈당하여 아이를 낳은 과거를 가지고 있다. 어느 날, ‘윤씨’의 먼 친척이자, 서울의 개명 양반인 ‘조준구’가 최 참판가를 찾아온다.

S#34. 윤씨의 방안

윤씨에게 큰절을 올리고 있는 준구.

윤씨 : 그래. 그간 서울서는 무엇을 했느냐.

준구 : 연전에 아주머님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가내는 여일하* 오나 그간 일본 사람들과 상종하면서 일을 도모해왔습니 다만 시국도 소연하*고 하여 바람도 쏘일 겸 내려왔습니다.

윤씨 : 왜인들과?

준구 : 예…….

S#35. 초당

치수는 친구 이동진과 마주앉아 있다.

치수 : 포악한 동학 놈들보다 더럽게 죽은 양반들이 더 밍더군.
동진 : 참. 그때 자네 집만은 무사했던 건 자네 어머니 불공 탓인가?

미간을 찌푸리는 치수.

동진 : 인근에서는 자네 집에서 동학의 군자금을 땔느니 뭐니 한동안 소문이 자자했었네만, 자네가 그럴 위인은 아니고…….

치수 : 창, 칼 앞에서 재물로 명 보전 하겠나?

씹어뻐듯 한다.

동진 : 자네. 그 김개주란 동학 접놈을 아나? 바로 이 마을에 쳐들었던?

치수의 날카로워지는 눈.

동진 : 연곡사의 중 우관의 친 동생야.

치수 : 뭐라구?

동진 : 자네 집은 연곡사의 돌도 없는 큰 시주니까 그 여덕을 본 셈이군.

치수 : …….

동진 : 놈이 읍내에선 여간 포악스럽지 않았거든.

치수 : …….

동진 소문에 의하면 그자가 달고 다니던 아들놈이 관옥 같은 인물이라는 거야. 어디서 떨어졌는지 흠아비 손으로 길렀는데…….

치수는 이미 동진의 말을 듣고 있지 않는 표정이다.

S#36. 최 참판 집 마당(밤, 회상)

어두운 마당.

희끄무레한 그림자가 마당의 햇대에 불을 당긴다.

일순 밝아지는 시야에 드러나는 군상들.

조충, 환도, 창들을 거머쥔 살기등등한 동학군의 무리가 마당을 서성거린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어린 시절 치수의 집에 동학군이 쳐들어 오고, 동학군의 우두머리 ‘김개주’는 치수의 어머니 ‘윤씨’에게 자신들의 아이 ‘환’이 장부가 되었음을 전하고 떠난다.

S#41. 치수의 방(현실)

퍼뜩 악몽에서 깨어나는 치수, 문을 열며

치수 : 올라오시오.

준구 : 손님이 계신가 본데…….

준구가 들어온다.

동진의 안색이 약간 흐려지며 앓음새를 고친다.

치수 : 먼 길 오시느라 수고 많았겠소.

준구 : 나야 뭘……. 자네 여전히 안색이 안 좋군.

치수 : …….

치수의 냉랭한 대거리에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흐른다.

치수 : 인사하게. 언젠가 내가 말한 서울의…… (준구를 향해) 하동에 사는 이동진이란 사람이오.

두 사람 맞절을 한다.

준구 : (치수에게) 그래 그동안 별일은 없었겠지.

치수 : 별일이 있었지요. 계집이 머슴놈과 붙어 달아난 일이 있었지요.

준구 : 그 애긴 좀 들었네만…….

거북한 시간을 건지려는 듯이 동진이 말머리를 잡는다.

동진 : 어떻습니까. 서울의 요즘 형편은?

준구 : 글썄올시다…….

동진 : 요새도 서울 근교에서 의병들이 출몰한다고 들었는데
…….

준구 : 서울 근교뿐이겠소. 도처에서 낭당을 이끌고 소란을
피우는 모양인데 그까짓 단발령 하나 가지고 나라 안이 소연
스럽대서야 남 보기에 민망스런 일이지요.

동진 : 그럴까요. 단발령이 반드시 문제랄 수는 없을 성 싶소.
어느 놈의 손이 나라 일을 주물럭거리려는가, 그게 관심사
아니겠소?

준구 : 실속 차릴 생각은 않고 왈가왈부 허송세월하는 동안
남들은 천리만리 밖에 가 있을 텐데 하찮은 의관만 가지고
…….

치수 : 어차피 풍습이란 게 앞서가는 사람을 따르게 마련인데
조만간에.

동진 : 알맹이를 모르고 겉치레만 따른다고 문명인이 된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소이다. 이거 조공을 걷고 드는 것 같아
실례의 말씀입니다만, 허허…….

먼저 일어서는 치수를 따라 동진도 일어서고 준구도 뒤따른다.

* 여일하다 :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다.

* 소연하다 : 떠들썩하게 야단법석이다.

출제 포인트

- ② 「토지」는 구한말부터 해방까지에 이르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평사리 최 참판댁 일가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인물들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작품이다. 특히 제1부에는 구한말 만석꾼 대지주 최 참판 일가가 무너지는 과정이 중심 서사로 진행된다. 작가는 참판 일가의 인물들과 최 참판 일가의 재산을 노리는 인물들 간의 갈등과 음모를 입체적으로 그려냄으로써 근대사의 격변 속에 민중이 겪는 고통과 민족적 한(恨)을 형상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앞부분의 줄거리] 경남 일대의 대지주인 최 참판가의 주인 최치수는 재산을 노린 일당들에 살해당하고, 치수의 어머니 윤씨가 가문을 이끌어 간다. 최 참판가에 얹혀살던 조준구는 치수가 죽자 가문의 재산을 노리고 아내 홍씨와 아들 병수를 불러온다.

S#118. 윤씨의 방

윗목에 무릎 꿇고 앉은 준구.

준구 : 제가 기별해서 집을 팔아 그간의 부채를 정리하라고 했사온 바 집을 방매하고 앞으로의 생계가 막막하여 당분간만 아주머니께 폐를 끼치려고 내려오라고 기별했사옵니다.

윤씨 : …….

소리 : 서울 아씨 마님께서 인사드리러 드셨습니다.

삼월이가 열어주는 문으로 홍씨가 들어선다. 옥색 향라 치마 저고리 웃고름에는 남빛 오장수술에 밀화장도. 손에는 옥가락지 끼고 검정자주의 감 댕기를 감은 쪽에는 옥비녀에 비취로 된 나비잠 말뚝잠 어느 유족한 사대부집 부인 못지않다. 홍씨는 윤씨 부인에게 절을 올린다.

윤씨 : 먼 길 오느라고 수고가 많았네.

준구 : 젊은이들이 필요.

윤씨 : 거처할 곳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준구 : 네?

윤씨 : 우선 비어 있는 사랑 협실도 있고 하니 그 방을 쓰는 게 어떨까? 차차 마련토록 하고,

준구 : 네, 네. 그거야 뭐.

윤씨 : 그럼 물러가서 쉬도록 하게.

S#119. 안채-사랑채

준구와 홍씨가 물러나온다.

홍씨 : 아녀자가 어떻게 사랑에서 거처하겠소?

준구 : 쏘! 차차 마련토록 하신다 하셨습니다.

홍씨 : 별당, 그곳을 썼으면 뜰도 시원하고 연당도 있어서 좋던데.

준구 : 거긴 안 될 게요. 서희 있는 곳이라.

홍씨 : 할머니 옆에 오면 될 거 아니오? 안채도 넓어서 별유 천지 같은데.

준구 : 며칠만 참으시오.

홍씨 : 안 오겠다는 사람을 천 리길을 오게 해놓고…….

S#120. 채마밭

김 서방 댁이 채마밭을 손보고 있다. 김 서방이 온다.

김 서방 : 행랑으로 짐을 옮기얏긴데.

김 서방 댁 : 짐은 와요. 난리가 났소?

김 서방 : 서울서 온 손님 때문에

김 서방 댁 : 짐을 챙기면 어디로 갈지요?

김 서방 : 행랑이면 됐지 뭐.

김 서방 댁 : 내사 싫구마.

김 서방 : 싫고 좋고가 어딴노? 마님께서 걱정하신 일…….

S#121. 사랑

준구 : 뭐라구? 아니 내가 이집 종으로 왔단 말이나?

김 서방 : 너무 과하신 말씀…….

준구 : 듣기 싫다. 썩 물러가라!

S#122. 윤씨의 방

준구 : 여쭙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윤씨 : 말하계.

준구 : 이런 줄 알았더라면 불원천리 처자를 끌고 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굶주리고 혈벙은 한이 있을지라도 어찌 노비의 처신을 감수하겠습니까? 할머니께서 존명해 계셨더라면 친정 손주며느리가 종이 살던 집으로 쫓겨나는 것을 그냥 보고만 계셨겠습니까?

자기 말에 격해져서 눈물을 흘리는 준구.

윤씨 : 허나 지금 어머니는 계시지 않지.

준구 : 돌아가신 어른에 대한 효성이 아닌 줄로 아옵니다.

윤씨 : 자네 말도 일리는 있네.

준구 : 뒤채로 나가라는 분부는 거두어 주시고…….

윤씨 : 자네로 말할 것 같으면 분명 내겐 손아랫사람이겠다.

준구 : 그야…….

윤씨 : 내가 효부가 아님은 차치하고 자네가 할 말은 아닐세.

준구 : …….

윤씨 : 그리고 돌아가신 어머니는 자네 집안에서는 출가의인이실세.

준구 : 하, 하오나,

윤씨 : 두 말 말계!

준구 : 하, 하오나 명색이 사대부집 자손이 종의 거처로 쫓겨나다니 그것은 너무하신 처사 아니옵니까?

윤씨 : 그 집이 행랑인가?

준구 : 김 서방네가 거처하던 곳입니다.

윤씨 : 김 서방은 종이 아니야.

준구 : 서희는 아직 어린 몸이니 아주머니 가까이 두시는 편이 어떠하옵지요? 하오면 병수 어미를 별당에…….

윤씨 : 가당찮은 소리. 손님이 소중하지 않은 바는 아니나 서희는 이 집의 임자니라, 경망하게 어디로 옮기겠느냐! 정 자네들이 불편하다면 할 수 없는 일! 서울로 돌아가게, 나로서는

그 집을 수리 한 것도 돌아가신 어머님 생각을 했기 때문이니
더 이상 말하여 나를 불효하게 만들지 말라!

준구 : …….

윤씨 : 그리고 또 한 가지 일러둘 일은, 뒤채로 옮긴 뒤 되도록
이면 자네 안 사람 안채 출입을 삼가도록 이르게. 하인들의
질서가 안 잡히고 서희만 하더라도 한창 예민한 시기인 만큼
나는 자네 안 사람이 서희 본보기 되길 원치 않네.

준구 : …….

■ 이해와 감상

〈동승〉은 1939년에 발표된 희곡으로, 절을 배경으로 하여 어린 승려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기다림, 좌절을 느끼며 속세로 돌아가는 과정을 그려낸 단막극이다. ‘동승’은 속세의 인연인 어머니와 종교적인 삶을 두고 갈등하며 결국 어머니를 찾아 속세로 떠나게 되는데, 이러한 인물의 모습에서 인간적 사랑을 중시하는 작가의 낭만주의적 경향을 엿볼 수 있다.

■ 전체 줄거리

초겨울,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깊은 산 속 오래된 절에서 제¹⁾를 올리는 깃발이 날린다.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절로 향하는데 도념은 물지계에 걸터앉은 채 마을을 바라보다 문득 흐느낀다.

초부²⁾가 다가와 뿔나무를 지계에 엮고, 도념은 그에게 자신의 어머니가 언제 온다고 했는지 묻는다. 초부는 내년 봄보리를 베고 나면 오실 것이라고 대답하지만 도념은 믿지 않는다. 벌써 다섯 번이나 보리를 베었지만 어머니는 오시지 않았다는 것이다. 초부는 이번에는 틀림없이 오실 것이라며 도념을 달랜다. 도념은 믿지 않은 채 물지계를 지고 일어서지만, 몇 걸음 가지 못하고 지쳐 쓰러진다. 초부는 놀라 도념을 일으키며 하루 종일 물을 길는 이유를 묻는다. 도념은 서울 안대갓집에서 백일재를 올린 뒤 설거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대답한다.

재를 구경하러 온 여자 구경꾼들이 초부에게 안대갓집 사람들이 누구인지 묻는다. 도념은 안대갓집 아가씨가 누구인지 일러 주고는 그녀가 절에 오는 사람 중 가장 아름답다고 칭찬한다. 아가씨가 처음 불공을 드리러 왔을 때 어린 자신을 안쓰러워하던 모습을 이야기해주며 도념은 구경꾼들의 동네에 안대갓집 아가씨같이 생긴 사람이 없는지 묻는다. 자신의 어머니가 꼭 저렇게 생겼으니 만나게 된다면 알려달라는 것이다.

뒤이어 남자 구경꾼들이 올라온다. 노인인 도념이 툭툭하다며 어머니가 도념을 여쭈었을 것이라 칭찬하지만, 도념은 어머니 이야기에 상심한다. 총각은 물지계를 들어 주려 하지만 도념은 남이 도와주면 스님에게 혼난다며 지계를 지고 들어가 버린다. 총각은 노인에게 도념이 처녀중의 아이라고 이야기한다. 사냥꾼과 마음이 맞아 도념을 낳고는 버렸으며, 아이가 아홉 살이 됐을 때 스님에게만 들러 봄보리를 베 뒤 데리러 오겠다고 하고는 감감무소식이라는 것이다. 도념이 빈 물지계를 지고 나오자 총각과 노인은 말을 줄이고 원내로 들어간다.

초부의 아들 인수가 새 꾸러미를 차고 절에 다가온다. 도념은 새 꾸러미 들고서는 절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막고, 인수는 토끼를 산 채로 잡으려 밧을 놓는 도념이 자신을 막는 것을 우습게 여기며 산문³⁾과 비탈길 사이로 나간다. 인수를 따라가는 마을 어린애들을 보며 도념은 한숨짓는다.

그때 상좌승⁴⁾ 정심이 산문에서 나와, 도념에게 재가 끝났으니 상을 차릴 것을 지시한다. 그는 동네에 내려가고 싶은 도념의 마음을 알아채고 설득하려 하지만, 도념은 동네에서의 생활을 부러워하며 끝이든지 않는다. 도념은 다시금 정심에게 어머니 얘기를 묻고, 정심은 모른다고 잡아땀다. 다만 그는 도념의 어머니가 서울 안대갓집 아가씨처럼 생기신 것만은 틀림없다고 말해 준다. 그러면서 정심은 자신도 나이를 먹을수록 번뇌가 늘어난다며, 도념은 그러한 괴로움을 모르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줄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가 전날 밤 법당에 들어간 도념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기자 도념은 낭패한 기색을 숨기며 꺼진 촛불을 켜러 들어갔다고 둘러댄다.

법당에서 참예인⁵⁾들과 안대갓집 아가씨가 나오고, 사람들은 아들을 잃은 아가씨(= 미망인)를 위로한다. 아가씨는 도념을 알아보고, 자신을 걱정해주는 아가씨에 도념은 울 것 같은 얼굴이 된다. 도념과 이야기를 나눈 아가씨는 볼 때마다 마음이 끌렸었다며 도념을 양자 삼고 싶어 한다. 정심은 주지 스님이 허락하지 않을 거라고 아가씨를 말리지만, 도념은 아가씨를 따라 서울에 갈 생각으로 들뜬다. 아가씨는 도념을 일생 아끼겠다고 말하며 주지에게 말씀을 여쭙러 간다. 정심은 그 뒤를 따르고, 도념은 초부를 불러 자신이 서울로 가게 됐다고 자랑한다. 그러고는 토끼 밧을 살피러 달려가고, 초부에게 망을 봐 주기를 부탁한다.

주지와 아가씨가 원내에서 나온다. 주지는 도념을 절대 속세로 보내지 않을 것이라 잘라 말한다. 초부는 도념에게 주지가 왔다는 신호를 보내지만 닿지 않는다. 아가씨는 도념을 일생 절에서만 지내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기며 자신이 데려가게 해 달라고 간청하지만, 주지는 도념이 더러운 속세를 겪게 할 수는 없다며 완고히 반대한다. 그러나 남편도 없고 아들까지 잃은 자신을 위해서라도 도념을 허락해 달라는, 하다못해 반년만이라도 맡겨 달라는 아가씨의 간청에 주지는 생각할 여유를 달라며 물러선다. 아가씨는 승낙한 줄 알겠다고 원내로 들어간다. 주지는 일하다 말고 사라진 도념을 찾고, 초부는 다시 한번 도념에게 주지가 왔다는 신호를 보낸다. 그러나 도념은 밧에 열중해 알아채지 못한다. 도념은 밧을 친 결과에 신나 목소리를 높이고, 주지는 바로 도념의 목소리를 알아챈다. 이윽고 도념이 또 토끼를 잡았음을 알고 크게 혼을 낸 주지는 정심을 불러 도념을 가두어 굶기라고 명하지만, 정심은 도념을 용서해줄 것을 간청한다. 초부는 무언가 결심한 듯 밧을 친 것이 자신이라고 거짓으로 고백한다. 주지는 도념에게 다그쳐 묻고, 도념은 초부가 놓은 게 맞다며 시침을 뱉는다. 인수의 허리에서 새 꾸러미까지 발견한 주지는 다시는 절에 발 들이지 말라며 초부 부자를 내쫓는다. 초부는 안 가려는 인수를 떠다밀며 나간다.

주지는 도념에게 안대갓집 아가씨에게 반년간 수양아들로 보내주겠다는 이야기를 꺼낸다. 주지가 여러 가지를 당부하는데, 인수가 나갔던 길에서 도로 뛰어 올라와서는 밧을 놓은 것이 도념이라고, 법당의 관세음보살 뒤를 뒤져 보면 범인을 알게 될 것이라고 폭

1) 성대한 불공이나 죽은 이를 천도(薦度)하는 법회.

2) 뿔나무를 하는 사람(나무꾼).

3) 절 또는 절의 바깥문.

4) 계급이 높아 뒷자리에 앉는 승려.

5) 신이나 부처에게 나아가 뵈는 사람.

로한다. 주지는 급히 원내로 들어간다. 도념과 인수는 몸싸움을 시작하고, 초부와 산문에서 나온 아가씨가 둘을 말린다. 아가씨는 도념을 달래고, 도념은 혼자 호강할 생각에 친어머니에 대한 죄책감을 느낀다. 아가씨는 그런 도념을 보며 서글퍼한다.

크게 성이 난 주지가 도념을 부른다. 불상 뒤에서 토끼 시체를 여섯 구나 발견한 것이다. 원내에서 재를 지내던 아가씨의 친정모는 부처님께서 역정이 나셨을 것이라며 공포에 떨고, 주지는 도념을 강하게 다그쳐 혼낸다. 하룻밤 간히고 종아리를 맞을 일이 무서워 죄를 나무꾼에게 덮어씌우려 했냐는 다그침에 도념은 그제 아니라고 부정한다. 갇히면 아가씨를 따라가지 못할 듯해 거짓말했다는 것이다. 주지는 약간 측은해하면서도 도념을 혼낸다. 도념은 토끼를 잡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알지만, 아가씨의 목도리 두른 모습이 예뻐기에 어머니가 데리러 오면 토끼 목도리를 드리려고 잡았다고 말한다. 참예인들은 불평하며 절을 벗어나려 하지만, 주지와 아가씨의 만류에 도로 원내로 들어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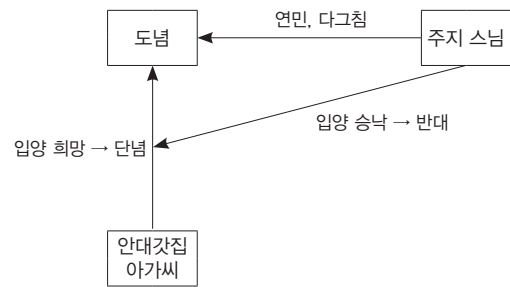
주지는 도념을 속세에 내려 보낼 수 없겠다며 아가씨에게 단념하도록 권한다. 그때 정심이 나와서는 아가씨가 있어야 사람들이 진정될 것이라며 아가씨를 데려간다. 도념은 주지에게 세상에 가 살고 싶다고, 어머니가 있는 곳을 알려 달라고 부탁한다. 주지는 파계를 한 도념 어머니의 죄가 도념에게도 가득 차 있다며, 도념의 어머니는 무서운 죄인이고 그 죄는 사냥꾼인 도념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니 도념은 부모로부터 온 도념의 죄를 씻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도념은 주지의 말을 믿지 않고, 절에 있기 싫다며 저항한다.

그때 아가씨가 나오고, 도념은 그를 어머니라 부르며 자신을 데려가 달라 간청한다. 아가씨의 친정모는 도념이 부모의 죄를 받고 태어났으니 구할 수 없다며 아가씨를 만류하지만, 아가씨는 도념을 자신의 사랑 속에 키워 바른 길로 이끌고 싶다며 기어코 도념을 데려가려 한다. 한번 아들로 삼기로 한 이상 도념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지는 아가씨가 진정 도념을 사랑한다면, 그가 자신의 죄와 부모의 죄를 씻을 공덕을 쌓도록 절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도념은 반항하지만, 주지는 재차 아가씨가 남편과 아이를 잃은 것은 아가씨가 전생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니 그 죄도 씻지 못한 채 죄덩이(=도념)를 데려갈 수는 없다고 거절한다. 주지가 원내로 들어가자 도념은 아가씨에게 도망이라도 가자고 간청하지만, 아가씨는 도념을 끌어안고 한참을 운 다음 죄 많은 자신으로 인해 도념에게도 화가 미칠까 무섭다며 도념을 달래 원내로 데려간다.

주위는 차츰 어두워지고, 종소리가 들린다. 초부는 나무를 안고 나온다. 이윽고 종소리가 그치고, 도념이 나와 초부와 마주친다. 나그네 같은 행색에 초부가 의아해하자, 도념은 몰래 나가 조선 팔도를 돌아다니겠다고 말한다. 초부는 도념의 앞날을 염려하지만 도념은 부모를 꼭 찾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초부는 나무를 지고 내려가고, 도념은 비탈길로 나선다. 문득 주지의 독경 소리가 들리고, 도념은 바랑⁶⁾에서 표주박을 꺼내 잣을 담아 산문 앞에 내려놓고는 스님에게 작별인사를 한다. 그러고는 산문을 여러 번 돌아보며 비탈길을 내려간다.

6) '배낭'의 변한말. 승려가 등에 지고 다니는 자루 모양의 큰 주머니.

등장 인물



도념	열네 살 난 사미승 ⁷⁾ . 처녀중이 사냥꾼과 낚아 절에 버린 아이로,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절을 벗어나 속세에서 살고 싶어 한다. 어머니를 닮았다는 안대갓집 아가씨를 애뜻하게 여기고, 아가씨가 하얀 털 목도리를 한 것을 보고 어머니에게도 선물하고 싶어 토끼를 잡는다. 안대갓집 아가씨의 양자로 들어갈 뻔하지만 주지 스님에게 가로막히고, 결국 몰래 절을 떠난다.
주지	절의 주지 스님. 버려진 도념을 거두어 키웠다. 도념이 부모에게서 온 죄를 씻기 위해서는 절에서 공부하고 공덕을 쌓아야 한다고 믿으며, 도념에게 더러운 속세를 경험시키고 싶지 않아 한다. 안대갓집 아가씨의 간청 끝에 도념을 반년간 양자로 보내려 결심하지만, 도념이 불교에서 금지된 살생(토끼를 잡음)을 했음을 알고 결정을 번복한다. 도념에게는 연민의 감정을 품고 있다.
안대갓집 아가씨 (=미망인)	남편을 잃고 아들이 없는 미망인. 처음 절에 공덕을 드린 것은 아이를 원해서였고, 그래서 도념을 처음 보고도 안쓰러움을 느꼈다. 죽은 아들의 백일재를 지낸 뒤 도념에게 애뜻함을 느끼고, 죽은 아들 대신 양자 삼고 싶어 한다. 주지를 설득한 끝에 도념을 양자로 데려갈 뻔하지만,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남편과 아이를 잃은 것이라는 주지의 말에 도념을 포기한다.

주제

부모에 대한 그리움과 종교적 삶 사이의 갈등

7) 십계(十戒)를 받고 구족제(具足戒)를 받기 위하여 수행하고 있는 어린 남자 승려.

출제 포인트

- ① 「동승」의 작품 속 갈등 과정에는 극단적인 악인이 등장하지 않으며, 애정이 기반하여 있다. 작가는 선악과 같은 이분법에 기초해 인물을 분류하지 않고, 말없이 도움을 도와주는 초부와 정심, 겉으로는 엄격하면서도 내심으로는 도움을 사랑하는 주지 스님, 죽은 아이 대신에 도움을 수양아들로 삼으려는 미망인의 모성애 등을 통해 인간적인 정과 참다운 사랑의 의미를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앞부분 줄거리] 아들을 잃은 미망인은 도념에게 모성애를 느껴 그를 입양하고자 하나, 도념을 속세로 내보내고 싶지 않았던 주지는 이를 반대한다.

미망인 하지만 저 애 앞길두 생각해 주셔야 하지 않겠어요? 이 대루 절에서 늑히실 작정이시라면 모를까…….

주지 늑히지요. 이 더러운 속세에 털끝만치나마, 서방정토(西方淨土)의 모습을 갖춘 곳이 있다면, 그것은 이 절밖에 없으니까요.

미망인 세상에서 죄를 짓구 들어왔다면 모를까, 아직껏 동네 구경두 못한 것을 일생 여기서 보내게 하신다는 건…… 뭐라 구 했으면 좋을까 좀 가혹하시다구……?

주지 속세 구경 못한 게 얼마나 다행합니까?

미망인 그렇지만 벌써 부모 생각을 하구 세상에 가서 살구 싶어 하지 않아요? 더군다나 나이 먹으면 여기 있는대두 세상 사람들의 번뇌는 자연히 갖게 될 거라구 생각해요.

주지 설혹 갖게 되더라도, 단지 그리워하구 보구 싶어할 따름이지, 술을 먹구, 계집을 탐내구, 부처님이 말리시는 육계(六戒)를 태연히 범할 염려는 없거든요.

미망인 그런 짓을 하게 제가 가만두나요?

주지 아무리 말리신대두 자연 듣구 보는 게 그것밖에 더 있습니까?

미망인 왜요? 집에서 내보내지 않구 여기서처럼 경문 읽게 하구 수업시키면, 스님께 강의받는 거나 다름없지 않아요?

주지 이 사방이 탁 트인 산간에서, 동네 내려가구 싶어하는 녀석이, 서울 가서 행길에 안 나가려구 하겠습니까?

미망인 그럼, 저한테 몇 해만 맡겨 주세요. 데리구 있다가, 도루 돌려 보내드릴 테니.

주지 저는 다—만 번뇌의 기반에서, 도념이를 미연에 막기 위해 이러는 겁니다. 한번 발을 내려 놓구 다시 생각하면, 그때는 버얼써 제 자신이 얼마나 깊은 구렁에서 헤매구 있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미처 발을 뺄 수가 없이 전신이 죄구렁으로 휩쓸려 들어가거든요. 저두 속세에서 발을 끊구 불문에 귀의할 때까지는, 이만저만한 수업과 고행을 쌓은 게 아닙니다. 제가 당해보구 하는 것이니, 자꾸 조르지 말아 주십시오.

미망인 그럼 도념이 장래니 행복이니 다 빼놓구, 다만 저를 위해 꼭 양자루 주십시오.

주지 글썽 자꾸 이러시면, 제가 여간 난처하지 않습니다.

미망인 남편을 잃은 지 삼년이 못 되어, 외아들마저 이렇게 잃구 보니. 눈 앞에 땅이 다 꺼질 듯하군요. 마음이 서운하던 참에, 그 애가 자꾸 나를 따르는 것을 보니까, 불현듯 정이 솟아 오릅니다. 지금부터는 그 애한테라도 마음을 붙이구 살 아야지, 외로워서 단 한 시간을 못 살 것 같군요.

주지 아씨의 마음만은,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압니다.

미망인 아신다면서 이렇게 애원하다시피하는데두, 승낙 못하시겠단 말씀이세요?

주지 아씨, 노엽게 생각 말어 주십시오.

미망인 그럼, 한 일 년 만 데리구 있다가 다시 올려 보내드리지요.

주지 …….

미망인 그것두 안 되시겠단 말씀이세요?

주지 …….

미망인 그럼, 반 년두 안 되겠어요?

주지 아씨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저는 바랄 따름입니다.

미망인 그럼 도념일 불러다 제 생각을 한번 들어 보시지요? 지가 날 따라가겠다면, 저에게 맡겨 주시고, 또 싫다면 저두 억지는 안 하겠어요.

주지 물어보시나마나, 그 녀석은 지금 당장 따라가겠다고 날뽐 겁니다.

미망인 그럼, 승낙하시지 뭘 그러세요?

주지 아무튼, 저에게 생각할 여유를 좀 주십시오. 오늘루 꼭 데리구 가져야만 할 것두 아니시니까, 좌우간 일간 맥으로 기별해 드리지요.

미망인 그럼 전 승낙하신 걸루 믿구 있겠어요. 그러구 어머니께두 그렇게 여쭙겠어요. (하고 원내로 들어간다)

주지 이 녀석이, 일하다 말구 또 어텔 갔을까? 에이 걱정덩어리 같으니.

[중략 부분 줄거리] 절 뒤에서 토끼를 잡던 도념은 뒷에 토끼가 걸리자 소리를 치고 주지에게 적발된다.

주지 빨리 이 녀석을 갖다 산신당(山神堂)에 가둬 뒤라. 한 사흘 갇혀서 굶구 나면 뒷에 걸린 토끼가 얼마나 불쌍하다는 것을 알 테니.

도념 스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주지 안돼. (정심에게) 그러구 참나무 회초리를 둘만 해오너라.

정심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비는데 이번만 용서해 주시지요.

주지 아—니 너는 시키는 일이나 할 것이지, 무슨 대꾸니? 냉큼 끌구 가지 못하겠니?

정심, 도념에게 동행을 최촉(催促)* 한다.

초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돌연 도념의 손에서 토끼를 빼앗으며) 스님, 사실은 뒷은 제가 찢기 도념이가 친 게 아닙니다.

주지 자네가 쳐 논 데서 저 녀석이 토끼를 잡아 들구 나올 리가 없어.

초부 제가 나무하는 동안, 뒷을 잠깐 봐달라구 했었습지요.

인수, 원내에서 소리를 하며 나오다가 이 광경을 목격한다.

인수 (부의 말을 막으며) 아니에요. 스님.

초부 (아들을 쥐어 박으며) 닥디려 이 자식아, (주지에게) 뺏은
정말이지 제가 훔치, 도둑이가 친 게 아닙니다.

주지 정말 자네가 훔치?

초부 네.

주지 도둑아 그렇니?

도둑 (정심의 뒤에 가 가려 선 채 무언)

주지 누가 훔쳐? 바른대루 섣뚱 대답해라.

초부 제가 훔쳐옵쇼.

주지 도둑아, 그랬니?

도둑 (자기도 의식치 않고) 네.

주지 (초부를 보고) 아—니, 나무나 해다 때지, 자네더러 누가
토끼 잡아달라던가.

초부 비올 낮 없습니다.

* 최측 : 어떤 일을 빨리하도록 조름.

출제 포인트

- ② 「동승」에서 ‘도념’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으로 불가의 길을 걸어 야 하는 운명에서 벗어나 세속의 세계로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보인다. 이러한 ‘도념’의 의지는 어머니를 만나면 드리키 위해 준비하는 소재들을 통해 형상화된다고 할 수 있다. 그중 ‘하얀 털목도리’는 ‘도념’이 살생을 금지하는 불교 계율까지 어겨 가며 만든 것이나, 그 바탕에는 어린아이의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동경이 담겨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속성을 지닌 ‘하얀 털목도리’는 어머니에 대한 ‘도념’의 간절함을 극적으로 그려내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앞부분 줄거리] 어머니를 그리워하던 도념은 절에 찾아와 죽은 아들의 제를 지내던 하얀 털목도리를 한 미망인을 동경하고, 그녀도 도념에게 모성애를 느껴 그를 입양하고자 한다.

도념 맥에 가두…… 모두들 애비 없는 후레자식이라고 놀려 먹으면 어떡해요?

미망인 어따가 감히 그런 소리를 해? 내가 가만두나? 아까처럼 한번 웃어봐, 응 어서.

도념 (금시에 풀리며 병긋 웃는다)

미망인 (꼭 껴 안으며) 아이구, 이빠라.

도념 우리 어머니, 살아 계신지 돌아가셨는지두 모르는데, 나만 맥에 가서 호강할 걸 생각하니까 자꾸 미안한 생각이 나요.

미망인 (서글퍼지며) 아무래두 나보담은 어머니가 좋지요?

도념 네.

미망인 어머니두 나처럼 생기셨다니까, 지금 나처럼 부잣집에서 사실 거야.

도념 아니에요 고생하실 거예요.

미망인 어떻게 알어?

도념 지난 정월 보름날 잣불을 켜 봤드랬어요. 스님께서, 도념 어머니가 잘 사나 못 사나 보자구 하셔서 모두들 돌아앉아 컷드랬는데, 어머니 불이 그냥 피시시 죽겠지요.

이때 원내에서 스님의 “도념아 도념아” 부르는 노성.

미망인 애, 어서 대답해라.

도념 싫어요.

미망인 또 뭘 잘못된 계구나?

주지의 소리 도념아, 도념아.

미망인 어서 대답하구 빨리 가봐라. 역정이 잔뜩 나신 모양이다.

도념 안 가겠어요. 가두실려거든 가두시라지요 겁나지 않아요.

미망인 이게 무슨 소리니?

돌연 원내가 소요해지며 참예인들의 비명, 규환, 광광거리고 마루를 뛰어내리는 발소리 등등.

미망인 별안간 이게 웬일들이야?

구경꾼 여자들 지껄이며 나온다.

미망인 왜들 어느새 나오시우?

과부 재 헛 지냈소.

새댁 예구, 끄적끔적 해라.

미망인 아아니 왜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과부 토끼 죽은 걸 존상 뒤에 놓구 재를 올렸으니, 헛 지낸 거지 뭐예요?

미망인 토끼 죽은 거라니요?

새댁 하나두 아니구, 자그만치 여섯 마리씩을.

미망인, 급히 원내로 들어가려고 한다.

이때 남바구를 쓴 미망인의 친정모 공포에 부들부들 떨며 원내에서 나온다.

친정모 (팔을 붙들며) 들어가지 마라. 부처님께서 역정나셨다.

이 일을 어떡하면 종단 말이나? 입때 축원한 게 아니라 부처님 욕하구 있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미망인 아—니 누가 그런 것을 했어요?

친정모 나두 모르겠다. 저기, 스님이 들고 나오시는구면.

주지, 토끼 목도리 한 뭉탱이를 손끝에 들고 노기 심두에 달하여 나온다. 뒤따라 정심과 승들, 참예인들, 구경꾼 남자들.

주지 도념아, 너 이게 웬 거니? 살생을 하구 거짓말을 하구,

네가 점점 가시덤불 속으로 들어가구 있구나?

미망인 애가 토끼를 이렇게 잡았을 리가 없습니다. 누가 주었나 보지요.

젊은승 팔아두 두 냥씩은 받을 텐데, 하나두 아니구 여섯씩 그걸 누가 줬니까?

친정모 누가 주었더래두 어따 돌 테가 없어, 성스러운 보살님 존상 뒤에다 감춰 둔단 말이나?

주지 나는 설마하니, 내 눈을 속이구 네가 이런 악착한 것을 하는 줄이야 꿈에두 몰랐었다. 믿는 나무에 곶이 핀다더니 똑 맞았어 예구 끄적끔적해라. 내야 속았지만 억만중생의 민심을, 환하게 들여다 보구 계시는, 부처님두 속으실 줄 알았느냐? (돌연 몸을 떨며)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참예인들 승들 각기 함장하며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따라 외운다.

친정모 예구 무서라. 어쩌면 애가 눈두 깜짝 안 하구 싶네. 적으 나면 “잘못했습니다”하고 빌 게 아니야?

주지 (조용히 그러나 엄숙히 문답조로) 내가 언젠가 이 산의 옛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었지.

도념 (한 마디 한 마디 푹푹히) 네. 수나라 대군이 고구려를 쳐 들어와 을지문덕이란 장군이 나아가 막던 때였습니다.

주지 그때 이 산에 성을 쌓구 적군을 막던 병사들이 몇 살들이 라구 했지?

도넬 열네 살 열다섯 살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주지 그 소리가 부끄러 어떻게 아가리루 나오니? 네 나이 지금 몇 살이냐?

도넬 열네 살입니다.

주지 어따 열네살을 처먹었니? 살살 거짓말이나 하구, 쨌금거리구 다니며 요런 못된 짓만 하니. 그때 화살을 맞구 쓰러져 가면서 종을 치던 병사두 이 절 사미승이었구 이름두 도넬이었느니라. 하룻밤 갇히구 종아리를 맞을 것이 무서워 죄를 나무꾼에게 씌우고, 너는 빠지려고 했던 말이냐?

도넬 그제 무서워 그런 건 아닙니다.

주지 그럼 왜 그랬니?

도넬 오늘 갇히면 아씨 따라가지 못하게 되겠기에, 눈 꼭 감구 거짓말을 했습니다.

일동,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진다.

미망인 감정의 격동을 진정하려고 애를 쓴다.

주지 (약간 측은하지만) 당장 죽더라도 비겁한 짓은 말라구 했거늘 오늘 못 갈까봐 거짓말을 했어?

도넬 스님, 제 잘못은 제가 잘 압니다.

주지 이 토끼를 잡은 잘못두 안단 말이냐?

도넬 네.

주지 알면서 왜 했니?

도넬 아씨 목도리 두르신 게 어떻게 이쁜지, 나두 어머니가 데리러 오신다면 드리려구 맨들었습니다.

미망인 격하여 돌아서서 운다.

주지 (연민한 마음이 들어) 그 에미 소리 좀 작작해라. 그 쫓던 어리를 생각하구 네가 또 죄를 짓는단 말이냐? (한숨을 쉬며) 이게 다 인과 때문이다.

이해와 감상

〈결혼〉은 1974년에 발표된 희곡으로, 결혼이라는 소재를 통해 진정한 사랑과 소유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단막극이다. 자신의 경제적 무능력을 감추고 결혼을 하려는 ‘남자’와 물질에 대한 욕망과 소유욕을 결혼으로 채우려는 ‘여자’가 사랑을 완성해 가는 과정이 중심 서사이다. 작가는 이를 통해 소유에 대한 현대인의 집착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진정한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려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전체 줄거리

남자가 자신이 주인공인 이야기책을 낭독한다. 이야기의 주인공(=남자)은 결혼을 바라는 사기꾼으로, 젊고 잘생겼으나 빈털터리인 자신과는 아무도 결혼해주지 않으리라는 생각에 절망했다. 이내 사기꾼은 온종일 돌아다녀 정원이 딸린 집과 훌륭한 옷, 자신을 부자로 보이게 할 여러 물건들과 하인을 빌렸다. 사기꾼은 여성 잡지를 뒤져 사교란에 주소를 낸 여자에게 전보를 쳤고, 여자는 맞선에 응하는 답을 보냈다. 이야기를 낭독하던 남자는 혼잣말로 여자가 왜 오지 않는지 의문한다. 남자는 약속한 시간이 벌써 지났으며 책을 낭독한다. 하인은 시계를 보고 손가락 다섯 개를 펼친다. 남자는 딱 5분이 지났다고 말하며 초조해한다. 하인은 기계적으로 책을 빼앗고, 항의하려는 남자에게 회중시계를 내밀어 보인다. 책을 무대 밖으로 가져간 뒤 돌아온 하인은 남자 곁에서 부동 자세를 취한다. 그런 하인에게 남자는 불만을 표하지만, 이내 하인을 빌릴 때 그 주인이 ‘하인은 절대 대답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는 사실을 떠올린다. 회중시계를 확인한 남자는 10분째 시간이 흘러간다는 사실에 한탄한다.

냉랭한 표정의 남자는 관객석을 어슬렁거리다 여성 관객에게 말을 걸고는 자기 의자에 돌아와 앉는다. 계속 초조해하던 남자는 남자 관객에게 다가가 담배를 빌린다. 그는 여러 담배 이름을 대며 빈 담뱃갑에 빌린 담배들을 차곡차곡 집어넣는다. 그는 최고급 라이터로 담뱃불을 붙인다. 그는 하인에게 라이터를 몇 분간 빌린 것인지 확인하고, 라이터가 지금은 자신의 것이며 자신이 부자임을 증명한다고 말한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다. 하인이 움직이지 않아 남자는 스스로 문을 연다. 여자가 들어오자 남자는 자신과 하인을 소개한다. 여자는 하인에게 달려가 인사하고, 남자는 다시금 자신이 주인임을 강조한다. 여자가 돌아오자 남자는 미술품을 보듯 여자를 감상하고 여자의 아름다움을 칭찬한다. 그러고는 최고급 라이터를 자랑하지만, 빌린 시간이 다 된 탓에 하인에게 라이터를 빼앗긴다. 남자는 여자를 천사에 빗대 칭찬하고, 여자가 자신의 것이라고 말한다. 여자는 당황하며 인사조차 하지 않았음을 짚으며 자기소개를 하려 하나, 남자는 자기소개를 나중으로 미루자고 제안한다. 여자가 영겁 곁에 동의하자 남자는 바로 칭찬한다. 여자는 당황하고, 그때 하인이 덤벼들어 남자의 구두를 벗겨 빼앗는다. 구두의 대여 시간이 끝난 것이다. 여자는 혼란스러워한다. 여자가 물을 부탁하자 남자는

하인에게 물을 주기를 지시한다. 하인은 응하지 않고, 남자는 하인에게 물을 ‘빌려달라’고 말한 끝에 물을 얻어 여자에게 건넨다.

물을 마신 여자는 남자가 너무 부자여서 황홀했고, 그래서 만남을 망설였다고 말한다. 그녀의 어머니가 맞선 상대가 빈털터리일 경우 되돌아오고 부자이거든 꼭 붙들라고 당부했으며, 자신은 꼭 그러겠다고 맹세했다는 것이다. 그때 하인이 다시 남자에게 달려들어 넥타이를 뺏는다. 여자는 놀라고, 남자는 그저 시간이 지난 것뿐이라며 여자의 관심을 돌리려 한다. 그러나 여자는 남자가 넥타이를 뺏긴 이유를 궁금해한다. 남자는 하인에게 넥타이를 5분만 더 빌려 달라고 간청하지만 하인은 대답하지 않는다. 그러자 남자는 투덜투덜 걸어다니다 넥타이를 맨 남성 관객 앞에 앉아 하소연하고는 관객의 넥타이를 빌린다. 넥타이를 빌려 맨 남자는 여자에게 자신이 어떤지 묻고, 여자는 멋진 분이라고 답한다. 남자는 다시 여자의 어머니에 대해 묻고, 난폭에 상냥을 겸한 분이라는 대답에 어려워한다. 여자는 남자에게 용기를 내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한다.

여자는 자신이 갑자기 태어났으며, 어릴 적 별명이 덤이었다고 말한다. 자신의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사랑을 주고, 덤으로 자신도 주었다는 것이다. 여자의 아버지는 많은 재산을 모두 다 잠시 빌렸던 사기꾼이었고, 여자가 태어나자 달아나 버렸다. 그러나 여자는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고, 자신이 덤이라는 사실이 홀가분하다고 여긴다. 그러면서도 홀로 덤을 키우느라 고생한 어머니가 자신을 사기꾼에게 주기 싫어하는 것이 이해된다고 말한다. 여자는 이야기를 듣고 공감해주는 남자에게 감사를 표한다. 남자는 여자를 덤이라고 부르고, 그저 불러 보았다고 말한 뒤 넥타이를 관객에게 돌려준다. 젖은 눈을 한 남자는 관객에게 자신이 웬지 모르게 슬퍼했다고 말하고, 덤을 사랑한다는 말을 중얼거리다. 그런 남자에게 여자가 다가온다.

그때 하인이 빌린 물건들을 빼앗으러 다가온다. 남자는 여자에게 눈을 감기를 부탁하고, 남자는 행복하다고 말한다. 하인은 차례차례 남자의 소지품을 뺏는다. 그러나 남자는 여러 가지가 떠나가도 자신은 행복하다고, 시간이 지나간 것뿐이며 자신은 진실을 깨달았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여자에게 자랑거리가 없는지 묻는다. 여자는 자신과 어머니, 할머니의 사진을 보여주며, 그 사진들이 자기 집 가문의 여자들이 대대로 미인이라는 것을 증명한다고 말한다. 남자는 여자 본인의 사진을 여자에게 대 보여 나이를 묻는다. 여자는 스물둘이라고 답한다. 이어서 남자는 차례로 여자 어머니와 여자 할머니의 사진을 여자에게 대어 보며 몇 살인지 묻는다. 여자는 조금 쉰 목소리, 혹은 푹 쉰 목소리로 마흔다섯이라거나 일흔 살이 넘었다고 대답한다. 남자는 재미난 놀이를 한 것이며 그 재미는 시간이 지난다는 데 있다고 말한다. 여자는 늙어서도 예뻐야 미인이라고 말하고, 남자는 그 말에 동의하며 진짜 재미는 시간을 초월한다고 말한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매혹된다.

남자는 하인을 가리키며 만약 그가 자신의 옷을 벗겨간다면 어떨지, 자신에 대한 황홀이 사라질지 여자에게 묻는다. 여자는 어리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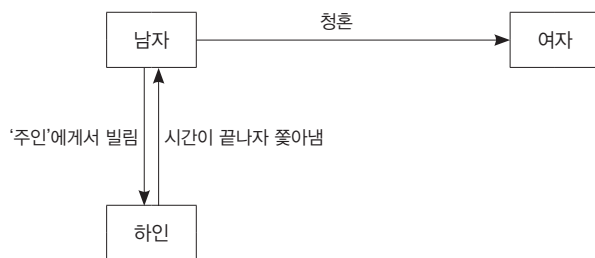
절해하고, 남자는 참된 건 영원하다는 말을 시험해 보자고 말한다. 하인이 남자에게서 저고리를 뺏어 간다. 남자는 바지만 입은 채로 여자에게 청혼한다. 여자는 옷을 빼앗아가는 하인을 난폭하다며 해고하라고 하고, 남자는 옷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되돌려주는 것이라 말한다. 그는 물건을 하나둘씩 되돌려주고 가진 것이 적어지면서 분산된 애정이 여자에게 집중된다고 말한다. 하인은 집에서 나가라는 집주인의 경고문을 가져온다. 남자는 여자에게 자신이 지닌 물건은 모두 잠시 빌린 것이라고 고백한다. 여자는 충격을 받고, 하인은 남자를 쫓아낼 채비를 한다. 남자는 다시금 여자에게 청혼한다. 여자는 어머니에게 한 맹세 때문에 망설이고, 남자를 떠나려 한다. 남자는 여자를 붙잡고 자신은 이 세상의 것을 빌린 사기꾼이며 이제는 빈털터리가 되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은 모두 타인의 것을 잠시 빌렸을 뿐이라고 변호한다. 여자는 남자를 외면한 채 걸어 나가고, 하인은 남자에게 다가온다. 남자는 여자에게 여자가 가진 것은 무엇인지 묻고, 넥타이를 빌렸던 관객에게 자신이 빌린 물건이었기 때문에 넥타이를 소중히 여겼지 않느냐며 동의를 구한다. 관객을 증인으로 삼은 남자는 여자에게 그를 빌리는 동안 아끼고, 사랑하고, 언젠가 시간이 되면 공손히 되돌려 주겠다고 맹세한다. 그때 하인이 남자를 걷어차고, 여자는 참을 수 없다는 듯 돌아와 남자를 부축하고 그의 청혼을 받아들인다.

하인	남자가 다른 물건들과 함께 빌린 대상.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고, 남자가 물건을 빌린 시간이 다 될 때마다 난폭하게 물건을 빼앗는다. 남자가 집까지 돌려줘야 할 시간이 되자, 구둣발로 남자를 걷어찬다.
----	---

주제

진정한 사랑과 소유의 본질

등장 인물



남자	빈털터리. 결혼이 하고 싶으나 누구도 빈털터리와는 결혼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남들에게 물건을 빌려 부자인 양 꾸민다. 여성 잡지 사교란에 적혀 있던 주소로 전보를 쳐 여자와 만나고 그에게 청혼한다. 시간이 지나며 빌린 물건들을 하인에게 빼앗긴다. 그러면서 물건을 갖고 있는 것은 곧 시간이 지나가는 일임을 깨닫고, 가진 것이 적어질수록 여자에 대한 사랑이 더 커져감을 느낀다. 자신을 외면하는 여자에게 세상 사람들은 모두 세상의 것을 빌렸다고 주장하고, 결국 청혼에 성공한다.
여자	남자의 맞선 상대. 맞선 상대가 부자이면 붙잡고, 빈털터리면 돌아오라는 어머니의 말에 그러겠다고 맹세했다. 남자에게 자신이 덤으로 태어난 존재임을 고백한다. 자랑거리가 없느냐는 남자의 질문에 자신과 어머니, 할머니의 사진을 내놓으며 집안 여인들이 대대로 미인이라는 증거라고 말한다. 남자와 사랑에 빠지지만, 남자가 사실은 빈털터리 사기꾼이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는다. 어머니에게 한 맹세를 떠올리며 남자를 외면하려 하지만, 결국 마지막에 남자의 청혼을 받아들인다.

출제 포인트

- ① 이강백의 「결혼」은 다양한 실험적 기법이 사용된 작품으로, 무대나 조명 등 특별한 무대 장치를 최소한으로 설정하고 있다. 작가는 이 연극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그 장소에 모인 사람들, 즉 ‘관객’을 제시하는데, 이는 ‘관객’이 해당 연극에 있어 중대한 역할을 차지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배우가 객석으로 내려와 객석의 관객에게 말을 걸기도 하며, 물건을 빌리는 등 관객의 참여를 유도하며, 무대의 시간과 상연 시간이 일치하도록 설정하는 등 무대와 객석의 구분을 무너뜨리기도 한다.

남자 그래? 아 참, 자넨 말을 안는다며? 자네 주인께서도 그러시더군. “빌려는 드리지요. 하지만 아무것도 묻지는 마십시오. 이 하인은 절대 대답하지 않습니다” 난 그걸 잊을 뻔했네. 그러나저러나 웬일이야? (하인의 회중시계를 들여다본다) 이제 십분째 지나가구 있어. 황금 같은 내 인생이 이 꼴로 그냥 허무하게 지나가다니 안타깝지 뭐가?

남자,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다는 듯 낭패한 표정으로 관객 석 사이를 어슬렁거리며 왔다갔다 한다. 남자, 한 여성 관객에게 말을 건다. 언뜻 무슨 생각이 떠오르는 듯 미소를 짓고 있다.

남자 하긴…… 그럴지도 몰라요. 여자란 그렇다면서요? 이쁘게 보이려구 일부러 약속 시간보다 오분쯤은 늦는다죠? 하지만 이걸 너무 심합니다. 굉장히 미인인가? 그러니까 두 곱이나 시간을 낭비하는 것 아니겠어요? 만약 온다는 그 여자가 당신처럼 어여쁘시다면야 이야긴 펍 달라지죠. 심분 아니라 난 이십분도 기다릴 수 있다 이겁니다.

남자, 다시 자기 의자에 돌아와 앉는다. 초조해서 옷을 매만지고 모자를 썼다 벗었다 한다. 결국 그는 모자를 벗어 탁상 위에 놓고 벌떡 일어선다. 힐끔 하인의 시계를 본다. 마른 침을 꿀꺽 삼킨다. 그는 남자 관객에게 다가간다.

남자 이거 초조해서 원, 담배 한 대 주시겠어요? 거저 달라는 건 아닙니다. 다만 빌려달라는 거죠. 네, 고맙습니다. 아, ‘은하수’군요. (다른 남자 관객에게) ‘청자’를 가지구 계신가요? 그러시다면 한 대 빌립시다. (호주머니에서 납작하게 눌러진 빈 담뱃갑을 꺼내 남자 관객들로부터 받은 담배를 차곡차곡 집어넣는다) 누구. ‘샘’ 없으세요, ‘샘’? 요즘 나온 담배론 ‘샘’이 괜찮더군요. 물론 ‘한산도’도 좋긴 좋죠. 어느 분 ‘파고다’ 있으시면 그것도 한 개피 빌립시다. 꼭 담배를 컬렉션하는 것 같습니다만 초조할 때 이러는 게 내 버릇이라서요. (담배에 불을 붙인다) 라이터, 이거 최고품이죠. 쓸데없이 금으로 만들구. 진주를 불었습시다. (하인에게) 이거 정해진 시간이 얼마지? (하인, 오른손의 손가락 하나, 왼손의 손가락 네 개를 펴보인다) 알았네, 알았어. 10분 정도가 지났으니 까, 앞으로 4분 후엔…… 그러나 아직은 완전히 내 겁니다.

내 라이터다, 이거지요. 금으로 만든 것, 진주가 박힌 최고품, 난 부자라는 게 분명합니다. 이 호사스런 물건이 그걸 증명하거든요. 그건 그렇고, 담배는 고맙습니다. 다아 이럴 땐 상부상조해야죠, 안 그래요? 그런 의미로 한 대만 더 빌려가도 좋겠지요?

[중략 부분 줄거리] 맞선을 보기로 한 여자가 남자의 집으로 찾아오고, 여자에게 첫눈에 반한 남자는 시간이 가기 전 여자의 마음을 얻으려 한다.

하인, 또다시 남자에게 달려들어서 넥타이를 풀어낸다. 남자는 빼앗기지 않으려 힘껏 저항하지만 하인의 역센 힘을 당해 내지 못한다. 결국은 빼앗기고 하인은 기계적인 동작으로 넥타이를 가지고 나간다. 여자는 두 남자의 다툼에 놀란다.

여자 왜들 그러시죠?

남자 (씩씩거리면서 웃고 있다) 이번엔 넥타이가 내 목에서 떠나갔습니다.

여자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듯이) 네에?

남자 뭐, 놀랄 게 못 됩니다. 그저 시간이 지난 것뿐이니깐요. 안심하십시오. 만약 내 목이 떠나가고 넥타이만 남았다면…… (계면찍은 듯 바라보고 있는 여자의 관심을 돌리려고) 그건 그렇구요, 당신 어머니 펍 재미난 분이시군요. 나는 깊은 관심을 갖게 됐어요. 당신의 어머니에 대해서, 그 맹세를 시켰다는 어머니, 어떤 분인지 더 들구 싶습니다. 어떠신가요? 어머니 성품이 너그러우시든가…… 왜 그렇게 쳐다만 보십니까?

여자 넥타이를…….

남자 그것엔 관심없습니다.

여자 왜 빼앗기셨죠? (옆에 와 부동 자세로 서 있는 하인을 흘려보며) 그것두 난폭하게.

남자 그렇지요. 난폭하게 주인을 덮치는 그런 하인에겐 난 전혀 관심 없어요. 오히려 당신 어머니의 성품이 너그러우신지…….

여자 하지만요, 저는…… (입을 다물어 버린다)

남자 알았어요. 문제는 빼앗긴 물건인가 본데, 그야 되돌려받기 어렵지는 않습니다. (하인에게 큰 소리로) 여봐, 가져와! (묵묵부답인 하인. 까치발을 달고 일어나서 그의 귀에 속삭인다) 여봐! 그 가져간 것 오분만 더 빌려주게.

하인 (대답이 없다.)

남자 딱 오분만 더. 사정해도 안 되겠나, 응?

하인 (반응이 없다.)

남자 좋아, 좋다구.

여자 뭐래요, 하인이?

남자 네. 날더러 잘 해보라구 그러합니다.

(관객석을 투덕투덕 걸어다니다가 넥타이를 맨 남성 관객 앞에 앉는다)

남자 물론 그래요. (속상하다는 듯 담배를 피워 물고, 상대방에게도 권하며) 저 인정사정도 없는 하인이 날더러 잘 해보라

구 그런 말 한마디 하진 않았지요. 하지만 말입니다. 나도 그 래요,

기 죽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도대체 지가 뭐라구 겨우 심부름이나 하는 주제에…… 속 좀 상합니다만, 그야 뭐 그건 당신에게도 마찬가지니까 말해보나마나겠구…… 저어, 당신 넥타이 참 좋습니다. 정말 좋아요. 아름다운 색깔, 기막히게 멋진 무늬, 딱 오분만 빌립시다. 정확하게 오분만. 더 이상은 어기지 않겠습니다. 빌려주시겠습니까? (남성 관객 으로부터 넥타이를 빌려 착용하며) 고맙습니다. 빌린 동안 에는 소중히 다룰 겁니다. 사실 이건 내 것이 아니라 당신 것 인데…… 혹시 모르긴 하지요, 당신도 누구에게서 빌려온 건지는. 아무튼 잘 사용하고 돌려드리겠어요. 자아, 그럼 당신은 시간을 재고, 난 이만. (급한 걸음으로 여자에게 돌아 간다) 어때요, 이젠?

여자 네, 당신은 멋진 분이세요.

남자 (웃으며) 뭘요.

여자 아니, 정말 그래요.

남자 (넥타이를 빌려준 남성 관객을 향하여) 이 영광을 당신에게 돌려 드립니다. (여자에게) 그건 그렇구요, 우리 하다 만 이야기, 그것 좀 계속해 봅시다.

출제 포인트

- ② 「결혼」은 작중 사물과 등장인물, 그들의 대사 등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상징적으로 그려내는 우의적 기법을 활용하고 있다. 물건을 빼앗아가는 ‘하인’은 ‘시간’을 의미하며, ‘덤’이라는 것은 ‘인간은 이 세상에 잠시 나온 덤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의미한다. 작가는 이러한 설정을 통해 우리가 소유한다고 생각했던 것은 모두 ‘빌린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고 볼 수 있다. 작품 진행 내내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잠시 빌렸다가 되돌려 주는’ 행위의 반복은, 모든 인간에게 동등하게 주어진 ‘시간’이라는 조건과 ‘소유’라는 것의 본질을 그려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여자 갑자기 이런 말을 하면 놀라시겠지만요…….

남자 말해 봐요. 뭐든지.

여자 저는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남자 놀랐습니다, 갑자기.

여자 네. 태어난다는 건 언제나 갑자기죠. 그래서요. 저는 태어날 때 제 기분이 어땠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냥 그렇게 이 세상에 나온 거죠, 그러구, 어렸을 때 제 별명이 뭘지 아시겠어요? 덤이에요, 덤.

남자 덤?

여자 네. 왜 조금 더 주는 것 있잖아요. 그거래요. 제가. 아버지 사랑을 주구, 그리고 또 덤으로 저를 어머니에게 주었죠. 그러니까 덤 아니겠어요? 덤, 이 말 속엔 뭘가 그리운 게 있어요. 덤, 덤, 덤…… 아버지 덤이 태어나자 달아나셨대요. 말하잖 뽕소닐 치신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 사기꾼이었구 어머니에게 보여줬던 그 많은 재산은 모두 다 잠시 빌렸던 거래요.

남자 덤, 덤, 덤.

여자 하지만요, 저는 아버지 미워 안 해요. 그분께겐 뭘가 덤이라는 옛 이름처럼 그리운 데가 있어요. 덤, 혹시 그분도 그렇게 이 세상에 태어나셨던 건 아닐지…… 안 그래요?

남자 덤, 덤, 덤…….

여자 어머니께겐 안됐지만요, 덤이라는 그 점이 저에겐 좋아요. 웬지 흥가분하더군요. 이런 말을 하면 어머니 화를 내시곤 한답니다. 하긴 그렇죠. 고생 많으셨어요. 홀로 덤을 낳아 키운다는 건…… 그만둘까요? 제 이야기?

남자 덤, 더 해주세요.

여자 그래서 어머니는요, 단단히 버르시는 거예요. 이 덤을 키워서는 결코 사기꾼에겐 주지 않겠다고요, 전 어머니 말을 이해해요.

남자 나두 알만 합니다.

여자 고마워요.

남자 뭘요, 고맙기는요.

여자 사실 이런 덤 이야긴 처음인 걸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답니다. 그냥 가슴 속에 덮어두었었죠. 그리고 보면 당신은 참 친절하신 분이예요.

남자 덤.

여자 네?

남자 아, 아뇨. 그저 불러본 겁니다.

여자 그 목소린 그저 불러본 건 아닌데요?

남자 저어, 아닙니다.

남자는 일어나 벡타이를 풀어 그것을 빌렸던 남성 관객에게 가서 되돌려 준다. 그의 눈은 물기에 젖어 있다.

남자 빌린 걸 돌려드립니다. 시간은 정확하게 지켰습니다.

그런 데 웬지 모르게 슬퍼진 건 무슨 까닭일까요? (관객석을 거닐며 그는 자기에게 들려주듯 중얼거린다) 덤, 덤, 덤, 난 당신을 사랑해. 덤, 덤, 난 당신을 사랑해…….

여자 거기서 뭘 하시죠?

남자 (계속 혼자말처럼) 덤, 난 당신을 사랑해…….

[중략 부분의 줄거리] 여자는 남자에게 할머니, 어머니, 자신의 사진을 보여주고 시간이 지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한다.

남자 그런데 덤, 만약 이 순간에 (결에서 시간을 재고 있는 하인을 가리키며) 이 억센 하인이 내 옷을 벗겨간다면…….

여자 왜 벗겨가요?

남자 만약입니다. 만약에…….

여자 그래도 옷을 벗겨가선 안돼요.

남자 그러니까 만약입니다. 만약에, 내 옷을 벗겨간다면 당신은 어찌 하시겠습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참된 재미를, 그 행복을, 그 황홀을 따라 깨셔야 하겠습니까?

여자 (어리둥절해지며) ……글쎄요.

남자 참된 건 영원하하지요?

여자 …… 글쎄요.

남자 어디 그럼 시험해 봅시다.

남자는 이미 저고리를 하인에게 빼앗기고 있다. 당황한 여자는 “……글쎄요”만 연발하고 있다.

하인, 벗겨낸 저고리를 들고 나간다.

남자 얼마나 다행입니까? 아직 바지가 남았습니다.

여자 바지가…….

남자 네. 비록 맨발에다 윗저고리는 안 입었습니다만 당신을 사랑하기에 전혀 부끄럽지 않은 모습입니다. 정식으로 청혼하겠습니다.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Memo

이해와 감상

〈원고지〉는 반복적인 일상 속에서 기계화된 삶을 살아가는 한 가족의 모습을 통해 현대인의 무의미한 일상과 인간 소외를 담은 작품이다. 작가는 특정한 사건이나 갈등 없이 극 중 상황만 제시하는 실험적 방식을 활용하여 진정한 삶의 가치와 의미를 잃어버린 현대인의 모습을 풍자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주제 의식의 표현에 중점을 두는 부조리극의 구성 방법을 취하고 있으며, 무대 장치, 소도구, 분장, 등장인물의 대사나 행동 등을 희극적으로 과장하여 반어와 풍자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전체 줄거리

요란한 통속 음악이 울리며 휘황찬란한 차림새의 장녀가 등장한다. 그녀는 관객들에게 인사를 하고는 그들에게 자기 집 구경을 시켜 드리겠다고 말하고는 가족 소개를 시작한다. 자신은 남부럽지 않은 가족의 장녀이고, 남동생이 있으며, 아버지는 번역이긴 하지만 책을 열두 권이나 낸 훌륭한 교수라고 소개한 장녀는 무대 좌측의 응접실을 소개하고는 퇴장하며 막이 오른다.

무대는 전체적으로 원고지를 뒤집어쓴 것 같은 모양이다. 소파 무늬도, 벽도 원고지 같으며 흡사 코끼리 우리처럼 보인다. 유일하게 화려한 벽은 장녀와 장남의 방으로 사치품이 늘어져 있다. 그 안에 누워 있던 장남이 일어나서는, 관객들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부모들이 자식에게 맡은 바 책임을 다하면 된다고 말한다. 자신들의 가정이 행복한 것도 부모의 책임감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저녁 일곱 시 반이니 아버지가 곧 퇴근할 것이라고 말하며, 아버지가 쾌활한 얼굴에 참새처럼 가벼운 발걸음의 소유자라고 소개한다. 그때 원고지만 투성이인 양복을 입은 교수는 허리에 쇠사슬을 두른 채 등장해 힘겨운 몸짓으로 앉는다. 그가 피곤해하며 비명 같은 하품을 하자, 장녀가 나타나 관객들에게 집에 돌아올 때마다 그는 늘 ‘달콤한’ 하품을 한다고 설명한다. 장녀는 어머니가 곧 돌아오실 거라며, 어머니는 늘 아버지의 건강을 염려한다고 소개한다.

몸이 헝클어져 있고 퇴색한 옷을 입은 처가 등장한다. 처는 조용히 들어와 잠자는 교수의 주머니와 가방을 털고, 찾아낸 돈이 적어 실망한다. 장녀는 그 모습을 보며 자기 말이 맞지 않느냐고 관객에게 묻고 사라진다. 처는 교수를 깨워 그가 감은 쇠사슬을 풀어헤치고, 소파 뒤에 있던 또 하나의 굵은 줄을 풀어 감아 준다. 그러고는 옷을 갈아입으니 한결 시원하지 않느냐고 묻는다. 그러고는 출판사 주인을 만났는지 독촉해 묻는다. 교수는 출판사 주인 이름을 헛갈려 하며 형설수설하고, 누가 누군지 분간하기가 어렵다며 화내고는 음악을 틀어 주기를 요구한다. 처는 부드럽게 아이들을 불러 음악을 부탁하지만, 장남은 호령하듯 대답하고는 시끄럽고 귀가 아픈 곡을 반복해 재생한다. 교수는 참다못해 음악을 멈추게 한다. 시끄러운 음악에 교수가 불평하자 처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악이라고 답한다.

교수가 소파 앞의 신문지를 집어 읽는다. 내용을 낭독하자 처는 그가 쥔 신문이 옛날 신문이라고 지적한다. 자신이 읽던 신문이 3년 전 것임을 안 교수는 처에게서 오늘 신문을 받아 다시 읽지만, 신문 내용은 교수가 출간한 번역서의 출판사가 ‘착취사’에서 ‘악마사’가 된 것을 제외하면 아예 동일하다. 그러나 처는 그 내용을 듣고 세상이 무척 변했다며, 3년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말한다. 한편 옆방의 장녀는 장남에게 시계가 좀 늦는데 일어난 김에 밥을 주라고 말한다. 장남은 시계에 밥을 주고, 처는 교수에게 줄 밥을 짓겠다고 말한다. 교수는 밥을 먹었다고 대답했다가, 먹었는지 분간하지 못하겠다고 말한다. 처는 교수의 번역이 언제 끝나는지 묻고, 교수는 번역 가짓수조차 기억하지 못한다. 피곤해하는 교수에게 처는 무엇이든 빨리 끝내야 집을 수리하고, 축음기를 사고, 이달에 있는 아버지 생일을 준비할 수 있다고 말한다. 아버지 생일 잔치가 너무 자주 있다는 교수의 말에 처는 어제는 당신 아버지 생일, 그저께는 대식이 동생 사촌의 머느리뻘되는 여자의 아버지 생일, 그 전날은 순자 언니 조카뻘되는 머느리 시누이의 아버지 생일이었다고 답한다. 교수는 말을 끊고, 하품하며 피곤해 한다.

밖에서 시계가 여덟 시를 친다. 교수는 화들짝 놀라 이전에 찻던 쇠사슬을 졸라매고 밖으로 나갔다가 금세 다시 돌아온다. 아침 여덟 시인 줄 알고 강의하러 나갔더니 밖이 캄캄해 밤 여덟 시임을 알았다는 것이다. 오늘 밤은 폭 쉬어야겠다는 교수에게 처는 공부 안 하냐고 물었다가, 번역은 안 하냐고 고쳐 묻는다. 교수가 쉬어야겠다고 답하자 처는 교수의 쇠사슬을 바꿔 매 주고는 퇴장한다. 눈을 감고 자는 교수의 얼굴에 처음으로 미소가 돈다.

응접실 불이 꺼지고 자녀들 방이 나타난다. 소파 앞에 초라하게 앉아 있는 처에게 장녀와 장남이 명령조로 필요한 것들을 요구한다. 처는 말이 떨어질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며 순응하고, 자식들은 손을 내밀며 ‘돈’이나 ‘자식에 대한 책임’을 외친다.

자녀들 방의 불이 꺼지며 응접실이 나타난다. 소파에 누운 교수는 몸을 감고 있던 쇠사슬마저 풀어헤친 채 잠들어 있다. 시계가 아홉 시를 치자, 까만 옷을 입고 흥취한 얼굴을 한 감독관이 창문을 열고 방 안을 들여다본다. 그는 방 안에 회초리를 밀어 넣어 잠자는 교수를 때려 깨우고는 ‘원고’를 외치며 독촉한다. 교수가 번역을 시작하자 감독관은 창문을 닫고 사라지고, 큰 자루를 든 처가 나타난다. 처는 교수가 벌거벗고 있다며 막대기에 감긴 쇠사슬을 끌어다 교수의 허리에 감는다. 교수는 말없이 번역한다. 처는 교수를 독촉하며, 그가 번역을 끝낸 원고지를 찢어 넘겨줄 때마다 빼앗듯 받아 자루에 넣어 넣는다. 교수는 반복해서 번역한 원고지를 뜯어 처에게 넘기고, 처는 그때마다 ‘삼백환’, ‘육백환’, ‘구백환’처럼 돈의 값을 셈한다. 자녀들 방에서는 장녀와 장남이 여유로운 일상을 보낸다. 문득 교수가 붓을 놓고 원고를 보며 미소짓는다. 다른 원고지와 달리 19x10칸으로 이루어져 10자 모자란 원고지가 크고 시원해 보여 마음이 탁 트인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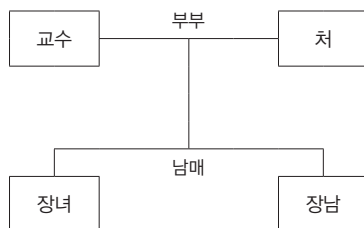
교수가 미소 지으며 앞을 보자 무대가 어두워지며 교수에게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된다. 과거를 상기시키는 감성적 음악이 흘러나오

며 천사가 등장한다. 천사를 바라보던 교수는 생각이 나는 것 같으며, 그가 자신의 희망과 정열의 옛 모습이라고 말한다. 자신이 언제 어떻게 그와 헤어졌는지 모르겠다고 말한 교수는 자신이 밤을 새우며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진리를 위해 온 생애를 바치겠다고 떠들던 꿈 같은 시절이 있었다며, 천사에게 왜 자신을 버렸는지 묻는다. 그러나 천사는 교수가 자신을 떠난 것이라고 대답하고, 교수를 돕고 싶지만 그가 자신에게 되돌아오기는 너무 늦었다고 말한다. 교수는 자신의 꿈과 생각할 힘을 찾아달라고 간청하지만 천사는 사라져 버린다. 꿈을 잃은 교수가 맥없이 앉아 있자, 어둠 속에서 감독관이 창을 열고 나타나 원고를 독촉한다. 그제야 교수는 정신을 차리고, 비참한 얼굴로 일을 계속한다.

무대가 어두워졌다가 아침이 되며 밝아진다. 교수는 책상에 머리를 박은 채 잠들어 있다. 장녀가 아침 신문을 들고 웅집실로 들어와서는 관객들에게 아버지가 ‘연구’를 하다 책상에서 주무신다며, 그야말로 학자라고 말한다. 장녀는 어머니는 아침 일찍 원고를 출판사로 가져갔으므로 자신이 아버지에게 신문을 읽어 드린다고 말하고, 교수를 깨워 신문을 읽어 준다. 신문의 내용은 어제 신문과 똑 같다. 그러나 교수는 하룻밤 사이에 신기한 사건이 많으며, 세상이 너무 많이 변해 못 살겠다고 말한다. 그러고는 장녀가 손에 쥔 영자 신문을 보고는 기계적으로 번역하기 시작한다. 장녀는 번역 일거리가 아니라 오늘 아침 영어 신문이라며 교수를 말린다. 그때 시계가 8시를 알리고, 교수는 학교에 가야 한다며 식사를 바퀴 맴고 무섭게 퇴장한다.

장녀와 장남은 고약한 세리¹⁾처럼 처를 기다린다. 곧 피곤한 얼굴의 처가 돈 보따리를 끼고 등장해서는 현기증을 느끼는 듯 소파 앞에 주저앉는다. 그러나 자식들은 무표정한 얼굴로 돈만 받아서는 밖으로 나간다. 소파에 앉은 처는 잠시 눈을 감지만, 곧 감독관이 창문을 열고 회초리를 치며 ‘연탄 준비’나 ‘김장거리’, ‘빨랫감’을 독촉한다. 처는 책상 쪽으로 가 흩어진 책과 원고지를 정리하기 시작한다.

등장 인물



교수	대학에서 강의를 하며, 열두 권의 번역서를 냈다. 원고지 무늬의 옷을 입고 허리에는 쇠사슬이나 굵은 줄을 둘렀다. 지친 얼굴로 반복해서 일만 하다가, 19x10으로 된 원고지를 보고 잠시 자신의 옛 열정과 희망을 떠올린다. 그러나 금세 희망을 잃고 기계적인 생활로 돌아간다.
----	---

처	교수의 처. 교수의 몸을 뒤져 돈을 찾아내고, 교수에게 번역 작업을 서둘러 마무리할 것을 다투고 생활비를 독촉한다. 자식들의 요구에는 순응하는 모습을 보인다. 교수의 원고를 출판사에 가져가 돈을 받아와서는 피곤해 주저앉지만, 돈을 달라는 자식들의 요구나 감독관의 독촉 때문에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한다.
장녀	황황찬란한 차림새를 하고, 입은 보통 사람의 두세 배는 크게 칠해져 있다. 비명소리 같은 교수의 한숨을 두고 달콤하다고 말하거나 돈을 찾기 위해 교수의 몸을 뒤지는 처를 보며 건강을 염려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언행을 보인다. 허덕이는 교수 부부와 달리 여유로운 일상을 보내며, 처에게 필요한 것들, 돈, 자식에 대한 책임을 명령조로 요구한다.
장남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부모가 자식들에게 맡은 바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한다. 자신들의 가정이 비교적 행복한 것도 부모의 열렬한 책임감 때문이라는 것이다. 피곤에 진 교수의 모습을 두고 쾌활한 얼굴에 발걸음이 참새처럼 가볍다는 하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언행을 하고, 처를 명령조로 대한다. 허덕이는 교수 부부와 달리 여유로운 일상을 보내며, 장녀와 마찬가지로 처에게 이런 저런 것들을 명령조로 요구한다.

주제

현대인의 무의미한 일상과 인간 소외 풍자

1)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

출제 포인트

- ① 「원고지」에서는 무대 장치, 소도구, 인물의 대사, 행동 등에 대한 희극적 과장과 반어적 표현, 거침없는 언어 구사, 비유, 언어유희 등을 통해 작품의 풍자성을 강화하고 있다. 작가는 위와 같은 표현 기법을 통해 단순한 웃음 유발을 넘어 인간성을 상실한 현대인의 기계적인 삶에 대한 비판을 보여주려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 ② 「원고지」에서는 특이하게도 기존의 극과는 달리 '장녀'와 '장남'이 해설자로 등장하여 관객에게 말을 건네는 모습이 나타난다. 이러한 기법은 해설자의 개입을 통해 극이 진행되는 도중 관객의 몰입을 방해하고, 관객으로 하여금 그 극이 실재가 아닌 '연극'임을 인지하게 하여, 극을 '판단'하는 존재로 만든다. 작가는 이를 통해 관객에게 무대 위에서 그려지는 문제를 현실 속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려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장녀 (멋들어지게 관객들에게 인사를 하고 나서) 바쁘신데 이렇게 많이 모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제 소개를 먼저 할까요? 여러분들은 저한테 소개할 필요가 없어요. 아까 여러분들이 이 극장(혹은 이 학교, 혹은 이 집) 문을 들어오실 때 저는 옆에서 자세히 여러분들을 보았어요. 죄다 연령이 다르고, 직업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여기 오시기 전에 잡수신 저녁 식사의 잔거리도 다르지 않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을 잘 알아요. 그런데 모든 것이 제각기 다른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앉아 계신 것을 보니 누가 누군지 분간을 할 수가 있어야죠. 모두 똑같이 보이는 걸요.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이 되어 버렸어요. 저에겐 여러분들이 한 사람같이 보인단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모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근심, 걱정이 가득 찬 여러분들에게 우리 집 구경을 좀 시켜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우리 집은 크게 자랑할 만한 것은 못되지만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집 첫딸입니다. 장녀란 말입니다. 남동생이 하나 있어요. 곧 소개하겠습니다만, 말이 자꾸 많아져 미안합니다. 그러나 저는 남자가 아닙니다. 말이 짧아지면 무언으로 제가 여자라는 걸 증명할 수 있겠어요. 저의 아버지는 참 훌륭한 분이예요. 아버지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인데 안 나가는 학교가 없어요. 이름이 나면 저절로 여기저기서 찾는 법인가 보죠? 그동안 책을 열두 권이나 썼으니 말은 다 했지요. 물론 그 열두 권이 전부 번역 작품입니다만, 열두 권에는 틀림이 없지요. 아버지의 명성과 돈벌이가 이런데다 저는 또 이렇게 현대적인 신여성이니 걱정할 게 뭐 있겠어요. 저의 남동생도 매마 찬가집입니다. 건강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때 서서히 막이 오른다)

그럼 저의 집으로 안내하겠습니다.

(무대 좌측으로 걸어간다)

이것이 응접실입니다. (좌측으로 사라진다)

(무대 우측 후면에 소파가 있다. 관객석 가까운 곳에 책상과 의자 하나가 전면을 향해 자리잡고 있다. 책상 위에는 원고지가 그득히 쌓여 있다. 소파는 흔히 볼 수 있는 형이지만 씩은

커버의 무늬는 원고지의 칸 그대로다. 무대 우측에 보이는 벽의 일부분과 후면에 서 있는, 긴 벽의 모습도 흡사 원고지를 곧추 세운 것 같다. 벽의 무늬들도 원고지의 칸 그대로다. 후면 벽 우단에 바깥하고 통하는 도어가 있다. 동물원의 코끼리 우리 같다고 함이 좋을지도 모른다. 후면 벽에 큼직한 창이 뚫려 있다. 소파 앞에는 신문지가 몇 장 흩어져 있다. 우측 무대 중간 쯤에 플랫폼이 중앙을 향해 45도 각도로 위치해 있다. 플랫폼 후면에도 역시 벽이 있지만 이 벽은 화려한 색깔로 칠이 되어 있다. 이 플랫폼은 장녀 및 장남의 방이다. 한구석에 역시 고운 색깔의 소파가 있어 이 위에 미끈하게 생긴 장남이 길게 누워 있다. 이 방에는 라디오, 축음기를 비롯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사치품이 여기저기에 늘어져 있다. 큼직한 패종시계도 하나. 전체적으로 소왕국 같은 인상을 준다. 우측에 비해 좌측 플랫폼의 방이 굉장히 밝다. 관객들은 우측 방과 좌측 방 사이에 벽이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좌측 방, 즉 응접실 소파 뒤에 굵은 줄이 친친 감긴 막대기가 하나 서 있다. 장남이 일어선다. 그리 고서는 관중에게 이야기한다.)

장남 전 이 집 장남입니다. 이쪽 높은 방은 저하고 누이가 생활하는 곳입니다. 아버지를 소개하기 전에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을 말씀드리겠어요. 아주 간단합니다. 부모는 자식들에게 맡은 바 책임을 다하면 됩니다. 밥 세 끼도 제대로 못 댁이고, 학비도 제대로 못 주는 부모들이 아들딸이 결혼할 때가 되면 아주 귀찮게 간섭을 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버릇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집이 비교적 행복한 것도 우리 부모의 열렬한 책임감 때문입니다. (자기 팔뚝 시계를 보며) 지금이 저녁 일곱 시 반이니 아마 아버지가 곧 돌아오실 겁니다. 아버지는 늘 쾌활한 얼굴에다 발걸음은 참새처럼 가볍지요.

(줄음이 오는 지루한 음악과 더불어 철문 도어가 무겁게 열리며 교수 등장. 아래 위 양복이 원고지를 덧붙여 만든 것처럼 이것도 원고지칸 투성이다. 손에는 큼직한 낡은 가방을 들고 있다. 허리에 쇠사슬을 두르고 있는데 허리를 돌고 남은 줄이 마루에 줄줄 끌려다닌다. 쇠사슬이 도어 밖까지 나가 있어 끝이 없다. 도어를 닫고 소파에 힘겹게 앉는다. 여전히 쇠사슬을 끌고 다니면서 가방은 자기 옆에 놓고 처음으로 전면을 바라본다. 중년에 펴 마른 얼굴, 이마에는 주름살이 가고 찌푸린 얼굴은 돌 모양 변화가 없다. 잠시 후 피곤하다는 듯이 두 손을 옆으로 뻗치면서 크게 기지개를 한다. '아아' 하고 토하는 큰 하품은 무언에 두들겨맞아 죽는 비명같이 들려 오히려 관객들을 놀라게 한다. 장녀가 플랫폼에 나타난다.)

장녀 저의 아버지입니다. 밖에서 돌아오시면 늘 이렇게 달콤한 하품을 하신답니다. (교수는 머리를 기대고 잠을 자고 있다. 코를 고는데 흡사 고양이 우는 소리다.) 인제 어머니이 돌아오세요. 어머니은 늘 아버지의 건강을 염려하세요.

적당한 곳에서 처가 나타난다. 과거에는 살도 찢었지만 현재는 몸이 거의 형클어져 있다. 퇴색한 옷을 입고 있다. 소리를 안내고 들어와 잠자는 교수의 주머니를 살살이 툴다. 돈을 한 주먹 쥐고 이어 교수의 가방을 툴다. 돈 부스러기를 몇 장 찾아내고 그 액수가 적음에 실망을 한다. 잠시 후 교수를 흔들어 깨운다.

장녀 제 말이 맞았지요?

플랫폼 방 불이 서서히 꺼진다.

처 여보, 여기서 그냥 주무시면 어떡해요. 옷도 안 갈아입으시고.

교수 깜빡 잠이 들었군. (일어선다)

처 어서 옷을 갈아입으세요.

(처는 교수 허리에 친친 감긴 철쇄를 풀어헤치고 소파 뒤의 막대기에 감겨 있는 또 하나의 굵은 줄을 풀어 교수 허리에 다시 감아준다) 옷을 갈아입으시니 한결 시원하지 않아요?

교수 난 잘 모르겠어.

처 김씨 만나봤어요?

교수 아니, 원체 바빠서.

처 그렇지만 김씨 만나는 일이 제일 바쁘지 않아요. 내일까지 내야 하는데 전 어떡해요.

교수 내일 만나, 내일 만나.

처 내일 누가 누구를 만난단 말이에요?

교수 내가 그 이씨를 만난단니까.

처 이씨는 또 누구요?

교수 당신이 만나는 출판사 주인 말이야.

처 그 주인이 왜 이씨예요? 김씨지.

교수 그래, 김씨랬어.

처 이름도 못 외고 어떻게 해요.

교수 (화를 내며) 김씨면 어떻게 이씨면 언제? 박씨면 또 언제? 아닌게아니라 누구 누군지 분간을 못 하겠어. 누굴 만난다고 찾아가다가 보면 영 딴 사람한테 가게 된단 말이야.

출제 포인트

- ③ 「원고지」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똑같은 음악’과 3년 전과 다른 없는 ‘신문 기사’의 내용은 매일매일 똑같은 지루한 일상(노동)이 반복되는 현대인의 모습과 현대의 삶이 창조적이지 못하고 기계와 물질 속에 정제된 채로 단순한 순환만 거듭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반복되는 ‘신문 기사’의 해괴한 내용들은 현대인이 처한 사회 상황이 비정상적임을 그려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교수 (전략) 거 애들 보고 음악이나 한 곡 틀라고 하시오.
 처 (순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옆방을 향하여) 애들아. (잠시 후) 애들아. (대답이 없다. 여전히 부드럽게) 애들아.
 장남 (처의 소리와는 정반대로 호령이나 하듯이) 왜 그래요?
 처 가벼운 음악이나 한 곡 틀러. 아버지가 피곤하시단다.
 장남 알겠어요!

옆방에서 축음기 소리가 난다. 시끄럽고 귀가 아픈 곡이면 어떤 음악이건 상관없다. 판에 고장이 난 듯 똑같은 곡이 되풀이 된다. 처는 무표정한 얼굴, 교수는 시끄럽다는 듯이 손으로 귀를 막는다. 참다못해 교수는 손을 흔들며 중지하라는 시늉을 한다. 음악이 멎으면 옆방이 밝아진다. 소파에 앉아 무엇을 처먹고 있는 장남과 아무렇게나 앉아 화장을 하고 있는 장녀가 보인다.

교수 저런 시끄러운 음악을 무엇 때문에 듣까?
 처 왜 시끄러워요?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곡인데.
 교수 종전 나쁜건 간에 왜 똑같은 곡을 되풀이하느냐 말시오?
 처 당신이 음악을 몰라 그래요. 애들은 좋다고 하던데.
 교수 그 곡 이름이 뭐지?
 처 ‘찬란한 인생’ 이라나요.
 교수 찬란한 인생이라. 찬란한 인생이 자꾸 되풀이된다는 말이군.
 처 그런가 부쵸.

교수가 소파 앞에 굴러 있는 신문지를 집어 본다.

교수 (신문을 혼자 읽는다) 참 비가 많이 왔군. 강원도 쪽의 눈이 굉장한 모양인데. 또 살인이야. 이번에 두 살난 애가 자기 애비를 죽였대. 참 지프차가 동대문을 들이받아 동대문이 완전히 무너졌군. 지프차는 도망가 버리구. 이것 봐, 내 『개성을 잃은 노동자』라는 번역품이 착취사에서 다시 나왔어. 이씨가 또 당선됐군. 신경통에 듣는 한약이 새로 나왔는데. 끔찍해라. 남편이 자기 아내한테 또 매맞았군.

처가 신문지를 한 장 다시 집는다. 낱짜를 보더니

처 당신두 참, 그건 옛날 신문이에요. 오늘 것은 여기 있는데.
 교수 (보던 신문 낱짜를 읽고) 오라, 3년 전 신문을 읽고 있었군. 오늘 신문 이리 주시오. (오늘 신문을 받아가지고 다시 읽는다)

참 비가 많이 왔군. 강원도 쪽의 눈이 굉장한 모양인데. 또 살인이야. 이번에 두 살난 애가 자기 애비를 죽였대. 참 지프차가 동대문을 들이받아 동대문이 완전히 무너졌군. 지프차는 도망가 버리구. 이것 봐, 내 『개성을 잃은 노동자』라는 번역품이 악마사에서 다시 나왔어. 이씨가 또 당선됐군. 신경통에 듣는 한약이 새로 나왔는데. 끔찍해라. 남편이 자기 아내한테 또 매맞았군.

처 참, 세상도 무척 변했군요. 3년 전만 해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당신 피곤하시죠?

장녀 (옆방에서 화장을 하며, 장남에게) 애, 시계가 좀 늦는데 일어선 김에 밥이나 좀 줘라.

장남, 시계에 밥을 준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오후 아홉 시가 되자 감독관이 들어와 교수를 때리며 번역 일을 강요하고, 교수는 밤새 일을 하다 지쳐 잠에 든다.

장녀 아버지, 아침 신문 가져왔어요. 읽어드리겠어요.

교수 (하품을 하며) 그래, 읽어다오.

장녀 (신문을 읽는다) 비가 많이 왔어요. 강원도 쪽의 눈이 굉장한 모양이에요. 또 살인입니다. 이번엔 두 살난 애가 자기 애비를 죽였대요. 참 지프차가 동대문을 들이받아 동대문이 완전히 무너졌답니다. 지프차는 도망가 버리구. 이것 봐요, 아버지 『개성을 잃은 노동자』라는 번역책이 악마사에서 다시 나왔어요. 이씨가 또 당선됐답니다. 신경통에 듣는 한약이 새로 나왔군요. 끔찍도 해라. 남편이 자기 아내한테 또 매맞았대요.

교수 하룻밤 사이에 참 신기한 사건도 많아라. 세상이 그렇게 변해서야 어디 살 수 있겠니. 너 왼쪽 손에 들고 있는 종이는 뭐냐?

장녀 이거요?

영자 신문을 교수에게 준다. 교수는 받기가 무섭게 기계적으로 번역을 한다.

장녀 뭘 번역을 하세요?

교수 이 영어를 우리말로 고치는 거야. (그대로 번역을 한다)

장녀 아버지두 참! 그거 오늘 아침 영어 신문이에요.

교수 (신문을 보더니) 그렇군! 난 영어길래 곧 번역하려고 했지.

시계가 여덟 번을 친다. 교수는 무언가에 놀란 듯 황급히 일어나 가방을 들고 소파 쪽으로 가 철쇄를 바꾸어 맨다.

교수 벌써 여덟 시야. 빨리 가야지, 빨리 가야지.

Memo

KICE x EBS

현대 수필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이스탄불에 가서 느낀 글쓴이의 깨달음을 드러내는 수필이다. 이스탄불은 튀르키예의 한 도시로, 오스만 제국의 수도였다. 이슬람 제국이었던 오스만 제국은 다른 종교인 기독교 문화를 박해하지 않고 관대하게 받아들였는데, 그러한 흔적이 남아있는 이스탄불의 유적들을 보며 글쓴이는 관용에 대한 깨달음을 얻는다.

주제

이스탄불에서 얻은 깨달음

표현상의 특징

- ① ‘당신’이라는 독자를 설정함.
 - 예 “당신이 이스탄불로 나를 부른 까닭을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신이 보여 준 것은 이스탄불이 안고 있는 관용과 공존의 역사였습니다.” 등
- ② 비유적 표현을 사용함.
 - 예 “블루 모스크에서 나는 우리들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관용을 웅장한 오케스트라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 현란한 빛의 향연과 거대한 합창은 그 속에서 있는 나 자신을 풍선처럼 커지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등

이스탄불은 먼 곳에 있었습니다. 거리로는 로마나 파리보다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의식 속에는 훨씬 더 먼 곳에 있었습니다.
“이스탄불” : 튀르키예 서부, 보스포루스 해협에 면해 있는 도시. 동로마 제국과 오스만 튀르크의 수도였다.
“콘스탄티노플” : ‘이스탄불’의 옛 이름. 비잔틴 제국, 오스만 제국의 수도였다. “흑해” :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에 있는 바다. 우크라이나 · 루마니아 · 불가리아 · 튀르키예 등으로 둘러싸여 있음.
 이스탄불과 콘스탄티노플, 그리고 비잔틴이 서로 구별되지 않은 채 흑해처럼 몽매하기만 하였습니다.
“비잔틴” : 비잔틴 제국, 4세기 무렵 로마 제국이 동 · 서로 분열할 때 콘스탄티노플에 도읍하여 세워진 나라. 동방 정교회의 본산으로서 찬란한 비잔틴 문화를 이룩함.
 → 1문단 : “이스탄불”에 대한 글쓴이의 인식

이 아득한 거리감과 무지가 어디에서 왔는지 내게도 의문입니다. 이곳에 와서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지만, 그것은 나의 머릿속에 완강히 버티고 있는 이중의 장벽 때문이었습니다. 중국의 벽과 유럽의 벽이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우리 역사의 곳곳에 세워져 있는 벽이며 우리의 의식 속에 각인된 문화 종속성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스탄불로 오는 이번 여정도 이 두 개의 장벽을 넘은 셈입니다. 중국 대륙을 횡단하고 런던·파리·아테네를 거쳐서 이스탄불에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돌궐과 흉노는 중화(中華)라는 벽을 넘지 않고는 결코 온당한 실상을 만날 수 없으며, 마찬가지로 유럽이라는 “돌궐” : 6세기 중엽에 일어나 약 2세기 동안 몽골고원에서 중앙아시아에 걸친 지역을 지배한 터키계 유목 민족. 기원전 3세기 무렵부터 활약했던 중국 이민족 흉노의 후예로 보기도 함.
 높은 벽을 넘지 않고는 이슬람과 비잔틴의 역사를 대면할 수 없습니다. 만리장성보다 완고하고 알프스보다 더 높은 장벽이 우리의 생각을 가로막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 2~3문단 : “이스탄불”에서 얻은 깨달음

오늘은 그 두 개의 장벽을 넘어 이곳 이스탄불의 소피아 성당과 블루 모스크 사이에 앉아 이 엽서를 씁니다. 소피아 성당은 로마로부터 세계의 중심(Omphalion)을 이곳으로 옮겨 온 비잔틴 문명의 절정입니다. 직경 32m의 돔을 지상 56m의 높이에 그것을 받치는 단 한 개의 기둥도 없이 올려놓은 불가사의한 건축입니다. 「그보다 못한 유럽의 유적들이 예찬되고 있는 것에 생각이 미치면 또 한 번 우리들의 부당한 편견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 : “소피아 성당”을 보고 느낀 화자의 놀라움이 드러남.
 → 4문단 : “소피아 성당”을 보고 느낀 “이스탄불” 유적에 대한 놀라움

건물과 유적뿐이 아닙니다. 이스탄불에는 유럽 중심의 역사에서 완벽하게 소외된 수많은 사화(史話)들이 있습니다. 1453년 마호메트 2세가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시킬 당시의 이야기들도 그중 하나입니다. 배가 산을 넘는 등 무수한 무용담은 그리스와 로마의 전사에서도 그에 필적할 사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장대한 드라마입니다.
“사화” : 역사에 관한 이야기.
 → 5문단 : “이스탄불” 역사 이야기에 대한 예찬
“필적하다” : 능력이나 세력이 엇비슷하여 서로 맞서다.

그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이슬람에 대한 새로운 발견입니다. 1935년, 그때까지 이슬람 사원으로 사용되던 소피아 성당을 박물관으로 개조하면서 드러난 사실입니다. 벽면의 칠을 벗겨 내자 그 속에서 모자이크와 프레스코화로 된 예수상과 가브리엘 천사 등 수많은 성화들이 조금도 손상되지 않은 채 고스란히 나타났습니다. 500년 동안 잠자던 비잔틴의 찬란한 문명이 되살아난 것입니다.

“성화” : 기독교의 내용을 그린 종교화.

→ 6문단 : “이stanbul”에서 발견한 “이슬람”에 대한 새로운

벽면에 칠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는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한 일대 사건입니다. 「비잔틴 문명의 찬란함이 경탄의 대상이 되었음은 물론이지만, 그보다는 비잔틴 문명에 대한 오스만 튀르크의 관대함이 더욱 놀라웠던 것입니다. 이교도 문화에 대한 관대함이었기에 더욱 돋보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 7문단 : “이슬람”에 대해 놀란 이유

「」 : “이슬람”에 대해 놀란 이유가 드러남. → 이교도에 대한 관대함.

「적군의 성을 함락시키면 통상적으로 3일 동안 약탈이 허용되는 것이 이슬람의 관례였습니다. 그러나 마호메트 2세는 콘스탄티노플을 함락하고 난 다음 바로 이 소피아 성당으로 말을 몰아 성당 파괴를 금지시켰습니다. 다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성소를 파괴하지 말라는 엄명을 내린 다음, 이제부터는 이곳이 사원이 아니라 모스크라고 선언하고 일체의 약탈을 엄금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오스만 튀르크가 그들보다 앞선 유럽 문명의 정화(精華)를 그대로 계승하겠다는 의지라고 할 수도 있었지만, 내게는 이슬람의 그러한 관용이 매우 감동적이었습니다.」

“정화” : ① 깨끗하고 순수한 알짜.

② 정수가 될 만한 뛰어난 부분.

→ 8문단 : “오스만 튀르크”의 관대함

「」 : “이슬람”의 관용에 대한 글쓴이의 감동이 드러남.

이슬람의 이러한 전통이야말로 오늘날의 이스탄불을 공존과 대화의 도시로 남겨 놓았습니다. 동과 서, 고와 금이 함께 숨 쉬고 있습니다. 이스탄불은 보스포루스 해협을 사이에 두고 유럽 대륙과 아시아 대륙에 걸쳐 있는 실크로드의 종착지입니다. 터키는 스스로 아시아·그리스·페르시아·로마·비잔틴·오스만 튀르크 등 역대 문명을 계승하고 있는 나라로 자부합니다. 카파도키아·에페소스·트로이 등지에는 지금도 그리스·로마의 유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터키를 모자이크의 나라라고도 합니다.

“보스포루스 해협” : 튀르키예 서쪽 소아시아 서북쪽과 발칸반도 동쪽 끝 사이에 있는 해협.

“터키” : 튀르키예의 전 이름.

“실크로드” : 내륙 아시아를 횡단하여 중국과 서아시아·지중해 연안 지방을 연결하였던 고대의 무역로.

→ 9문단 : 공존과 대화의 도시 “이stanbul”

소피아 성당도 이슬람 사원인 블루 모스크와 마주 보고 서 있습니다. 기독교와 이슬람교가 공존하는 모습입니다. 터키의 역사에서는 이단에 대한 박해보다는 다른 종교에 대해 보여 준 관대함이 더 많이 발견됩니다. ‘한 손에 코란, 한 손에 칼’이라고 배웠던 세계사 교과서의 서구적 사관이 부끄럽기까지 합니다. 당신의 말처럼 이 구절은 ‘한 손에 코란, 한 손에 세금’으로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세수(稅收)의 감소 때문에 개종을 허락하지 않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터키의 이러한 관용은 북만주에서부터 중국 대륙을 거쳐 중앙아시아·중동·아프리카에 걸치는 역사의 대장정 속에서 길러 온 도량인지도 모릅니다. 대제국은 결코 칼이나 강제에 의하여 건설될 수도 없고 경영할 수도 없다는 것이 역사의 진리이기도 합니다.

“코란” : 이슬람교의 경전.

“세수” : 국민에게서 세금을 징수하여 얻는 정부의 수입.

“도량” : 사물을 너그럽게 용납하여 처리할 수 있는 넓은 마음과 깊은 생각.

→ 10문단 : “터키”의 관대함

「우리들은 저마다 자기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자기에게 없는 것, 자기와 다른 것들에 대한 애정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이곳 이스탄불에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내면의 애정이 관용과 화해로 개화할 수 없었던 까닭은 지금까지 인류사가 달려온 험난한 도정(道程) 때문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타인에 대한 이해는 물론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성찰도 없이 가파른 길을 숨 가쁘게

“도정” : 어떤 장소나 상태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달려왔기 때문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어떠한 목표였건 그것은 나중 문제입니다.」

→ 11문단 : “이stanbul”에서 얻은 깨달음

「」 : “이stanbul”에서 얻은 “관용”과 “애정”에 대한 깨달음과 성찰이 드러남.

「블루 모스크에서 나는 우리들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관용을 웅장한 오케스트라로 만날 수 있었습니다. 288개의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빛줄기가 99가지 청색으로 장식된 공간에서 현란한 빛의 향연을 연출합니다. 이것이 곧 이스탄불이 자부하는 과거와 현재, 동과 서의 거대한 합창이었습니다.」『이 현란한 빛의 향연과 거대한 합창은 그 속에 서 있는 나 자신을 풍선처럼 커지게 하는 것 같았』 : 관용을 보여주는 “블루 모스크”의 현란한 빛을 “오케스트라”에 빗대어 표현함.

습니다. 자기와 정반대 편에 서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심했다는 한 유학생의 감동적인 변화도 바로 이스탄불의 관용이 피워 낸 한 송이 꽃인지도 모릅니다.』

『』 : “블루 모스크”에서 느낀 글쓴이의 인식이 드러남.

→ 12문단 : “블루 모스크”에서 볼 수 있는 관용

당신이 이스탄불로 나를 부른 까닭을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신이 보여 준 것은 이스탄불이 안고 있는 관용과 공존의 역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화라는 강자의 논리를 역조명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각을 안겨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스탄불에 있는 동안 내가 바라보고 있었던 것은 나의 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대한 두 개의 장벽이었습니다. 장벽은 단지 장벽의 건너편을 보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 스스로를 한없이 왜소하게 만드는 굴레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식 속에 얼마나 많은 장벽을 쌓아 놓고 있는가를 먼저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열어 가는 멀고 먼 여정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 13~14문단 : “이스탄불”의 ‘장벽’을 통해 얻은 깨달음과 성찰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홀로 경주를 배회하며 느낀 것들을 그려낸 기행 수필이다. 글쓴이는 경주의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풍경을 묘사하기도 하고 하늘에 뜬 달을 예찬하며 깨달음을 얻기도 한다. 씨름판에 도달한 글쓴이는 씨름을 구경하며 토속적 유희인 씨름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드러내고 계속해서 홀로 경주를 배회한다.

주제

경주의 풍경과 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표현상의 특징

① 공간의 이동이 드러남.

② 기행문 형식이 드러남.

예 “여관 옆에는 새로 난 요릿집이 있어 장구 소리와 노랫소리가 난다.”, “침침한 좁은 골목을 나서 제법 전등깨나 켜 있는 큰길로 걸어갔다.”, “나는 봉황대로나 올라갈까 하고 발을 멈추고 망설이다가는 다시 그 반대의 방향으로 나아갔다.”, “나는 일종 새로운 흥미를 일으켜 우선 그 씨름판을 향해 간다.”

나는 여관을 나섰다, 저녁을 먹고.

이 경주는 벌써 두어 번이나 본 곳이지만 지금도 처음 보는 것같이 모든 것이 새롭고 이상하게서 생각난다. 판은 온종일 차에 시달려 온몸이 아니 피곤한 건 아니나 방 안에 누워 있기는 싫고 자꾸 밖으로 밖으로 나가고만 싶다.

□ : 공간의 이동이 드러남.

「여관 옆에는 새로 난 요릿집」이 있어 장구 소리와 노랫소리가 난다. 가만히 귀를 기울이고 들어 보았다. 경주다운 노래나 아닌가 하고, 「」 : 여관을 나와 돌아다니며 보는 「경주」의 풍경이 드러남.

그러나 나의 요구와는 아주 다르다. 어디서든지 들을 수 있는 이 근래 유행하는 노래 그것이다. 실패다. 다른 데로 나가 볼 수밖에 없다.

침침한 좁은 골목을 나서 제법 전등깨나 켜 있는 큰길로 걸어갔다. 좌우에 있는 상점, 포목점, 잡화점, 사기점, 철물점, 과자점 따위가

“사기점” : 사기그릇을 파는 가게.

“포목점” : 베나 무명 따위의 옷감을 파는 가게.

역시 일인(日人)이 아니면 지나인(支那人)의 것이고 물러 터진 감, 능금, 배나 그 옆에 몇 개 놓고 파는 것만은 그들이 아니다. 하나 어느

“일인” : 일본인.

“지나인” : 중국 국적을 가진 한족, 몽골족, 티카족, 티베트족, 그리고 만주족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

것이든지 거기에는 먼지 하나 움직이지 않고 전등은 가물가물하고 상인은 졸고 있고 이따금 어디서 쿵쿵쿵쿵 기침 소리만 날 뿐이다.

나는 봉황대로나 올라갈까 하고 발을 멈추고 망설이다가는 다시 그 반대의 방향으로 나아갔다. 점점 전과 같은 가로(街路)도 아니고,

“봉황대” : 경상북도 경주시에 있는 신라 때의 무덤.

“공지” : 집이나 밭 따위가 없는 비어 있는 땅.

“가로” : 시가지의 넓은 도로.

상점도 없고, 부조화하여 보이는 일본집 또는 고옥과 공지가 보이고, 흰 저고리 검정 치마 입은 젊은 여자 오록 인이 길에 서서 가는

“고옥” : ① 지은 지 오래된 집. ② 멀리 외따로 떨어져 있는 집. ③ 높다랗게 잘 지은 집.

웃음을 치며 소곤소곤하고, 머리 땅은 총각 상투 끝은 늙은이 몇 사람은 앞으로 어슬렁어슬렁 걸어간다. 나도 그 뒤를 따라간다. 이제는

인가도 드물고 벚논, 콩밭, 수수밭 가운데 커다란 신작로만 고요히 누워 있는 곳이다. 나는 이곳에 서서 사면을 둘러보았다. 멀리 둘러

“반월성” : 봉화를 올리던 둑.

있는 산과 산이며 전등이 가물거리는 시가며 둥글둥글한 봉화대들이며 또는 계림이며 첨성대며 반월성이며 안압지며 그 한편의 빈

“봉화대” : 봉화를 올리던 둑. “계림” : “경주”의 옛 이름.

“안압지” : 경상북도 경주시 동북쪽에 있는 못.

들판들을, 그리고 동천에 떠오르는 저녁달을 바라보았다.

“동천” : ① 겨울 하늘. ② 동쪽 하늘. → 3~5문단 : “경주”의 풍경.

「이때 이 달은 다만 나를 위하여 비쳐 주는 것 같다. 어쩌나 그리도 고마운지 모르겠다. 이때까지 보던 달에는 이때 이곳에서 본 달처럼

「」 : “달”에 대한 글쓴이의 긍정적인 인식이 드러남.

귀엽고 사랑스러운 달이 없었다. 다만 밝다, 아름답다는 간단한 말로는 도저히 형용할 수 없다. 아무리 표정을 잘하는 미인이라도 이때 이 달과 같은 얼굴은 할 수 없으리라고 했다.

「생각하면 육부(六部)의 여자가 한가위 놀이를 하던 달도 저 달이요, 태종 무열대왕과 문명 황후의 사랑이 열매를 맺게 하던 달도

“육부” : 신라 때에, 씨족을 중심으로 나눈 경주의 여섯 행정 구역.

저 달이요. 천삼백육십 방(坊) 십팔만 호(戶)에 비치던 달도 저 달이요, 임해전 놀음에 밤 가는 줄을 모르게 하던 달도 저 달이요, “동경

“방” : 부(部)를 다시 나눈 행정 구역.

“임해전” : 삼국 시대에, 신라에서 봉래산을 본떠서 경주 동쪽에 못을 파고 지었다는 전각.

밝은 달에……” 하고 처용이로 하여 노래를 부르게 하던 달도 또한 저 달이 아닌가.

“회수” : 화이수이강. 중국 화중 지방을 흐르는 강.

과연 저 달을 어디에다 비할까. 심양강 상(上)에나 회수 동변(東邊)에 비치던 달로도 비할 수 없는 저 달이다.』 → 6~8문단 : “달”에 대한 예찬

“심양강” : 양쯔강의 한 지류. “동변” : 동쪽 편.

「과거의 경주에 비친 달도 그렇고 장래의 경주에 비칠 달도 이러하다면 지금 나를 중심으로 한 저 달이 그 얼마나 무한한가. 저 달을 「」 : “달”을 보며 깨달은 화자의 인식이 드러남.

보는 이때에 그 무한한 느낌을 아니 가질 수 없으며 백 년의 인생이나 천 년의 신라도 한 찰나에 지나지 못함을 알게 한다…….」

→ 9문단 : “달”을 보며 얻은 깨달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을 때 저편에서 남자와 소곤거리는 소리가 점점 가까이 나더니,

“……이것이 인생이 아니고 무언가.”

하는 여자의 말만 분명히 들리며 어떤 청년 하나 이 여자의 손목을 잡고 내 옆으로 살짝이 비껴서 지나간다. 그러고는 다시는 오고 가는 이도 보이지 않고 달만 달만 한 모양으로 보인다. → 10~11문단 : 지나가는 남녀

나는 처음 오는 이 길 이 아무 굴곡도 없고 고하도 없고 가도록 한 모양으로 평탄하여 가기가 싫으나 그것이 얼마나 연장이 되었나,

“고하” : 높고 낮음.

그 그치는 곳까지 가서 보리라 하는 희망에 끌려 앞으로 다시 발길을 내디뎠다. 또 콩밭, 수수밭, 벼논을 밟을 지났는지 알 수 없고 수없는 벌레 소리는 요란히 들린다.

가 보니 탄은 머잖은 길이다. 바로 넓은 백사장 하나가 보이고 그 건너는 거뭇한 숲과 조그마한 산이 가로막혀 있고 백사장 한편에 서는 불빛이 반짝이고 여러 사람의 떠드는 소리며 북장구, 노랫소리가 난다. 아하, 이것이 북천(北川) 내인가, 씨름판이 아닌가, 올해는 풍년이라 풍년을 축하하기 위하여 이 근처 농민들이 모여 북천 내에 씨름판을 열었다 함은 이 경주를 찾아올 때 차 속에서 누구에겐가 들은 법하다. 옳지, 이것이 그것이다. 「나는 일중 새로운 흥미를 일으켜 우선 그 씨름판을 향해 간다.」

「」 : “씨름판”에 대한 글쓴이의 흥미가 드러남.

백사장으로 보이던 곳은 사뭇 조약돌 판이다. 한편에 물이 좀 흐르는 듯 마는 듯하고는 반들반들한 조약돌뿐이다. 한참 밝아 가니 발이 아프다. 거의 숲이 있는 데까지 가서야 씨름판이 나선다.

씨름판은 한가운데에는 모래를 듬뿍 깔아 놓고 그 가장자리로는 뽕 둘러앉은 이, 선 이, 수가 없으며, 기다란 햇불을 잡은 두 사람이 양쪽에 하나씩 서서 그 테두리 안으로 들어서는 이가 있으면 햇불을 내둘러 쫓아내기도 하며, 한쪽에는 높이 시령을 매어 놓고 그중 특수한 이가 그 위에 앉은 모양이며, 씨름은 아무나 자원대로 나와서 하며, 이긴대야 나중 결승하는 날이 아니면 상품은 아니 준다 하는데 씨름꾼은 대개 상투쟁이가 아니면 머리 땀은 총각들이다. 구경하러 온 이도 또한 그런 이들이고 간혹 기생을 데리고 온 양복쟁이 몇 사람이 있을 뿐이다. 순 경주 사투리를 써 가지고 함부로덤부로 떠드는 소리는 귀에 설기는 하지만 토속 연구의 재료로는 이 밖에 다시 없을 것 같다.

그리고 또 한옆으로는 좌우로 나가며 가갯막을 벌여 놓고 음식도 팔고 잡화도 팔고 가지가지 오락도 한다. 이렇게 하여 밤을 새우고

“가갯막” : 허름하게 대강 엮어 임시로 만든 집.

낮을 이어 삼사일 동안을 보내는 것이다.

→ 12~16문단 : 계속해서 걷다가 발견한 “씨름판”의 풍경

씨름법도 여러 가지가 있다 하나 보기에는 펍 단순하다. 원시적 유희라, 향촌의 농민들이 오월 단오 팔월 추석 같은 명절을 당하여 일반적으로 하던 유희라, 아무 설비도 없이 간단히 되는 유희라, 이 유희야말로 농민에게는 가장 합리적으로 된 것 아닌가. 나는 이 씨름을 단원(壇園)의 풍속화에서 보았고 그 실물은 지금 여기서야 보게 된다. 「다른 경기장에 가서 얻은 감상으로는 여기에 비길 수

“단원” : 조선시대의 화가인 ‘김홍도’의 호.

「」 : “씨름”에 대한 글쓴이의 긍정적 인식이 드러남.

없다. 씨름, 단순한 그것이 좋아 보인다. 천진스러워 보인다. 순박한 농민의 성격이 그대로 잘 드러나 보인다.」

→ 13문단 : "씨름"에 대한 긍정적 인식

나는 다시 **조약돌 판**으로 나와 이리저리 어정이었다. 달은 중천에 떠 있다. 나를 따르는 이는 다만 나의 그림자만이다.

→ 14문단 : "씨름판"에서 "조약돌 판"으로 나와 다시 홀로 "경주"를 배회하는 글쓴이의 모습

|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봄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을 드러내는 수필이다. 봄을 맞이하는 글쓴이는 해를 거듭할수록 연륜이 늘어나는 나무와 사람에 대해 말하며 젊은이의 봄보다 늙은이의 봄이 더 많은 가치를 지녔다는 인식을 드러낸다. 또한 뜰 앞의 밀감나무가 봄을 대하는 것을 보며 겨울을 이겨낸 동쪽 가지에 대한 예찬을 드러내고 봄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에 대한 조언을 전한다.

| 주제

봄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

| 표현상의 특징

① 비유적 표현을 사용함.

예 “그러기에 지나간 가을은 해가 멀어 갈수록 아득하게 호수처럼 깊어 있고, 오는 봄은 해가 거듭될수록 쌓이고 쌓여 더욱 부풀어 가지 않는가.”, “오늘따라 주위는 말할 수 없이 고요하고 파스한 햇빛이 백금처럼 빛나고 있다.” 등

② 대비적 표현을 사용함.

예 “젊은이의 봄은 기쁨으로 차있는 흘겁의 봄이지만 늙은이의 봄은 기쁨과 슬픔을 아울러 지닌 겹겹의 봄이다.”

창에 드는 별이 어느덧 봄이다.

봄은 맑고 고요한 것. 비원의 가을을 걸으며 낙엽을 쥐어 본 것이 작년이란 말인가. 나는 툇마루에서 봄별을 쏘이며 비원의 가을을 연상한다. 가을이 가고 봄이 온 것은 아니다. 가을 위에 겨울이 오고 또 봄이 온 것이다. 그러기에 지나간 가을은 해가 멀어 갈수록 아득하게 호수처럼 깊어 있고, 오는 봄은 해가 거듭될수록 쌓이고 쌓여 더욱 부풀어 가지 않는가.

→ 1~2문단 : “가을”과 “봄”에 대한 글쓴이의 인식

나무는 해를 거듭하면 연륜이 하나씩 늘어 간다. 그 연륜을 보면 지나간 봄과 가을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둘레에 남아 금을 굵고 있다. 가을과 봄은 가도 그들이 찍어 놓고 간 자취는 가시지 않고 기록되어 있다. 사람도 흰 터럭이 하나하나 늘어 감에 따라 지나간 봄과 가을이 터럭에 쌓이고 쌓여 느낌이 커 간다.

→ 3문단 : 해를 거듭하며 연륜이 늘어가는 “나무”와 “사람”

「꽃을 보고 반기는 소녀의 봄은 꽃뿐이지만, 꽃을 캐는 소녀를 아울러 봄으로 느끼는 봄은 꽃과 소녀들이다. 사랑을 노래하는 청춘의 봄은 화려하고 찬란한 봄이지만, 그것을 바라보고 느끼는 봄은 인생의 끝없는 봄이다. 누가 봄을 젊은이의 것이요, 늙은이의 것이 아니라 하던가. 젊은이의 봄은 기쁨으로 차있는 흘겁의 봄이지만 늙은이의 봄은 기쁨과 슬픔을 아울러 지닌 겹겹의 봄이다. 과거란 귀중한 재산, 과거라는 재산이 호수에 가득 찬 물결같이 고이고 고여서 오늘을 이루고 있는 것, 물 위에 호수가 따로 없듯이 과거를 떠나서 오늘이 따로 없는 것. 그러므로 물이 많을수록 호수가 아름답고 과거가 길수록 오늘이 큰 것이다.」

→ 4문단 : 젊은이의 봄과 다른 늙은이의 봄

「」: “젊은이”의 “봄”과 대비하여 “늙은이”의 “봄”에 대한 가치를 드러냄.

늙어서 봄을 맞으며 봄을 앞으로 많이 못 볼까 슬퍼할 필요는 없다. 그동안 많이 가져 본 봄이 또 하나 누는 것을 대견하게 생각할 일이다. 산에 오르거나 먼 길을 걸을 때, 십 리고 이십 리고 가서 뒤를 돌아다보고는 내가 저기를 걸어왔구나 하며, 흐뭇하고 자랑스러운 때도 있다. 그리고 돌아다보는 경치가 걸어들 때보다 놀랍게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때도 있다. 다만 지나온 추억을 더듬어 한 개의 진주를 발견하지 못하고 거친 모래알만 쥐어질 때, 그것이 슬프다. 보잘것없는 내 과거가 항상 오늘을 슬프게 할 뿐이다.

→ 5문단 : 늙은이의 봄

뜰 앞에 한 그루 밀감나무가 서 있다. 동쪽 가지 끝에 파릇파릇 싹이 움 돌기 시작한다. 굵은 가지에서도 푸른 생기가 넘쳐흐른다.

미구에 잎이 퍼지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힐 것이다. 집안사람들의 기대가 사뭇 크다. 그러나 서쪽 가지에서는 소식이 없다. 나무의

“미구” : 얼마 오래지 아니함.

절반은 죽은 가지다. 죽은 가지에 봄은 올 리 없다. 지난겨울에 잎이 다 떨어지고 검은 등걸만 남았을 때, 혹 죽지나 아니했나 염려도 했고, 봄이 되면 살아나겠지 믿기도 했었다. 그러나 같은 나무 한 등걸에서 한 가지는 살고 한 가지는 죽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등걸” : 줄기르 자라 난 나무의 밑동.

「하지만, 눈보라 추운 속에서도 한 가지는 생명을 기르며 겨울을 살아왔고, 한 가지는 그 속에서 자기를 살리지 못했던 것이다. 저 동쪽
「」: "밀감나무"의 "동쪽 가지"에 대한 예찬적 태도가 드러남.

가지의 씩씩하고 발랄한 생의 의지. 지난겨울 석 달 동안, 마음속으로의 안타까운 저항. 그리고 남모르는 분투와 인내! 이에 대한 무한한
"분투": 있는 힘을 다하여 싸우거나 노력함.

경의와 찬사를 보내고 싶다.」 봄이 가면 봄이 없다고 슬퍼함은 일 년을 사는 곤충의 슬픔이다. 교목은 봄이 열 번 가면 열 개의 봄을,
가을이 백 번 가면 백 개의 가을을 지낸다.

→ 6문단: 틀 앞의 밀감나무

생활에 따라서는 인류 역사 억만년의 봄이 다 내 몸에 간직된 봄이요, 생각에 따라서는 잊지 못할 뚜렷한 봄이란 또 몇 날이 못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오래 세상에 머물러 봄을 여러 번 보는 것이 귀한 게 아니라, 봄을 봄답게 느끼고 지나온 모든 봄을 회상하며 과거를
잊지 않고 되새기는 것도 우리의 생활을 풍부하게 해줄지언정 섭섭할 것은 없다.

다만 봄은 나를 잊지 않고 몇 번이라도 찾아와 세월을 깨우쳐 주었건만, 둔감과 태만이 그를 저버린 채 헛되게 늙은 것이 아쉽고
한스러워 다시 찾아 주는 봄에 죄의식조차 느낀다. 그러나 이제 발버둥쳐 봐도 미칠 수 없는 일, 고요히 뜰 앞을 거닐며 지나간 봄의
가지가지 추억과 회상에 잠겨 보는 것이다. 오늘따라 주위는 말할 수 없이 고요하고 파스한 햇빛이 백금처럼 빛나고 있다.

→ 7~8문단: 봄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자그마한 뜰과 나무들을 통해 얻은 글쓴이의 깨달음을 드러내는 수필이다. 처음 그 뜰에 그 나무들을 심은 사람에 대한 궁금증으로부터 장 지오노의 소설 『나무를 심은 사람』 속 인물 ‘엘제아르 부피에’를 떠올린 글쓴이는 집을 떠나는 아쉬움에 살구나무를 심으며 엘제아르 부피에를 이해하고 자신에 대한 성찰을 드러내며 깨달음을 얻게 된다.

주제

조그마한 뜰과 나무들을 통해 얻은 깨달음

표현상의 특징

① 구체적 경험을 제시함.

예 “그 집에는 자그마한 뜰이 있었다.”, “시간이 날 때마다 나는 그 나무들을 돌보았다.”, “그 봄날 내 주머니에는 삼만 원이 남아 있을 따름이었다. 그런데 무슨 결심이라도 한 사람처럼 나는 나가서 이만 오천 원 하는 살구나무 한 그루를 사 가지고 돌아왔다.” 등

② 역설적 표현을 활용함.

예 “내가 떠난 집, 내가 잃어버린 나무들. 그러나 나는 그들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그들은 나보다 더 오래 그 자리에 남아 햇빛을 향해 몸을 기울일 것이기에.”

「그 집에는 자그마한 뜰이 있었다. 처음으로 집을 장만했다는 기쁨보다도 무언가 심고 가꿀 수 있는 몇 평의 땅이 생겼다는 기쁨이 내게는 더 컸다. 그곳엔 이미 목련, 라일락, 감나무, 대추나무, 장미 등이 한두 그루씩 심어져 있었다. 그 나무들이 서로 썩 어울리는 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크고 작은 그늘을 만들며 기대어 있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흔한 그 나무들은 이제 내 뜰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내게 특별한 존재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 “자그마한 뜰”과 “나무들”에 대한 글쓴이의 애정이 드러남.

→ 1문단: “자그마한 뜰”과 “나무들”에 대한 글쓴이의 애정

「시간이 날 때마다 나는 그 나무들을 돌보았다. 이파리만 무성하고 열매가 부실한 감나무 아래에는 거름을 넉넉히 넣어 주고, 웃자란 라일락 가지들은 전지를 해 주고, 장미는 베란다 쪽으로 넝쿨을 올려 주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쥐똥나무 울타리를 가지런하게 잘라 주는 일도 잊지 않았다. 반 넘게 말라 버린 목련 나무는 남은 부분을 살려 내느라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모른다. 겨울을 보내고 난 어느 날 마른 가지 위로 단 한 송이의 목련이 피어났을 때, 내게는 그 한 송이가 다른 뜰의 수백 송이 꽃보다 더 눈물겹게 아름다웠다.」

「」: 정성스럽게 “나무들”을 돌보고 보람을 느낀 글쓴이의 모습이 드러남.

→ 2문단: 정성스럽게 “나무들”을 돌보는 글쓴이의 모습

나무에 쏟은 내 정성도 적지 않은 것이었지만, 그 나무들이 내게 준 위안과 기쁨은 그보다 훨씬 컸다. 그 그늘 아래서 풀을 뽑아 주고 벌레를 잡아 주고 있노라면 시름도 불안도 그렇게 뜰 밖으로 던져지곤 했으니까. 한편으로는 어디론가 자꾸만 달아나려는 내 마음을 그 뿌리들 속에 붙잡아 매려는 안간힘 같은 것이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렇지 않았다면 왜 그토록 나무 몇그루에 애착을 넘어선 집착을 보였겠는가. 몇 송이의 꽃과 몇 줌의 열매, 그리고 향기와 그늘을 내어 주던 그 나무들이 내게는 하나의 피난처처럼 느껴지던 무렵이었다. 「그러면서 생각했다. 나에게 그런 그늘과 향기를 준 사람, 그러니까 그 나무들을 여기에 처음 심은 사람은 누구였을까, 하고.」

「」: “나무들”에 애착을 느끼던 글쓴이의 궁금증이 드러남.

→ 3문단: “나무들”에 대한 글쓴이의 애착과 궁금증

그런 때마다 나는 장 지오노의 소설 『나무를 심은 사람』을 떠올렸다. 프로방스 지방의 황무지에 하루도 쉬지 않고 떡갈나무와 자작나무를 심었던 엘제아르 부피에. 아내와 아들을 잃은 그가 참담한 고독 속에서 뿌려 낸 씨앗은 황무지를 풍요로운 숲과 마을로 변화시켜 놓았다. 자신이 나무를 심고 씨를 뿌리는 땅이 누구의 소유인지는 그에게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 다만 자신을 버텨 내고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그는 나무 심는 일을 선택했던 것이다.

「이처럼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당장 자기가 무엇을 얻고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먼 훗날의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일이다. 나무를
「」: “엘제아르 부피에”를 통해 얻은 글쓴이의 깨달음이 드러남.

가꾸는 동안의 수고로움 역시 그 아름다움이 굳이 자기의 것이 아니어도 좋다는 생각에서 비롯된다. 사람이 나무보다 아름다워지는
때가 있다면 바로 그런 순간일 것이다.」

→ 4~5문단: “엘제아르 부피에”를 통한 깨달음

「그러나 나는 내가 덜 불행해지려고 나무를 가꾸었던 것 같다. 마음에 잔뜩 품고 있는 독을 중화시키고 내 병을 대신 앓게 하려고
그 푸른 것들에 머물렀던 것만 같다. 엘제아르 부피에처럼 처음 그 나무들을 심은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나는 내 집착의 뿌리를 서서히
더듬기 시작했다.」

→ 6문단: “엘제아르 부피에”를 통한 성찰

「」: “엘제아르 부피에”와 다른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성찰하는 글쓴이의 모습이 드러남.

그런데 뜰에 대한 집착을 스스로 버리기도 전에 우리 식구는 그 집을 떠나게 되고 말았다. 일 년 남짓이나 살았을까, 갑자기 닥친
빛 때문에 집을 포기해야만 했을 때, 나에게 가장 포기가 안 되는 것은 집보다도 그동안 정들여 키운 나무들이었다. 그 봄날 내 주머니
에는 삼만 원이 남아 있을 따름이었다. 그런데 무슨 결심이라도 한 사람처럼 나는 나가서 이만 오천 원 하는 살구나무 한 그루를 사
가지고 돌아왔다. 「나는 살구나무가 아니라 이만 오천 원짜리 ‘희망’ 한 그루를 내 뜰에 옮겨 심고 싶었으리라. 그 살구나무 한 그루를
「」: “엘제아르 부피에”와 같이 나무를 심음으로써 자신을 버려 내고자 하는 글쓴이의 모습이 나타남.

땅에 꽃음으로써 스스로를 버려 내고 싶었으리라.」

나는 그제서야 엘제아르 부피에를 이해할 것 같았다. 모든 걸 잃어버렸다는 생각이 들 때, 자신이 살아 있다는 것을 어떤 식으로든
확인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때, 사람은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 나무를 심는다는 것을. 엘제아르 부피에로 하여금 나무를 심게
한 것은 어떤 거창한 목표나 선견지명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은 자의 절망과 고독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간절히 믿고 싶었다. 엘제아르
부피에가 심은 떡갈나무가 그랬던 것처럼 이 살구나무 한 그루가 잘 커 나가기를.

→ 7~8문단: “엘제아르 부피에”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

살구나무 묘목에는 벌써 흰 꽃망울들이 자잘하게 맺혀 있었다. 그러나 뿌리를 제대로 못 내렸는지 꽃망울들은 활짝 펴 보지도 못하고
땅에 우수수 떨어져 내리고 말았다. 우리 식구는 결국 여름이 시작될 무렵 그 집을 떠나게 되었고, 살구나무는 거기 남게 되었다. 이삭
짐을 싣고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돌아본 살구나무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나도 모르게 눈에 그렇고이던 눈물. 돌아올 거라고,
다시 돌아와 얼마나 자랐는지 만져 볼 거라고 중얼거리며 돌아서던 내 뒷모습을 그 나무는 보고 있었을까.

그 후로 마치 식구 하나를 남겨 두고 온 것처럼 이따금 그 나무의 안부가 궁금해지고는 한다. 처음엔 과일가게에서 노란 살구를 보고도
마음이 울컥해서 한참을 그 앞에서 머뭇거린 때도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마음이 그 뜰에서 멀어질수록 살구나무 생각이 그리
고통스럽지만은 않았다. 지금쯤 꽃이 피었겠지…… 올해는 그래도 열매를 꽤 달지 않았을까…… 꼭 내 뜰에서가 아니더라도 그곳에 잘
뿌리 내려 꽃과 열매를 전해주기를…… 누군가의 마음을 환하고 서늘하게 만들어 주기를…… 그래야 너와 더불어 살던 이만 오천 원짜리
내 희망도 곳곳하게 살아 있을 테니까.

→ 9~10문단: “살구나무”에 대한 글쓴이의 애정

조그마한 돌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나는 모든 땅이 내가 씨 뿌리고 일구어야 할 터전임을 알게 되었다. 그토록 편애하던 나무들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나는 더 많은 나무들을 얻게 되었다. 이제 세상에 살아 있는 모든 나무들이 내 나무인 것 같다. 아니 죽어 가는, 죽어 있는 나무들조차 나와 무관한 존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산 나무와 죽은 나무의 향기. 그것은 나무 자체가 가지고 있는 향기이면서 동시에 나무를 심고 만지는 인간의 손끝에서 나온 향기이기도 하다. 내가 떠난 집, 내가 잃어버린 나무들. 그러나 나는 그들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그들은 나보다 더 오래 그 자리에 남아 햇빛을 향해 몸을 기울일 것이기에.

→ 10~11문단 : "조그마한 돌"을 잃고 얻은 깨달음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글쓴이가 그리는 낙원의 모습을 통해 어린 시절 고향의 모습을 보여주는 수필이다. 사람이 구상하는 낙원의 모습은 모두 각자 어린 시절 향유했던 고향의 모습과 닮아있다는 글쓴이의 인식을 드러내며 글쓴이가 그리는 낙원의 모습 또한 글쓴이의 고향과 닮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주제

낙원과 고향의 밀접한 연관

표현상의 특징

① 감각적 표현을 활용함.

예 “우리가 구차했던 시절, 고향의 4월을 그나마도 살 만하게 했던 것은 여기저기 뭉게구름처럼 땡그랗게 피어 있던 그 살구꽃이었다.”, “내 낙원의 길가에는 푸른 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다.”, “나의 낙원에는 말할 것도 없이 새소리가 흔하다.” 등

② 노래를 삽입함.

예 “자주 꽃 핀 건 자주 감자 / 파 보나마나 자주 감자 / 하얀 꽃 핀 건 하얀 감자 / 파 보나마나 하얀 감자”, “보리 이삭 돌아나면 / 종달새 간다지 / 떠나는 그날에도 / 보리피리 불어 주마”

“협착한” : ① 차지하고 있는 자리가 매우 좁은.
② 처하여 있는 사정이나 형편이 매우 어려운.
“낙원” : ① 아무런 괴로움이나 고통이 없이 안락하게 살 수 있는 즐거운 곳.
② 고난과 슬픔 따위를 느낄 수 없는 곳이라는 뜻에서, 죽은 뒤의 세계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옛적의 유대 민족 사이에서는 성년이 된 자식을 짝을 지워 집에서 쫓아내는 풍습이 있었다. 협착한 고향과 아버지의 터전을 벗어나 독립하여 타관에 가서 삶의 새 가능성을 열어 보라는 관습의 명령이었다. 이렇게 자식을 떠나 보냄으로써 좁은 터전에서 대가족이 아웅다웅하는 볼품없는 정경을 예방할 수 있었다.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낙원 상실 얘기의 원천을 바로 이러한 유대 민족의 옛 풍습에서 찾는 학자들도 있다. 에덴 동산은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고향의 이름이었다.

이러한 인류학적 해석이 얼마만한 학문적 동의를 얻고 있는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사람들이 구상하는 이상적인 낙원이나 유토피아가 어린 시절의 세계 상봉이나 행복 체험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다. 바닷가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이 구상하는 낙원은 대개 바다를 끼고 있거나 바다가 보이는 언덕에 있다. 내륙 지방에서 자란 사람은 산을 뒤로하고 앞으로 너른 들판과 강을 끼고 있는 낙원을 구상한다. 무릉도원 얘기를 전하는 도연명이 복사꽃 지천으로 피는 마을의 복숭아나무 집 아들이었을 거라고 생각해 보는 것은 결코 부질없는 공상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달새도 뜨지 않고 꽃나무도 없는 삭막한 아파트 단지에서 자란 어린이가 뒷날 구상할 낙원을 상상해 본다는 것은 섬뜩한 일이다. 자연이 없는 인공 낙원은 편리할지는 몰라도 아무래도 마음의 고향은 되지 못할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사실은 내 자신이 시골 출신이기 때문일 것이다.」

「」: 「고향」에 관한 글쓴이의 인식이 드러남 → 낙원 ≒ 고향

→ 1~2문단: 「고향」에 관한 글쓴이의 인식

나의 낙원에서 만발하는 봄꽃은 살구꽃이다. 우리가 구차했던 시절, 고향의 4월을 그나마도 살 만하게 했던 것은 여기저기 뭉게구름처럼 땡그랗게 피어 있던 그 살구꽃이었다. 그리고 그 살구나무 아래 섰을 때 온통 머리를 취하게 했던 꿀벌 소리였다. 살구꽃이 없는 낙원은 내 자리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낙원처럼 벌써 ‘낙원’이 아니리라.

→ 3문단: 「고향」의 “살구꽃”

내 낙원의 길가에는 푸른 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다. 그것은 플라타너스도 아니고 은행나무도 아니다. 현사시나무는 더더구나 아니다. 그것은 바람에 나부끼는 키 큰 미루나무이다.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재목으로 쓸모없다 치더라도 그것은 상관이 없다. 누가 뭐라건 내 낙원의 가로수는 단연코 미루나무이다. 집을 나서서 무작정 표표히 길을 떠나고 싶었던 일이 어디 한두 번이던가. 그때 남북으로 뻗어 있는 신작로에서 어서 오라고 이파리를 흔든 것이 미루나무였다. 미루나무는 나그네의 훌훌함과 설움을 아는 고향의 바람잡이였다. 고향 마을의 ‘소리 없는 아우성’이었다.

→ 4문단: 고향의 “미루나무”

내 낙원에는 또 하루같이 수수밭이 있다. 그리고 그 밭둑에는 강낭콩이 심어져 있다. 그리고 그 한옆으로 감자밭이 보인다. 어떤 동요 시인이 노래한 감자꽃이 피어 있는 정든 감자밭이다.

→ 5문단 : "고향"의 "수수밭", "강낭콩", "감자밭"

자주 꽃 핀 건 자주 감자

파 보나마나 자주 감자

하얀 꽃 핀 건 하얀 감자

파 보나마나 하얀 감자

이 동요가 주는 감동을 도회에서 자란 사람들은 깨닫지 못할 것이다. 자주 꽃 핀 것을 파 보면 으레 자주 감자였다는 사실이 주는 놀라움을 체험하지 못해 본 사람은 이 소박한 동요가 안겨 주는 경이(驚異)의 재경험을 실감하지 못할 것이다. 이 동요는 또 모든 자연 현상의 세밀한 관찰을 권고하는 놀라움에의 초대이기도 하다. 수확의 즐거움은 누구나 얘기해서 별 뜻 없는 말이 되어 버렸다. 그러나 감자 캐기는 수확의 즐거움을 알려 주는 모범 사례일 것이다. 호미로 감자알을 캐는 것은 일이 아니라 차라리 놀이였다. 더는 나오지 않으려니 하고 호미질을 하다 보면 감자알은 또 나오게 마련이다. 이제는 정말 더 안 나오려니 하고 짐짓 호미질을 했을 때 신(神)의 마지막 선물처럼 홀연히 드러나는 감자알의 축복. 그 후 우리는 삶 속에서 그러한 가외의 행운을 영 받아 보지 못하고 말았다. 어디엔가 "가외" : 일정한 기준이나 정도의 밖. 우리들의 낙원이 있다면 그곳에선 일하기가 감자캐기처럼 놀이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러한 뜻에서 감자는 우리들의 낙원의 양식이다.

→ 6~7문단 : "고향"에서의 "감자캐기"

나의 낙원에는 말할 것도 없이 새소리가 흔하다. 종달새라고 하기보다 노고지리라고 적는 것이 더 어울리는 저 초봄 새의 지저귀이 따오른다.

보리 이삭 돌아나면

종달새 간다지

떠나는 그날에도

보리피리 불어 주마

보리밭 가에서 이런 노래를 불렀던 시절이 다시 올 리는 없다. 다시 돌려준다 하더라도 우리 편에서 받아들이는지는 의문이다. 험난한 세월이 안겨 준 쓴잔의 뒷맛이 아직도 혀끝에 남아 있지 않은가. 그러나 초봄의 노고지리와 초여름의 빠꾸기, 그들 없이 나의 낙원은 완결되지 못한다. 그리고 또 있다. 소리보다도 모양으로 우리들의 어린 시절을 장식했던 여름철의 황새와 가을날의 기러기 떼. 이들이 낙원을 떠난 지는 참으로 오래되었다.

→ 8~10문단 : "고향"의 새들

나의 낙원에는 또 강이 흐르고 모래톱이 있다. 모래톱에서 만리성을 쌓은 적이 있다.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쌓으며
"모래톱" : 모래사장.
헐며 긴 만리성을 쌓았다. 또 강가에서 팔매질을 하였다. 멀리 가는 것이 미래의 행복의 지표인 양 던지고 또 던지곤 하였다. 회수할 길
"팔매질" : 작고 단단한 돌 따위를 손에 쥐고, 팔을 힘껏 흔들어서 멀리 내던지는 짓.
없는 팔매돌과 무너진 지 오래인 성벽을 나의 낙원은 지금껏 간수하고 있을까? 알 수 없는 일이다.

→ 11문단 : "고향"의 "강"과 "모래톱"

여기까지 적고 보니 나의 낙원은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가난하다. 냉장고가 없고 자동차가 없고 아스팔트가 없다. 있는 것은 푸른 하늘과 청명한 나날과 맑은 공기와 구차한 이웃들뿐이다. 노고지리 뜨는 보리밭과 소리 없는 아우성으로 몸이 기울어진 미루나무와 나룻배가 떠 있는 강물이 있을 뿐이다. 낙원의 구상은 아무래도 고향과 어린 시절의 재구성임을 면치 못하는 것인가 보다.

→ 12문단 : "낙원"과 고향"의 밀접한 연관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여수 남쪽을 여행한 글쓴이의 생각이 드러난 기행 수필이다. 봄에 자전거 여행 중인 글쓴이는 봄꽃이 핀 풍경을 바라 보며 봄에 대한 자신의 인상을 드러내며, 낙화를 통해 생의 의미를 고찰한다. 이어서 두 명의 승려가 쓴 봄과 꽃에 관한 시들을 소개 하며 봄의 적막과 관능에 대해 이야기한다.

‘바다로 나아가고 싶은 거북’이라는 소재목이 달린 여수 돌산도 향일암에 대한 설명은 형식에 제약이 없는 수필의 갈래적 특징을 잘 드러내 준다.

주제

해안 풍경을 관찰하며 발견한 봄과 삶에 대한 사색

표현상의 특징

① 감각적 표현을 사용함.

예 “돌산도 향일암 앞바다의 동백 숲은 바닷바람에 수련거린다.”, “절정에 도달한 그 꽃은, 마치 백제가 무너지듯이, 절정에서 문득 추락해 버린다. ‘눈물처럼 후드득’ 떨어져 버린다.” 등

② 시를 삽입함.

예 “아침 내내 오는 이 없어(終朝少人到) / 귀촉도는 제 이름을 부르며 운다(杜宇自呼名)”, “꽃피어 봄 마음 이리 설레니(瑤草芳兮春思芬) / 아, 이 젊음을 어찌할거나(蔣奈何兮是青春)”

여수의 남쪽, 돌산도 해안선에 동백이 피었다. 산수유도 피고 매화도 피었다. 자전거는 길 위에서 겨울을 났다. 겨울에는 봄의 길들을 떠올릴 수 없었고, 봄에는 겨울의 길들이 멀어지지 않는다. 다 지나오고 나도, 지나온 길들이 아직도 거기에 그렇게 뻗어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다. 그래서 모든 길은 처음부터 다시 가야 할 새로운 길이다. 겨우내 끌고 다니던 월동 장구를 모두 다 버렸다. 방한복, 장갑, 털양말도 다 벗어 버렸다. 몸이 가벼워지면 길은 더 멀어 보인다. 티셔츠 차림으로 꽃 피는 남쪽 바다 해안선을 따라 달릴 때, 온몸의 숨구멍이 바람 속에서 열렸다.

“장구”: 어떤 일을 하려고 몸에 지니는 기구.

“월동”: 겨울을 남.

돌산도 향일암 앞바다의 동백 숲은 바닷바람에 수련거린다. 동백꽃은 해안선을 가득 메우고도 군집으로서의 현란한 힘을 이루지 않는다. 동백은 한 송이의 개별자로서 제각기 피어나고, 제각기 떨어진다. 동백은 떨어져 죽을 때 주접스런 꼴을 보이지 않는다. 절정에 도달한 그 꽃은, 마치 백제가 무너지듯이, 절정에서 문득 추락해 버린다. ‘눈물처럼 후드득’ 떨어져 버린다.

→ 1~2문단: 겨울이 지나고 해안선을 가득 메운 “동백꽃”

돌산도 울림리 정미자 씨 집 마당에 매화가 피었다. 1월 중순에 눈 속에서 봉오리가 맺혔고, 이제 활짝 피었다. 매화는 잎이 없는 마른 가지로 꽃을 피운다. 나무가 몸속의 꽃을 밖으로 밀어내서, 꽃은 뿔어져 나오듯이 피어난다. 매화는 피어서 군집을 이룬다. 꽃 핀 매화 숲은 구름처럼 보인다. 이 꽃구름은 그 경계선이 흔들리는 봄의 대기 속에서 풀어져 있다. 그래서 매화의 구름은 혼곤하고 몽롱하다. 이것은 신기루다. 매화는 질 때, 꽃송이가 떨어지지 않고 꽃잎 한 개 한 개가 날날이 바람이 날려 산화(散華)한다. 매화는 바람에

“혼곤하다”: 정신이 흐릿하고 고달프다.

“산화하다”: ① 어떤 대상이나 목적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다.

② 꽃을 뿌리며 부처를 공양하다.

불러 가서 소멸하는 시간의 모습으로 꽃보라가 되어 사라진다. 가지에서 떨어져서 땅에 닿는 동안, 바람에 흩날리는 그 잠시 동안이 매화의 절정이고, 매화의 죽음은 풍장이다. 배꽃과 복사꽃과 벚꽃이 다 이와 같다.

→ 3문단: “돌산도 울림리 정미자 씨 집 마당”의 “매화”

“풍장”: 시체를 태우고 남은 뼈를 추려 가루로 만든 것을 바람에 날리는 장사.

선암사 뒷산에는 산수유가 피었다. 산수유는 다만 어른거리는 꽃의 그림자로서 피어난다. 그러나 이 그림자 속에는 빛이 가득하다. 빛은 이 그림자 속에 오글오글 모여서 들끓는다. 산수유는 존재로서의 중량감이 전혀 없다. 꽃송이는 보이지 않고, 꽃의 어렴풋한 기운만 파스텔처럼 산야에 번져 있다. 산수유가 언제 지는 것인지는 눈치채기 어렵다. 그 그림자 같은 꽃은 다른 모든 꽃들이 피어나기

“중량감”: 물체의 무게에서 오는 묵직한 느낌.

“산야”: 산과 들을 아울러 이르는 말.

전에, 노을이 스러지듯이 문득 종적을 감춘다. 그 꽃이 스러지는 모습은 나무가 지우개로 저 자신을 지우는 것과 같다. 그래서 산수유는 꽃이 아니라 나무가 꾸는 꿈처럼 보인다.

→ 4문단: “선암사 뒷산”의 “산수유”

산수유가 사라지면 목련이 핀다. 목련은 등불을 켜듯이 피어난다. 꽃잎을 아직 오므리고 있을 때가 목련의 절정이다. 목련은 자의식에 가득 차 있다. 그 꽃은 존재의 중량감을 과시하면서 한사코 하늘을 향해 봉오리를 치켜올린다. 꽃이 질 때, 목련은 세상의 꽃 중에서 가장 남루하고 가장 참혹하다. 누렇게 말라비틀어진 꽃잎은 누더기가 되어 나뭇가지에서 너털거리다가 바람에 날려 땅바닥에 떨어진다. “남루하다” : 옷 따위가 낡아 해지고 차림새가 너저분하다. 목련꽃은 냉큼 죽지 않고 한꺼번에 통째로 툭 떨어지지도 않는다. 나뭇가지에 매달린 채, 꽃잎 조각들은 저마다의 생로병사를 끝까지 치러 낸다. 목련꽃의 죽음은 느리고도 무겁다. 천천히 진행되는 말기 암 환자처럼, 그 꽃은 죽음이 요구하는 모든 고통을 다 바치고 나서야 비로소 떨어진다. 펄럭, 소리를 내면서 무겁게 떨어진다. 그 무거운 소리로 목련은 살아 있는 동안의 중량감을 마감한다. 봄의 꽃들은 바람이 데려가거나 흙이 데려간다. 가벼운 꽃은 가볍게 죽고 무거운 꽃은 무겁게 죽는데, 목련이 지고 나면 봄은 다 간 것이다.

→ 5문단 : “봄”의 끝을 일리는 “목련”

향일암 앞바다의 동백꽃은 사람을 쳐다보지 않고, 봄빛 부서지는 먼바다를 쳐다본다. 바닷가에 핀 매화 꽃잎은 바람에 날려서 눈처럼 바다로 떨어져 내린다.

“명멸” : ① 먼 곳에 있는 것이 보였다 안 보였다 함.
② 나타났다 사라졌다 함.

매화 꽃잎 떨어지는 봄 바다에는, 나고 또 죽는 시간의 가루들이 수억만 개의 물비늘로 반짝이며 명멸을 거듭했다. 사람의 생명 속을 흐르는 시간의 풍경도 저러할 것인지는 알 수 없었으나, 봄 바다 위의 그 순결한 시간의 빛들은 사람의 손가락 사이를 다 빠져나가서 사람이 그것을 움켜질 수 없을 듯싶었고, 그 손댈 수 없는 시간의 바다 위에 꽃잎은 막무가내로 쏟아져 내렸다.

봄은 숨어 있던 운명의 모습들을 가차 없이 드러내 보이고, 거기에 마음이 부대끼는 사람들은 봄빛 속에서 몸이 파리하게 마른다. “파리하다” : 몸이 마르고 낮빛이나 살색이 핏기가 전혀 없다. 봄에 몸이 마르는 슬픔이 춘수(春瘦)다.

→ 6~8문단 : “봄”과 낙화를 보며 슬퍼하는 사람들

13세기 고려 선종 불교의 6세 조사 충지(沖止, 1226~1292)는 지눌(知訥) 문중의 대선사였다. 송광사에 오래 머무르면서 왕이 불러도 청병하고 나아가지 않았다. 충지는 초봄에 입적했다. 충지는 숨을 거둘 때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은 평탄하구나. 너희들은 잘 있으라”라고 말했다. 대지팡이 하나로 삶을 마친 이 고승도 때때로 봄날의 적막을 견디기 어려웠던 모양이다. 산사의 어느 봄날에 충지는 시 한 줄을 썼다.

→ 9문단 : 초봄에 입적한 “충지”

아침 내내 오는 이 없어(終朝少人到)

귀촉도는 제 이름을 부르며 운다(杜宇自呼名)

이것은 깨달은 자의 오도송(悟道頌)이 아니라, 사람 사는 마을의 봄을 그리워하는 노래다. 이 그리움은 설명적 언어의 탈을 쓰고 있지 않다. 그리고 이 그리움의 길은 출구가 없다. 봄의 새들은 저마다 제 이름을 부르며 울고, 제 이름을 부르며 우는 울음은 끝끝내 위로받지 못한다. 봄에 지는 모든 꽃들도 다 제 이름을 부르며 죽는 모양이다.

→ 10~11문단 : “충지”의 시

설요(薛瑤)는 한국 한문학사의 첫 장에 나온다. 7세기 신라의 젊은 여승이다. 그 여자의 몸의 아름다움과 시 한 줄만이 후세에 전해진다. 그 시 한 줄은 봄마다 새롭다. 이 젊은 여승의 몸은 꽃피는 봄 산의 관능을 견딜 수 없었다. 그 여자는 시 한 줄을 써놓고 절을 떠나 속세로 내려왔다.

꽃피어 봄 마음 이리 설레니(瑤草芳兮春思芬)

아, 이 젊음을 어찌할거나(蔣奈何兮是青春)

이것은 대책이 없는 생의 충동이다. 그 충동은 위태롭고 무질서하다. 한문학자 손종섭은 이 시에 대해서 “아, 한 젊음을 늙히기에 저리도 힘들이어!”라고 썼다. 이 노래의 제목은 〈세상으로 돌아가는 노래(返俗謠)〉이다. 절을 떠날 때 그 여자는 스물한 살이었다. 속세로 내려와서 그 여자는 시 쓰는 사내의 첩이 되었고, 당나라를 떠돌다가 통천(通泉)에서 객사했다.

→ 12~14문단 : “설요”의 시

7세기의 봄과 13세기의 봄이 다르지 않고, 올 봄이 또한 다르지 않다. 그 꽃들이 해마다 새롭게 피었다 지고, 지금은 지천으로 피어 있다.

→ 15문단 : “충지”의 시와 “설요”의 시를 통해 본 “봄”

바다로 나아가고 싶은 거북

향일암(向日庵)은 여수 돌산도 맨 남쪽 벼랑 위의 절이다. 멀리서 보면 해안 단애 위에 붉은 바다제비의 집과 같다. 벼랑 끝에 종루가 세워져 있다. 이 절에서 종을 치면 종소리는 바다 속의 물고기와 자라들에게로 퍼진다.

“바다제비” : 솜새과의 새.

“단애” : 깎아 세운 듯한 낭떠러지.

“종루” : 종을 달아 두는 누각.

이 절은 영귀암(靈龜庵)이라 불리기도 한다. 절을 안고 있는 금오산(해발 323미터)은 마치 물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이제 막 바닷가에 도착한 거북의 모습이다. 이 거북이 등 위에 절을 싣고 바다로 나아가려 하고 있다. 거북의 앞발 한 쌍은 벌써 물속에 담가져서 땅을 밀쳐내고 앞으로 나아가려 하는데, 거북은 수천 년 동안 땅에 들러붙어서 바다로 가지 못한다. 거북은 머리를 들어서 먼 바다를 보고 있고, 절도 먼 바다를 바라보면서 갈 수 없는 바다로 종을 때려서 소리를 보낸다.

→ 16~17 문단 : “거북”을 닮은 “향일암”의 모습

신라 선덕여왕 13년(서기 644년)에 원효가 이 절을 창건했다고 하나 확실치 않다. 절로 올라가는 길은 기암절벽의 바위 틈새로 난 길을 비집고 한 사람씩 겨우 지나갈 수 있다. 바위 틈새의 길은 어둡고 또 구불구불하다. 절 마당에 이르면 갑자기 남해의 푸른 바다가 눈앞에 펼쳐져서, 이 절 마당은 수직적인 고양감과 수평적인 무한감으로 가득하다. 멀리서 보면 새 둥지처럼 작은 절이고, 절 마당에서 보면 우주처럼 큰 절이다.

벼랑 아래 바닷가 동백 숲에는 동백꽃이 피었다. 바람이 스칠 때마다 꽃들은 똑똑 떨어지고, 바다로 가지 못하는 거북의 등 위에서 사람들은 관세음보살을 수없이 부르고 있다.

→ 18~19 문단 : “향일암”의 유래와 아름다운 경치, “동백꽃”과 “향일암”이 있는 “금오산”의 풍경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거꾸로 보기를 통해 고정 관념을 깨고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삶의 태도를 강조하는 수필이다. 산을 거꾸로 보며 신선함을 느낀 글쓴이는 선입견에서 벗어나면 새로운 면을 볼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게 된다. 또한 글쓴이는 작은 수도원의 풍경을 보고 겉치레만 중시하는 오늘날의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도 드러낸다.

주제

거꾸로 보기를 통해 얻은 깨달음

표현상의 특징

- 구체적인 경험을 제시함.
 - 예 “재작년이던가, 여름날에 있었던 일이다.”, “지난 3월 서울에 갔을 때, 가톨릭 신자인 데레사의 인도로 어떤 수도원을 찾아 간 일이 있다.” 등
- 비유적 표현을 사용함.
 - 예 “요는 그 차가 지닌 특성을 알맞게 우릴 때 바로 ‘그 차 맛’을 알 수 있다. 사람의 일도 마찬가지다.”

“뒤결” : 집 뒤에 있는 풀이나 마당.
 침묵의 숲이 잔기침을 하면서 한 겨풀씩 깨어나고 있다. 뒤결 고목나무에서 먹이를 찾느라고 쪼아 대는 딱따구리 소리가 자주 들리고,
 “꺼풀” : 여러 겹으로 된 겹질이나 겹데기의 층을 세는 단위.
 산비둘기들의 구우구우거리는 소리가 서럽게 들려오고 있다.

해마다 이맘때면 숲을 찾아오는 저 휘파람새. 할미새가 뜰에 내려와 까불까불 가벼운 몸짓으로 인사를 한다. 저 아래 골짜기에 서부터 안개처럼 보얗게 새 움이 터서 밀물처럼 산허리로 올라오고 있다.

멀지 않아 숲에는 수련수련 신록의 문이 열리리라. 그때는 나도 숲에 들어가 한 그루 정정한 나무가 되고 싶다. 나무들처럼 새 움을
 “신록” : 늦봄이나 초여름에 새로 나온 잎의 푸른빛.
 틔우고 가지를 뻗으면서 연둣빛 물감을 풀어내고 싶다. 가려운 속들을 푹처럼 활짝 열어 보이고 싶다.

허허, 이 봄날이 나를 흔들려고 하네. → 1~4문단 : 봄의 풍경

귀는 항상 들던 소리를 즐거워하고 눈은 새로운 것을 보고자 한다는 말은 그럴 법하다. 음악을 듣더라도 귀에 익은 곡만을 즐겨 듣고, 새것을 찾아 눈은 구경거리의 발길을 멈추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나 귀는 좀 보수적이고 눈은 제법 진보적인 셈이다. → 5문단 : “눈”과 “귀”의 다른 속성

재작년이던가, 여름날에 있었던 일이다. 날씨가 화창하여 밀린 빨래를 해치웠었다. 성미가 비교적 급한 나는 빨래를 하더라도 그날로 풀을 먹여 다려야지 그러지 않으면 찢찢해서 심기가 홀가분하지 않다. 그날도 여름 옷가지를 빨아 다리고 나서 노곤해진 몸으로 마루에 누워 쉬려던 참이었다. 팔베개를 하고 누워서 서까래 끝에 열린 하늘을 무심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모로 돌아누워 산봉우리에
 “서까래” : 마룻대에서 도리 또는 보에 걸쳐 지른 나무.
 눈을 주었다. 「갑자기 산이 달리 보였다. 하, 이것 봐라 하고 나는 벌떡 일어나, 이번에는 가량이 사이로 산을 내다보았다. 우리들이 어린 시절 동무들과 어울려 놀이를 하던 그런 모습으로.

그건 새로운 발견이었다. 하늘은 호수가 되고, 산은 호수에 잠긴 그림자가 되었다. 바로 보면 굴곡이 심한 산의 능선이 거꾸로 보니 훨씬 유장하게 보였다. 그리고 숲의 빛깔은 원색이 날날이 분해되어 멀고 가까움이 선명하게 드러나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랐다.」 나는
 「」 : “산”을 거꾸로 보고 새로운 것을 발견한 글쓴이의 모습이 나타남.
 하도 신기해서 일어서서 바로 보다가 다시 거꾸로 보기를 되풀이했었다. → 6~7문단 : 거꾸로 본 “산”

이러한 동작을 누가 지켜보고 있었다면 필시 미친 중으로 여겼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나는 새로운 사실을 캐낼 수 있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람을 대하거나 사물을 보고 인식하는 것은 틀에 박힌 고정 관념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알아 버린 대상에서는 새로운 모습을 찾아내기 어렵다. 아무게 하면, 자신의 인식 속에 들어와 이미 굳어 버린 그렇고 그런 존재로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견 얼마나 그릇된 오해인가. 사람이나 사물은 끝없이 형성되고 변모하는 것인데.

그러나 보는 각도를 달리함으로써 그 사람이나 사물이 지닌 새로운 면을, 아름다운 비밀을 찾아낼 수 있다. 우리들이 시들하게 생각하는 그저 그렇고 그런 사이라 할지라도 선입견에서 벗어나 맑고 따뜻한 '열린 눈'으로 바라본다면 시들한 관계의 틀에 생기가 돌 것이다.』 『』: 거꾸로 보기를 통해 얻은 깨달음이 드러남.

내 눈이 열리면 그 눈으로 보는 세상도 함께 열리는 법이다.

→ 8~11문단 : 거꾸로 보기를 통해 얻은 깨달음

인도의 명사가이며 철학자, 그리고 구루(영적인 스승)인 크리슈나무르티는 그의 저서 『아는 것으로부터의 자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우리가 보는 법을 안다면 그때는 모든 것이 분명해질 것이다. 그리고 보는 일은 어떤 철학도, 선생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아무도 당신에게 어떻게 볼 것인가를 가르쳐 줄 필요가 없다. 당신이 그냥 보면 된다.

그 어떤 고정 관념에도 사로잡히지 말고 허심탄회 빈 마음으로 보라는 것. 남의 눈을 빌릴 것 없이 자기 눈으로 볼 때 우리는 대상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거라는 말이다.

→ 12~14문단 : "크리슈나무르티"의 말

『차를 즐기는 사람들은 흔히 이런 말을 한다. 어디서 나오는 무슨 차는 맛이 좋고, 어디 차는 맛이 시원치 않다고. 물론 기호에 따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차 맛에 어떤 표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 형편없는 차감만 아니라면 한 잔의 차를 통해 삶에 대한 잔잔한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요는 그 차가 지닌 특성을 알맞게 우릴 때 바로 '그 차 맛'을 알 수 있다. 사람의 일도 마찬가지다. 인격에 고정된 어떤 틀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사람이 지닌 좋은 덕성을 찾아낼 수 있다면, 그는 내게 좋은 친구가 될 것이다.』

『』: "사람"을 "차"에 빗대어 표현함.

→ 15문단 :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기 위한 글쓴이의 생각

한동안 나는 그 희한한 광경을 혼자서만 즐길 수 없어, 내 산거(山居)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널리 보여 주었다. 나이 많은 노스님이건 어린 사미승이건, 신사와 숙녀를 가릴 것 없이 나는 마치 숙달된 조교처럼 그들 앞에서 앞산을 거꾸로 내다보는 동작을 해 보였다. 그러면 그들도 천진한 어린이가 되어 거꾸로 내다보면서 좋아라 했다.

이렇다 할 구경거리가 없는 산이라 사물을 보는 또 하나의 시각을 통해 함께 즐기곤 했었다. 좀 점잖지 못한 동작이긴 하지만, 여럿이서 그런 놀이를 하고 있을 때의 광경 또한 볼 만한 것이었다. 이런 산중 아니고야 모두가 점잔만 빼는 이 세상 어디에서 그런 동작을 지을 수 있겠는가.

→ 16~17문단 : 여러 사람과 즐긴 산 거꾸로 보기

지난 3월 서울에 갔을 때, 가톨릭 신자인 테레사의 인도로 어떤 수도원을 찾아간 일이 있다. 수도원이라고 하면 번듯한 건물에 담장이 높고 오래 수위실이 있을 것을 연상한다. 그러나 우리가 찾아간 그 수도원은 동네 끝 야산 아래 있는 조그만 초가집이었다. 경기도 고양군 중면 일산 9리 밤가시골. 학생들 가슴에 다는 명패만 한 크기의 문패, ‘예수의 작은 자매회’라고 빛이 바랜 나무쪽에 쓰여 있었다. 그 문패처럼 이 세상에서 아마도 가장 작은 수도원일 것이다. 마을 집을 사서 들어왔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엔 여느 민가나 다름이 없었다.

성당은 대청마루, 아무 장식도 없고 벽에 붙인 조그만 감실(龕室)과 그 아래 켜져 있는 호롱불, 재래식 밥상이 하나 놓여 있었는데, “감실” : 성당 안에 성체를 모셔 둔 곳. 제대(祭臺)로 쓰이는 것인가. 프랑스에서 왔다는 수녀님 두 분과 수련 수녀까지 합해서 열 사람도 채 안 되는 조촐한 모임이었다. “제대” : ‘제단’의 전 용어. → 18~19문단 : 작은 “수도원”의 풍경

마침 점심 시간이 되어 주인과 나그네가 함께 한 상에 둘러앉아 구수한 냉이국과 김치에 맛있는 공양을 했다. 처음 찾아간 나그네에게도 전혀 부담을 주지 않는 편안한 집이었다. 이곳 자매들은 마을에 일손이 바빠지면 밭에 나가 일을 거든다고 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에게는 고맙고 가까운 이웃인 모양이다. 조그마한 초가에서 항상 웃음이 넘치는 걸 보고, 수도회의 이름 그대로 ‘작은 자매들의 우애회’로구나 싶었다.

아마 초기 교회가 이와 같았으리라. 신라 때 일선군 모레네 집을 절로 만들었을 때도 그랬으리라. 그러나 오늘의 교회나 사원은 건물만 하더라도 얼마나 호화롭고 비대해졌는가. 건물과 기구가 비대해진 만큼 그 종교가 지닌 본래의 기능이 순수하게 이행되고 있을까. “비대하다” : 권력이나 권한, 조직 따위가 일정한 범위를 넘어서 강대하다. 혹시나 선민의식에 도취되어 수도자와 시민들 사이가 물에 기름 돌 듯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선민의식” : 이스라엘 사람들이 느끼는 종교적이고 민족적인 우월감.

일산의 밤가시골 초가집 수도원에서 오늘의 교회와 사원을 바라보는 ‘눈’을 나는 그날의 선물로 받아 왔다.

가난하고 소탈하고 그러면서도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자매들의 있음이, 겉치레로 속이 비어 가는 오늘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 되었으면 싶었다. → 20~23문단 : 작은 “수도원”을 보고 느낀 소회